學術調査報告 第393册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I

135 ~ 144

2019

한국문화재재단

〈일 러 두 기〉

1. 유구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서로 22.5°범위 내에 해당되면 남-북향, 22.6~67.5°는 북동-남서/북서-남동향, 67.6~90°는 동-서향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
2. GPS 좌표값은 측지기준계 :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 GRS80, 투영법 : TM, 투영원점은 경도를 기준으로 124~126°는 서부원점, 126~128°는 중부원점, 128~130°는 동부원점, 130~132°는 동해원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는 크기 및 성격에 따라 1/20~1/180을 적용하였으며, 유물은 토기 및 자기 1/3, 기와 1/4~1/6, 철기 · 석기 · 목기 1/2~1/3, 장신구 1/1~1/2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도면 하단에 축척을 함께 표기하였다.
4. 유구의 입 · 단면도에 표기한 수치는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5. 유물은 같은 기종이 4점 이상인 경우 표로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토기류 중 호는 기고 및 동최대경이 45㎝ 이상일 경우 대호로 분류하였다.
6. 유물의 기고는 중심선을 계측하였으며, 片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7. 유물 기술 중 태토에 함유된 모래 입자의 굵기에 따라 0.1㎝ 미만을 세사립, 0.1~0.2㎝는 사립, 0.3~0.4㎝는 세석립, 0.5㎝ 이상은 석립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8. 토기(기와)는 소성된 상태에 따라 도질(경질), 연질로 구분하였다. 800℃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회청색, 회색, 흑회색을 띠며, 경도가 강하여 흡수성이 거의 없고 대체로 자연유로 인해 기면에 유리질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도질(경질)로, 산화염에서 구운 토기로 적갈색계통의 색조를 띠는 것을 연질로 구분하였다.
9. 인화문토기의 문양 중 종장연속문의 시문은 "宮川禎一"(1988,「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叢, 歷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事業會)의 문양 시문수법을 참고하여 종방향으로 한번 찍었거나 겹쳐서 찍은 문양은 'A'시문수법, '∧'자 또는 'V'자 형태로 꼭지점의 반대쪽을 벌어지게 찍은 문양은 'B'시문수법, 종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찍은 문양은 'C'시문수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0. 기와는 정치한 상태에서 4등분하여 좌측 상 · 하부, 우측 상 · 하부로 구분하고 잔존 및 결실 부위를 기술하였다.
11. 본문 표의 규격 중 (　) 안의 수치는 잔존치를 의미한다.
12. 유구의 토층과 유물의 색조는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감수 · 재단법인 일본색채연구소 색표 감수,『신판 표준토색첩』, 2007" 및 Albert H.Munsell,『MUNSELL SOIL COLOR CHART』, 1994, revised edition을 참고하였다.
13. 본 보고서의 일러두기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에만 해당되며, 기타 기관의 일러두기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14. 본 보고서는 172개 유적을 조사완료일 순으로 편집하여 상반기(6월 27일)에 96개 유적을 14권으로, 하반기(12월 23일)에 76개 유적을 11권으로 각각 묶어 인쇄한다. 각 권별 유적 수록 목록은 Ⅱ권부터 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에 게재하였다.
15.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목 차

135. 광주 상번천리 526-1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35-1
136. 옥천 금산리 157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36-1
137. 안성 중복리 605-4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37-1
138.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38-1
139. 사천 선진리 1055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139-1
140. 서울 효자동 33-1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40-1
141. 대전 읍내동 338-1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41-1
142. 춘천 신매리 210-2번지 외 1필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142-1
143. 울주 석천리 250-4번지 외 1필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143-1
144. 제주 광령리 1607-5번지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 144-1

135. 광주 상번천리 526-1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35-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35- 9

Ⅲ. 조사내용 …… 135-17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 135-19
1) 유구 …… 135-19
2) 유물 …… 135-2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 135-22
1) 공방지 …… 135-22
2) 수혈유구 1~4호 …… 135-27
3) 주혈 …… 135-32

Ⅳ. 조사성과 …… 135-33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35-1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35-11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35-16
도면 4.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 135-18
도면 5.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유구배치도 …… 135-20
도면 6.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수습유물 …… 135-21
도면 7.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유구배치도 …… 135-23
도면 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 및 출토유물1 …… 135-24
도면 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 출토유물2 …… 135-27
도면 1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1 · 2호 및 1호 출토유물 …… 135-29
도면 1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 · 4호 및 3호 출토유물 …… 135-31
도면 1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주혈 …… 135-32

도 판 목 차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전, ②조사후) …… 135-41
도판 2.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태토찌꺼기 폐기장(①조사전, ②토층, ③유물출토상태, 1~2:출토유물) …… 135-42
도판 3.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수혈유구 1~3호 조사전(①~③) 및 주혈 조사전(④) …… 135-43
도판 4.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①조사전, ②조사중) …… 135-44
도판 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①조사후, ②덮개돌 상면, ③④덮개돌 상면 세부) … 135-45
도판 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①②고래열 토층, ③고래열, ④⑤고래열 세부, ⑥추정 아궁이부, ⑦추정 아궁이부 토층, ⑧유물출토상태)…… 135-46
도판 7.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 출토유물 …… 135-47
도판 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⑤유물출토상태, 9~11:출토유물) …… 135-48
도판 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및 3호 조사전(④) …… 135-49
도판 1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 135-50
도판 1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호(①②유물출토상태, 12~16:출토유물) 및 4호(③조사전, ④조사중) …… 135-51
도판 1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4호(①조사후, ②토층), 주혈(③조사전, ④조사후, ⑤토층), 학술자문회의(⑥) …… 135-52

Ⅰ.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는 사업시행자 손종학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526-1번지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광주시에서는 사업부지가 사적 제314호로 지정된 광주조선백자요지(23)의 현상변경 2구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번천리 5 · 15호 도요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시굴조사[1]는 대행조사를 의뢰받은 중부고고학연구소에서 2017년 7월 10일 문화재청의 허가(제2017-1255호)를 받은 후 7월 24일에서 7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트렌치 2에서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상부문화층에서는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고 하부문화층에서는 주혈 2개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7월 28일 학술자문회의[2]를 개최하였으며, 회의결과 전체면적(341㎡) 중 유구가 확인되는 트렌치 2 부분(180㎡)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광주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밀발굴조사 실시 및 국비지원에 해당됨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국비지원 사업의 상반기 결산 결과 예년보다 소규모 접수건이 폭증하여 당해 소규모 국비지원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를 진행한 중부고고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산집행의 효율상 재단이 직접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중부고고학연구소와 협의하여 본 재단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후 사업시행자는 6월 7일 문화재협업포털을 통해 본 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9월 25일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9월 2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5일에 대한 허가(허가제2017-1255호)를 득한 후 9월 28일 발굴조사를 착수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하부문화층은 태토찌꺼기 폐기장 1기, 수혈유구 3기, 주혈 6개 등이 확인되었고 상부문화층에서는 공방지 1기, 수혈유구 4기, 주혈 1개 등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책임조사원 : 이 창 욱(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 김 정 민(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조 은 이(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 양 현 승(조사연구2팀 연구원)

---

1) (재)중부고고학연구소, 2017,「광주 상번천리(526-1번지)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 자문위원 :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경중(경기도자박물관 연구사)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진호(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김정민 · 조은이가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유혜원 · 김선미 · 임희정(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김정민 · 유혜원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이순희(시림 아카이브)가 촬영하였다.

원고는 Ⅰ · Ⅱ장 김정민, Ⅲ장 김정민(조사내용 및 유구) · 유혜원(유물), Ⅳ장 김정민이 작성하였으며, 이진호가 수정하고 교정 및 교열은 정훈진(조사연구2팀장)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발굴조사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526-1번지에 해당하며, 경·위도상 동경 127°26′98″, 북위 37°44′60″이다. 조사대상지는 남한산성면사무소 북쪽에 개설된 회안대로를 따라 동쪽으로 2.6㎞ 진행하면 상번천삼거리가 있고 삼거리에서 해공로를 따라 600m 직진하면 다시 삼거리가 나온다. 이 삼거리에서 동쪽으로 470m 더 진행하면 남쪽에 조사대상지가 위치한다.

유적의 북쪽으로 약 60m 떨어져 폭 18~20m의 번천천이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흐르고 번천천 너머에는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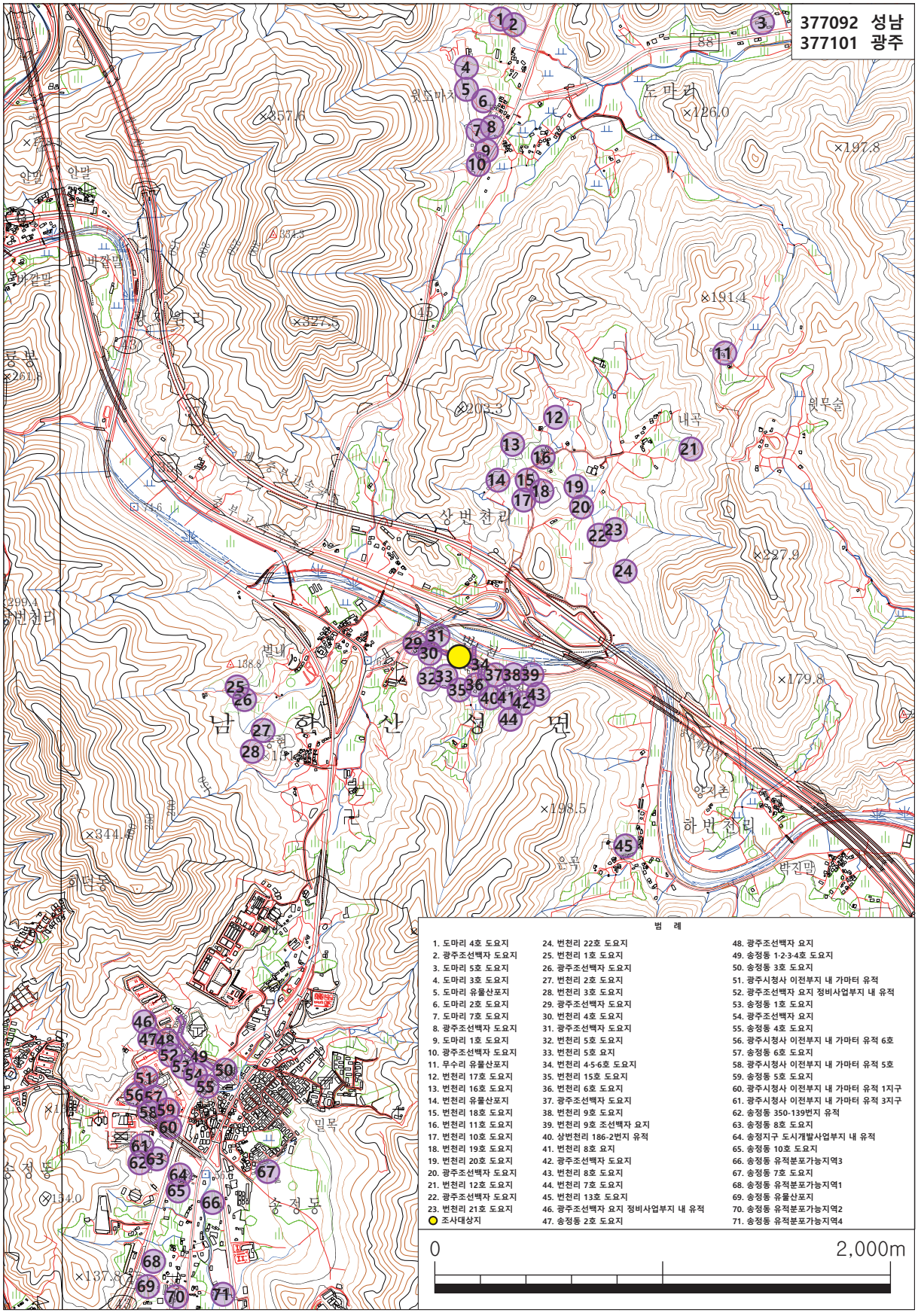
자연·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광주시는 수리적으로 동경 127°08′~127°27′, 북위 37°15′~37°32′에 동쪽으로는 앵자봉(해발 666.8m)과 천덕봉(해발 634.5m)의 능선을 경계로 양평군과 여주군, 남으로는 천덕봉과 정개산(해발 406.7m)을 경계로 이천시와 접해 있으며, 정광산(562.1m)·노고봉(해발 578.2m)·발이봉(해발 400.5m)을 잇는 능선과 불곡산(해발 344m)까지 불규칙하게 이어진 능선을 경계로 용인시와 인접해 있다. 서쪽으로는 불곡산에서 검단산(해발 534.7m)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경계로 성남시와 인접하며, 북쪽에는 한강을 경계로 남양주시·양평군과 접하고 있다.

조사대상지가 속해있는 남한산성면은 현 광주시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남종면·퇴촌면, 서쪽은 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 남쪽은 오포읍·초월읍, 북쪽은 하남시 춘궁동과 접한다. 남한산성면의 북쪽에서 서쪽으로 검단산·용마산·남한산이 면을 에워싸고 있으며, 동쪽에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되는 팔당호에서 한강의 지류인 경안천이 면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곡류한다. 경안천 유역은 벼농사 및 하우스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기슭의 저지대에서는 밭농사가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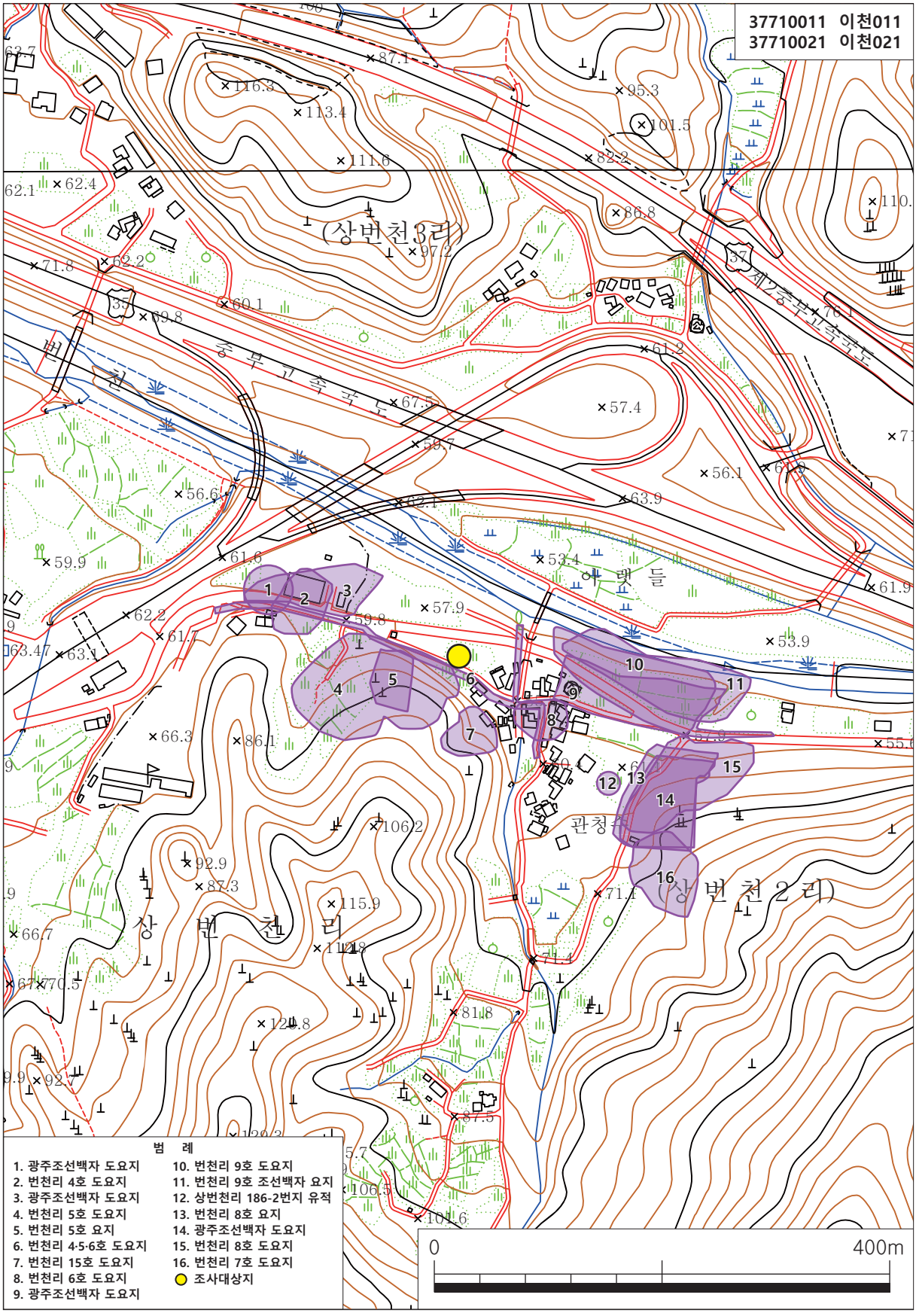
광주시의 총면적은 430.96㎢로 전체 면적의 80%가 산지이며, 나머지 20%는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평야이다. 평야는 경안천을 중심으로 오포읍 매산리·양벌리와 경안동 들판, 곤지암천을 중심으로 초월읍 산이리·쌍동리·능현리·용수리·대쌍령리 들판, 경안천의 하류와 번천천이 합류하는 초월읍 서하리들이 대표적이다.

광주시의 하천은 높고 낮은 산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계곡이 많고 소하천이 발달하였으며, 대부분 한강을 향하여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하천계는 크게 경안천계·곤지암천계·번천천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안천은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지월리에서 곤지암천과 합류하여 팔당호로 유입되는데 지류로는 신현천·능원천·고산천·직리천·중대천·목현천 등이 있다. 곤지암천은 양자봉·관산·천덕봉·정개산·국수봉 등에서 발원하여 지월리에서 경안천과 합류하여 팔당호로 유입되는데 지류로는 상열미천·류정천·노곡천·궁평천·진우천·산이천·학동천 등이 있다. 번천천은 남한산에서 발원하여 하번천리를 거쳐 팔당호로 유입되는데 지류로는 엄미천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무갑천(무갑산~팔당호)·신월천(신월리~팔당호)·우산천(앵자봉~팔당호)·정암천(귀여리~팔당호)·망월천(풍산리~팔당호) 등이 광주시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된다[3]. 조사대상지 주변에 있는 번천천은 경안천의 지류이다. 경안천은 남북으로 흐르는 강으

3) 광주시사 홈페이지(www.sisa.gjcity.go.kr)에서 발췌.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I: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로서 광주시의 동쪽 외곽을 지난다. 경안천은 북으로는 한강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번천천과 경안천은 모두 조선시대에 서울과 연결된 수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고·역사학적 환경[4]을 살펴보면, 광주시 일원에서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은 광주시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동쪽으로는 실촌읍을 비롯하여 남쪽으로 도척면, 서쪽으로 광남동 북쪽으로 남종면과 퇴촌면 중앙지역이라 할 수 있는 초월읍 등지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석기 등이 발견·보고되었다.

구석기시대 유적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중부고속도로 건설 과정 중에 진행된 1986년도의 발굴조사에서이다. 청동기시대 고인돌과 백제시내 돌무지를 발굴조사하던 중 돌무지 아래층에서 찍개, 긁개, 밀개, 홈날 등의 석기가 확인되었다[5]. 한편, 1996~1997년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서 곤지암천 유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곤지암천 일대에서 제4기 갱신세층이 확인되었고 실촌읍 상림리와 연곡리 일대에서는 뗀석기가 확인된 바 있다[6]. 그리고 2000년 기전문화재연구원(現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실촌읍 삼리 세계도자기엑스포장 부지 발굴조사에서 중기 구석기시대의 늦은 시기부터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약 3,900여 점의 뗀석기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뗀석기 중 많은 양의 흑요석제 석기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7].

광주시 일원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다. 그러나 장지동과 도척면 궁평리 궁뜰유적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어 신석기시대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8].

청동기시대의 유적·유물로는 남종면 검천리와 오포읍 양벌리에서 무문토기와 마제석검·석부 등이 출토된 이후 1986년 궁평리 일원에서 고인돌 3기를 발굴조사하면서 확인되었다[9]. 1996~1997년에 진행된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의 조사에서 쌍동리와 산이리 고인돌·대석동 유물산포지가 조사되었다[10]. 2000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광역지표조사에서는 오포읍 양벌리와 고산리·실촌읍 상오향리와 신대리에서 무문토기가 발견되었고 장지동에서 고인돌 1기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근 역동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9동과 청동기시대 분묘 1기, 야외노지 등이 확인되었다[11].

철기시대 유적으로는 단국대학교 민족학연구소에서 조사한 실촌읍 신대리 대석동 유적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무문토기편·승석문토기·회청색연질파수부편·대옹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광주시 장지동과 초월읍 국수봉에서도 우각형파수부편이 수습되었다[12].

『史記』[13] 등의 문헌기록에 따르면, 한강 유역과 그 이남에는 진국(辰國)이 있었는데 기원전 2세기말 위

---

4) 세종대학교박물관·하남시,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
5) 충북대학교박물관, 1986, 『광주 궁평리 유적발굴조사 보고』.
6)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지표조사 보고서』.
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
8)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9) 충북대학교박물관, 1986, 『광주 궁평리 유적발굴조사 보고』.
10)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지표조사 보고서』.
11)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0, 「광주시 역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가·마지점) 문화재 발굴조사 1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12)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지표조사 보고서』.
13) 卷一百一十五券「朝鮮列傳」. 燕王 盧綰 反, 入 匈奴, 滿 亡命[五], 正義命謂教令 聚黨 千餘人, 魋結 蠻夷服 而 東走出塞, 渡 浿水, 居 秦 故空地 上下鄣[六].

만조선이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유이민 집단이 진국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동시기에 마한세력이 경기도 지역으로 진출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이 두 세력에 의해 한강 유역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은 기원 전후 마한의 지배권 내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강 유역에 도읍한 백제는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지역연맹체를 형성한 후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는데 당시 한강 유역은 백제의 세력권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한강 유역은 그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삼국의 치열한 격전장이 되었다. 즉, 고구려는 장수왕대에 한강 이남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한강 유역을 점령하였다. 신라는 진흥왕대 백제와 동맹을 맺고 한강 유역을 공격한 후 다시 백제와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지배하였는데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한강 유역은 고려가 건국되기까지 450여 년간 신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원삼국~삼국시대 유적으로는 초월읍 신대리 대석동 유물산포지에서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농수로 단면상에 문화층의 존재가 확인되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대석동 유물산포지 일부지역에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백제주거지 및 수혈이 조사되었다[14]. 이밖에 광주시 장지동과 초월읍 국수봉에서는 우각형파수부가 수습되었다[15]. 또한 장지동 유적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呂·凸'자형 주거지와 함께 중도식토기, 타날문토기, 도자 등이 출토되었다[16]. 또한 남한산성 내에서 백제의 수혈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남한산성은 1986년에 학술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8차에 걸쳐 행궁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남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17]. 한편 대쌍령리에는 통일신라시대 석곽묘군이 조사되었다[18].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940년(태조 23)에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주(州)·부(府)·군(郡)·현(縣)의 명칭을 개정하였는데 이때 광주(廣州)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983년(성종 2)에 광주목(廣州牧)을 두었으며, 광주목은 큰 변화 없이 존속되다가 1577년(선조 10)에 광주부로 승격되었다.

---

14) 고려문화재연구원, 2013,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 문화재 발굴조사 5차 부분완료 약보고서」.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3,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 광주 신대리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우리문화재연구원, 2013,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곤지암) 3~5지점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6) 기전문화재연구원, 2010, 『廣州 墻枝洞 聚落遺蹟』.

17) 한양대학교 박물관, 1986, 『남한산성-지표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총서4집.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남한산성 행궁지-시굴(발굴)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남한산성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남한행궁지 제2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2, 『남한행궁지 제3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2, 『남한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남한행궁지 제4·5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4, 『남한행궁지 제6차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남한산성-암문(4)·수구지 일대 발굴조사』.
기호문화재연구원, 2009, 『남한산성 인화관 및 침과정 주변지역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박물관, 2010, 『남한행궁지-제7·8차 조사보고서』.

18) 기전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대쌍령리 유적』.

고려시대로 알려진 유적은 도척면 유정리 건물지, 지월리사지 등이 있다[19].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이 1467년경에 설치된 이래로 약 416년간 조선왕실과 중앙관청에서 필요한 자기(磁器)를 제작·공급하였으며, 그 흔적이 광주전역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도요지의 분포상황은 정양모에 의해 정리된 바가 있으며[20], 이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과 해강도자미술관 등에서 도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1997년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에 의해서 이 지역 도요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21]. 이들 도요지들은 1985년 11월 7일 사적 제314호로 일괄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지표조사 등의 고고학적 방법으로 확인된 도요지는 총 340개소에 이른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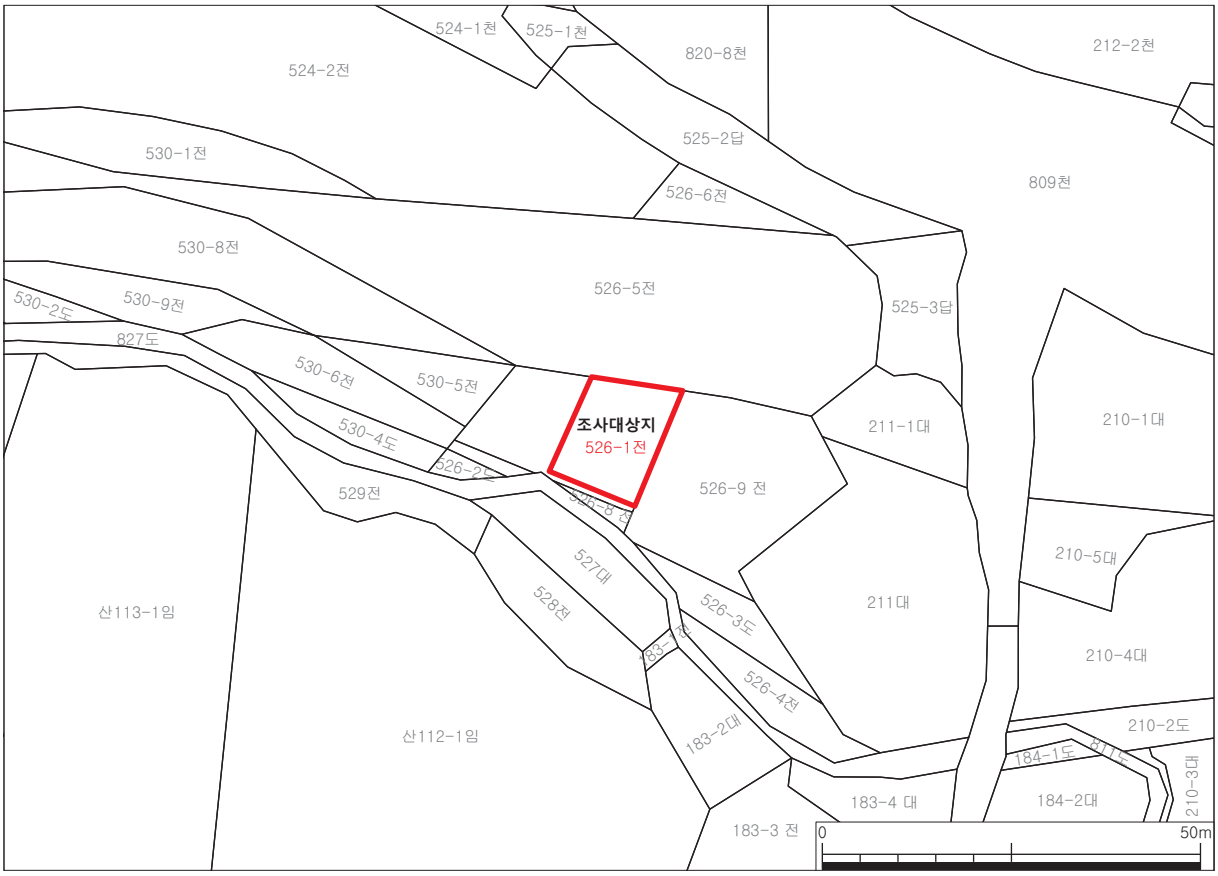
1907년에는 광주군(廣州郡)으로 개칭되면서 중부면 산성리에 군청이 설치되었다. 이후 1914년 전국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양평군 남종면이 편입되었으며, 의곡면·왕륜면은 수원면에 통합되었다. 1917년에는 군청이 광주면 경안리로 이전되었다. 1960년대 이후 5개 리가 서울시로, 6개 리는 성남시로 편입되었다. 1979년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되었다. 1989년에는 동부읍, 서부면과 중부면 일부가 하남시로 편입되었고 2001년에는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되었다.

【표 1】 발굴조사 대상지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번천리 6호 도요지	남쪽 3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	
2	번천리 15호 도요지	서남쪽 4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	
3	번천리 2호 도요지	서남쪽 70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	
4	번천리 3호 도요지	서남쪽 93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	
5	번천리 5호 도요지	서쪽 12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	

1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 정양모, 1986, 『한국백자도요지』, 한국정신문화원.
21)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1998, 『경기도 광주 중앙관요(요지지표조사보고서)』.
22) 해강도자미술관, 1992, 『한국의 백자요지』.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도 광주 중앙관요 발굴조사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8, 『번천리9호 조선백자도요지 확장 시굴조사』.
조선관요박물관, 2004, 『광주의 조선관요지-광주시내 조선시대 자기요지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6	광주 상번천리 · 선동리 조선백자 도요지 -번천리 5호-	서쪽 120m	조선시대 가마유적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6, 『중부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역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번천리5호, 선동리 2 · 3호-』	
7	번천리 4호 도요지	서쪽 15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廣州市』	
8	번천리 10호 도요지	북쪽 73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廣州市』	
9	번천리 18호 도요지	북쪽 77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廣州市』	
10	번천리 19호 도요지	북쪽 77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廣州市』	
11	번천리 22호 도요지	북동쪽 75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廣州市』	
12	번천리 21호 도요지	북동쪽 80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廣州市』	
13	번천리 20호 도요지	북동쪽 84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廣州市』	
14	광주조선백자요지 (사적제314호) 4차 발굴 -번천리 21호-	북동쪽 887m	조선시대 미상석렬	경기도자박물관, 2016,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 · 정비를 위한 문화재 4차 시 ·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5	번천리 9호 도요지	동쪽 17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廣州市』	
16	광주 상번천리 조선백자도요지 -번천리 9호-	동쪽 170m	조선시대 가마유적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7, 『광주 번천리 9호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17	번천리 8호 도요지	동남쪽 180m	조선시대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廣州市』	
18	광주 조선백자도요지 가마터 주변지역내 유적	동남쪽 180m	조선시대 가마유적	경기도자박물관, 2013,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번천리8호 선동리2호 요지 일원-』	
19	번천리 7호 도요지	남동쪽 210m	조선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廣州市』	
20	번천리 14호 도요지	동쪽 500m	조선 요지	朝鮮官窯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廣州市』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l:1,000)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 주변으로는 경작지와 하우스가 분포하며, 시굴조사 후 발굴조사 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지의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설계도상 건물은 대상지의 중앙부에 건축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지의 전체 면적은 공부상 836㎡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대지면적(792㎡)을 초과하나 설계도면상에 341㎡의 면적으로 향후 분할 예정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면적(341㎡) 중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 2를 중심으로 180㎡에 대해서만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2개 문화층 중 상부문화층을 조사한 후 하부문화층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 제2항에 의거하여 발굴유예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하부문화층에 대한 발굴조사는 유예하였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시에 확인된 상부문화층의 상면까지는 굴삭기를 사용하여 기계제토를 하였으며, 문화층에 인접해서는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제토결과 조사대상지의 토층 퇴적양상이 확인되는 북동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토층 – 복토층 – 유구확인층 – 자연퇴적층 – 생토층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각 층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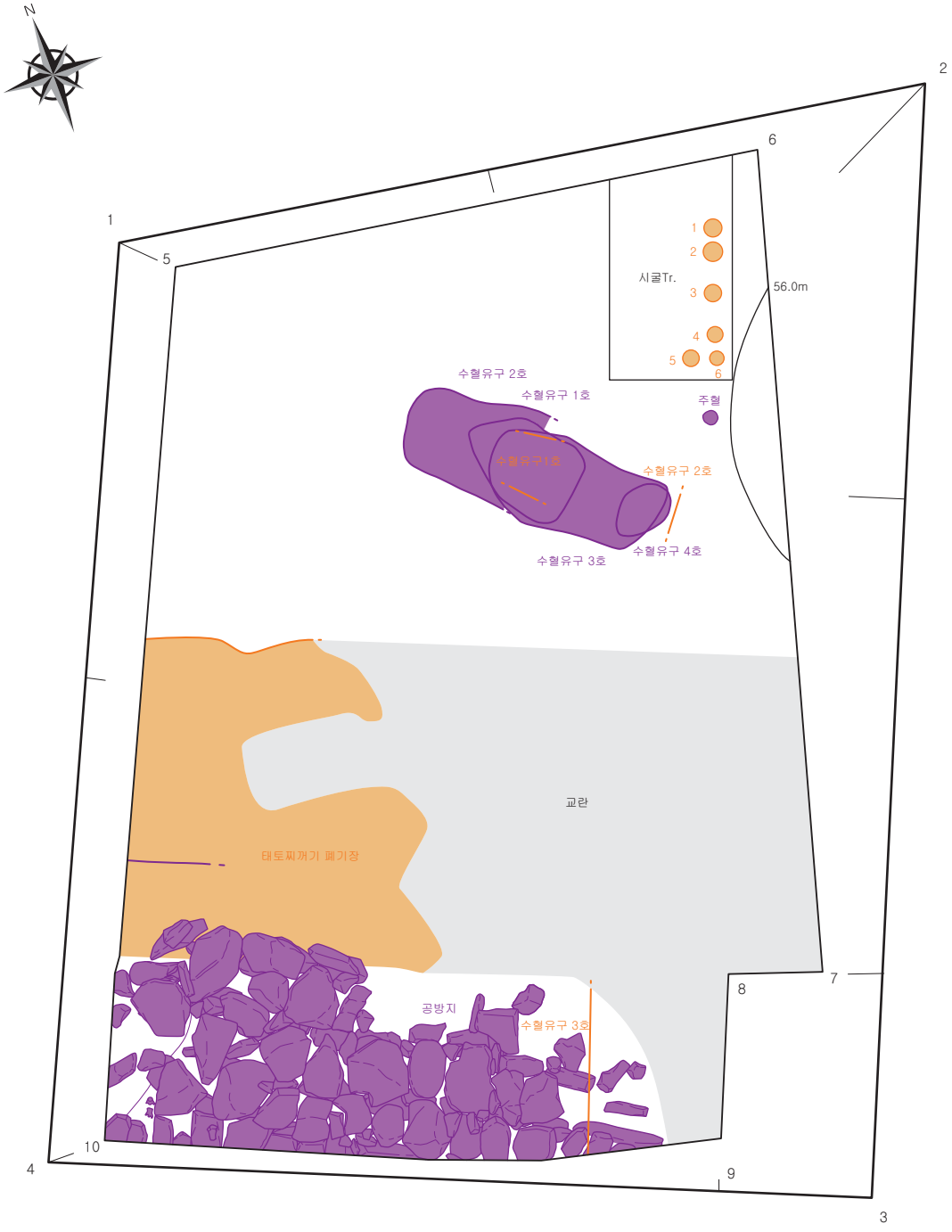
1층은 표토층으로 갈색사질점토 내에 폐비닐 등의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인 상태로 매몰되었다. 층의 두께는 약 50㎝이다.

2 · 3층은 복토층이다. 2층은 암회색사질점토 내에 굵은 자갈과 각종 폐기물 등이 함께 퇴적되어 있는데 특히 번천이 위치하는 북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인다. 층의 두께는 약 100~125㎝이다. 3층은 암갈색사질토 내에 도기편과 백자편 등의 유물과 함께 확인되었다. 층의 두께는 20~30㎝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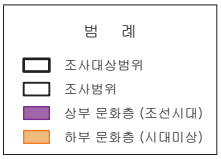
4 · 5층은 유구확인층이다. 4층은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으로 사질성분이 다량 혼입된 갈색사질점토이고 내부에는 석립이 다량 함유되었으며, 층의 두께는 10~20㎝ 정도이다. 5층은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으로 점성이 강한 명갈색사질점토이고 조직이 치밀하며, 층의 두께는 25~30㎝ 정도이다.

6층은 자연퇴적층으로 입자가 고운 명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층의 두께는 약 30㎝이며, 그 하부에서 생토층이 노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대상지 중앙에서부터 남동쪽 일부까지는 교란이 심한 상태였으며, 조사구역 북쪽과 남쪽 부분에서 2개의 문화층이 상 · 하로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에서는 태토찌꺼기 폐기장 1기 · 수혈유구 3기 등 4기 외에 주혈 6개가 확인되었고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에서는 공방지 1기 · 수혈유구 4기 등 5기의 유구 외에 주혈 1개가 조사되었다.



GPS 측정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538571.060m	GPS4	X	538558.240m	GPS7	X	538560.080m	GPS10	X	538560.680m	
	Y	223877.560m		Y	223871.450m		Y	223881.290m		Y	223873.860m	
	Z	58.252m		Z	58.467m		Z	56.736m		Z	56.420m	
GPS2	X	538570.490m	GPS5	X	538570.100m	GPS8	X	538560.050m				
	Y	223888.610m		Y	223878.610m		Y	223879.920m				
	Z	58.003m		Z	56.355m		Z	56.718m				
GPS3	X	538554.400m	GPS6	X	538569.360m	GPS9	X	538558.310m				
	Y	223883.630m		Y	223884.660m		Y	223878.440m				
	Z	58.138m		Z	56.112m		Z	56.834m				



도면 4.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표 2】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북동벽)

토층	내용	
	1층 : 갈색사질점토	표토층(두께 50㎝)
	2층 : 암회색사질점토 + 자갈	복토층(지표 하 50~175㎝)
	3층 : 암갈색사질토	복토층(지표 하 175~205㎝)
	4층 : 갈색사질점토+석립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지표 하 205~225㎝)
	5층 : 명갈색사질점토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지표 하 225~255㎝)
	6층 : 명갈색사질토	자연퇴적층(지표 하 255~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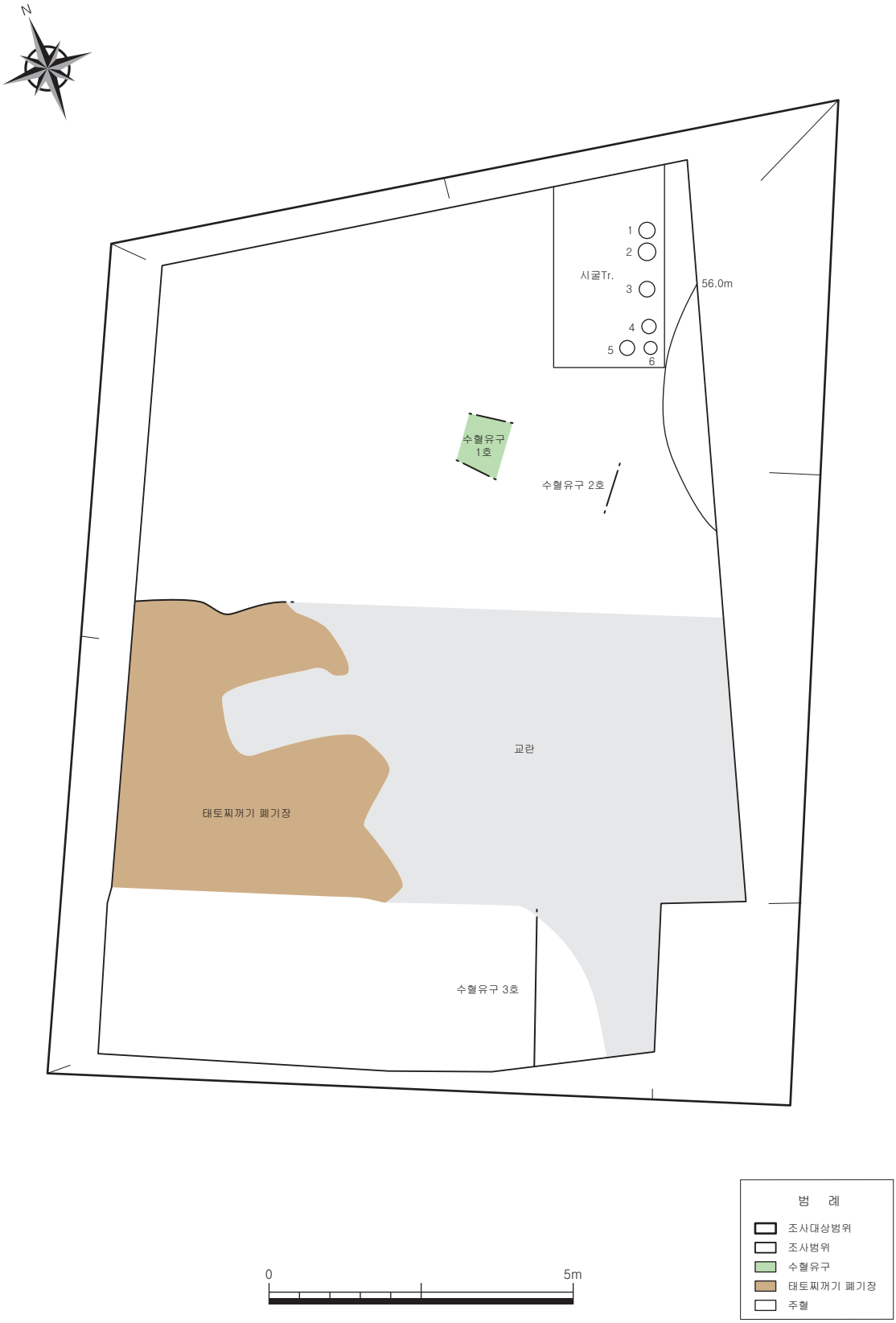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은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아래 약 20~30㎝ 지점의 명갈색사질점토를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층으로 시굴조사에서 주혈이 일부 확인되어 문화층의 존재는 이미 파악된 상태였으며, 이번 발굴조사의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유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구의 일부가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문화층이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교란 부분을 제외한 유적 전 범위에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의 유구들은 표토 아래 약 230㎝ 지점에 해당하는데 신축예정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하로 90㎝ 정도만 굴착하여 기초를 만드는 공사인 점을 감안할 때, 유구의 훼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학술자문회의를 통해 발굴유예의 근거를 확보한 다음 전면 제토를 통한 발굴조사로 진행하지 않고 노출된 유구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1) 유구(도면 5, 도판 2~3)

유구는 태토찌꺼기 폐기장 1기 · 수혈유구 3기 · 주혈 6개가 확인되었다. 노출된 유구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태토찌꺼기 폐기장은 조사대상지 중앙에서 서쪽 경계에 접해 있는데 조사대상지의 약 1/6에 해당한다. 찌꺼기층 상부는 후대 교란으로 인해 상당부분 유실되었는데 분포 범위는 길이



도면 5.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유구배치도

290㎝ · 너비 438㎝ · 깊이 10~40㎝에 해당된다. 내부에는 조직이 치밀한 백색점토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서쪽 경계 태토찌꺼기 폐기장 상부에서 뒤집어 진 갑발 1점과 초벌구이 백자발 1점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 1 · 2호는 조사대상지 중앙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으며, 수혈유구 3호는 조사대상지 중앙에서 남쪽에 위치한다. 수혈유구 1호는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호 내부에 설정한 탐색 트렌치내에서, 수혈유구 2호는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4호 바닥에서 확인되었다. 수혈유구 3호는 공방지의 고래 바닥면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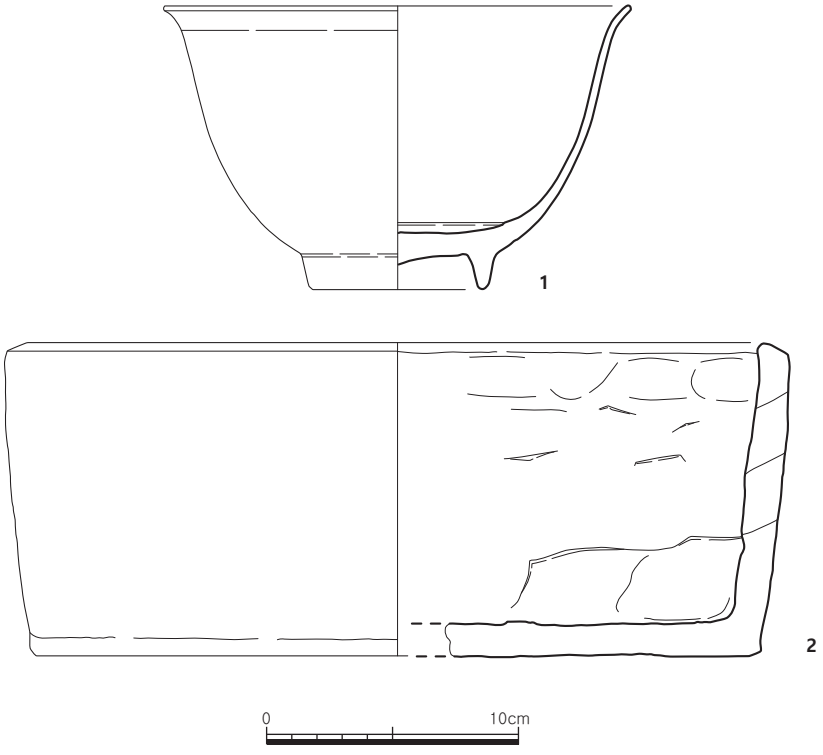
주혈은 시굴조사시 설정한 트렌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북동-남서 방향으로 25~50㎝ 간격을 두고 6개가 배치되어 있었다.

2) 유물

1. 백자 발(도면 6-1, 도판 2-1)

태토찌꺼기 폐기장 상부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 일부와 신부의 일부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연질 소성으로 초벌구이만 진행되었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분홍색(7.5YR 8/3)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신부는 내경하여 내려온다. 굽은 수직굽이고 접지면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굽 안 바닥은 돌려깎기 정면하여 중앙이 뾰족하게 돌출되었다. 내저면에 굽지름보다 큰 내저원각이 확인된다.

기고 11.2㎝, 복원구경 18.6㎝, 저경 7.2㎝



도면 6.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수습유물

2. 갑발 (도면 6-2, 도판 2-2)

태토찌꺼기 폐기장 상부에서 출토되었으며, 전체의 약 1/3 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규석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황갈색(10YR 6/4)을 띤다. 통형갑발로 구연부는 직립하며, 구연단은 외단을 낮게 사면으로 처리하였다. 동체부는 비스듬히 내만하여 내려오며, 바닥은 평저이다. 외면에 자연유가 부분적으로 흡착되었고 일부는 산화 박리되었으며, 구연단에 원형의 유리질 등 다른 그릇을 올려놓았던 자국이 뚜렷이 관찰된다. 동체부의 내면에는 테쌓기 성형흔과 지두압흔 등이 확인되고 내면 바닥에는 백색의 잡물이 다량 흡착되었다.

기고 12.4㎝, 복원구경 31.0㎝, 복원저경 29.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유구는 조선시대 하부문화층보다 약 20~30㎝ 위에서 확인되었는데 공방지 1기 · 수혈유구 4기 · 주혈 1개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구역 남쪽과 남서쪽 경계부분으로 공방지 1기, 중앙에서 북동쪽에 치우쳐 수혈유구 4기 · 주혈 1개가 확인되었는데 수혈유구 4기가 상 · 하 중복되어 조사되었다.

1) 공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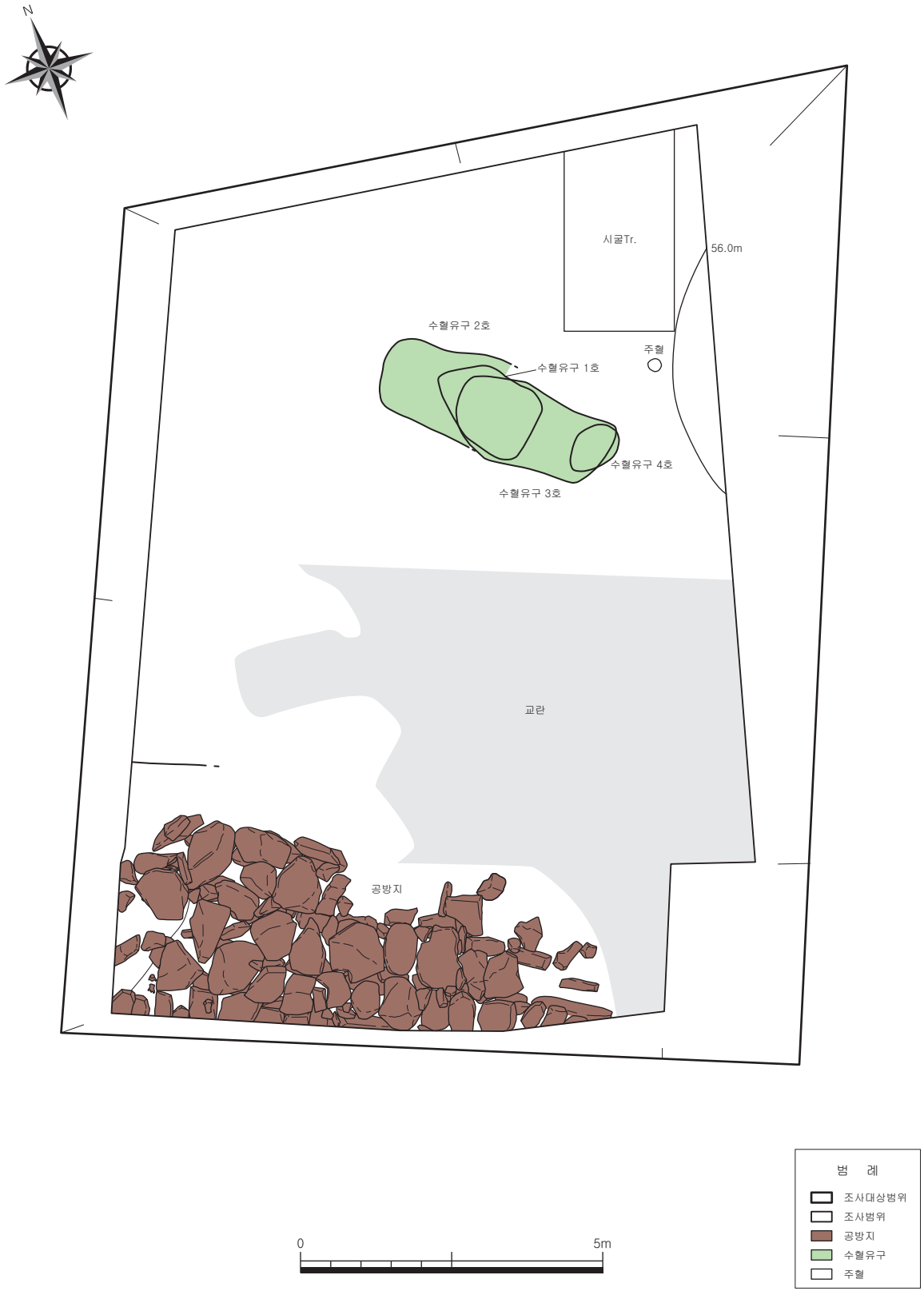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8, 도판 4~6)

조사구역의 남쪽 · 남서쪽 경계지점에 접해 확인되었는데 해발 56.4m 내외에 위치한다. 남쪽 · 남서쪽은 경계외곽으로 연장되며, 동쪽과 남쪽 일부는 근대 교란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북동쪽으로 약 700㎝ 떨어져 조선시대 수혈유구 4기가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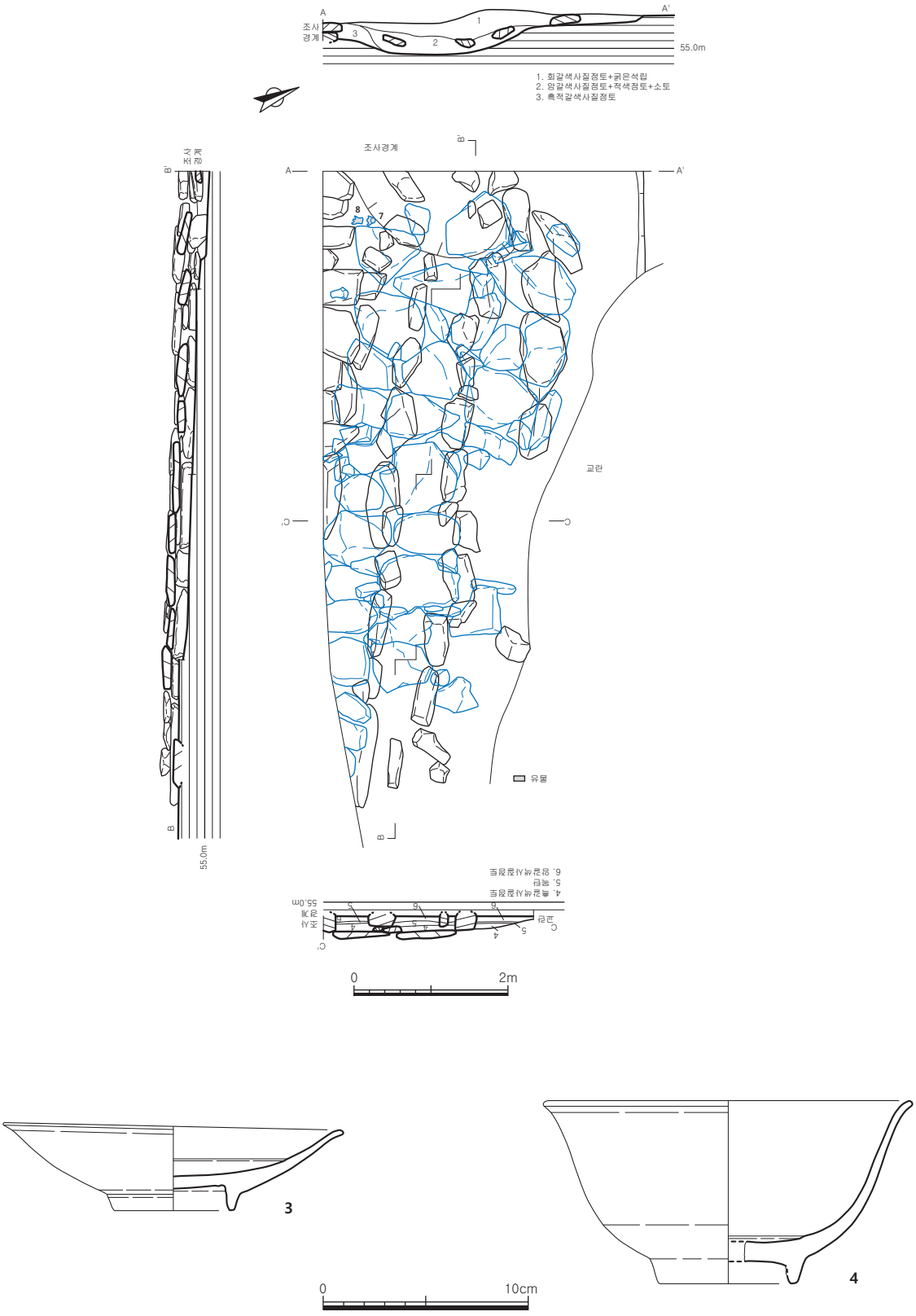
갈색사질점토+석립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860㎝ · 너비 400㎝ · 최대깊이 30㎝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20°-W)향이다.

잔존하는 서쪽 벽면을 볼 때 수혈벽면을 비교적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지한 후 구들시설을 축조하였다. 내부는 굵은 석립이 섞인 회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구들시설은 아궁이와 고래가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조사구역 남서쪽 경계지점으로 유구 확인당시 함몰된 구들장과 소토가 섞인 퇴적토가 확인되었고 유구의 서쪽 끝부분에 연접하여 일부만 확인되었는데 고래 바닥보다 약 12㎝ 아래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아궁이의 규모는 잔존길이 140㎝ · 너비 252㎝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고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고래는 북서-남동방향으로 길게 축조되어 있는데 잔존규모는 길이 740㎝ · 너비 320㎝ · 깊이 24㎝이다. 고래열 상부에서는 구들장이 확인되었는데 길이 40~80㎝ · 너비 80~100㎝ 정도의 넓고 세장한 판석형 할석을 사용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면이 볼록한 천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고래둑은 대부분 길이 64~80㎝ · 너비 20×40㎝ · 높이 16~24㎝의 할석을 이용하였는데 일부 천석도 확인되었다. 고래둑은 1단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크기가 작은 할석의 경우는 석재 아래에 흑갈색사질점토를



도면 7.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유구배치도



도면 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 및 출토유물1

쌓아 높이를 비슷하게 맞췄다. 고래둑 사이는 암갈색사질점토를 14㎝ 가량 채워 고래열 상면을 만들었다. 고래열 상면에는 두께 2~4㎝ 정도의 숯과 그을린 흔적이 확인되었고 서쪽의 아궁이와 연접해서는 경화된 바닥면과 적색의 피열흔이 조사되었다. 고래열은 4열이 확인되었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80 · 70 · 60㎝ 간격이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와 목탄이 퇴적되었고 아궁이의 동쪽 벽면과 모서리 부분에는 강한 화염에 의해 적색으로 피열되었다.

유물은 유구 상면에서 백자 지석 1점, 내부토에서 백자사발 2점과 아궁이 내 퇴적토에서 도지미 2점, 백자접시 1점 등 총 6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 백자 접시(도면 8-3, 도판 7-3)

구연부의 일부와 신부의 일부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회색(5Y 7/1)을 띠고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유약 뭉침이 관찰된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와 빙렬이 확인되고 일부 잡물이 흡착되었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굽은 수직굽이고 굽접지면에 모래받침을 떼어내고 정리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저면에 굽지름보다 큰 내저원각이 확인되며, 외면에 물레흔이 관찰된다.

기고 4.1㎝, 복원구경 16.6㎝, 복원저경 6.0㎝

4. 백자 발(도면 8-4, 도판 7-4)

전체의 약 1/3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불량하여 약간 일그러진 형태이고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녹회색(5GY 8/1)의 유조를 띠며, 유약은 굽접지면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표면에 빙렬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기포가 확인된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굽은 수직굽이고 굽접지면에 가는 모래받침 흔이 확인된다. 내저면에 굽지름보다 큰 내저원각이 확인되며, 표면에 부분적으로 물레흔이 관찰된다.

기고 8.9㎝, 복원구경 18.0㎝, 복원저경 6.8㎝

5. 백자 발(도면 9-5, 도판 7-5)

전체의 약 1/2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녹회색(5GY 8/1)을 띠고 유약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가 확인되며, 일부 잡물이 흡착되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굽은 수직굽이고 굽접지면에 가는 모래받침 흔이 일부 관찰된다. 내저면에 굽지름보다 큰 내저원각이 확인되며, 표면에 부분적으로 물레흔이 관찰된다.

기고 10.1㎝, 복원구경 17.2㎝, 복원저경 7.2㎝

6. 백자 지석(도면 9-6, 도판 7-6)

우측 상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백색(5Y 8/1)의 유조를 띠며, 유약은 상단부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시유되었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가 발생하였고 뒷면에 일부 목리흔 등의 정면흔이 관찰된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앞면에는 종방향의 침선이 등간격으로 배치되었고 침선을 따라 명문이 우종서로 음각되었다. 문자는 해서체이며, 우상부 일부만 잔존하여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다. 육안으로 확인된 명문은 다음과 같다.

見禮於儕輩中嘉靖丙戌…/ 文定公精於識鑑爲斯文…/ 見公作以得人爲喜選…/ 正字序陞正字著作壬…/ 薦授藝文館檢閱…/ 筵揀名儒以備…/ 陞拜成均館…/ 秋移…

지석의 내용 중 '가정병술(嘉靖丙戌)'은 연호와 간지가 결합된 명문으로 1526년에 해당된다. 뒷면에는 중앙에 해서체로 크게 음각된 '玄'자 일부가 확인되며, 우측단면에 가는 모래 받침흔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측면으로 세워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14.3㎝, 잔존너비 14.2㎝, 두께 1.4~1.8㎝

7. 도지미(도면 9-7, 도판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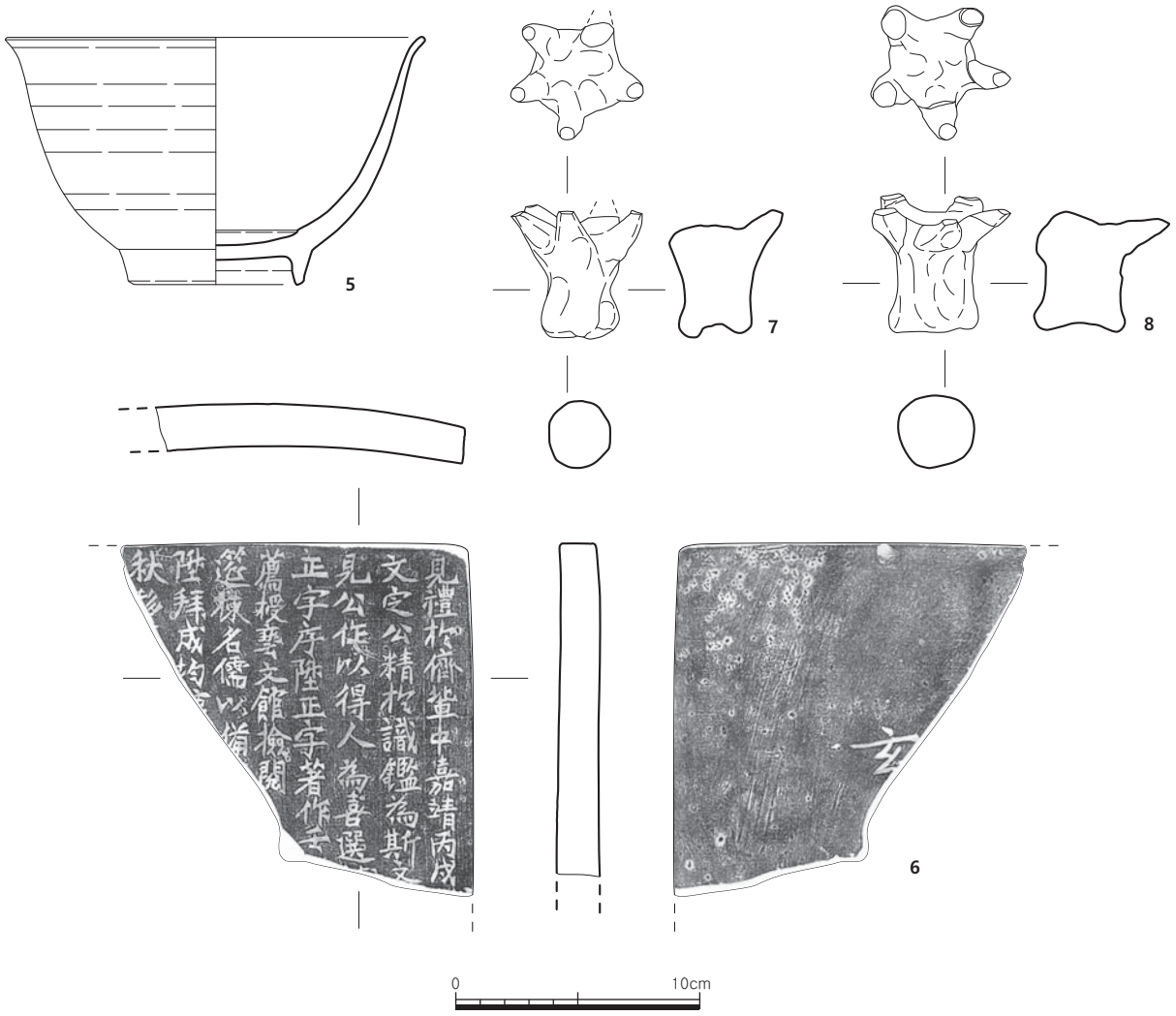
그릇을 받치기 위한 돌출부 5개 중 1개가 결실되었다. 백색의 내화토로 빚어 제작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분홍색(7.5YR 7/4)을 띤다. 형태는 허리가 약하게 들어간 원통형 신부의 상단에 5개의 짧은 원뿔형의 돌출부가 부착되어 마치 불가사리를 엎어놓은 형태를 연상케 한다. 원뿔형의 돌출부 끝은 그릇을 올려놓고 번조한 후 떼어내 평탄하고 일부 유백색의 유약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바닥은 오목하며, 접지면은 둥글게 처리하였고 수평이 고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사면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에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바닥에 부분적으로 모래 알갱이가 고착되었다.

길이 5.6㎝, 너비 5.6㎝, 두께 2.7㎝

8. 도지미(도면 9-8, 도판 7-8)

완형이다. 백색의 내화토로 빚어 제작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분홍색(7.5YR 7/4)이다. 형태는 허리가 약하게 들어간 원통형 신부의 상단에 5개의 짧은 원뿔형 돌출부가 부착되어 마치 불가사리를 엎어놓은 형태를 연상케 한다. 원뿔형의 돌출부 끝은 평탄하고 유백색의 유약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바닥은 오목하고 표면에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바닥에 부분적으로 모래 알갱이가 고착되었다.

길이 5.7㎝, 너비 5.6㎝, 두께 3.1㎝



도면 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 출토유물2

2) 수혈유구 1~4호

가. 유구

수혈유구는 조사구역 북동쪽 경계에서 약 1~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4기가 확인되었다. 유구들은 상 · 하 중복되어 밀집해서 조사되었고 해발고도 56.0~56.4m에 해당된다. 갈색사질점토+석립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오각형(1호), 말각장방형(2 · 3호), 타원형(4호)에 가깝게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특히 수혈유구 3호는 내부에서 소토와 목탄 및 수비찌꺼기가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었고 내부토에서 백자접시 저부 · 백자발 저부 · 도지미 등 5점이 출토되었다. 그 외 유물은 수혈유구 1호에서 백자종지 저부 · 백자접시 · 백자 발이 북동쪽 바닥에서 확인되었다.

【표 3】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속성표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장축 방향	크기(㎝)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두께		
1	10	8-① ~⑤	말각 오각형	N-48°-W	178	126	20	1. 흑갈색사질점토 2. 황갈색사질점토	수혈유구 2 · 3호와 중복 백자종지, 백자접시, 백자발
2	10	9-① ~③	말각 장방형	N-45°-W	190	154	14	1. 암갈색사질점토	수혈유구 1호와 중복
3	11	9-④ ~ 11-②	말각 장방형	N-47°-W	269	144	47	1. 적황갈색사질점토 +소토다량 2. 흑갈색사질점토 3. 명갈색사질점토	수혈유구 1 · 2 · 4호와 중복 백자접시, 백자발, 도지미
4	11	11-③ ~ 12-②	타원형	N-47°-E	90	68	27	1. 암갈색사질점토 +적색점토+목탄	수혈유구 3호와 중복

나. 유물

9. 백자 종지 저부(도면 10-9, 도판 8-9)

수혈유구 1호 북동쪽 바닥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와 신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고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녹회색(10GY 8/1)이며, 유약은 굽과 신부 일부를 제외하고 시유되었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가 확인된다. 굽은 죽절굽이고 굽접지면은 내단을 높게 돌려 깎아 사면으로 처리하였으며, 내화토 비짐 받침흔 3개가 확인된다. 내저면에 굽지름보다 큰 내저원각이 확인되며, 표면에 부분적으로 물레흔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3.3㎝, 저경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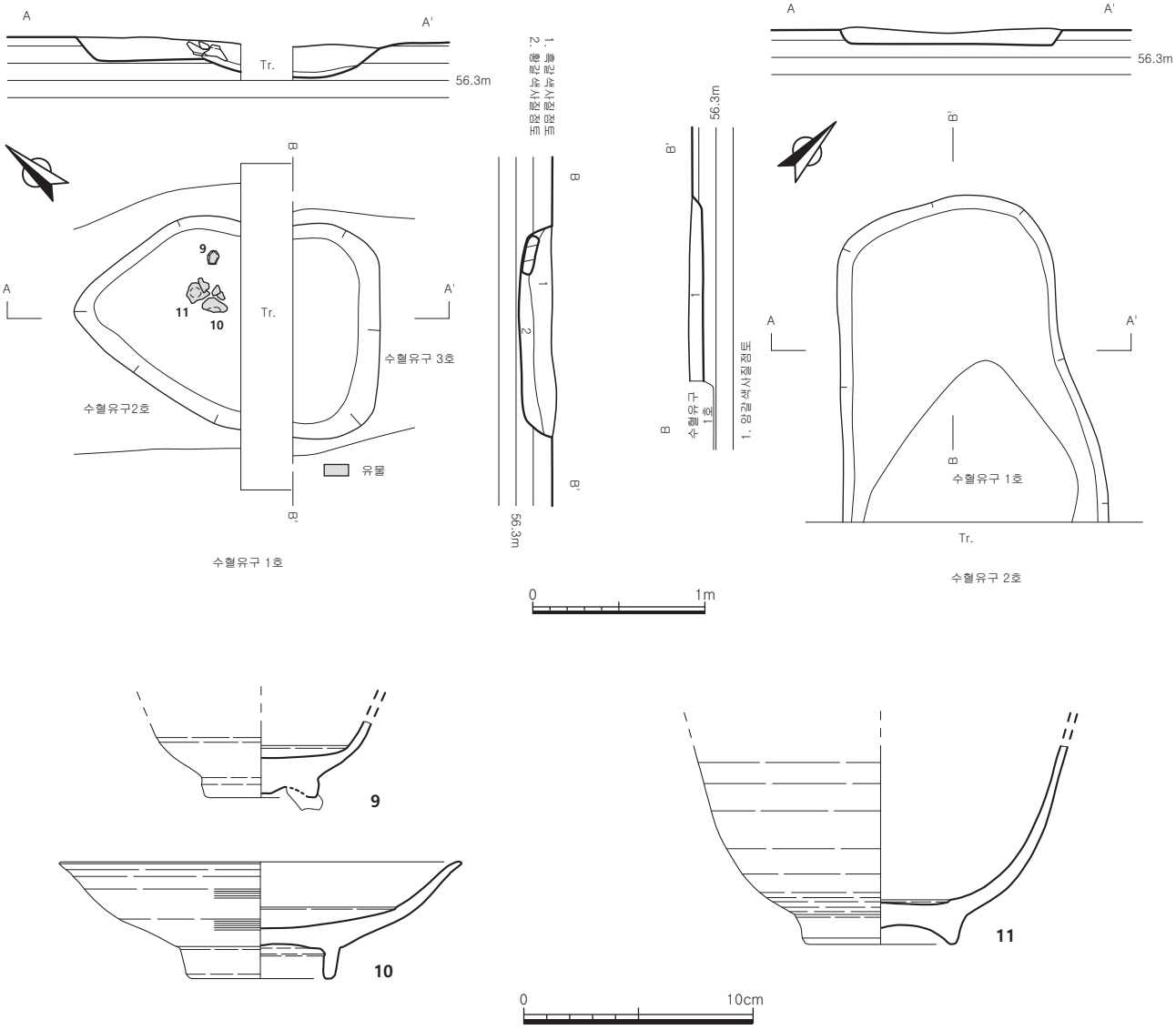
10. 백자 접시(도면 10-10, 도판 8-10)

수혈유구 1호 북동쪽 바닥에서 출토되었으며, 전체의 약 1/2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초벌구이만 진행되었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7.5YR 7/6)이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굽은 수직굽이고 굽과 굽내면 바닥의 경계부에 1열의 홈을 돌렸으며, 굽하단부 외면은 돌려깎기 정면하였다. 신부와 굽의 경계부분에 1열의 침선이 확인되며, 신부의 외면에 부분적으로 횡방향의 목리흔이 관찰된다. 내저면에 굽지름보다 큰 내저원각이 확인된다.

기고 5.1㎝, 복원구경 17.6㎝, 복원저경 6.5㎝

11. 백자 발(도면 10-11, 도판 8-11)

수혈유구 1호 북동쪽 바닥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와 신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



도면 1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1 · 2호 및 1호 출토유물

고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회색(5Y 7/1)이며, 유약은 전면 시유되었다. 표면에 빙렬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기포가 확인되며, 내면에 잡물이 흡착되었다. 굽은 오목굽이고 굽접지면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모래 받침흔이 일부 관찰된다. 신부는 벌어져 올라가며, 굽과 저부의 경계부분에 1열의 침선을 돌렸고 굽 하단부에 돌려 깎은 흔적이 관찰된다. 내저면에 굽지름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내저원각이 돌아가고 신부 외면에는 물레흔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8.6㎝, 저경 6.6㎝

12. 백자 접시 저부(도면 11-12, 도판 11-12)

수혈유구 3호 소토가 다량으로 섞인 적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고 저부의 일부와 신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

조는 전체적으로 명녹회색(10Y 8/1) 또는 명녹회색(2.5Y 7/4)의 유조를 띠고 유약은 굽일부를 제외하고 시유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유약 뭉침이 관찰된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가 확인되고 부분적으로 모래 알갱이들이 고착되었다. 굽은 오목굽이고 굽 하단에 돌려 깎은 흔적이 관찰된다. 내저면에 굽지름 보다 큰 내저원각이 확인되며, 내화토 비짐 받침흔이 다섯 군데에서 확인된다.

잔존기고 3.2㎝, 복원저경 6.2㎝

13. 백자 발 저부(도면 11-13, 도판 11-13)

수혈유구 3호 소토가 다량으로 섞인 적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의 일부와 신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고 태토는 정선된 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녹회색(10Y 8/1)의 유조를 띠며, 유약은 굽과 신부의 일부를 제외하고 시유되었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가 발생하였고 내면에 잡물이 흡착되었다. 굽은 오목굽이고 굽접지면에는 내화토 비짐 받침흔이 한 곳에서 확인된다. 신부는 벌어져 올라가며, 내저면에 굽지름보다 큰 내저원각이 돌아가고 내화토 받침흔이 세 곳에서 관찰된다.

잔존기고 4.5㎝, 복원저경 6.8㎝

14. 도지미(도면 11-14, 도판 11-14)

수혈유구 3호 소토가 다량으로 섞인 적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전체의 약 2/3정도 잔존한다.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색조는 전체적으로 분홍색(10YR 6/4)을 띤다. 평면형태는 원판형이며,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상면에는 백색의 유리질 원형자국이 두께 0.5㎝ 내외로 뚜렷하게 확인되며, 이는 번조 당시 올려놓았던 백자의 굽접지면 흔적으로 추정된다.

지름 13.2㎝, 두께 0.9~1.3㎝

15. 도지미(도면 11-15, 도판 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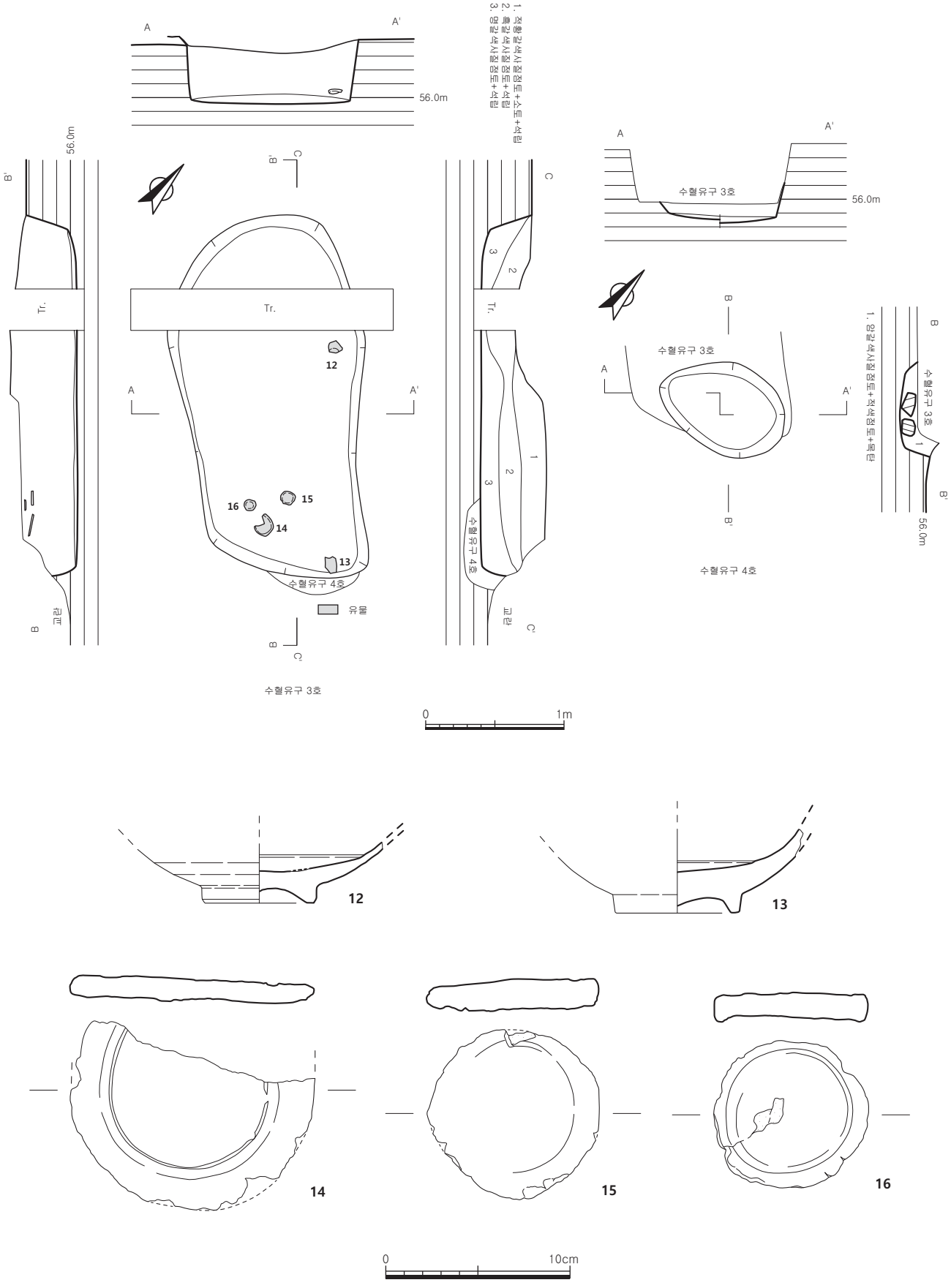
수혈유구 3호 소토가 다량으로 섞인 적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외곽이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갈색(7.5YR 6/4) 또는 갈색(10YR 5/3)을 띤다. 평면형태는 원판형이며,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표면에는 번조 당시 도자기를 올려놓았던 흔적으로 추정되는 원형의 눌림 자국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지름 9.3㎝, 두께 1.3~1.6㎝

16. 도지미(도면 11-16, 도판 11-16)

수혈유구 3호 소토가 다량으로 섞인 적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이다.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갈색(7.5YR 6/4) 또는 명황갈색(10YR 6/4)을 띤다. 평면형태는 납작한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표면에는 번조 당시 도자기를 얹어놓았던 흔적으로 추정되는 원형의 눌림 자국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지름 8.4㎝, 두께 1.2~1.4㎝



도면 1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 · 4호 및 3호 출토유물

3) 주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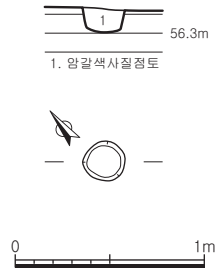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2, 도판 12-③~⑤)

조사구역의 동쪽경계에서 약 1.2m 떨어져 확인되었는데 해발 56.4m 지점에 위치한다. 남서쪽으로 약 30㎝ 떨어져서는 수혈유구 3 · 4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석립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지름 30㎝, 깊이 14㎝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고 벽면은 비교적 완만한 'U'자형이고 바닥은 오목하게 굴착하였다.

유구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주변에 조사된 유구나 유물양상으로 보아 조선시대로 판단된다.



도면 1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주혈

Ⅳ. 조사성과

본 조사대상지는 손종학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526-1번지에 해당한다. 조사면적은 180㎡이며, 현장조사는 2017년 9월 28일에 착수하여 2017년 10월 18일에 완료하여 실조사일수 5일이 소요되었다.

조사대상지는 사적 제314호로 지정된 광주조선백자요지(23)의 현상변경 2구역 중앙에 위치하며, 조사대상지 주변에는 조선시대 번천리 5호 도요지 · 번천리 15호 도요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

사업대상지의 전체 대지면적은 341㎡이지만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되는 트렌치 2 부분(180㎡)에 대해서만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총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은 조사구역의 북동쪽과 남쪽 경계지점에 연접하여 지표 180~200㎝ 아래에서 공방지 1기 · 수혈유구 4기 · 주혈 1개 등이 조사되었고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은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의 약 20~30㎝ 아래지점인 명갈색사질점토에서 노출되었는데 태토찌꺼기 폐기장 1기 · 수혈유구 3기 · 주혈 6개 등이 확인되었다. 이 문화층은 표토 아래 약 230㎝ 지점 이하로 신축예정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하로 90㎝ 정도만 굴착하여 기초를 만드는 공사인 점을 감안할 때, 유구의 훼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학술자문회의를 통해 발굴유예의 근거를 확보한 다음 전면 제토를 통한 발굴조사로 진행하지 않고 노출된 유구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발굴조사는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의 총 6기만 이뤄졌고 조사성과도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의 유구와 유물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구

조사대상지는 사적 제314호로 지정된 광주조선백자요지(23)의 현상변경 2구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번천리 5 · 15 · 4 · 9호 도요지 등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번 조사에서는 조사면적이 좁고 한정적인 여건으로 가마는 확인되지 않았고 가마와 관련된 작업장으로 판단되는 공방지 1기 · 수혈유구 4기 · 주혈 등이 확인되어 자기 가마의 전체적인 생산관련 시설을 파악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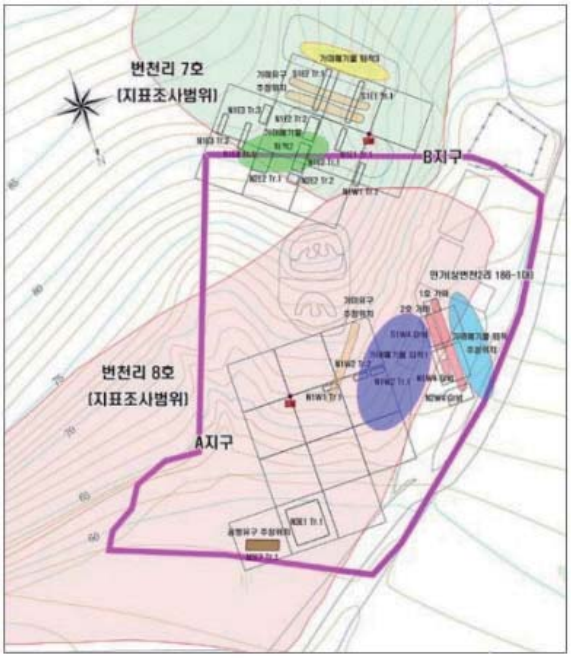
경기도 광주 관요는 16세기 전반에 도마리나 열미리, 학동리에 설치 ·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나 운영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16세기에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무갑리 14호와 곤지암리 1호 가마터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와 관음리 10호 가마터 수습유물, 그리고 번천리 9호 가마터에서 수습된 묘지명의 재해석을 통해 1530년대 후반 이후의 관요 이설경로와 운영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1530년대 후반부터 1540년대 초까지 운영된 우산리 9호 가마 일원을 시작으로 무갑리 14호 일원(1540년대 중반~1551년), 번천리 9호 일원(1552~1558년)으로 이설되고 이후 관음리 10호 일원(1559~1560년대 후반)에서 곤지암리 1호 일원(1570년 전후~1570년대 중반)으로 그리고 대쌍령리 1

호 일원(1570년대 후반~1580년대 초), 무갑리 10호 일원(1580년대 중반~1590년대 초), 정지리 3호 일원(1590년대 중반~) 순으로 관요가 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23].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관요는 초기에는 광주의 북부와 서부에 주로 설치되었으며, 한강과 접하는 커다란 물줄기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17세기 관요는 동부와 서부, 남부 등에 고르게 분포하고 이설지역 간의 거리가 이전에 비하여 멀어지며, 커다란 물줄기의 지류 주변에 주로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연료로 사용되던 땔나무에 의해 생겨났다[24].

번천리 일원의 경우, 번천리 5호 가마터에서만 1기의 가마만 확인되었을 뿐 번천리 7~9호에서는 2~15m 간격을 두고 2기 이상의 가마가 나란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번천리 5호와 7~9호 가마터에서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마만 10기이며, 주변에 1기의 가마터가 더 분포하고 있다. 이는 이 일대에서 최소한 1552~1558년 동안 시기차를 두고 11기 이상의 가마가 설치·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삽도 1】 번천리 8호 일원 발굴조사 현황도[25]

이 외에도 무갑리 14호 가마터에서는 반경 50m 이내에 3기가, 도마리 7호 가마터에서는 반경 10m 안에 3기가, 우산리 9호 가마터에서는 반경 10m 이내에 3기가 확인되는 등 16세기 관요는 여러 기의 가마가 동시기에 설치·운영되었음을 발굴조사로 확인된 가마를 통해 알 수 있다[26]. 그러므로 조사대상지가 좁고 협소하여 가마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방지와 관계있는 가마가 조사대상지 밖 남쪽방향에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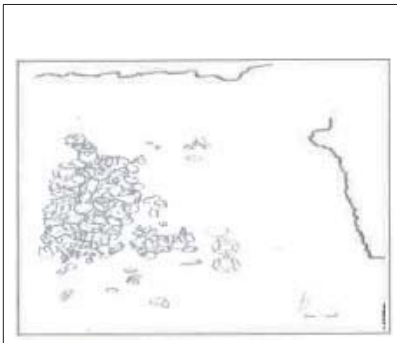
오늘날 조선시대 도자기 가마터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朝鮮王朝實錄』이나 『承政院日記』 등이 있다. 두 기록물은 관이 중심이 되어 기록된 것으로 조선시대 왕실 소용(所用)의 백자를 제작했던 관요인 분원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문헌기록에서는 작업장을 '工作廳'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관리업무를 보던 官廳과 창고인 庫間, 임시건물인 假家 등 공관과 사가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작업장이 확인된 조선시대 가마터는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었고 경상도와 강원도지역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작업장은 기본적으로 장방형의 구조에 내부에는 구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방지와 수비공·연토장·제작공간·유약통 등이 있어 도자기를 만드는 전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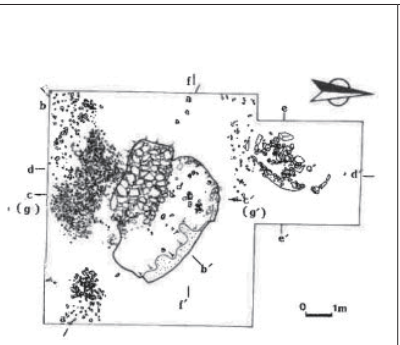
23) 김경중, 2012, 「16세기 중·후반 조선 관요 운영 시기 및 제작 양상 연구 –가마터 출토 명문백자를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제15호,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4) 전승창, 2004, 「조선 관요의 분포와 운영체계 연구」, 『미술사연구』 18, 미술사연구회.
25) 경기도자박물관, 2013, 『번천리8호·선동리2호 요지 일원』.
26) 김경중, 2012, 「16세기 중·후반 조선 관요 운영 시기 및 제작 양상 연구 – 가마터 출토 명문백자를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제15호,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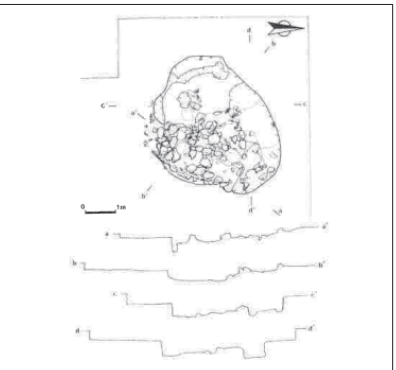
공방지에서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는 구조물로는 구들이 있다. 구들 구조는 열지어 여러 줄로 길게 만든 불고래 위에 판석을 얹은 형태로 아궁이 부분을 갖추고 있고 평면은 장방형이나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지닌 것이 일반적이며, 구조상으로 지상식과 반지하식이 있다. 이러한 구들시설을 갖춘 유구는 인근에 광주 번천리 5호 백자 요지[28], 광주 번천리 9호 백자 요지[29], 광주 번천리 8호 백자요지[30], 광주 분원리[31] 뿐만 아니라 군포 산본동 백자요지[32], 대전 정생1동 백자요지[33], 장성 수옥리 백자요지[34], 충주 구룡리 백자요지[35], 청양 대박리 백자 요지[36] 등에서 조사되었다. 유구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지만 경기도 광주의 분원 요장 및 지방 요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비단계 이후 성형 및 건조 과정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7]. 특히 번천리 5 · 9호에서는 불고래 위에 놓인 판석 및 그 주위에서 백토가 수습되고 있지만 조사대상지의 공방지에 경우 구들 주위에 백토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다른 인근의 조사사례와 마찬가지로 도토의 건조나 혹은 성형관련 작업 공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대상지 공방지의 경우 조사구역 남쪽과 남서쪽 경계부분으로 유구가 연결되어 정확한 규모와 평면형태는 확실치 않으나 잔존하는 형태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구조는 북동쪽 벽면을 볼 때 수혈을 굴착하여 만들고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지한 후 구들시설을 축조한 것으로 보아 반지하식의 형태이다. 인근의 조사된 번천리 9호 가마터에서는 지상식과 반지하식이 함께 확인되었고 번천리 5호의 경우는 지상식으로 파악된다.



광주 번천리 5호 가마
제2작업장(지상식)



광주 번천리 9호 가마
4호 공방터(지상식)



광주 번천리 9호 가마
5호 공방터(반지하식)

【삽도 2】 조사대상지 주변 광주 번천리 5 · 9호 가마 작업장(공방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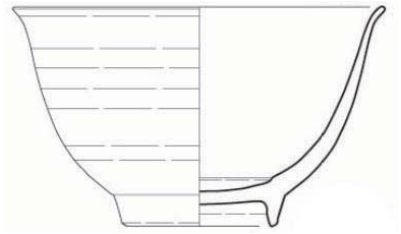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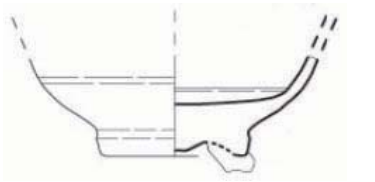
27) 趙載京, 2009,「朝鮮時代 가마터 作業場의 構造와 特徵」,『中央考古研究』第5號, 中央文化財研究院.
28)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6,『中部高速道路建設豫定地域 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樊川里 5號 · 仙東里 2,3號』.
29)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7,『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30) 경기도자박물관, 2013,『번천리8호 · 선동리2호 요지 일원』.
31)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2006,『광주 분원리 조선백자요지』.
32) 湖巖美術館, 1990,『山本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33) 해강도자미술관, 1997,「대전시 정생동 백자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34) 馬韓文化財研究院, 2003,『長城 水玉里 朝鮮 白磁窯址』.
35) 中央文化財研究院, 2005,『忠州 九龍里 白磁窯址』.
36) 中央文化財研究院, 2007,『靑陽 大朴里 白磁窯址』.
37)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7,『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이 외에 조사대상지 북동쪽에 수혈유구 4기가 상 · 하 중복되어 확인되었는데 특히 수혈유구 3호의 경우 내부에서 소토와 목탄 및 수비찌꺼기가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어 수혈유구 역시 가마와 관련된 작업장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유물

조사대상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상부문화층에서 백자류 8점, 도지미 5점, 백자 지석 1점과 하부문화층 태토찌꺼기 폐기장 상부에서 노출된 백자발 1점, 갑발 1점 등 총 16점이 출토되었다.

백자의 경우 기종면에서 식기(食器)에 해당하는 발, 접시, 종지가 중심을 이루며, 병 · 호 · 합신 · 뚜껑 등의 특수기형은 출토되지 않았다. 각각의 세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종	도면	특징
발		구연이 외반하고 측면은 수직을 이루며, 저부는 볼륨감이 있는 형태이다. 내면에 굽지름과 크기가 비슷한 내저원각이 돌려져 있다. 굽은 오목굽과 수직굽을 이룬다.
접시		구연은 외반하고 측면은 짧게 사선을 이루며, 벌어진다. 넓은 내저의 가장자리에 원각이 위치한다. 굽은 수직굽과 오목굽이다.
종지		저부에 볼륨감이 있고 저부 윗부분이 수직으로 꺾이는 형태이다. 내저는 평평하게 되어 있으며, 내저원각은 돌려져 있다. 굽은 죽절굽이다.

【삽도 3】 조사대상지 백자류 출토유물

출토 백자의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백색의 태토가 사용되었는데 유색이 담청백색과 담회백색이 주종을 이루는 양질보다는 회백색 · 명녹회색을 띠고 잡물이 다소 많이 섞여 있는 조질의 백자이다. 굽은 오목굽 · 수직굽 · 죽절굽 등이 사용되었는데 수직굽이 대부분이다. 번조받침으로는 모래받침이 주로 사용되었고 태토빚음받침도 사용되었다. 번조방법에 있어서는 포개구이 하지 않은 것과 포개구이를 한 경우 다 확인이 되는데 수직굽인 발과 접시가 포개구이 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양질의 백자생산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도구는 상부문화층에서 도지미 · 하부문화층에서 갑발이 확인되었는데 도지미의 경우 원반형과 절구형 도지미가 출토되었다. 절구형 도지미는 기물을 받치는 부분에 5개의 꼭지를 세워 왕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꼭지 위에는 태토빚음이 붙어 있다. 바닥면은 매끄러운 것으로 보아 공방지에서 도토를 건조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절구형 도지미는 인근의 번천리 8호 가마[38]에서 확인되었는데 바닥면에 가마바닥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가마에서 사용한 도지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방지 유구상면에서 백자 지석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지석은 앞면에는 묘지명을, 뒷면에는 명문(玄)을 각각 음각으로 새겼다. 지석은 전면 시유하였고 유색은 회백색을 띠며, 표면에는 부분적으로 기포가 다량 발생하였다. 우측 측면에 모래받침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측면으로 세워 번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뒷면에 고정하기 위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원형의 검은 그을음 자국이 명문을 중심으로 주변에 2곳 확인된다.

음각으로 새겨진 묘지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見禮於儕輩中嘉靖丙戌…/ 文定公精於識鑑爲斯文…/ 見公作以得人爲喜選…/ 正字序陞正字著作壬…/ 薦授藝文館檢閱…/ 筵揀名儒以備…/ 陞拜成均館…/ 秋移…

묘지명의 내용 중 편찬자는 확인되지 않은 대신 연호 및 간지가 기록된 것이 있어 이를 토대로 조사유적의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연호 및 간지가 결합된 '가정병술(嘉靖丙戌)'명의 지석은 1526년으로 확인된다.

비록 조사대상지가 협소하고 가마가 확인되지 않아 다양한 검토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출토된 소수의 유물들로 파악해 보면, 백자류 기형의 경우 구연이 외반하고 측사면이 벌어지면서 굽의 형태가 죽절굽과 수직굽, 일부 오목굽이 확인된다. 또한 굽받침은 태토빚음 및 모래받침이 확인되고 문양은 없다. 이러한 양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에서 조사된 가마유적으로 판단해보면 16세기로 추정되며, 특히 백자 지석을 통해 조사대상지의 중심연대는 16세기 전기에서 중기로 이행되어 가는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하부문화층의 경우 태토찌꺼기 폐기장에서 출토된 백자발과 갑발로 보아 상부문화층과 커다란 시기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조사대상지는 주변에서 조사된 번천리 일대의 가마유적 양상과 더불어 경기도 광주지역 조선시대 가마터와 그 작업장들을 비교 ·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판단된다.

38) 경기도자박물관, 2013,『번천리8호 · 선동리2호 요지 일원』.

도 판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전,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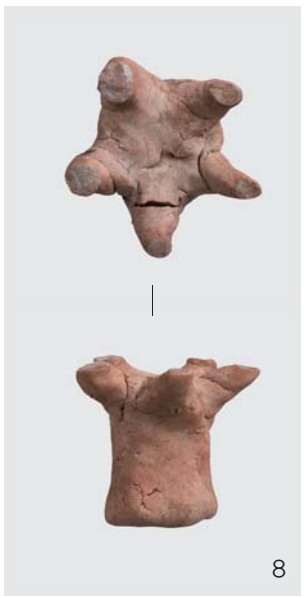
도판 2.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태토찌꺼기 폐기장(①조사전, ②토층, ③유물출토상태, 1~2:출토유물)

도판 3.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수혈유구 1~3호 조사전(①~③) 및 주혈 조사전(④)

도판 4.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①조사전, ②조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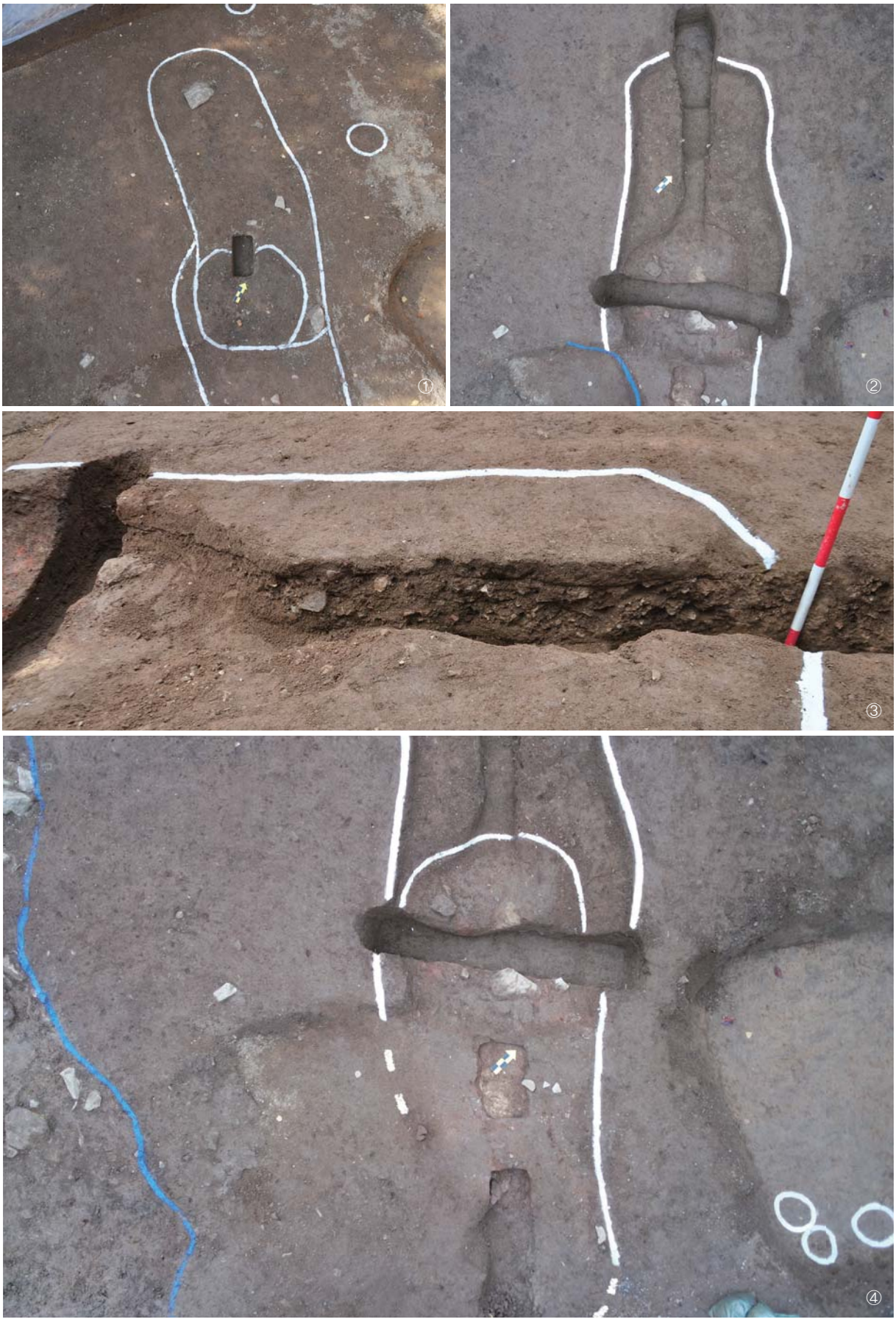
도판 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①조사후, ②덮개돌 상면, ③④덮개돌 상면 세부)

도판 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①②고래열 토층, ③고래열, ④⑤고래열 세부, ⑥추정 아궁이부, ⑦추정 아궁이부 토층, ⑧유물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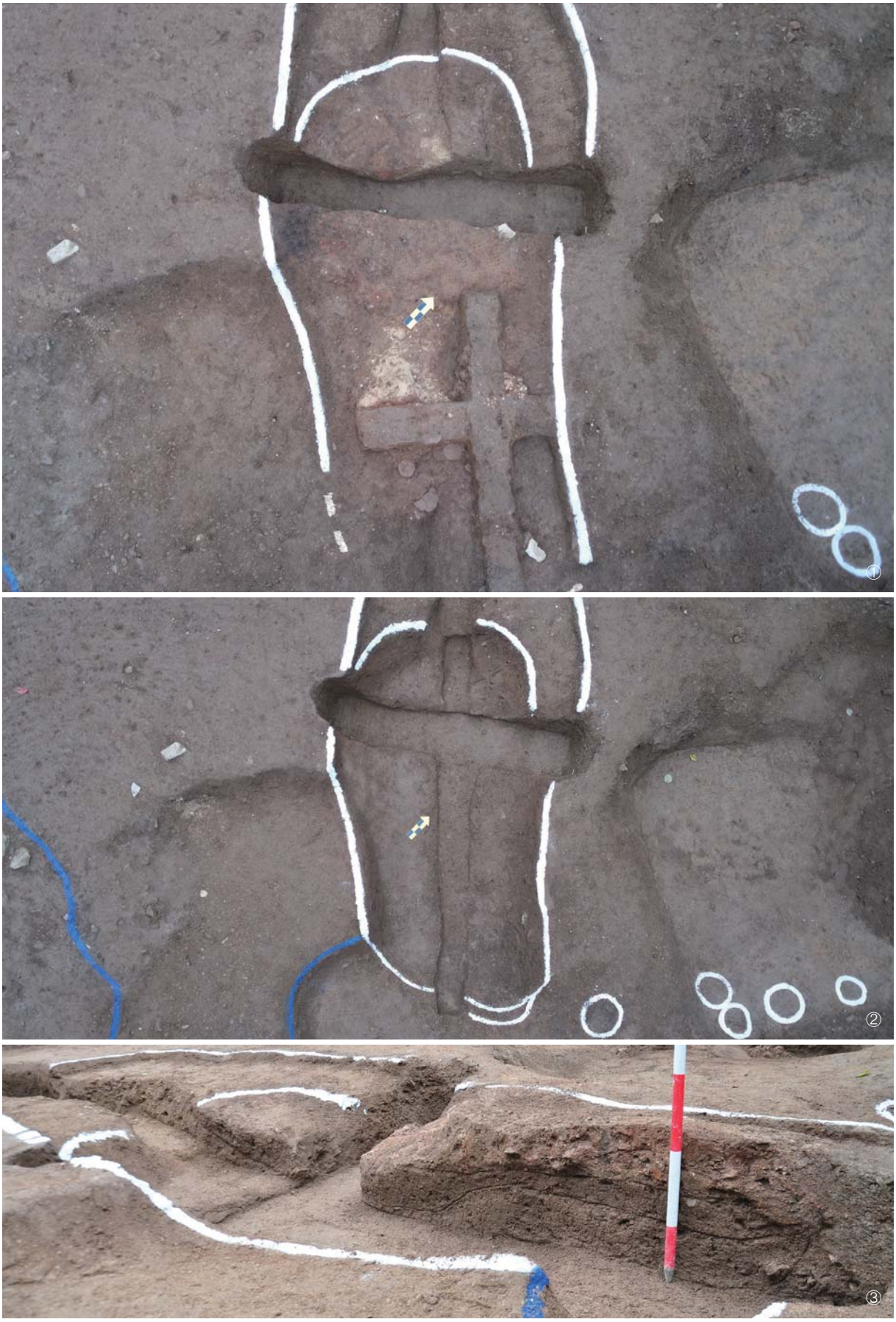


도판 7.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공방지 출토유물

도판 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⑤유물출토상태, 9~11:출토유물)



도판 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및 3호 조사전(④)



도판 1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도판 1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호(①②유물출토상태, 12~16:출토유물) 및 4호(③조사전, ④조사중)

도판 1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4호(①조사후, ②토층), 주혈(③조사전, ④조사후, ⑤토층), 학술자문회의(⑥)

광주 상번천리 526-1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255 -0001	백자 발	1	하부문화층 태토찌꺼기 폐기장	토도	조선	11.2	18.6	7.2	6-1 2-1	Y
2017-1255 -0002	갑발	1	하부문화층 태토찌꺼기 폐기장	토도	조선	12.4	31.0	29.0	6-2 2-2	Y
2017-1255 -0003	백자 접시	1	상부문화층 공방지	토도	조선	4.1	16.6	6.0	8-3 7-3	Y
2017-1255 -0004	백자 발	1	상부문화층 공방지	토도	조선	8.9	18.0	6.8	8-4 7-4	Y
2017-1255 -0005	백자 발	1	상부문화층 공방지	토도	조선	10.1	17.2	7.2	9-5 7-5	Y
2017-1255 -0006	백자 지석	1	상부문화층 공방지	토도	조선	(14.3)	(14.2)	1.4~1.8	9-6 7-6	Y
2017-1255 -0007	도지미	1	상부문화층 공방지	토도	조선	5.6	5.6	2.7	9-7 7-7	Y
2017-1255 -0008	도지미	1	상부문화층 공방지	토도	조선	5.7	5.6	3.1	9-8 7-8	Y
2017-1255 -0009	백자 종지 저부	1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1호	토도	조선	(3.3)	-	5.0	10-9 8-9	Y
2017-1255 -0010	백자 접시	1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1호	토도	조선	5.1	17.6	6.5	10-10 8-10	Y
2017-1255 -0011	백자 발	1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1호	토도	조선	8.6	-	6.6	10-11 8-11	Y
2017-1255 -0012	백자 접시 저부	1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호	토도	조선	(3.2)	-	6.2	11-12 11-12	Y
2017-1255 -0013	백자 발 저부	1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호	토도	조선	(4.5)	-	6.8	11-13 11-13	Y
2017-1255 -0014	도지미	1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호	토도	조선	지름13.2	-	0.9~1.3	11-14 11-14	Y
2017-1255 -0015	도지미	1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호	토도	조선	지름9.3	-	1.3~1.6	11-15 11-15	Y
2017-1255 -0016	도지미	1	상부문화층 수혈유구 3호	토도	조선	지름8.4	-	1.2~1.4	11-16 11-16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광주 상번천리 526-1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 3011-2173	FAX	(02) 566-5954
執筆 · 編輯者	정훈진 · 이진호 · 김정민 · 조은이 · 정홍선 · 유혜원			
調査 緣由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박종섭 · 이창욱 · 김정민 · 조은이 · 양현승			
遺蹟調査地番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526-1번지			
調査面積	180㎡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태토찌꺼기 폐기장	조선시대 전기 (하부문화층)	1기	백자 발 · 갑발	발굴유예
수혈유구		3기	·	
주혈		6개	·	
공방지	조선시대 전기 후반~ 중기 초반 (상부문화층)	1기	백자 발 · 백자 접시 · 도지미 · 백자 지석 등	
수혈유구		4기	백자 발 · 백자 접시 · 도지미	
주혈		1개	·	

136. 옥천 금산리 157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36-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36-9

Ⅲ. 조사내용 …… 136-18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 136-20
1) 초석 …… 136-21
2) 적심 …… 136-21
(1) 적심 1호 …… 136-21
(2) 적심 2호 …… 136-22
(3) 적심 3호 …… 136-23
3) 석렬유구 …… 136-23
(1) 석렬유구 1호 …… 136-23
(2) 석렬유구 2호 …… 136-23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 136-25
1) 건물지 …… 136-26
2) 담장 …… 136-40
3) 석축 …… 136-40
4) 수습유물 …… 136-42

Ⅴ. 조사성과 …… 136-43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36-1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36-11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36-14
도면 4.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지적도(1:500) …… 136-17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 136-18
도면 6.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유구배치도 …… 136-20
도면 7.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초석 …… 136-21
도면 8.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적심 1~3호 …… 136-22
도면 9.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석렬 1 · 2호 …… 136-24
도면 1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유구배치도 …… 136-25
도면 1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 136-27
도면 1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1 …… 136-31
도면 13.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2 …… 136-33
도면 14.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3 …… 136-35
도면 1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4 …… 136-36
도면 1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5 …… 136-38
도면 17.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6 …… 136-39
도면 1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담장 …… 136-40
도면 1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축 …… 136-41
도면 2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습유물 …… 136-42

도 판 목 차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원경, ②근경) …… 136-49
도판 2. 발굴조사 대상지 조사후…… 136-50
도판 3.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전경(①), 초석(②조사후, ③토층), 적심 1~3호 전경(④) … 136-51
도판 4.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적심 1~3호(①~③세부, ④토층), 석렬 1호(⑤조사후, ⑥토층), 2호(⑦조사후, ⑧토층) …… 136-52
도판 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①조사전, ②조사중) …… 136-53
도판 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①조사후, ②~④토층, ⑤북쪽기단) …… 136-54
도판 7.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①②북쪽기단, ③남쪽기단, ④⑤토층, ⑥⑦유물출토상태) …… 136-55
도판 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 조사후 …… 136-56
도판 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 초석 세부 …… 136-57
도판 1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①~⑤아궁이, ⑥⑦부뚜막) …… 136-58
도판 1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 고래 및 구들 …… 136-59
도판 1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①고래 세부, ②구들 전경)…… 136-60
도판 13.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①~③구들 세부 및 토층, ④~⑦고래 토층) …… 136-61
도판 14.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①개자리, ②~④연도, ⑤굴뚝하부, ⑥⑦유물출토상태) …… 136-62
도판 1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서편 건물 조사후 …… 136-63
도판 1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서편 건물(①②초석, ③~⑤아궁이, ⑥~⑧부뚜막, ⑨⑩구들) …… 136-64
도판 17.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서편 건물(①②고래 세부, ③~⑤고래 토층, ⑥~⑨개자리 및 굴뚝하부) …… 136-65
도판 1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1…… 136-66
도판 1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2…… 136-67
도판 2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3 …… 136-68
도판 2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4…… 136-69
도판 2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담장(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석축(④⑤), 수습유물(25) …… 136-70

Ⅰ.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157번지로, 사업시행자 오양길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516㎡)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는 '옥천 금천사지' 사역의 서쪽에 해당하고 '옥천 금산리 153-3번지 내 유적'과 인접하며, 주변에는 '금천사지 석조 및 부도부재' 및 '금천사지 부도' 등이 분포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옥천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택 신축 예정부지에 대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재단에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견청취를 2017년 3월 9일 요청하여 본 재단에서는 시굴조사 실시 의견 제시 및 국비지원에 해당함을 회신하였다. 이에 옥천군에서는 공사 이전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다.

옥천군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4월 10일 문화재협업포털을 통해 본 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재단에서는 상반기 국비지원 신청 건의 폭증으로 대기기간의 증가 및 접수된 민원해결 등을 고려하여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에 대행조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에서 7월 28일 시굴조사[1]를 실시하여,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부석시설인 적심과 구들시설, 석렬유구 등을 확인하였고 7월 30일 학술자문회의[2]에서 시굴조사 대상지 전체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래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를 대행한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나 하반기 국지비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재단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재단에서는 9월 5일에 발굴조사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발굴조사는 9월 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18일에 대한 허가(제2017-1163호)를 받은 후 9월 12일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10월 18일까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2개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상부문화층에서는 건물지 1동, 담장 1기, 석축 1기가 조사되었고 하부문화층에서는 초석 1기, 적심 3기, 석렬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0월 11 · 12일에 학술자문회의[3]를 개최하였다. 학술자문회의 결과, '현 건물지 아래로도 선대의 건물지가 있는 것이 트렌치에서 확인되고 상층의 건물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최대한 기록을 남기되 전문가검토회의를 통해 하층 유구의 조사여부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11월 7일 개최된 전문가검토회의[4]를 통해 '하부 유구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유예하고 유구 상부로부터 1m 이상 복토(성토)하여 현지보존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11월 15일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결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존방안대로 유구상부

---

1)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7,「옥천 금산리(15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문화재 발(시)굴조사 약보고서」.
2) 자문위원 : 차용걸(충북대학교 명예교수), 하문식(세종대학교 교수)
3) 자문위원 :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조원창(한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4) 검토위원 : 곽장근(군산대학교 교수), 변영환(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1m 이상 복토(성토)보존한 후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단, 복토(성토) 및 터파기 등 기초공사시 조사기관 입회하에 시행하고 입회조사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조치사항이 내려왔다. 이에 재단에서는 12월 4일~12월 7일까지 4일간 현장 복토작업을 진행하였다.

발굴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 (조사연구실장)
책임조사원 : 정 훈 진 (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 김 미 현 (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오 정 영 (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 최 성 수 (조사연구2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정훈진(조사연구2팀장) 책임 하에 김미현(도판)·오정영(도면)이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유혜원·김형란·임희정·기여운·손지선(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 등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유혜원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이순희(시림 아카이브)가 촬영하였다.

원고 Ⅰ·Ⅱ장 김미현, Ⅲ장 김미현(조사내용 및 유구)·유혜원(유물), Ⅳ장 김미현이 작성하였으며, 교정과 교열은 정훈진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5)]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157번지에 해당하며, 경위도상 동경 127° 33′06″, 북위 36° 15′02″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는 옥천군의 남서쪽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쪽의 군서면소재지에서 남동쪽의 장령산 방면으로 금천천 서쪽에 난 장령산로를 따라 금산리까지 가면 금천교 앞에서 만나는 삼거리에서 왼쪽의 금천4길로 금천교를 건너자마자 예각의 왼쪽 길로 민가를 시계방향으로 돌아 80m 정도 간 지점의 길 오른쪽에 해당한다.

옥천군은 충청북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영동군, 북쪽으로는 보은군과 접하고 동쪽은 경상북도 상주시, 서쪽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이어져 충남·충북·경북 3도와 도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교통로는 국도4호선 및 국도37호선 등이 있으며, 옥천군의 중심지역 즉 군북면에서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을 지나며, 옥천-보은, 옥천 금산, 청성-영동을 지난다. 이 길은 예로부터 추풍령을 지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중심하천은 금강으로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넓은 호수를 이루고 있으며, 옥천군내 모든 수계와 연결된다. 옥천군은 금강의 본류가 관류하는 소백산맥의 속리산에서 뻗어 온 산줄기가 비교적 험준한 산악을 이루는 구릉성 산지 지역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적 특징을 지닌다. 동쪽 소백산맥의 팔음산(762m)을 최고봉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천금산(464m), 북쪽으로는 삼승산(574m), 근척산(652m) 등이 둘러싸고 있다.

옥천에서는 대청댐 수몰지구 내인 용호리 유적과 막지리 유적[6)]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인류가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용호리 유적에서는 타제석기인 긁개 1점과 물고기 모양의 형체 조각품 1점 등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막지리 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과 타제석기 1점이 수습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대청댐 수몰지구내에서 확인된 막지리 막기 유적, 석탄리 안터 유적과 내륙지역에서 확인된 용방리 유적, 대천리 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옥천의 내륙지역에서 최근에 조사된 용방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불탄자리와 함께 어골문이 시문된 즐문토기편이 발견되어 내륙의 신석기문화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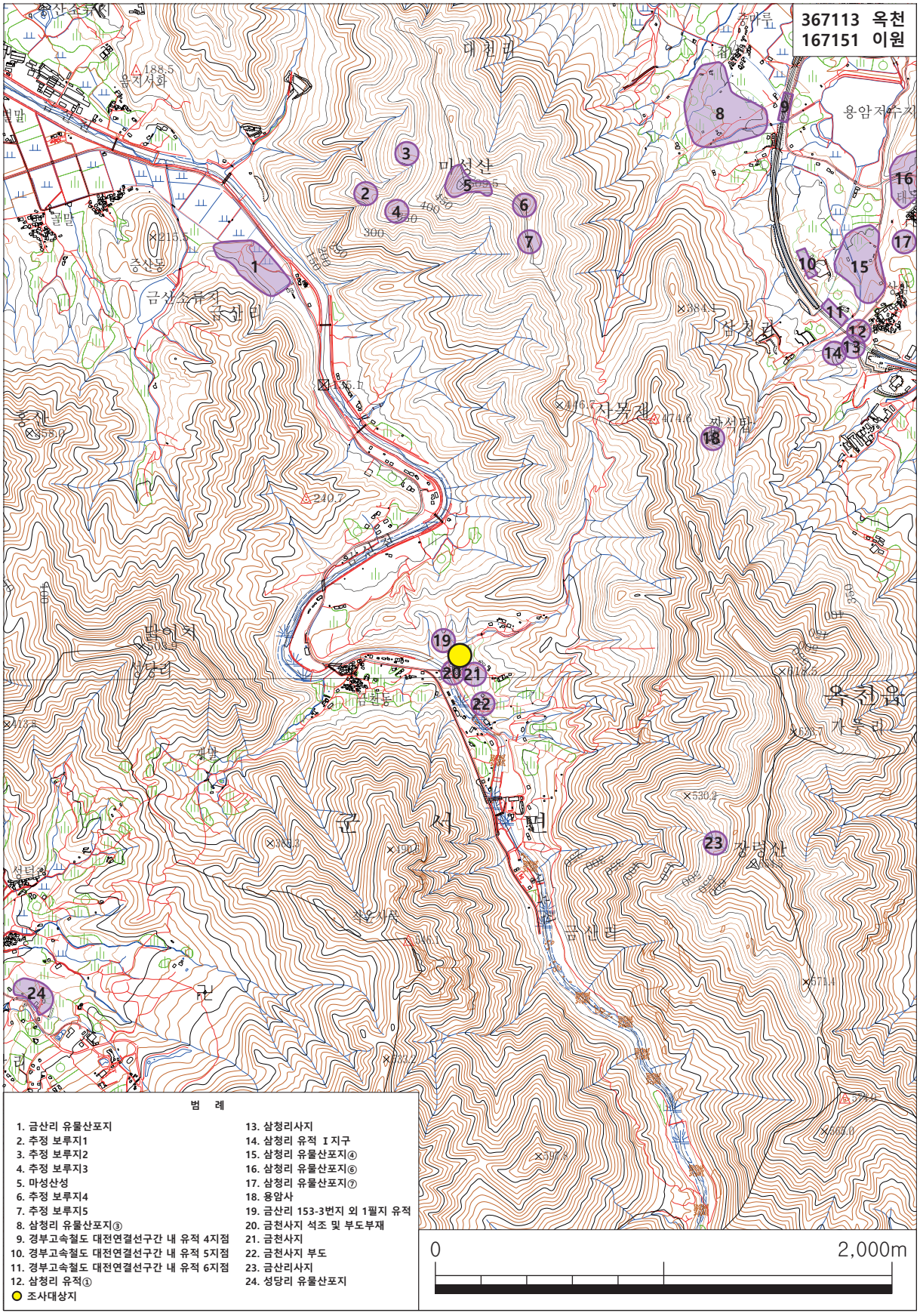
또한 대천리 유적에서는 완형에 가까운 집자리와 함께 즐문토기편, 탄화된 곡물류, 농경도구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의 경우 석탄리 안터에서 발견된 지석묘는 북방식과 남방식의 고인돌이 혼재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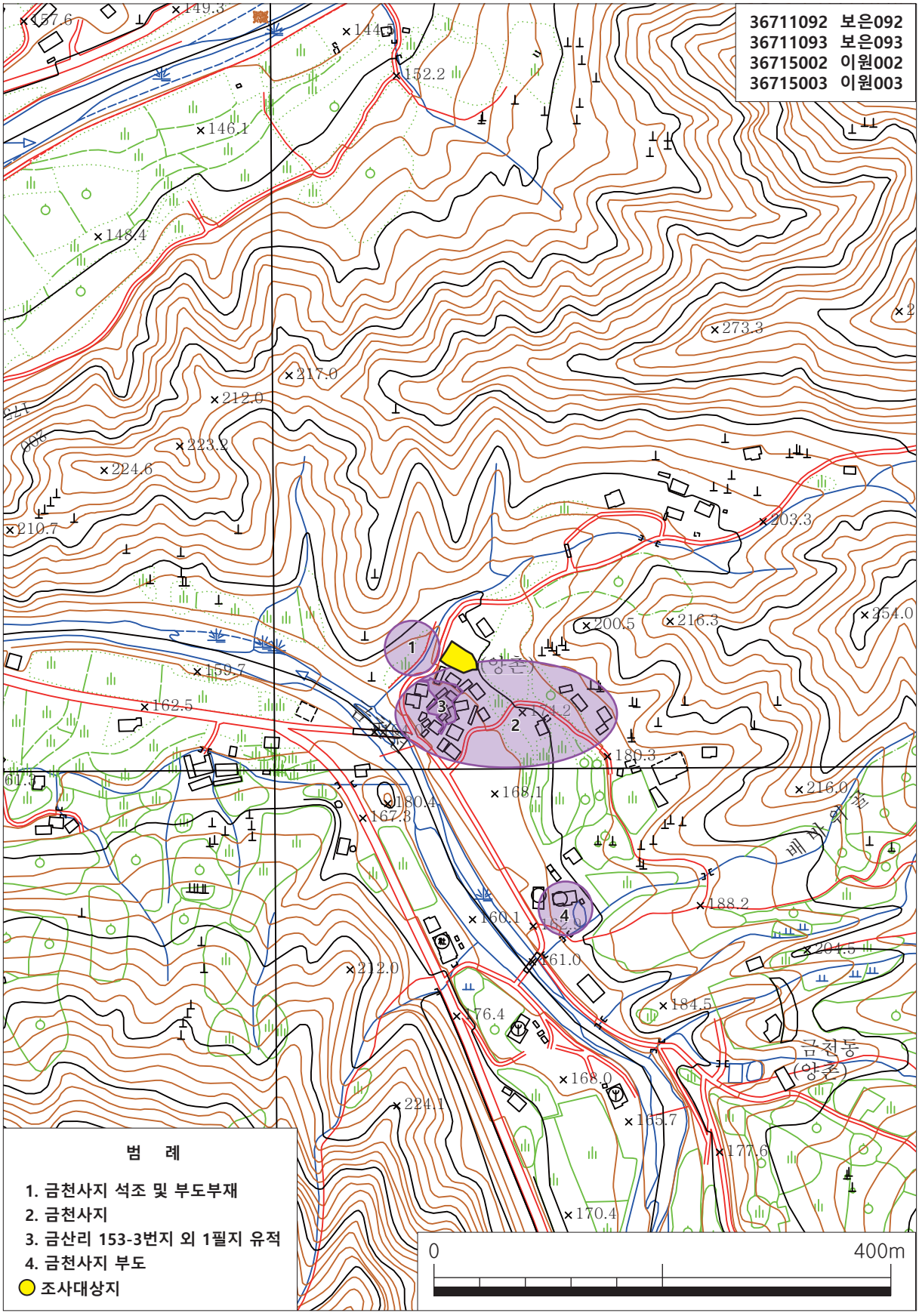
---

5) 유적의 위치와 환경은 아래의 문헌을 참고하여 수정 · 가필하였다.
① 옥천군지편찬위원회, 2015,『옥천군지』.
②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3,『沃川 仁浦里 炭窯 遺蹟』.
③ 中央文化財硏究院, 2007,『沃川 增若里遺蹟』.
④ 淸州大學校博物館 · 沃川郡, 2005,『文化遺蹟分布地圖 -沃川郡-』.

6) 충남대학교박물관, 1978,『대청댐 수몰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양상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는 신라 지증왕 7년(506) 2월에 신라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주군제를 실시하게 되자, 고척산군(古尺山郡)으로 편제되었다. 법흥왕 12년(525)에는 상주군주의 관할하에 두었다가 진흥왕 18년(557)에 한때 상주를 폐지한 적이 있었다. 더불어 백제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하여 군사적 요충지로 많은 산성이 축조되었다. 관방유적으로는 옥천읍 서산성, 삼양리토성, 안남면의 조천성, 화계리산성, 청산면의 굴산성, 저점산성, 군서면의 성치산성, 삼성산성, 동평리 성재산성, 마재산성 등[7]이 있다. 특히 군북면에 있는 고리산성은 관산성(管山城)으로 추정되는 산성으로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신라와 백제가 동맹하여 고구려에 대항하다가 신라가 동맹을 깨뜨리고 백제의 영토인 한강유역을 점령하자 554년(신라 진흥왕 15)에 백제는 일본에 원군을 청하는 한편, 대가야와 연합하여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백제는 김무력(金武力) · 고간(高干) 등이 거느린 신라군에 크게 패하여 성왕은 전사하고 좌평 4인, 군졸 2만9600여인이 전사하였다[8]. 이 곳 싸움으로 나제동맹은 깨어졌고 신라는 한강유역을 점유하여 통일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고려가 건국된 초기에 기산현은 청산현으로 개칭되었고 현진현은 안읍현으로 각각 개칭되어 상주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개창 당시에 옥천지역은 경상도 상주목에 소속되어 있었다. 상주에 소속된 황간, 영동, 옥천, 청산, 보은의 다섯 지역은 태종 13년(1413)에 충청도로 이관되었다. 이때 옥주가 옥천군으로 개칭되고 청산현과 함께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이관되었다. 이는 도성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금강유역에 해당하는 추풍령 이북이 비로소 충청도에 소속되었다.

고종 32년(1895)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공주부 옥천군, 청산군으로 개편되었다가 다음해인 고종 33년(1896)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군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청산군이 옥천군에 통합되었고 학산면, 양산면, 용화면이 영동군으로 이속되었다. 해방 후인 1949년에는 옥천면에 읍으로 승격되면서 현재는 옥천읍, 안남면, 안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등 1읍 8면 215리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다.

금산리(金山里)는 원래 옥천군 군서면 월서화리(越西化里)에 속해있던 마을로서 후에 동평리와 금산리로 분구되어 현재에 이른다. 1739년 기록에는 군서면 월서화리라 하여 88호가 살았으며, 1891년 기록에는 100호가 살았는데 이때는 동평리와 금산리를 관할하였다. 1908년 군,면 조정 때 군서면을 군서일소면(郡西一所面)과 군서이소면(郡西二所面)으로 나누었으며, 월서화리는 이소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의 전면조정 때 일소면과 이소면을 합하여 다시 군서면으로 고치면서 이때 월서화리를 동평리와 금산리로 나누었다.

금산리라 부르게 된 것은 자연마을을 합쳐 새로운 리동을 만들면서 금이 많이 나는 광산이 있었고

---

7) 淸州大學校博物館 · 沃川郡, 2005,『文化遺蹟分布地圖 -沃川郡-』.

8)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15年.
十五年 秋七月 修築明活城 百濟王明穠與加良 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湌耽知等 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 以州兵赴之 及交戰 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 急擊殺百濟王 於是 諸軍乘勝 大克之 斬佐平四人 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

조선시대 중기까지 금천사라는 큰절과 서대산에서 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큰 하천이 있기 때문에 붙은 금천(金川)과 신라 때 고시산군의 소재지였다는 '시림이'(식율평(食栗坪), 시름뜰)를 시루로 해석하여 시루증(甑) 자와 뒤에 산이 있다 하여 메산(山) 자를 써서 증산(甑山)이라 부른 증산에서 각각 한 자씩을 딴 것이다. 금산리의 자연마을은 금천, 시림이(시루미, 증산동), 음지서화, 잿말 등이 있다. 2007년말 현재 증산리에 58호 153명, 금천리에 58호 131명이 살고 있다.

증산리에는 아버지의 신주가 불에 타자 불에 뛰어들어 죽은 김영복 효자와 김영복 효자의 현손으로 효성이 지극해 조정에서 불러도 나오지 않았던 김건 효자에게 조정이 내려준 효자문이 있다. 이 효자문 옆에는 병든 어머니가 있는 여막이 불에 타자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 타죽은 김건 효자의 몸종 옥금 효녀문은 우리고장 유일한 노비 효녀문이다. 고시산군의 소재지였던 시림이 마을은 고려 때까지 관아터가 있었던 곳이고 금천천 건너편에 있는 음지서화에는 관리들의 집터가 주로 있었다고 전한다. 특히 관제 성격의 마조제를 옥천읍과 군서면 사이에 있는 마성산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매년 섣달 그믐날 시림이 마을에서 마성산을 바라보며 제를 올리고 있다.

장령산과 마성산 사이에는 예부터 군서 사람들과 금산 사람들이 옥천읍 장을 보던 큰 길이었던 사목(士目)재가 있다. 군서와 옥천읍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조사대상지는 '옥천 금천사지'의 서쪽에 해당하며, 인근에 북쪽의 '금천사지 석조 및 부도부재', 남쪽의 '금천사지 부도'가 확인된다. 석조는 조사대상지의 북쪽 도로면에 대형 석조 1개와 조사대상지의 조사구역 내부 북쪽 경계부에 소형의 석재 1개가 확인되고 있다. 위치는 최근 주택건설 및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옮겨져 본래의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형 석조의 크기는 길이 240㎝, 너비 160㎝, 높이 54㎝ 정도이며, 상면 측벽의 두께는 16㎝ 정도이다. 부도는 조사대상지에서 직선거리로 200m 정도 떨어진 남동쪽에 있는 장령산가든의 연못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부도는 지붕과 기단은 없어지고 탑신만 자연석 위에 놓여 있는데 원위치에서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전으로는 故여옥구 이장의 논 옆에 있어 이곳을 '부도날'이라 불렀으나 땅속에 파묻혀 현재는 자취를 알 수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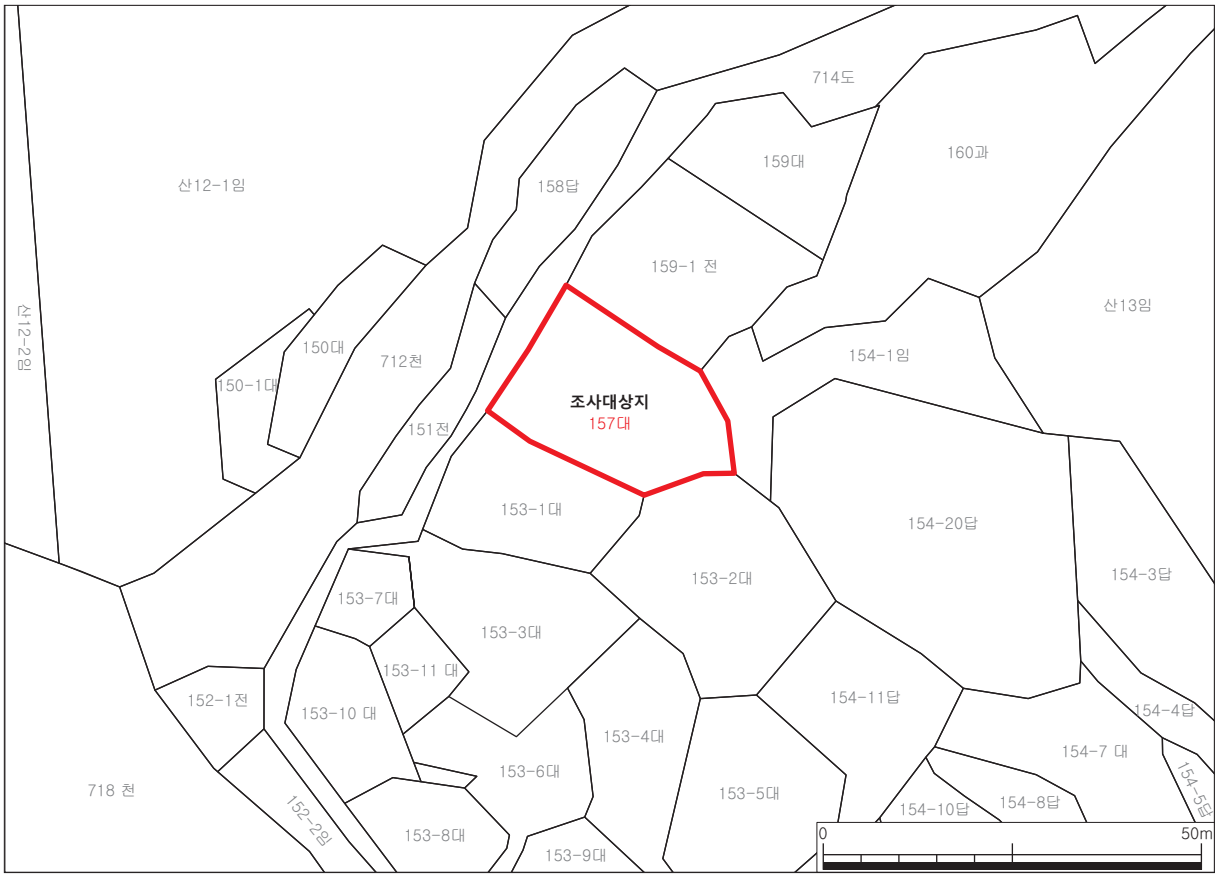
금천사지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고문서나 고지도 상에서는 금천사지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일부 지역출신의 시문집에서 금천사(金川寺)라는 사명(寺名)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선조 13년(1580) 고암 정립[9] 선생의 고암유고(顧菴遺稿)[10]에 금천사에서 공부를 했다는 일기

---

10) 본관은 하동(河東). 초명은 방(霧). 자는 군흡(君洽), 호는 고암(顧菴). 옥천 출신(1554~1640)으로 1579년(선조 12)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15년(광해군 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성균관학유 · 전적 · 좌랑 등을 비롯하여 진해현감 · 경상도도사를 거쳐 1623년(인조 1) 춘추관기주관 겸 교리와 정랑 · 군자감정 · 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조헌(趙憲) · 이충범(李忠範)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군량미를 보급하였으며, 진해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유학을 진흥시키고 농업을 권장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그 고을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워 그의 업적을 기리기도 하였다.

10) 6권 3책. 석판본. 1936년 그의 10대손 상필(相弼)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성두식(成斗植)의 서문과 권말에 후손 상필 · 인식(麟植) · 창식(昌植)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사(詞) 3편, 부 5편, 시 68수, 소 4편, 권2에 소 3편, 서(書) 12편, 권3에 잡저 22편, 권4에 서(序) 3편, 기 1편, 잠 2편, 송(頌) 3편, 상량문 1편, 축문 16편, 제문 19편, 묘갈명 · 묘지명 · 묘표 · 행장 · 전(傳) 각 1편, 권5 · 6은 부록으로 연보 · 제현시(諸賢詩) · 사적 · 행장 · 가장 · 묘갈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를 쓴 것이 있으며, 선조 25년(1591) 고경명[11]선생의 제봉집(齊峰集)[12] 5권에 '금천사에서 휴양 중에 서대사(西臺寺)에 오르지 못함을 한탄한다.(昔在金川寺, 西臺恨未登, 煙鬟迷遠黛, 石劍露高稜, 落日孤飛鳥, 秋山獨去僧, 少年餘夢想, 沾洒瘴溪藤)'는 기록이 있다.

또 이순인[13]의 시문집 고담일고[14] 중 '夜入金川寺, 西臺葉正踈, 水舂慣宿鳥, 僧火照遊魚, 楚客傷遷

11) 본관은 장흥,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霽峰), 광주 출신(1533~1592). 1552년(명종 7년) 진사시와 생원시에 모두 합격하고 1558년(명종 13년) 식년시 문과에 갑과 1위로 장원급제한 뒤 관직은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공조좌랑, 형조좌랑, 사간원헌납, 사헌부지평, 홍문관교리를 거쳐 1590년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 1591년 동래부사를 지내다가 서인이 실각하자 곧 파직되어 고향에 돌아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좌도 의병대장으로 활약하였다.

12) 고경명의 아들 고용후(高用厚)가 1617년(광해군 9년) 편집 · 간행하였다. 『제봉집』은 198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역 제봉전서』라는 제목으로, 본집 · 속집 · 유집 외에 유서석록 · 정기록 · 제하휘록 · 제봉연보 · 포충사지 등을 모두 합해 상 · 중 · 하 3책으로 출판되었다.

13) 조선 중기 문신학자이며,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백생(伯生) · 백옥(伯玉), 호는 고담(孤潭). 서울 출생(1533~1592). 아버지는 현령 홍(弘)이며, 어머니는 죽산박씨(竹山朴氏)로 생원 함(諴)의 딸이다. 이황(李滉) · 조식(曺植)의 문인이다. 저서는 고담일고(5권 2책)가 있다.

14) 목활자본. 5권 2책. 1891년(고종 28) 간행. 저자의 10대손인 진옥(鎭玉)이 수집 · 편찬하고 그의 종제(從弟) 진기(鎭琦)가 발간하였다. 내용은 소(疏) · 교문(敎文) · 제문(祭文) · 과체(科體) · 부(賦) · 표(表) · 책(策) 및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책머리에는 고종 때 이름난 문장가인 미산(眉山) 한장석(韓章錫)의 서문이 있고 책 끝에는 이진옥의 발문이 있다.
박미국, 2015, 『譯註-孤潭逸稿 卷之一二』, 전남대학교 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日, 徵君解紱初, 令人懷往事, 回首一噓唏.'라는 시문 중 금천사가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금천사는 임진왜란 전후까지는 절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창건과 폐사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최근까지 영동 영국사에서 금천사역 내의 텃세를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영국사의 관리를 받아 왔던 말사(末寺)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20여년 전에 주민들에게 터를 매각했다고 전한다.

더불어 금천사지 사역내의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조사로는 '옥천 금산리 153-5번지 시굴조사'[15]가 실시되었으나 근대의 교란으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쪽으로 10m 정도 떨어진 옥천 금산리 153-3번지 외 1필지 유적[16]에서는 금천사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지 3동이 확인되었다. 건물지 1호의 경우 장대석을 이용하여 기단부를 조성하고 면석을 설치하여 가구기단의 형태를 취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찰 내 중요한 건물지로 추정하고 있다. 또 건물지 2호의 경우 다른 사찰의 전(殿)이나 당(堂)과 동일하나 내부 초석열이 측면으로 연결되지 않는 형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는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이나 성주 법수사지 고려시대 3호 건물지의 사례처럼 요잡구조의 불단 시설을 중앙부에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적 내 3동의 건물지들이 일정시간 공존했을 경우 건물지 1호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부속건물지들이 병립하는 방식의 가람배치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지 주변유적에 대한 내용은【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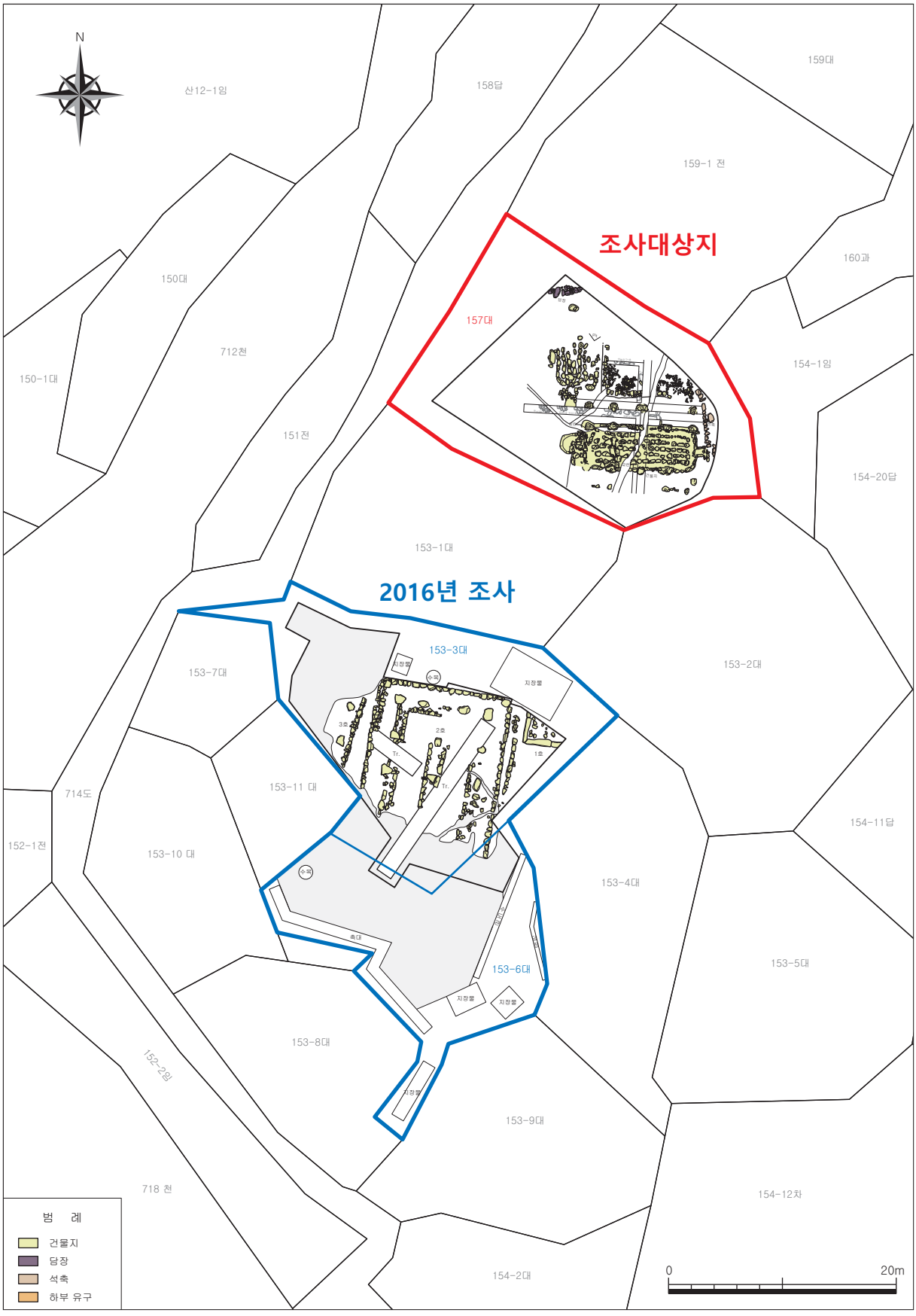
【표 1】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마성산성	북쪽 1,800m	삼국시대 산성	淸州大學校博物館 · 沃川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沃川郡-』	
2	옥천 금산리 유물산포지	북서쪽 1,600m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淸州大學校博物館 · 沃川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沃川郡-』	
3	옥천 용암사 쌍삼층석탑	북동쪽 1,400m	고려시대 불탑	淸州大學校博物館 · 沃川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沃川郡-』	보물 제1338호
4	금천사지 석조 및 부도부재	북서쪽 20m	고려시대 부도	淸州大學校博物館 · 沃川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沃川郡-』	
5	금천사지	조사대상지 포함	고려시대 사지	淸州大學校博物館 · 沃川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沃川郡-』	

15) 미래문화재연구원, 2017,「옥천 금산리 153-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국비지원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시굴조사 결과, 근현대 조성된 건물지로 인해 교란이 심하게 이루어 졌으며, 교란된 층위 내부에서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16) 한국문화재재단, 2018,「6. 옥천 금산리 153-3번지 외 1필지 유적」,『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Ⅵ-충남 2 · 충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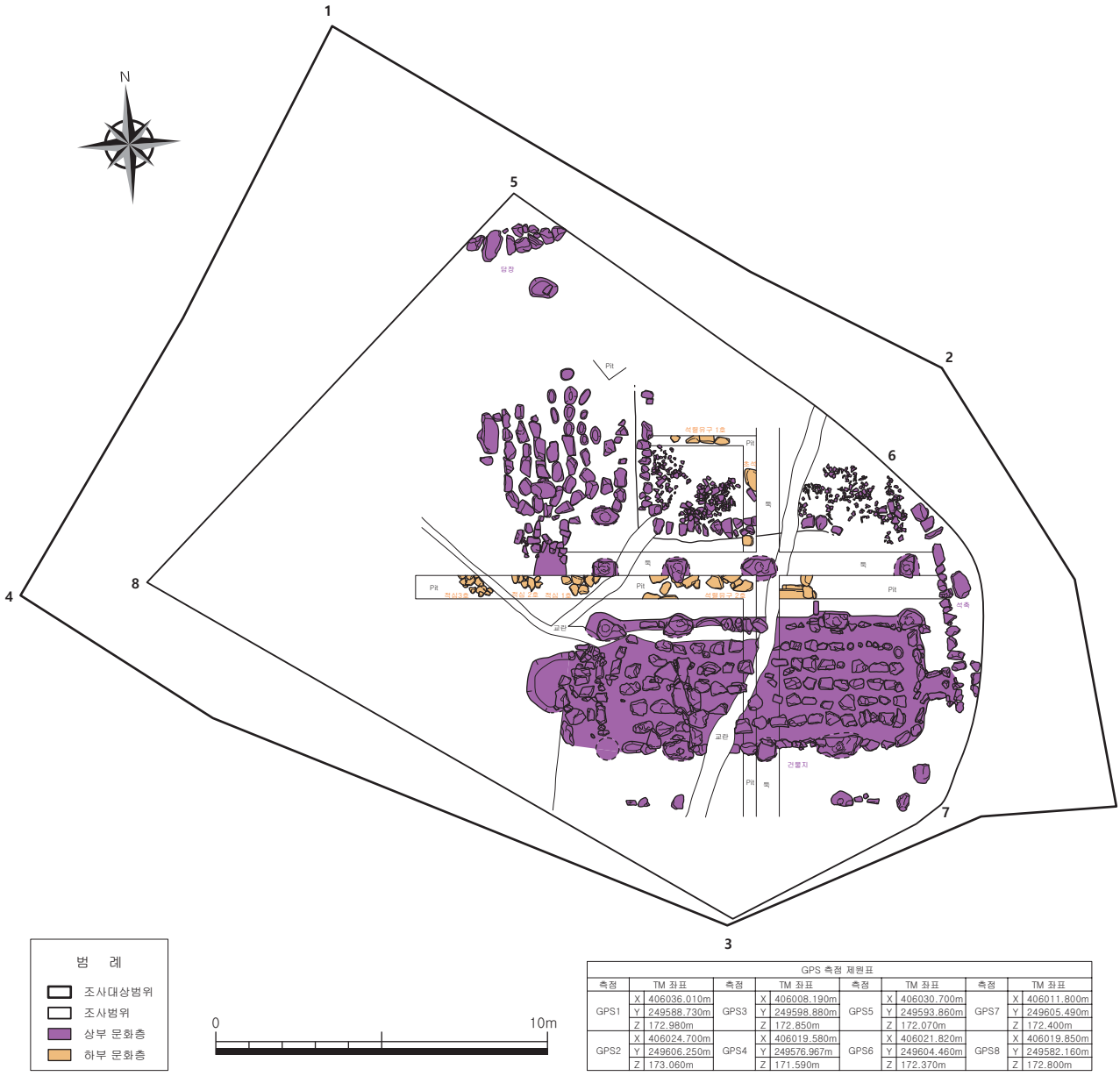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6	금천사지 부도	남동쪽 50m	고려시대 부도	淸州大學校博物館 · 沃川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沃川郡-』	
7	옥천 금산리사지	남동쪽 1,300m	고려시대 사지	淸州大學校博物館 · 沃川郡,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沃川郡-』	
8	옥천 금산리 153-3번지 외 1필지 유적	북쪽 10m	고려시대 건물지	한국문화재재단, 2018, 「6. 옥천 금산리 153-3번지 외 1필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Ⅵ -충남2 · 충북1-』	



도면 4.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지적도(1:500)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장령산(해발 656m)과 마성산(해발 409m)의 중간지점에서 서쪽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지릉의 남서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조사지역의 남서쪽 금천교 앞에서 작은 보를 경계로 하여 남쪽의 상곡천이 서쪽의 금천천과 나뉜다. 현재 조사대상지 주변은 민가와 펜션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구릉 사면부를 개간하여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조사를 위해 기존에 있던 민가를 철거한 나대지 상태였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406036.010m	GPS3	X	406008.190m	GPS5	X	406030.700m	GPS7	X	406011.800m
	Y	249588.730m		Y	249598.880m		Y	249593.860m		Y	249605.490m
	Z	172.980m		Z	172.850m		Z	172.070m		Z	172.400m
GPS2	X	406024.700m	GPS4	X	406019.580m	GPS6	X	406021.820m	GPS8	X	406019.850m
	Y	249606.250m		Y	249576.967m		Y	249604.460m		Y	249582.160m
	Z	173.060m		Z	171.590m		Z	172.370m		Z	172.800m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현장조사는 북쪽에 미철거된 지장물과 수도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진행되었으며, 미철거된 지장물이 있는 북쪽 일대는 기존 건물의 정화조와 수도시설 및 도로 등으로 인한 교란으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조사경계에서 안전 및 토사 붕괴의 위험으로 인해 1~1.5m 가량 이격시켜 제토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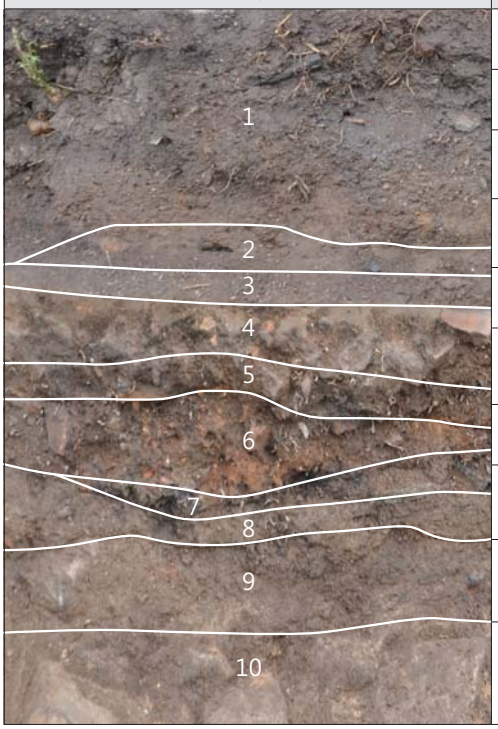
제토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동쪽에서부터 진행하였는데 표토 하 20~50㎝ 정도에서 시굴조사시 노출된 초석과 온돌시설 등이 확인되면서 건물지의 윤곽이 드러났다. 또한 동쪽 경계지점에서 시굴조사시 담장시설로 추정되었던 석렬이 노출되었는데 탐색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정형성이 없는 할석들이 각력질의 모래위에 깔려 있는 것이 확인되어 유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건물지의 축조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지의 중앙부에 동-서방향 및 남-북 방향으로 직교하는 탐색트렌치를 설정하였다. 탐색조사 결과, 상부에 노출된 건물지보다 선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적심 및 석렬유구 등이 하부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상부 문화층 유구의 중요성으로 인해 하부 문화층에 대한 조사는 부분적인 탐색트렌치 내에서 노출된 개략적인 유구의 분포 양상만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지의 전반적인 퇴적양상을 탐색트렌치의 북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토 및 복토층(1·2층) - 자연퇴적층(3층) - 건물지 관련층(4층) - 기단조성층(5·6층) - 대지조성층(7~9층) - 하부문화층(10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1층은 표토 및 복토층으로 회흑색사질토를 동쪽에서 서쪽로 낮아지는 경사면을 따라 10~25㎝의 두께로 복토하여 평탄화하였다.

【표 2】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남쪽)

토층	내용	
	1층 : 회흑색사질토	표토 및 복토층 (두께 10~30㎝)
	2층 : 황갈색점토	
	3층 : 암갈색사질토	자연퇴적층 (표토 하 30~35㎝)
	4층 : 회청색사질점토+와적	건물지 관련층 (표토 하 35~45㎝)
	5층 : 암갈사질점토	조선시대 상부문화층-기단층 (표토 하 45~60㎝)
	6층 : 갈색사질점토 +적갈색사질점토+소토	
	7층 : 흑회색사질토	대지조성층 (표토 하 60~100㎝)
	8층 : 회황색사질토	
	9층 : 황갈색사질점토	
	10층 : 하부 석렬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표토 하 100㎝ 이상)

2층은 황갈색점토로 북동쪽 일부에서만 확인되는 황갈색점토로 10㎝ 내외의 두께로 평탄하게 깔려 있다. 근대 민가를 조성하기 위해 복토한 층이다.

3층은 북쪽 일부에서만 확인되는 암갈색사질토로 5㎝ 내외의 두께의 자연퇴적층으로 점성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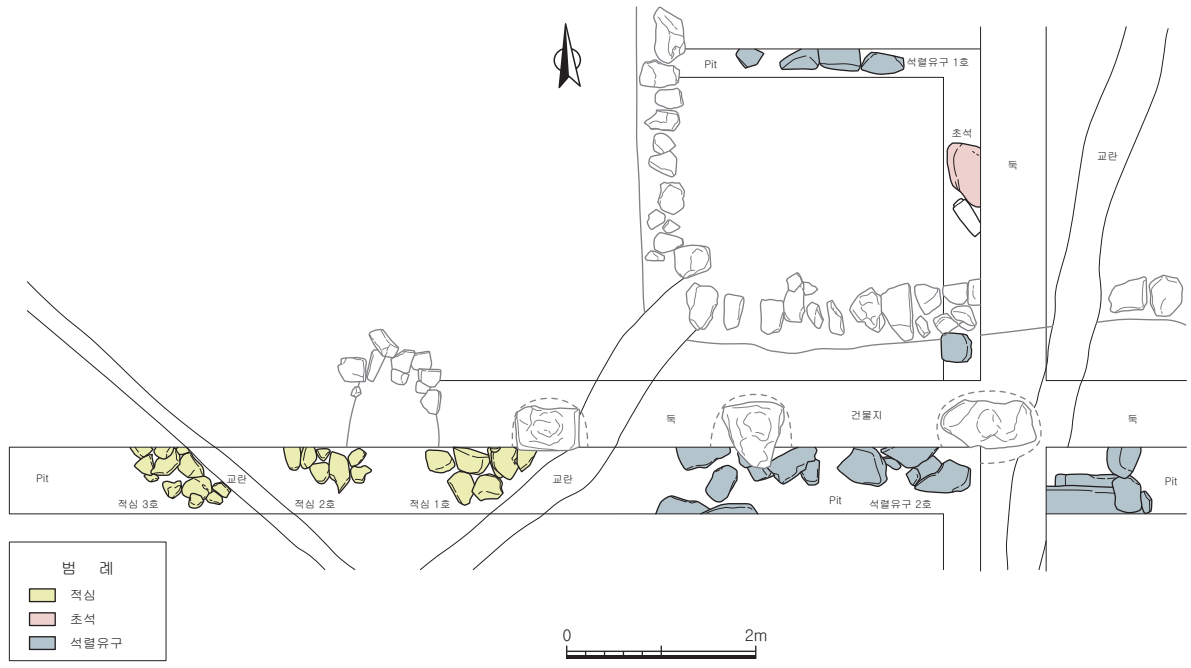
4층은 회청색사질점토에 다량의 기와가 포함된 건물이 폐기되면서 형성된 층이다. 기단 바깥쪽인 동쪽 및 서쪽에 특히 두껍게 확인된다.

5·6층은 암갈색사질점토(5㎝), 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10㎝)가 차례로 확인되는 기단 내부층으로 다량의 소토 및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7~9층은 대지조성은 북고남저 및 동고서저로 경사진 자연퇴적층의 상부 및 하부 건물지 위에 황갈색사질점토(9층, 10~15㎝), 회황색사질토(8층, 10㎝), 흑회색사질토(7층, 10~15㎝)를 깔아 상면을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7·8층에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소토나 목탄이 다량 혼입되어 있었다. 즉, 하부 유구 위를 정지하여 대지조성을 하였고 지형이 높은 동쪽 일부에서만 자연경사면을 따라 할석들이 군데군데 섞인 각력질 모래로 이루어진 자연퇴적층을 활용하였다[17].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하부문화층은 상부문화층에서 확인된 건물지의 보존을 위해 전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상부 건물지 사이에 설정한 탐색트렌치에서 한정적으로만 노출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서편 건물지 아궁이 하



도면 6.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유구배치도

17) 금산리 153-3번지 유적의 경우 하부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연퇴적층의 상면을 정지하고 축조하였다. 본 유적에서는 하부 유구(추정 건물지)로 인해 일부에서만 자연퇴적층이 확인된다.

부에서 확인된 적심 3개소 외에 조사구역 중앙부에서 확인된 석렬유구 2기 및 초석 1기 등 총 5기이다. 하부에서 확인된 유구의 특이점으로는 적심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상부건물지의 적심토의 사용과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상부 건물지의 중요성으로 인해 보존조치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트렌치 내에서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 하부 건물지의 폐기 이후 그 상부에 건물지를 만들기 위한 대지조성과정에서 건물지를 파괴하고 대지를 넓여 축조한 탓에 잔존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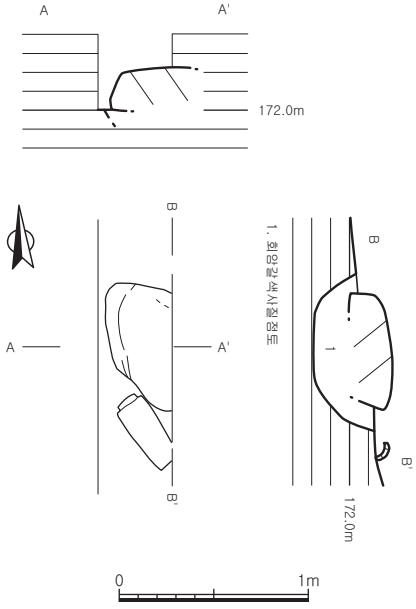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7, 도판 3-②③)

조사대상지의 중앙부근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확인되었는데 해발 172m지점에서 확인되었다. 북쪽으로 석렬 1호가 약 10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약 270㎝ 떨어진 지점에는 석렬 2호가 있다.

초석은 적심토 상면에 배치하였는데 상면을 편평하게 다듬은 할석재를 사용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초석의 규모는 63×33×21㎝이다.

적심토는 회암갈색사질점토를 평면 원형으로 굴착하고 내부에 입자가 굵은 회갈색사질토를 채워 넣었다. 적심토 규모는 지름 82㎝, 깊이 34㎝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7.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초석

2) 적심

적심은 조사구역 내에서 3기가 조사되었는데 협소한 조사면적으로 인해 전체의 형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평면형태 외에 절개 등의 추가 조사는 하지 못하였다. 다만 적심들간 축조방법과 규모, 상면의 높이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동일 건물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으나 건물 전체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유구로 서술하였다. 편의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각각 1호·2호·3호로 명명하였다 .

(1) 적심 1호

가. 유구(도면 8, 도판 3-④ · 4-①④)

조사대상지의 하부문화층에서 가장 서쪽에서 확인된 유구로 해발 171.7m지점에서 확인되었다. 동쪽으로 적심 2호가 약 15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300㎝ 떨어진 지점에는 적심 1호가 있다. 후대 수도파이프로 인한 교란으로 인해 동쪽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잔존규모는 지름 107㎝ 정도이다. 내부에는 12×14~21×36㎝ 크기의 할석과 함께 암황갈색사질점토를 채워 조성하였다. 할석 중 중앙부 동쪽 할석들은 교란되어 사선방향으로 빠져 있는 상태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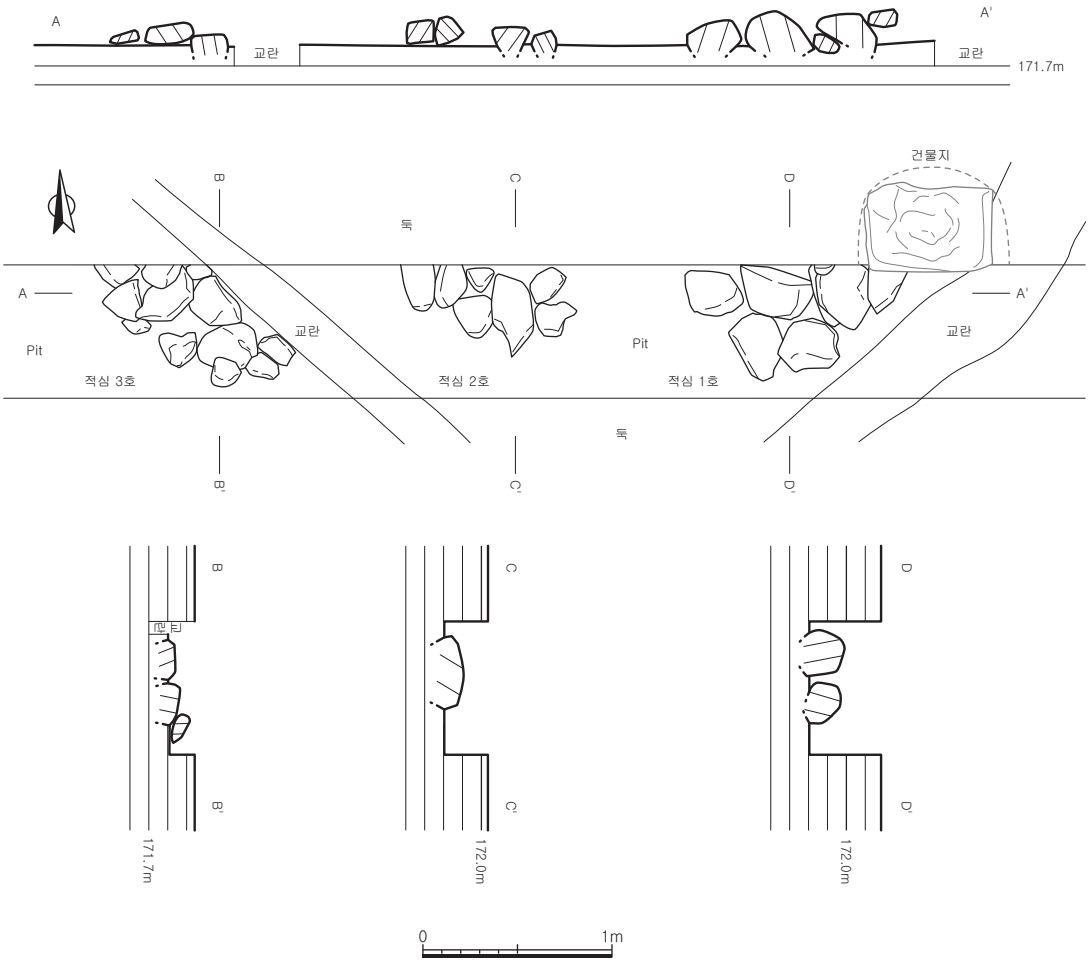
(2) 적심 2호

가. 유구(도면 8, 도판 3-④ · 4-②④)

조사대상지의 중앙부근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확인되었는데 해발 171.7m 정도에 해당한다. 서쪽으로 약 150㎝ 떨어져 적심 3호가 위치하며, 동쪽으로 약 150㎝ 떨어진 지점에는 적심 1호가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잔존규모는 지름 93㎝ 정도이다. 내부에는 12×14~21×45㎝ 크기의 할석과 함께 암황갈색사질점토를 채워 축조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8.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적심 1~3호

(3) 적심 3호

가. 유구(도면 8, 도판 3-④ · 4-③④)

조사대상지의 중앙부근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확인되었는데 해발 171.7m 정도에 해당한다. 서쪽으로 약 150㎝ 떨어져 적심 2호가 위치하며, 동쪽으로 약 150㎝ 떨어진 지점에는 석렬 2호가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잔존규모는 지름 117㎝ 정도이다. 내부에 30×23~38×26㎝ 크기의 할석과 함께 암황갈색사질점토를 채워 축조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 석렬유구

석렬유구는 조사구역 내에서 2기가 조사되었는데 협소한 조사면적으로 인해 석렬유구 전체의 형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평면형태 외에 절개 등의 추가 조사는 하지 못하였다. 편의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각각 1·2호로 명명하였다.

(1) 석렬유구 1호

가. 유구(도면 9, 도판 4-⑤⑥)

조사대상지의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해발 172m지점에서 확인되었다. 남쪽으로 적심 1호가 약 10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약 370㎝ 떨어진 지점에는 석렬유구 2호가 있다.

갈색사질점토 및 생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一'자형이며, 노출된 너비는 90㎝이다. 노출된 규모는 너비 90㎝이다. 크기 20×12~32×30㎝ 내외의 할석을 사용하여 바깥쪽으로 면이 맞도록 설치한 후 할석 사이와 뒤쪽 빈공간을 명갈색사질점토를 채웠고 현재 최고 2단이 잔존하고 있다. 장축방향은 건물지 1·2호와 동일하며, 규모는 길이는 346㎝·너비 98㎝·최대높이 26㎝이다.

석렬유구는 탐색트렌치 내에서 부분적으로만 노출되고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구조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담장 혹은 기단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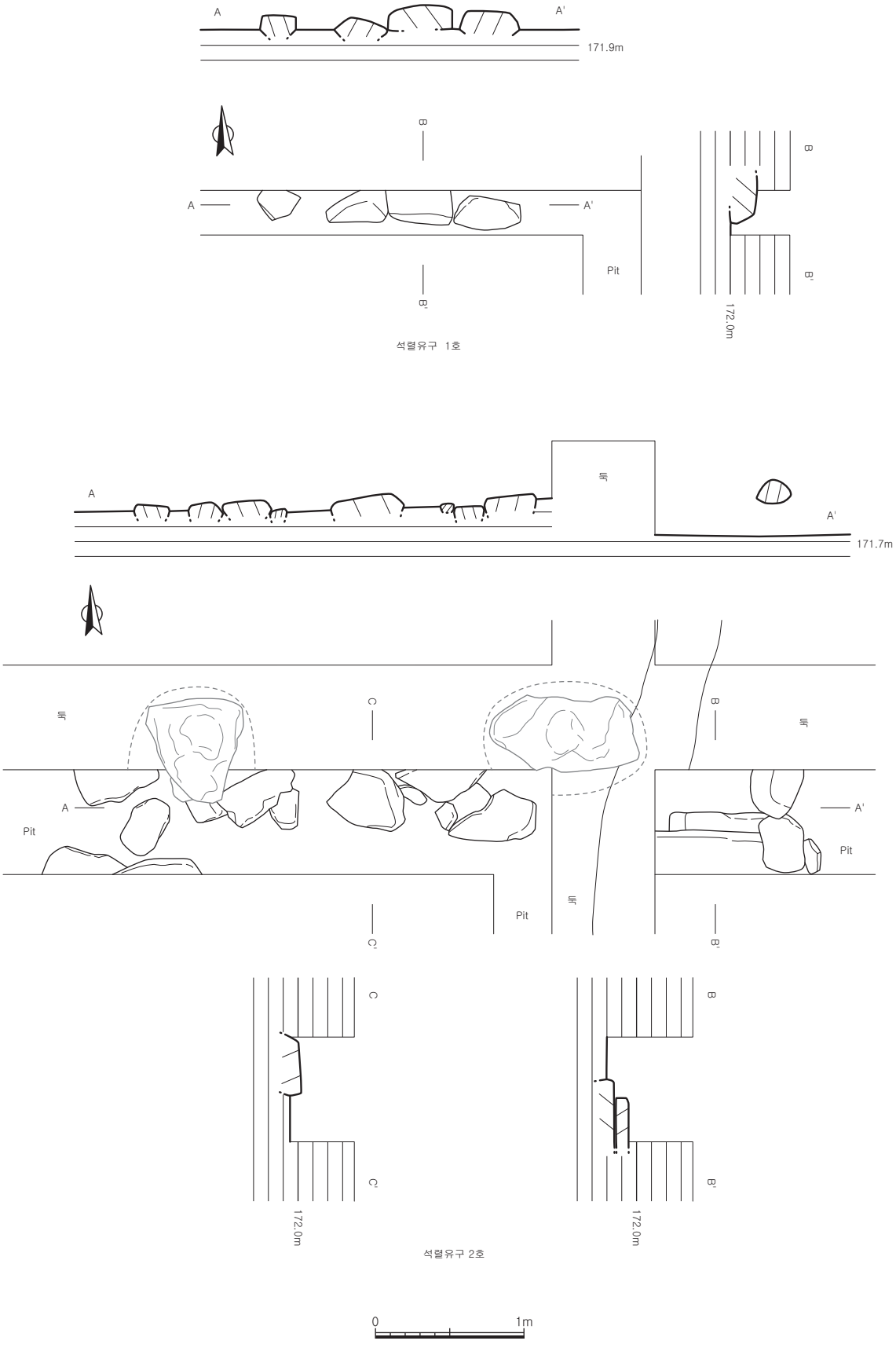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석렬유구 2호

가. 유구(도면 9, 도판 4-⑦⑧)

조사구역 중앙부 해발 172m에서 확인되었다. 석렬유구의 북쪽 부분은 입회트렌치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남쪽 부분은 초석 3호와 건물지 3호에 의해 파괴되었고 동쪽 대부분은 가스관 매설로 파괴되었다. 서쪽 부분은 조사구역 경계외곽으로 연장된다.

갈색사질점토 및 생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一'자형이며, 노출된 너비는 90㎝이다.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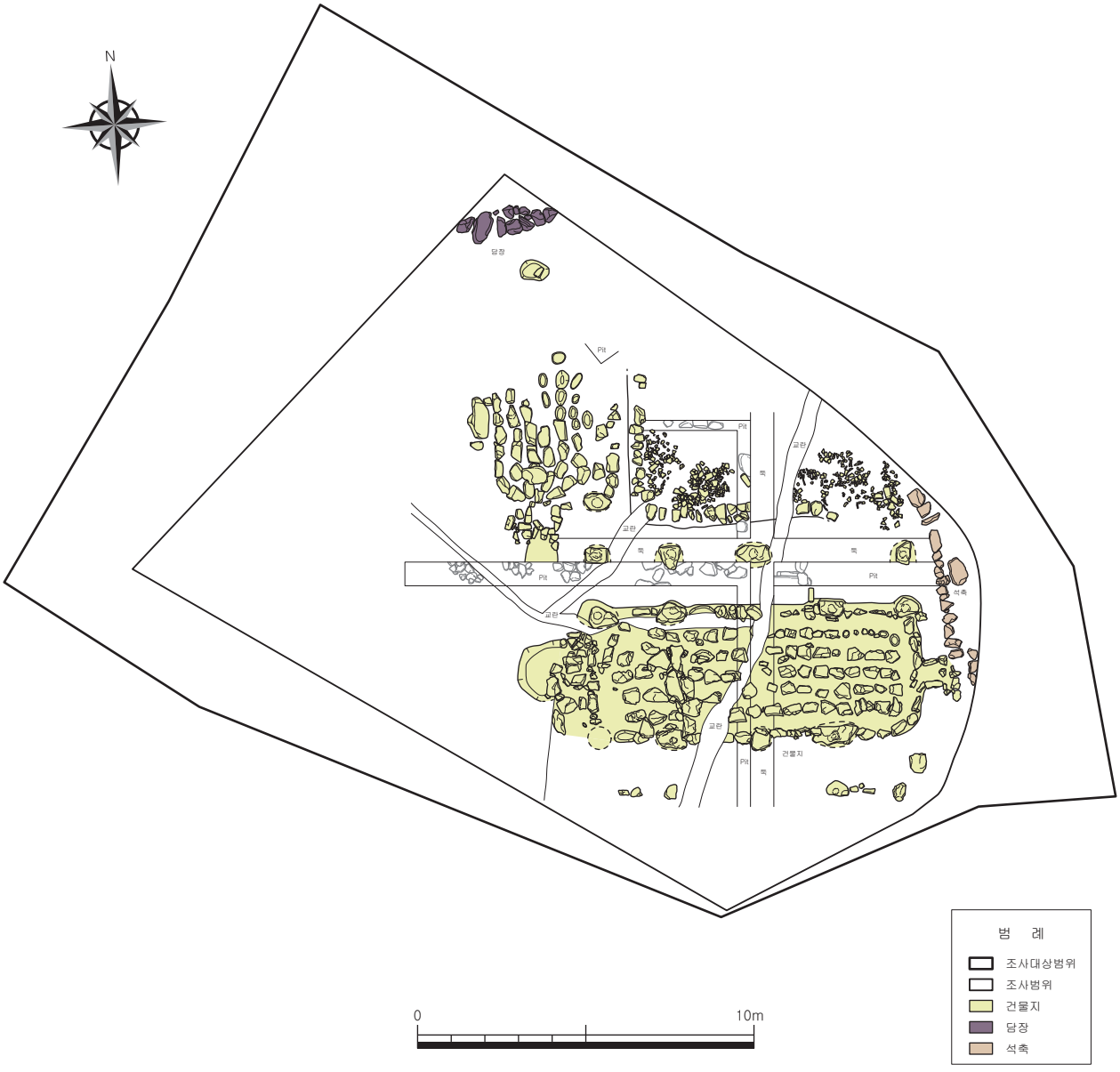
도면 9.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석렬 1 · 2호

기 28×23~47×16㎝ 내외의 할석을 사용하여 바깥쪽으로 면이 맞도록 설치한 후 할석 사이와 뒤쪽 빈 공간을 명갈색사질점토를 채웠고 현재 최고 2단이 잔존하고 있다. 장축방향은 건물지 1·2호와 동일하며, 규모는 길이 532㎝·너비 98㎝·최대높이 23㎝이다.

유구의 성격은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호와 비슷한 기단이나 담장의 일부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도면 1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유구배치도

1) 건물지

가. 유구(도면 11, 도판 5~17)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상단인 동쪽에 약간 치우친 해발 172.5m에서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부엌, 방(온돌시설), 퇴칸으로 구성되었으며, 북쪽 및 서쪽 일대는 근대 교란으로 훼손되었다. 즉, 동-서방향의 5×2칸으로 이루어진 남편 건물과 남북방향의 4×1칸인 서편 건물이 남서쪽에서 연결되어 평면형태는 ㄴ자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부엌의 경우에는 남서쪽 모서리에 연접해 있어 두 개가 하나의 공간 안에 통합된 형태이다.

장축방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동서방향의 남편 건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서(N-87°-W)향이며, 전체 잔존규모는 동서길이 1,360㎝, 남북길이 1,560㎝이다. 건물별 잔존규모는 남편 건물이 길이 1,266㎝, 너비 745㎝, 서편 건물이 길이 902㎝, 너비 678㎝이다.

건물지의 축조방법은 크게 '대지조성 → 기단토 조성 → 기단 설치 → 적심토 구축 및 초석 설치 → 온돌 및 부엌 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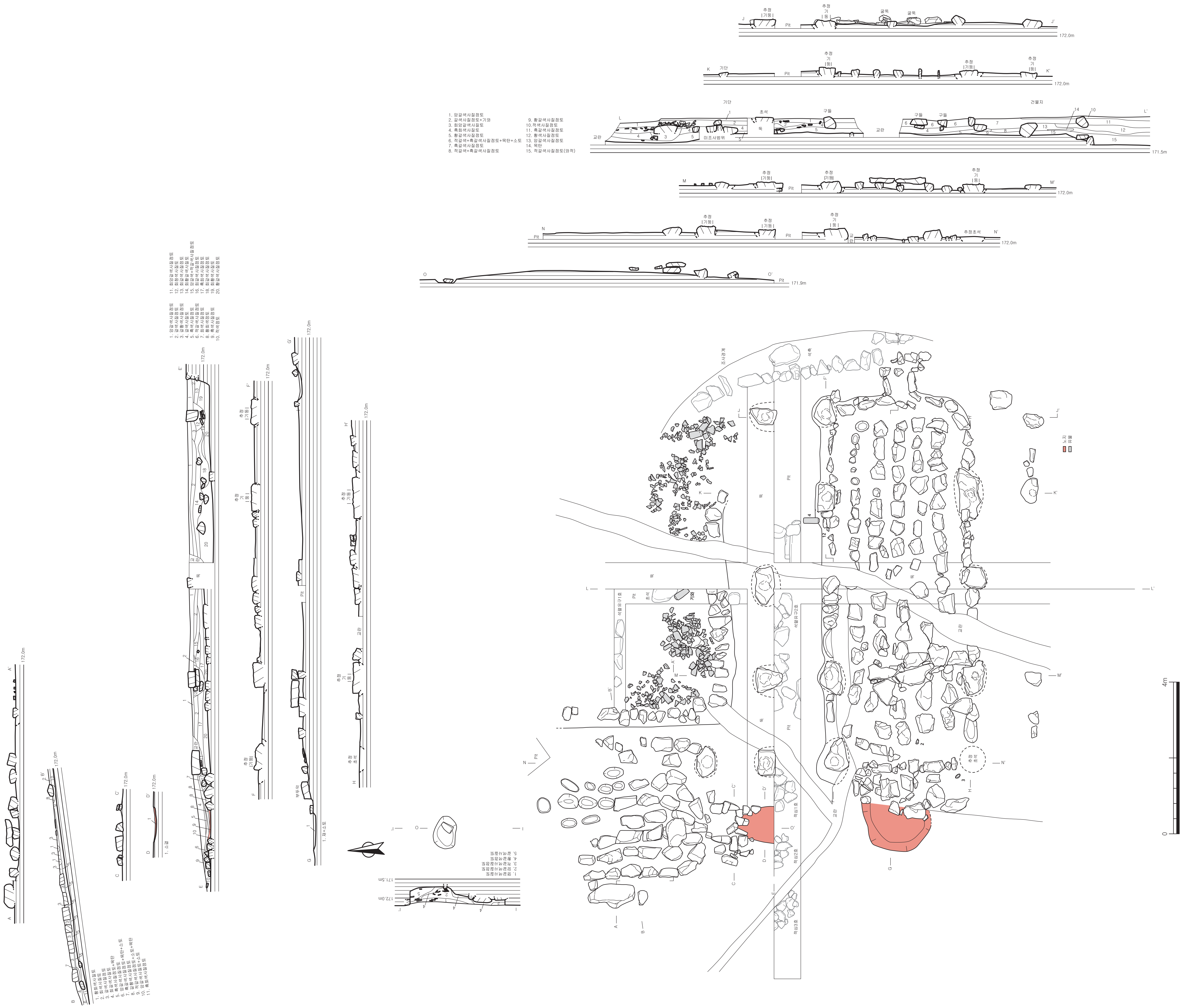
먼저 대지조성은 북고남저 및 동고서저로 경사진 자연퇴적층의 상부 및 폐기된 하부 건물지 위에 황갈색사질점토 - 회황색사질토 - 흑회색사질토를 순차적으로 깔아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대지의 범위는 동서길이 약 11m, 남북길이 약 13m로 최대높이는 약 25㎝이다.

대지조성 후 건물 범위 외곽에 기단을 축조하였는데 기단은 전체 건물의 북쪽 부분과 남편 건물의 남쪽에서만 확인되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실되어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서편 건물의 서쪽 기단은 토층단면에서 조성흔적이 확인되었다.

기단부는 기단토의 가장자리 즉, 외곽 초석에서 160㎝ 정도 떨어진 지점을 완만한 U자형으로 굴착하고 (장)방형의 석재를 이용하여 면을 바깥쪽으로 맞춘 상태로 놓은 다음 파낸 흙으로 기단석 뒤의 빈 공간을 메꾸었다. 기단의 잔존규모는 북쪽이 남북길이 575㎝·동서길이 810㎝·높이 16㎝, 남쪽이 길이 846㎝·높이 11㎝이다. 또한 기단에 사용된 석재의 크기는 북쪽이 28×20~58×32㎝, 남쪽이 20×15~43×25㎝이다.

기단 내부는 조성된 대지 위에 암갈색사질점토+적갈색점토와 회갈색사질점토 등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된 2개의 점토를 깔아 기단토를 조성하였다. 다량의 소토와 목탄은 선대유구의 폐기 이후 후대 건물지의 대지조성시 이를 이용하여 대지조성을 한 흔적으로 보인다.

초석은 적심토를 조성한 다음 적심토 위에 모두 22개를 배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발굴당시 13개(남편 건물 11개, 서편 건물 2개)만 확인되었다. 적심토는 기단토를 평면 원형으로 굴착하고 내부에 입자가 굵은 회청색사질토를 채워 넣어 완성하였다. 초석은 상면을 편평하게 다듬은 할석재를 사용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방형·장방형·삼각형·부정형 등으로 다양하다. 초석의 규모는 70×52×15~114×50×25㎝로 깊이가 얕은 초석의 경우 2매를 겹쳐 놓기도 하였다. 남편 건물은 정면 5칸·측면 2칸이며, 주칸거리는 방칸이 정면 225㎝(가장 서쪽 228㎝)·측면 375㎝이며, 퇴칸은 정면은 방칸과 동일하고 측면은 190㎝로 방의 1/2 정도이다. 방칸의 남쪽 초석열의 경우에는 초석 위에 설치된 벽체가 하부의 고래둑을 겸하게 시설되었다. 서편 건물은 초석의 잔존양상으로 보아 퇴칸없이 정면 4칸, 측면 1칸의 구조



도면 1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로 주칸거리는 정면 230㎝·측면 320㎝이다. 가장자리 초석열의 경우에는 남편 건물의 남쪽 초석열처럼 상부의 벽체와 하부의 고래둑을 겸하도록 배치하였다.

부엌은 건물지의 남서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방보다 한 단 낮게 조성하였다. 부엌의 초석 등은 대부분 훼손된 상태이나 주변의 초석을 연장하였을 경우 남-북방향의 세장한 형태로 정면 1칸·측면 3칸이며, 규모는 320×720㎝이다. 부엌내에서는 서편과 남편 건물의 온돌에 불을 지피는 부뚜막 아궁이가 남아 있었다.

벽체는 기단토를 굴착한 뒤 하부시설을 하고 그 위에 축조하였다. 남편 건물의 북쪽 및 동쪽은 초석 사이에 고맥이를 시설하였으며, 남편 건물의 남쪽 및 서편 건물의 경우에는 가장 끝줄 고래를 만들 때 구들둑과 고맥이를 겸하게 시설하고 상부에는 벽체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온돌시설은 건물지 내 온돌방의 형태로 설치되었다. 특히 남편 건물의 경우 '아궁이 → 부뚜막 → 고래 및 구들장 → 개자리 → 연도 →굴뚝하부'로 이어지는 온돌시설 일체가 확인되었으며, 서편 건물은 후대 교란으로 인해 고래 일부 및 개자리, 연도 부분이 파괴되었다.

아궁이는 부뚜막이 시설된 형태로 방(온돌)보다 한 단 낮은 40~50㎝ 아래의 부엌에 조성하였다. 남편 건물에서는 2개소가 확인된 반면, 서편 건물에서는 1개소만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바닥면을 평면 타원형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남편 건물은 175×130㎝이고 서편 건물은 100×92㎝이다. 내부에서는 적황색소토 및 재가 퇴적되었는데 서편 건물에서는 적황색소토와 재층이 반복되어 깔려 있었다.

부뚜막은 고래의 중앙부에 연하여 먼저 대지조성토를 평면 반원형으로 굴착한 후 가장자리에 38×16~52×24㎝의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봇돌을 쌓았는데 1~2단이 남아 있다. 굴착면과 벽석 사이는 할석이 혼입된 사질점토를 충전하고 상면에 점토를 발랐다. 봇돌 또는 내부는 붉게 변색되어 있었다. 내부에는 부뚜막 일부가 쓰러지면서 붕괴된 석재와 퇴적된 암갈색사질토 및 기와편이 소량 채워져 있었다. 부뚜막의 너비는 남편 건물의 경우 북쪽의 것은 53㎝·남쪽의 것은 45㎝이고 서편 건물은 66㎝ 정도인데 화구부의 너비는 파괴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 남편 건물의 아궁이 남쪽에서는 부뚜막 덮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60×20㎝ 크기의 할석이 확인되었다.

부뚜막의 안쪽, 즉 건물의 내부에서는 고래가 확인되었다. 고래는 38×19~62×35㎝ 정도 크기의 할석 1~2매를 평적하여 축조하였으며, 할석 사이의 빈공간은 잔돌을 끼워 넣었고 점토로 마감하였다. 남편 건물과 서편 건물 모두 6열의 고래열이 확인되었는데 부뚜막 앞에서 2열로 줄어든다. 잔존길이는 남편 건물이 880㎝, 서편 건물은 450㎝이다. 고래둑간 간격은 남편 건물의 경우 가장 바깥쪽은 35~40㎝정도로 넓지만 남편 건물 내부와 서편 건물은 20~25㎝ 정도이다. 고래열의 바닥은 배연을 고려하여 앞쪽인 아궁이에서 뒤쪽 실내개자리[18]쪽으로 약간 높아지도록 처리되었다. 구들장은 73×40~99×45㎝ 정도의 판석형 할석을 사용하였는데 남편 건물의 서쪽 부분에서 1열만 확인되었다. 구들장 주변에서 20㎝ 내외 크기의 작은 굄돌과 사춤돌이 혼재되어 확인되었다.

건물의 뒤쪽에는 배연부를 마련하였는데 고래의 끝단과 벽체 사이에 실내개자리가 있고, 실내개자

18) 실내 개자리는 실내에 위치하고 있어 편의상 명명한 것으로 조원창, 2012, 『기와건물의 조사와 해석』을 참고하였다.

리와 연도부 사이에는 개자리 두둑을 두었다. 개자리 두둑은 고래 바닥에 25㎝ 내외의 할석을 1단 쌓았다. 개자리 두둑 뒤쪽에는 50~76㎝ 할석으로 양쪽 벽을 세워 연도를 마련하였는데 너비는 50㎝ 정도이고 바닥은 완만하게 오목한 상태였다. 연도의 뒤에서는 굴뚝 하부구조가 노출되었다. 굴뚝하부구조는 20㎝ 이내의 할석을 타원형으로 돌려 만들었으며, 잔존깊이는 25㎝이다. 내부에는 연기가 빠져나가며, 쌓인 소량의 재를 포함한 회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배연부의 축조는 남편과 서편의 건물에서 비슷하게 확인되고 있다. 다만, 서편 건물은 배연부가 위치하는 부분이 모래성분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개자리 및 굴뚝 하부구조의 바닥과 벽면에 점토를 발랐다.

북쪽기단 외부에는 건물의 지붕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기와들이 확인되었다. 와적의 범위는 기단에서 1.5m 정도까지이며, 와적 하부에서 낙수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건물지 내·외부의 초석 사이 및 기단 바깥쪽에서 수습한 평기와 및 범자문 수막새 등의 기와류가 대부분이나 특수용기로 추정되는 백자저부가 북쪽 기단에서 기와와 함께 출토되었다. 이 중 범자문 수막새의 경우 서편 건물의 서쪽기단 외부 2미터 지점의 대지조성토에서 다른 기와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또한 기단외부에서는 직선문계통의 기와들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백자 완(도면 12-1, 도판 18-1)

남쪽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의 일부와 신부의 일부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고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회색(5Y 7/1)의 유조를 띠며,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고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와 빙렬이 관찰된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신부는 내경하여 내려간다. 굽은 낮은 삼각도립굽이고 굽 안바닥은 오목하게 처리하였으며, 굽 표면에 흙물과 함께 엉겨 붙은 굵은 모래 받침흔이 확인된다. 내저면에는 1열의 횡침선을 돌렸고 횡침선 안쪽에 굵은 모래 받침흔이 관찰된다. 신부의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물레흔이 확인된다.

기고 4.3㎝, 복원구경 12.6㎝, 복원저경 4.4㎝

2. 백자 저부(도면 12-2, 도판 18-2)

남쪽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의 일부와 신부의 일부가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고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녹회색(10GY 6/2)의 유조를 띠며,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고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와 유약 뭉침이 관찰된다. 굽은 수직굽이고 신부는 벌어져 올라간다. 굽 중간에 너비 0.5㎝ 내외로 잘라내어 장방형의 홈을 두었으며, 잔존편에는 1개가 확인된다. 굽 접지면에는 모래 받침흔이 관찰되고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내저원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2㎝, 복원저경 9.4㎝

도면 1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1

3. 백자 완(도면 12-3, 도판 18-3)

건물지 북쪽기단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의 일부와 신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고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녹회색(10GY 6/2)의 유조를 띠며, 유약은 굽 내면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와 빙렬이 관찰된다. 굽은 오목굽이고 굽 안바닥은 깊은 편이며, 신부는 벌어져 올라간다. 신부와 굽의 경계부분에 1열의 홈을 횡방향으로 돌렸고 굽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받침흔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3.8㎝, 복원저경 7.2㎝

4. 범자문 수막새(도면 12-4, 도판 18-4)

서쪽 건물 서쪽기단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와 기와부가 모두 남아있는 완형이다. 경질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회색(10YR 6/1)이다. 막새부는 하단부가 뾰족하게 돌출된 원형이며, 기와부와 둔각으로 접합되었다. 막새부는 가장자리에 1개의 원권문을 두어 문양부와 주연부를 구분하였으며, 주연부는 무문이고 문양부에는 범자문(옴)이 크게 배치되었다. 막새의 뒷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기와부와의 접합면에 점토 보강흔·지두압흔 등이 관찰된다. 기와부는 미구와로 외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었고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포목흔·눈테흔·연철흔·점토합흔이 확인된다.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4~전면을 그어 분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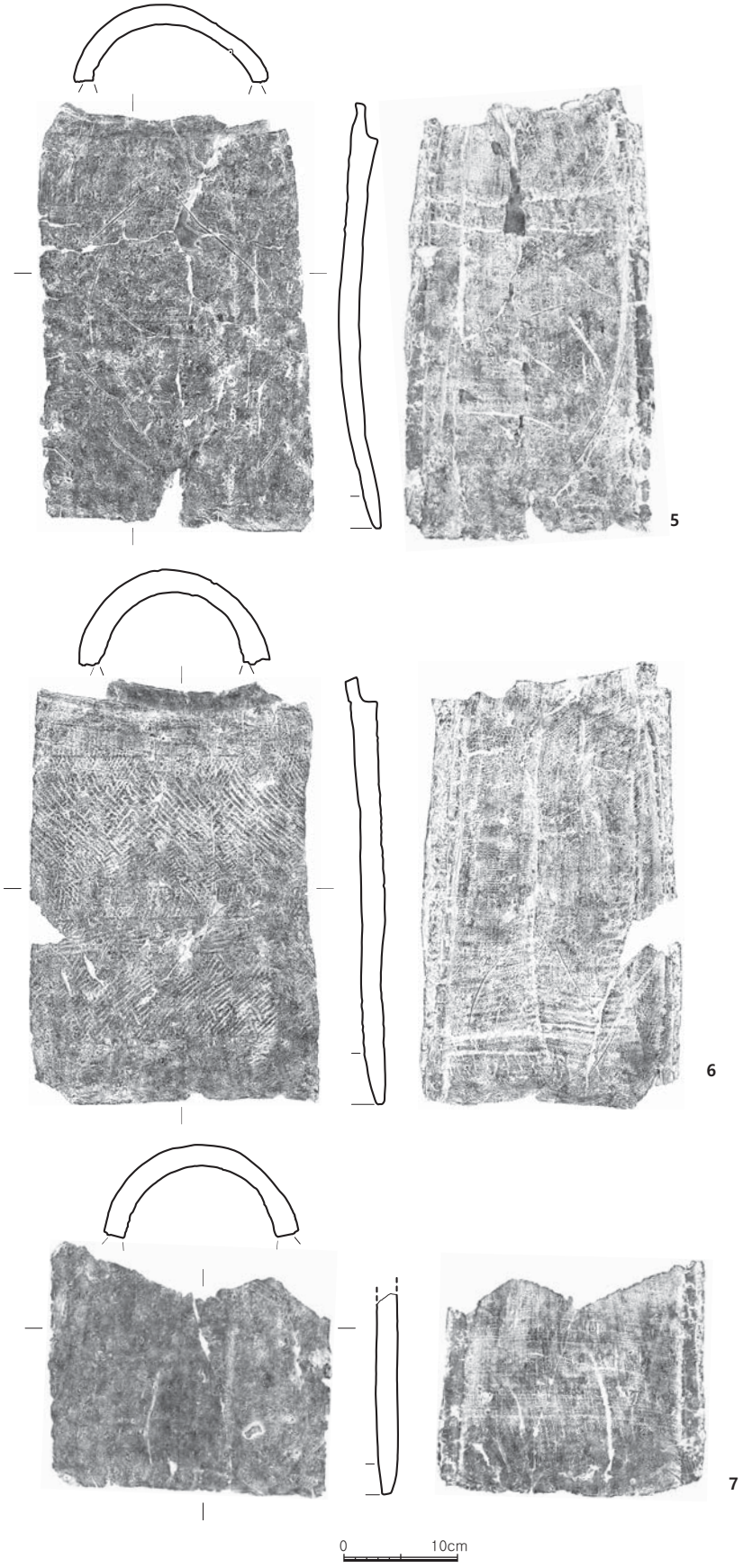
막새부 : 길이 15.5㎝, 너비 15㎝, 두께 2.0㎝

기와부 : 길이 46.1㎝, 너비 17.7㎝, 두께 2.0~3.0㎝

5~24.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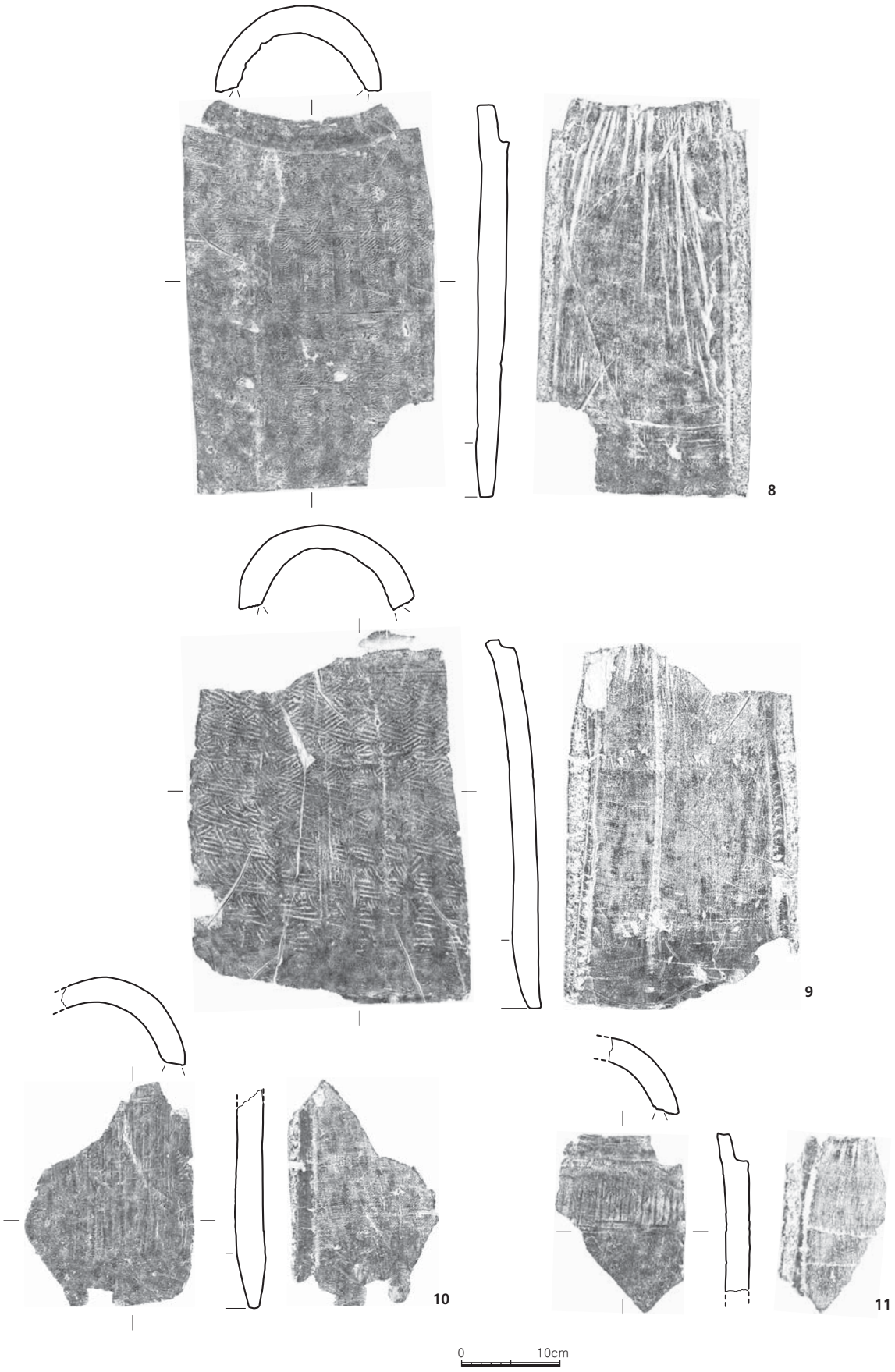
모두 20점의 기와류가 출토되었다. 4점(5, 6, 9, 13)은 서쪽 건물 아궁이동에서, 나머지는 북쪽 기단에서 출토되었다. 모두 경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각 유물의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5	수키와	13-5	19-5	37.5	17.0	1.8	미구와. 상부와 하부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 색조는 회색(N 4/). 외면은 선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 윤철흔 · 눈테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2㎝ 정도 단부 조정 후 지두 누름 정면.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3~전면을 그어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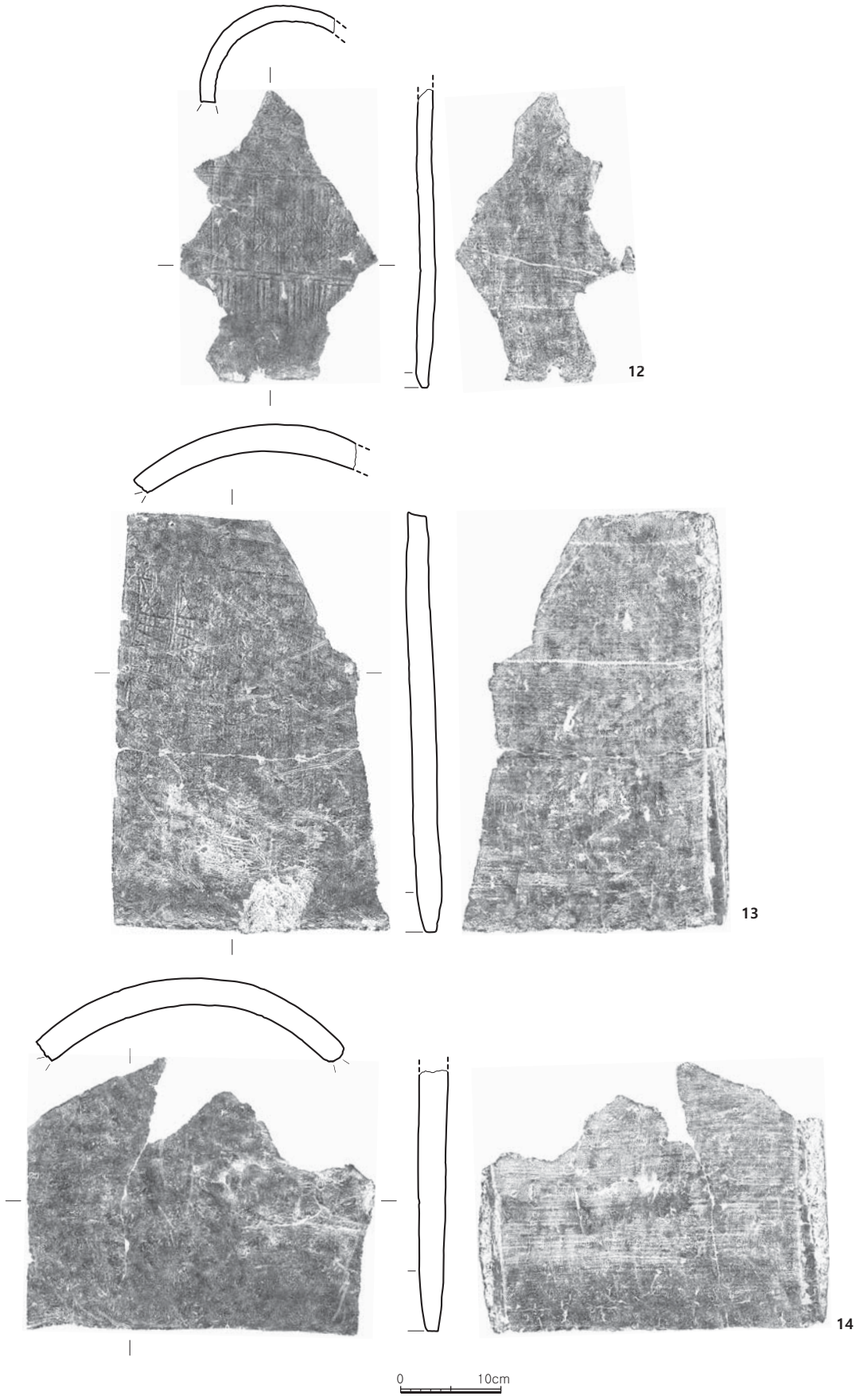


도면 13.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2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6	수키와	13-6	19-6	37.6	16.8	2.0	미구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 색조는 회색(N 4/). 외면은 집선문 타날. 내면에는 합철흔 · 사절흔 · 윤철흔 · 포목흔 · 눈테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4.5㎝ 내외로 단부 조정 후 물손질 정면.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4~3/4 정도 그어 분할.
7	수키와편	13-7	19-7	(17.7)	16.9	1.8	하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또는 회색(10YR 5/1). 외면은 무문. 내면에는 포목흔 · 연철흔 · 합철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2.5㎝ 정도 단부 조정. 물손질 정면.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2 또는 전면을 그어 분할.
8	수키와	14-8	19-8	40.0	16.7	2.8	미구와. 우측 하부 일부 결실. 색조는 회색(N 6/). 외면은 청해파문+장방형문 타날.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 눈테흔 · 윤철흔 · 점토합흔 · 잡물흡착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5.3㎝ 내외로 단부 조정 후 물손질 정면.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4 정도 그어 분할.
9	수키와	14-9	19-9	37.4	17.7	2.5	미구와. 상부 일부와 하부 일부가 결실. 색조는 회색(N 4/). 외면에는 집선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합철흔 · 포목흔 · 눈테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7.5㎝ 내외로 단부 조정 후 물손질 정면.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4~1/2 정도 그어 분할.
10	수키와편	14-10	19-10	(22.2)	(14.3)	2.8	좌측 하부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또는 명회색(10YR 7/2). 외면은 선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 점토합흔 · 눈테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5.5㎝ 내외로 단부 조정 후 물손질 정면.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2~5/6 정도 그어 분할.
11	수키와편	14-11	19-11	(16.1)	(10.2)	2.4	미구와. 우측 상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5/1). 외면은 선문+복합문 타날.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 눈테흔 · 윤철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3~1/2 정도 그어 분할.
12	수키와편	15-12	19-12	(29.3)	(15.6)	1.6	좌측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외면은 선문+복합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 연철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1.5㎝ 정도 단부 조정. 와도는 전면을 그어 분할.
13	암키와	15-13	20-13	41.8	(22.7)	2.5	우측 결실. 색조는 회색(10YR 5/1). 외면은 격자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 눈테흔 · 윤철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4㎝ 내외로 단부 조정 후 물손질 정면.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6~5/6 정도 그어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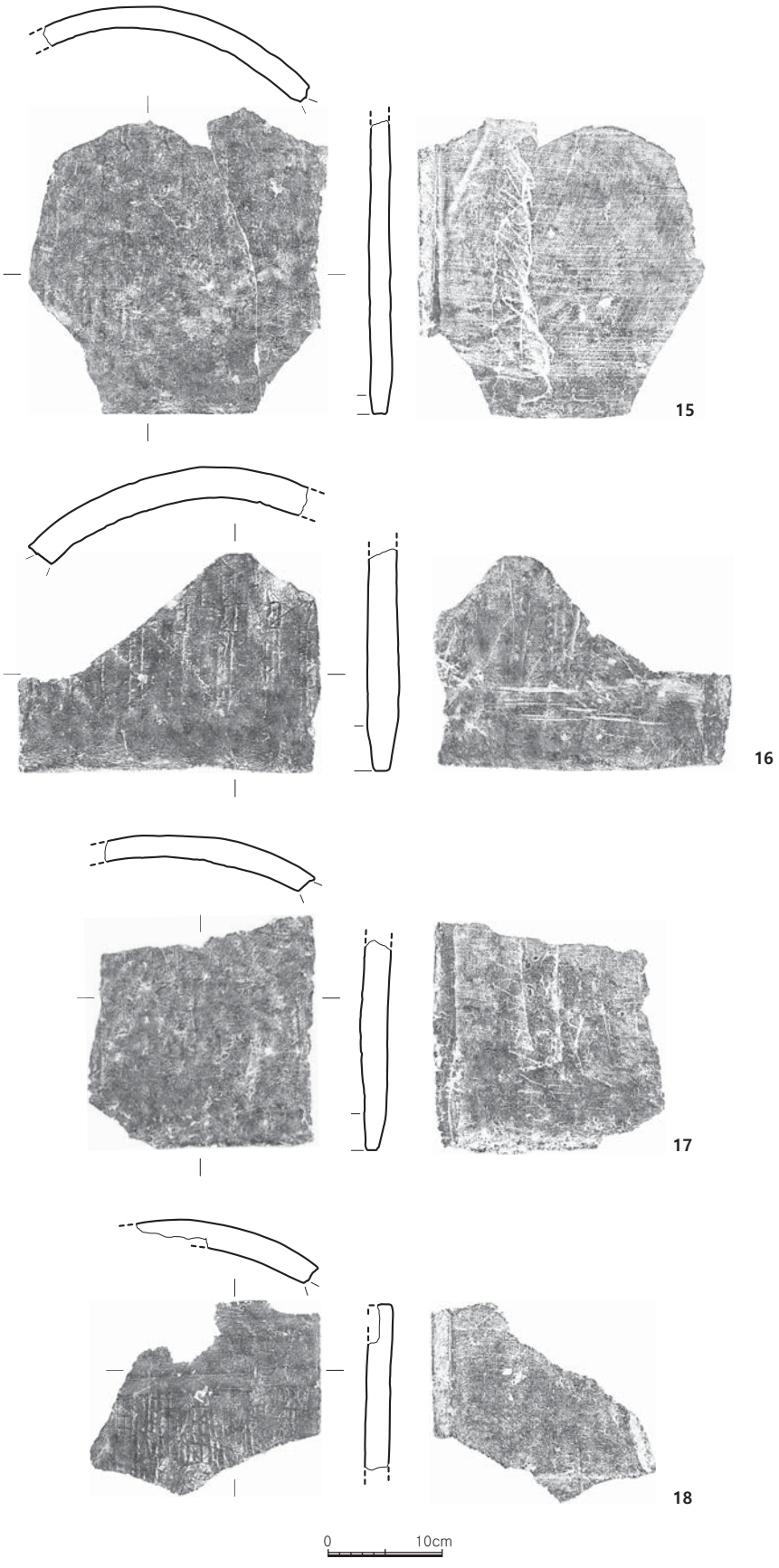


도면 14.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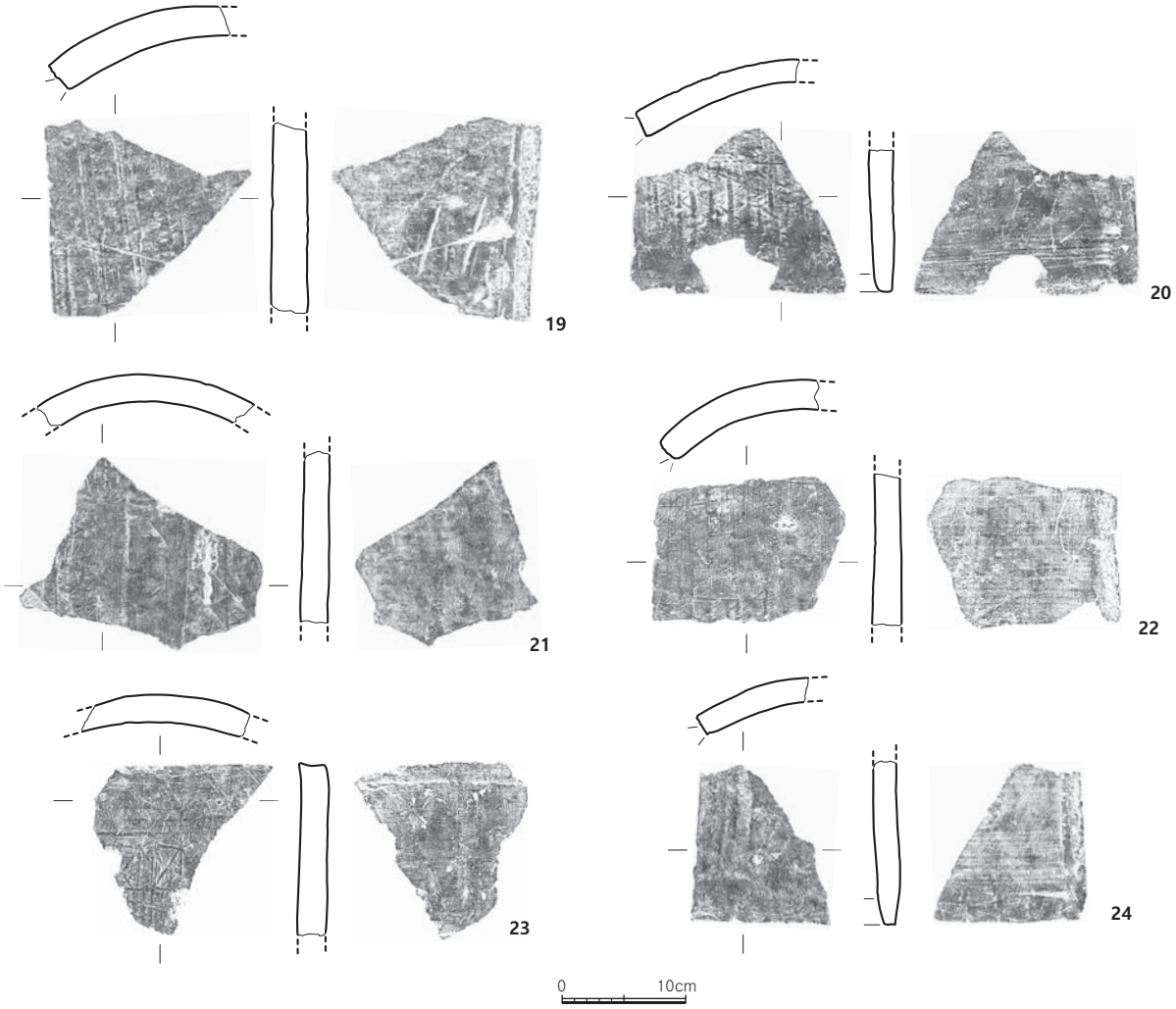
도면 1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4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14	암키와편	15-14	20-14	(26.0)	30.5	2.8	하부 잔존. 색조는 회색(N 5/1). 외면은 무문. 내면에는 포목흔 · 눈테흔 · 지두압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6㎝ 내외 단부 조정 후 물손질 정면.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4~3/4 정도 그어 분할.
15	암키와편	16-15	20-15	(25.8)	(23.7)	1.8	우측 하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외면은 복합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연철흔 · 점토합흔 · 포목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2㎝ 내외 단부 조정 후 물손질 정면.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6~1/2 정도 그어 분할.
16	암키와편	16-16	20-16	(19.5)	(25.1)	2.8	좌측 하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외면은 선문+기하학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 윤철흔 · 합철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4㎝ 내외 단부 조정.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2/3 정도 그어 분할.
17	암키와편	16-17	21-17	(18.6)	(18.4)	2.3	우측 하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외면은 선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 합철흔 · 눈테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3.2㎝ 내외 단부 조정 후 물손질 정면. 와도의 방향은 4/5~전면을 그어 분할.
18	암키와편	16-18	21-18	(14.6)	(16.3)	2.1	우측 상부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외면은 격자문+복합문 타날. 상부에 횡방향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 연철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5 정도 그어 분할.
19	암키와편	17-19	21-19	(15.4)	(14.6)	2.8	좌측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외면은 선문+복합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합철흔 · 포목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3~1/2 정도 그어 분할.
20	암키와편	17-20	21-20	(11.5)	(14.0)	1.8	좌측 하부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외면은 선문+복합문 타날. 내면에는 윤철흔 · 포목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1.5㎝ 내외 단부 조정.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3/4 또는 전면을 그어 분할.
21	암키와편	17-21	21-21	(13.7)	(17.5)	2.3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외면은 격자문+사선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확인.
22	암키와편	17-22	21-22	(12.1)	(13.7)	2.2	좌측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외면은 격자문+기하학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6 정도 그어 분할.



도면 1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5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23	암키와편	17-23	21-23	(13.9)	(13.5)	2.3	상부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외면은 격자문+기하학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 연철흔 확인.
24	암키와편	17-24	21-24	(13.3)	(9.5)	1.9	좌측 하부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6/1). 외면은 무문이고 물손질 정면. 내면에는 포목흔 · 눈테흔 확인. 하단부 내면에 약 2㎝ 정도 단부 조정.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2/3 그어 분할.



도면 17.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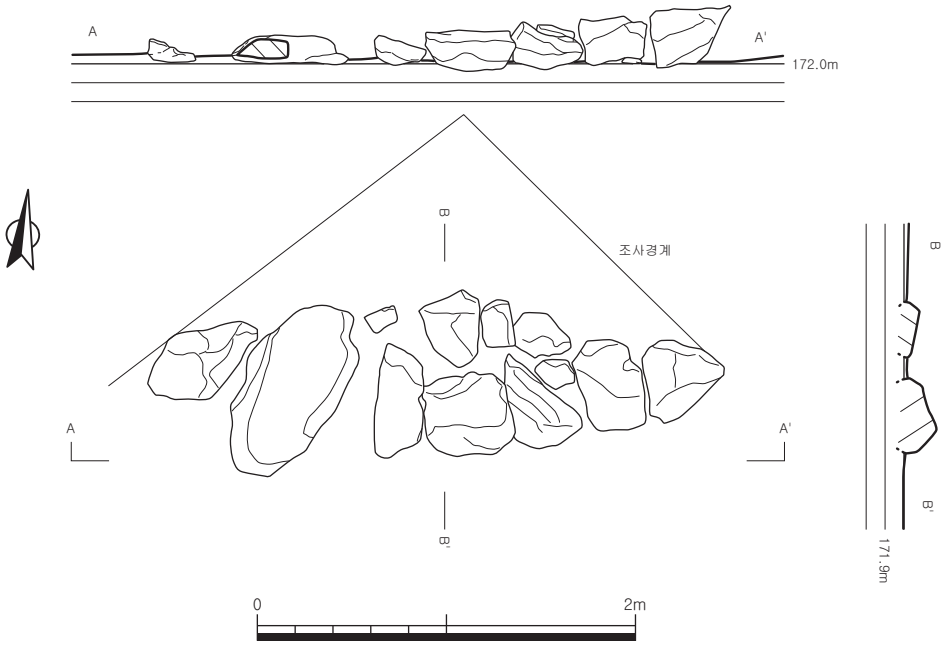
2) 담장

가. 유구(도면 18, 도판 22-①~③)

조사대상지의 북동쪽 조사경계 모서리의 해발 172.6m에서 확인되었으며, 남쪽으로 인접하여 ㄴ자형 건물지 서쪽 온돌시설의 굴뚝 하부구조가 확인되었다. 조사구역의 북쪽과 동쪽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상부 대부분이 후대교란으로 인해 심하게 파괴되어 기저부 1단만 남아있다.

갈색사질토에서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자형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310㎝, 너비 85㎝이다. 장축방향은 동-서(N-78°-W)향이다. 32×40㎝~100×51㎝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양쪽 끝의 외면을 맞추어 축조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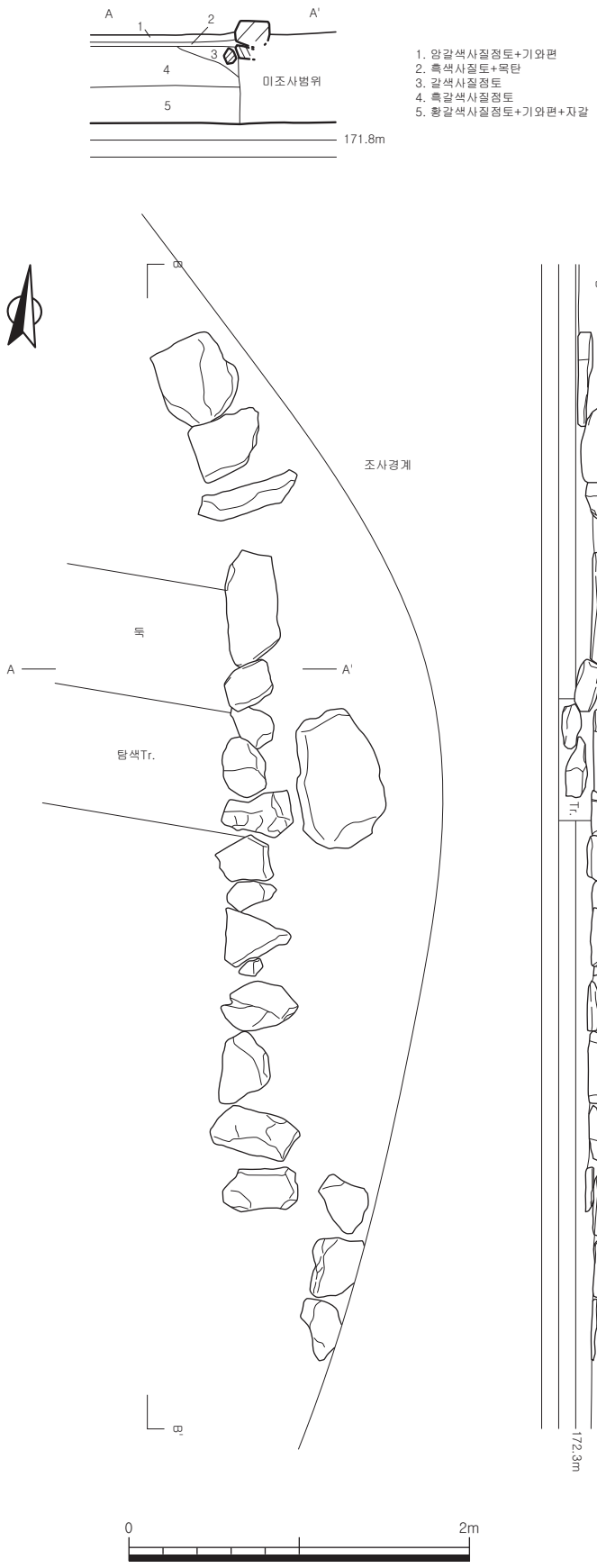
도면 1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담장

3) 석축

가. 유구(도면 19, 도판 22-④⑤)

조사대상지의 동쪽 조사경계의 해발 172.7m에서 확인되었으며, 서쪽에 ㄴ자형 건물지의 남쪽 온돌시설의 굴뚝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조사구역의 북쪽과 동쪽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상부 대부분이 후대교란으로 인해 심하게 파괴되어 기저부 1~2단만 남아있다.

황갈색사질토에서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북쪽이 서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자형에 가깝다. 잔존규모는 길이 454㎝, 잔존너비 45㎝이다. 장축방향은 남-북(N-7°-W)향이다.



도면 1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축

석축은 23×15㎝～43×35㎝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서쪽에 면을 맞추어 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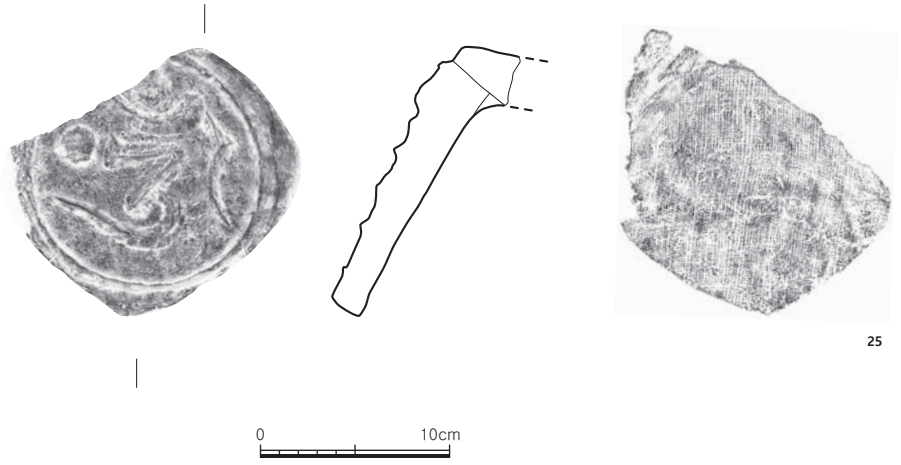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 수습유물

25. 범자문 수막새(도면 20-25, 도판 22-25)

막새부는 좌측 상부가 일부 결실되었고 기와부는 우측의 접합면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회색(N 5/)이다. 막새부는 하단부가 뾰족하게 돌출된 원형이며, 기와부와 둔각으로 접합되었다. 막새부는 가장자리에 1개의 원권을 두어 문양부와 주연부를 구분하였으며, 주연부는 무문이고 문양부에는 범자문(옴)이 크게 배치되었다. 막새의 뒷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기와부와의 접합면에 지두압흔·점토보강흔 등이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막새부 길이 15.6㎝, 너비 15㎝, 두께 1.8~3.0㎝



도면 2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습유물

Ⅳ. 조사성과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단독주택 신축부지로,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157번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면적은 516㎡이다.

발굴조사는 입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7년 9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현장일수 18일) 실시하였으며, 10월 10일 · 11일에 학술자문회의를 후 11월 7일 전문가검토회의를 통해 유적의 보존이 결정되었다.

조사대상지에 위치했을 것으로 알려진 금천사지는 정확한 창건과 폐사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고암유고 · 제봉집 · 고담일고 등의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연대(1580년 및 1591년)를 통해 임진왜란 전후까지는 절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근래 인접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금산리 153-3번지 유적[19]에서 요잡구조를 가진 건물과 그 동서에 위치하는 부속건물로 추정되는 총 3동의 건물지가 조사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萬曆三年乙亥', 化主 信旭'명 암막새가 출토되었다. 만력은 중국 명나라 제13대 황제인 신종(1573~1620)의 연호로서 萬曆 3년은 1575년인데 우리나라로서는 선조 9년(1575년)에 해당하며, 간지로는 을해(乙亥)이므로 조선시대 중기에 해당되는 유물이 출토된바 있다.

【표 3】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의 유구배치와 타 유적의 가람배치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도면 2. 서봉사지 조선시대 가람배치

도면 3. 청양 장곡사 가람배치

우선 조사대상지의 주변지형을 살펴보면, 남쪽으로 50m 정도 떨어져 금천천이 흐르고 있으며, 서쪽으로 26m 정도 떨어져 북에서 남으로 흘러 금천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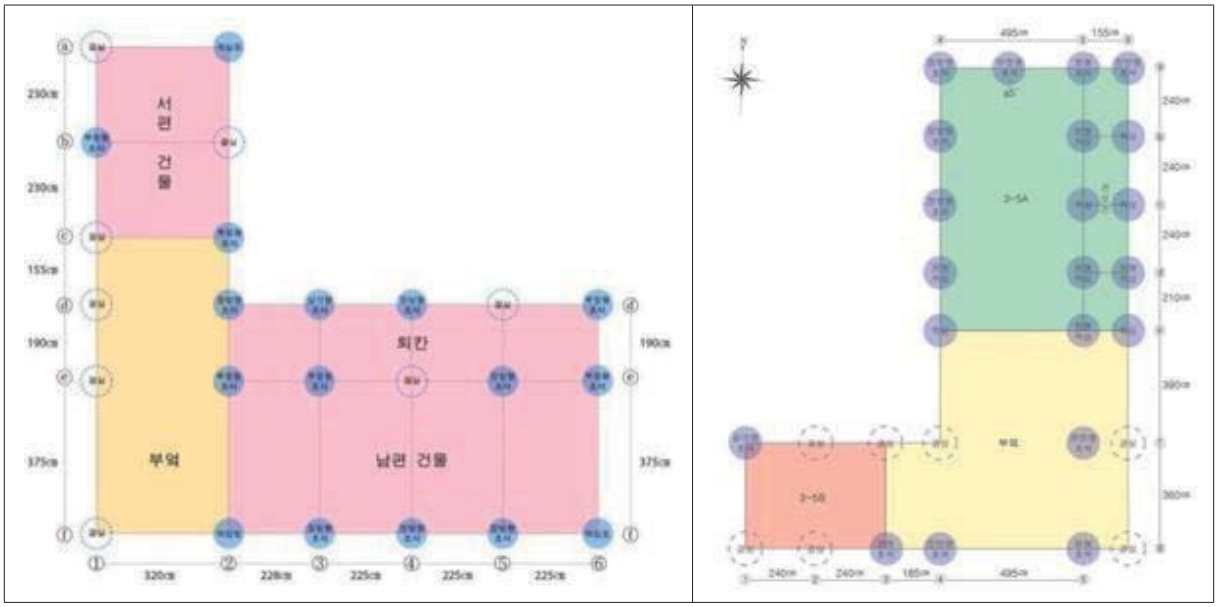
19) 한국문화재단, 2018, 「6. 옥천 금산리 153-3번지 외 1필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Ⅵ -충남2 · 충북1-』

동로가 금서면에서 금천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장흥산로밖에 없으며, 금산리를 지나면 산지만 형성되어 있다. 결국 지형적으로 보면 금천사의 정면은 금천천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축조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 사역으로 보이는 남쪽에 위치한 금산리 153-3번지 유적과 함께 가람배치를 함께 살펴보면 산지사찰에서 나타나는 공간확보를 위해 경사면을 따라 축대를 쌓고 평탄대지를 조성하였던 것을 보인다. 조사를 통해 축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유적간의 거리는 15m 떨어져있는데 비해 해발이 4m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자연지형으로 인한 차이인지 단에 따라 장축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의 건물지의 경우 요사채만 확인되었으나, 연접한 금산리 153-3번지 유적과 함께 미루어보았을 때 조선시대의 사찰유적으로 비슷한 요잡시설 및 요사채가 확인된 서봉사지[20]와 유사한 사동중정(四棟中庭)의 배치형태를 이루고 있다. 사동중정형 가람배치[21]는 조선시대 산지가람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중정을 기준으로 네 방향에 건물을 배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다만, 보통 사동중정의 배치라면 중심건물지보다 위쪽에 큰 규모의 요사채가 위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는 청양 장곡사의 두 개의 분리된 가람과 같은 배치로 본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2].

유구는 금번 발굴조사된 유구 중 가장 형태가 잘 남아있는 건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정면 4칸 측면 2칸의 규모에 부엌 공간이 덧붙여져 있고 내부에 온돌이 전면에 시설이 되어있는 요사채이다. 이는 서봉사지 중단에서 확인된 3-5 건물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표 4】 조사대상지 상부 건물지 초석열 모식도(좌) 및 서봉사지 3-5 건물지 초석열 모식도(우)



유물은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 중 총 30점을 선별 수록하였으며, 지표에서 확인된 수막

20) 한백문화재연구원, 2019, 『용인 서봉사지Ⅲ』.
21) 어진규, 2008,『조선후기 무탑식 가람의 주불전과 마당의 비례연구』.
22) 김봉렬, 2004, 『불교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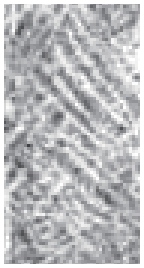
새 1점 외에는 상부 문화층 건물지 내에서 수습되었다. 출토유물은 기와, 자기로 구분된다. 비율로 살펴보면 기와가 90%(27점)로 출토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는 10%(3점) 밖에 되지 않는다. 자기는 완형은 없고 거의 저부만 남아 있는데 굽의 형태가 높이가 낮은 삼각도립굽(?), 오목굽, 수직굽 등으로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내저원각 및 모래받침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시기를 편년하기는 어려우나 기형적 특징을 보았을 때 조선초기 사선으로 벌어지는 형태에서 풍만한 양감을 보이는 곡선 형태로 변화하는 것[23]을 고려하였을 때 출토된 유물 역시 곡선 형태를 띠고 있어 적어도 조선시대 중기의 유물로 볼 수 있다.

【표 5】 출토 기와 현황표

구분	막새	평기와		합계
	수막새	수키와	암키와	
수량	2	9	16	27

기와는 동일한 형태의 범자문의 수막새를 제외하고는 평기와가 대부분으로 문양은 크게 집선문(직선계)과 청해파문(곡선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격자문이 확인되었고 무문양도 다수 확인되었다. 통시적인 등문양의 변화에서 선문, 어골문, 복합문, 청해파문이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문양으로 인정되고 있고[24] 지역별 시기차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큰 흐름이 변화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어골문이 나타나지 않으며, 집선문 계열의 복합문 내지는 청해파문만 확인되는 점과 장판타날이 확인되는 것은 세선집선문, 세선사선문, 세선호상문 등이 중심이 되다가 이들 문양들이 점차 소멸하여 청해파문이 출현하는 시기에 해당하고 이후 청해파문계 복합문들이 쓰이는 것보단 빠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15~17세기에 해당한다[25]. 이후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시대 중기로 볼 수 있다.

【표 6】 타날문양 비교

집선문				청해파문		격자문+기하학문	
							

23) 金泰洪, 2011,『朝鮮 中期 地方白磁 編年 硏究』, 忠北大學校 大學院.
24) 서오선, 1985,『한국 평와문양의 시대적 변천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5) 高在瑢, 2003,「高慮~朝鮮時代 평기와의 變遷科程 硏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특히 평기와와 같이 출토된 수막새는 단독 범자문 수막새로, 원형의 드림새에서 아래쪽이 뾰족해지는 특징은 동일하나 16세기 이후로 편년되는 운흥사지의 출토품[26]이 주연부의 형태에서 좀 더 발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막새부와 평기와부의 접합각도가 120~150°를 보이고 있으며, 등문양이 복합집선문이 확인되고 있어 운흥사지보다는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선시대 평기와의 등문양은 조선전기 어골복합문과 사선교차집선문계에서 점차 곡선교차집선문과 청해파문계로 이동되는데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에서는 어골문이 확인되지 않고 청해파문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해볼 때 상부 건물지의 편년은 조선시대 중기로 볼 수 있다.

【표 7】 범자문 수막새

조사대상지 출토		울산 운흥사지 출토	

금번 발굴조사에서 하부 유구를 포함한 금천사지의 전면 발굴이 진행되지 않았고 제한된 조사내용을 토대로 문헌자료와 검토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량의 유물과 요사채 1동으로 금천사지의 시기를 알아낼 수 없었지만 이러한 점은 후속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26) 이상규, 2013,「고려~조선시대 범자문 와당의 형식과 제작특성 고찰」,『선사와 고대』제38집.

도 판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원경, ②근경)

도판 2. 발굴조사 대상지 조사후

도판 3.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전경(①), 초석(②조사후, ③토층), 적심 1~3호 전경(④)

도판 4.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적심 1~3호(①~③세부, ④토층), 석렬 1호(⑤조사후, ⑥토층), 2호(⑦조사후, ⑧토층)

도판 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①조사전, ②조사중)

도판 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①조사후, ②~④토층, ⑤북쪽기단)

도판 7.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①②북쪽기단, ③남쪽기단, ④⑤토층, ⑥⑦유물출토상태)

도판 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 조사후

도판 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 초석 세부

도판 1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①~⑤아궁이, ⑥⑦부뚜막)

도판 1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 고래 및 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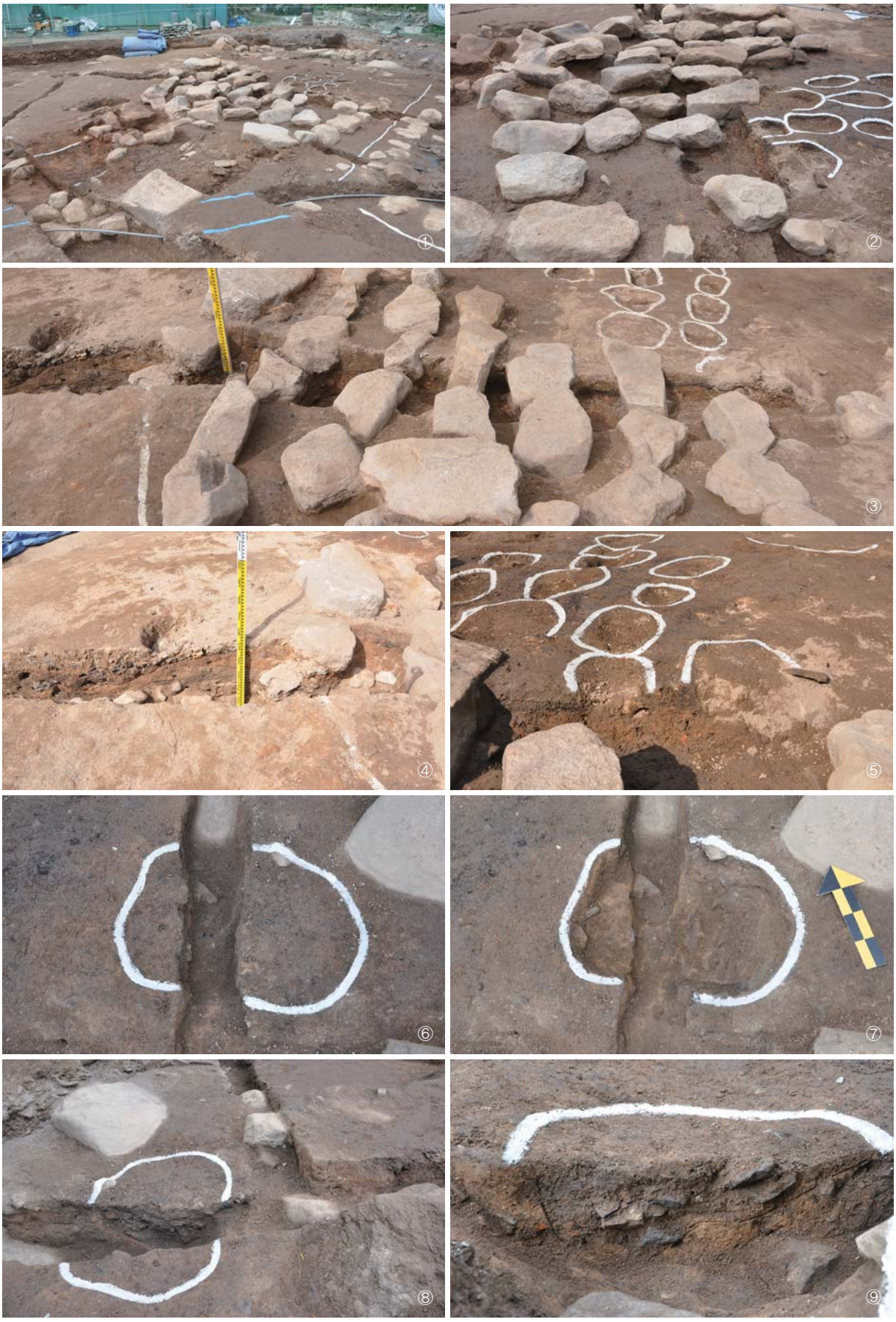
도판 1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①고래 세부, ②구들 전경)

도판 13.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①~③구들 세부 및 토층, ④~⑦고래 토층)

도판 14.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남편 건물(①개자리, ②~④연도, ⑤굴뚝하부, ⑥⑦유물출토상태)

도판 1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서편 건물 조사후

도판 1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서편 건물(①②초석, ③~⑤아궁이, ⑥~⑧부뚜막, ⑨⑩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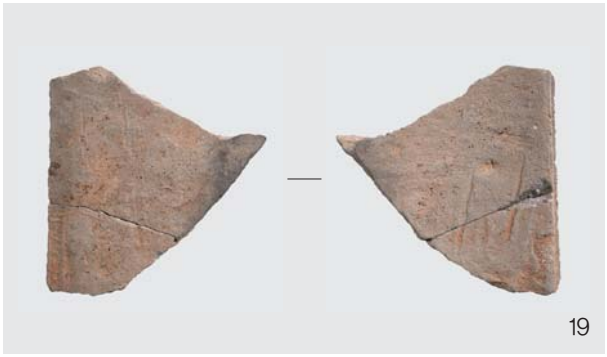


도판 17.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서편 건물(①②고래 세부, ③~⑤고래 토층, ⑥~⑨개자리 및 굴뚝하부)

도판 1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1

도판 1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2

도판 2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3



도판 2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출토유물4

도판 2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담장(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석축(④⑤), 수습유물(25)

옥천 금산리 157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63 –0001	백자 완	1	건물지	토도	조선	4.3	12.6	4.4	12–1 18–1	Y
2017–1163 –0002	백자 저부	1	건물지	토도	조선	(4.2)	–	9.4	12–2 18–2	Y
2017–1163 –0003	백자 완	1	건물지	토도	조선	(3.8)	–	7.2	12–3 18–3	Y
2017–1163 –0004	범자문 수막새	1	건물지	토도	조선	46.1	17.7	2.0~3.0	12–4 18–4	Y
2017–1163 –0005	수키와	1	건물지	토도	조선	37.5	17.0	1.8	13–5 19–5	Y
2017–1163 –0006	수키와	1	건물지	토도	조선	37.6	16.8	2.0	13–6 19–6	Y
2017–1163 –0007	수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17.7)	16.9	1.8	13–7 19–7	Y
2017–1163 –0008	수키와	1	건물지	토도	조선	40.0	16.7	2.8	14–8 19–8	Y
2017–1163 –0009	수키와	1	건물지	토도	조선	(37.4)	17.7	2.5	14–9 19–9	Y
2017–1163 –0010	수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22.2)	(14.3)	2.8	14–10 19–10	Y
2017–1163 –0011	수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16.1)	(10.2)	2.4	14–11 19–11	Y
2017–1163 –0012	수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29.3)	(15.6)	1.6	15–12 19–12	Y
2017–1163 –0013	암키와	1	건물지	토도	조선	41.8	(22.7)	2.5	15–13 20–13	Y
2017–1163 –0014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26.0)	30.5	2.8	15–14 20–14	Y
2017–1163 –0015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25.8)	(23.7)	1.8	16–15 20–15	Y
2017–1163 –0016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19.5)	(25.1)	2.8	16–16 20–16	Y
2017–1163 –0017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18.6)	(18.4)	2.3	16–17 21–17	Y
2017–1163 –0018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14.6)	(16.3)	2.1	16–18 21–18	Y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63 –0019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15.4)	(14.6)	2.8	17–19 21–19	Y
2017–1163 –0020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11.5)	(14.0)	1.8	17–20 21–20	Y
2017–1163 –0021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13.7)	(17.5)	2.3	17–21 21–21	Y
2017–1163 –0022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12.1)	(13.7)	2.2	17–22 21–22	Y
2017–1163 –0023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13.9)	(13.5)	2.3	17–23 21–23	Y
2017–1163 –0024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	조선	(13.3)	(9.5)	1.9	17–24 21–24	Y
2017–1163 –0025	범자문 수막새	1	수습	토도	조선	(15.6)	–	1.8~3.0	20–25 22–25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옥천 금산리 157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 3011-2173	FAX	(02) 566-5954
執筆 · 編輯者	정훈진 · 김미현 · 오정영 · 정홍선 · 유혜원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박종섭 · 정훈진 · 김미현 · 오정영 · 최성수			
遺蹟調査地番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157번지			
調査面積	516㎡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초석	조선 하부문화층	1	·	
적심	조선 하부문화층	3	·	
석렬유구	조선 하부문화층	2	·	
건물지	조선 상부문화층	1	백자접시, 수막새	
담장	조선 상부문화층	1	·	
석축	조선 상부문화층	1	·	

137. 안성 중복리 605-4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37- 5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37- 7

Ⅲ. 조사내용 …… 137-16
〈삼국시대〉 …… 137-19
1) 주거지 …… 137-19
2) 밭 경작유구 …… 137-22
3) 수습유물 …… 137-25

Ⅳ. 조사성과 …… 137-27

부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MS 분석자료 …… 137-55
Beta 연구소 AMS 분석자료 …… 137-57
식물규소체 분석자료 …… 137-63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37- 8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37- 9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37-14
도면 4.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 137-17
도면 5. 주거지 …… 137-20
도면 6. 주거지 출토유물 …… 137-21
도면 7. 밭 경작유구 및 출토유물 …… 137-23
도면 8. 수습유물 …… 137-26

도 판 목 차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원경, ②조사전) …… 137-37
도판 2. 발굴조사 대상지[①제토후(합성), ②조사후(합성)] …… 137-38
도판 3. 주거지[①조사전, ②조사중1(탐색PIT)] …… 137-39
도판 4. 주거지[①조사중2(둑제거후), ②조사후] …… 137-40
도판 5. 주거지(①②토층, ③④노지, ⑤⑥주혈1, ⑦⑧주혈2) …… 137-41
도판 6. 주거지(①②유물출토상태, 1~3:출토유물) …… 137-42
도판 7. 밭 경작유구 조사전(합성) …… 137-43
도판 8. 밭 경작유구 조사중(합성) …… 137-44
도판 9. 밭 경작유구 조사후(합성) …… 137-45
도판 10. 밭 경작유구 토층(①서벽1, ②서벽2, ③동벽1, ④동벽2) ……137-46
도판 11. 밭 경작유구 세부1 …… 137-47
도판 12. 밭 경작유구 세부2 …… 137-48
도판 13. 밭 경작유구 출토유물(4) 및 수습유물(5~7) …… 137-49
도판 14. 트렌치 조사후 전경(①) 및 트렌치1(②조사후, ③토층) ……137-50
도판 15. 트렌치2(①조사후, ②토층) 및 트렌치3(③조사후, ④토층) …… 137-51
도판 16. 트렌치4(①조사후, ②토층) 및 학술자문회의(③④) …… 137-52

Ⅰ. 조사개요

본 유적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 605-4번지로, 사업시행자 한진수씨의 동물관련시설(축사) 신축부지(2,639㎡)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는 '안성 건천 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일환의 지표조사[1]'에서 문화재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안성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동물관련시설(축사) 신축 예정부지에 대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 이전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4호에 의거하여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2016년 11월 23일 입회조사[2]를 실시하였다. 입회조사 결과 "트렌치 2개소에서 경작유구와 조선시대 자기편이 출토되어 조사대상지 전체(3,027㎡)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입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전체 사업일정을 고려하고 사업시행 대상면적을 3,027㎡에서 2,639㎡로 축소시켜서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에 자비(自費)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트렌치 6개소 모두에서 경작유구(밭)가 확인되어서 조사대상지 전체 면적(2,639㎡)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3].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안성시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5월 4일 문화재협업포털을 통해 본 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재단에서는 국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6월 7일에 발굴조사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6월 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25일에 대한 허가(제2017-0737호)를 받은 후 6월 12일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착수 과정에서 토사적치장 부재로 동-서로 긴 형태의 조사구역을 남-북으로 1/2씩 나누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이 장마철에 걸쳐 있어서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넓은 범위에 걸쳐서 경작유구(밭)가 확인되어 기 허가받은 기간으로 조사 진행이 어려웠다. 선행된 조사구역 북쪽부분에 대한 조사 완료 후 9월 1일 학술자문회의[4]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 결과, "조사대상지 내에서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만 확인되었고 하부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조사지역인 남쪽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1) 한신대학교박물관, 2008, 『안성 건천 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 입회관 : 홍상수(기호문화재연구원)
3)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 동식물관련시설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4) 자문위원 : 김길식(용인대학교 교수), 이동성(기남문화재연구원 원장)

이후 조사지역 남쪽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실조사일수 15일에 대한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이후 남쪽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체에서 밭 경작유구가 확인되었고 중앙부에서 4주식 방형주거지 1동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9월 21일 2차 학술자문회의[5]를 개최한 후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밭 경작유구 및 삼국시대 주거지 전공자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10월 18일 3차 학술자문회의[6] 를 개최하여 삼국시대 주거지 및 밭 경작유구의 성격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발굴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책임조사원 : 이 창 욱(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 김 효 환(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전 은 정(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 석 제 섭(조사연구2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건충(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김효환(도면, 도판)이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유혜원 · 임희정 · 손지선 · 기여운 · 김형란(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 등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유혜원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이순희(시림 아카이브)가 촬영하였다.

원고는 이건충 책임 하에 Ⅰ · Ⅱ장 김효환, Ⅲ장 김효환(조사내용 및 유구) · 유혜원(유물), Ⅳ장 김효환이 작성하였으며, 교정과 교열은 정훈진(조사연구2팀장)이 하였다.

5) 자문위원 : 김길식(용인대학교 교수), 이동성(기남문화재연구원 원장)
6) 자문위원 : 성정용(충북대학교 교수), 윤호필(중부고고학연구소 연구위원)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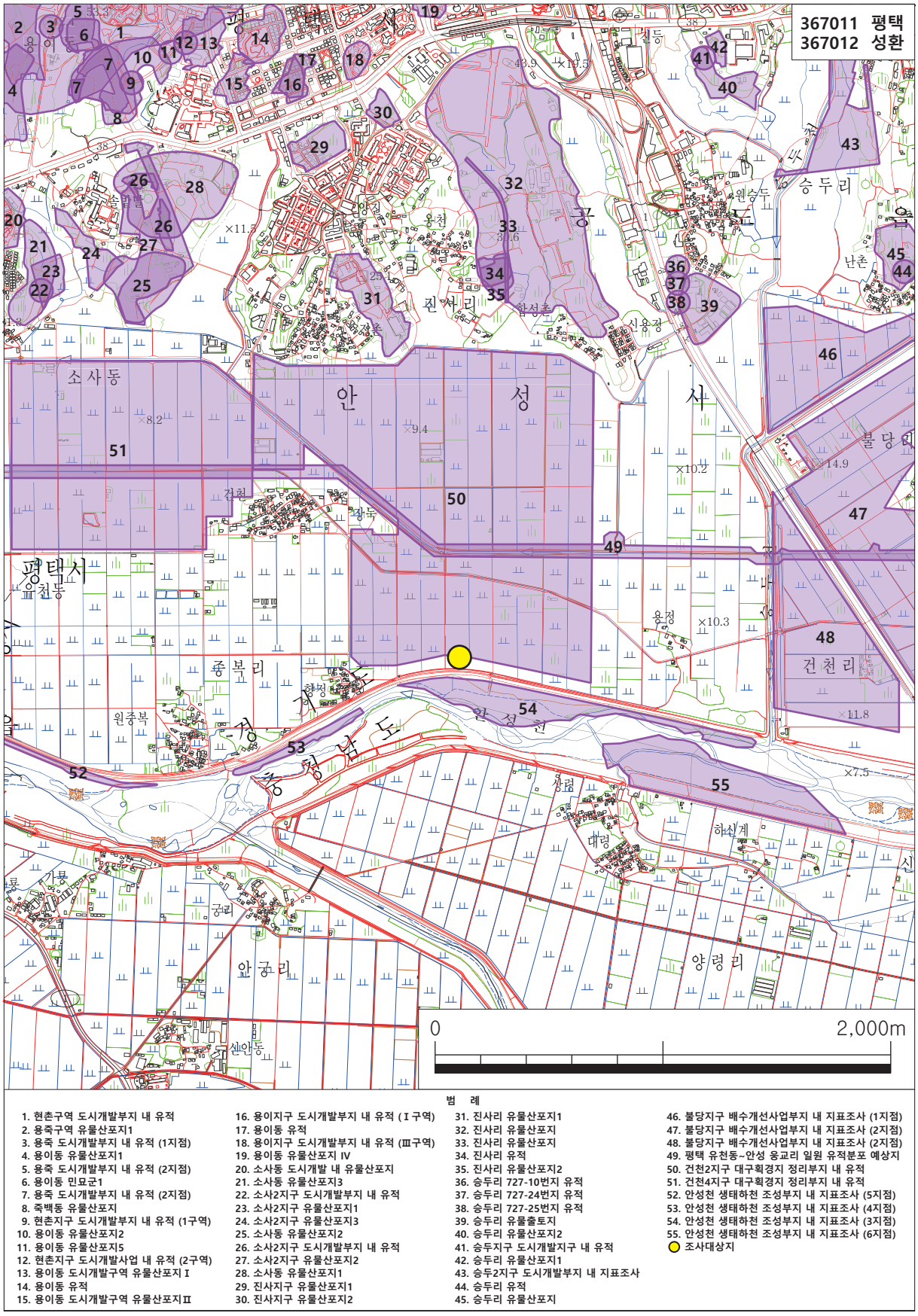
안성시는 경기도에 위치한 31개 시군들 가운데 경기 남부 최남단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은 552.79㎢이다. 지리적으로 동쪽으로는 이천시, 서쪽으로는 평택시, 북쪽으로는 용인시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음성군·진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 서부의 평야지역과 동부의 내륙산지를 이어주고 경기남부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안성시는 경기 남서부의 평야지역에서 동부의 산지 지역에 이르는 중간지대로 오랜 침식작용으로 인해 100m 미만의 저기복 구릉지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평야에서 산지로 가는 분지성 지형이다. 시의 동쪽과 북쪽은 해발 500m 이하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산줄기는 중생대 말기의 습곡작용에 의해 편마암과 화강암으로 구성된 구릉성 산지이다.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산줄기는 동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북쪽에서 다시 서쪽을 향해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형태이다. 이러한 지형구조의 특징은 구릉성 산지와 하곡을 따라 발달한 평야 지형이 복잡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산지에서 흘러내린 하천으로부터 각종 용수를 구하기 쉬워 농경지 개척과 취락 발전에 적합하다. 특히 삼죽면의 서쪽은 해발 300~500m에 이르는 달기봉(410m)·국사봉(447m)·보개산(346m)·도덕산(340m)·칠장산(492m)·칠현산(516m) 등의 한남정맥이 서북쪽에서 동남쪽방향으로 이어져 시의 생활권역을 동서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 산지는 평지와 만나서 죽산분지를 형성하고 안성시가지 쪽으로 흐르는 안성천과 시의 동쪽으로 흐르는 죽산천의 분수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분수계는 조선시대에 안성과 죽산의 행정구역을 나누는 경계였으며, 이곳에는 두 지방을 연결하는 노루목고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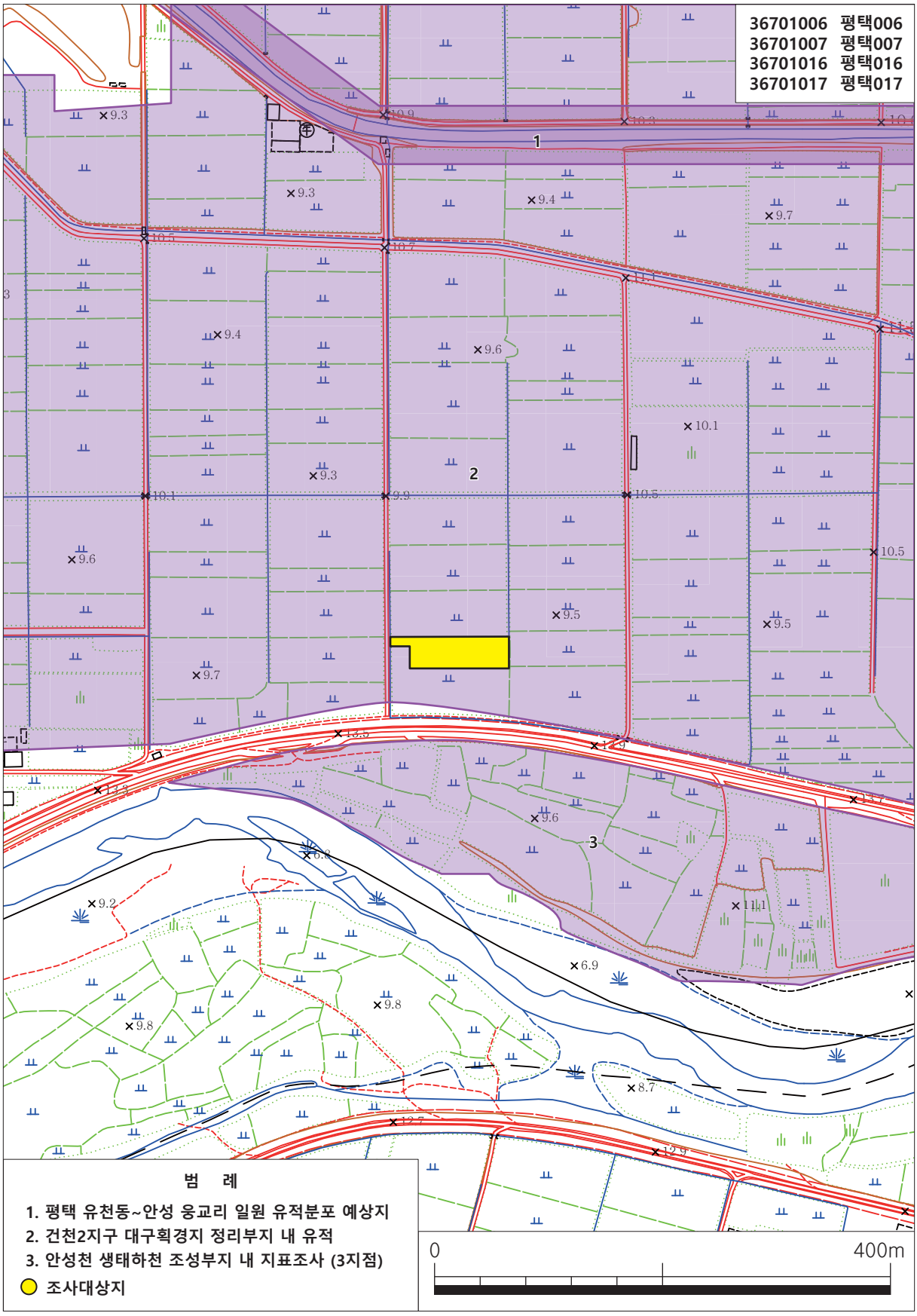
하천을 살펴보면, 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일죽면과 죽산면 일대는 청미천을 중심으로 그 지류인 죽산천·장암천·화곡천·신흥천 등이 발달해 있다. 청미천은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에서 발원해 동남방향으로 여주시에서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의 제1지류이다. 시 서쪽에는 삼죽면 녹배고개에서 발원해 삼죽면과 보개면을 지나 동에서 서로 안성시가지를 가로지르고 미양면 후평리 부근에서 한천과 합류해 아산만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는 안성천이 흐르고 있다. 안성천은 평택시·충청남도 천안시와의 경계를 이루는 우리나라 제 6위의 큰 하천으로서 유천·승두천·신릉천·도일천·장안천·둔포천·군계천 등의 많은 지류가 발달해 있다. 또한 안성천 일대는 지형적으로 고지대가 적고 비교적 평탄지가 많으며 유역의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농경지가 발달해 있다.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1969년 자르개 1점이 고삼면 고산저수지의 남쪽 기슭에서 채집되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7]. 이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구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석영제의 찍개, 긁개, 격지 등의 다양한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유적들로 공도읍의 승두천 유역에 위치한 안성 용두리유적[8] · 승두리유적[9] · 웅교리유적[10] · 만정리유적[11] · 양기리유적[12] · 반제리유적[13] · 개

7) 손보기, 1967,「석장리 이외의 구석기문화의 분포 가능성」,『白山學報』7.
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安城 孔道物類團地 造成事業部地內 安城 龍頭里遺蹟』.
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安城 繩頭里 遺蹟』.
10) 기호문화재연구원, 2007,『안성시 하수도시설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정리유적[14] 등이 있는데 중기 구석기의 늦은 시기에서 후기 구석기의 이른 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까지의 조사를 통해 구석기시대 유물이 확인되는 갱신세층은 안성천 주변의 산지 및 구릉을 포함한 말단부 지역과 계곡부, 안성천 지류를 따라 형성된 저구릉성 산지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죽사 봉업사지[15] 3차 발굴조사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갈돌이 출토되고 동평리유적[16] · 마정리유적[17]에서 유물이 소량 출토되어 그 존재 가능성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안성 양변리 유적[18]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으며, 토기편과 용도미상의 석기편, 토제품이 출토되었다. 안성 동평리 유적에서 주거지 1기와 적석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이처럼 경기도 내륙지역에서 발견되는 신석기시대 유적의 입지 조건은 주로 강안의 단구 또는 저구릉성 능선에 입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안성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저기복 구릉지를 비롯하여 안성천의 강안 뿐 아니라 망이산성과 반제리유적과 같이 고지성 산지의 정상부에서도 확인되어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만정리 신기유적[19]에서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마정리[20] · 반제리[21] · 만정리 Ⅰ · Ⅱ[22] 유적 등이 차례로 발굴조사 되어 안성천과 근거리에 위치한 구릉지역에 마을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23].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을 살펴보면 마정리유적에서는 공렬토기와 붉은간토기가 출토되는 장방형주거지 2기와 수혈유구가 발굴조사되었다. 만정리 Ⅰ유적은 고인돌 1기와 주거지 34기가 발굴조사되었다. 특히 만정리 Ⅱ유적은 대규모의 취락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역삼동 · 흔암리유형의 주거지를 비롯해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에서 후기 전반 경으로 편년되는 휴암리형 주거지가 함께 확인되어 경기남부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고지성 산지에 입지한 반제리 유적은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9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의 양상 등으로 보아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영향을 받은 흔암리유형으로 보고 있다. 그 외 안성지역에서 확인된 유적으로는 관련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봉업사지 3차 발굴 · 죽주산성 · 망이산성에서 동시기 유물이 출토된 바 있으며, 쌍지리 · 명목리 · 반제리 · 승두

---

11)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12) 중원문화재연구원, 2004,『安城 兩基里遺蹟』.
13)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安城 盤諸里遺蹟』.
14)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1,『安城 開井里 舊石器遺蹟』.
15) 경기도박물관, 2005,『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1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安城 東坪里遺蹟』.
17) 경기대학교박물관, 2005,『安城 馬井里遺蹟』.
18) 중부고고학연구소, 2012,『安城 兩邊里遺蹟』.
19)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20) 경기도박물관, 2005,『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安城 盤諸里遺蹟』.
22)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安城 萬井里Ⅰ遺蹟』.
23) 이동성, 2013,「안성의 매장문화재」,『숨겨진 문화재 안성의 보물』.
안성의 청동기시대 마을유적은 안성천의 중류에 해당하며, 중 · 하류에 해당하는 평택지역에서는 소사동 · 토진리, 칠괴동, 양교리 등이 발굴조사 되어 안성천 중 · 하류지역 주변의 얕은 구릉지역이 이 시기 취락으로 선호된 지형적 조건임이 확인되었다.

리 · 현수동 · 미장리 · 장계리 등지에서는 지석묘가 확인되었다[24].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철기시대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반제리유적[25]이 대표적이다. 반제리유적에서는 70여 기에 이르는 대규모 취락지와 토광묘, 환호, 목책열, 구상유구, 성격 미상의 수혈유구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어 마을 규모의 유적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의례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환호가 구릉 정상부에서 확인되었으며, 환호 주변을 두르며 편평한 능선부와 사면 상단부에 주거군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그 아래 사면 중단부에는 토광묘가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의례-주거-무덤이 동시에 존재하는 마을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출토유물 또한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 환상파수장경호, 석촉, 석부, 방추차 등이 확인되었으며, 토광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 환호에서는 내부시설로 목책열, 구상유구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만정리 신기유적[26]에서는 토광묘 3기가 조사되었는데 부장유물로는 세형동검 · 옥제 목걸이 · 흑도장경호 · 점토대토기 · 석촉 · 동촉 · 철촉 · 동사 · 동착 등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고대국가가 등장하기 전 안성지역이 위치한 경기도와 충청 · 전라지역의 대부분은 마한에 속해 있었으며, 50여 개의 소국이 자리하였다. 소국들 가운데 안성과 인접한 천안지역에 마한의 여러 정치집단의 맹주 격이었던 목지국이 위치하고 수원과 화성 일대에는 모수국(牟水國)이 있었다. 이에 안성지역 역시 일정규모의 세력을 지닌 정치 집단의 소국이 자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소국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반제리 유적[27]을 들 수 있다. 반제리 유적은 주거지가 70여동에 이르는 대규모 취락지로서, 토광묘 · 환호 · 목책열 · 구상유구 · 성격미상의 수혈유구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 · 환상파수부장경호 · 석촉 · 석부 · 방추차, 위석식 토광묘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 구상유구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으로는 장방형 주거지 1동이 확인된 안성 한운리 유적[28]이 있다.

안성지역의 역사적 기록은 삼국시대에 들어서 처음 나타나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13년의 기록에 왕이 사신을 마한으로 보내어 남쪽의 경계를 웅천으로 한 기록과 온조왕 24년에는 마한의 접경지역인 이곳에 웅천책을 세운 기록으로 보아 이 무렵 안성지역은 백제의 영토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백제의 지배영역 중 웅천의 현재 지명이 안성천이다. 이 시기 대표적인 유적으로 신두리 유적[29] · 도기동 유적[30] · 도기동 성곽유적[31] · 장원리 유적[32] 등이 있다. 신두리 유적에서는 주구토광묘 7기와 옹관묘 1기가 확인되었으며, 환두대도 · 철모 · 원저단경호 · 발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신두리 유적보다 다소 늦은 시기로 보이는 도기동 유적에서는 4~5세기대로 편년되는 토광목관묘 38기를 비롯해 석곽묘 1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원저단경호와 발형토기 등의 토기류, 환두

24) 경기도박물관, 2004, 『경기도의 고인돌』.
25)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安城 盤諸里遺蹟』.
26)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27)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安城 盤諸里遺蹟』.
28)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兩基里 · 閑雲里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29)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安城 新頭里 遺蹟』.
30)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安城 道基洞 遺蹟』.
31) 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安城 道基洞山城』.
32)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2, 『安城 長院里 · 龍舌里 · 唐木里 遺蹟』.

대도 · 철검 · 철모 · 철겸 등의 무기류와 재갈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또한 도기동 성곽유적에서는 4~6세기대로 편년되는 삼국시대 목책성 1개소와 수혈 12기가 조사되었다. 가야계의 파수부잔(컵형토기), 한성백제토기인 삼족기와 고구려계의 파수부 토기, 뚜껑, 완 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백제에 의해 축조된 후 고구려가 이 일대를 점령하면서 일부 고쳐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죽산면의 장원리 유적은 백제 횡혈식석실분 3기, 석곽묘 10기, 석개토광묘 1기, 토광묘 48기 등 분묘유구 62기가 확인되었으며, 단면 플라스크형의 저장수혈이 52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한성 백제기 취락의 와곽에 대단위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으로 볼 때 장원리 일대에 대규모의 취락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촌동, 삼죽면 내장리, 대덕면 명당리 유물산포지에서 백제토기가 수습되었으며, 비봉산성이나 죽주산성, 망이산성 등에서 백제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안성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도성 함락이후 백제는 공주에서 문주왕이 등극하면서 웅진시대가 시작된다. 이에 서울과 경기지역 대부분은 고구려에 편입되었으며, 안성도『삼국사기(三國史記)』지리지(地理志),『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志),『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당시 백제와 대치한 경계지가 안성 등이었음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안성의 옛 지명에서 나타나는 '홀(忽)'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안성시의 중심지역은 나혜홀(奈兮忽), 양성지역은 사복홀(沙伏忽), 죽산지역은 개차산군(皆次山郡)으로 편제되었다[33]. 다만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안성에서 조사된 바 없어 실체를 알 수 없으나 인근 화성 청계리유적이나 성남 판교, 용인 보정동 고분군 등지에서 고구려 고분이 발견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가 단순히 군사적 장악만이 아닌 영토에 대한 실효지배를 목표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6세기 초에는 고구려의 세력 약화로 다시 백제의 땅이 되었다.『삼국사기』무령왕조에 고목성(연천) 남쪽에 입책하고 장령성을 쌓은 기록은 6세기 중엽까지 고구려와 백제 간에 안성지역을 포함한 한강유역을 둘러싼 치열한 영토 전쟁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백제 성왕 16년 신라와 연합하여 남평양(현 서울 부근)을 점령하였으나 곧 신라에게 빼앗겨 나제동맹이 깨지게 되었다. 6세기 진흥왕 이후 신라 말기까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신라는 경덕왕 16년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나혜홀을 백성군(白城郡), 개차산군은 개산군(介山郡), 사복홀은 적성현(赤城縣)으로 개칭하였다.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한 이후로도 북으로는 고구려, 남으로는 백제와 각축을 벌였으므로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방어하고자 많은 성곽을 축조하였다. 현재 안성지역에 있는 망이산성, 죽주산성, 비봉산성 등에서 신라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비봉산성은 백성군, 죽주산성(또는 망이산성)은 개산군, 무한성은 적성현의 치지로 비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개산군 지역에 해당하는 안성 장원리 유적[34]에서는 삼국시대 횡혈식석실묘 3기와 석곽묘 11기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3기의 횡혈식석실묘 가운데 2호와 3호 석실묘의 축조된 시점은 한성기 말기로 편년되지만 백제토기와 함께 신라토기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신라 때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백제와 신라의 정치적 영역변화의

33)『三國史記』, 雜志, 第4, 地理 2, 漢州.

34)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2,『安城 長院里 · 龍舌里 · 唐木里 遺蹟』.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이외 안성 반제리유적[35]에서는 횡혈식석실묘와 석곽묘 등 18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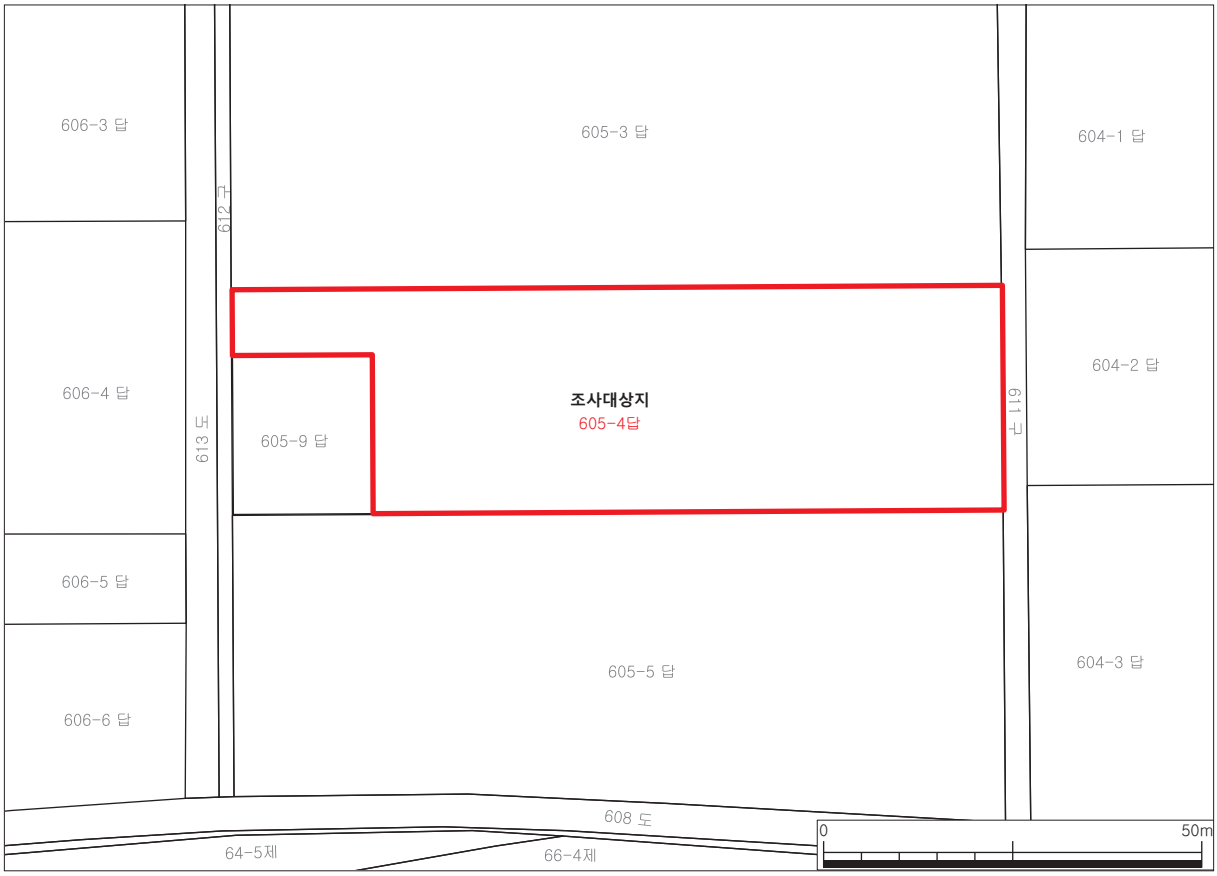
7세기 후반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전국을 9주로 나누었을 때 안성은 한산주에 속하였으며, 경덕왕 때의 지명을 그대로 두었다. 이 때 백성군과 개산군은 주군으로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었으며, 적성현은 백성군의 속현이 되었다. 이 시기 안성천지역은 통일신라시대 국제 교역항 중 하나인 당항진과 통하는 교두보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현재 당항진의 위치는 아산만이나 남양만 일대로 추정될 뿐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안성천유역은 내륙지역과 당항진을 연결하는 교역로의 핵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만정리Ⅱ유적 · 도기동유적 · 당목리유적 · 만성리 신기유적 등지에서 주거지를 비롯하여 우물 · 건물지 · 기와가마 등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고려시대에 태조 23년(940) 안성지역은 안성현, 개산군은 죽산군, 적성현은 양성현으로 개명되었다.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5도 양계체제로 정비된 고려의 지방행정구역 중 안성지역에는 성종 초 단연사(團練使)가 파견되었다가 목종 8년(1005)에 폐지되었으며, 현종 9년(1018) 수주(水州)(현재 수원)에 속하였다가 22년(1031)에는 천안부의 속현으로 옮겨졌다. 명종 2년(1172)에는 감무(監務)를 두기도 하였다. 죽주부는 성종 14년(955)에 단연사가 파견되고 목종 8년(1005)에 폐지되었으며, 현종 9년(1018)에는 광주의 속군이 되었다가 명종 2년(1172)에 감무가 다시 설치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양성현의 경우도 대체로 마찬가지였는데 현종 5년(1014)에 수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명종 5년 비로소 감무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안성시에 위치한 3개의 부 · 현은 각각 다른 주 · 읍의 관할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은 이 지역이 교통의 요지이자 도의 경계지역이었음을 의미한다.

몽고군의 침입 시에는 죽주성의 방호별감 송문주가 끝까지 응거하면서 물리치기도 하였다. 1361년 홍건적의 침입 시에도 다른 지역은 모두 항복하였으나 안성사람들은 계책을 꾸며 거짓 항복하고 주연을 베풀어 적장을 유인하여 살해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362년에는 지군사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며, 1366년에는 다시 수주로 환속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안성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남부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내륙 교통로상 중요한 거점인 죽산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유적은 봉업사가 위치한 죽산천 주변의 죽산리, 매산리 일대에 집중 분포하는데 대부분 불교유적이다. 관방유적으로는 삼국시대 이래로 활용된 죽주산성 외에 칠현산성이 칠장사 남쪽에 위치하며, 불교유적으로는 봉업사[36], 칠장사[37], 매산리사지, 장명사지, 죽산리 매곡사지, 죽산리사지, 장능리사지[38] 등이 다수 확인된다. 이외 분묘유적으로 석실묘 1기와 석곽묘 6기, 토광묘 2기가 확인된 매산리 고분군[39]이 있으며, 신릉리유적[40]에서 석곽묘 7기와

35)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安城 盤諸里遺蹟』.
기호문화재연구원, 2015, 『안성 반제리 주정마을 유적』.
36) 경기도박물관, 2002, 『奉業寺』.
37) 기호문화재연구원, 2014, 『七長寺』.
3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安城 長陵里寺址』.
39) 경기도박물관, 2007, 『安城 梅山里 古墳群』.
40)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安城 新陵里 古墳群』.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74기가 조사되었으며, 도기동 성곽유적[41]에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추정되는 석곽묘가 6기 확인되었다. 인접지역인 일죽면에서는 생산유적으로 도기가마 2기가 확인된 화곡리 요지[42]가 위치한다.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조선시대에 들어 안성지역은 정종 1년 안성군 소속인 양량부곡을 분리 독립시켜 양지현(陽智縣)으로 승격시키는 조치가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천안부에 속해 있던 안성군과 양성현은 경기도에 편입되고 죽산은 죽산현으로 개칭되어 현감이 배치되었다. 세종 16년(1543)에 경기도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 태종 13년(1413)에 지방제도를 개혁하여 전국을 8도로 나누었고 중종 38년(1584) 죽산은 군사 · 지리적 요충상 죽산부로 승격되어 부사를 두었다가 선조 17년(1548)에 한때 현으로 강등되었으나 곧 다시 29년(1596)에 부로 승격되었다.

안성지역의 조선시대 유적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택지, 각종 산업단지와 도로 건설이 수반되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생활 · 분묘유적으로는 승두천, 유천 유역의 반제리유적 · 만정리유적 · 신두리유적 · 양기리유적에서 조선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주거지, 수혈, 토광묘, 회곽묘 등

41) 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安城 道基洞山城』.
42) 조선관요박물관, 2006, 『安城 和谷里 窯址』.

의 다양한 유적이 조사되었다. 그 외 신소현동유적[43]에서 주거지 24기와 토광묘 54기, 갈전리유적[44]에서 주거지 24기와 건물지 1기 · 기와가마 1기 · 숯가마 1기, 오촌리유적에서 주거지 2기와 토광묘 32기, 도기동 성곽유적에서 토광묘 52기가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도기동유적[45] · 만정리 신기유적[46] · 칠곡리유적[47] · 장원리유적[48] · 신흥리유적[49] 등이 있다. 생산유적으로는 화곡리 요지[50]에서 추정 공방지와 백자가마 3기가 발굴조사된 바 있다.

【표 1】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안성 건천 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부지	0㎞	유물산포지	한신대학교박물관, 2008, 『안성 건천 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	평택 건천 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부지	북서쪽 1.6㎞	유물산포지	한신대학교박물관, 2013, 『평택 건천 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3	안성 진사리유적	북쪽 1.6㎞	구석기~조선시대 유물산포지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안성시-』	
4	안성 공도 승두리 727-10번지 일원 창고부지내 유적	북동쪽 1.9㎞	청동기~조선시대 유물산포지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8, 「경기도 안성시 승두리 727-10번지 일원 창고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5	안성 승두리 유물출토지	북쪽 2.5㎞	청동기~조선시대 유물산포지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안성시-』	
6	안성 진사리산성	서쪽 250m	백제~조선시대 성곽		
7	평택 소사동 유물산포지1	북서쪽 2.2㎞	유물산포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8	평택 소사동 유물산포지2	북서쪽 2.0㎞	유물산포지		

43)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安城 新蘇峴洞 遺蹟』.
44)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安城 葛田里 古墳群』.
45) 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安城 道基洞山城』.
46)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47) 중부고고학연구소, 2012, 『安城 七谷里遺蹟』.
48)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1, 『安城 長院里 遺蹟』.
49)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安城 新興里 遺蹟』.
50) 조선관요박물관, 2006, 『安城 和谷里 窯址』.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안성 I.C.삼거리에서 안성 톨게이트 방면으로 80m 진행하면 남쪽으로 향하는 승진길이 나타나는데 그 길을 따라 1㎞ 진행 후 삼거리에서 동쪽의 진사2길을 따라 330m 직진하면 농로길로 이어지는 사거리가 있다. 이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450m 진행 후 남서쪽으로 300m 진행하면 다시 사거리가 있고 동쪽으로 150m 진행 후 남쪽으로 1.4㎞ 직진하면 동쪽에 조사대상지가 위치한다.

조사대상지는 안성천 북안의 넓은 충적평야 지대에 위치한다. 그리고 안성천 북쪽 제방과 거의 접해있으며, 동쪽으로 약 1.4㎞ 거리에서 승두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안성천과 합류한다. 안성천변 충적대지는 모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평탄화되었고 조사대상지 역시 최근까지 논으로 이용되었다.

조사대상지는 전체적으로 장방형에 가까우며, 서북쪽 부분은 진입로가 장방형으로 돌출되어 있고 설계도상에 건물은 동쪽에 치우쳐 건축될 예정이다.

발굴조사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임시 적치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조사구역을 남-북으로 이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조사구역 북쪽의 경작유구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완료 후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여 경작유구 아래의 하부문화층 부존여부를 확인하였다. 북쪽 일대에 대한 조사완료 후 진입로 부분과 남쪽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이어서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백제)시대 주거지 1동과 밭 경작유구가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지의 토층양상은 서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갈색+황갈색사질토(1층:표토 및 복토층) - 암회색사질점토(2층:최근 논 경작층) - 갈색사질점토+망간(3층:최근 논 경작층) - 갈색사질점토(4층:자연퇴적층) - 갈색사질토(5층:자연퇴적층) - 명갈색사질점토(6층:밭 경작유구 고랑내부토) - 암갈색사질점토(7층:밭 경작유구 이랑조성층) - 명갈색사질토(8층:자연퇴적층) - 갈색사질점토(9층:자연퇴적층) - 회청색니질토(10층:자연퇴적층)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1층은 표토 및 복토층으로 조사전 밭경작이 이루어진 층이다. 비교적 사질성분이 많이 함유되었고 부분적으로 점토 성분이 혼입되어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다. 층의 두께는 50㎝ 정도이다.

2 · 3층은 최근 논 경작으로 형성된 층이다. 2층은 경작층이고 3층은 물이 침전되어 형성된 망간집적층이다. 층의 두께는 30㎝ 정도이다.

4 · 5층은 자연퇴적층으로 전반적으로 4층이 5층보다 어두운 편이다. 특히 5층에서는 고려시대 청자완편 3점이 수습되었다. 층의 두께는 40㎝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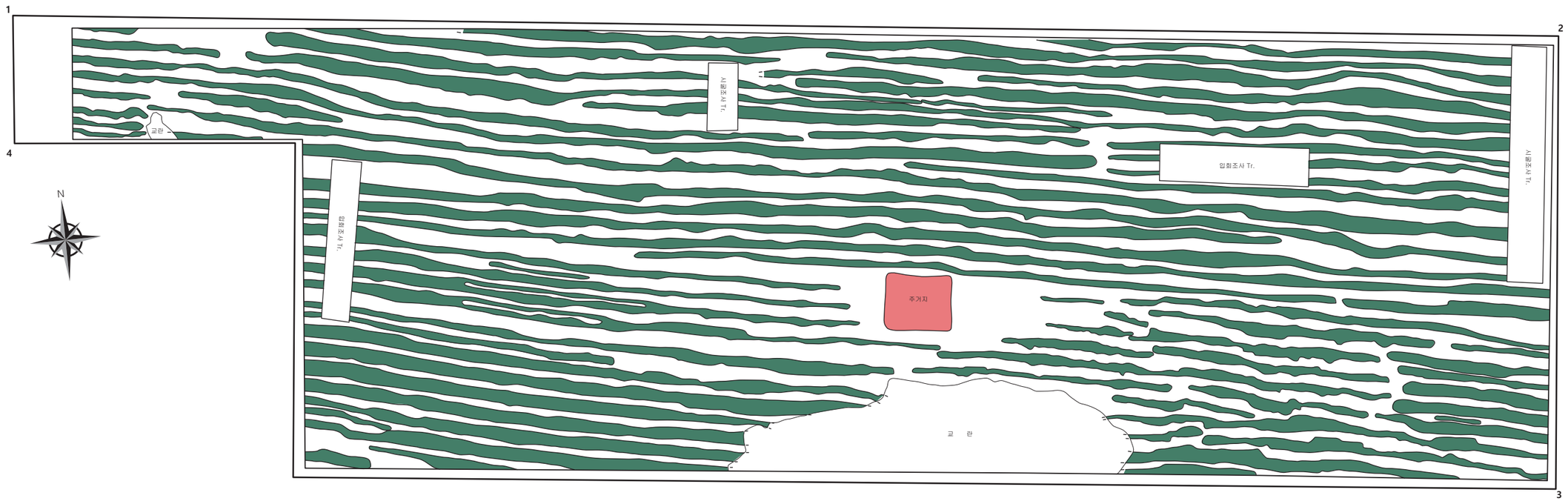
6층은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 고랑 내부와 두둑 상부에 퇴적된 층이며, 층의 두께는 30㎝ 내외이다.

7층은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의 이랑이 조성된 층이다. 점토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조직이 치밀하다.

8 · 9층은 자연퇴적층으로 안성천 범람으로 형성된 층으로 8층보다 9층에서 입자가 고운 사질이 퇴적되었다. 층의 두께는 25㎝ 정도이다.

10층은 자연퇴적층으로 안성천 범람 후 지하수로 인해서 형성된 뻘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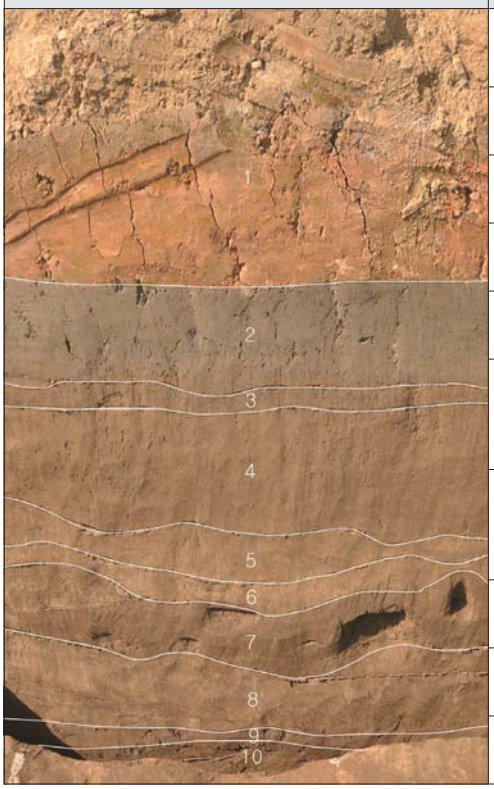
발굴조사결과, 삼국(백제)시대 주거지 1동과 밭 경작유구가 확인되었다.



GPS 측정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212995.477m	GPS3	X	213096.790m
	Y	486011.732m		Y	485983.824m
	Z	12.104m		Z	11.438m
GPS2	X	213096.569m	GPS4	X	212995.527m
	Y	486012.310m		Y	486003.032m
	Z	11.157m		Z	12.122m

도면 4.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표 2】 조사대상지 기준토층

토층	내용	
	1층 : 갈색+황갈색사질토	표토층 및 복토층 (두께 약 50㎝)
	2층 : 암회색사질점토	최근 논 경작층 (지표 하 50~80㎝)
	3층 : 갈색사질점토+망간	
	4층 : 갈색사질점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80~120㎝)
	5층 : 갈색사질토	
	6층 : 명갈색사질토	자연퇴적층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 고랑내부토) (지표 하 120~130㎝)
	7층 : 암갈색사질점토	삼국시대문화층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 이랑조성층) (지표 하 130~150㎝)
	8층 : 명갈색사질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150~200㎝)
	9층 : 갈색사질점토+세사립	
	10층 : 회청색니질토(뻘층)	

〈삼국시대〉

1) 주거지

가. 유구(도면 5, 도판 3~5)

조사구역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으며, 해발 약 9.2m에 위치한다. 주거지는 경작유구 사이에 위치하는데 주거지를 중심으로 북쪽은 60㎝, 동쪽으로 320~680㎝, 남쪽으로 120㎝, 서쪽으로 190~300㎝ 이격해 경작유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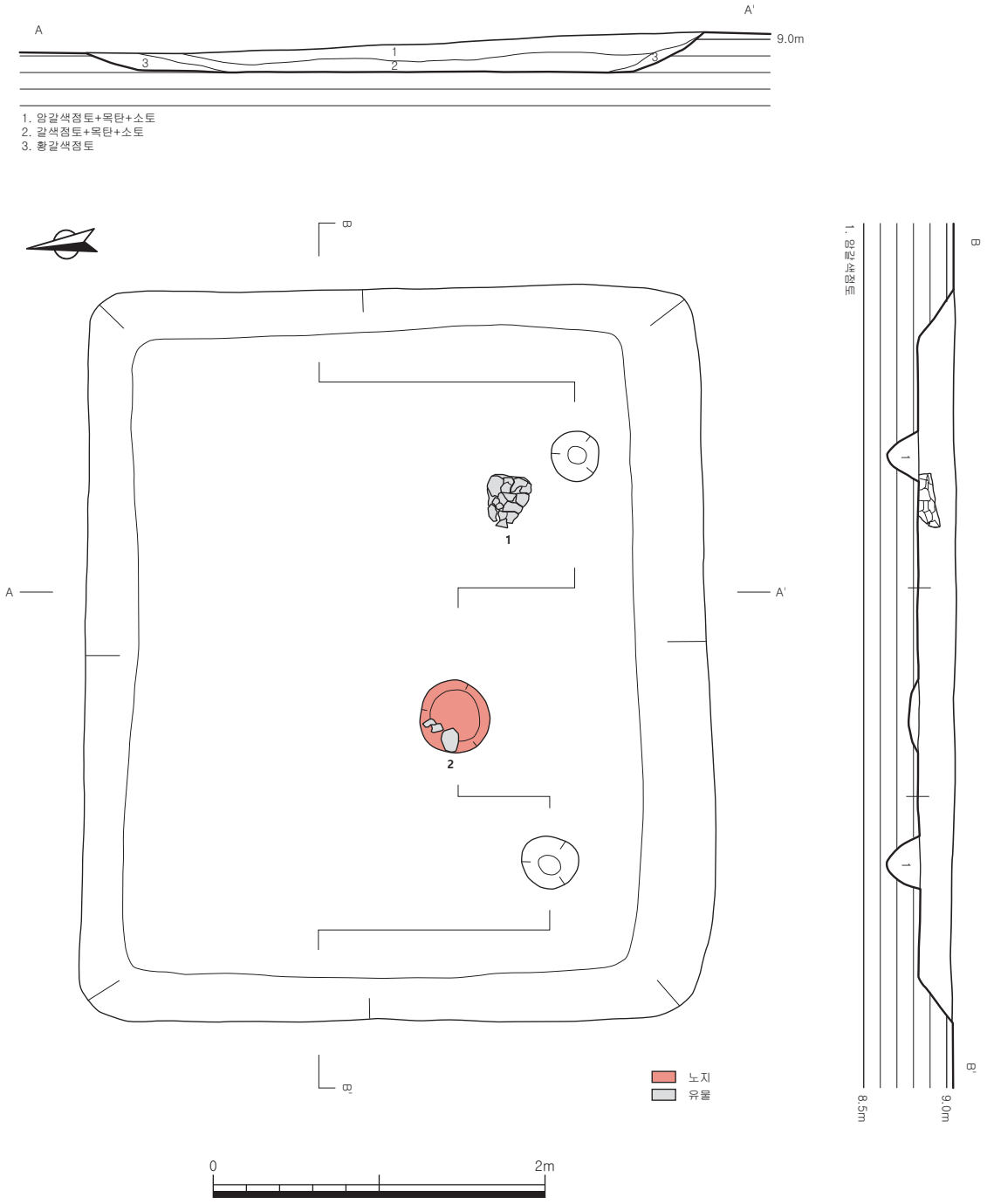
암갈색사질점토를 평면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굴착하여 동-서로 약간 긴 형태로 장축방향은 동-서(N-83°-W)향이며, 규모는 길이 약 400㎝, 너비 약 380㎝, 깊이 약 20㎝ 정도이다. 내부에는 목탄편과 소토 알갱이가 혼입된 암갈색점토-갈색점토+목탄+소토알갱이-황갈색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완만하고 바닥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내부시설은 노지 1기와 주혈 2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유구 바닥 중앙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무시설의 수혈식으로 설치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지름 26㎝, 깊이 3㎝ 정도이다. 생활면을 완만한 U자형으로 굴착하였고 화기로 인해 붉게 피열되었다. 주혈은 남동 · 남서쪽 모서리에 인접해 각각 1개씩 확인되었는데 각 모서리에서 중앙으로 각각 112㎝와 128㎝ 떨어져 있다. 기 확인된 주혈과 대칭되는 북서쪽과 북동쪽에 트렌치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추가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주혈은 모두 원형으로 규모는 지름 32 · 30㎝, 깊이 20 · 20㎝이며, 주혈간 간격은 240㎝이다. 주혈은 주

거지 생활면을 굴착하고 조성하였는데 내부에는 갈색점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목주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서쪽의 주혈 바닥에서는 목탄이 소량 나왔다. 벽면의 경사는 급한 편이고 바닥은 오목하게 굴착하였다.

유물은 유구 중앙에서 남서쪽으로 치우쳐 장란형토기 1개체가 출토되었고 노지 상부의 퇴적토에서 연질토기 저부편 2점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삼국(백제 한성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로 판단된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목탄 1점에 대해 AMS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방사성탄소연대(BP) 1,947±24, 절대연대 AD17~127년으로 산출되었다.



도면 5. 주거지

나. 유물

1. 장란형토기(도면 6-1, 도판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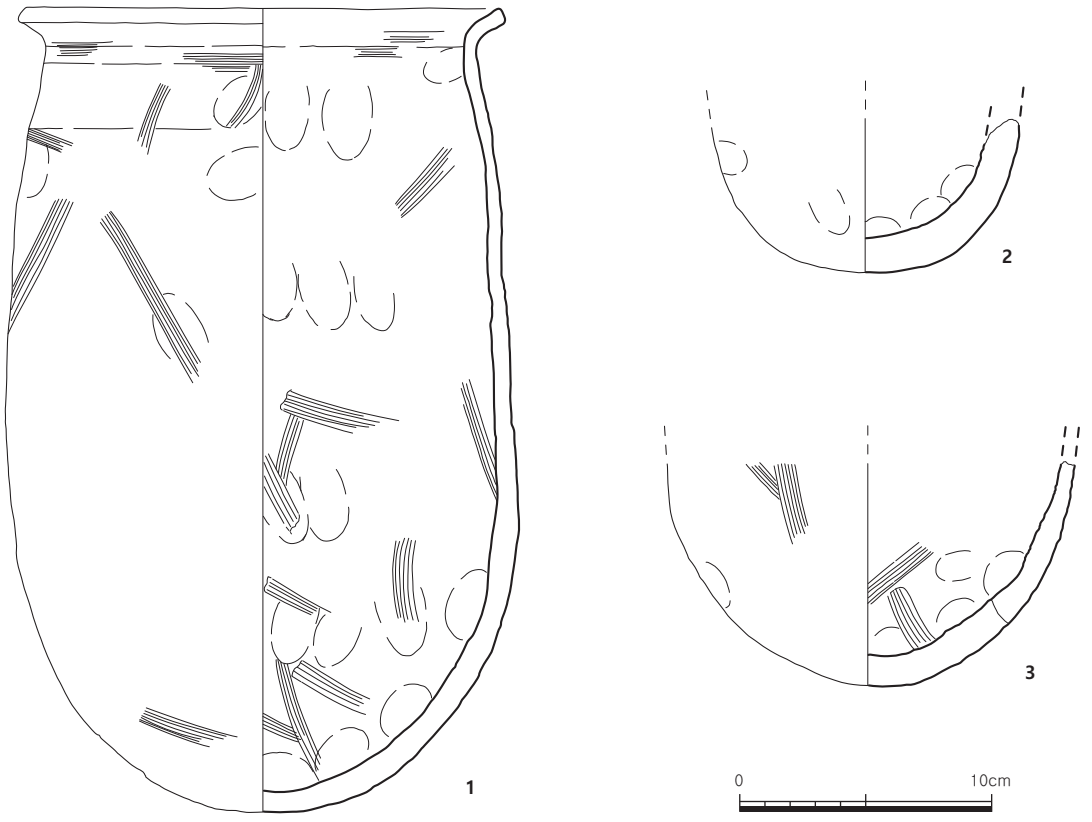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명적색(2.5YR 7/6) 또는 분홍색(7.5YR 7/4), 내면은 암회색(10YR 4/1), 속심은 분홍회색(7.5YR 6/2)이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동체부는 수직에 가깝게 벌어져 내려가며, 최대경은 하위에 위치하고 바닥은 원저이다. 표면에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19.2㎝, 복원구경 31.9㎝, 두께 0.5~0.8㎝

2. 저부(도면 6-2, 도판 6-2)

저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연담갈색(10YR 7/2)이며, 외면과 속심에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고 일부 잡물이 흡착되었다. 바닥은 원저이고 동체부는 벌어져 올라간다. 표면에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1㎝, 두께 1.6㎝



도면 6. 주거지 출토유물

3. 저부(도면 6-3, 도판 6-3)

저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연담갈색(7.5YR 7/3)또는 적황색(5YR 7/6)이고 부분적으로 회갈색(10YR 5/2)을 띠며, 일부 잡물이 흡착되었다. 바닥은 원저이고 동체부는 벌어져 올라간다. 표면에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8.8㎝, 두께 0.6㎝

2) 밭 경작유구

가. 유구(도면 7, 도판 7~12)

밭 경작유구는 조사구역 전체에서 확인되었고 해발 9.2m에 위치한다. 유구 중앙부에서 평면 방형의 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다.

이랑은 암갈색사질점토를 기반으로 조성되었으며, 진행방향은 대체로 동-서 방향으로 남쪽의 안성천과 평행한다. 조사구역 동쪽과 서쪽부분에서 비교적 균일한 형태로 약 27~31줄의 이랑이 확인되고 중앙부분은 두둑과 고랑이 조밀해지거나 형태가 불규칙하게 확인되었다.

두둑의 너비는 50~100㎝이고 고랑의 너비는 20~80㎝ 내외이며, 고랑의 깊이는 10~15㎝이다. 두둑이 상대적으로 넓으며, 고랑이 좁은 편이다. 이랑의 단면형태는 제형이다.

별도의 구획과 경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규모의 경작유구로 판단된다. 이랑은 여러 차례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 차는 크지 않은 것을 보인다. 즉 두둑 및 고랑이 이어지다가 단절되고 두둑과 고랑을 뒤바꿔 조성한 것을 볼 때, 연속적으로 고랑과 두둑을 수정하거나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고랑 내 퇴적토인 명갈색사질토에서 삼국(백제 한성기)시대의 격자타날문토기편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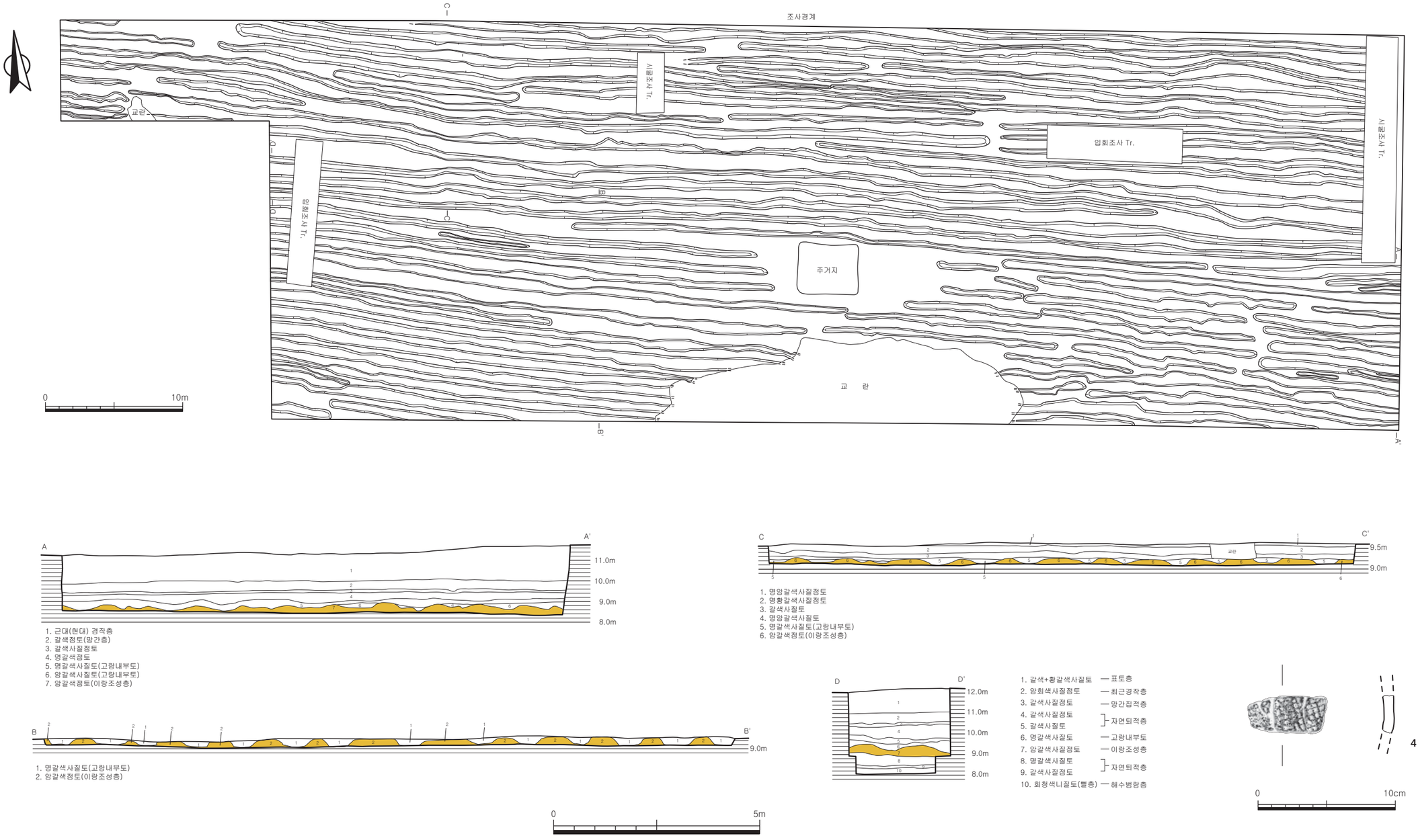
밭 경작유구의 동 · 서쪽 경계에 설치한 탐색피트 내 이랑조성층에서 각각 수습한 목탄에 대해 AM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동쪽 경계의 탐색피트에서는 방사성탄소연대(BP) 1,610±30, 절대연대 AD392~638년으로 산출되었다. 서쪽 경계의 탐색피트에서는 방사성탄소연대(BP) 1,300±30, 절대연대 AD660~730년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동 · 서쪽의 이랑조성층의 식물규소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벼 산출량을 볼 때, 도작 농경이 행해졌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유물

4. 동체부편(도면 7-4, 도판 13-4)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5YR 6/6)이며, 부분적으로 잡물이 흡착되었다.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표면에 잡물이 흡착되었으며,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도면 7. 밭 경작유구 및 출토유물

잔존길이 2.7㎝, 두께 0.8 ㎝

3) 수습유물

수습유물은 장비제토과정에서 밭 경작유구 상부에 퇴적된 자연퇴적층인 갈색사질토(5층)에서 고려시대 청자 완편 3점이 수습되었다. 유구확인층 상부에 퇴적된 자연퇴적층 및 최근 경작층 등으로 삭평되고 훼손되면서 들어간 유물로 판단된다.

5. 청자 완 구연부(도면 8-5, 도판 13-5)

구연부의 일부와 신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명회색(2.5Y 6/2), 내면은 녹회색(5GY 6/1)의 유조를 띤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고 표면에 부분적으로 기포가 발생하였으며, 내면에는 일부 잡물이 흡착되었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신부는 내경하여 내려간다. 외면은 무문이고 내면에는 횡침선이 3열 1조로 2열이 돌아가며, 횡침선은 모두 백토 상감되었다.

잔존기고 6.8㎝, 복원구경 19.0㎝, 두께 0.3~1.0㎝

6. 청자 완 저부(도면 8-6, 도판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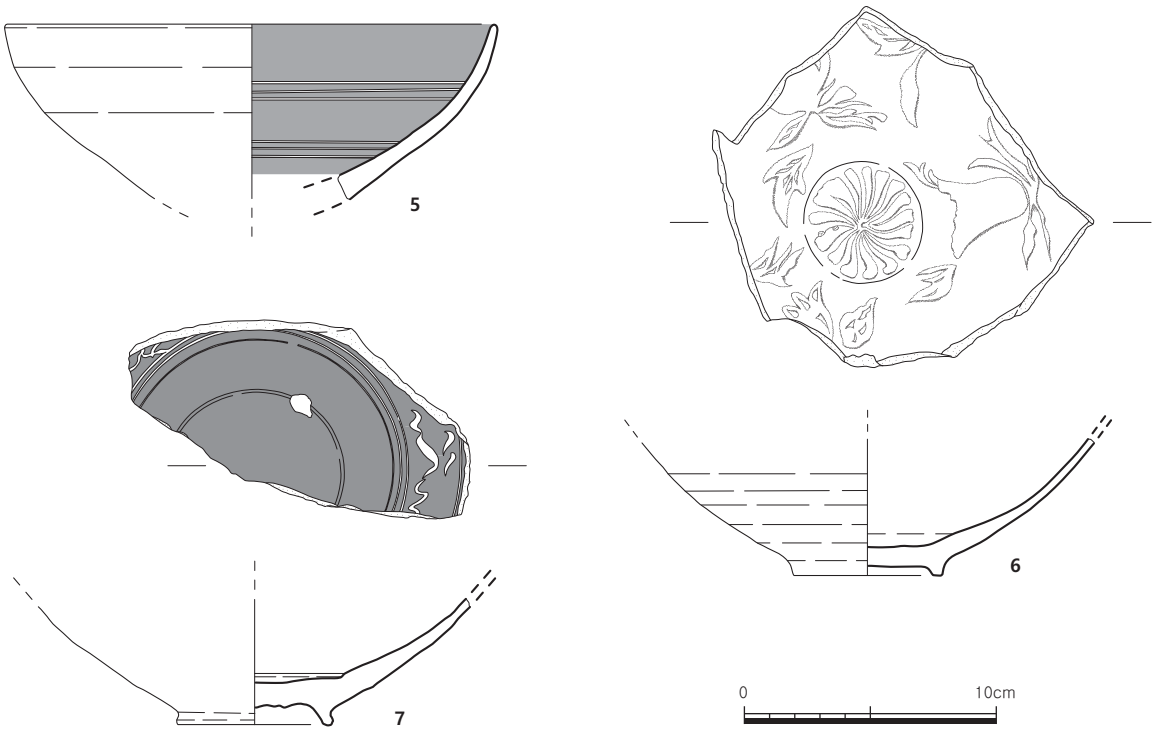
저부와 신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녹회색(10Y 6/1)의 유조를 띠며,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다. 표면에 빙렬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기포가 확인된다. 굽은 낮은 오목굽이고 신부는 벌어져 올라가며,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작은 내저원각이 확인된다. 외면은 무문이며, 내면의 바닥 중앙에는 국화문을 크게 양각하였고 기벽에는 당초문이 양각되었다. 굽 안바닥에 규석받침 3개가 떨어져나간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4㎝, 저경 6.0㎝

7. 청자 완 저부(도면 8-7, 도판 13-7)

저부의 일부와 신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녹회색(10Y 6/1)의 유조를 띠며,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다. 표면에 빙렬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기포가 확인된다. 굽은 낮은 오목굽이며, 굽 안바닥은 깊게 위치하고 표면은 다소 거칠게 마무리되었다. 신부는 벌어져 올라가며,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약간 큰 내저원각이 확인된다. 외면은 무문이며, 신부의 내면에는 1열의 횡침선과 3열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1열과 3열의 횡침선 사이에 파상문 또는 구름문으로 추정되는 곡선문이 음각되었다. 횡침선과 곡선문은 모두 백토 상감되었다. 굽 접지면에 고운 모래 받침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며, 내저면에 내화토비짐 등의 받침이 떨어져나간 흔적 1개가 확인된다.

잔존기고 5.0㎝, 복원저경 6.2㎝



도면 8. 수습유물

Ⅳ. 조사성과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동물관련시설(축사) 신축부지로,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 605-4번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면적은 2,639㎡이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7년 6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현장일수 39일) 실시하였으며, 학술자문회의는 3차례(9월 1일 · 9월 21일 · 10월 18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안성천 북쪽에 인접해 있으며, 주변은 대단위 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조사대상지 일원은 오랜 기간 동안 논 경작 등으로 활용되면서 고고학적 성과가 희소한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1동과 밭 경작유구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잔존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며 내부시설은 노지 1기와 내부주혈 2기만 확인되었다. 주거지 바닥에서 장란형토기 1개체분이 수습되어 복원 결과 구연 및 동체부 일부를 제외하고 복원 가능하여 기형을 알 수 있었다. 생활유구로 주거지는 1동만 확인되었고 상태가 불량하여 유구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단, 출토된 장란형토기를 타 유적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와 비교 검토하는 것으로 유구의 성격을 유추하고자 하며, 함께 조사된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는 대규모 밭 경작유구가 확인된 하남 미사동 유적[51]의 밭 경작유구들과 비교하여 밭 경작유구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유구

1) 주거지

유구는 조사대상지 중앙부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운데 길이 400㎝, 너비 380㎝, 깊이 20㎝ 정도의 규모이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굴광하고 바닥면은 평탄하게 정지하여 생활면을 조성하였다. 내부시설은 중앙부에 평면 원형의 무시설식 노지와 남쪽 벽에 인접하여 내부 주혈 2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바닥면에서 장란형토기 1점과 노지 주변에서 저부편 2점이 수습되었다. 또한 내부 퇴적토에서 채취된 목탄시료에 대한 AMS분석 결과는 방사성탄소연대(BP) 1,947±24, 절대연대 AD17~127년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유구의 시기는 삼국시대의 '사주식주거지'로 분류가 가능하다[52]. 주거지의 형태로 보아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사주식주거지의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지만, 현존 양상으로 보아 사주식주거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방형의 형태와 중앙의 노지, 출토유물 등은 최근 경기지역 경안천 및 안성천 주변에서 확인되는 모습과 유사하다.

---

51) 한국문화재재단, 2018, 「6. 하남 미사동 경작유적」, 『2016년도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보고서 Ⅰ-서울 · 경기 1-』.

52) 주로 호서 · 호남지역에서 주로 조사되었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정일, 2006, 「전남지역 사주식주거지의 구조적인 변천 및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제54호, 한국상고사학회.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 천안 장산리 유적의 조사 및 보고부터 시작되었는데 정일의 주장[53]이 기본적인 틀로 생각되어 왔다. 천안에서 AD 2세기에 발생하여 3세기 백제의 영역 확장에 의해서 호남지역으로 남하하여 확산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각주 52번에서 제시된 것처럼 경기지역에서 조사 · 연구가 되면서 기존 연구결과와 다르게 경기지역 북부 · 서부 · 남부지역[54]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각 지역에서 발생과 발전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55].

2) 밭 경작유구

유구는 조사구역 전체에서 확인되었다. 동-서방향으로 고랑 및 두둑이 형성되어 있다. 확인된 유구의 전체 길이는 약 130m 정도로 조사구역 동쪽과 서쪽 경계 밖으로 계속 이어진다. 조사대상지 남쪽에 인접한 안성천의 유류방향과 동일하게 조성했는데 천 북쪽에 형성된 자연제방을 따라서 대규모의 경작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규모의 경작지가 확인된 예는 하남 미사동 유적[56]이 있다. 두 유적 모두 작휴형태는 이랑밭의 형태이다[57]. 이는 고랑과 두둑이 병렬적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이다. 이랑밭은 평휴법, 휴립법, 성휴법이 있다. 평휴법은 고랑깊이= 두둑높이 형태이고 휴립법은

임동중, 2013,『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의 변천과정』,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희, 2014,「1~5세기 호남동부지역의 주거와 취락」,『야외고고학 제19호』.
양지훈, 2014,『호서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웅, 2014,『호남-호서지역 사주식주거지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2017,『호남지역의 마한토기-주거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근 경기지역(북부 · 서부 · 남부) 및 영남지역에서도 관련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이 중 경기 남부지역은 화성 · 용인 · 오산 · 평택 · 안성 일대의 발안천 · 황구지천 · 오산천 · 아산천 등의 하천을 따라 다수 분포한다. 관련 유적들은 다음과 같다.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광주 장지동 취락유적』.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광주 곤지암리 Ⅰ · Ⅱ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7,『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 내 광주 곤지암리 156번지 유적』.
고려문화재연구원, 2017,『광주 곤지암리 유적-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6-1, 6-4지점)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혜안문화재연구원, 2018,『광주 곤지암리 376-5번지 유적-발굴조사 보고서-』.
한신대학교박물관, 2018,『용인 고림동 원삼국시대 생활유적』.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연구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인창, 2010,『삼국시대 중부지역의 주거시설 연구-주거시설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은정, 2017,『원삼국~한성백제기 경기지역 사주식주거지 연구』,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영, 2019,『원삼국~백제 한성기 경안천유역 주거와 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3) 정일, 2006,「전남지역 사주식주거지의 구조적인 변천 및 전개과정」,『한국상고사학보』제54호, 한국상고사학회.
54) 신은정, 2017,『원삼국~한성백제기 경기지역 사주식주거지 연구』,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5) 신은정, 2017,『원삼국~한성백제기 경기지역 사주식주거지 연구』,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영, 2019,『원삼국~백제 한성기 경안천유역 주거와 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 한국문화재재단, 2018,「6. 하남 미사동 경작유적」,『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Ⅰ-서울 · 경기1-』.
57) 작휴형태는 크게 이랑밭, 휙밭, 소형수혈밭 등으로 구분된다(윤호필 · 고민정, 2006,「밭유구 조사법 및 분석법」,『야외고고학』창간호.

두둑높이 〉 고랑깊이 형태이다. 성휴법은 두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법이다[58]. 이 중 휴립법과 성휴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59]. 휴립법은 휴립 휴파법과 휴립 구파법으로 구분되는데 휴파법은 두둑에 재배하고 구파법은 고랑에 재배하는 방식이다. 이는 재배작물과 배수 및 온도 유지 등의 차이로 구분된다[60].

미사동유적에서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서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 졌다. 하상퇴적층에 조성되어 이랑조성층은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가 대부분이다. 시기별로 이랑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고 고랑과 두둑의 비율이 변화된다[61]. 삼국시대 경작유구의 경우, 동일시기 내에 한강의 범람으로 이랑조성방향을 달리하기도 한다. 또한 두둑 대 고랑비가 1:1인 경우와 2:1정도인 경우가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1:1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62]. 이는 위에서 언급한 휴립법과 성휴법에 해당되며, 각각 재배작물의 차이로 조성방식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본 유적의 경작유구에서도 관찰된다. 그런데 이랑의 가장자리가 하남 미사동유적의 것과 다르게 구불구불한 부분들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토질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유적은 하상퇴적으로 형성된 미사동유적과 다르게 배후습지에 해당되어 이랑조성층의 토질은 점성이 강한 층으로 배수가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고랑과 두둑의 모습이 그다지 잘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며, 보수 및 재조성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이랑의 모습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유적의 밭 경작유구의 경우 연작흔은 거의 관찰되지 않고 고랑이 일정 구간에서 끊어지고 인접한 약간 다른 위치에 고랑들이 새로 시작되는 형태이다. 하남 미사동 유적들에서는 연작흔이 고려시

---

58) 채제천 외, 2006, 『삼고 재배학원론』.

59) 고고학적 조사방법 상 두둑의 상면이 일부 삭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두둑과 고랑의 비율이 같을 경우 경작유구 고랑과 두둑 구분이 어렵다. 현재 조사 결과를 볼 때, 두둑의 높이가 고랑의 깊이보다 높고 크게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60) 윤호필, 2012, 「경작유구를 통해 본 경지이용방식의 변천 연구」, 『농업의 고고학』,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윤호필, 2012, 「경작유구를 통해 본 중 · 근세 농업의 경지이용방식 연구」, 『중앙고고연구』제10호.

61) 한국문화재재단, 2018, 「6. 하남 미사동 경작유적-Ⅳ.조사성과」,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Ⅰ-서울 · 경기1-』.

62) 각주 61)의 Ⅳ. 조사성과에서 삼국시대 경작유구가 확인된 6개 유적에서 14개의 밭 경작유구층을 대상으로 삼았다. 아래의 표는 하남 미사동 일원에서 조사된 경작유적들 중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가 확인된 예이다.

세부속성 / 유적명	유구명	이랑방향	해발 (m)	두둑 너비		고랑 너비		식물 규소체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미사리 유적	백제상층	남-북(N-8°-E)	19.2	70	75	25		·
	백제하층	동-서(N-77°-W)	~19.4	70	80	70	80	
미사동 575-2번지 내 유적	백제상층	북서-남동(N-45°-W)	19.1	50	55	50	55	·
	백제하층	북서-남동(N-40°-W)	18.5	40	45	40	45	·
미사동 체육시설부지 내 유적	4문화층	북서-남동(N-21°-W)	·	43	60	26	38	·
	5문화층	북서-남동(N-43°-W)		28	40	38	65	
	6문화층	북서-남동(N-40°-W)		45	45	30	30	
미사동 570-3번지 내 유적	밭유구1	북서-남동(N-48°-W)	21	60	68	60	65	·
	밭유구2	북동-남서(N-58°-E)	21	50	56	50	55	
미사동 407번지 내 유적	상부밭유구	동-서(N-87°-W) (E-W)	18.5	50	60	40	50	·
	하부밭유구	북서-남동(N-45°-W)	18	60	80	30	40	
미사동 411-2 · 5 · 6번지 내 유적	삼국 1밭	동-서(E-W)	18.4	50	80	40	50	벼, 기장
	삼국 2밭	동-서(N-78°-W)	18.6	18.6	100	30	40	
	삼국 3밭	남-북(N-20°-E)	18.6	18.6	70	30		벼, 기장

대 밭 경작유구들에서 확인되는데 보고자는 이 시기부터 지력회복 방법이 다양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고려시대 이전에는 휴경농법으로 지력을 회복시키고 이후에는 연작 등을 사용하여 상경농법으로 작부(作付) 체계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하남 미사동 411-1번지 유적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 모습)

사진 2. 안성 중복리 605-4번지 유적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 세부)

앞에서 제시된 미사동 유적들 중 미사동 165-3, 375-4, 411-2 · 5 · 6번지 밭 경작유구의 식물규소체 분석결과를 볼 때, 두둑과 고랑에서 벼 · 보리 · 기장 규소체가 검출되었다. 특히 165-3번지 두둑과 고랑 내부에서 3,300~9,300/g, 700~2000/g 등 다수의 벼 기동세포가 확인되었으며, 소량의 보리, 기장이 검출되었다. 이는 수전의 판정기준인 약 3,000개체/g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도작을 중심으로 보리 등의 작물이 재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유적의 식물규소체 분석 결과, 총 산출량은 약 66,000~249,300개체/g의 비교적 넓은 범위를 보이나 대부분 100,000개체/g를 상회한다. 식물규소체의 조성은 전적으로 벼科(Gramineae)가 우세하며, 소나무科(Pinaceae) 및 불명 목본류(arboreal)가 일부 시료에서 소량 검출되었다.

산출된 식물규소체 중 우세한 벼科는 재배종으로서 벼(Oryza sativa)의 기동세포 기원의 부채형 규소체(bulliform phytolith)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고 산출량은 약 2,000~4,700개체/g의 범위를 보인다. 동벽 고랑에서는 벼 穎에서 기원된 쌍봉형 모상세포 규소체(double-peaked hair cell phytolith)가 약 700개체/g의 극히 낮은 산출량으로 검출되었다. 이처럼 벼의 산출량이 수전의 판정기준[63]에 거의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수도작에 비해서 육도작의 작물 생산량이 낮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본 유적의 밭 경작유구는 도작 농경이 행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작유구가 조성된 지형이나 환경이 다르지만, 하남 미사동유적과 본 유적의 밭 경작유구를 볼 때, 삼국시대부터 하천 인근에 대규모의 농장식 경영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밭 경작이 행해졌음을 알

63) 일반적으로 벼의 기동세포 규소체가 5,000개체/g 이상의 밀도로 검출되면 도작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杉山眞二 · 松田 · 藤原宏志, 1988,「機動細胞硅酸体の形態によるキビ族植物の同定とその応用-古代農耕追究のための基礎資料として-」,『考古學と自然科學』第20号. 그러나 벼 규소체의 밀도가 3,000개체/g 정도에서도 수전 유구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이 산출량을 수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株式會社 古環境研究所, 2005,「倉村里遺蹟における植物硅酸體(プラント · オパール)分析」,『진성 창촌유적』,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調査研究報告書 第28册).

수 있었다. 또 시료분석을 통해서 볼 때, 수전이 아닌 육도작으로 벼생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2.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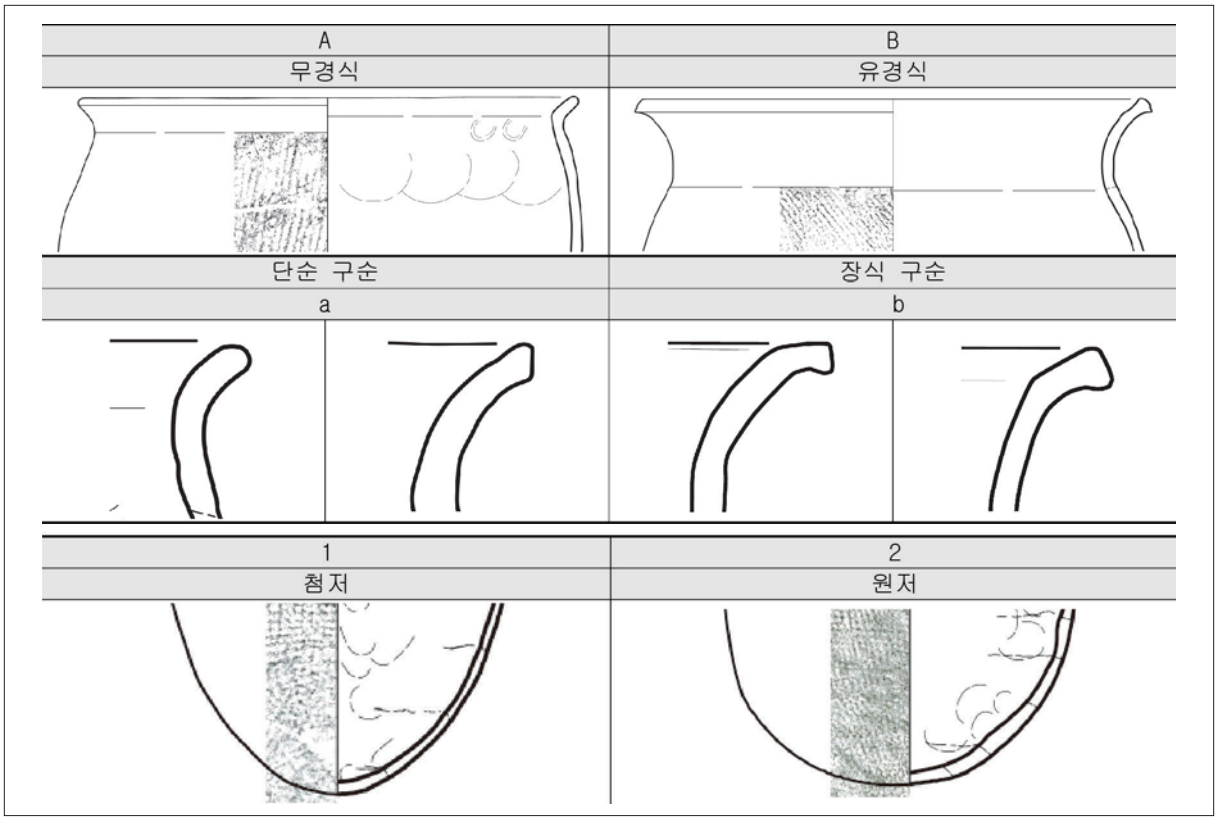
본 유적에서 수습된 유물중 주거지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1점이 유일하게 기형복원이 가능하다[64]. 출토된 유물의 수량이 적고 조사된 주거지가 1동 밖에 없어서 유적 내 상호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접 지역인 경안천유역의 광주 장지동유적[65] · 광주 곤지암리유적[66] · 용인 고림동유적[67] 등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기종은 경질무문 외반구연옹, 타날문 단경호 · 심발 · 장란형토기 · 시루이다.

장란형토기는 부뚜막과 함께 등장하는데 철제 솥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68]. 주로 부뚜막에 고정시키거나 시루와 함께 사용된다[69]. 이러한 사용 방법은 본 유적의 장란형토기에서도 확인된다. 토기 외면에서 관찰되는 흑반은 구연부에서 저부로 약 2/3지점까지 집중적으로 보인다. 이는 저부에서 1/3지점까지 부뚜막과 같은 시설에 걸쳐놓고 토기 아래쪽에서 화력이 집중되면, 토기와 부뚜막 사이로 올라오는 화기와 불완전연소 등으로 토기 표면에 그을음이 형성될 수 있다.

기존 장란형토기의 연구성과를 보면, 구연부는 크게 무경식(A)과 유경식(B)으로 분류된다. 또 구순단부는 단순하게 처리한 것(둥글게, 뭉툭 또는 편평, a)과 단이 진 것(구순 외면이 약간 튀어나오거나 내면이 단이 짐, b)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저부의 형태는 세장하고 뾰족한 첨저(1)와 장동하고 둥근 원저(2)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할 때, 장란형토기는 대부분 유경식이며, 무경식은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A→B). 그리고 구순 단부의 장식성이 증대되는 양상이다(a→b). 동체~저부의 형태는 세장한 형태에서 장동한 형태로 변화한다[70]. 그리고 저부는 원저→첨저→원저로 변화하는데 위의 속성변화와 결합하여 형식변화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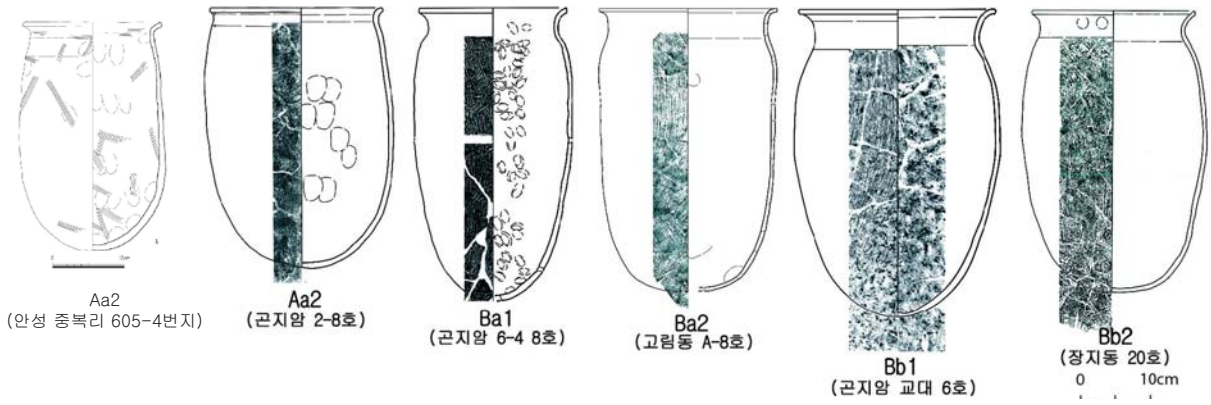
이런 특징과 본 유적의 장란형토기를 비교해 볼 때, 구연부는 무경식(A)이고 구순단부는 뭉특하게 처리(a)되었다. 또한 저부는 장동하고 둥근 원저(2)에 해당한다. 경부가 짧고 구순단부를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토기 외면에는 타날문 등의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보면, Aa2의 형식분류에 해당한다. 이런 특징은 광주 곤지암유적 2지점 8호 · 18호 주거지 · 광주 장지동유적의 17호 주거지 · 용인 고림동유적의 B지점 4호 · 6호 주거지의 장란형토기와 유사하다. 이들 유적은 타날

64)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다른 토기편들은 구연부가 결실되어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다.
65)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광주 장지동취락유적』.
66)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광주 곤지암리 Ⅰ · Ⅱ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7,『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 내 광주 곤지암리 156번지 유적』.
혜안문화재연구원, 2018,『광주 곤지암리 376-5번지 유적』.
67) 용인대학교박물관, 2011,『용인 고림동 원삼국시대 생활유적』.
한신대학교박물관, 2018,『용인 고림동 원삼국 · 백제 취락』.
6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한성지역 백제토기 분류표준화 방안연구』, 243쪽.
69) 김은정, 2017,「장란형토기와 시루」,『마한 · 백제토기 연구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70) 정지영, 2019,『원삼국~백제 한성기 경안천유역 주거와 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삽도 1. 장란형토기 구연부 및 저부 형태 분류(정지영, 2019 논문에서 전제 및 편집)

문이 시문된 것만 다르고 다른 속성은 동일하다(삽도 2).



삽도 2. 장란형토기 형식분류(Aa2, Ba1, Ba2, Bb1, Bb2) (정지영, 2019 논문에서 전제 및 수정 편집)

최근 경안천유역 주변 유적들에 대한 연구에서 주거지 및 토기 변천에 대해서 단계 설정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안천유역 주변 광주 곤지암유적 · 광주 장지동유적 · 용인 고림동유적은 각각 4단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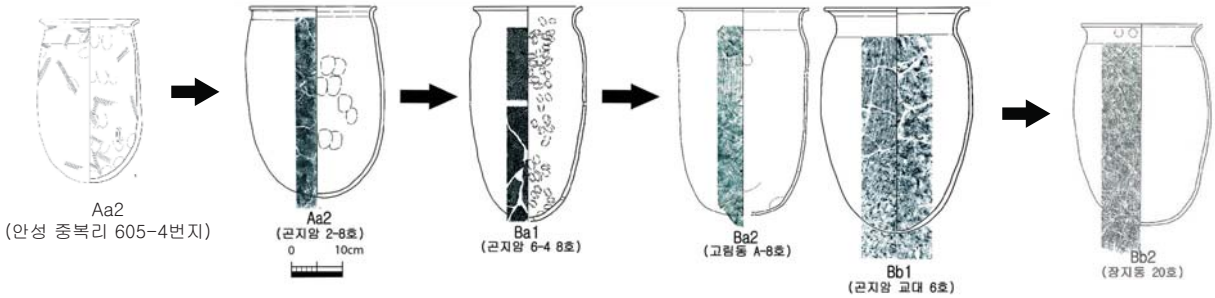
이 4단계들 중 본 유적의 장란형토기와 유사한 단계는 각 유적마다 조금씩 다르다. 광주 곤지암유적은 4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한다. 곤지암 3단계는 AMS 분석결과 AD 230~390년으로 산출되어 3세

기 초~4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장지동 유적은 4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며, AMS 분석결과 AD 240~416년으로 산출되어 3세기 초반~5세기 초반에 해당한다. 용인 고림동유적은 4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데, 앞의 두 유적들보다 절대연대측정값의 폭이 넓다. AMS 분석결과 AD 120~440년까지 산출되어 2세기 초반~5세기 전반까지이다. 이처럼 각 유적에서 설정된 단계의 절대연대측정값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거지 평면형태는 오각형 또는 육각형이고, 내부시설로 1자형 부뚜막 또는 1자형 부뚜막+노지가 시설되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공반되는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의 비율이 높다가 점차 토기 표면에 타날이 되는 양상으로 변화되는 점도 동일하다.

이와 비교하여 본 유적의 주거지의 AMS 분석 결과 방사성탄소연대(BP) 1,947±24, 절대연대 AD 17~127년으로 산출되어서 AD 1세기 전반~2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하한은 용인 고림동유적의 2단계의 연대값과 유사하다. 그런데 형태적인 속성을 보면 오히려 광주 곤지암유적의 장란형토기와 유사하다. 또한 본 유적의 주거지는 앞의 유적들과 다르게 평면형태가 방형이고, 내부시설도 노지 1기만 시설되는 점이 다르다.

즉, 장란형토기의 형태적 속성은 삽도 3처럼 빠른 형태(Aa2)에 해당된다. 또한 주거지 내에서 수습한 목탄의 AMS 분석결과는 비교한 유적들보다 빠르고, 주거지의 형태 및 내부시설의 구조가 다르다. 주거지 내 난방 및 취사시설의 형태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며 노지에서 부뚜막시설로 변화되는 것은 일반화된 내용이다.

이처럼 본 유적의 주거지의 형태 및 절대연대측정값과 장란형토기의 형태적 속성을 보면 조사구역 내 조사된 주거지가 1동 밖에 없고, 출토된 장란형토기도 1점 밖에 없어서 정밀한 분석이 어렵지만, 경안천유역에서 조사된 유적들의 주거지 및 장란형토기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조성 및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삽도3). 안성천유역 주변에 대해서 보다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서 자료가 누적된다면 현재 경기도 남부 및 중부지역의 주거지 변천과정과 토기의 변화양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삽도 3. 장란형토기 변화양상(정지영, 2019 논문에서 전제 및 수정 편집)

이처럼 조사된 유구 및 유물의 상태가 빈약하고 불량하지만, 삼국시대의 주거지와 경작유구가 함께 확인되었다는 점과 하남 미사동유적 이외에 경기 남부지역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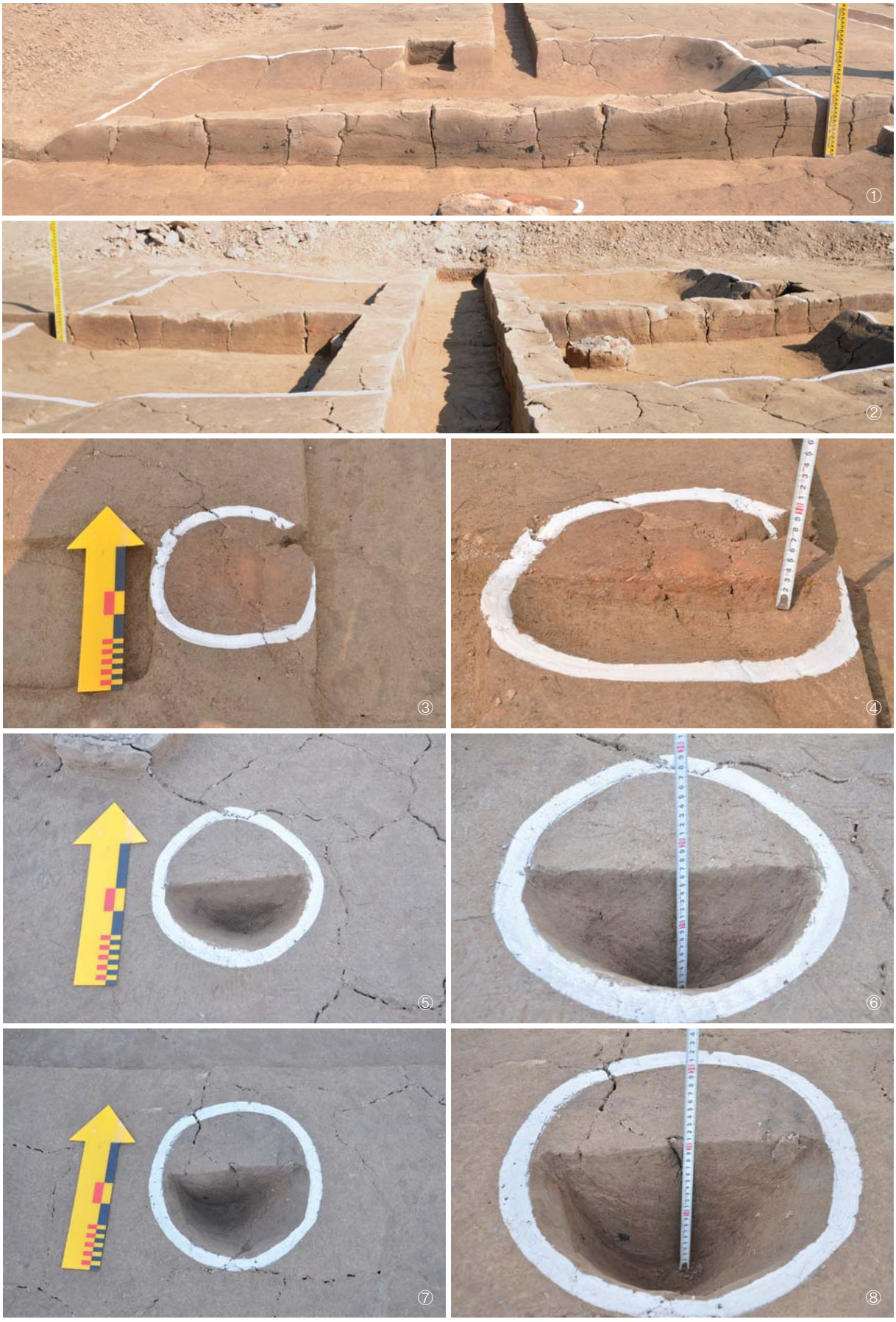
도 판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원경, ②조사전)

도판 2. 발굴조사 대상지[①제토후(합성), ②조사후(합성)]

도판 3. 주거지[①조사전, ②조사중1(탐색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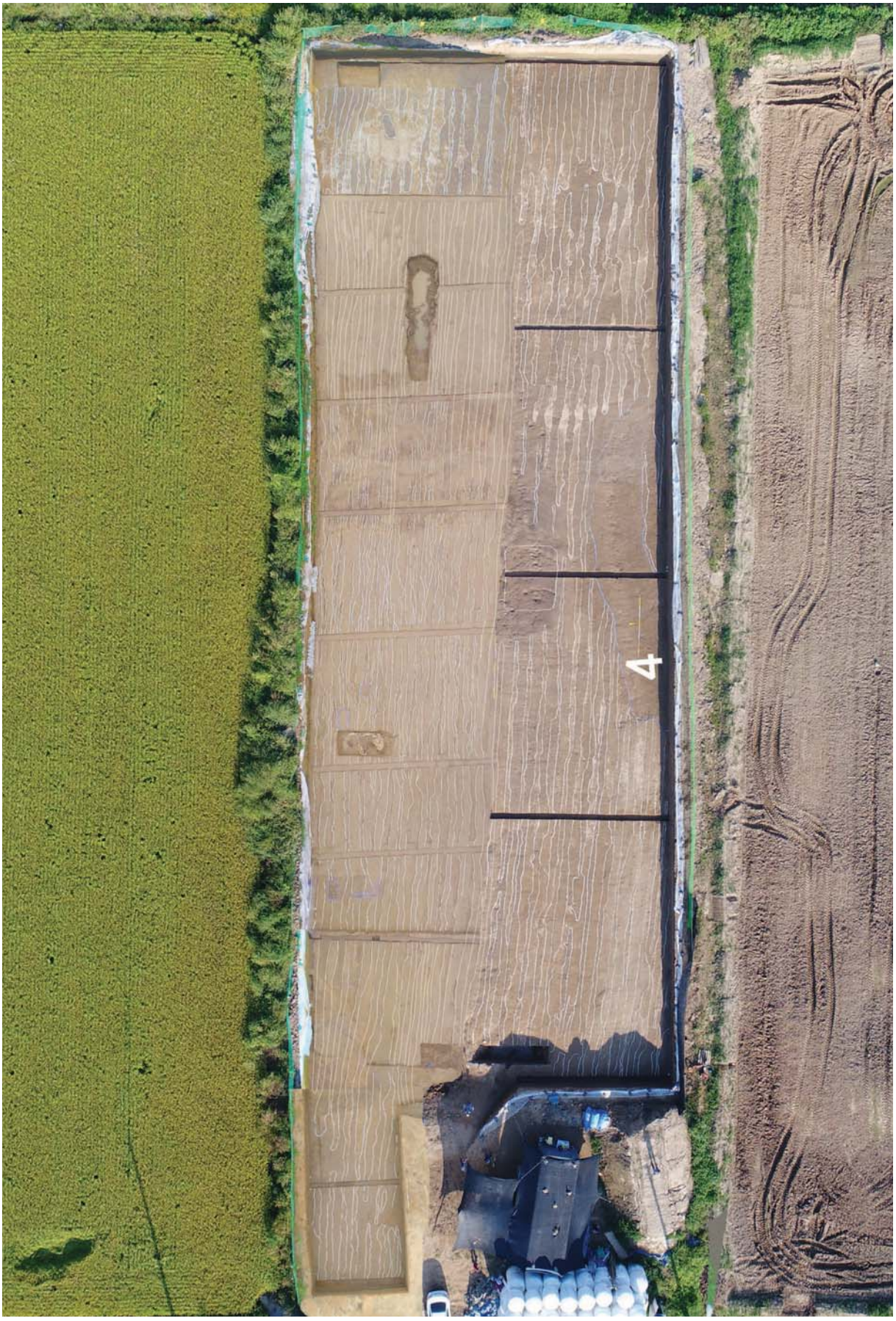
도판 4. 주거지[①조사중2(둑제거후), ②조사후]



도판 5. 주거지(①②토층, ③④노지, ⑤⑥주혈1, ⑦⑧주혈2)

도판 6. 주거지(①②유물출토상태, 1~3: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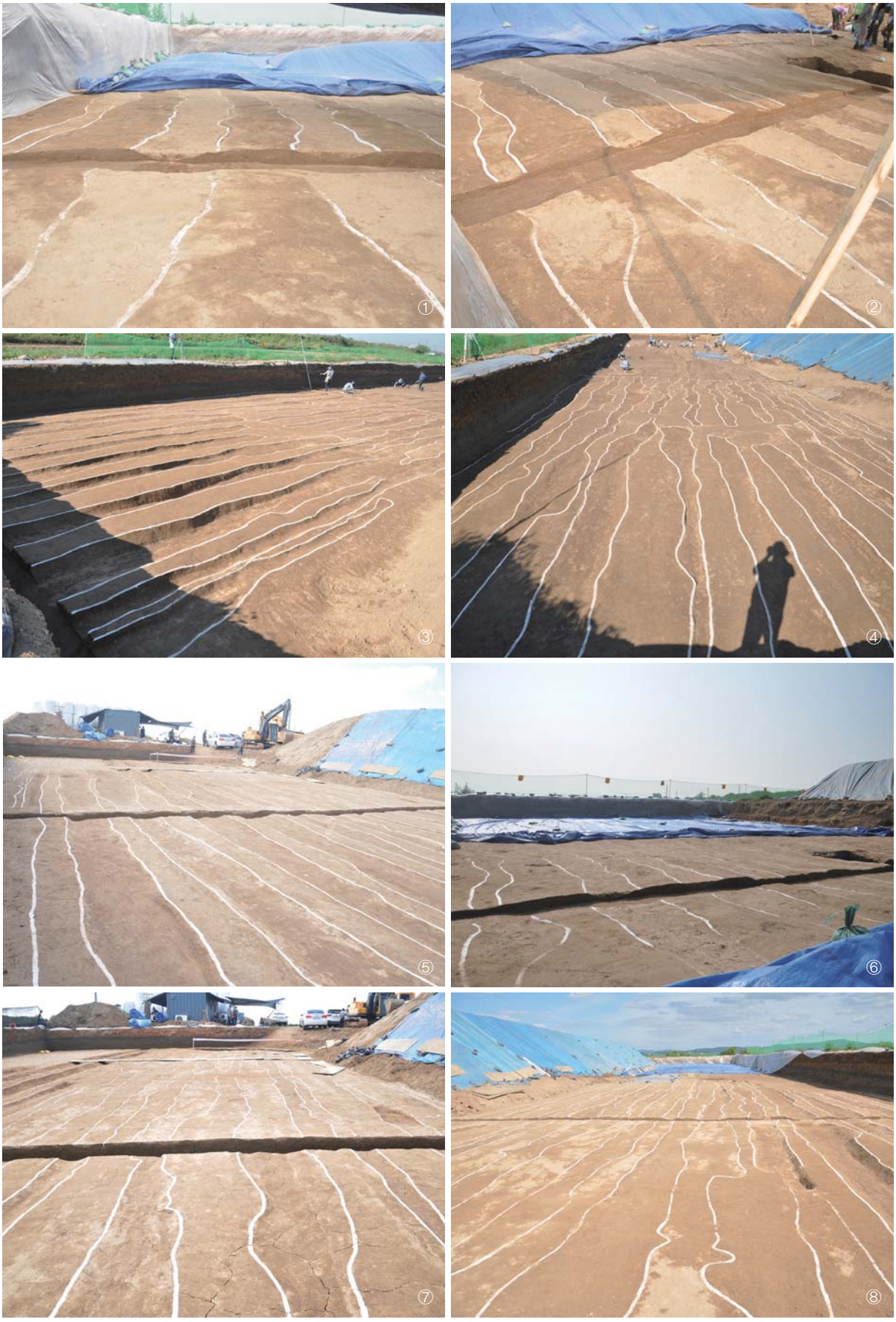
도판 7. 밭 경작유구 조사전(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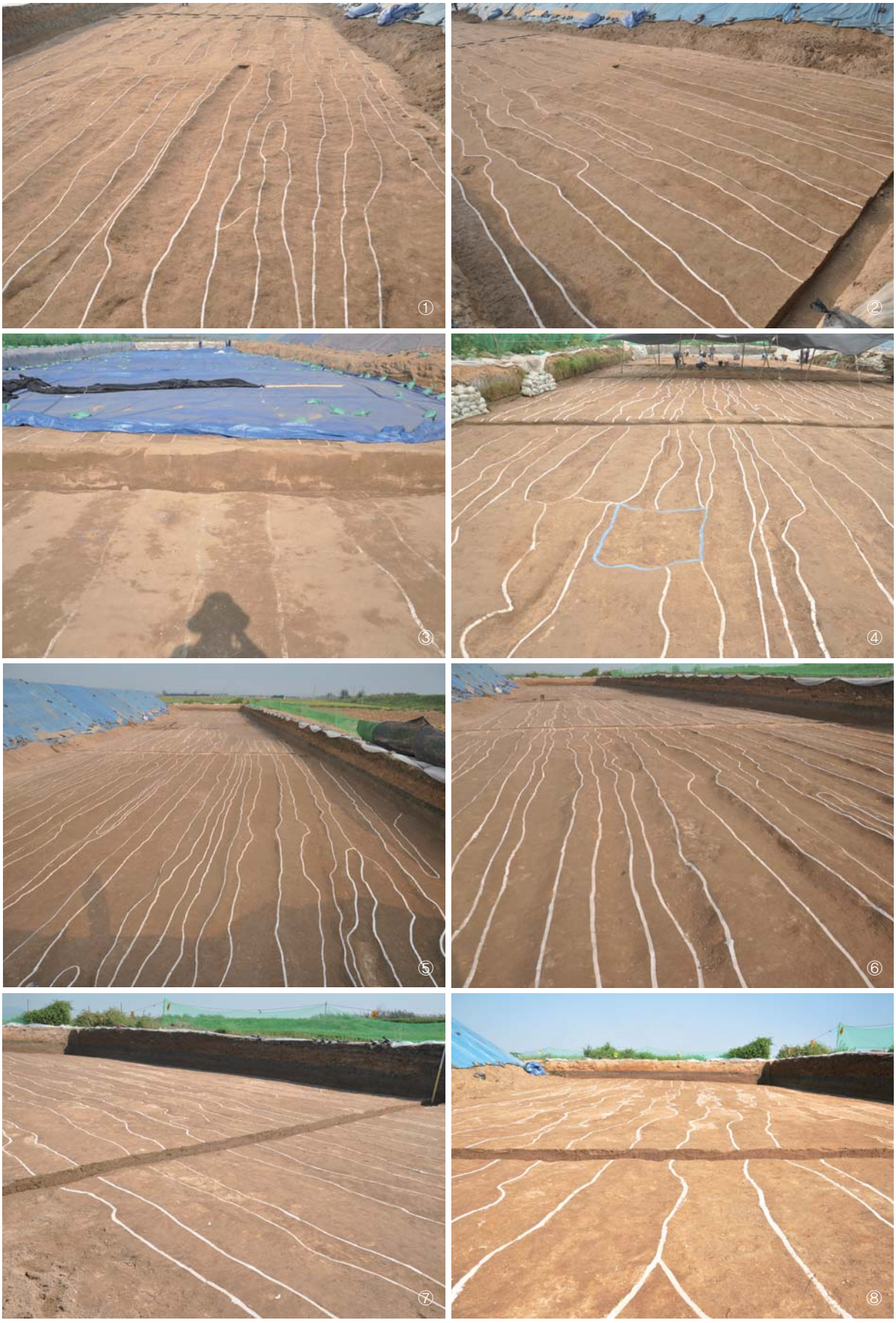
도판 8. 밭 경작유구 조사중(합성)

도판 9. 밭 경작유구 조사후(합성)

도판 10. 밭 경작유구 토층(①서벽1, ②서벽2, ③동벽1, ④동벽2)



도판 11. 밭 경작유구 세부1



도판 12. 밭 경작유구 세부2

도판 13. 밭 경작유구 출토유물(4) 및 수습유물(5~7)

도판 14. 트렌치 조사후 전경(①) 및 트렌치1(②조사후, ③토층)

도판 15. 트렌치2(①조사후, ②토층) 및 트렌치3(③조사후, ④토층)

도판 16. 트렌치4(①조사후, ②토층) 및 학술자문회의(③④)

부 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MS 분석자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우) 136-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전화 : (02)958-5959 팩스:(02)958-5974

시 험 성 적 서

발급번호	KISTAMS 1800181	접수일자	2018.10.26
의 뢰 자	김정민	전 화	010-8770-0580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2길 3-57(노산리 538번지)		
시료명(수량)	1		
시험방법 및 기기	AMS		
시험일자	2018.11.07		
시험결과	별첨 참조		

특이사항

※ 본 시험성적서는 광고, 선전, 홍보 및 법적쟁송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로부터 얻은 것으로, 유사 대상시료에 적용할 수 없음.

2018 년 11 월 14 일

한 국 과 학 기 술 연 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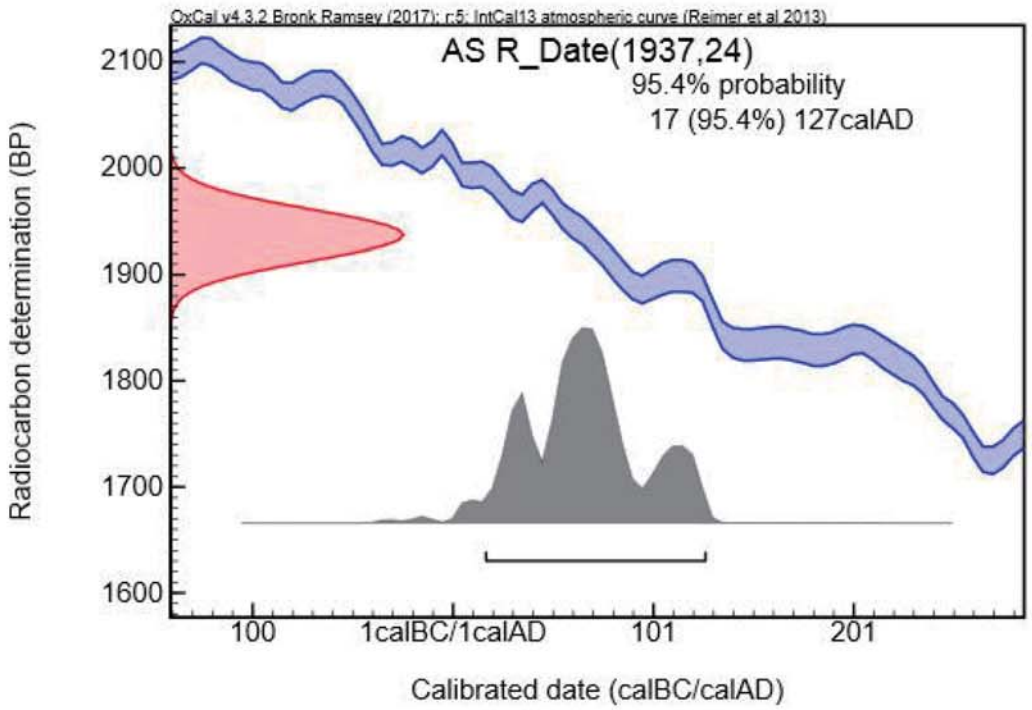
승인자: 특성분석센터장

발급번호	KISTAMS 1800181

시 험 결 과

시료명	AS	의뢰자	김정민
의뢰일	2018.10.26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delta^{13}C$ (‰)		pMC
1,937 ± 24		-27.1 ± 0.2		78.58 ± 0.24



95.4 % probability : **17 AD ~ 127 AD**

시료처리 : AAA처리

- Calendar Year Calibration : OxCal v4.2.4

Beta 연구소 AMS 분석자료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Beta Analytic Inc
4985 SW 74 Court
Miami, Florida 33155
Tel: 305-667-5167
Fax: 305-663-0964
beta@radiocarbon.com

Mr. Darden Hood
President

Mr. Ronald Hatfield
Mr. Christopher Patrick
Deputy Directors

ISO/IEC 2005:17025-Accredited Testing Laboratory

November 01, 2017

Mr. Hyo Hwan Kim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406 Bongensa-ro
Seoul, 06153
South Korea

RE: Radiocarbon Dating Results

Mr. Kim,

Enclosed are the radiocarbon dating results for two samples recently sent to us. The report sheet contains the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BP), the method used, material type, and applied pretreatments, any sample specific comments and, where applicable, the two-sigma calendar calibration range. The Conventional Radiocarbon ages have been corrected for total isotopic fractionation effects (natural and laboratory induced).

All results (excluding some inappropriate material types) which fall within the range of available calibration data are calibrated to calendar years (cal BC/AD) and calibrated radiocarbon years (cal BP). Calibration was calculated using one of the databases associated with the 2013 INTCAL program (cited in the references on the bottom of the calibration graph page provided for each sample.) Multiple probability ranges may appear in some cases, due to short-term variations in the atmospheric 14C contents at certain time periods. Looking closely at the calibration graph provided and where the BP sigma limits intercept the calibration curve will help you understand this phenomenon.

Conventional Radiocarbon Ages and sigmas are rounded to the nearest 10 years per the conventions of the 1977 International Radiocarbon Conference. When counting statistics produce sigmas lower than +/- 30 years, a conservative +/- 30 BP is cited for the result.

All work on these samples was performed in our laboratories in Miami under strict chain of custody and quality control under ISO/IEC 17025:2005 Testing Accreditation PJLA #59423 accreditation protocols. Sample, modern and blanks were all analyzed in the same chemistry lines by qualified professional technicians using identical reagents and counting parameters within our own particle accelerators. A quality assurance report is posted to your directory for each result.

Our invoice has been sent separately. Thank you for your prior efforts in arranging payment. As alway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would like to discuss the results, don't hesitate to contact us.

Sincerely,

Darden Hood
Digital signature on file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Beta Analytic Inc
4985 SW 74 Court
Miami, Florida 33155
Tel: 305-667-5167
Fax: 305-663-0964
beta@radiocarbon.com

Mr. Darden Hood
President

Mr. Ronald Hatfield
Mr. Christopher Patrick
Deputy Directors

ISO/IEC 2005:17025-Accredited Testing Laboratory

REPORT OF RADIOCARBON DATING ANALYSES

Hyo Hwan Kim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Report Date: November 01, 2017

Material Received: October 24, 2017

Sample Information and Data	Sample Code Number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BP) or Percent Modern Carbon (pMC) & Stable Isotopes Calendar Calibrated Results: 95.4 % Probability High Probability Density Range Method (HPD)	
Beta - 477230	**East Pit**	**1610 +/- 30 BP**	IRMS δ13C: -27.0 o/oo

Submitter Material: Charcoal
Pretreatment: (charred material) acid/alkali/acid

(95.4%) 392 - 538 cal AD (1558 - 1412 cal BP)

Analyzed Material: Charred material
Analysis Service: AMS-Standard delivery
Percent Modern Carbon: 81.84 +/- 0.31 pMC
Fraction Modern Carbon: 0.8184 +/- 0.0031
D14C: -181.62 +/- 3.06 o/oo
Δ14C: -188.22 +/- 3.06 o/oo(1950:2017)
Measured Radiocarbon Age: (without d13C correction): 1640 +/- 30 BP
Calibration: BetaCal3.21: HPD method: INTCAL13

Results are ISO/IEC-17025:2005 accredited. No sub-contracting or student labor was used in the analyses. All work was done at Beta in 4 in-house NEC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s and 4 Thermo IRMSs. The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was calculated using the Libby half-life (5568 years), is corrected for total isotopic fraction and was used for calendar calibration where applicable. The Age is rounded to the nearest 10 years and is reported as radiocarbon years before present (BP), "present" = AD 1950. Results greater than the modern reference are reported as percent modern carbon (pMC). The modern reference standard was 95% the 14C signature of NIST SRM-4990C (oxalic acid). Quoted errors are 1 sigma counting statistics. Calculated sigmas less than 30 BP on the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are conservatively rounded up to 30. d13C values are on the material itself (not the AMS d13C). d13C and d15N values are relative to VPDB-1. References for calendar calibrations are cited at the bottom of calibration graph pages.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Beta Analytic Inc
4985 SW 74 Court
Miami, Florida 33155
Tel: 305-667-5167
Fax: 305-663-0964
beta@radiocarbon.com

Mr. Darden Hood
President

Mr. Ronald Hatfield
Mr. Christopher Patrick
Deputy Directors

ISO/IEC 2005:17025-Accredited Testing Laboratory

REPORT OF RADIOCARBON DATING ANALYSES

Hyo Hwan Kim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Report Date: November 01, 2017

Material Received: October 24, 2017

Sample Information and Data	Sample Code Number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BP) or Percent Modern Carbon (pMC) & Stable Isotopes Calendar Calibrated Results: 95.4 % Probability High Probability Density Range Method (HPD)	
Beta - 477231	**West Pit**	**1300 +/- 30 BP**	IRMS δ13C: -25.4 o/oo

Submitter Material: Charcoal
Pretreatment: (charred material) acid/alkali/acid

(64.4%)	**660 - 730 cal AD**	**(1290 - 1220 cal BP)**
(31.0%)	**736 - 770 cal AD**	**(1214 - 1180 cal BP)**

Analyzed Material: Charred material
Analysis Service: AMS-Standard delivery
Percent Modern Carbon: 85.06 +/- 0.32 pMC
Fraction Modern Carbon: 0.8506 +/- 0.0032
D14C: -149.42 +/- 3.18 o/oo
Δ14C: -156.28 +/- 3.18 o/oo(1950:2017)
Measured Radiocarbon Age: (without d13C correction): 1310 +/- 30 BP
Calibration: BetaCal3.21: HPD method: INTCAL13

Results are ISO/IEC-17025:2005 accredited. No sub-contracting or student labor was used in the analyses. All work was done at Beta in 4 in-house NEC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s and 4 Thermo IRMSs. The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was calculated using the Libby half-life (5568 years), is corrected for total isotopic fraction and was used for calendar calibration where applicable. The Age is rounded to the nearest 10 years and is reported as radiocarbon years before present (BP), "present" = AD 1950. Results greater than the modern reference are reported as percent modern carbon (pMC). The modern reference standard was 95% the 14C signature of NIST SRM-4990C (oxalic acid). Quoted errors are 1 sigma counting statistics. Calculated sigmas less than 30 BP on the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are conservatively rounded up to 30. d13C values are on the material itself (not the AMS d13C). d13C and d15N values are relative to VPDB-1. References for calendar calibrations are cited at the bottom of calibration graph pages.

BetaCal 3.21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High Probability Density Range Method (HPD): INTCAL13)

(Variables: d13C = -27.0 o/oo)

Laboratory number **Beta-477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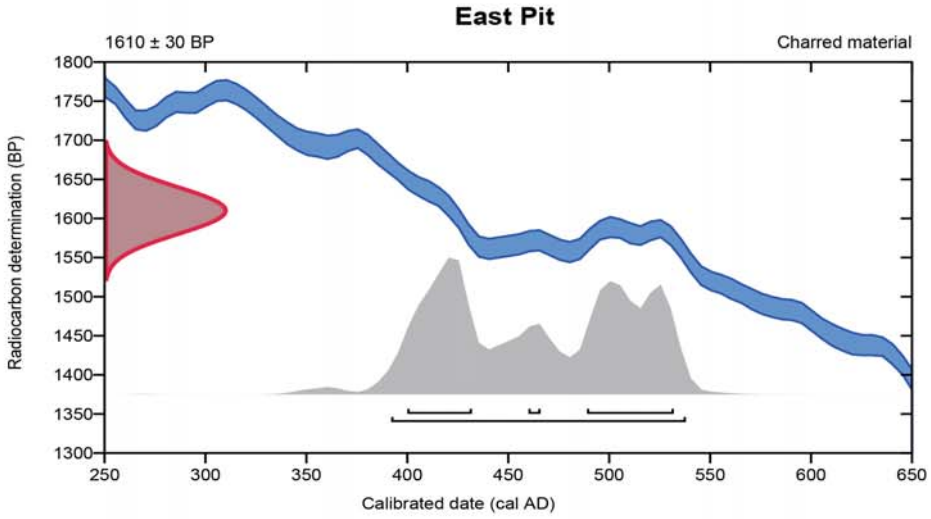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1610 ± 30 BP**

95.4% probability

(95.4%)	392 - 538 cal AD	(1558 - 1412 cal BP)

68.2% probability

(35.5%)	489 - 532 cal AD	(1461 - 1418 cal BP)
(29.5%)	400 - 432 cal AD	(1550 - 1518 cal BP)
(3.2%)	460 - 466 cal AD	(1490 - 1484 cal BP)



Database used

INTCAL13

References

References to Probability Method

Bronk Ramsey, C. (2009). Bayesian analysis of radiocarbon dates. Radiocarbon, 51(1), 337-360.

References to Database INTCAL13

Reimer, et.al., 2013, Radiocarbon55(4).

BetaCal 3.21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High Probability Density Range Method (HPD): INTCAL13)

(Variables: d13C = -25.4 o/oo)

Laboratory number **Beta-477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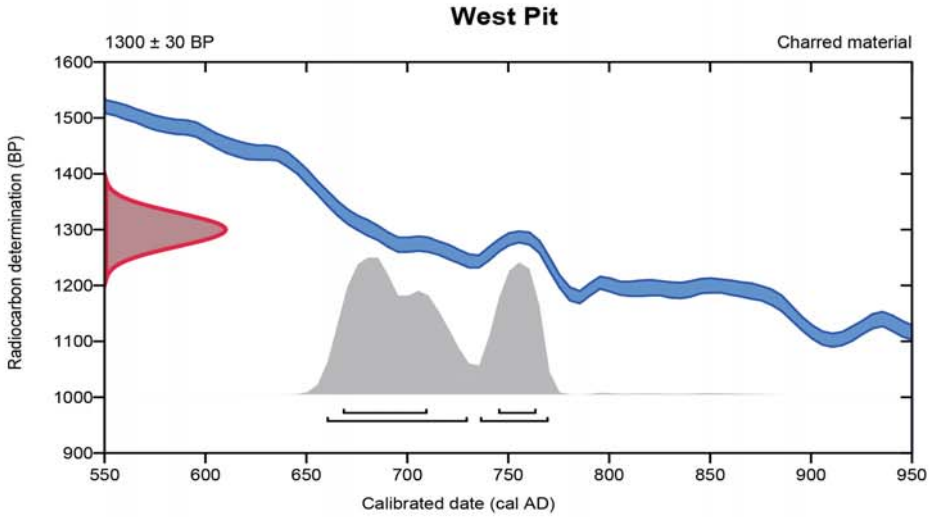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1300 ± 30 BP**

95.4% probability

(64.4%)	660 - 730 cal AD	(1290 - 1220 cal BP)
(31%)	736 - 770 cal AD	(1214 - 1180 cal BP)

68.2% probability

(46.4%)	668 - 710 cal AD	(1282 - 1240 cal BP)
(21.8%)	745 - 764 cal AD	(1205 - 1186 cal BP)



Database used

INTCAL13

References

References to Probability Method

Bronk Ramsey, C. (2009). Bayesian analysis of radiocarbon dates. Radiocarbon, 51(1), 337-360.

References to Database INTCAL13

Reimer, et.al., 2013, Radiocarbon55(4).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Laboratory
4985 S.W. 74th Court, Miami, Florida 33155 • Tel: (305)667-5167 • Fax: (305)663-0964 • Email: beta@radiocarbon.com

안성 중복리 605-4번지 국비지원 발굴조사지역의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의 식물규소체 분석

2017. 11.

한국지질환경연구소

한국문화재재단

제 출 문

한국문화재재단 귀중

귀 재단에서 의뢰한 '안성 중복리 605-4번지 국비지원 발굴조사지역의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의 식물규소체 분석'의 성과를 보고서로 작성, 제출합니다.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한국문화재재단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303
한 국 지 질 환 경 연 구 소
소 장 류 춘 길 ㊞

책임연구원
류 춘 길(한국지질환경연구소 소장/이학박사)

연구원
최 미 경(한국지질환경연구소 연구실장)
김 성 현(한국지질환경연구소 연구원)
김 세 진 (한국지질환경연구소 연구원)

한 국 지 질 환 경 연 구 소

목 차

그림 및 표 목차

제1장 서론 …… 137-67

제2장 분석 내용과 방법 …… 137-69
2.1 분석 재료 …… 137-69
2.2 식물규소체 분석 방법 …… 137-71

제3장 식물규소체 분석 결과 …… 137-71
3.1 경작층 토양의 기재적 특성 …… 137-71
3.2 식물규소체 산출 특성 …… 137-72
3.3 고찰 : 식물규소체와 도작 농경 …… 137-73

제4장 결론 …… 137-75

참고문헌 …… 137-76

도판 1. 식물규소체의 현미경 사진 Ⅰ …… 137-79
도판 2. 식물규소체의 현미경 사진 Ⅱ …… 137-81

그림 및 표 목차

그림 2.1. 식물규소체 분석을 위해 채취된 밭 경작층 토양시료의 사진 …… 137-69
그림 2.2. 식물규소체 분석지점의 위치와 밭 경작층 전경 …… 137-70
그림 3.1.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의 식물규소체 산출도 …… 137-73

표 3.1.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의 식물규소체 산출표(단위: ×100개체/g) …… 137-72

제1장 서 론

식물규소체(phytoliths)는 문자 그대로 식물암(plant stones)이라는 의미를 가진 특이한 종류의 미화석이다. 식물규소체는 고등식물이 지하수로부터 용해된 상태의 규소를 흡수한 후 세포 내부 또는 외부에 고체 형태로 규소를 침전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생물학적, 물리적 작용의 산물이다(Piperno, 2006). 그 크기는 약 5~100㎛이고, 비정질(amorphous)의 규산 성분으로서 $SiO_2 \cdot H_2O$의 화학조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잎, 줄기 및 꽃 등의 식물기관에 주로 형성되지만 드물게 뿌리와 종실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식물규소체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식물체가 고사, 분해된 후에 그 형태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토양 중에 잔존한다. 특히, 식물규소체는 성분상 물리적, 화학적으로 풍화에 강하여 일정한 조건만 주어진다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토양 중에 남아 있게 된다.

바람에 의해 확산, 이동되는 화분과는 달리 식물규소체는 이동성이 다소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퇴적물 내의 식물규소체는 기본적으로 퇴적물을 공급하는 집수유역 내의 고식생을 직접 반영한다. 또한, 비퇴적 기원의 토양층 내에서 검출되는 식물규소체는 홍수, 사태와 같은 토양의 대규모 이동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토양 채취지점 또는 매우 인접한 지역의 식물상을 직접 반영한다. 따라서 식물규소체는 어떤 지점의 집수유역 또는 인접지의 고식물상을 반영하므로 고생태학적으로 매우 유용한 미화석이다.

최근 식물규소체는 고생태와 고환경의 지시자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고고학적인 관점에서도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Albert and Madella, 2009). 고고학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활발한 식물규소체 연구 분야는 농경사이다. 농경사 연구에는 벼, 보리 및 밀 등의 재배식물의 동정에 따른 농경의 존재 및 농경 시작 시기의 검증, 생산 유구 및 생산 공간의 추정 등이 있다. 또한, 식물규소체는 다른 미화석과는 달리 기원 식물의 자생지 및 매우 인접한 지역에 잔존하고 육상 영역에도 보존되기 쉬운 특성 때문에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유적 형성 당시의 주변 식생을 파악하는 데 직접 이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재배작물 이외에 인간생활에 필수적으로 이용되었던 식물 자원의 종류를 직접 파악할 수도 있다.

고고학에 있어서의 식물규소체의 적용은 단연 稻作의 확인에 있으며 특히, 수전에 대한 자연과학적 검증에 활용되어 왔다(藤原宏志, 1976; 杉山眞二 외, 1988; 杉山眞二, 2000). 국내의 식물규소체 연구는 초기에는 식물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김경식과 황성수, 1992; 황성수와 김경식, 1994; 오용자, 2005), 한반도 도작 기원의 관심으로부터 적극적인 고고학적 접근도 시도되었다(곽종철 외, 1994; 김정희와 이융조, 1997). 이후 농경사 연구에서 식물규소체의 이용이 다소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수전 경작층의 검증과 농경사 규명에 대한 접근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정승호 외, 2009; 류춘길 외, 2011; 한국지질환경연구소 ·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한국지질환경연구소 · (재)동서문물연구원, 2013]. 한편, 최근 대구 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의 고려시대 밭층에서 보리류와 함께 수전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 벼의 식물규소체가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어, 수전은 물론 밭층에 있어서도 그 접근의 타당성이 제기되었다[(재)영남문화재연구원 · 한국지질환경연구소, 2010]. 이후, 다수 유적의 밭층에서 도작 농경의 규명을 위해 식물규소체 분석이 적용되어 수전과 함께 한반도 도작 농

경사에 대한 많은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류춘길 외, 2010b; (재)삼한문화재연구원 · 한국지질환경연구소, 2011; 한국지질환경연구소 ·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1; 한국지질환경연구소 · (재)동서문물연구원, 2012; 류춘길 외, 2012b; 류춘길 외, 2013a; 류춘길 외, 2013b].

또한, 식물규소체는 재배작물이 식재되었던 경작층 외에 농경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상유구의 성격 검증(한국고환경연구센터, 2009; 류춘길 외, 2010a; 류춘길 외, 2010c)과 고분 성토재의 산지 추정에 적용되기도 하였다(류춘길 외, 2012a). 고고학적 관점 이외에도 최근에는 홀로세 기후변동 및 고환경 복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윤순옥 외, 2009; Hwang et al., 2013).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중복리 605-4번지로서 동물관련시설(축사) 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해당된다. 한국문화재재단(2017)에 수행된 발굴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유구와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삼국(백제 한성기)시대의 격자타날된 토기편 1점과 경질무문토기편 2점 등이 출토되었다. 이번에 조사된 경작유구는 안성천 주변의 경기 남부 또는 충남 북부에 조사된 경작유구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특히 주변에서 조사된 삼국(백제)시기의 주거지 등 생활유적과 토광묘 등의 매장유적과 함께 당시의 생활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 보인다. 특히 경작유구가 인접한 지번으로도 연결되고 있어 당시 경작지의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의 삼국(백제)시대 초기의 경제생활 및 마한(馬韓) 관련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 또한 주거지의 경우 규모 및 내부시설로 볼 때, 밭 경작유구의 단기적 · 일시적 관리소 등의 역할을 하였던 시설인 것으로 추정되어 경작과정의 관리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

이 분석은 안성 중복리 605-4번지 국비지원 발굴조사지역에서 확인, 조사된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에 대한 식물규소체 분석으로서,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도작 농경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성과는 향후 유적이 위치한 안성천 주변의 충적평야 일원에서 행해진 삼국(백제 한성기)시대의 도작 농경사를 복원할 수 있는 고고과학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분석 재료 및 방법

2.1 분석 재료

식물규소체 분석은 밭 경작층의 동벽과 서벽에서 채취된 총 4점의 토양 시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그림 2.1). 토양 시료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의해 채취되었으며, 시료채취지점의 위치 및 경작층 전경은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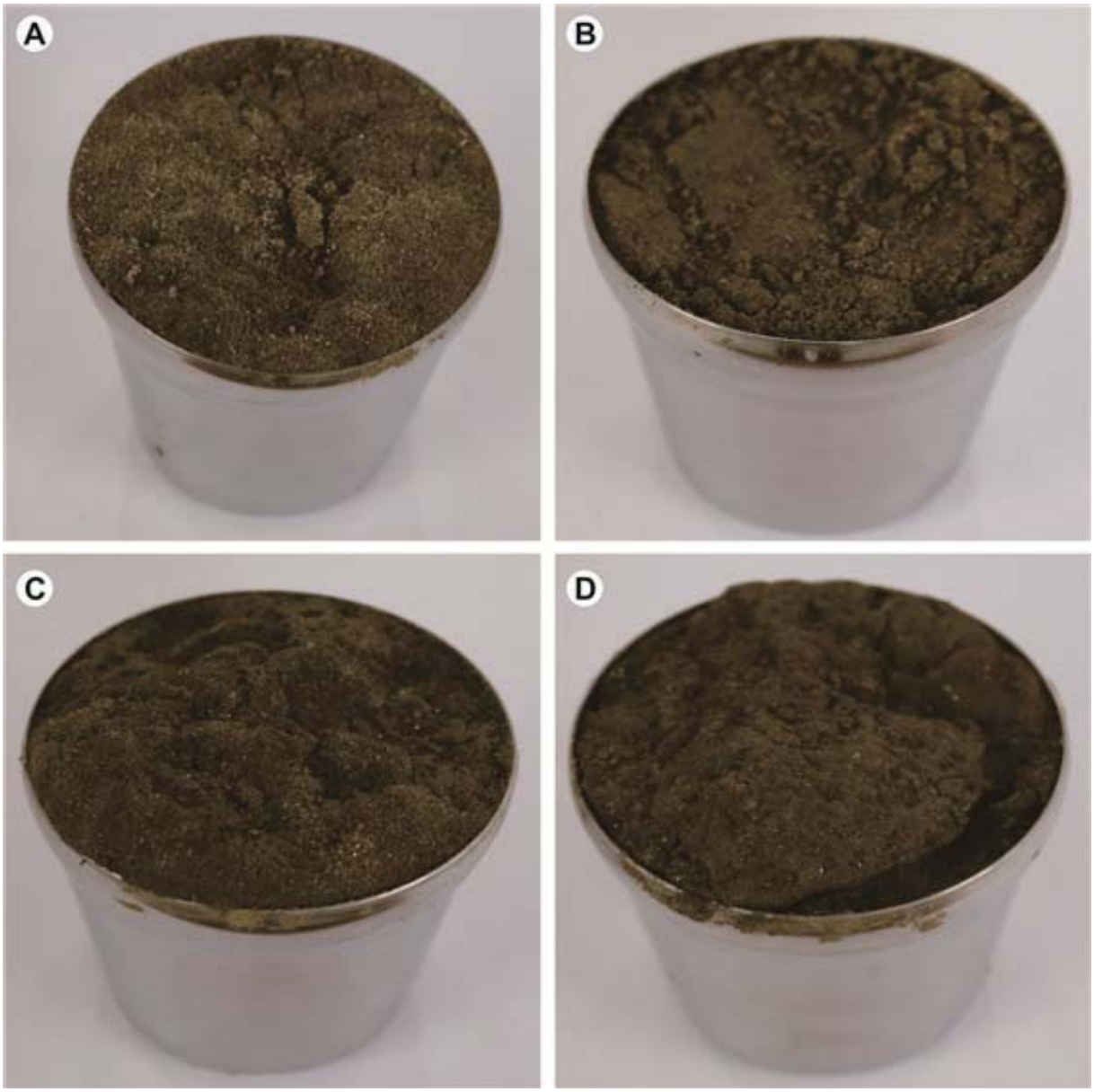


그림 2.1. 식물규소체 분석을 위해 채취된 밭 경작층 토양시료의 사진(A:동벽 고랑, B: 동벽 두둑, C:서벽 고랑, D:서벽 두둑), 시료 용기:지름 및 높이 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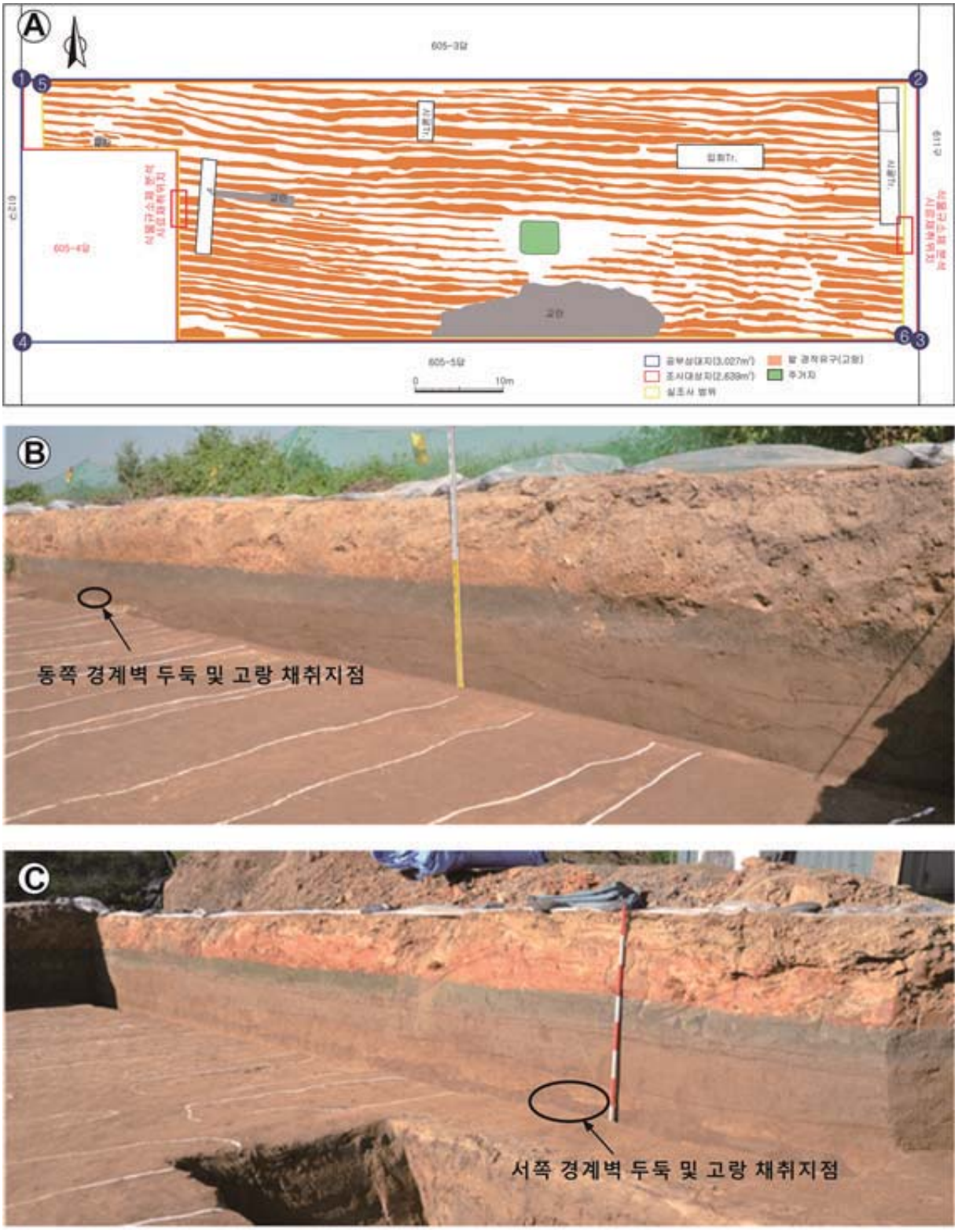


그림 2.2. 식물규소체 분석지점의 위치와 밭 경작층 전경(A:유구배치도와 시료채취지점 위치도, B&C:밭 경작층과 시료채취지점의 전경)

2.2 식물규소체 분석 방법

주로 벼科 식물의 기동세포에서 기원된 식물규소체는 일부 種, 屬 또는 族 수준의 분류가 가능하며 화곡류를 대표하는 벼와 보리류의 동정에 매우 효과적이다. 기동세포 기원의 식물규소체 분석을 위한 시료의 전처리 과정은 藤原宏志(1976)의 정량분석법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 일정량(1.0000g)의 건조된 토양 시료를 취하여 정량 분석의 기준이 되는 일정량(0.0200g)의 글라스 비드(glass beads)를 첨가한 후, 과산화수소수와 염산을 이용하여 각각 유기물과 탄산염을 제거하였다. 유기물과 탄산염은 성분상 식물규소체와는 다른 불순물로서 식물규소체의 농집도를 높이고 보다 깨끗한 상태의 시료를 만들기 위해 제거된다. 불순물 처리 완료 후, 기동세포 식물규소체의 크기 범위(20~100㎛)를 벗어나는 세립분과 조립분을 각각 Stokes 법칙을 이용한 침전법과 표준체를 이용한 체질법을 통해 제거하였다.

처리가 완료된 시료에 적당량의 글리세린(glycerin)을 첨가하고 충분히 교반한 후, 일정량을 슬라이드 글라스(slide glass)에 옮기고 커버 글라스(cover glass)를 장착하여 분석용 슬라이드를 완성하였다. 식물규소체의 관찰과 동정은 400~630배의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였으며 통계 처리를 위해 첨가된 글라스비드가 200~300개 도달할 때까지의 식물규소체를 계수, 동정하였다. 식물규소체의 산출량은 첨가한 글라스비드의 개수와 검출된 식물규소체의 개수 및 처리한 토양 중량을 기초로 하여 토양 1g 당 개수로 정량화 하였다. 주요 식물규소체에 대해서는 현미경 사진을 촬영하고 도판을 제작하여 부록에 첨부하였다.

기동세포에서 유래된 주요 벼科 식물의 식물규소체의 분류는 식물종에 따라 亞科, 族, 屬 및 種 수준까지 수행하였고(藤原宏志, 1976; 杉山眞二 외, 1988), 기타 세포에서 유래된 것은 형태를 기준으로 한 Mulholland and Rapp(1992)와 Twiss(1992)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다.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동정이 어려운 벼科의 식물규소체에 대해서는 미분류군인 기타 유형에 포함시켰다.

제3장 식물규소체 분석 결과

3.1 경작층 토양의 기재적 특성

밭 경작층을 이루는 토양은 dark brown(10YR 3/3) 또는 brown(10YR 4/4)의 색조를 띠는 실트질의 세립질 모래로 구성된다. 동벽의 경작층의 고랑부 토양은 모래 함량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식물뿌리흔적과 서관구조(burrow)가 흔히 발달하며, 서벽 경작층 토양은 매우 드물게 탄화식물편을 포함한다.

3.2 식물규소체 산출 특성

밭 경작층의 식물규소체 산출 결과를 표 3.1에 제시하였고, 시료에 따른 산출 특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 비교하기 위하여 산출도를 작성하여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식물규소체의 총 산출량은 약 66,000~249,300개체/g의 비교적 넓은 범위를 보이나 대부분 100,000개체/g를 상회한다. 식물규소체의 조성은 전적으로 벼科(Gramineae)가 우세하며, 소나무科(Pinaceae) 및 불명 목본류(arboreal)가 일부 시료에서 소량 검출된다.

【표 3.1.】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의 식물규소체 산출표(단위: ×100개체/g).

분류	시료명 / 학명	동벽 고랑	동벽 두둑	서벽 고랑	서벽 두둑
벼科	Gramineae				
벼	Oryza sativa	27	27	47	20
벼(穎)	O. sativa(husk)	7	0	0	0
기장族	Paniceae	60	207	267	133
갈대屬	Phragmites	47	160	200	67
억새屬	Miscanthus	153	253	380	207
쇠풀族	Andropogoneae	93	247	213	113
대나무아科	Bambusoideae	0	0	13	7
기타	Others				
봉상	Elongate-shaped	113	487	760	360
침상	Point-shaped	80	253	280	133
사다리꼴	Trapezoid	7	0	0	0
기타	Others	73	247	333	107
소나무科	Pinaceae	0	20	0	13
목본류 기타	Arboreal	0	7	0	0
합계	Total	660	1907	2493	1160
해면동물 골편	Sponge spicules	0	20	1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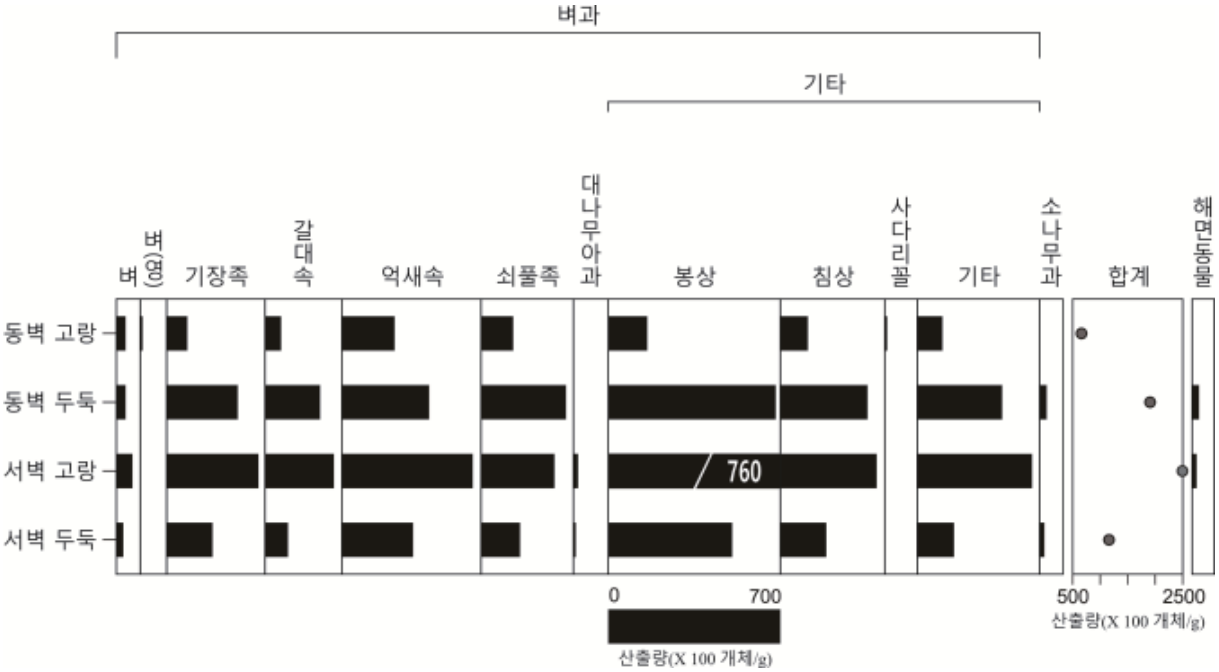


그림 3.1.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의 식물규소체 산출도

벼科의 기동세포 규소체 중 야생종으로는 억새屬(Miscanthus), 쇠풀族(Andropogoneae) 및 기장族(Paniceae)이 우점을 이루며, 갈대屬(Phragmites)이 수반된다. 전체적으로 억새속의 산출량이 가장 높다. 서벽 시료에서는 소량의 대나무亞科(Bambusoideae)가 검출되었다. 벼科의 기타 세포에서 기원된 식물규소체는 대체로 장세포에서 유래된 봉상(elongate-shaped)과 모상 및 침상 세포 기원의 침상(point-shaped)이 풍부하며, 매우 드물게 동벽 고랑에서는 단세포 기원의 사다리꼴상(trapezoid-shaped)이 검출된다.

벼科의 재배종으로서 벼(Oryza sativa)의 기동세포 기원의 부채형 규소체(bulliform phytolith)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산출량은 약 2,000~4,700개체/g의 범위를 보인다. 동벽 고랑에서는 벼 穎에서 기원된 쌍봉형 모상세포 규소체(double-peaked hair cell phytolith)가 약 700개체/g의 극히 낮은 산출량으로 검출되었다.

3.3 고찰: 식물규소체와 도작 농경

식물규소체 분석으로부터 직접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작물은 벼와 보리류 등의 화곡류이다. 벼屬은 엽신, 엽초 등의 식물체의 기동세포에서 기원한 특정 형태의 부채형 규소체와 穎의 표피세포 기원의 쌍봉형 모상세포 규소체는 벼科의 다른 종들과는 구별되나 재배종과 야생종은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야생종과 기타 유연종이 생육하지 않는 식물지리학적 환경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농경을 검증할 수 있다(Piperno, 2006). 보리류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동세포 규소체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穎의 표피세포의 장세포에서 기원된 수지상의 규소체(dendriform phytolith)와 판상세포 기원의 papillae, trichome base, stomatal 규소체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Rosen and

Weiner, 1994; Ball et al., 1996, 1999). 그러나 밀과 보리의 구분은 현재로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벼와 보리류와는 달리 피, 조, 기장 및 수수 등의 기장族 재배종은 야생종과 기동세포 규소체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여 그 구분은 불가능하다(杉山眞二 외, 1988). 기장族의 이러한 규소체의 형태적 특성 때문에 현 식생과의 비교(佐々木章, 1984), 수반되는 다른 식생과 관련된 고찰(藤原宏志, 1976) 등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방법으로 농경의 존재를 실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杉山眞二 외, 1988).

일반적으로 수전 도작의 검증이나 탐사를 행하는 경우, 벼의 기동세포 규소체가 5,000개체/g 이상의 밀도로 검출되면 도작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杉山眞二, 2000). 그러나 벼 규소체의 밀도가 3,000개체/g 정도에서도 수전 유구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이 산출량을 수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株式會社 古環境研究所, 2005). 육도, 즉 건답에서의 도작에 대해서는 아지까지 제시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육도의 작물 생산성이 수전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벼 규소체의 산출 밀도는 보다 낮으며 그 판정 기준 또한 하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지역의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에 대한 식물규소체 분석 결과, 모든 경작층 시료에서 약 2,000~4,700개체/g의 산출량을 보이는 벼의 기동세포 규소체가 검출되었다. 약 2,000개체/g의 가장 낮은 산출량을 보이는 서벽 두둑을 제외하면 벼 산출량은 약 2,700~4,700개체/g으로서 수전의 판정기준에 거의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육도작의 작물 생산량이 수도작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에서는 도작 농경이 행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벽 고랑에서는 극히 소량이지만 벼의 종실부인 穎에서 기원된 쌍봉형 규소체가 검출되었다. 종실부는 수확 대상이므로 식물체 중에서 잔존량이 극히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낮은 산출량에 그치더라도 종실부 규소체의 출현은 도작 가능성을 한층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4장 결론

경기도 안성시 중복리 605-4번지로서 동물관련시설(축사) 신축부지의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역에서 확인 · 조사된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 시료 4점에 대한 식물규소체 분석 결과를 요약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식물규소체의 총 산출량은 약 66,000~249,300개체/g의 비교적 넓은 범위를 보이나 대부분 100,000개체/g를 상회한다. 식물규소체의 조성은 전적으로 벼科가 우세하며, 소나무科 및 불명 목본류가 일부 시료에서 소량 검출되었다. 벼科의 기동세포 규소체 중 야생종으로는 억새屬, 쇠풀族 및 기장族이 우점을 이루며, 갈대屬이 수반된다. 서벽 시료에서는 소량의 대나무亞科가 검출되었다. 벼科의 기타 세포에서 기원된 식물규소체는 대체로 장세포에서 유래된 봉상과 모상 및 침상 세포 기원의 침상이 풍부하며, 매우 드물게 동벽 고랑에서는 단세포 기원의 사다리꼴상이 검출된다. 벼科의 재배종으로서 벼의 기동세포 기원의 부채형 규소체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산출량은 약 2,000~4,700개체/g의 범위를 보인다. 동벽 고랑에서는 벼 穎에서 기원된 쌍봉형 모상세포 규소체가 약 700개체/g의 극히 낮은 산출량으로 검출되었다.

발굴조사지역의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에 대한 식물규소체 분석 결과, 모든 경작층 시료에서 약 2,000~4,700개체/g의 산출량을 보이는 벼의 기동세포 규소체가 검출되었다. 약 2,000개체/g의 가장 낮은 산출량을 보이는 서벽 두둑을 제외하면 벼 산출량은 약 2,700~4,700개체/g으로서 수전의 판정기준에 거의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육도작의 작물 생산량이 수도작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삼국(백제 한성기)시대 밭 경작층에서는 도작 농경이 행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벽 고랑에서는 극히 소량이지만 벼의 종실부인 穎에서 기원된 쌍봉형 규소체가 검출되었다. 종실부는 수확 대상이므로 식물체 중에서 잔존량이 극히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낮은 산출량에 그치더라도 종실부 규소체의 출현은 도작 가능성을 한층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종철 외, 1994, 「신석기시대 태토에서 검출된 벼의 plant-opal」, 『한국고고학보』. 32, pp.149-162.

· 김경식, 황성수, 1992, 「식물규소체의 특성과 식물학적 응용」, 『식물학회지』. 35(3), pp.283-305.

· 김정희, 이융조, 1997, 「규소체 분석을 통한 한국 신석기시대의 도작」, 『제2회 농업고고국제학술토론회(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gricultural archaeology) 발표문』.

· 류춘길, 김용탁, 정승호, 2010a, 「진주 이곡리 선사유적의 (추정)경작유구에 대한 식물규소체 분석」, 『진주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진주 이곡리 선사유적Ⅱ』,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pp.3-20.

· 류춘길, 김용탁, 정승호, 신승원, 2010b, 「진주 평거동 한전 유적(3지구 Ⅱ-2구역)의 유구에 대한 자연과학분석」, 『진주 평거동 한전유적 3지구 Ⅱ-2지구 한전』,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pp.5-48.

· 류춘길, 노상건, 이지영, 2010c, 「대구 신서혁신도시 A구역 상매동유적의 식물규소체 분석」, 『대구 신서혁신도시 A구역 내 상매동유적 · 배수지유적』,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pp.175-189.

· 류춘길, 신승원, 김시영, 2011, 「기장 당사리유적의 식물규소체 분석」, 『기장 당사리유적』,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부산도시공사, pp.5-16.

· 류춘길, 노상건, 허진비, 2012a, 「경북 의성 금성산 고분군 2호분 성태재의 산지 분석」, 『의성 대리리 2호분Ⅱ-B봉토 · 주변유구 · A-5호-』,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pp.207-235.

· 류춘길, 소윤환, 김지수, 이지영, 2012b, 「포항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의 고환경 및 식물유체 분석」, 『포항 성곡리 유적Ⅳ』, (재)한빛문화재연구원, pp.186-279.

· 류춘길, 소윤환, 김지수, 2013a, 「4대강 살리기 금강 5공구 군수제 구간 문화재 발굴조사지역 경작유구의 식물유체 및 연대측정」, 『4대강 살리기 금강 5공구 군수제 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부여 군수리 경작유적』,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pp.188-227.

· 류춘길, 소윤환, 이지영, 김지수, 2013b, 「4대강 살리기 금강 부여지구 구교리 · 왕포리 경작유적 경작유구의 식물유체 분석」, 『4대강 살리기(금강)살리기 사업 5공구(부여지구) 내 구교리 · 중리 유물산포지 부여 구교리 · 왕포리 경작유적』,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pp.95-123.

· 삼한문화재연구원 · 한국지질환경연구소, 2011, 「대구 봉무동 750번지 유적의 식물유체 분석」, 『대구 봉무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부지 내 대구 봉무동 570번지 유적, 사진』, (재)삼한문화재연구원, pp.257-283.

· 오용자, 2005, 「한국산 사초과 식물의 식물규소체 형태에 의한 분류」, 『식물분류학회지』. 35, pp.313-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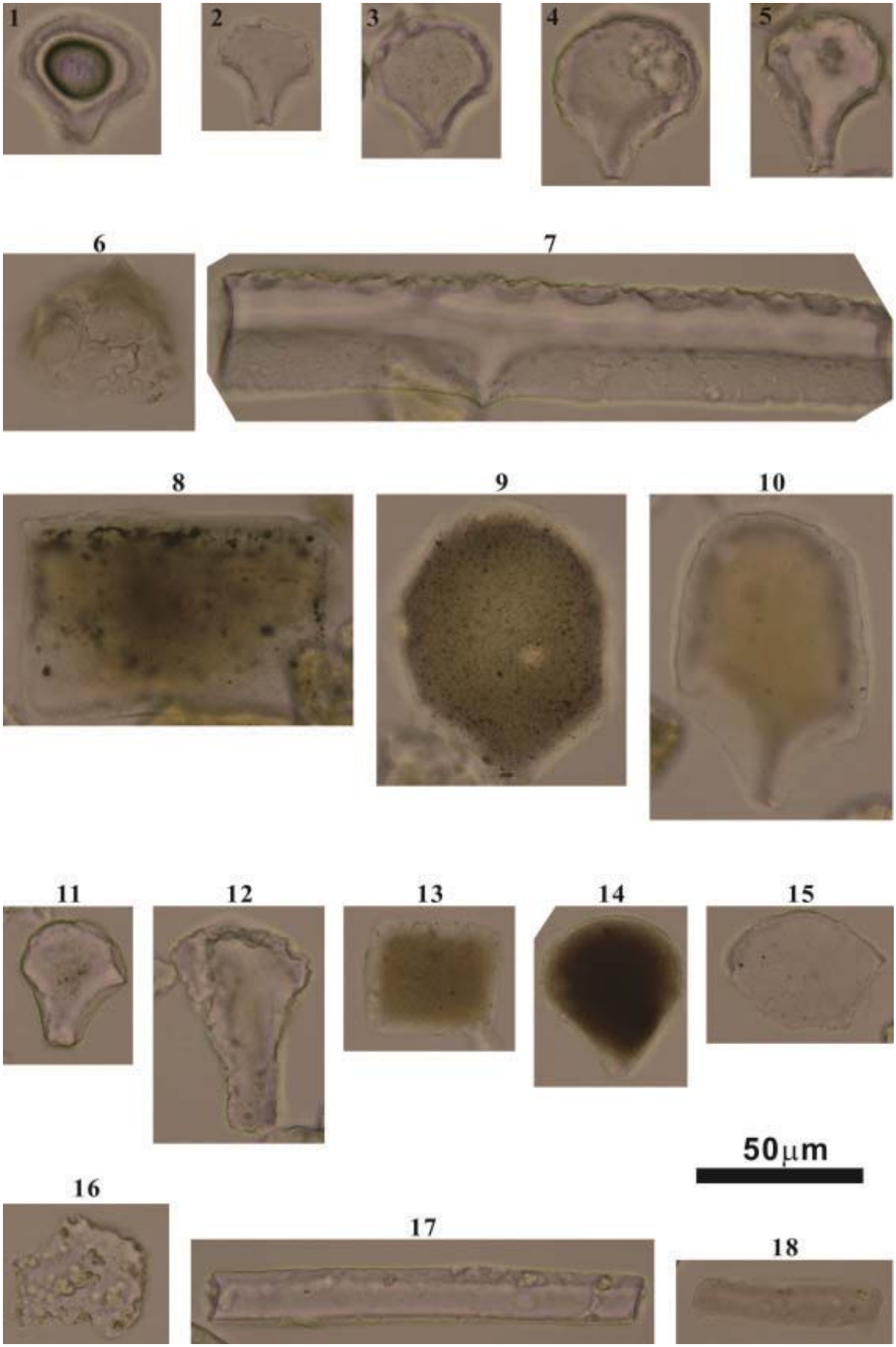
· 윤순옥, 김효선, 황상일, 2009, 「경포호의 식물규소체(Phytoliths) 분석과 Holocene 기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4, pp.691-705.

·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3,「청도 동창천 생태공원(장연지구) 조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서」. 24p.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 한국지질환경연구소, 2010,「대구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건설부지 내 유적의 식물유체 분석」. p.29.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5,「성송-고창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p.29.
· 정승호, 김주호, 권승록, 류춘길, 김용탁, 2009,「한반도 제4기 퇴적층에서 산출되는 식물규소체에 대한 예비 연구: 고고지질학적 접근」,『2009년도 한국고생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논문초록집』. p.22.
· 한국고환경연구센터, 2009,「대구 월성동 498번지 유적(Ⅰ구역) 식물규소체 분석」,『대구 월성동 498번지 유적(Ⅰ구역)』,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pp.229-243.
· 한국문화재재단, 2017,「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안성 중복리 605-4번지 유적]」. p.17.
· 한국지질환경연구소 ·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11,「진주-광양 복선화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예정구간 내 유적의 식물규소체 분석」,『진주-광양 복선화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예정구간 내 하동 직전리 유적』, (재)우리문화재연구원 · 한국철도시설공단, pp.53-72.
· 한국지질환경연구소 ·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1,「4대강(영산강)살리기 나주 진포동 포두유물산포지 문화유적의 고환경」,『경작층 및 수종 분석』. p.120.
· 한국지질환경연구소 · (재)동서문물연구원, 2012,「진주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적 경작층의 식물규소체 분석」. p.36.
· 황성수, 김경식, 1994,「벼의 규소체 형태」,『Journal of Plant Biology』. 37(1), pp.53-67.
· 株式會社 古環境研究所, 2005,「倉村里遺蹟における植物硅酸體(プラント・オパール)分析」,『진성창촌유적』.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調査研究報告書 第28冊, pp.79-82.
· 藤原宏志, 1976,「プラントオパール分析法の基礎的研究(1)-數種イネ科栽培植物の硅酸體標本と定量分析法-」,『考古學と自然科學』. 9, pp.15-29.
· 佐々木章, 1984,「燒山地丘陵のプラントオパール分析-宮崎椎葉村向山-」,『古文化財の自然科學的研究』, 古文化財編集委員會. pp.747-752.
· 杉山眞二, 松田, 藤原宏志, 1988,「機動細胞硅酸体の形態によるキビ族植物の同定とその応用-古代農耕追究のための基礎資料として-」,『考古學と自然科學』. 第20号, pp.81-92.
· Albert, R.M. and Madella, M., 2009, Perspectives on phytolith research: 6th International Meeting on Phytolith Research. Quaternary Internation, 193, pp.1-2.
· Ball, T., Gardner J. S. and Brotherson J. D., 1996, Identifying phytoliths produced by the inflorescence bracts of three species of wheat (Triticum monococcum L., T. dicoccon Schrank., and T. aestivum L.) using computer-assisted image and statistical analysi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3, pp.619-632.

· Ball, T., Gardner J. S. and Anderson N., 1999, Identifying inflorescence phytoliths from selected species of wheat (Triticum monococcum, T. dicoccon, and T. dicoccoides, and T. aestivum L.) and barley (Hordeum vulgare and H. spontaneum) (Gramineae). American Journal of Botany, 11, pp.1615-1623.
· Hwang, S., Yoon S.-O., Lee, J.-Y., Kim, H.-S. and Choi, J., 2013, Phytolith analysis and reconstruction of palaeoenvironment at the Nabokri valley plain, Buyeo, Korea. Quaternary International, 254, pp.129-137.
· Mulholland, S.C. and Rapp, Jr. G., 1992, A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of grass silica-bodies. In: Phytolith systematics, Edited by G. Rapp, Jr. and S.C. Mulholland, Plenum Press, New York, 65-90.
· Piperno, D.R., 2006, Phytolith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Lanham, New York, Toronto, Oxford, p.238.
· Rosen, A.M. and Weiner, S., 1994, Identifying ancient irrigation: a new method using opaline phytoliths from emmer wheat. Jo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1, pp.125-132.
· Twiss, P.C., 1992, Predicted world distribution of C3 and C4 grass phytoliths. In: Phytolith systematics, Edited by G. Rapp, Jr. and S.C. Mulholland, Plenum Press, New York, pp.113-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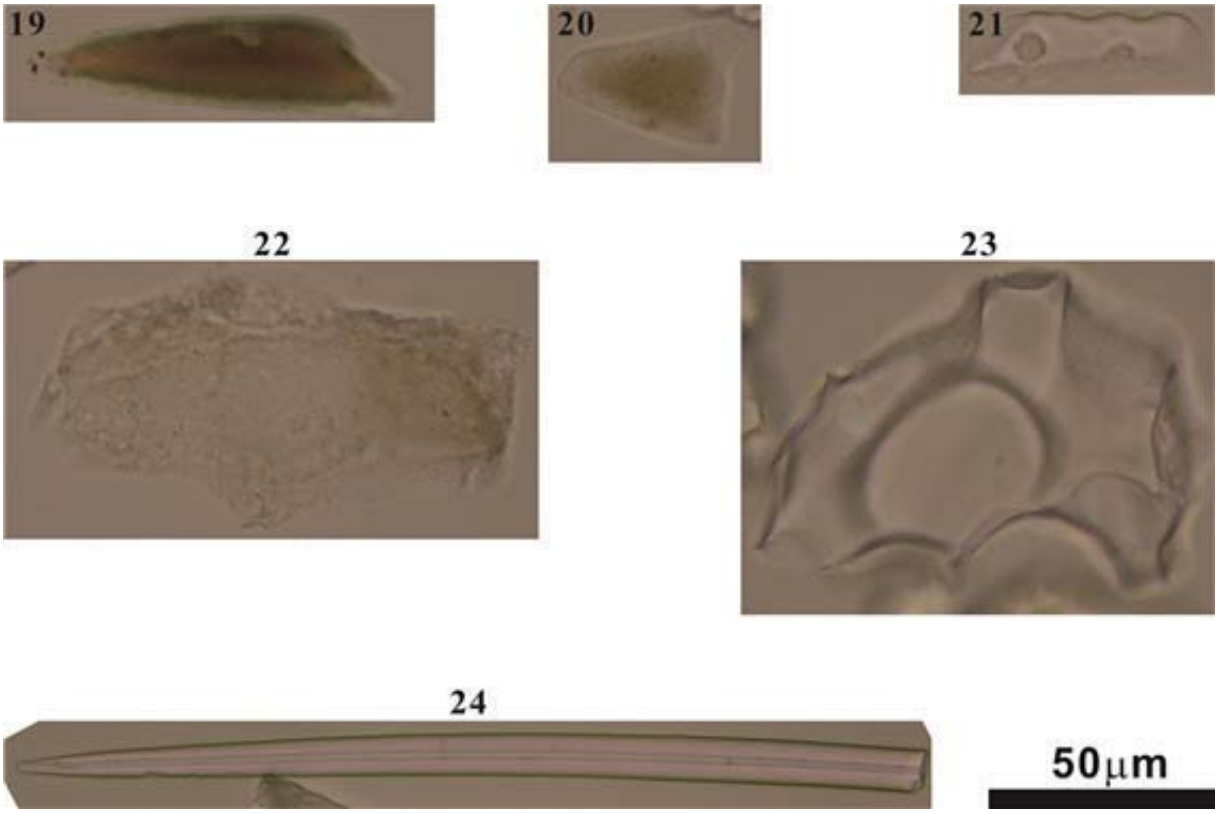
도판 1. 식물규소체의 현미경 사진 Ⅰ

1~3: 벼(Oryza sativa), 동벽 고랑.
4: 벼(O. sativa), 동벽 두둑.
5: 벼(O. sativa), 서벽 고랑.
6: 벼 穎(Oryza sativa, husk), 동벽 고랑.
7: 기장族(Paniceae), 동벽 고랑.
8: 기장族(Paniceae), 동벽 두둑.
9: 갈대屬(Phragmites), 동벽 고랑.
10: 갈대屬(Phragmites), 동벽 두둑.
11: 억새屬(Miscanthus), 동벽 고랑.
12: 억새屬(Miscanthus), 동벽 두둑.
13: 쇠풀族(Andropogoneae), 동벽 고랑.
14: 쇠풀族(Andropogoneae), 동벽 두둑.
15: 대나무亞科(Bambusoideae), 서벽 고랑.
16: 대나무亞科(Bambusoideae), 서벽 두둑.
17: 봉상(Elongate-shaped), 동벽 두둑.
18: 봉상(Elongate-shaped), 서벽 고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0μm
16
17
18

도판 2. 식물규소체의 현미경 사진 Ⅱ

19: 침상(Point-shaped), 동벽 고랑.
20: 침상(Point-shaped), 서벽 고랑.
21: 사다리꼴(Trapezoid), 동벽 고랑.
22: 소나무科(Pinaceae), 동벽 두둑.
23: 목본류(Arboreal), 동벽 두둑.
24: 해면동물(Sponge), 서벽 고랑.



안성 중복리 605-4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0737 -0001	장란형토기	1	주거지	토도	백제	19.2	31.9	0.5~0.8	6-1 6-1	Y
2017-0737 -0002	저부	1	주거지	토도	백제	(6.1)	-	1.6	6-2 6-2	Y
2017-0737 -0003	저부	1	주거지	토도	백제	(8.8)	-	0.6	6-3 6-3	Y
2017-0737 -0004	동체부편	1	밭 경작유구	토도	백제	(2.7)	-	0.8	7-4 13-4	Y
2017-0737 -0005	청자 완 구연부	1	수습	토도	고려	(6.8)	19.0	0.3~1.0	8-5 13-5	Y
2017-0737 -0006	청자 완 저부	1	수습	토도	고려	(5.4)	-	6.0	8-6 13-6	Y
2017-0737 -0007	청자 완 저부	1	수습	토도	고려	(5.0)	-	6.2	8-7 13-7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안성 중복리 605-4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 3011-2173	FAX	(02) 566-5954
執筆 · 編輯者	정훈진 · 이건충 · 김효환 · 정홍선 · 유혜원			
調査 緣由	동물관련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박종섭 · 이창욱 · 김효환 · 전은정 · 석제섭			
遺蹟調査地番	경기도 안성시 중복리 605-4번지			
調査面積	2,639㎡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삼국시대	1	장란형토기 등	
밭 경작유구	삼국시대	1	토기편	

138.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38- 9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38- 11

Ⅲ. 조사내용 …… 138-18
1. 표본조사 …… 138-18
2. 발굴조사 …… 138-19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 …… 138-21
1) 굴립주건물지 …… 138-21
2) 주혈군 …… 138-22
〈원삼국시대〉 …… 138-23
1) 주거지 …… 138-24
(1) 주거지 1호 …… 138-24
(2) 주거지 2호 …… 138-27
2) 굴립주건물지 …… 138-30
3) 수혈유구 1~6호 …… 138-31
4) 수습유물 …… 138-35
〈삼국(백제한성기)시대〉 …… 138-36
1) 주거지 …… 138-36
2) 굴립주건물지 …… 138-37
(1) 굴립주건물지 1호 …… 138-37
(2) 굴립주건물지 2호 …… 138-40
3) 수혈유구 1~6호 …… 138-40
4) 구상유구 …… 138-48
〈삼국시대〉 …… 138-50
1) 주거지 …… 138-50
(1) 주거지 1호 …… 138-50
(2) 주거지 2호 …… 138-53
(3) 주거지 3호 …… 138-55
(4) 주거지 4호 …… 138-56
2) 수혈유구 1~7호 …… 138-60

Ⅳ. 조사성과 …… 138-69

부록

AMS 분석 …… 138-113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출토 종자 분석 보고서 …… 138-117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38-13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38-14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38-17
도면 4. 표본조사 트렌치배치도 …… 138-18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 138-19
도면 6.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 유구배치도 …… 138-21
도면 7. 원삼국시대 이전 굴립주건물지 …… 138-22
도면 8. 원삼국시대 이전 주혈군 …… 138-23
도면 9. 원삼국시대 유구배치도 …… 138-24
도면 10.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 138-25
도면 11.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 138-27
도면 12.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 …… 138-28
도면 13.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 138-29
도면 14. 원삼국시대 굴립주건물지 …… 138-30
도면 15.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1 · 2호 및 1호 출토유물 …… 138-32
도면 16.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3 · 4호 및 3호 출토유물 …… 138-33
도면 17.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5 · 6호 …… 138-34
도면 18. 원삼국시대 수습유물 …… 138-35
도면 19.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유구배치도 …… 138-36
도면 20.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주거지 …… 138-38
도면 21.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 138-39
도면 22. 삼국(백제한성기)시대 굴립주건물지 1 · 2호 …… 138-41
도면 23.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1 · 2호 및 2호 출토유물 …… 138-43
도면 24.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3호 및 출토유물 …… 138-44
도면 25.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4호 및 출토유물 …… 138-46
도면 26.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5 · 6호 및 5호 출토유물 …… 138-47
도면 27. 삼국(백제한성기)시대 구상유구 및 출토유물 …… 138-49
도면 28. 삼국시대 유구배치도 …… 138-50
도면 29. 삼국시대 주거지 1호 및 출토유물 …… 138-52
도면 30. 삼국시대 주거지 2호 …… 138-54
도면 31.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 138-55
도면 32. 삼국시대 주거지 3호 …… 138-56

도면 33. 삼국시대 주거지 4호 및 출토유물1 …… 138-58
도면 34.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2 …… 138-60
도면 35. 삼국시대 수혈유구 1 · 2호 …… 138-61
도면 36. 삼국시대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 …… 138-63
도면 37. 삼국시대 수혈유구 3 · 4호 …… 138-64
도면 38. 삼국시대 수혈유구 5호 및 출토유물 …… 138-65
도면 39. 삼국시대 수혈유구 6호 및 출토유물 …… 138-66
도면 40. 삼국시대 수혈유구 7호 및 출토유물 …… 138-68

도 판 목 차

도판 1. 표본조사 대상지(①원경, ②조사전) …… 138-73
도판 2. 표본조사 대상지(①조사후, ②트렌치전경, ③④토층) …… 138-74
도판 3. 표본조사 대상지(①②토층, ③④유구노출상태) 및 원삼국시대 이전문화층 조사후(⑤) …… 138-75
도판 4. 원삼국시대 이전 굴립주건물지(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 138-76
도판 5. 원삼국시대 이전 굴립주건물지(①②주혈1, ③④주혈2, ⑤⑥주혈3, ⑦⑧주혈4, ⑨⑩주혈5, ⑪⑫주혈6) 및 주혈군(⑬⑭주혈1, ⑮⑯주혈2, ⑰⑱주혈3, ⑲⑳주혈4, ㉑㉒주혈5, ㉓㉔주혈6) …… 138-77
도판 6. 원삼국시대 문화층 조사후(①) 및 주거지 1호 조사전(②) …… 138-78
도판 7.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④토층) …… 138-79
도판 8.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④노지, ⑤⑥주혈1, ⑦⑧주혈2, ⑨⑩주혈3, ⑪⑫주혈4, ⑬⑭주혈5, ⑮⑯주혈6, ⑰⑱주혈7, ⑲⑳주혈8) …… 138-80
도판 9.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1~4) 및 2호 조사전(①) …… 138-81
도판 10.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중, ②조사후) …… 138-82
도판 11.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②토층, ③유물출토상태, 5~7:출토유물) …… 138-83
도판 12. 원삼국시대 굴립주건물지(①조사전, ②조사중) …… 138-84
도판 13. 원삼국시대 굴립주건물지(①조사후, ②③주혈1, ④⑤주혈2, ⑥⑦주혈3, ⑧⑨주혈4, ⑩⑪주혈5, ⑫⑬주혈6) …… 138-85
도판 14.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8:출토유물) 및 2호(④조사전, ⑤조사중, ⑥조사후, ⑦토층)……138-86
도판 15.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3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9 · 10:출토유물) 및 4호(④조사전, ⑤조사후, ⑥토층) …… 138-87
도판 16.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5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6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수습(⑨유물수습상태, 11:수습유물) …… 138-88
도판 17.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 조사후(①) 및 주거지 조사전(②) …… 138-89
도판 18.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③④토층, ⑤출입구 토층, ⑥유물출토상태, 12:출토유물) …… 138-90
도판 19. 삼국(백제한성기)시대 굴립주건물지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⑤주혈1, ⑥⑦주혈2, ⑧⑨주혈3, ⑩⑪주혈4, ⑫⑬주혈5, ⑭⑮주혈6) …… 138-91
도판 20. 삼국(백제한성기)시대 굴립주건물지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⑤주혈1, ⑥⑦주혈2, ⑧⑨주혈3) …… 138-92

도판 21.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2호(⑤조사전, ⑥조사후, ⑦토층, ⑧유물출토상태) …… 138- 93
도판 22.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13) 및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⑤토층, 14 · 15: 출토유물) …… 138- 94
도판 23.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16:출토유물) 및 5호(⑤조사후, ⑥토층, 17~19:출토유물) …… 138- 95
도판 24.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6호(①조사후, ②토층) 및 구상유구(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⑥토층, 20:출토유물)…… 138- 96
도판 25. 삼국시대 문화층 조사후(①) 및 주거지 1호 조사전(②) …… 138- 97
도판 26.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 138- 98
도판 27.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②토층, 21~23:출토유물) 및 2호 조사전(③) …… 138- 99
도판 28.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중, ②조사후) …… 138-100
도판 29.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②토층, ③노지, ④~⑥유물출토상태, 24~27:출토유물) …… 138-101
도판 30.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 138-102
도판 31.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후, ②③토층) 및 4호 조사전(④) …… 138-103
도판 32.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조사중, ②조사후) …… 138-104
도판 33.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②토층, 28~35:출토유물)…… 138-105
도판 34. 삼국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⑤토층) 및 2호(⑥조사전, ⑦조사중, ⑧조사후, ⑨⑩토층) …… 138-106
도판 35. 삼국시대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36 · 37), 3호(①조사전, ②조사 중, ③조사후, ④⑤토층), 4호(⑥조사전, ⑦조사중) …… 138-107
도판 36. 삼국시대 수혈유구 4호(①조사후, ②토층), 5호(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⑥⑦토층, 38:출토유물), 6호 조사전(⑧) …… 138-108
도판 37. 삼국시대 수혈유구 6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39:출토유물) 및 7호(④조사전, ⑤조사중, ⑥조사후, ⑦⑧토층) …… 138-109
도판 38. 삼국시대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40~43) 및 학술자문회의(①) …… 138-110

Ⅰ. 조사개요

본 유적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44-2번지로, 사업시행자 이호성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265㎡)이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양평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양평 하자포리 유물산포지1[1]' 남서쪽에 남한강과 인접해 위치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양평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해 공사 이전에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표본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양평군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공사 이전에 국비를 지원받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2017년 6월 26일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 본 재단에 소규모 표본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소규모 표본조사를 접수한 재단에서는 소규모 국비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7월 6일 표본조사 세부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다. 표본조사는 7월 13일에 착수하여 당일 완료하였으며, 실조사일수 1일을 소요하였다. 표본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1기와 삼국시대 수혈유구 6기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유구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7월 20일 발굴조사 세부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7월 3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16일에 대한 발굴조사 허가(제2017-1000호)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9월 4일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문화층 ·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 · 원삼국시대 문화층 그리고 그 하부에 또 다른 문화층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9월 28일 학술자문회의[2]를 개최하였으며, 추가로 확인된 문화층에 대한 조사를 당초 허가일수(16일)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조사단에서는 추가로 확인된 문화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다음 9월 29일 실조사일수 15일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을 문화재청에 요청한 후 10월 25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조사일수 26일을 소요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과 원삼국시대 문화층,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문화층 등 총 4개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가장 하부인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에서는 굴립주건물지 1동 · 주혈군(6개), 원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2동 · 굴립주건물지 1동 · 수혈유구 6기,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1동 · 구상유구 1기 · 굴립주건물지 2기 · 수혈유구 6기, 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4동 · 수혈유구 7기 등 총 31기의 유구 외에 주혈군(6개)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 대부장경호, 완, 대부완, 시루, 대각, 지석, 마제석검 등 총 43점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文化遺蹟分布地圖: 楊平郡』.

2) 학술자문위원 : 김무중(중원문화재연구원장), 박경신(숭실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표본조사	발굴조사
조 사 단 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책임조사원	이 창 욱(조사연구2팀 부팀장)	정 훈 진(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김 정 민(조사연구2팀 연구원)	김 봉 성(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조 은 이(조사연구2팀 연구원)	강 채 경(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정 홍 선(조사연구2팀 연구원) 최 민 석(조사연구2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건충(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김봉성 · 강채경 · 김형숙(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의 책임하에 유혜원 · 김경화 · 김형란 · 임희정(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김봉성 · 유혜원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이순희(시림 아카이브)가 촬영하였다.

원고는 Ⅰ · Ⅱ장 김봉성, Ⅲ장 김봉성(조사내용 및 유구) · 유혜원(유물), Ⅳ장 김봉성이 작성하였고, 이건충이 수정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정훈진(조사연구2팀장)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44-2번지에 해당하며, 경·위도상 동경 127° 32′10″, 북위 37°25′22″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는 양평읍내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개군면사무소방향으로 약 8.7㎞ 진행하면 개군면사무소로 이어지는 삼거리가 나타난다. 이 삼거리에서 남쪽의 하자포길을 따라 550m 직진 후 삼거리에서 남한강 방향으로 60m 직행하면 다시 삼거리가 있다.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난 농로길을 따라 100m 진행하면 서쪽에 조사대상지가 위치한다.

자연·지리적 환경[3]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가 위치하는 양평군은 경기도 동부지역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강원도 횡성군, 서로는 경기도 남양주시·하남시, 북으로는 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가평이 인접해 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18′46″~127°51′02″, 북위 37°21′33″~37°40′07″이다.

전체적인 지형은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산지가 발달해 있고, 그 주변에는 다양한 산간분지와 산지하천이 형성한 계곡지형,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사면지형인 산록완사면과 구릉지 등이 있으며, 강 유역에 좁게 발달한 평지와 큰 범람원도 발달되어 있다.

산세는 광주산맥의 한 줄기인 용문산(1,157m)을 중심으로 하여 북부에는 화야산(755m)·통방산(650m)·중미산(834m)·유명산(862m)·봉미산(856m)·갈기산(685m)·시루봉(504m) 등이 있고, 동부는 금물산(780m)·성지봉(791m)·당산(541m) 등이 있다. 남부에는 옥녀봉(419m)·고래산(543m)·우두산(480m)·파사산(231m)·양자산(710m) 등의 높은 산들이 있다.

하천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는데 남한강은 남동쪽에서 서북쪽으로 흘러가고, 북한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두 강은 양평 양수리에서 합쳐져 팔당으로 이어진다. 이외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성지봉에서 발원한 흑천(黑川)이 양평군 중심부를 따라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개군면 인덕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하게 된다. 양평군에 분포하는 이러한 하천들은 규모가 작지만, 충적지·곡저평야·하안단구·하중도 등 다양한 형태의 하천지형을 형성하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하기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질은 한반도 중부지방과 비슷한데 경기육괴에 속하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 복합체로 호상편마암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평읍 지역에는 시대가 명확하지 않은 화성복합체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넓은 분지가 발달해 있고, 하천 주변에는 신생대 제4기의 하천에 의해 퇴적된 충적층이 형성된 곳이 많다. 이러한 충적층에는 주변 산지의 화강암·편암·편마암 등에서 유래된 자갈, 모래, 점토 등이 섞여 있다.

기후는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 대륙성기후를 띠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0.2℃ 내외, 1월 평균기온은 -4.5℃ 내외, 8월 평균기온은 24.8℃ 내외이며, 연교차는 30.3℃이다. 따라서 겨울철은 한랭건조하고 여름철은 고온다습하다. 특히 지형이 산지 및 산간분지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전국에서

---

3) 이재천, 1977, 「한강 하류 범람원 지형에 대한 연구-팔당에서 잠실까지의 지형변천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경기도박물관, 2002, 「3. 한강의 지형 및 지리」, 『한강』.

가장 추운 곳이다. 강수량은 1,630㎜로, 여름에 집중되며 경기지역에서 다우지역에 속한다. 특히 양평읍과 양수리 일대는 북한강 유역 댐의 영향으로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다[4].

고고·역사학적 환경으로 보면, 조사대상지가 위치하는 개군면은 양평군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북동부는 고도가 높고 험하나, 남부는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로 되어 있고, 신내천·향리천을 비롯한 하천연변에는 충적지가 형성되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주변의 높고 낮은 산지와 하천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늘 사람들이 거주해 왔으며, 그 증거로 선사와 역사시대에 걸쳐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개군면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양평 상자포리 유물산포지2가 있으며, 지표조사 시 상자포리 유물산포지2의 최남단의 농장 입구에서 규암제 찍개 1점이 채집되었다[5].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양평 앙덕리유적이 있으며, 앙덕리유적의 상부층에서 많은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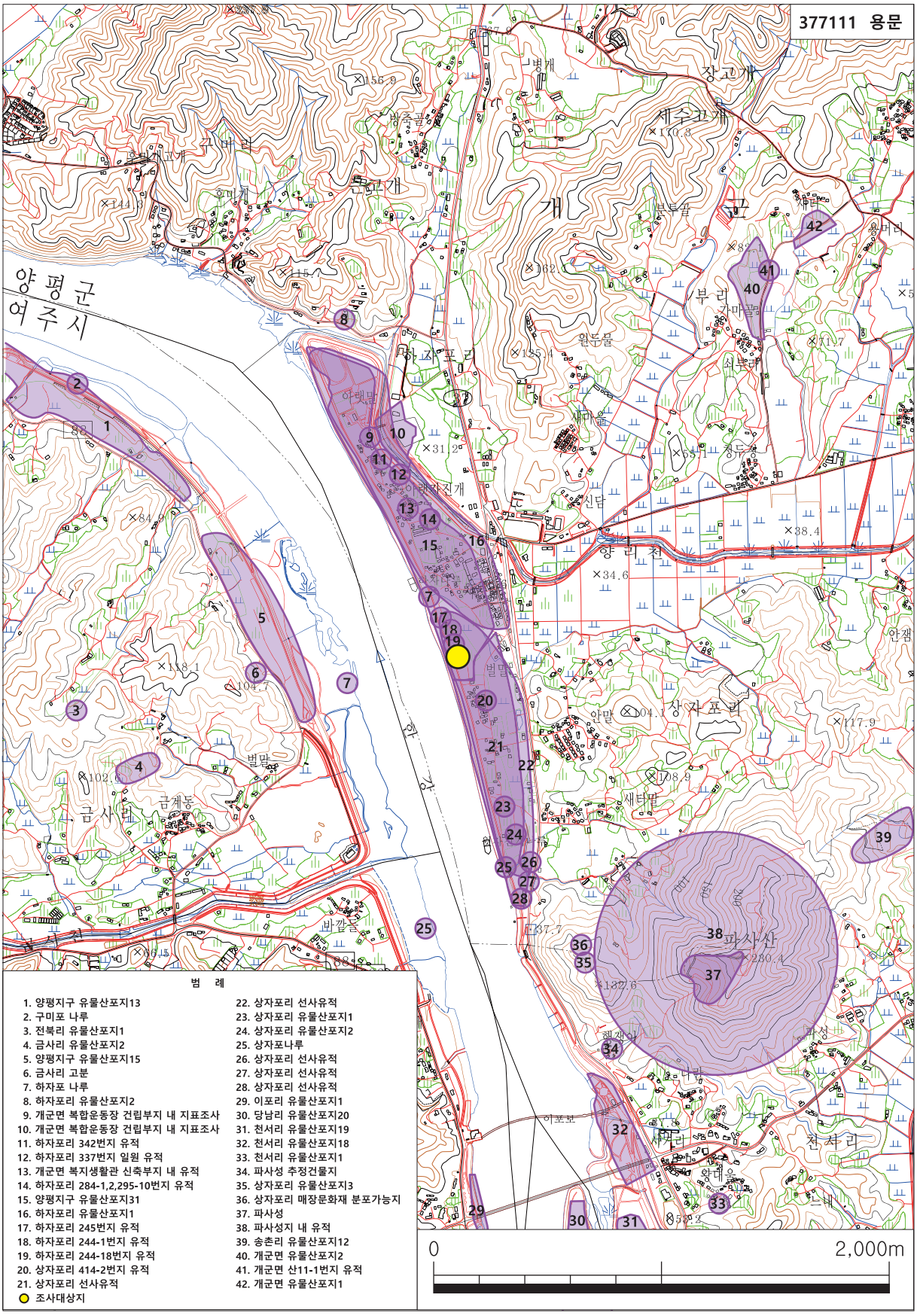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유적은 선사시대 유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에는 강안을 벗어나 구릉 정상부에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양평 하자포리 유물산포지2[7], 양평 앙덕리 지석묘군[8], 양평 상자포리 선사유적1[9], 양평 상자포리 선사유적2[10], 양평 상자포리 유물산포지1[11], 양평 앙덕리유적[12] 등이 있다. 이중 앙덕리, 상자포리 등은 고인돌유적이다. 특히 상자포리에서는 고인돌과 함께 공렬토기, 초기 철기시대의 경질무문토기, 삼국시대의 타날문토기와 같은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개군면의 원삼국시대 유적은 양평 하자포리 유물산포지1, 양평 상자포리 유물산포지1, 양평 상자포리 선사유적1, 양평 앙덕리 선사유적 등으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조사대상지에서 남쪽으로 200m 이격하여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13]'이 위치하고 있는데,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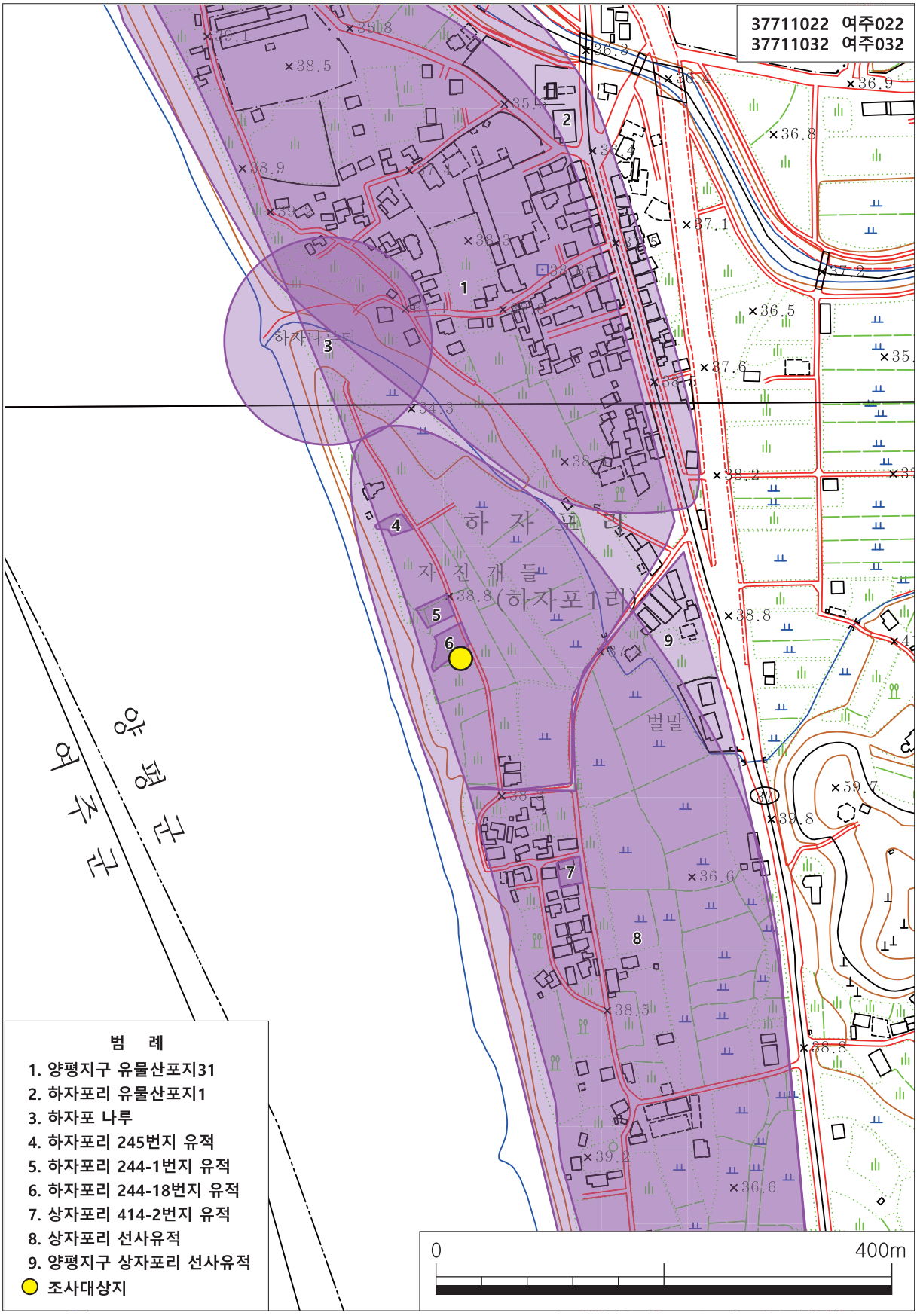
삼국시대에는 한강유역을 두고 삼국간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관방유적으로 파사성있다. 조사대상지에서 북쪽으로 50m 떨어져 '양평 하자포리 224-1번지 유적[14], 북쪽으

---

4) 楊平郡誌編纂委員會, 1995, 『楊平郡誌』, 楊平郡.
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양평군·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6) 손보기 외, 1974, 「양평군 양근리 앙덕리지역 유적발굴보고」, 『팔당·소양댐수몰지구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7)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楊平郡』.
8)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楊平郡』.
9)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楊平郡』.
10)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楊平郡』.
11)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楊平郡』.
12) 손보기 외, 1974, 「양평군 양근리 앙덕리지역 유적발굴보고」, 『팔당·소양댐수몰지구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3) 한양문화재연구원, 2019, 「133.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
14) 경기도자박물관, 2016, 「양평 하자포리(244-1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로 650m 떨어져 '양평 하자포리 284-2번지 유적[15]'이 위치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 등 생활유적이 조사되었다. 그 외의 유적으로 양평 하자포리 유물산포지1, 양평 상자포리 선사유적1, 양평 상자포리 유물산포지1 등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조사대상지에서 남쪽으로 200m 이격하여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16]'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하는 양평군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1908년(순종 원년) 반포된 칙령에 따라 "경기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을 합하여 양평군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이전에는 양근군과 지평군으로 각기 다른 행정구역의 변천을 보였다.

삼국시대의 양근군은 처음에는 백제에 속했으나, 475년(장수왕 65) 고구려의 남진으로 고구려의 양근현(楊根縣)이 되었다. 551년(진흥왕 12) 신라의 북진과정에서 충주·여주·포천 등과 함께 신라의 지배권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통일 후 경덕왕 때는 빈양현(濱陽縣)으로 개명되어 기천군(沂川郡, 여주)의 영현이 되었다.

889년(진성여왕 3)에는 궁예가 이 지방을 공략하여 그들의 활동무대로 삼기도 하였다. 지평군은 고구려시대에는 지현현(砥峴縣)으로 불리다가 삼국통일 후 경덕왕 때 지평현(砥平縣)으로 개칭되어 삭주(朔州, 춘천)의 영현이 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양근군은 940년(태조 23)에 다시 양근현으로 되었고, 1018년(현종 9)에는 잠시 광주목(廣州牧)에 소속되었다가 1175년(명종 5) 양근현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1257년(고종 44) 영화(永化)로 개칭되었으며, 1269년(원종 10)에는 익화현(益和縣)으로 개칭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다시 양근군으로 승격되었다. 지평현은 1018년 양근과 함께 광주 임내에 속하였다. 우왕이 즉위한 뒤 그의 유모 장씨의 고향이라 하여 따로 감무가 두어졌다가 1388년(우왕 14) 혁파되었다. 1391년(공양왕 3) 채철장(採鐵場)이 설치되어 철장감(鐵場監)을 겸무하도록 하였다.

양근군은 조선시대에도 별다른 개혁없이 그대로 존치되었으나 지평현은 1413년(태종 13) 전례에 의해 현감이 두어졌다가 숙종 연간에 잠시 양근군에 합쳐진 뒤 곧 분리되어 현감이 배치되었다. 1594년(선조 27) 지평현에 운계서원(雲谿書院)이 건립되어 1714년(숙종 40) 사액되었다.

1895년 양근군과 지평군으로 개편되었으며,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병합되어 양평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남종면을 광주군으로 이속하였다. 1938년 갈산면을 양평면으로 고쳤다. 1942년 군행정구역변경 때 설악면이 가평군으로 이속되었다. 1963년 1월 1일 여주군 개군면이 편입되었고, 1973년 7월 1일 서종면 삼회리와 노문리 일부가 가평군 외서면과 설악면으로 각각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1일 양평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4월 6일에는 양서면 국수출장소가 설치되었다. 2006년 12월 1일 지제면이 지평면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양평읍·강상면·강하면·양서면·옥천면·서종면·단월면·청운면·양동면·지평면·용문면·개군면 등 1읍 11면을 관할하고 있다.

---

15) 한국문화재재단, 2018, 「5. 양평 하자포리 284-2번지 외 2필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인천·경기1-』.

16) 한양문화재연구원, 2019, 「133.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

【표 1】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하자포리 유물산포지1	0m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楊平郡』	
2	양평 하자포리 244-18번지 유적	북쪽 0m	원삼국~삼국시대 생활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8,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양평 하자포리 244-18번지 유적]」	
3	양평 하자포리 224-1번지 유적	북쪽 50m	삼국시대 생활유적	경기도자박물관, 2016, 「양평 하자포리(244-1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	양평 하자포리 284-2번지 외 2필지 유적	북쪽 650m	삼국시대 생활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8, 「5. 양평 하자포리 284-2번지 외 2필지 유적」,『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인천 · 경기1-』	
5	하자포리 유물산포지2	북쪽 784m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楊平郡』	
6	양평 하자포리 337번지 유적	북쪽 852m	삼국시대 생활유적	(재)한성문화재연구원, 2015, 「양평 하자포리 337, 336-2번지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7	양평 하자포리 342번지 유적	북쪽 930m	철기시대 생활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5, 「1. 양평 하자포리 342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 · 강원1-』	
8	양평 하자포리 245번지 유적	북쪽 120m	원삼국~통일신라 시대 생활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8,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양평 하자포리 245번지 유적」	
9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남쪽 200m	원삼국 · 통일신라 시대 생활유적	한양문화재연구원, 2019, 「133.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	
10	상자포리 유물산포지2	남쪽 802m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楊平郡』	
11	양평지구 유물산포지15	서쪽 880m	시대미상 유물산포지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09,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강2권역 화도 · 양평지구-』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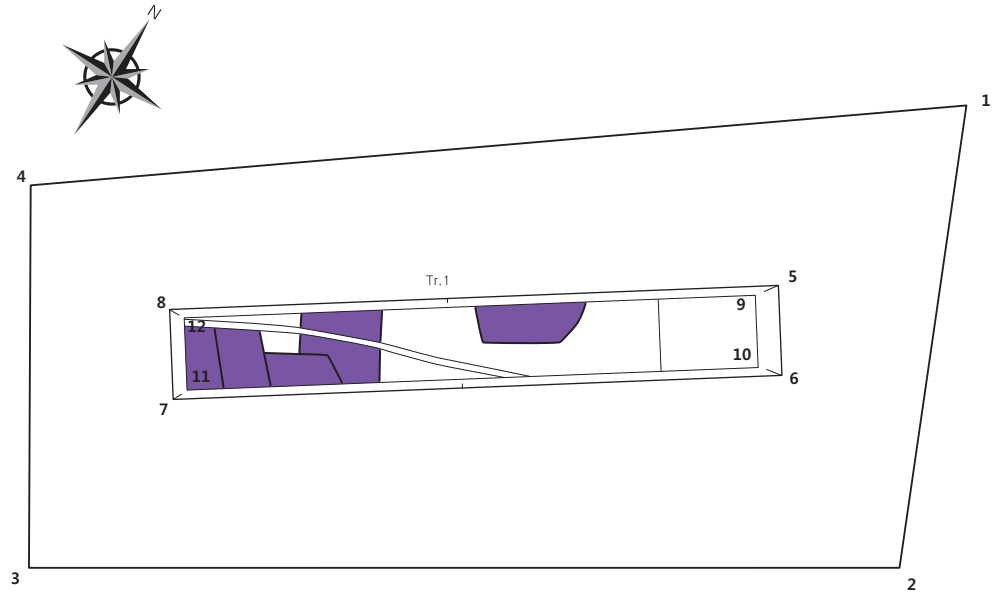
1.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위한 트렌치는 조사대상지의 입지여건 평면형태를 고려하여 중앙부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이 15m · 너비 2m 규모의 트렌치 1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트렌치 제토 및 유구 확인은 전체적인 층위를 파악하면서 실시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생토면까지 제토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토는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제토를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정리하면서 퇴적양상과 유구 및 유물의 유존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적의 전체적인 퇴적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트렌치 북동쪽에 탐색 피트를 설치하여 170㎝까지 하강하였다. 토층 퇴적양상은 트렌치의 동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토 및 경작층(부식토) → 자연퇴적층 → 제2문화층(삼국시대) → 제1문화층(원삼국시대) → 생토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문화층(제2문화층)은 지표 하 30㎝에서 확인된 석립이 소량 혼입된 암갈색사질점토로 점성은 강한 편이다. 층 상부에서는 수혈유구가 확인되었고, 내부에서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층은 약 15~25㎝ 정도 두께로 퇴적되었다.

원삼국시대 문화층(제1문화층)은 지표 하 55㎝에서 확인된 석립이 소량 혼입된 회갈색사질점토로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536102.700m	GPS4	X	536087.450m	GPS7	X	536084.810m	GPS10	X	536094.080m
	Y	247475.960m		Y	247456.590m		Y	247462.820m		Y	247475.320m
	Z	38.820m		Z	38.820m		Z	38.480m		Z	37.250m
GPS2	X	536091.400m	GPS5	X	536096.040m	GPS8	X	536086.850m	GPS11	X	536085.270m
	Y	247481.290m		Y	247474.590m		Y	247461.450m		Y	247463.020m
	Z	39.150m		Z	38.900m		Z	38.630m		Z	38.080m
GPS3	X	536079.010m	GPS6	X	536094.200m	GPS9	X	536095.500m	GPS12	X	536086.820m
	Y	247462.040m		Y	247475.990m		Y	247474.150m		Y	247461.910m
	Z	38.820m		Z	38.880m		Z	37.330m		Z	38.060m

도면 4. 표본조사 트렌치배치도

점성이 약한 편이다. 층의 두께는 약 25~45㎝이며, 트렌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두터워진다. 층 상부에서 수혈유구와 층 내에서 경질무문토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표본조사 결과 트렌치 내에서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삼국(백제)시대 문화층에서 수혈유구 6기와 타날문토기편이 출토되었고 원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수혈유구 1기와 경질무문토기편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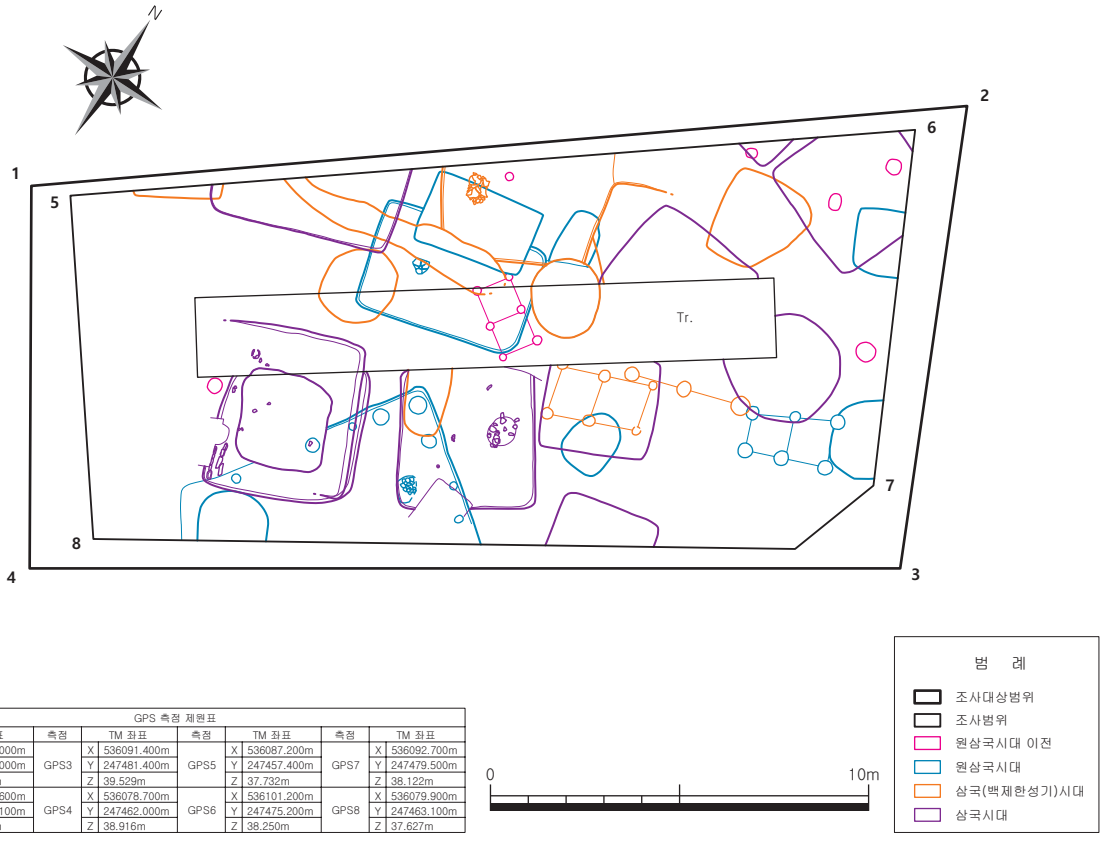
2. 발굴조사

발굴조사를 위한 제토는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층의 상면을 중심으로 전면 기계 제토하였으며, 유구 확인작업은 문화층에 인접해서는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의 퇴적양상은 남쪽 경계벽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토 및 복토층(1층) - 삼국시대 문화층(2층) -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3층) - 원삼국시대 문화층(4층) - 자연퇴적층(5층) -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6층)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6층 아래로 생토인 황적색점토가 확인되었다.

1층은 표토 및 복토층인 흑갈색사질점토로 약 40㎝ 두께로 확인되었다. 층 내부에는 농업용 폐비닐과 소량의 생활 쓰레기가 혼입되어 있었다.

2층은 명갈색사질점토로 삼국시대 유구가 확인된 층이다. 지표 하 40㎝에서 노출되었으며, 층의 두께는 30㎝이다. 층의 상면은 수평으로 삭토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조사대상지를 경작지로 활용하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536087.000m	GPS3	X	536091.400m	GPS5	X	536087.200m	GPS7	X	536092.700m
	Y	247456.000m		Y	247481.400m		Y	247457.400m		Y	247479.500m
	Z	38.974m		Z	39.529m		Z	37.732m		Z	38.122m
GPS2	X	536102.600m	GPS4	X	536078.700m	GPS6	X	536101.200m	GPS8	X	536079.900m
	Y	247476.100m		Y	247462.000m		Y	247475.200m		Y	247463.100m
	Z	39.421m		Z	38.916m		Z	38.250m		Z	37.627m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기 위한 경지정리과정에서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3층은 암갈색사질점토로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유구가 확인되는 층이다. 지표 하 70㎝에서 노출되었으며, 층의 두께는 20㎝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간 경사져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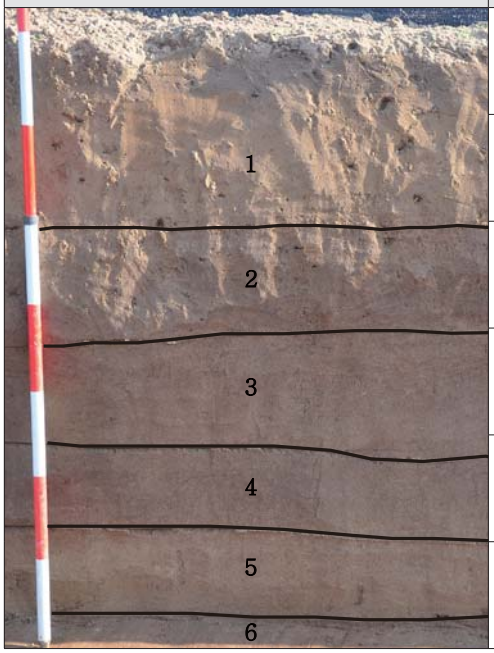
4층은 원삼국시대 유구가 확인된 회갈색사질점토층이다. 지표 하 90㎝에서 노출되었으며, 층의 두께는 20㎝이다. 동쪽에서 서쪽에 위치한 남한강 쪽으로 약하게 경사져 내려가는 양상을 보인다.

5층은 자연퇴적층인 황색사질토로 다른 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질이 강한 층인데 남한강의 범람으로 유입된 퇴적층이다. 지표 하 110㎝에서 노출되었으며, 층의 두께는 20㎝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하게 경사진 원지형을 따라 퇴적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다.

6층은 원삼국시대 이전에 축조된 유구가 확인된 자색사질토로 굴립주건물지와 주혈이 확인되는 층이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추정하기 어렵다. 지표 하 130㎝에서 노출되었으며, 층의 두께는 10㎝ 정도로 다른 층에 비하여 퇴적층 두께가 얇은 편이다.

토층 퇴적양상으로 보아 조사대상지는 남한강의 동쪽에 형성된 자연제방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하게 경사져 내려가는 원지형 위에 자연퇴적된 자색사질토를 기반으로 굴립주건물지를 축조했던 원삼국시대 이전 시기의 문화층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남한강의 범람으로 황색사질토가 유입되어 퇴적된 이후 회갈색사질점토 – 암갈색사질점토 – 명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각 층에서 원삼국시대 – 삼국(백제한성기)시대 – 삼국시대 문화층이 형성되었다. 이후 경작지로 활용하기 위해 삼국시대 문화층 상면을 수평으로 삭평하고 복토하여 현 지형에 이른 곳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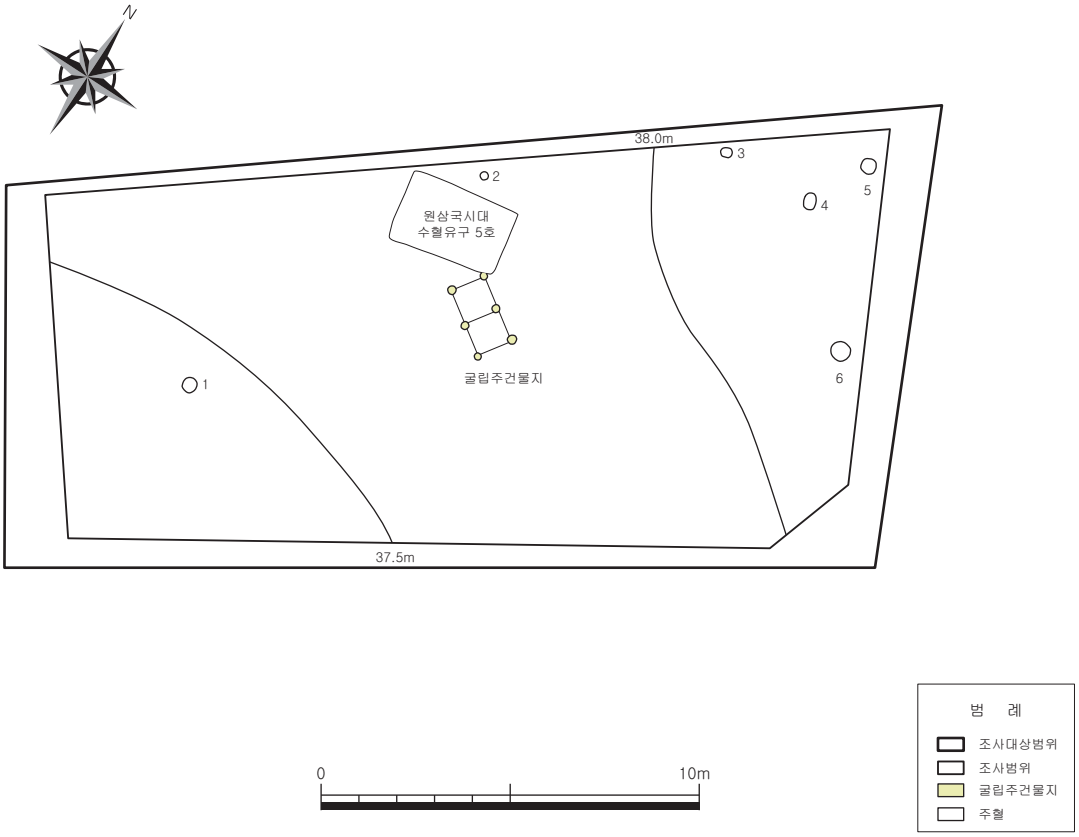
【표 2】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남벽)

토층	내용	
	1층 : 흑갈색사질점토	표토 및 복토층 (두께 40㎝)
	2층 : 명갈색사질점토	삼국시대 문화층 (지표 하 40~70㎝)
	3층 : 암갈색사질점토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 (지표 하 70~90㎝)
	4층 : 회갈색사질점토	원삼국시대 문화층 (지표 하 90~110㎝)
	5층 : 황색사질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110~130㎝)
	6층 : 자색사질토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 (지표 하 130~140㎝)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과 원삼국시대 문화층,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문화층 등 총 4개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유구는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에서 굴립주 건물지 1동 · 주혈군(6개), 원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2동 · 굴립주건물지 1동 · 수혈유구 6기,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1동 · 구상유구 1기 · 굴립주건물지 2동 · 수혈유구 6기, 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4동 · 수혈유구 7기 등 31기가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에서는 굴립주건물지 1동 · 주혈 6개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축조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도면 6.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 유구배치도

1) 굴립주건물지

가. 유구(도면 7, 도판 4~5-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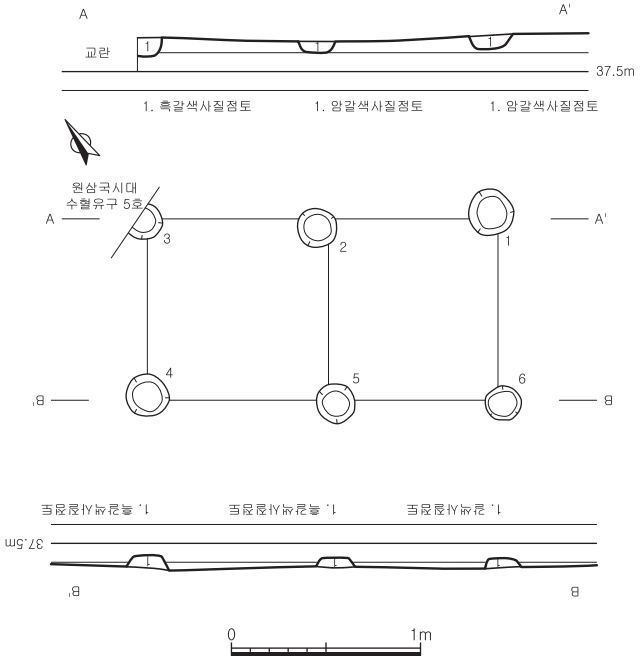
조사구역 중앙 해발 37.7m에서 확인되었으며,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5호에 의해 북서모서리 주혈이 1/3정도 파괴되었다.

자색사질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주혈의 배치양상으로 보아 평면 장방형의 굴립주로 판단되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 55°-W)향이다. 확인된 주혈은 6개로 건물지 구조는 정면 2칸 · 측면 1칸으로 판단된다. 정면 주혈 중심간 거리는 북쪽열은 서쪽에서부터 90㎝ · 93㎝, 남쪽열은 서쪽에서 부터 100㎝ · 90㎝이다. 측면 주혈 중심간 거리는 서쪽은 93㎝, 동쪽은 100㎝이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고,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내부 토층에서 목주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혈 규모는 북서 모서리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름 19㎝ · 깊이 10㎝, 지름 20㎝ · 깊이 6㎝, 지름 23㎝ · 깊이 7㎝, 지름 19㎝ · 깊이 5㎝, 지름 20㎝ · 깊이 5㎝, 지름 22㎝ · 깊이 8㎝이다. 내부에는 북서모서리부터 흑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흑갈색사질점토, 흑갈색사질점토가 각각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7. 원삼국시대 이전 굴립주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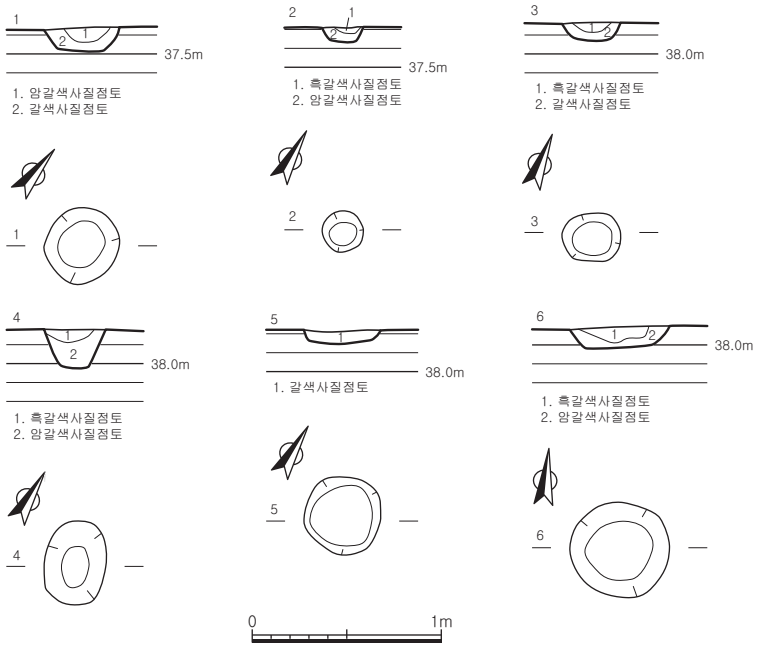
2) 주혈군

가. 유구

주혈은 모두 6개가 조사되었는데, 조사구역 북쪽경계 부근과 북서쪽 경계 부근 그리고 남쪽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어 주혈군으로 통칭하였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이나 주혈 4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2~53㎝ · 너비 22~50㎝ · 깊이 6~24㎝ 정도이다. 내부에서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 주혈군 속성표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단면 형태	규모(㎝)			내부토
					길이	너비	깊이	
1	8-1	5-⑬⑭	원형	U	40	40	12	1.암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점토
2	8-2	5-⑮⑯	원형	U	22	22	7	1.흑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사질점토
3	8-3	5-⑰⑱	원형	U	31	25	10	1.흑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점토
4	8-4	5-⑲⑳	타원형	U	45	32	24	1.흑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사질점토
5	8-5	5-㉑㉒	원형	U	41	41	6	1.갈색사질점토
6	8-6	5-㉓㉔	원형	U	53	50	11	1.흑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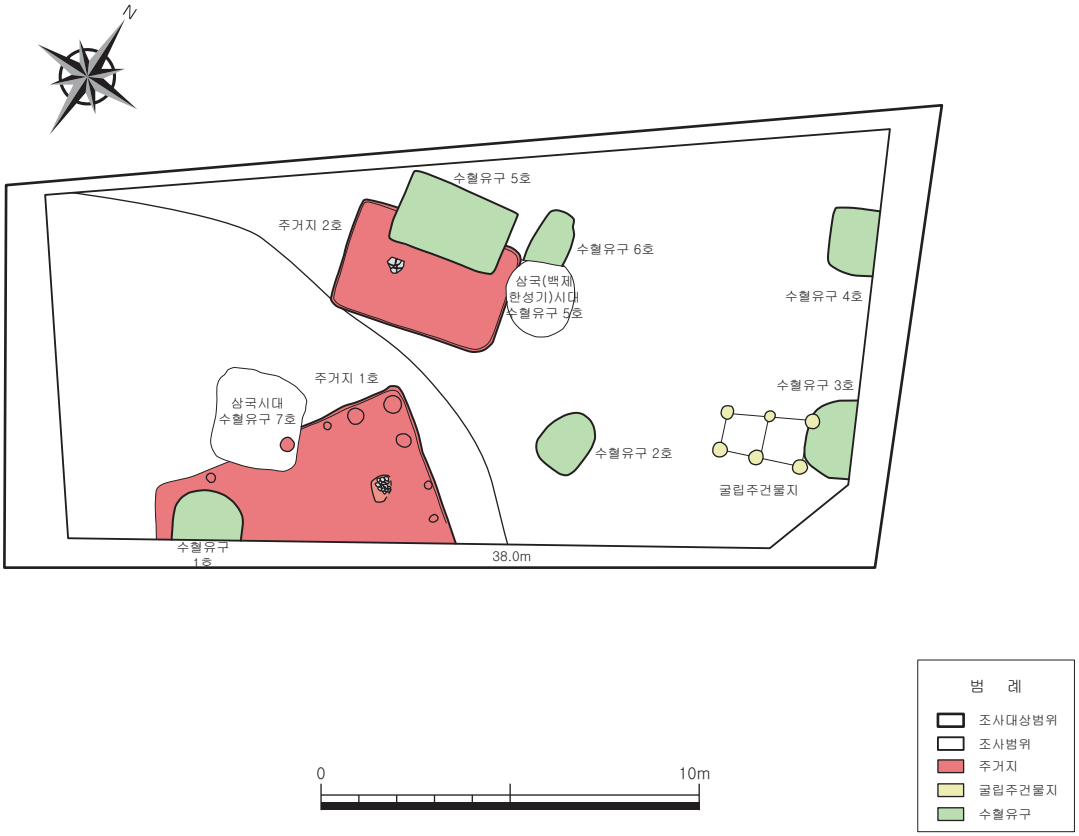


도면 8. 원삼국시대 이전 주혈군

〈원삼국시대〉

원삼국시대 문화층에서는 주거지 2동 · 굴립주건물지 1동 · 수혈유구 6기 등 9기가 확인되었고, 유

물은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 외반구연호 · 저부 등이 출토되었으며, 마제석검 1점이 제토과정에서 수습되었다.



도면 9. 원삼국시대 유구배치도

1) 주거지

(1) 주거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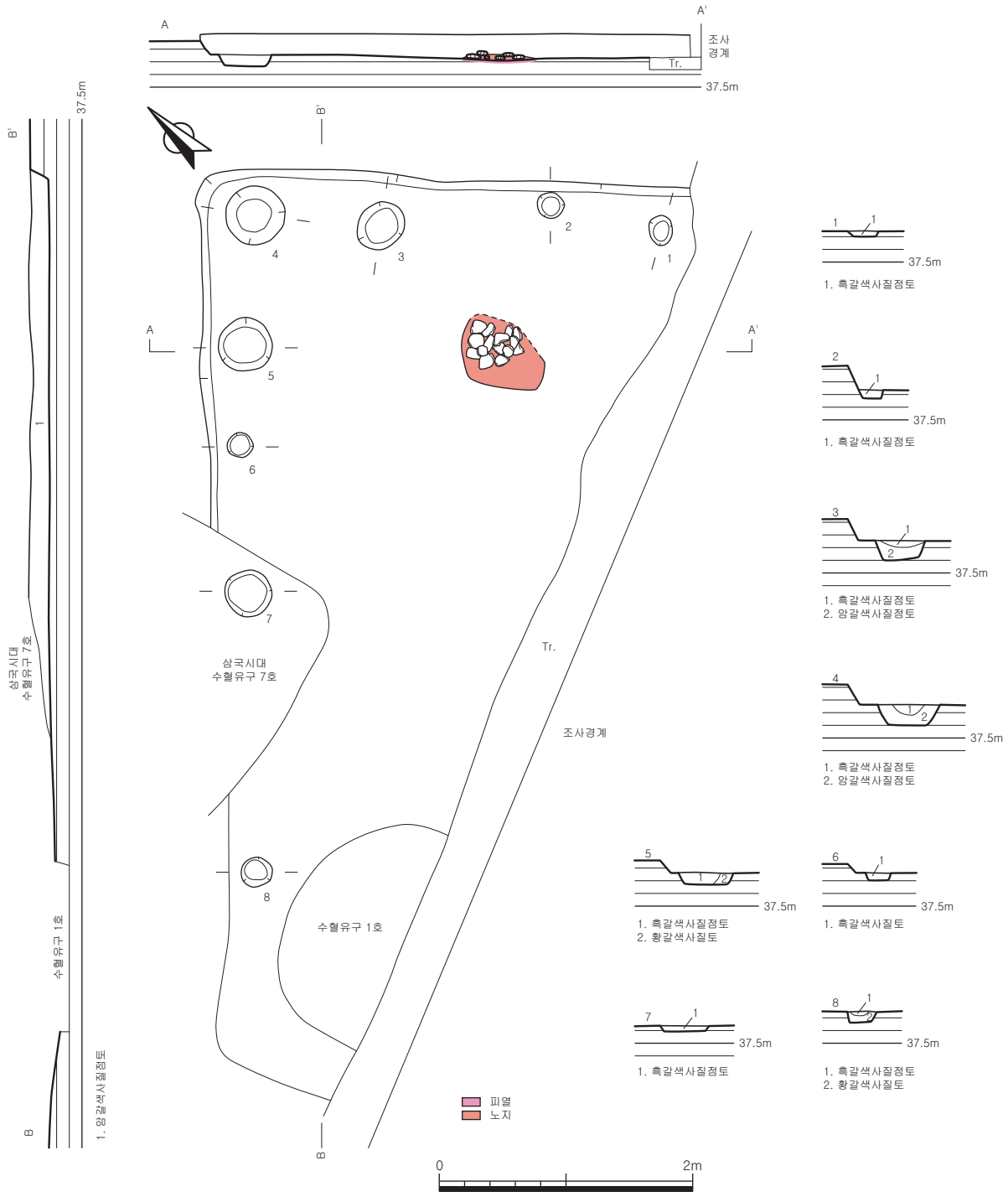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0, 도판 6-②~8)

조사구역 남쪽 해발 37.9m에 확인되었으며, 남동쪽 조사경계 밖으로 북동벽 일부 · 남서벽 일부가 연장된다. 삼국시대 수혈유구 7호에 의해 북서벽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1호에 의해 남서쪽 일부가 파괴되었다. 북동쪽으로 2.8m 이격하여 수혈유구 2호가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 1.5m 이격하여 주거지 2호가 인접하고 있다.

회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35°-E)향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734㎝ · 너비 390㎝ · 최대깊이 16㎝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처리되었고, 바닥면은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어 고르지 못하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부에서 북동쪽에 치우쳐 확인되었는데, 동쪽부분이 일부 유실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존 양상으로 보아 방형 또는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규모는 길이 65㎝ · 너비 50㎝이고, 최대 깊이 3㎝ 정도이다. 노지는 잔존양상으로 보아 부석심 또는 점토띠식으로 보이며, 주거지 바닥면을 중앙부가 약간 오목하게 굴착한 후 10~13㎝ 정도 크기의 납작한 천석을 1단 깔았다. 잔존하는 돌의 피열 상태를 볼 때 천석 상면에서 점토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점토를 발라서 직접적인 열에 의한 파손을 막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0.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주혈은 벽면을 따라 8개가 확인되었는데, 간격은 90~120㎝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잔존 규모는 지름 20~45㎝ · 깊이 6~8㎝ 정도이다. 주혈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황갈색사질토, 흑갈색사질토 등이 퇴적되었으며, 토층에서 목주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내부 퇴적토 제거 과정에서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편 1점 · 외반구연호 1점 · 저부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편(도면 11-1, 도판 9-1)

구연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7.5YR 7/6) 또는 명적갈색(5YR 6/4)이며, 외면에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2.4㎝, 두께 0.8~1.1㎝

2.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구연부편(도면 11-2, 도판 9-2)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적황색(7.5YR 7/6) 또는 명적색(2.5YR 6/8), 내면과 속심은 분홍색(7.5YR 8/4)이며, 외면에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관찰되며,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0.5㎝, 두께 1.0~1.3㎝

3.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1-3, 도판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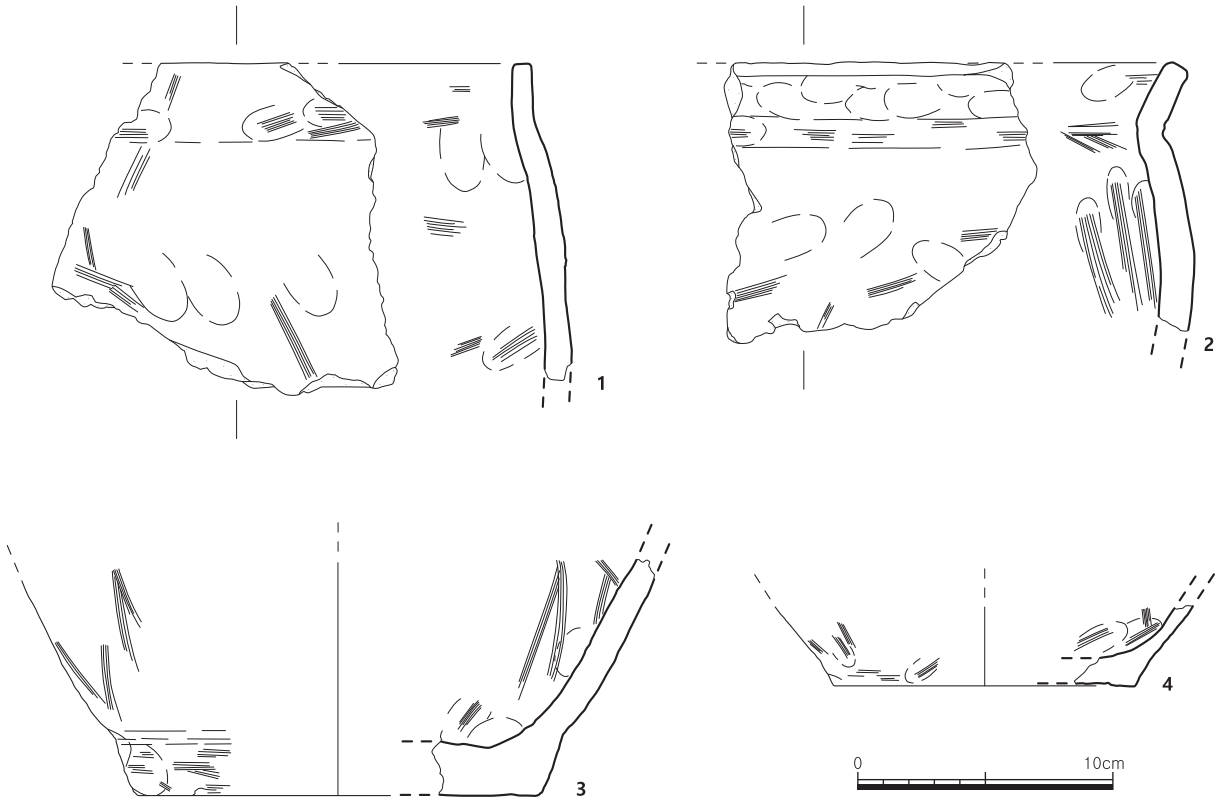
동체부의 일부와 저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황갈색(10YR 5/4), 내면은 적황색(5YR 6/6), 속심은 암회색(7.5YR 4/1)이고, 외면에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바닥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축약된 저부에서 벌어져 올라간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관찰되며,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9.2㎝, 복원저경 16.0㎝

4.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1-4, 도판 9-4)

동체부의 일부와 저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암회갈색(10YR 4/2), 내면은 분홍색(7.5YR 7/4), 속심은 적황색(5YR 7/6)이고, 내면과 속심에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바닥은 약간 들린 평저이고, 동체부는 벌어져 올라간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관찰되며,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1㎝, 복원저경 11.8㎝



도면 11.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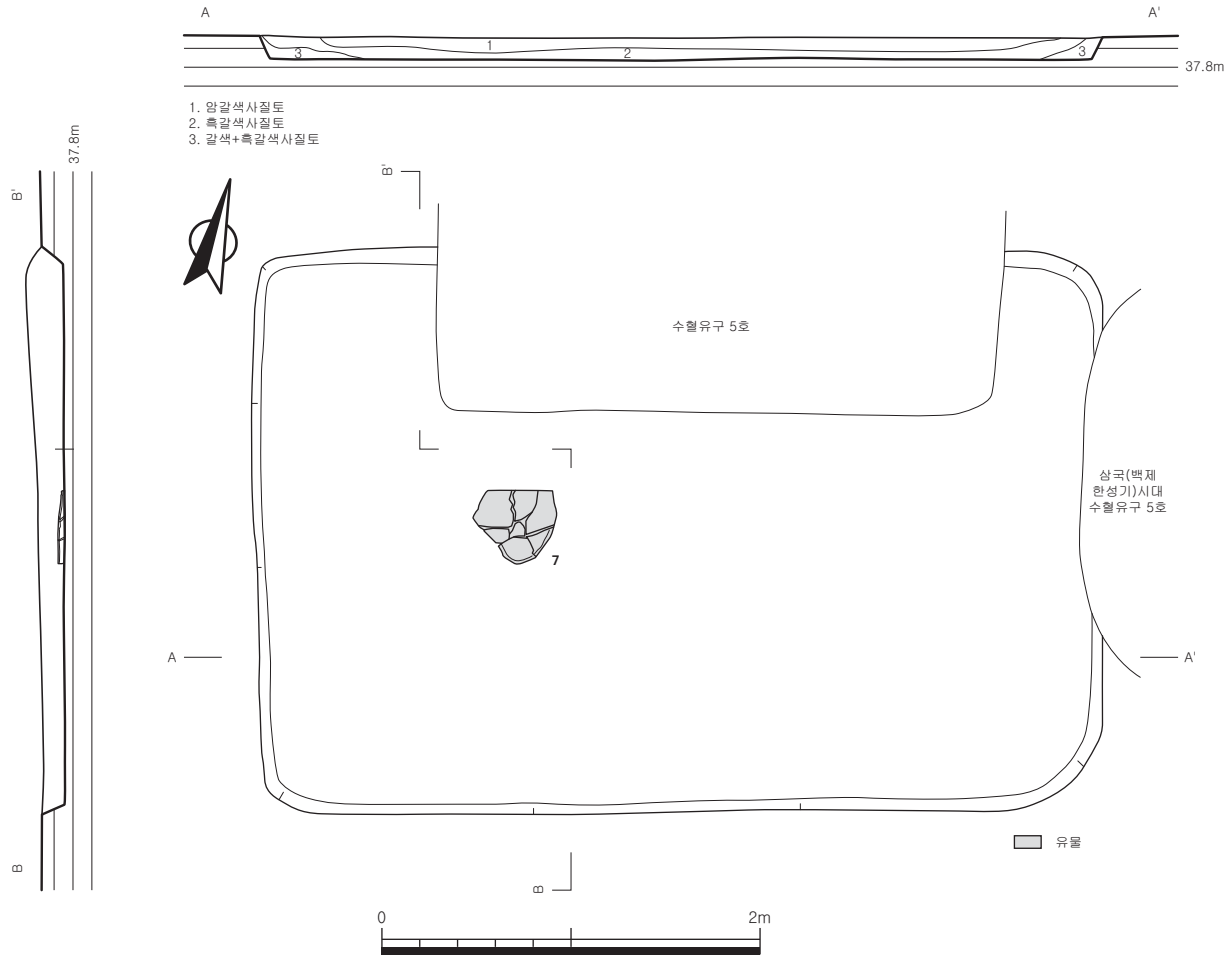
(2) 주거지 2호

가. 유구(도면 12, 도판 9-①~11-③)

조사구역 중앙부에서 북서쪽으로 치우친 해발 37.9m에 확인되었다.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5호에 의해 동벽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5호에 의해 북쪽 일부가 파괴되었다. 북쪽으로 수혈유구 6호가 인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1.5m 이격하여 주거지 1호가 위치하고 있다.

회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 76°-E)향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445㎝ · 너비 300㎝ · 최대깊이 20㎝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토 - 흑갈색사질토 - 갈색+흑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처리되었고, 바닥면은 부분적으로 굴곡되어 고르지 못하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바닥면에서 경질무문토기 소호편 1점이 출토되었으며, 내부퇴적토 제거 과정에서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1점과 경질무문토기 호 동체부편 1점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2.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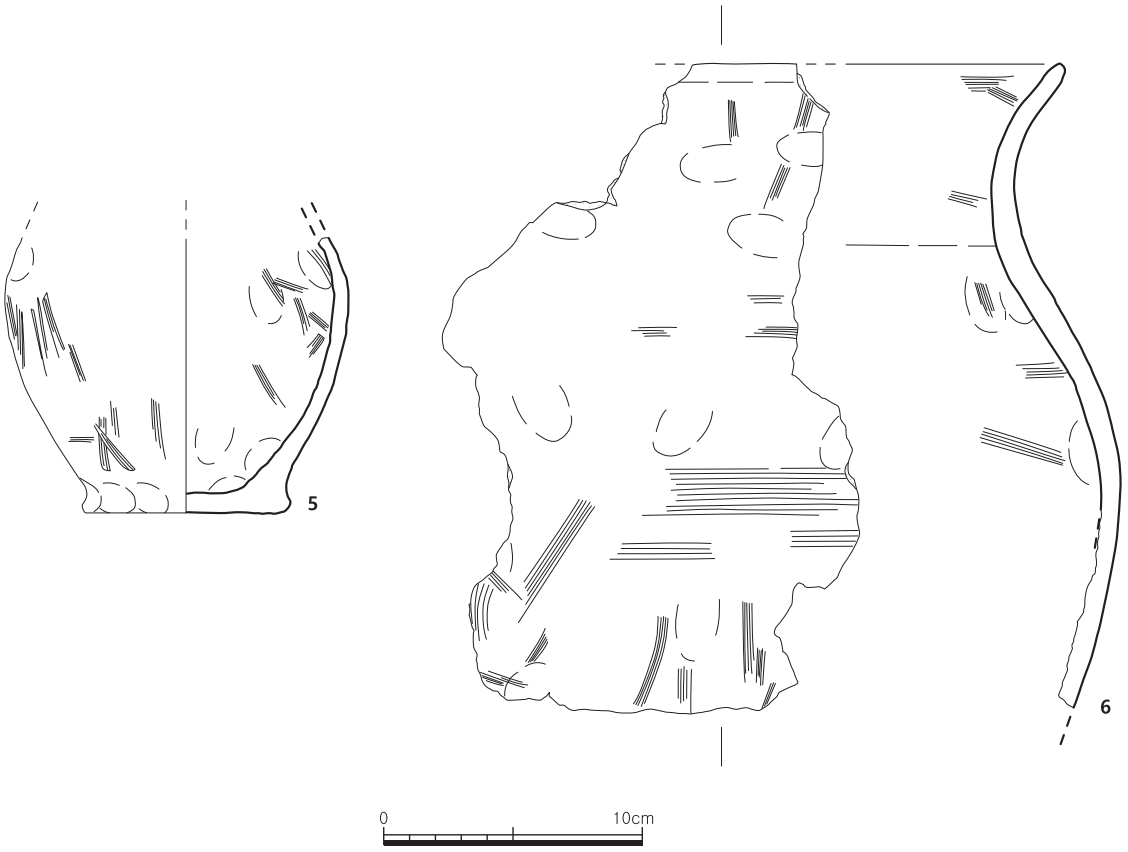
5. 경질무문토기 소호(도면 13-5, 도판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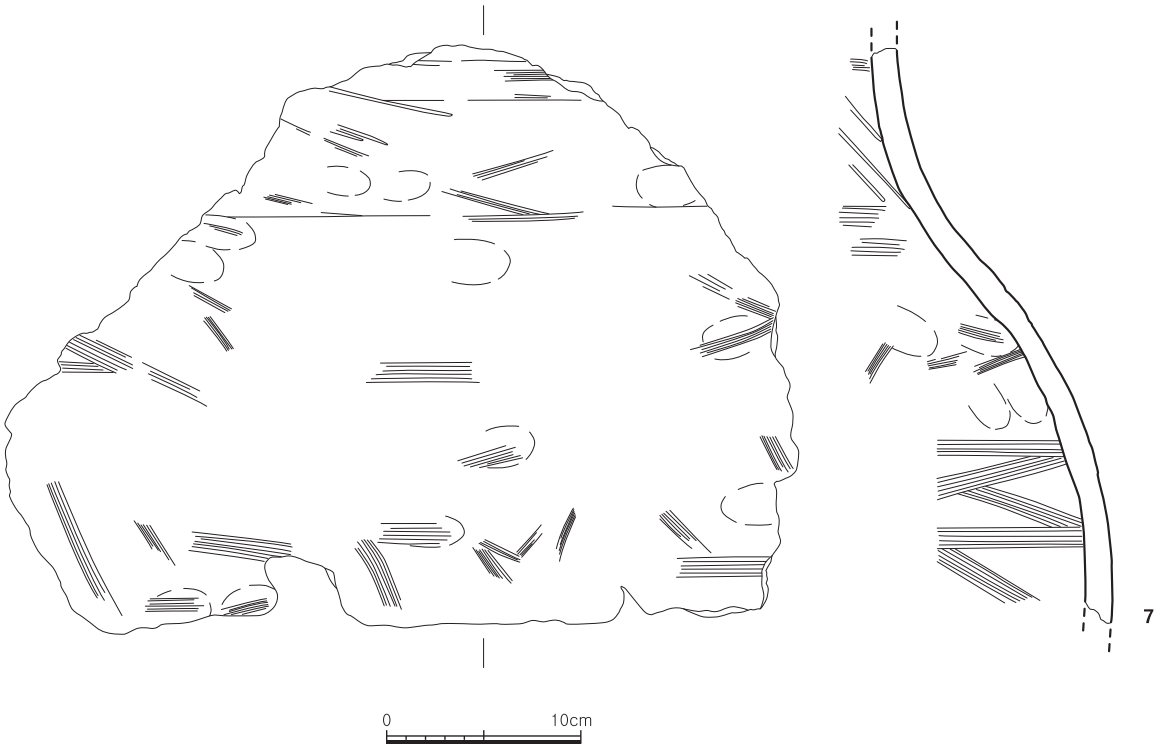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7.5YR 6/6)이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바닥은 평저이고 동체부와 저부가 접하는 부분은 지두로 눌러 단을 형성하였다. 동체부는 저부에서 벌어져 올라가며, 동최대경은 중상위에 위치한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관찰되고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0.6㎝, 저경 8.0㎝

6.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구연부편(도면 13-6, 도판 11-6)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갈색(7.5YR 5/4) 또는 분홍색(7.5YR 7/3)이며,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벌





도면 13.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어져 내려가 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내경하여 내려간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4.8㎝, 두께 0.7~1.0㎝

7.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동체부편(도면 13-7, 도판 11-7)

경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적황색(7.5YR 6/6), 내면은 명적황색(7.5YR 6/6)이며,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경부는 직립에 가깝게 내만하여 올라가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표면에는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9.5㎝, 두께 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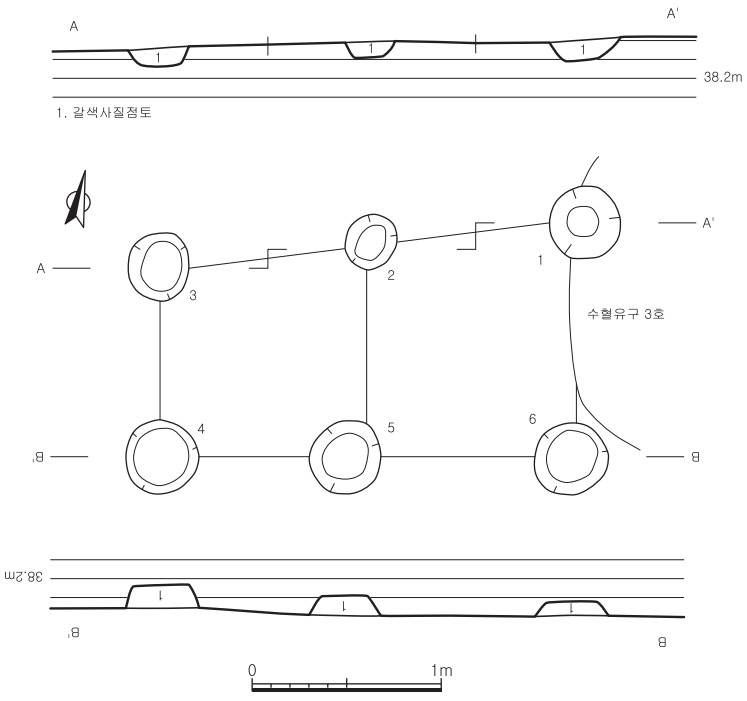
2) 굴립주건물지

가. 유구(도면 14, 도판 12~13)

조사구역 동쪽 해발 38.4m에서 확인되었으며, 수혈유구 3호의 서벽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회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주혈의 배치양상으로 보아 건물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운 제형이며, 주혈은 6개로 건물지의 구조는 정면 2칸 · 측면 1칸으로 판단된다. 주혈 중심간 거리는 정면 100~120㎝ · 측면 100~125㎝이다. 장축방향은 동-서(N- 69°-E)향이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고, 단면은 'U'자형이다. 내부 토층에서 목주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혈 규모는 북서 모서리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름 33㎝ · 깊이 10㎝, 지름 28㎝ · 깊이 9㎝, 지름



도면 14. 원삼국시대 굴립주건물지

38㎝ · 깊이 11㎝, 지름 38㎝ · 깊이 8㎝ 지름 38㎝ · 깊이 11㎝, 지름 38㎝ · 깊이 11㎝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 수혈유구 1~6호

가. 유구

수혈유구는 6기가 조사되었는데, 수혈유구 1호는 조사경계 남쪽 외부로 연장되고, 수혈유구 3호와 4호는 조사경계 동쪽 외부로 연장된다. 수혈유구 1호는 주거지 1호를 파괴하였으며, 수혈유구 5호는 주거지 2호를 파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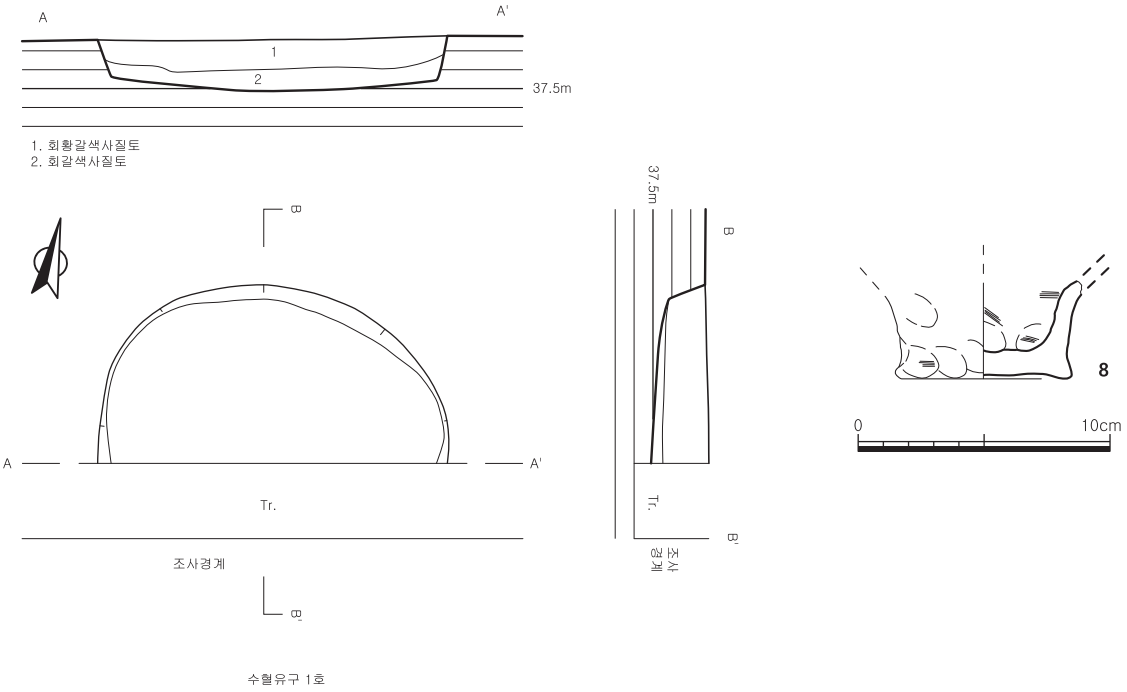
대부분 회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1~3호는 타원형이고, 4~6호는 장방형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였고, 바닥면은 대체로 고른 편이다.

유물은 수혈유구 1호 내부 퇴적토 제거과정에서 경질무문토기 저부 1점, 수혈유구 3호 내부토 제거과정에서 홍도 구연부편 1점, 경질무문토기 저부 1점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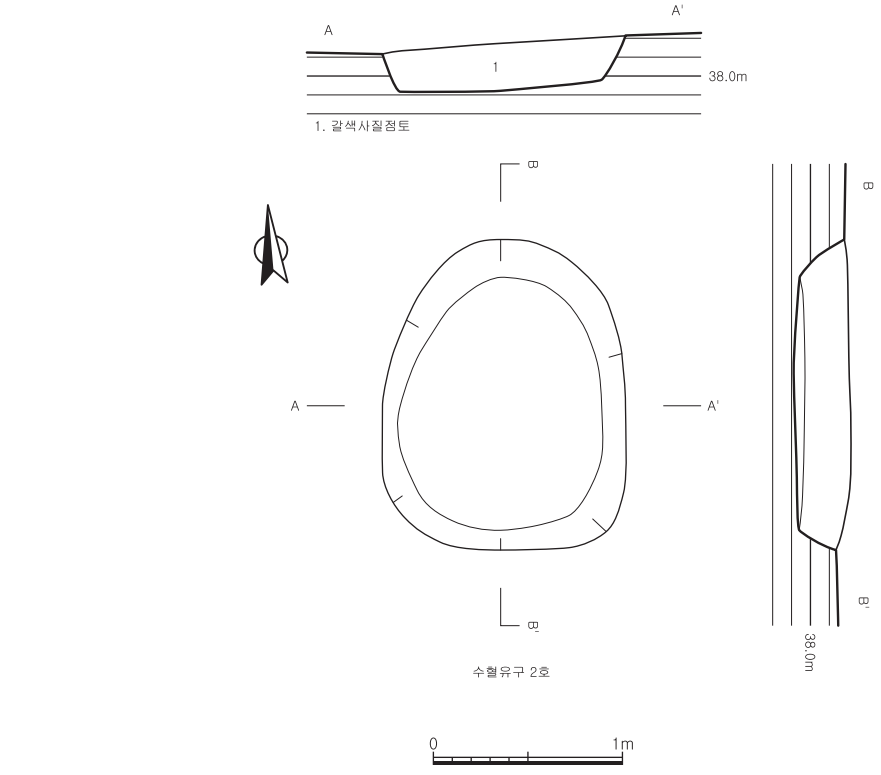
조사된 수혈유구의 현황은 아래의【표 4】과 같다.

【표 4】 수혈유구 속성표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15	14-①~③	타원형	-	184	(134)	27	1.회황갈색사질토 2.회갈색사질토	경질무문토기 저부 1
2	15	14-④~⑦	타원형	-	164	128	25	1.갈색사질점토	
3	16	15-①~③	타원형	-	(205)	(75)	23	1.갈색사질토 2.갈색사질점토 3.황갈색사질토	홍도 구연부편 1 경질무문토기 저부 1
4	16	15-④~⑥	장방형	-	(175)	(85)	78	1.회갈색사질토	
5	17	16-①~④	장방형	N-80°-E	98	95	40	1.암갈색사질점토 2.흑갈색사질점토 3.회갈색사질점토 4.회백색사질토 5.황갈색점토 6.회갈색사질점토 7.흑갈색점토 8.회갈색사질토 9.흑갈색사질점토	
6	17	16-⑤~⑧	장방형	N-13°-W	94	85	24	1.흑갈색사질점토 2.흑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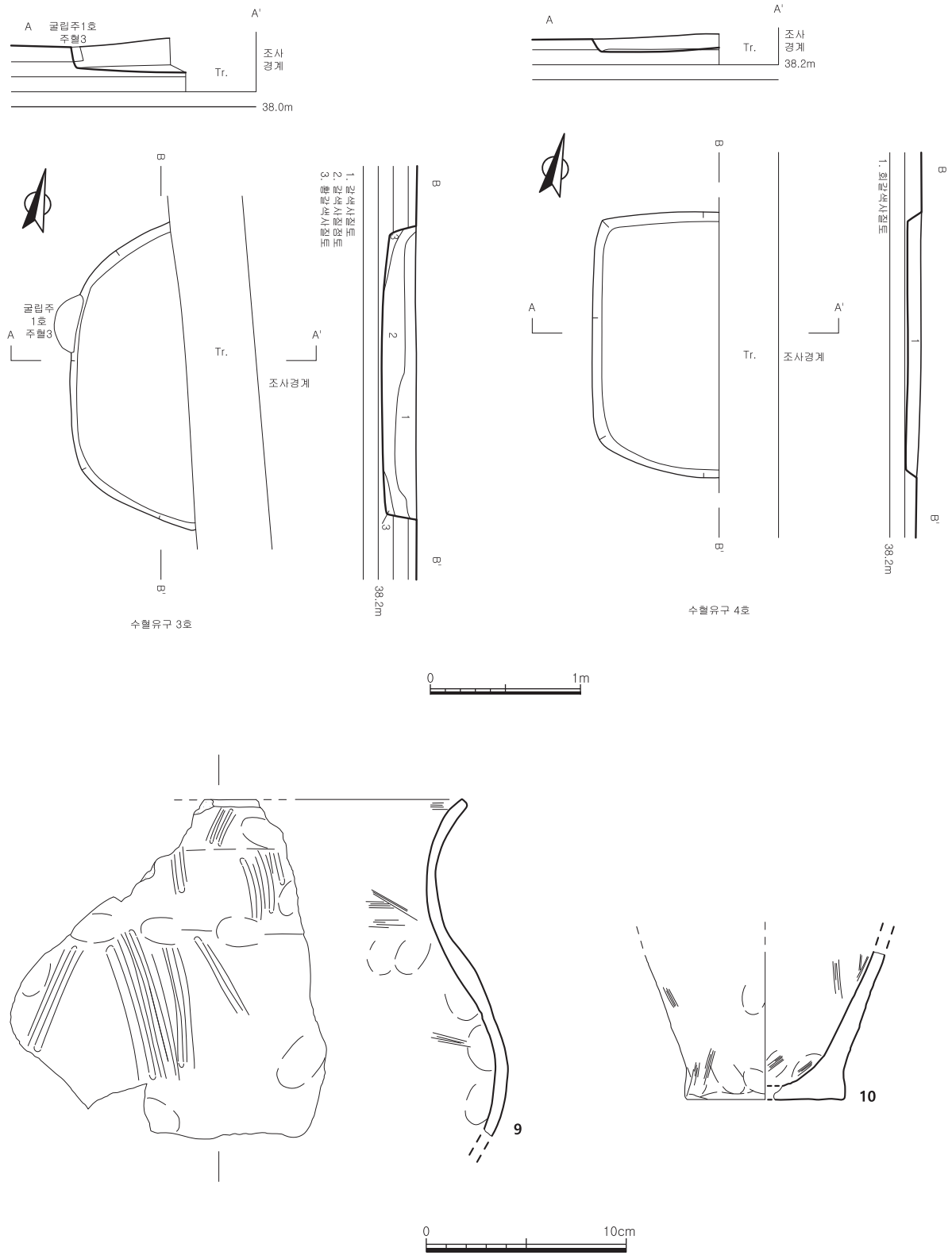


수혈유구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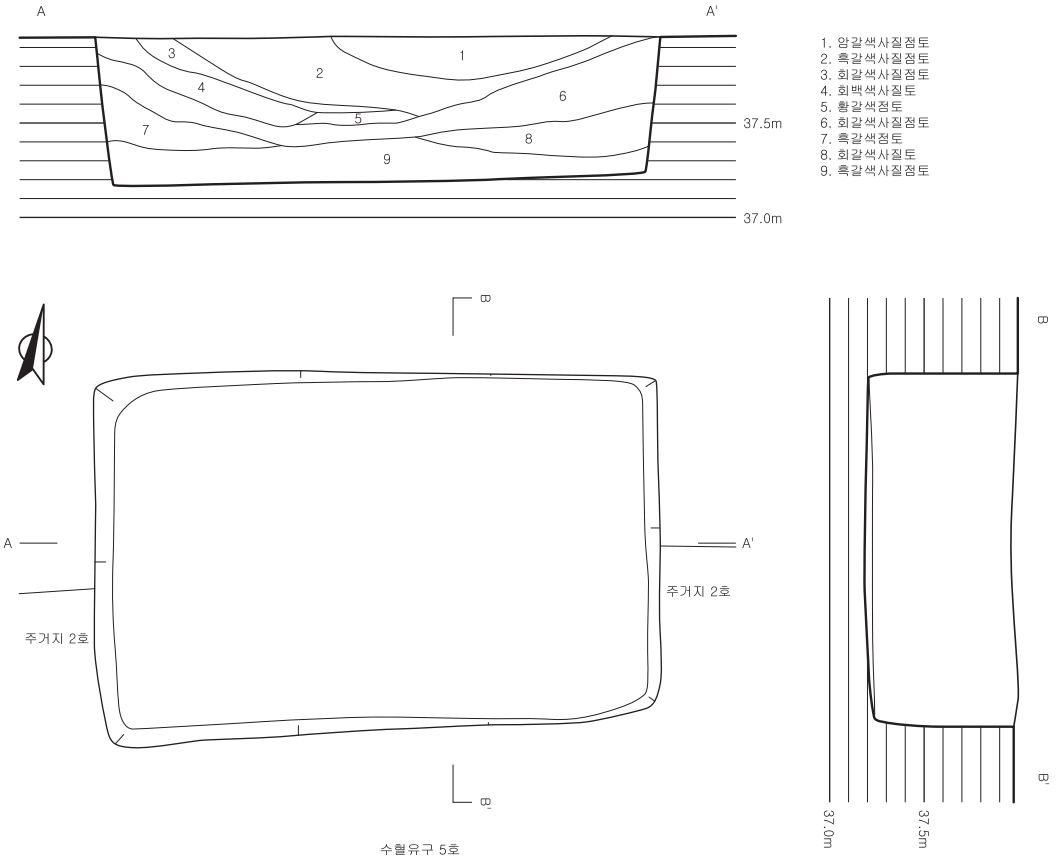


수혈유구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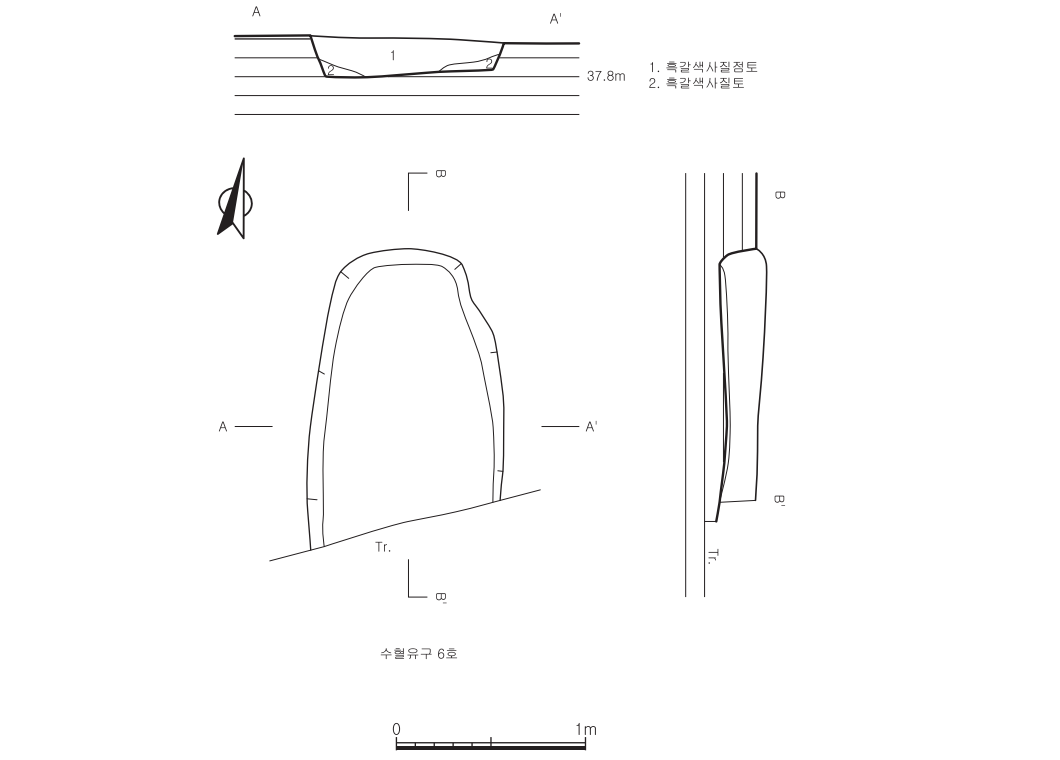
도면 15.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1 · 2호 및 1호 출토유물



도면 16.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3 · 4호 및 3호 출토유물



수혈유구 5호



수혈유구 6호

0 1m

도면 17.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5 · 6호

나. 유물

8.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5-8, 도판 14-8)

수혈유구 1호에서 출토되었고 동체부의 일부와 저부가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황적색(5YR 5/6), 내면과 속심은 적회색(5YR 5/2)이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바닥은 들린 평저로 바닥 가장자리 안쪽에 지두압흔이 뚜렷이 돌아가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직립에 가깝게 벌어져 올라간다. 저부의 외면에 지두압흔이 뚜렷이 확인된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관찰되고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8㎝, 저경 7.0㎝

9. 홍도 구연부편(도면 16-9, 도판 15-9)

수혈유구 3호에서 출토되었고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황적색(5YR 5/8), 내면은 적황색(5YR 7/6), 속심은 분홍회색(7.5YR 6/2)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가 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경한다. 구연부와 동체부의 외면은 도구를 사용해 종방향으로 균일하게 문질러 매끄럽게 마연하였고 표면에는 부분적으로 지두압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에는 목리흔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확인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6.8㎝, 두께 0.5~0.8㎝

10. 경질무문토기 저부(도면 16-10, 도판 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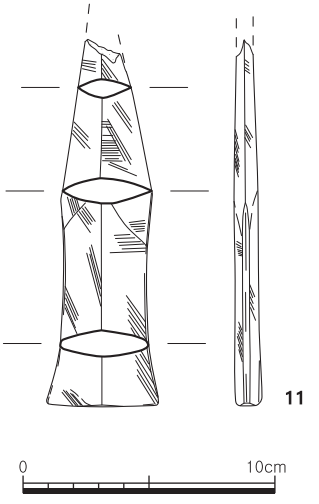
수혈유구 3호에서 출토된 것으로 저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이 적갈색(5YR 5/4), 내면은 적황색(5YR 7/6)이며, 외면에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바닥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저부에서 벌어져 올간다. 저부의 외면에 지두압흔이 뚜렷이 관찰되며, 동체부의 표면에는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4㎝, 복원저경 8.0㎝

4) 수습유물

11. 마제석검(도면 18-11, 도판 16-11)

점판암제로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유병식석검으로 신부의 평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에 가까우며, 병부는 중앙이 날씬한 제형에 가깝다. 중앙의 능선은 선단부에서 병부까지 이어지며, 인부는 비교적 날이 서있어 신부의 단면형태는 능형을 띤다. 병부의 측면은 말각으로 부드럽게 처리하였고 병부의 단면형태는 볼록렌즈형에 가까운 말각육각형이다. 표면은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편이고 부분적으로 사방향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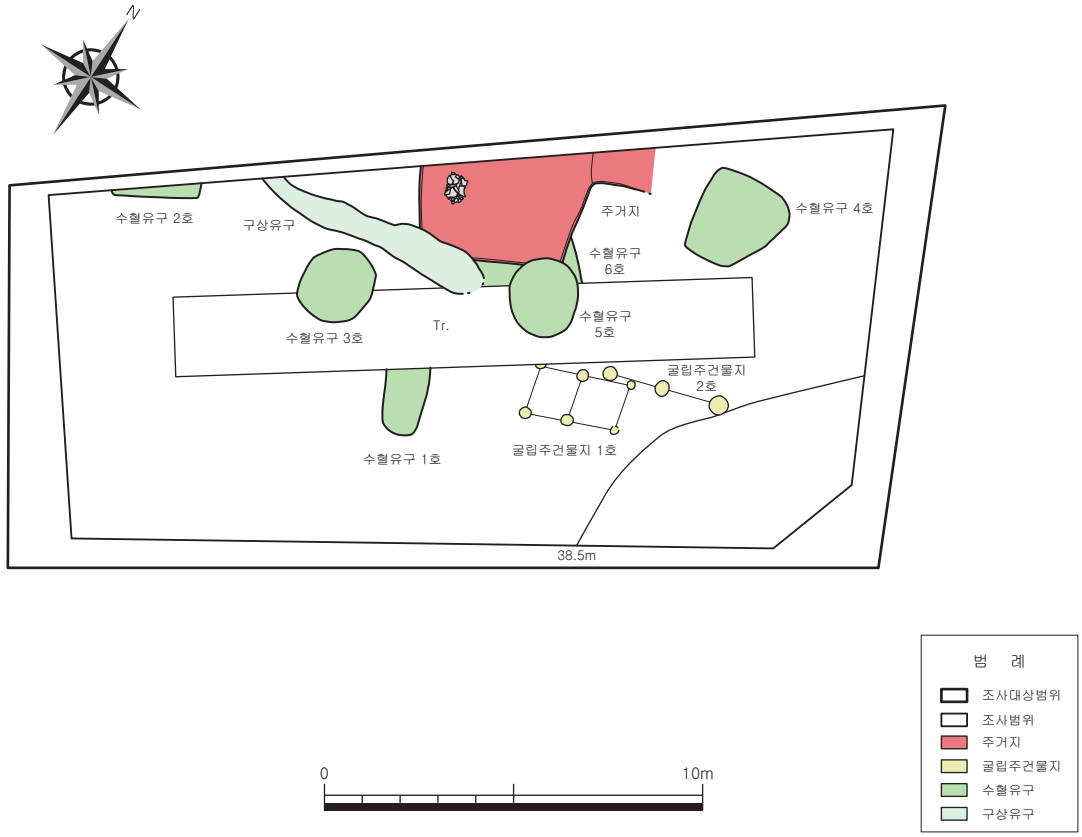
도면 18. 원삼국시대 수습유물

횡방향의 마연흔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4.5㎝, 신부 너비4.5㎝, 병부 길이 8.5㎝, 두께 0.7~ 1.0㎝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에서는 주거지 1동 · 굴립주건물지 2기 · 수혈유구 6기 · 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시루편 · 타날문토기편 · 지석 등이 수습되었다.



도면 19.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유구배치도

1) 주거지

가. 유구(도면 20, 도판 17-②~18-⑥)

조사구역 북서쪽 해발 38.4m에 확인되었으며, 북서쪽 조사경계 외부로 남서벽 일부와 북서쪽 부분이 연장된다. 구상유구에 의해 남쪽 모서리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수혈유구 5호에 의해 동쪽 모서리가 파괴되었다. 수혈유구 6호를 파괴하고 있다. 남쪽으로 1.2m 이격하여 수혈유구 4호가 위치하고 있다.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는데,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북동쪽으로 출입구가 조성된 철자형으로 판단된다. 주거공간의 평면형태는 출입구 쪽과 남서벽이 돌

출된 육각형이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62°-E)향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596㎝ · 너비 280㎝ · 최대깊이 33㎝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 - 갈색사질점토+목탄 - 황갈색사질점토 - 흑갈색사질점토+목탄 - 갈색사질점토 - 회갈색사질점토+목탄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 상면에는 점토다짐을 하여 생활면을 조성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입구는 북동쪽으로 돌출시켜 조성하였는데, 주거부 바닥면에서 약 11°정도 경사져 올라온다. 잔존규모는 길이 140㎝ · 너비 116㎝이다.

유물은 남서벽 부근 바닥면에서 대호 1점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남서쪽 바닥면에서 확인된 목탄을 이용한 AMS분석 결과 AD318~402년의 절대 연대가 확인되었다.

나. 유물

12. 호(도면 21-12, 도판 18-12)

구연부와 동체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고 바닥은 대부분 결실되었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횡치소성으로 인해 기형이 심하게 일그러졌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10YR 6/1) 또는 명회색(10YR 7/2)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한 후 1열의 홈을 돌렸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가나 심하게 일그러져 정확한 형태를 알기 어려우며, 바닥은 원저로 추정된다. 경부의 외면에는 횡방향의 목리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의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목리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잔존기고 47.2㎝, 구경 16.3~23.6㎝, 두께 0.6~1.3㎝

2) 굴립주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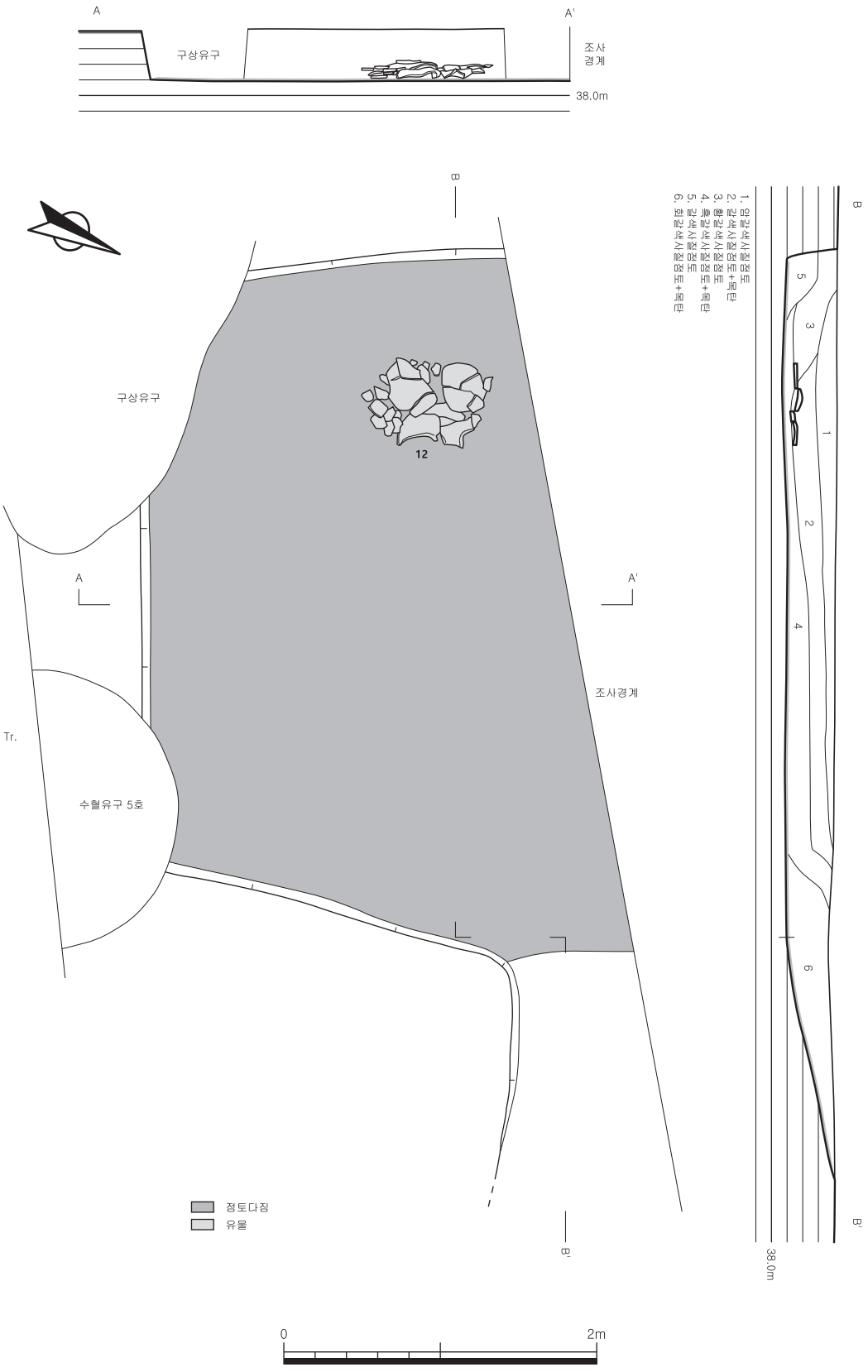
(1) 굴립주건물지 1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19)

조사구역 동쪽 해발 38.5m에서 확인되었으며, 표본조사 트렌치로 인하여 북서쪽 모서리 주혈이 1/2정도 파괴되었다. 북쪽으로 굴립주건물지 2호가 인접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70㎝ 이격하여 수혈유구 5호가 위치한다.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주혈의 배치양상으로 보아 건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 68°-E)향에 가깝다. 주혈은 6개로 정면 2칸 · 측면 1칸의 구조이다. 주혈 중심간 거리는 정면 115~130㎝ · 측면 130㎝이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고, 단면은 'U'자형이다. 내부 토층에서 목주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혈 규모는 북서 모서리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름 28㎝ · 깊이 50㎝, 지름 30㎝ · 깊이 14㎝, 지름 21㎝ · 깊이 14㎝, 지름 21㎝ · 깊이 33㎝ 지름 32㎝ · 깊이 14㎝, 지름 32㎝ · 깊이 14㎝이다. 내부에



도면 20.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주거지

도면 21.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는 북서 모서리부터 시계방향으로 갈색사질점토 – 갈색사질토 – 흑갈색사질토 – 암갈색사질점토 – 회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 흑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황갈색사질점토 – 회갈색사질점토 – 회흑갈색사질점토, 흑갈색사질점토 – 암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가 각각 채워져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굴립주건물지 2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20)

조사구역 동쪽 해발 38.5m에서 확인되었으며, 표본조사 트렌치로 인하여 대칭하는 주혈 3개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남쪽으로 굴립주건물지 1호가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1.6m 이격하여 수혈유구 5호가 위치하고 있다.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一'자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 73°–E) 향이다. 확인된 주혈은 3개이다. 주혈 중심간 거리는 동쪽에서 부터 서쪽으로 155㎝ · 145㎝이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고, 단면은 'U'자형이다. 내부 토층에서 목주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혈 규모는 동쪽에서 부터 서쪽으로 지름 50㎝ · 깊이 16㎝, 지름 36㎝ · 깊이 16㎝, 지름 38㎝ · 깊이 14㎝이다. 내부에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암갈색사질점토 – 흑갈색사질점토 – 갈색사질토 – 암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점토 – 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점토 – 갈색사질토가 각각 채워져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 수혈유구 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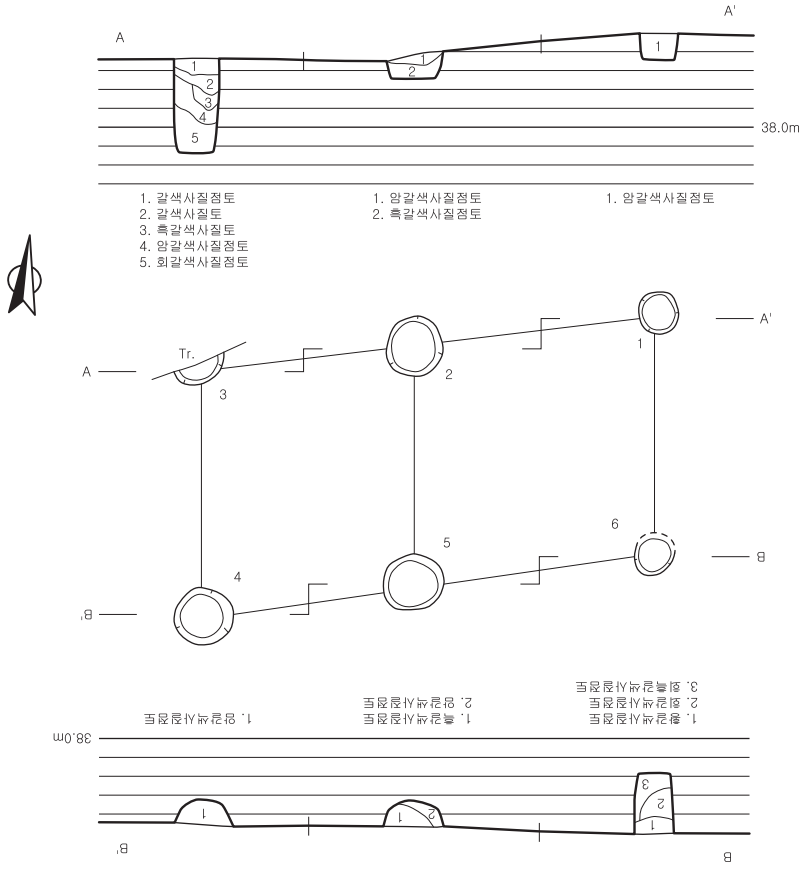
가. 유구

수혈유구는 6기가 조사되었는데, 수혈유구 1호는 표본조사 트렌치에 의해 북쪽 일부가 파괴되었고, 수혈유구 6호는 수혈유구 5호 · 구상유구 · 주거지 1호 등에 의해서 대부분 파괴되어 일부만 확인되었다. 수혈유구 2호는 조사경계 북쪽 외부로 연장된다. 수혈유규 3호와 5호는 표본조사 트렌치에 의해 남쪽 상부가 각각 파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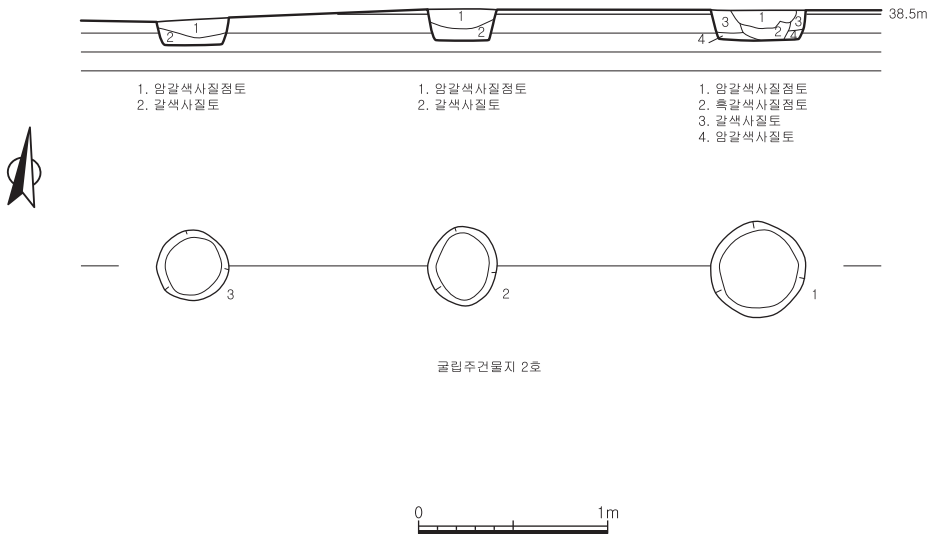
모두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는데 평면형태는 1호가 장방형, 2호는 방형 혹은 장방형, 3호와 5호는 원형, 4호는 제형이다. 6호는 잔존양상이 양호하지 못하여 평면형태를 알 수 없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였고, 바닥면은 대체로 고른 편이다.

유물은 수혈유구 2호 남벽부근 바닥면에서 지석 1점, 수혈유구 3호 바닥면 남서쪽에서 호 동체부 1점 · 동체부편 1점, 수혈유구 4호 내부퇴적토 제거 과정에서 호 구연부편 1점, 수혈유구 5호 내부퇴적토 제거 과정에서 호 구연부편 2점 · 대호 구연부편 1점 등 총 7점이 출토되었다.

조사된 수혈유구의 현황은 아래의【표 5】와 같다.



굴립주건물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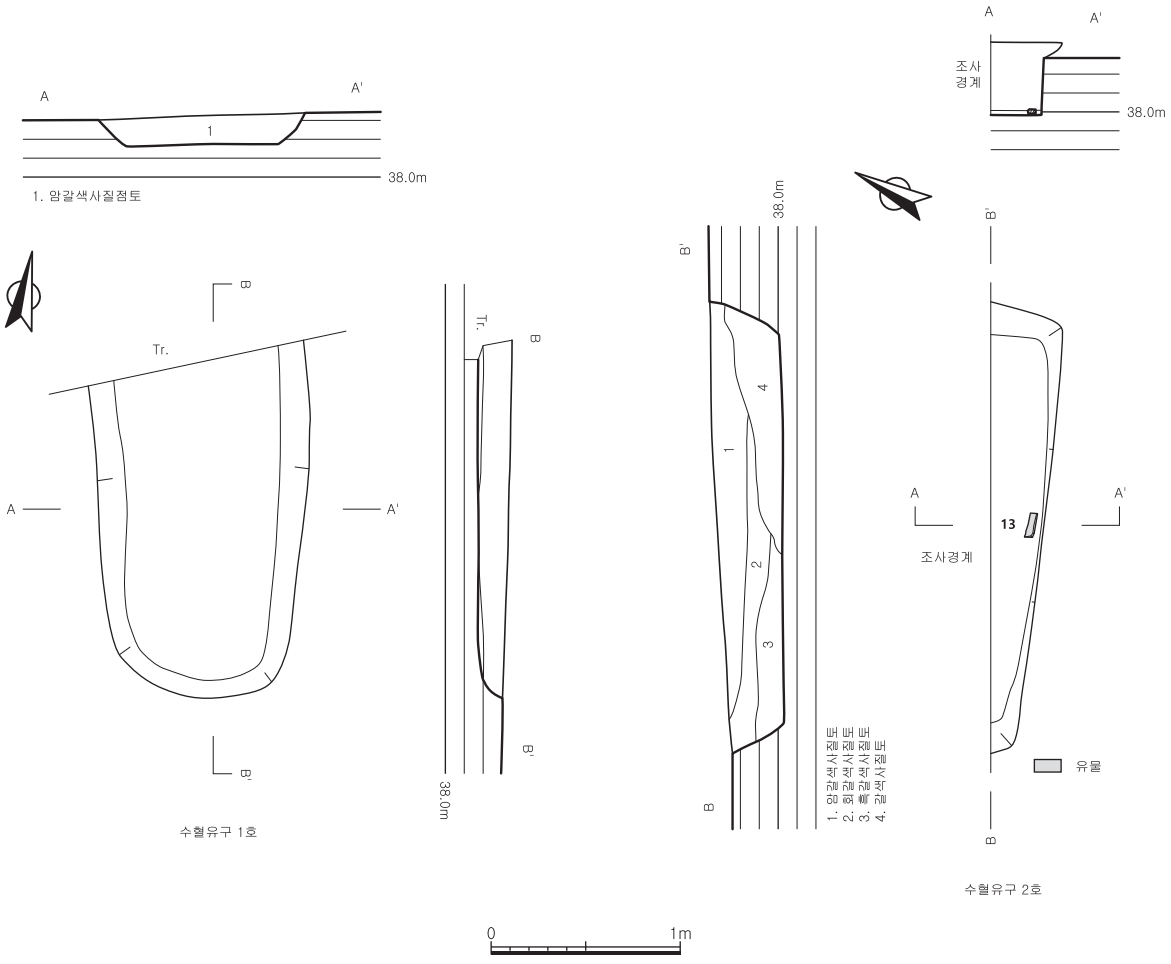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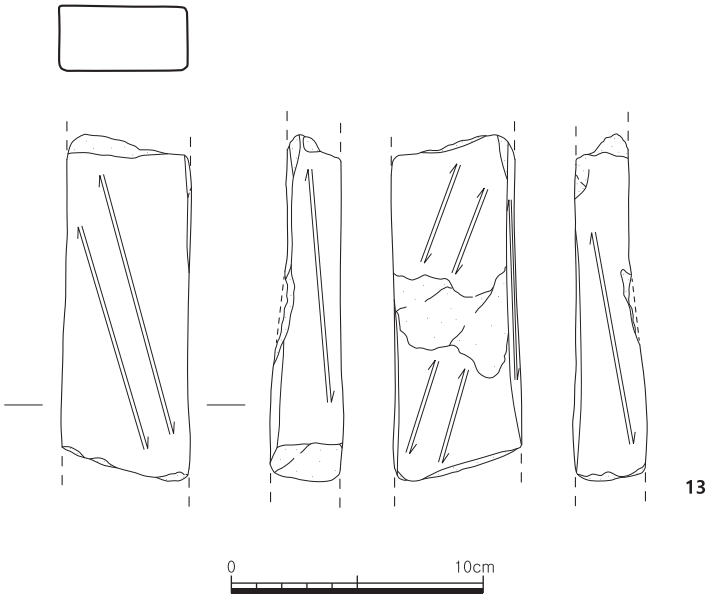
굴립주건물지 2호

도면 22. 삼국(백제한성기)시대 굴립주건물지 1 ·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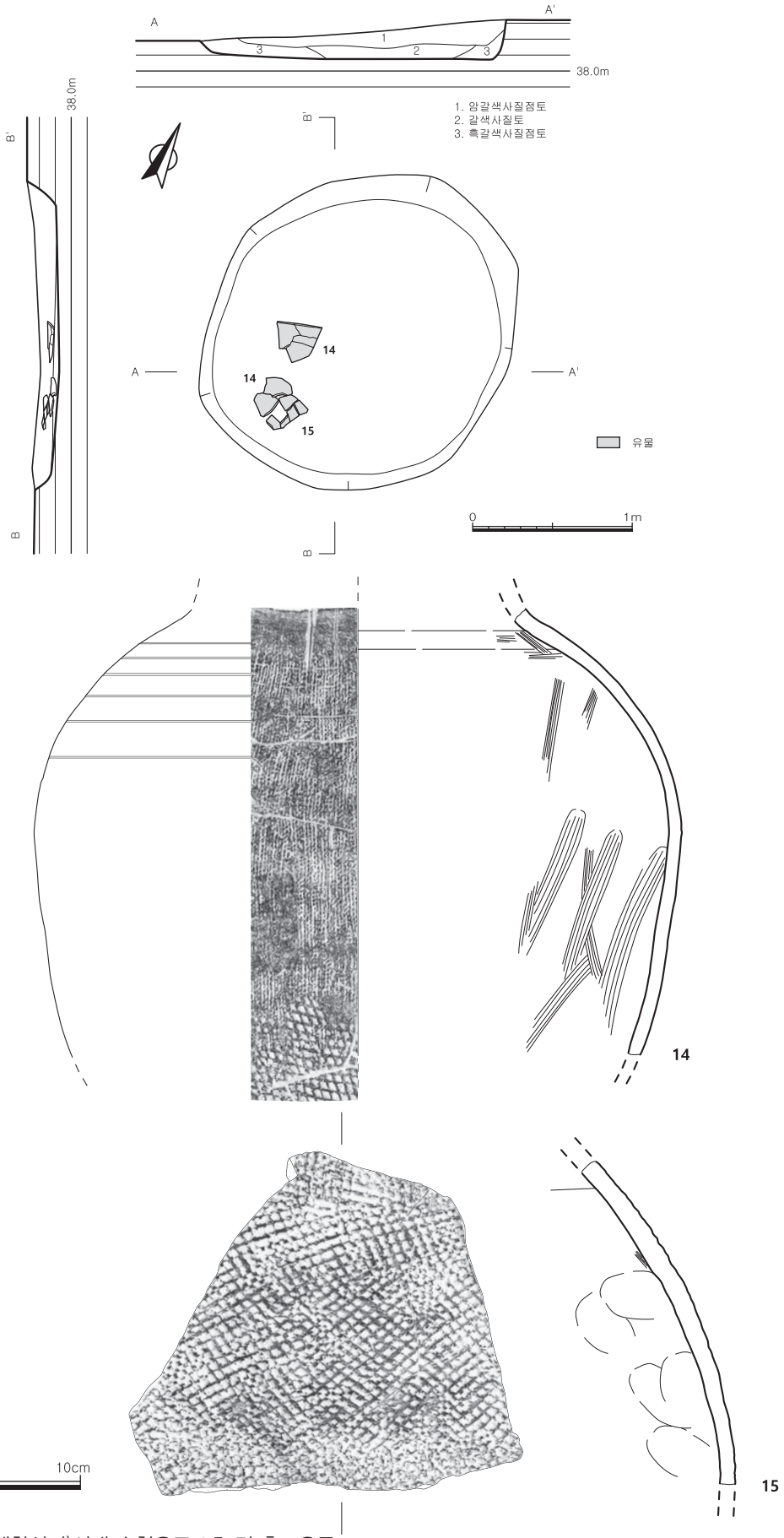
【표 5】 수혈유구 속성표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23	21-①~④	장방형	N-16°-W	(181)	109	27	1.암갈색사질점토	
2	23	21-⑤~⑧	(장)방형	-	240	(28)	25	1.암갈색사질토 2.회갈색사질토 3.흑갈색사질토 4.갈색사질토	지석 1
3	24	22-①~⑤	원형	-	193	192	23	1.암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토 3.흑갈색사질점토	호 동체부 1 호 동체부편 1
4	25	23-①~④	제형	N-S	252	214	78	1.암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점토 3.암갈색사질토 4.흑갈색사질점토 5.회갈색사질점토 6.암갈색사질토 7.흑갈색사질점토 8.암갈색사질점토 9.황갈색점토 10.흑갈색사질점토	호 구연부편 1
5	26	23-⑤⑥	원형	-	209	182	40	1.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사질점토+목탄 3.갈색사질점토+목탄 4.회갈색사질토+목탄 5.흑갈색사질점토+목탄 6.회갈색사질점토 7.갈색사질점토+목탄 8.흑갈색사질점토+목탄+소토 9.암갈색사질점토+목탄 10.갈색사질토 11.회갈색사질토 12.갈색사질토+목탄 13.명갈색사질토 14.황색점토 15.회갈색사질점토+목탄+소토 16.암회색사질토	호 구연부편 3
6	26	24-①②	-	-	282	144	40	1.갈색사질점토 2.황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점토	





도면 23.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1 · 2호 및 2호 출토유물



도면 24.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3호 및 출토유물

나. 유물

13. 지석(도면 23-13, 도판 22-13)

수혈유구 2호에서 출토되었으며, 사암제로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결실된 부분을 제외한 표면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마연되었고 부분적으로 사방향의 마연흔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13.0㎝, 너비 5.0㎝, 두께 2.6㎝

14. 호 동체부(도면 24-14, 도판 22-14)

수혈유구 3호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부의 일부와 저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10YR 6/1) 또는 명회색(10YR 7/2)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경하여 내려가고 동최대경은 중상위에 위치하며, 바닥은 원저이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상위에서 중위까지 승문을 타날한 후 그 위로 횡침선 6열을 돌렸으며, 중위에서 바닥까지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동체부의 내면에는 목리흔, 손문지르기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며, 저부의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일부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1.0㎝, 두께 0.5~0.8㎝

15. 호 동체부편(도면 24-15, 도판 22-15)

수혈유구 3호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10YR 6/1)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5.3㎝, 두께 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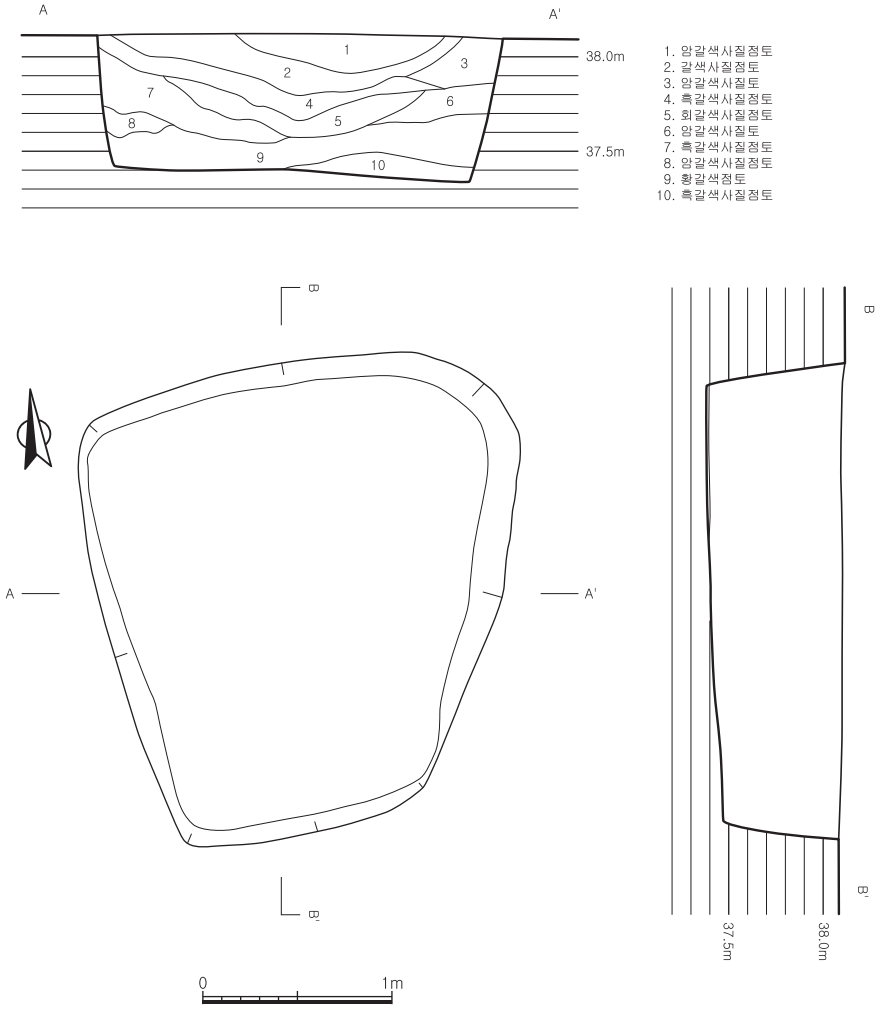
16. 호 구연부편(도면 25-16, 도판 23-16)

수혈유구 4호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회색(10YR 5/1)이며, 속심은 명회색(10YR 7/1)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둥글게 처리하였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회전 물손질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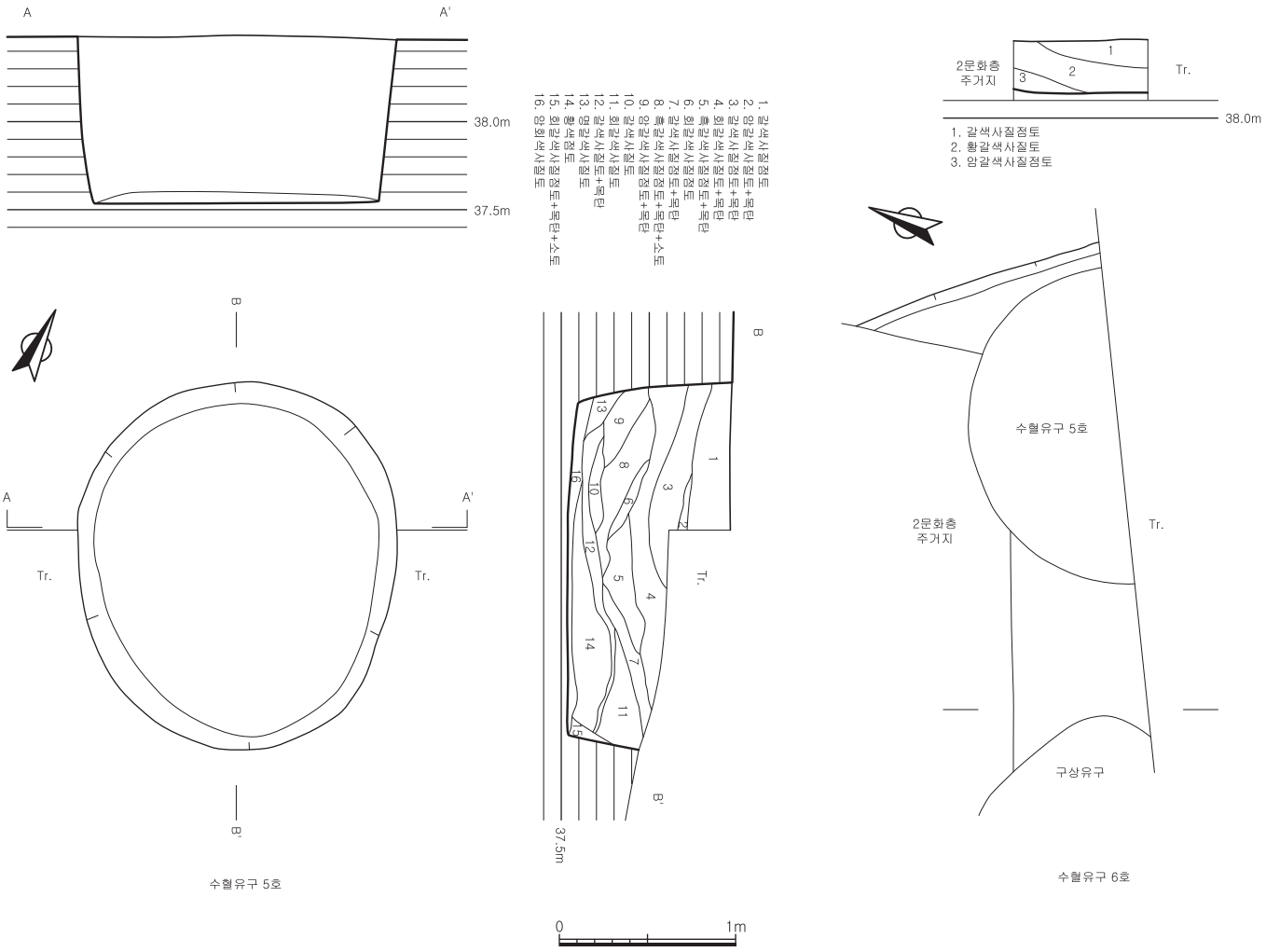
잔존기고 5.0㎝, 두께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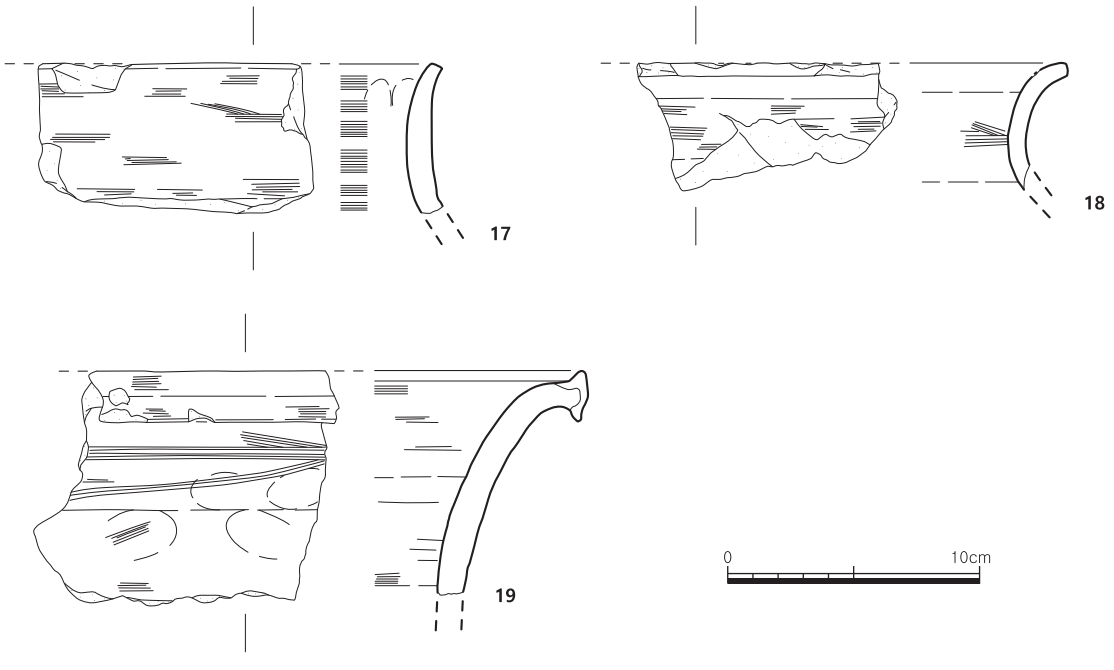
17. 호 구연부편(도면 26-17, 도판 23-17)

수혈유구 5호에서 출토되었고 구연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회색(N 6/) 또는 명회색(10YR 7/1)이며, 속심은 명회색(10YR 7/2)을 띤다. 구연부는 직립하다가 끝에서 약간 외반하고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지두압흔과 횡방향의 목리흔이 관찰되며 회전 물손질 정면하



도면 25.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4호 및 출토유물





도면 26.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5 · 6호 및 5호 출토유물

였다.

잔존기고 5.9㎝, 두께 0.6~1.0㎝

18. 호 구연부편(도면 26-18, 도판 23-18)

수혈유구 5호에서 출토되었고 구연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회색(10YR 5/2)이며, 속심은 명회색(7.5YR 6/4)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목리흔이 관찰되며, 회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0㎝, 두께 0.7㎝

19. 호 구연부편(도면 26-19, 도판 23-19)

수혈유구 5호에서 출토되었고 구연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회색(10YR 7/1)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부채꼴로 처리한 후 하단에 1열의 얕은 홈을 돌렸으며, 내측사면에 1열의 홈을 돌렸다. 표면에 단면 부분적으로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회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8.9㎝, 두께 1.1㎝

4)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27, 도판 24-③~⑥)

조사구역 북쪽 해발 38.4~38.3m에서 확인되었으며, 조사경계 북쪽 외부로 연장되고 있다. 주거지의 남쪽 일부와 수혈유구 6호의 남쪽 부분을 파괴하고 있다. 동쪽으로 수혈유구 5호가 인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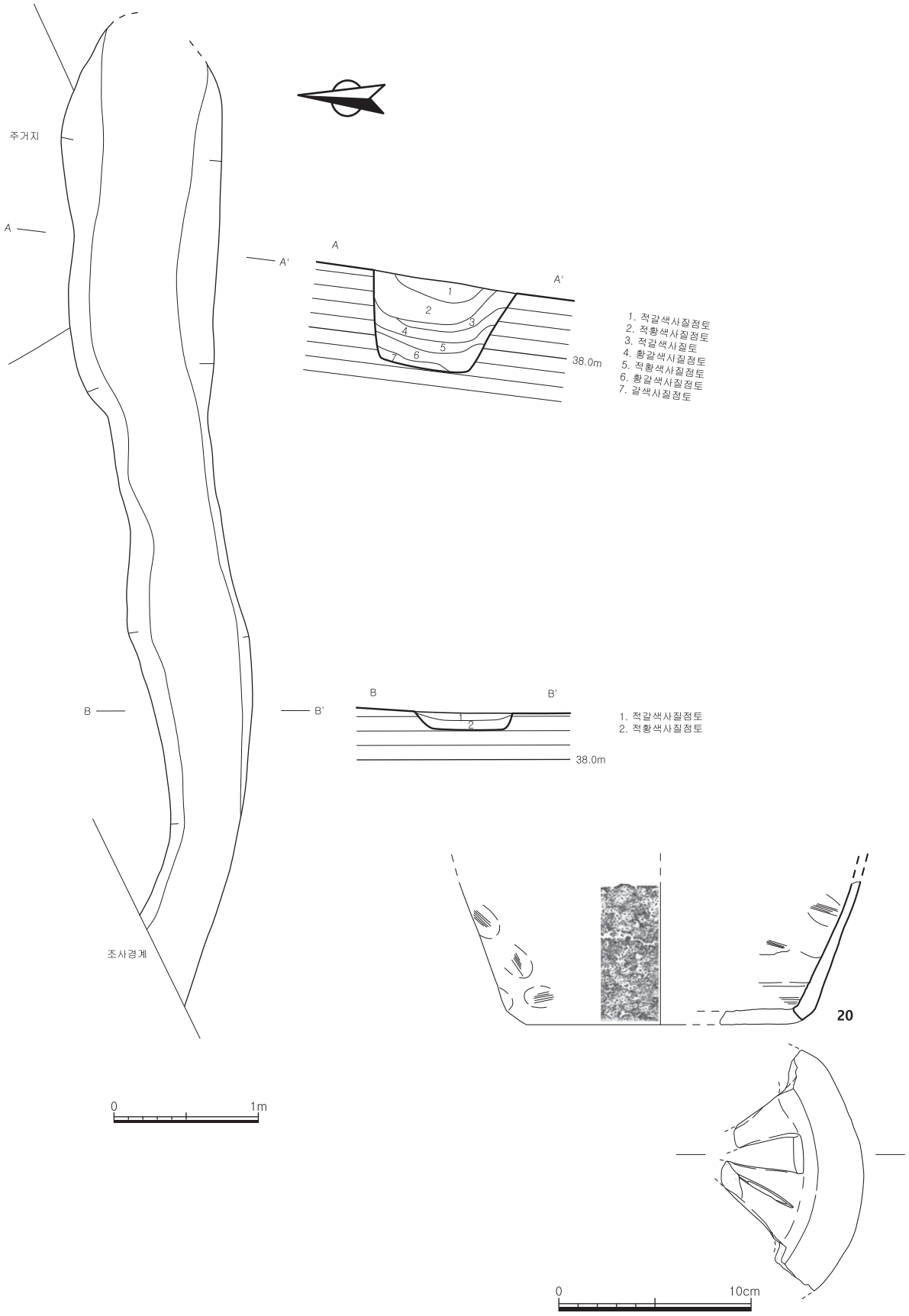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_'자형이고,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장축방향은 동-서(N-82°-E)향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675㎝, 너비 110㎝, 최대깊이 62㎝이다. 내부에는 적갈색사질점토 - 적황색사질점토 - 적갈색사질토 - 황갈색사질점토 - 적황색사질점토 - 황갈색사질점토 -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며, 바닥면은 부분적으로 굴곡되어 고르지 못하다.

유물은 내부퇴적토 제거과정에서 시루 저부 1점이 출토되었다.

나.유물

20. 시루 저부(도면 27-20, 도판 24-20)

저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갈회색(10YR 6/2)을 띤다. 바닥은 말각평저이고 동체부는 사방향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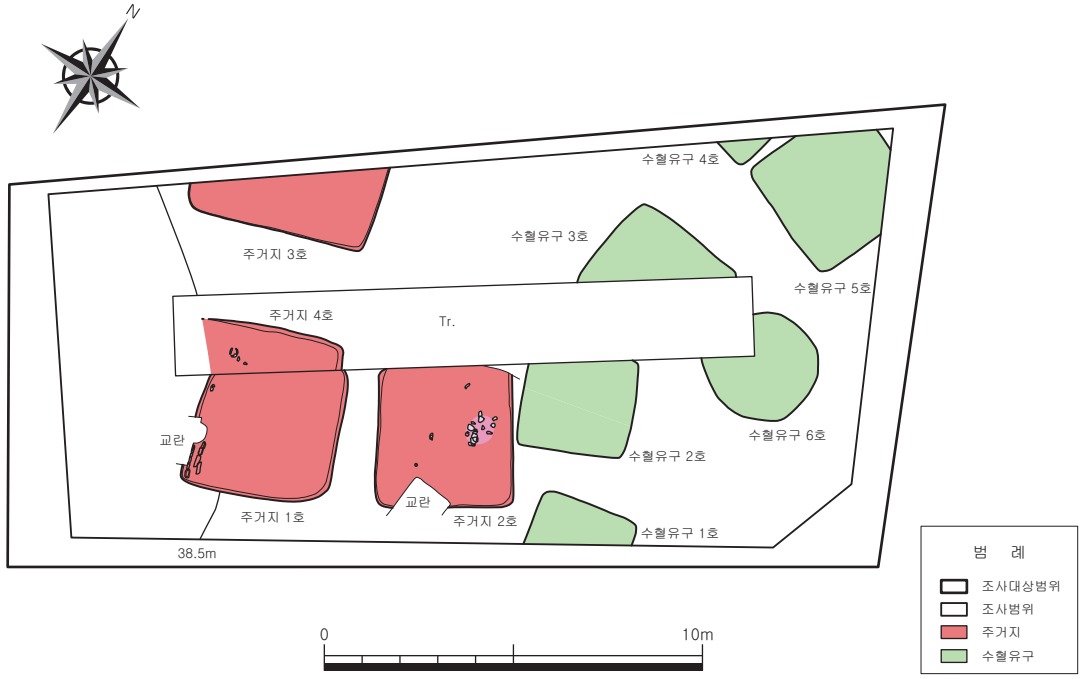
도면 27. 삼국(백제한성기)시대 구상유구 및 출토유물

물손질로 지워져 부분적으로만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하는 바닥에는 3개의 역삼각형 형태의 증기공을 꼭지점이 중앙을 향하도록 배치하여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돌렸으며, 역삼각형의 증기공 사이에 납작한 장타원형의 증기공 1개가 확인된다. 증기공은 모두 밖에서 안으로 뚫려있다. 내면에는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4㎝, 복원저경 16.2㎝

〈삼국시대〉

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4동 · 수혈유구 7기 등 11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 대부장경호, 완, 대부완, 대각, 파수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28. 삼국시대 유구배치도

1) 주거지

(1) 주거지 1호

가. 유구(도면 29, 도판 25-②~27-②)

조사구역 남쪽 해발 38.6m에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4호의 남동쪽 상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표본조사 트렌치에 의해 북동쪽 부분이 파괴되었다. 북동쪽으로 1m 이격하여 주거지 2호가 인접하고 있다.

명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69°-E)향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450㎝ · 너비 392㎝ · 최대깊이 28㎝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토 - 갈색사질점토 - 암갈색사질점토+소토+목탄 - 갈색사질토 - 갈색사질점토 - 적갈색사질점토 - 회갈색사질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비교적 고른 편이다.

내부시설로는 구들이 확인되었다. 구들은 주거지 서벽을 따라 시설되었는데 후대 교란으로 훼손되어 고래 일부만 잔존하고 있었으며, 정확한 평면형태는 판단하기 어렵다. 잔존규모는 길이 100㎝ · 너비 40㎝이다. 고래는 외줄고래이며, 25~40㎝ 정도 크기의 할석과 천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아궁이와 배연은 교란과 삭평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주거지 서벽 북쪽 바닥면에서 완 1점 · 단경호 구연부 1점, 내부퇴적토 제거과정에서 파수부 동체부편 1점 등 3점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남서쪽 바닥면에서 확인된 목탄을 이용한 AMS분석 결과 AD413~542년의 절대연대가 확인되었다.

나. 유물

21. 완(도면 29-21, 도판 27-21)

전체의 2/3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연담갈색(10YR 7/4) 또는 분홍색(7.5YR 8/4)이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신부는 직립에 가깝게 내려오다 내경하며, 바닥은 말각평저로 표면이 고르지 않다. 신부의 외면에는 ∧에 가까운 X자 표시가 관찰되고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바닥에 점토 보강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지두압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기고 5.0㎝, 복원구경 14.6㎝, 저경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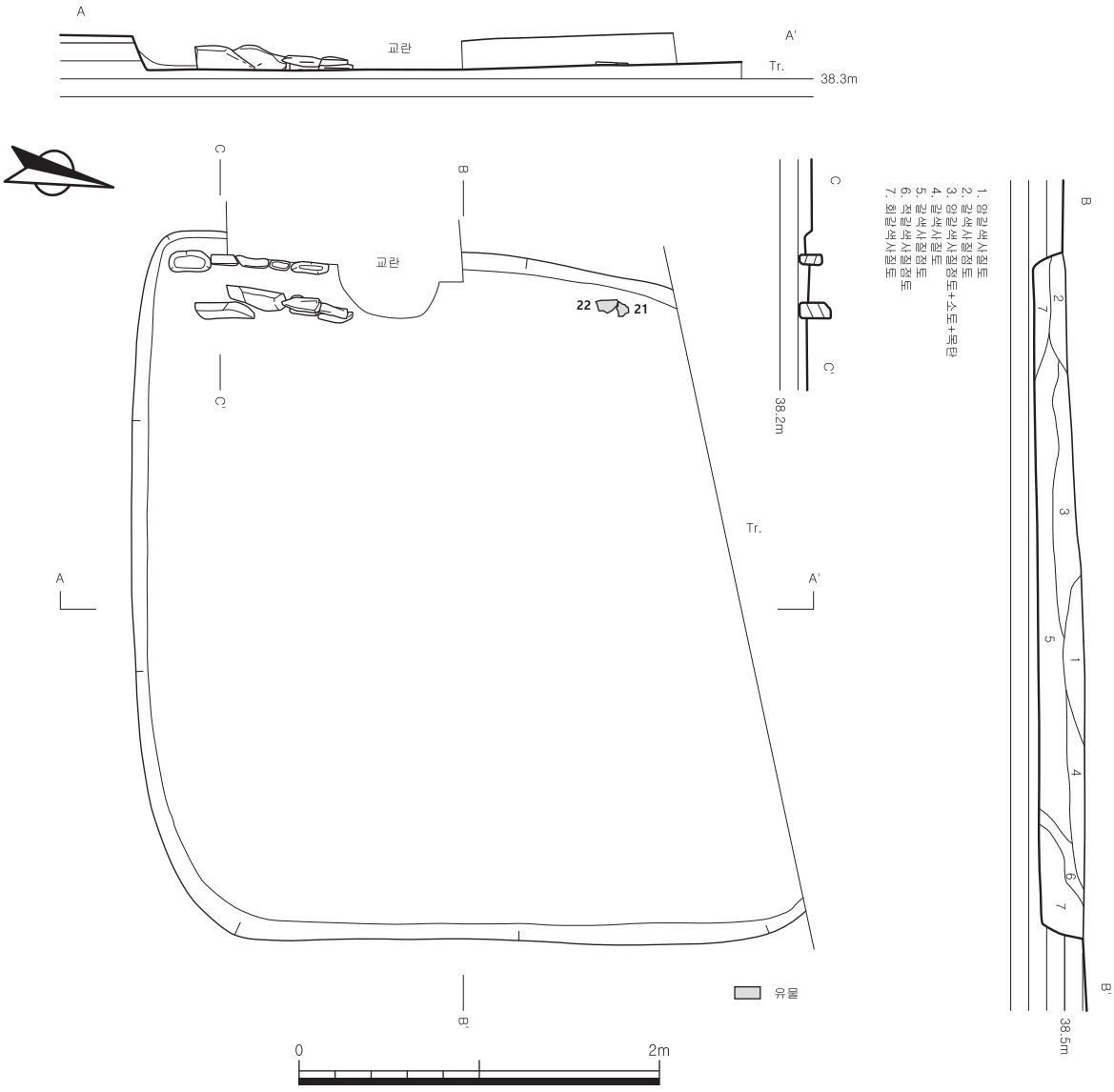
22. 단경호 구연부(도면 29-22, 도판 2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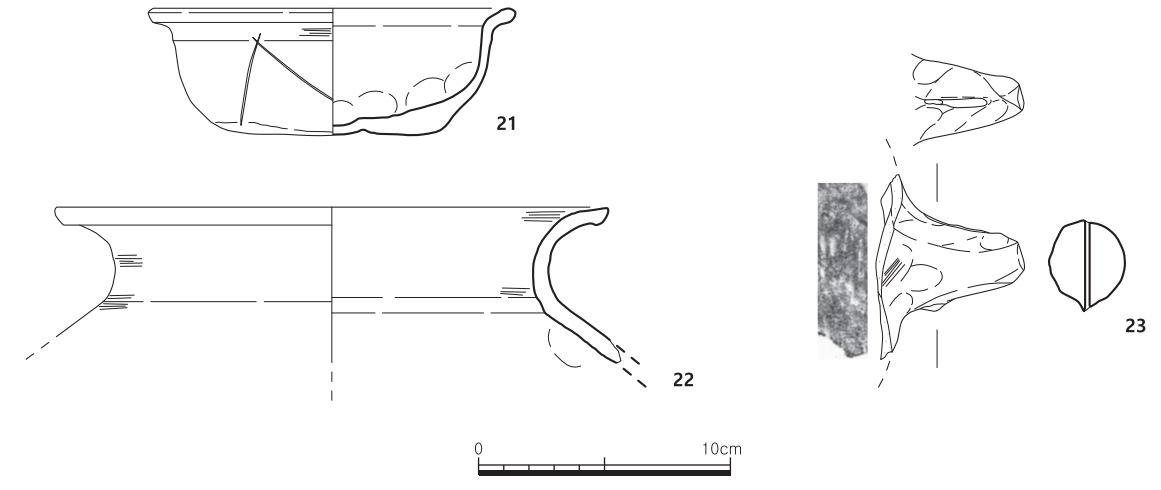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5YR 6/8)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외단이 돌출된 형태로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전체 회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1㎝, 복원구경 22.0㎝, 두께 0.6㎝

23. 파수부 동체부편(도면 29-23, 도판 27-23)

한쪽 파수와 동체부의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갈회색(10YR 6/2) 또는 명회색(10YR 7/1)이다. 파수는 우각형으로 선단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으며,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상면 중앙에 장타원형의 구멍이 상부에서 하부로 투공되었으며, 상부에서 보이는 구멍의 크기는 약 2.5×0.4㎝이고 하부는





도면 29. 삼국시대 주거지 1호 및 출토유물

0.9×0.3㎝로 확인된다. 파수의 외면과 동체부와의 접합면에 지두압흔과 물손질 흔이 관찰된다. 동체부의 내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6.0㎝, 파수길이 7.0㎝, 두께 3.0㎝

(2) 주거지 2호

가. 유구(도면 30, 도판 27-③~29-⑥)

조사구역 중앙에서 남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38.6m에 확인되었으며, 표본조사 트렌치에 의해 북서벽이 유실되었고 후대 교란으로 인해 남동벽 일부가 파괴되었다. 남서쪽으로 1m 이격하여 주거지 1호가 인접하고 있고, 북동쪽으로 수혈유구 2호가 인접하고 있다.

명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32°-W)향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380㎝ · 너비 360㎝ · 최대깊이 23㎝이다. 내부에는 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비교적 고른 편이다.

내부시설로는 노지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부에서 동벽쪽으로 치우쳐 시설되었는데 대부분 유실되고 원형으로 붉게 피열된 바닥면과 봇돌로 추정되는 석재 3매만 확인되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83㎝ · 너비 69㎝이다. 봇돌은 15㎝ 정도 크기의 할석을 평면 삼각형으로 배치하였는데 봇돌 중심간 간격은 각각 60㎝ · 50㎝ · 35㎝이다.

유물은 노지 부근에서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구연부 1점 · 저부 1점, 노지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바닥면에서 단경호 구연부 1점, 주거지 남쪽 모서리 부근에서 대각 1점 등 4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4.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구연부(도면 31-24, 도판 29-24)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갈색(10YR 5/4) 또는 명갈색(10YR 6/4)을 띤다. 구연부는 사방향으로 벌어져 올라가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고 단부와 경부의 외면에는 목리흔이 돌아간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가며,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관찰되고 내면에는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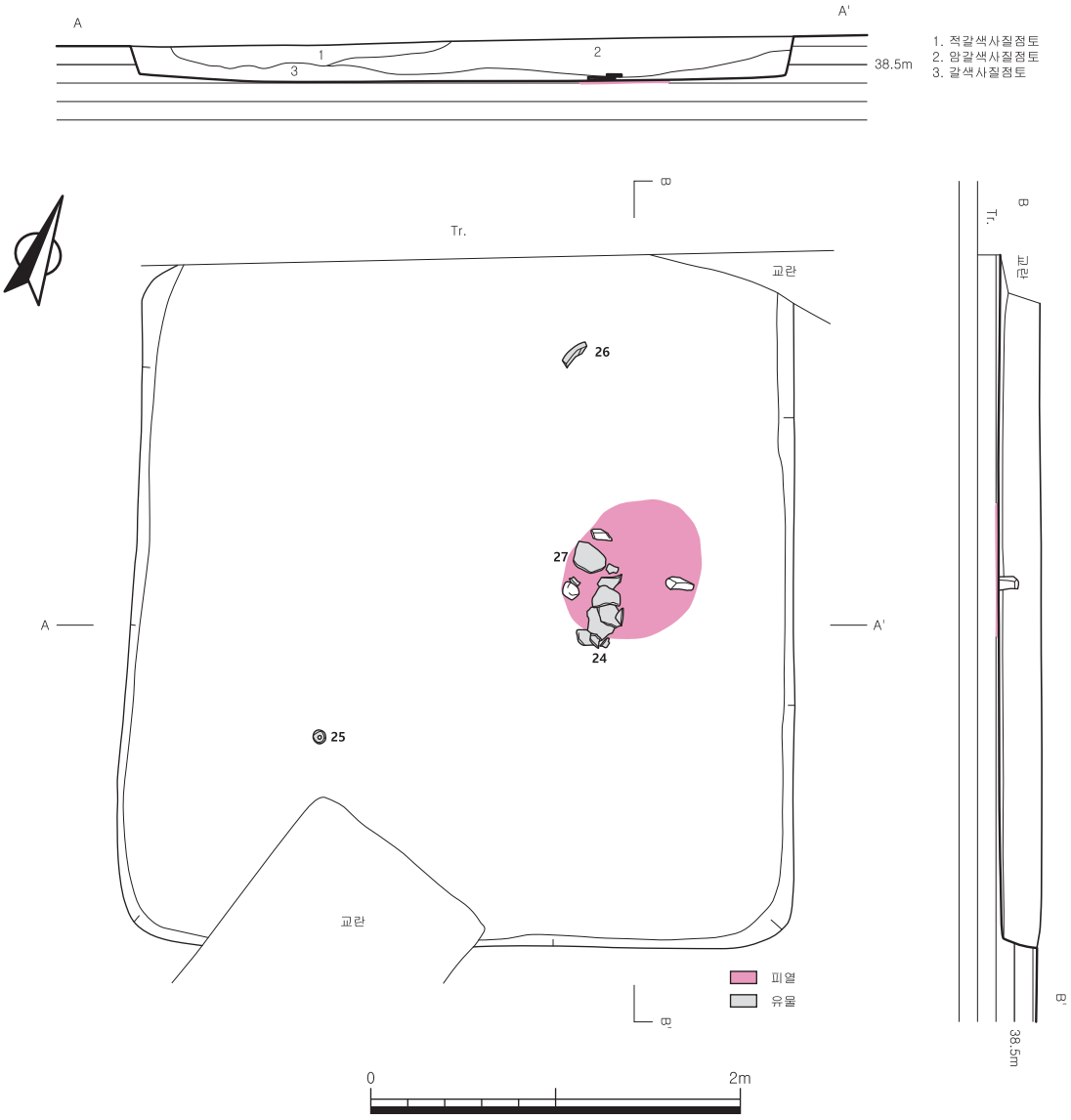
잔존기고 10.0㎝, 복원구경 15.0㎝, 두께 0.7㎝

25. 대각(도면 31-25, 도판 29-25)

신부 바닥의 일부와 대각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10Y 6/1)이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중위에 1열의 돌대를 돌려 상하 2단으로 구획하였다. 각단은 외단에 돌대를 돌려 'ㄱ'자형을 띤다. 전체 회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3㎝, 저경 6.0㎝



도면 30. 삼국시대 주거지 2호

26. 단경호 구연부(도면 31-26, 도판 2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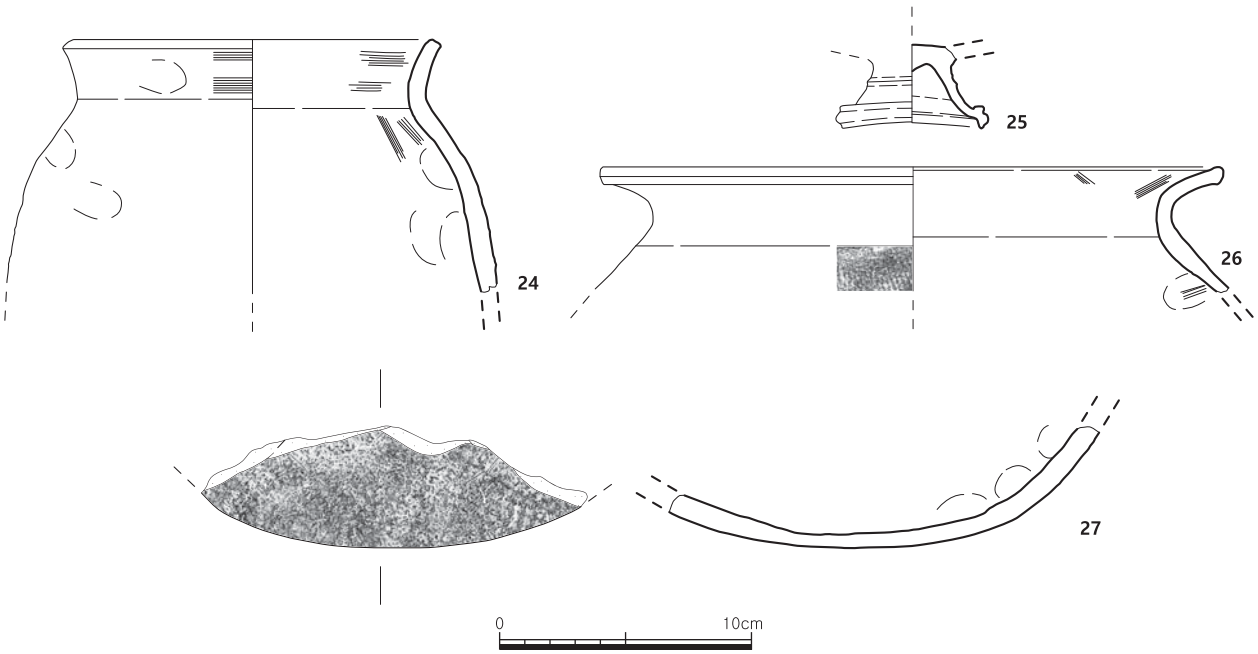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황색(10YR 8/6)이며, 속심은 부분적으로 적황색(7.5YR 7/6)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한 후 2열의 얕은 홈을 돌렸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가며,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물손질로 지워져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9㎝, 복원구경 24.8㎝, 두께 0.4~0.8㎝

27. 저부(도면 31-27, 도판 29-27)

저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회색(10Y 4/1), 내면은 회갈색(10Y 5/2), 속심은 진암회색(10Y 3/1)이고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바닥은 원저이며,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8㎝, 두께 0.4~0.9㎝



도면 31.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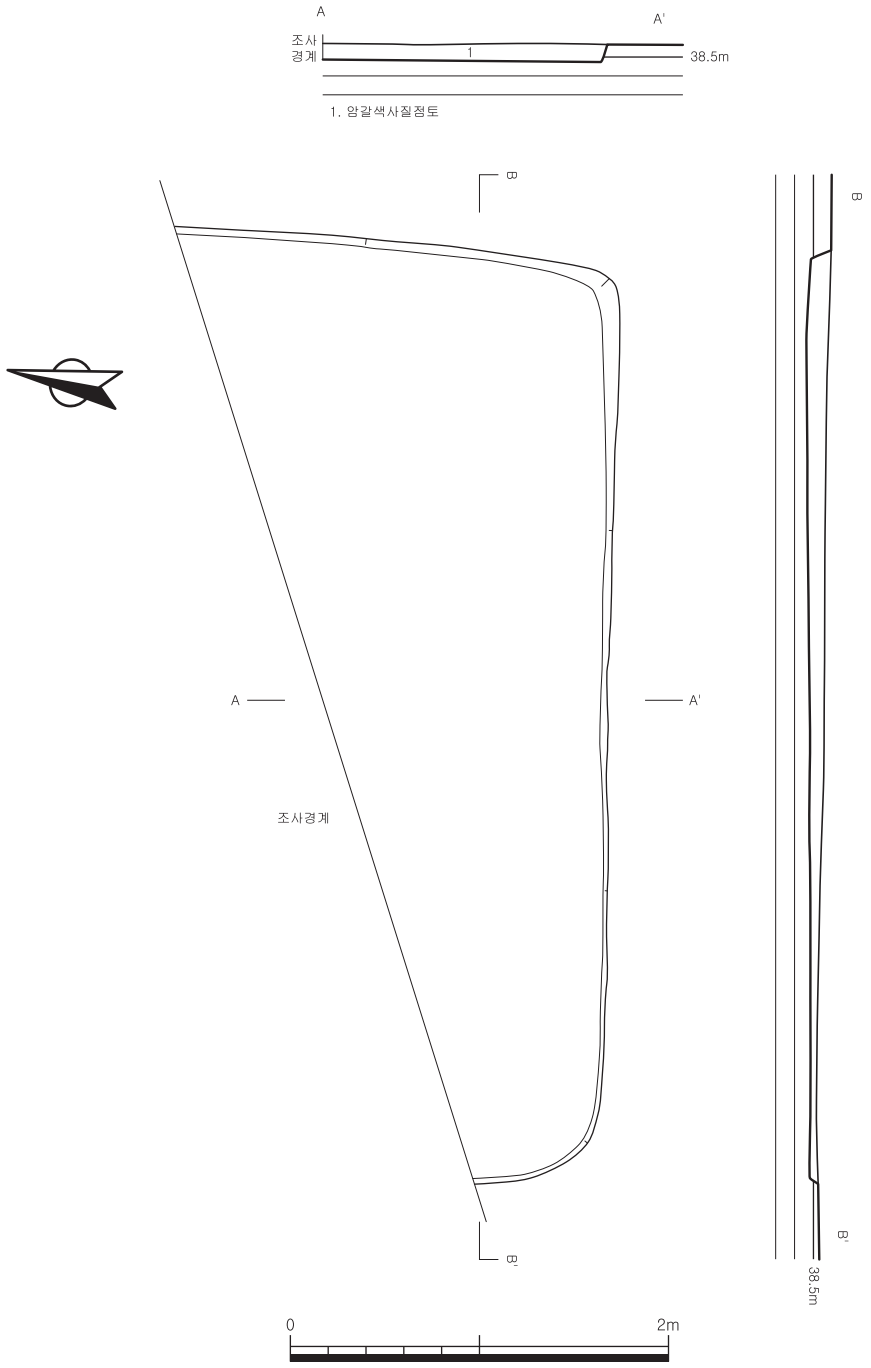
(3) 주거지 3호

가. 유구(도면 32, 도판 30~31-③)

조사구역 북서쪽 해발 38.6m에 확인되었으며, 북서쪽 조사경계 외부로 연장된다. 남쪽으로 2.4m 이격하여 주거지 4호가 위치한다.

명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전체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노출양상으로 볼 때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규모는 길이 495㎝ · 너비 150㎝ · 최대 깊이 9㎝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비교적 고른 편이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32. 삼국시대 주거지 3호

(4) 주거지 4호

가. 유구(도면 33, 도판 31-④~33-②)

조사구역 중앙에서 남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38.2m에 확인되었으며, 표본조사 트렌치와 주거

지 1호에 의해 상부가 상당부분 파괴되었으며, 수혈유구 7호 상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서쪽부분은 삭평으로 유실되었다. 북쪽으로 2.4m 이격하여 주거지 3호가 위치한다.

명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규모는 길이 410㎝ · 너비 367㎝ · 최대깊이 25㎝이다.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 - 회갈색사질점토 - 암갈색사질점토 - 갈색사질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비교적 고른 편이다.

유물은 주거지 북벽 중앙 바닥면에서 대부호 1점 · 파수부 동체부편 1점, 중앙부 바닥면에서 대부완 1점 · 대각 1점 · 호 동체부편 1점, 남동 모서리 부근 바닥면에서 단경호 구연부 1점, 내부퇴적토 제거 과정에서 파배 신부편 1점 · 단경호 구연부편 1점 등 8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8. 대부완(도면 33-28, 도판 33-28)

대각은 모두 결실되었고 구연부의 일부와 신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10YR 6/1)이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으며, 신부는 내경하여 내려간다. 표면에 목리흔과 회전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저부에 대각이 접합되었던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5.0㎝, 복원구경 10.6㎝, 두께 0.5~1.2㎝

29. 대각(도면 33-29, 도판 33-29)

대각과 신부 바닥의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N 6/)이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중위에 횡방향으로 1열의 돌대가 확인되며, 각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는데 외단은 둥근 돌대모양을 띤다. 대각 내면은 회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0㎝, 저경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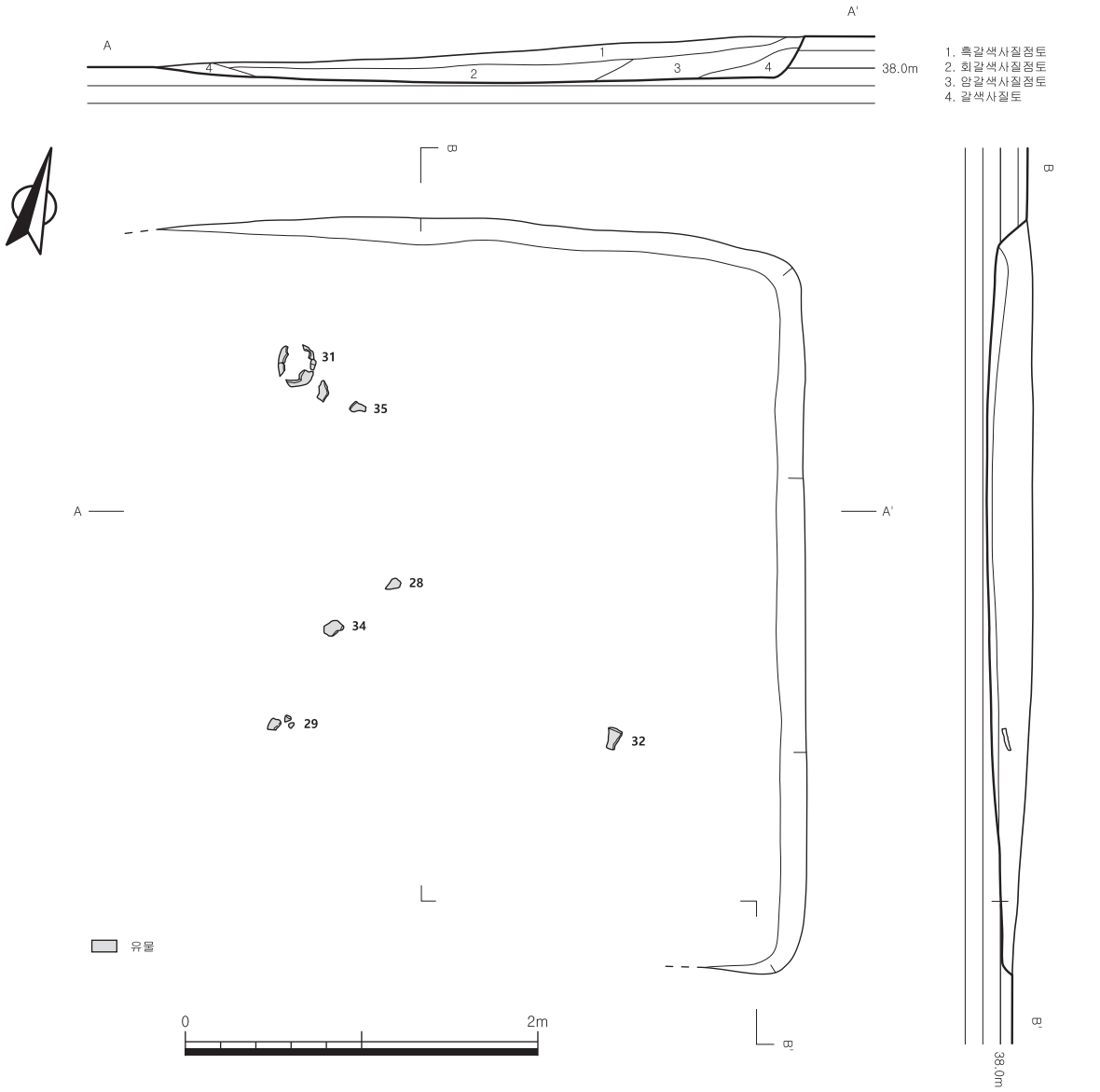
30. 파배 신부편(도면 33-30, 도판 3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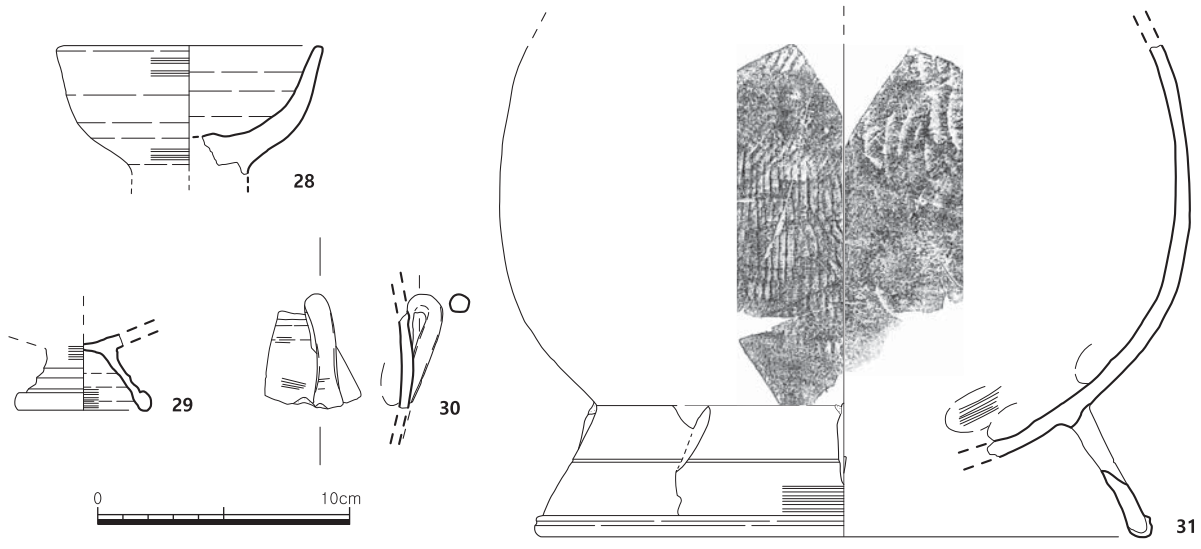
파수와 신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10YR 6/1)을 띤다. 신부는 직립에 가깝게 내려와 약하게 내경하며, 외면에는 횡방향으로 1열의 홈이 돌아가고 귀모양의 파수 1개가 붙어 있다. 파수의 단면형태는 원형이고 접합면에 지두압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신부의 내면에 부분적으로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3.8㎝, 파수길이 4.5㎝, 파수너비 2.6㎝, 파수두께 0.8㎝

31. 대부호(도면 33-31, 도판 33-31)

동체 · 저부의 일부와 대각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





도면 33. 삼국시대 주거지 4호 및 출토유물1

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10YR 6/1)이다. 바닥은 원저이고 동체부는 벌어져 올라가며, 바닥에 접합된 대각은 사방향으로 벌어져 내려간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집선문+횡선문이 타날되었고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의 내면에 내박자흔과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각단은 둥글게 처리한 후 외측 상단부에 1열의 침선을 돌려 상부를 돌출시켰다. 대각의 외면에는 중위에 2열의 침선을 돌려 2단 구획한 다음 상단에 하단부가 뾰족한 장타원형의 투창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다. 투창은 밖에서 안으로 뚫었으며, 잔존편에는 투창 및 투창의 흔적이 모두 6개가 확인된다.

잔존기고 15.7㎝, 저경 24.4㎝

32. 단경호 구연부(도면 34-32, 도판 33-32)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황갈색(10YR 6/4)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경부의 외면에는 횡방향의 목리흔이 관찰되며, 동체부의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물손질로 지워져 희미하게 확인된다. 내면에는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3㎝, 복원구경 17.6 ㎝, 두께 0.6~0.8㎝

33. 단경호 구연부편(도면 34-33, 도판 33-33)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10YR 7/1)을 띤다. 구연부는 직립에 가깝게 벌어져 올라가는 경부에서 외반하여 구연단에 이르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한 후 2열의 홈을 돌렸고 내단 아래 얕은 홈을 돌렸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전체 회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3㎝, 두께 0.5㎝

34. 호 동체부편(도면 34-34, 도판 33-34)

경부의 극히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분홍색(7.5YR 7/4)을 띤다. 경부는 사방향으로 벌어져 올라가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온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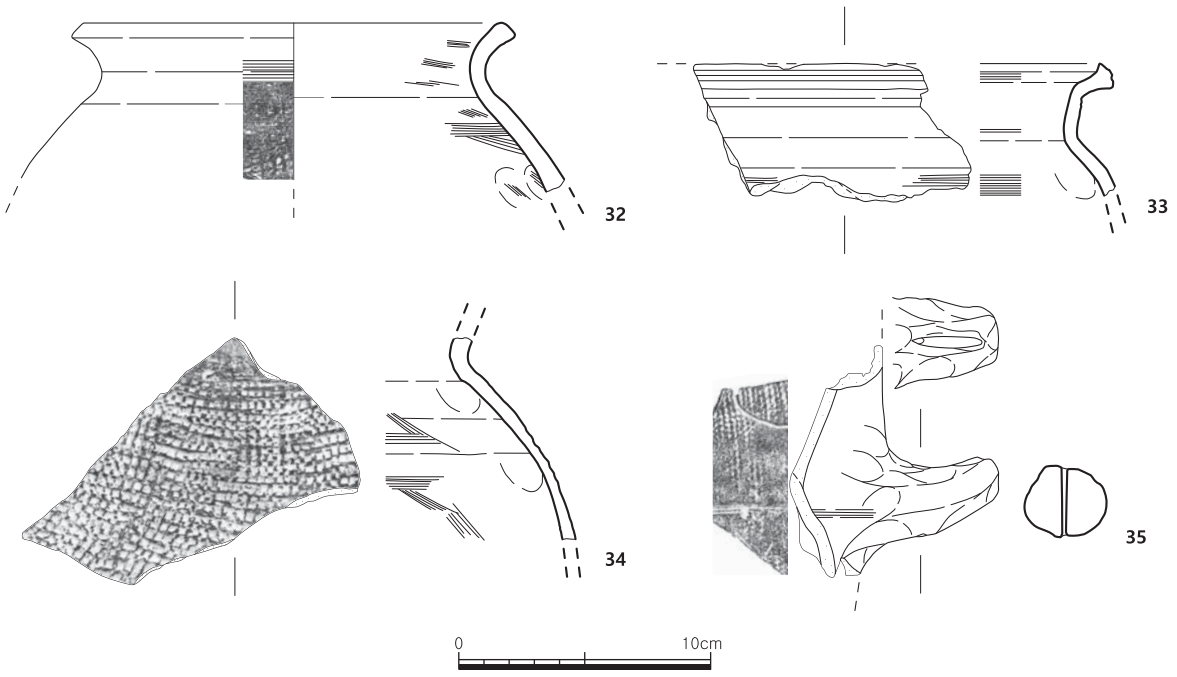
잔존기고 8.8㎝, 두께 0.5~0.8㎝

35. 파수부 동체부편(도면 34-35, 도판 33-35)

한쪽 파수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갈회색(10YR 6/2)을 띤다. 동체부는 직립에 가깝게 사방향으로 벌어져 올라가며, 외면에는 우각형 파수가 접합되었다. 파수의 선단부는 편평하게 처리

하였고 파수의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파수 상면 중앙에 장타원형의 구멍이 상부에서 하부로 투공되었으며, 상부에서 보이는 구멍의 크기는 약 2.5×0.7㎝이고 하부는 0.7×0.2㎝로 확인된다. 파수의 외면과 동체부와의 접합면에 지두압흔과 물손질 흔이 관찰된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종방향의 승문이 타날되었고 파수가 접합된 위치에 횡침선 2~3열 1조로 1열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8.3㎝, 파수길이 5.0㎝, 파수두께 3.2㎝



도면 34.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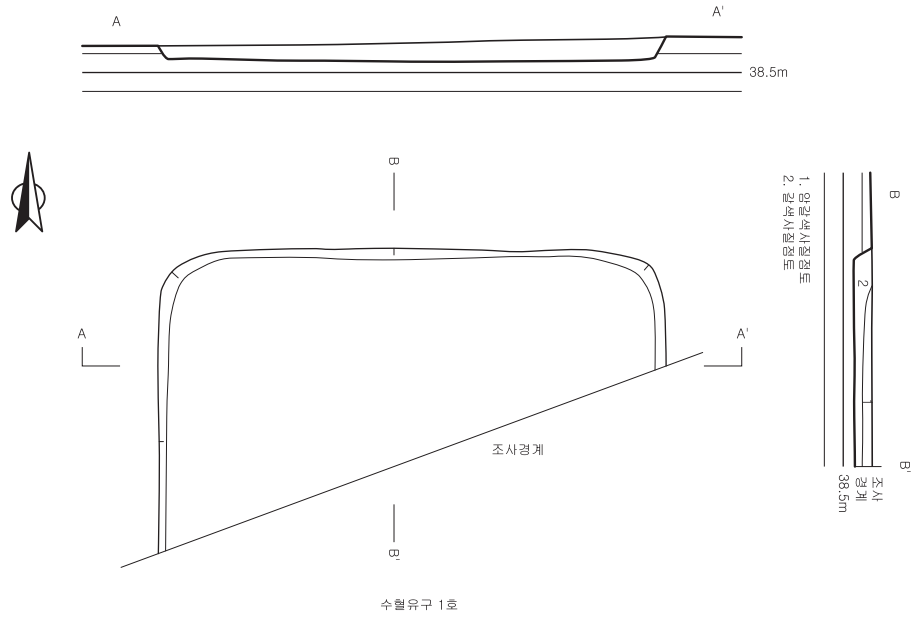
2) 수혈유구 1~7호

가.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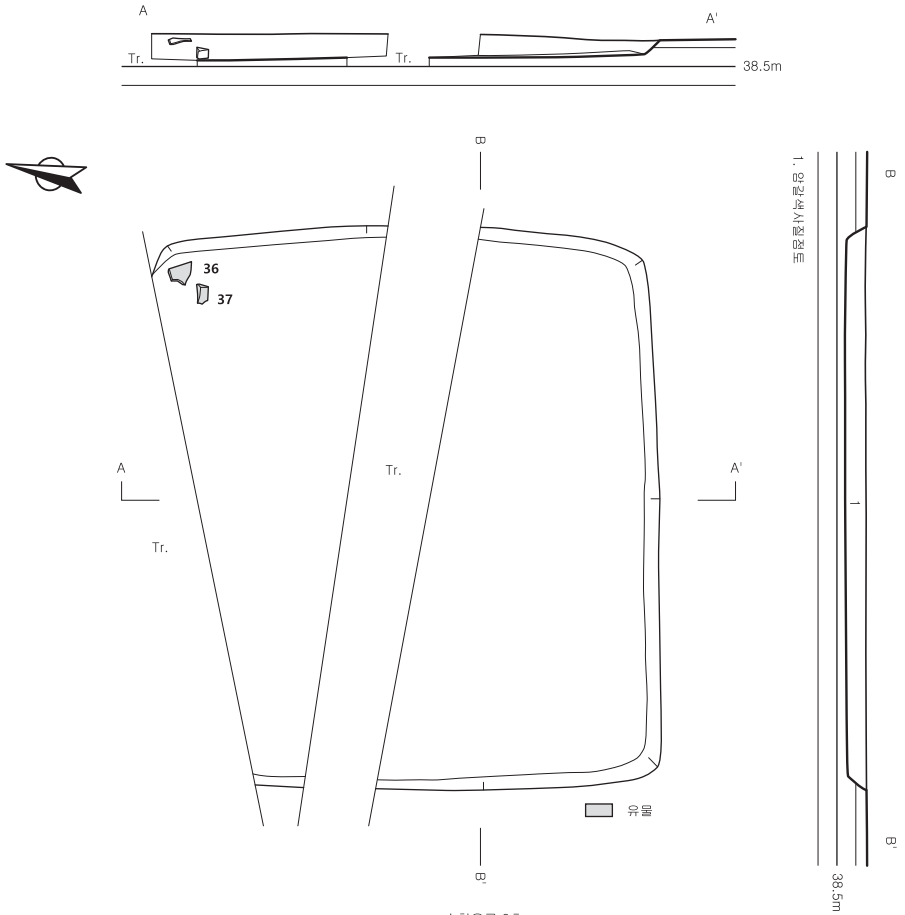
수혈유구는 7기가 조사되었는데, 수혈유구 1·4·5호는 조사경계 외부로 연장되고, 수혈유구 2·3·6호는 표본조사 트렌치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수혈유구 7호는 주거지 4호에 의해 상부가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모두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는데, 평면형태는 6호는 원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방형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였고, 바닥면은 대체로 고른 편이다.

유물은 수혈유구 2호 북동쪽 모서리 부근 바닥면에서 10㎝ 정도 뜬 상태로 동체부편 1점·바닥면에서 지석 1점, 수혈유구 5호 중앙부 바닥면에서 동체부편 1점, 수혈유구 6호 내부퇴적토 제거과정에서 동체부편 1점, 수혈유구 7호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바닥에서 30㎝ 정도 뜬 상태로 완 1점·내부퇴적토 제거 과정에서 호 구연부 1점·동이 구연부 1점·시루 저부 1점 등 총 8점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 1호



수혈유구 2호

도면 35. 삼국시대 수혈유구 1 · 2호

조사된 수혈유구의 현황은 아래의【표 6】과 같다.

【표 6】 수혈유구 속성표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모(㎝)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35	34-①~⑤	방형	-	269	(118)	10	1.암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점토	
2	35	34-⑥~⑩	방형	N-67°-E	298	270	13	1.암갈색사질점토	동체부편 1 지석 1
3	37	35-①~⑤	방형	-	325	290	25	1.갈색사질점토 2.흑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점토 4.회갈색사질토	
4	37	35-⑥~36-②	방형	-	110	92	13	1.암갈색사질점토	
5	38	36-③~⑦	방형	N-68°-E	344	342	14	1.암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점토	동체부편 1
6	39	36-⑧~37-③	원형	-	300	287	78	1.흑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사질점토 3.회갈색사질점토 4.황갈색사질점토	동체부편 1
7	40	37-④~⑧	방형	N-24°-W	250	230	36	1.흑갈색사질점토 2.황갈색사질점토 3.회갈색사질점토 4.암갈색사질점토	완 1 단경호 구연부 1 동이 구연부 1 시루 저부 1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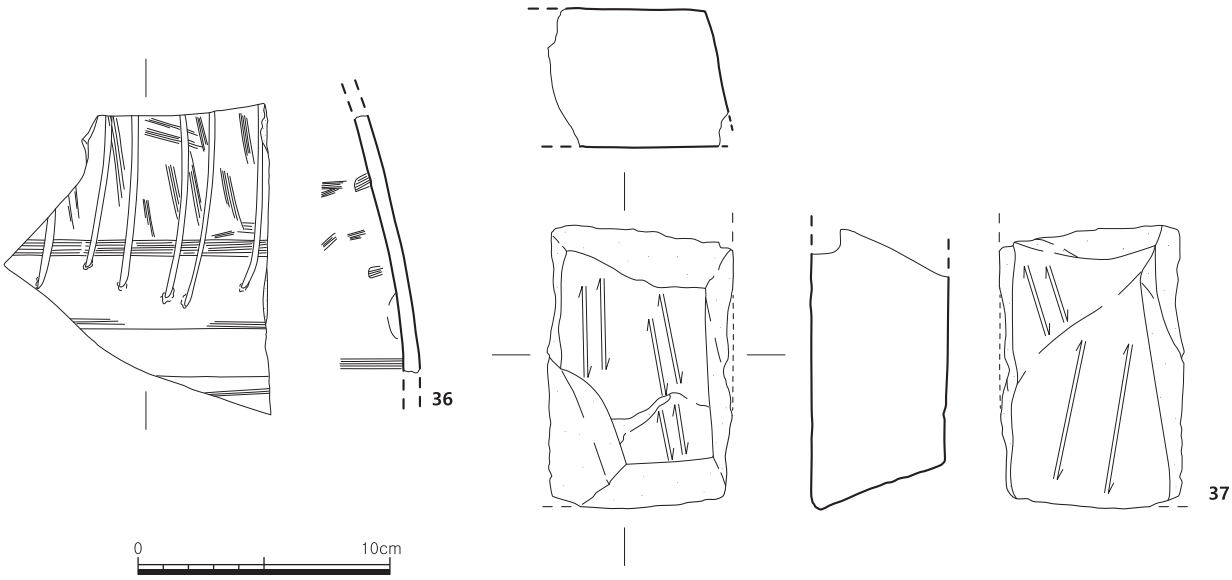
36. 동체부편(도면 36-36, 도판 35-36)

수혈유구 2호에서 출토되었고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N 6/)이다. 외면에는 횡방향 또는 사방향의 목리흔과 도구를 사용해 종방향으로 문지른 흔적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10.2㎝, 두께 0.6㎝

37. 지석(도면 36-37, 도판 35-37)

수혈유구 2호에서 출토되었고 이암제로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단



도면 36. 삼국시대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

면형태는 제형으로 추정된다. 앞면과 뒷면은 매끄럽게 마연되었고 부분적으로 종방향의 마연흔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11.1㎝, 잔존너비 7.1㎝, 두께 5.4㎝

38. 동체부편(도면 38-38, 도판 36-38)

수혈유구 5호에서 출토되었고 동체부의 하위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청회색(5PB 5/1)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횡방향의 목리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목리흔과 녹로성형흔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5.1㎝, 두께 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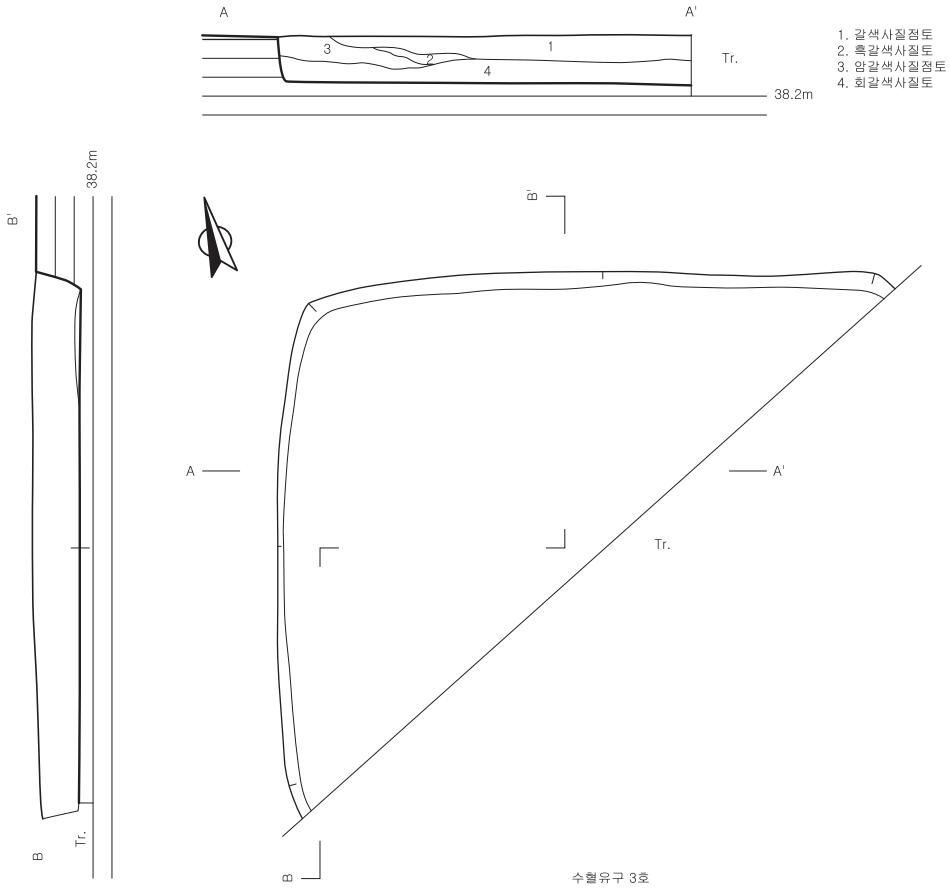
39. 동체부편(도면 39-39, 도판 37-39)

수혈유구 6호에서 출토되었고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갈회색(10YR 6/2)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내박자흔과 목리흔이 관찰되고 물손질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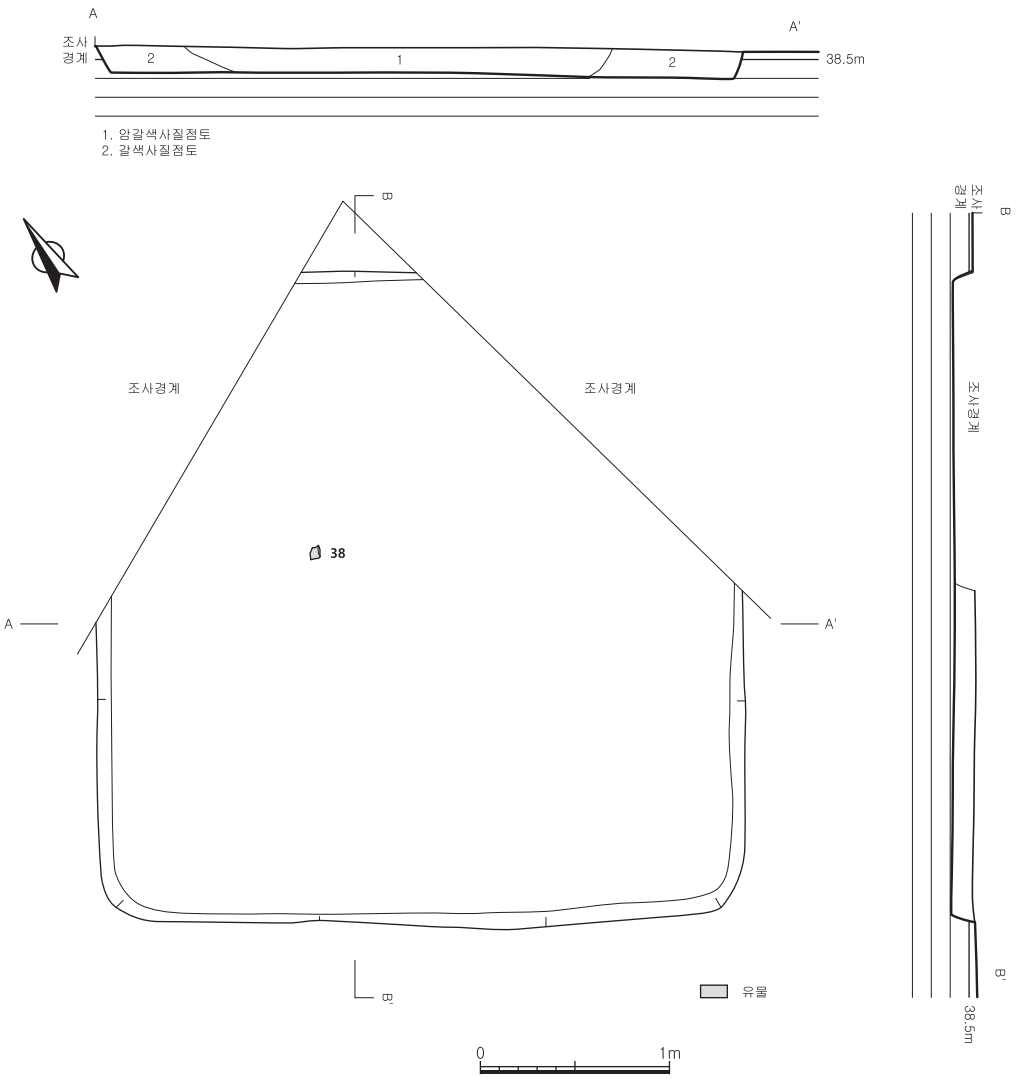
잔존길이 9.7㎝, 두께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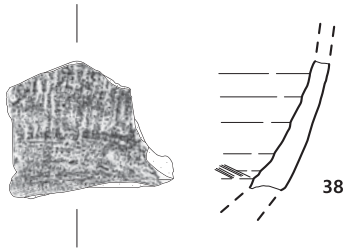
40. 완(도면 40-40, 도판 38-40)

수혈유구 7호에서 출토되었고 구연부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깝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회색(10Y 7/1)을 띠고 부분적으로 잡물과 그을음이 흡착되었다. 구연부는 수평으로 짧게 꺾였고 구연단은 말각으로 처리하였다. 신부는 내경하여 내려가며, 바닥은 평저이다. 신부의 외면에 'X'표시가 선명하게 보이고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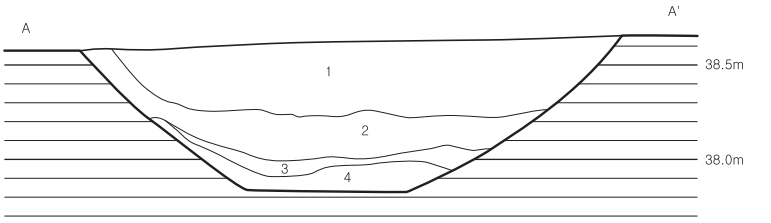


도면 37. 삼국시대 수혈유구 3 ·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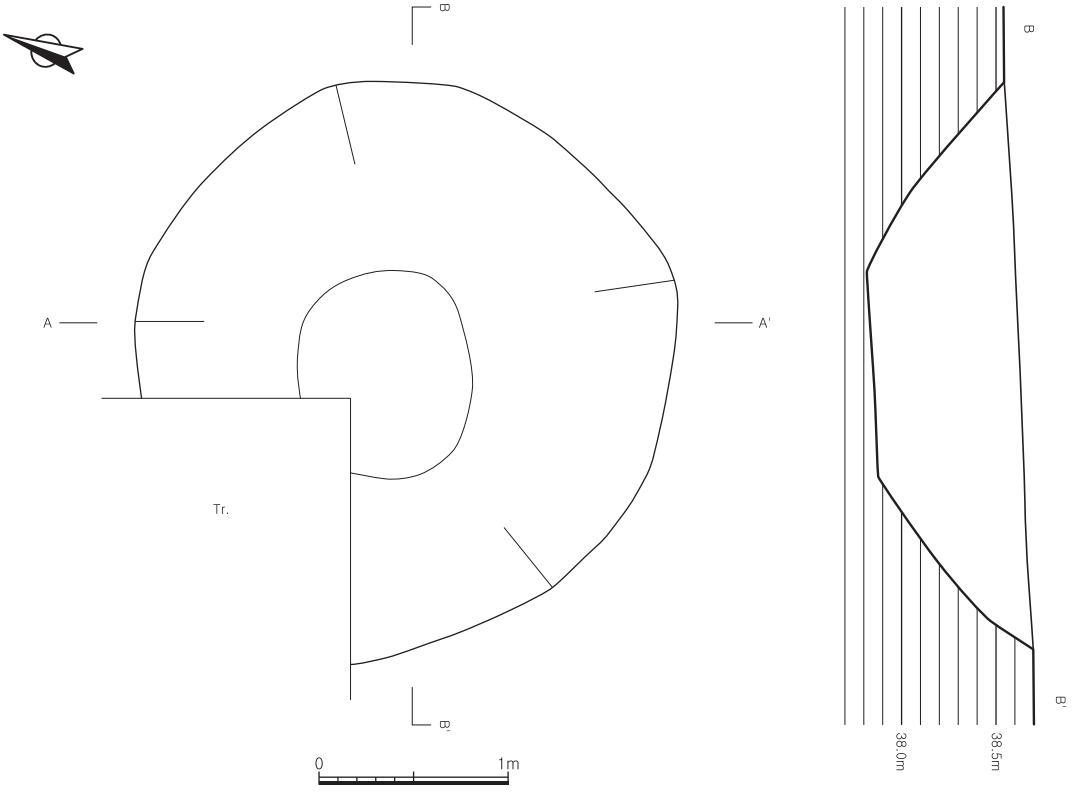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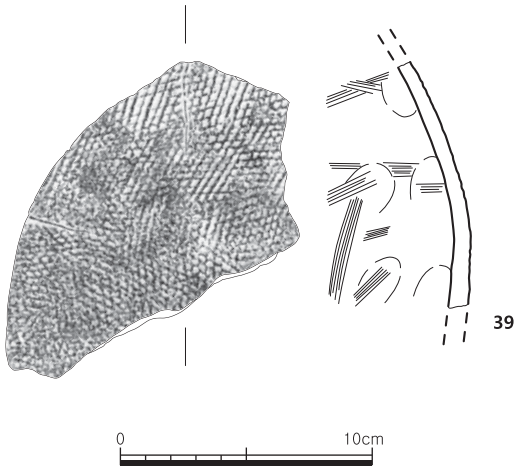


도면 38. 삼국시대 수혈유구 5호 및 출토유물



1. 흑갈색사질점토
2. 암갈색사질점토
3. 회갈색사질점토
4. 황갈색사질점토





도면 39. 삼국시대 수혈유구 6호 및 출토유물

부의 외면에는 점토 보강흔이 확인되며, 전체 회전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5.2㎝, 구경 13.6㎝, 저경 6.8㎝

41. 단경호 구연부(도면 40-41, 도판 38-41)

수혈유구 7호에서 출토되었고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회색(10YR 7/1)을 띠며, 부분적으로 잡물이 흡착되었고 일부 그을음이 확인된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양단이 돌출되고 중앙부가 오목한 형태이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가며, 외면에는 구연부에서 동체부까지 승문이 타날되었고 물손질로 대부분 지워져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확인된다. 내면에는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5㎝, 복원구경 20.0㎝, 두께 0.5~0.8㎝

42. 동이 구연부(도면 40-42, 도판 3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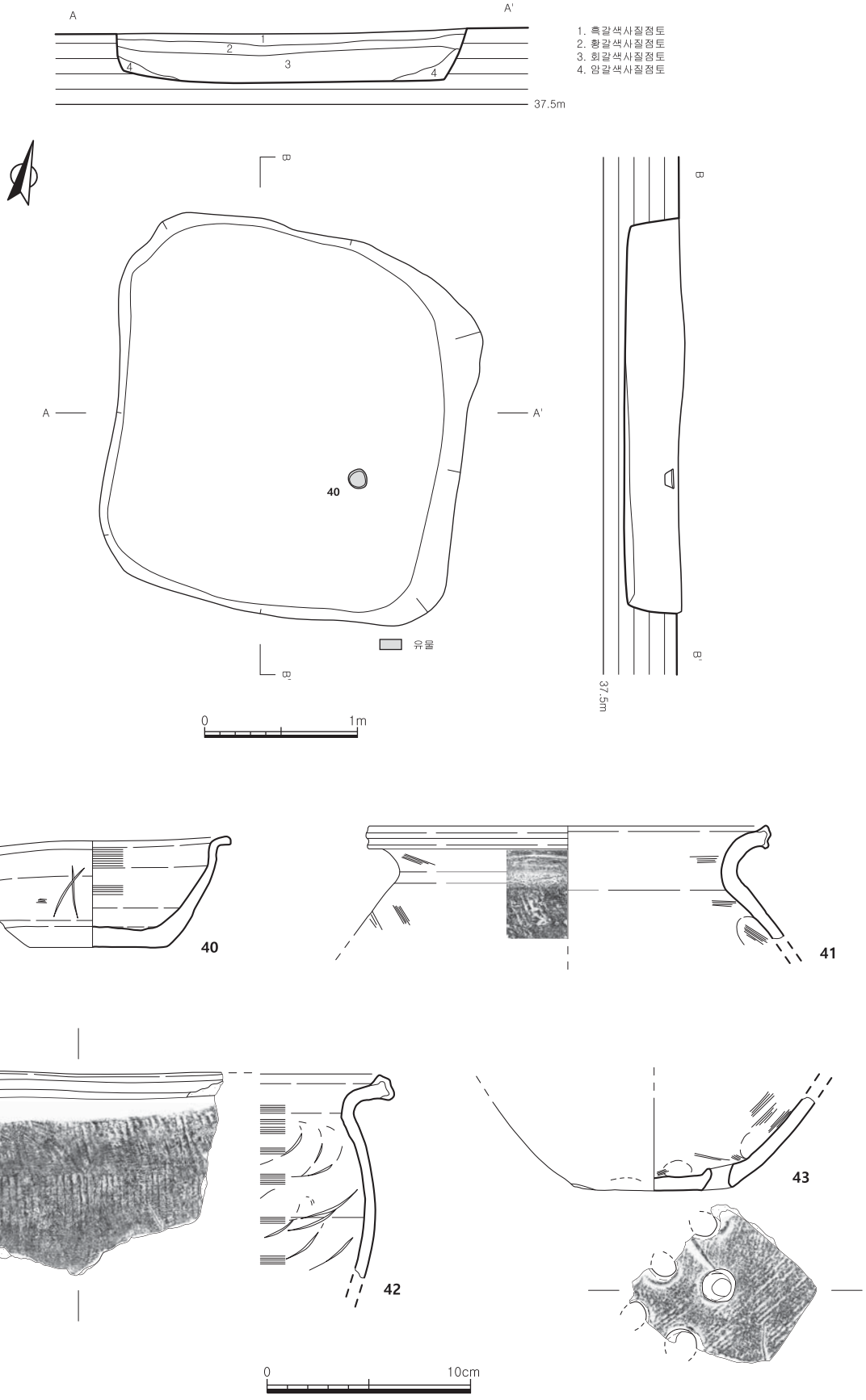
수혈유구 7호에서 출토되었고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회색(10YR 7/2)을 띠며, 부분적으로 잡물이 흡착되었고 내면에 일부 그을음이 확인된다. 구연부는 크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양단이 둥글게 돌출된 형태를 띠고 있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가며, 외면에 종선문+횡선문이 타날되었고 물손질로 지워져 희미하게 확인된다. 내면에는 내박자흔과 목리흔,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9.8㎝, 두께 0.6㎝

43. 시루 저부(도면 40-43, 도판 38-43)

수혈유구 7호에서 출토되었고 저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경질 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2.5Y 5/1)을 띤다. 바닥은 말각평저이고 동체부는 벌어져 올라가며, 외면에는 동체부에서 바닥까지 승문이 타날되었다. 바닥에는 직경 약 1.2㎝ 내외 크기의 증기공이 밖에서 안으로 뚫려 있으며, 잔존 편에 5개의 증기공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5㎝, 복원저경 7.0㎝



도면 40. 삼국시대 수혈유구 7호 및 출토유물

Ⅳ. 조사성과

이번 조사 대상지는 이호성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인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44-2번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면적은 265㎡이다.

발굴조사는 2017년 9월 4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실조사일수 26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지는 '양평 하자포리 유물산포지1'의 남서쪽에 남한강과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하자포리 224-1번지 유적 · 하자포리 244-18번지 외 1필지 유적 · 하자포리 245번지 유적 · 하자포리 284-2번지 외 2필지 유적 · 하자포리 337번지 유적 · 하자포리 342번지 유적 ·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조사구역에서 북쪽에 연접해 위치하는 하자포리 244-18번지 외 1필지 유적에서는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과 원삼국시대 문화층,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문화층 등 총 4개 문화층이 조사되었다. 가장 하부인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에서는 굴립주건물지 1동 · 주혈군(6개), 원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2동 · 굴립주건물지 1동 · 수혈유구 6기,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1동 · 굴립주건물지 2동 · 수혈유구 6기 · 구 1기, 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4동 · 수혈유구 7기 등 총 31기의 유구 외에 주혈군(6개)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 대부장경호 · 완 · 대부완 · 시루 · 대각 · 지석 · 마제석검 등 총 43점이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2동이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모두 장방형이다. 내부시설로는 주거지 1호에서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는데 노지는 주거지 중앙 바닥면을 약간 오목하게 굴착한 다음 납작한 천석을 1벌 깔고 점토를 발라 마무리하였다. 평면형태는 잔존양상으로 볼 때 방형으로 추정된다. 주혈은 주거부 벽면을 따라 8개가 확인되었다. 바닥면은 점토다짐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호 · 옹 등이 출토되었는데 구연부 혹은 저부로 부분적으로 출토되어 전체적인 기형파악이 어려운 유물이 대부분이지만 동체부의 장동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출토된 유물 중 저부의 경우 굽상저부는 1점, 평저 저부는 2점이 출토되었다. 저부의 경우 굽상 저부에서 평저로 진행되어 가는데 평저저부는 2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하여 3세기 전반이 되면 굽상 저부 보다 더 성행하게 된다.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 옹의 기형은 3세기 전반이 되면 장동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17] 본 유적 출토품에는 아직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삼국시대 문화층은 2세기 후반이나 3세기 극초반 정도로 편년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주거지는 조사경계 북쪽에서 부분적으로 노출되었고 타 유구와 중복으로 인한 훼손으로 정확한 양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노출된 양상으로 볼 때, 동쪽으로 돌출된 출입구를 가진 평면 육각형의 주거지로 돌출된 출입시설은 주거부 바닥면 쪽으로 경사져 내려간다. 유물은 격자문이 타날된 호 1점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남서쪽 바닥면에서 확인된 목탄을 이용한 AMS분석 결과 AD318~402년으로 확인되었다. 삼국(백제한성기)시대 구상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시루 저부편은 기

17) 김일규, 2009,「가평 대성리유적의 원삼국시대 후기 취락」,『加平 大成里遺蹟』, 京畿文化財硏究員.

형은 발형 시루로 추정되며, 평저에 삼각형 증기공이 타공되었고 외면에 선문이 타날되었다. 발형 시루의 경우 기존연구에서 타날문으로 시간과 관련된 속성 분류가 이루어졌는데 동체부 전면에 승문을 타날하고 저부 외측면에 격자문을 타날한 것→ 평행선문만을 타날한 것→ 그리고 승문내지 격자문만을 타날한 것 순이며, 각각 백제한성기 Ⅰ～Ⅱ기→Ⅱ～Ⅲ기→Ⅲ～Ⅳ기에 해당한다[18]. 부분적으로 확인된 주거지 양상과 빈약한 출토유물로 인해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AMS분석 결과 및 주거지 평면 형태, 구상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시루를 통해 조합하여 본다면 백제한성기 Ⅱ기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9].

삼국시대 주거지는 4동이 조사되었는데 모두 평면 방형의 주거지로 대부분 상호중복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조사경계에서 접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전체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인 주거지 1호에서는 주거지 서벽을 따라 구들시설이 확인되었는데 교란으로 인한 훼손이 심하여 아궁이부와 배연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잔존하는 구들의 평면형태를 볼 때 'ㄱ'자형 구들로 추정되며, 25～40㎝ 정도 크기의 할석과 천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주거지 4호 출토유물 중 대부호의 경우 구연부와 경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구형의 동체부에 사다리꼴로 직선적인 대각을 가지며 볼록렌즈형의 일단투창이 투공된 형식이다. 신라토기의 기형인 대부호의 경우 한강유역 유적에서 6세기 중엽경부터 출토되기 시작하는데 시기가 내려올수록 동체부가 편구화 되며, 대각은 길이가 짧아지고 이단교호투창에서 일단투창으로 변화되어간다[20]. 주거지 4호 출토유물은 일단투창이 투공되어 있으나 동체부의 형태가 아직 구형을 보이고 있기에 대략 6세기 후반정도로 편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 문화층의 상한은 비정하기 어려우나 하한은 6세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진흥왕 16년에 북한산에 순행하여 강역을 확장시켰다[21].'라고 전하는데 이로 미루어볼 때 신라가 555년에는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유적에서 출토된 신라계 유물은 이러한 신라의 영역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지 주변은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생활유적 즉, 마을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원삼국시대～삼국시대의 주거지 등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는데 기 조사된 주변의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한강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각 시기의 마을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 조사의 한계로 인해 마을유적의 분포 범위 등은 확인 할 수 없었다. 향후 주변에 대한 조사결과가 집적된다면 양평 하자포리 일원에 위치했던 마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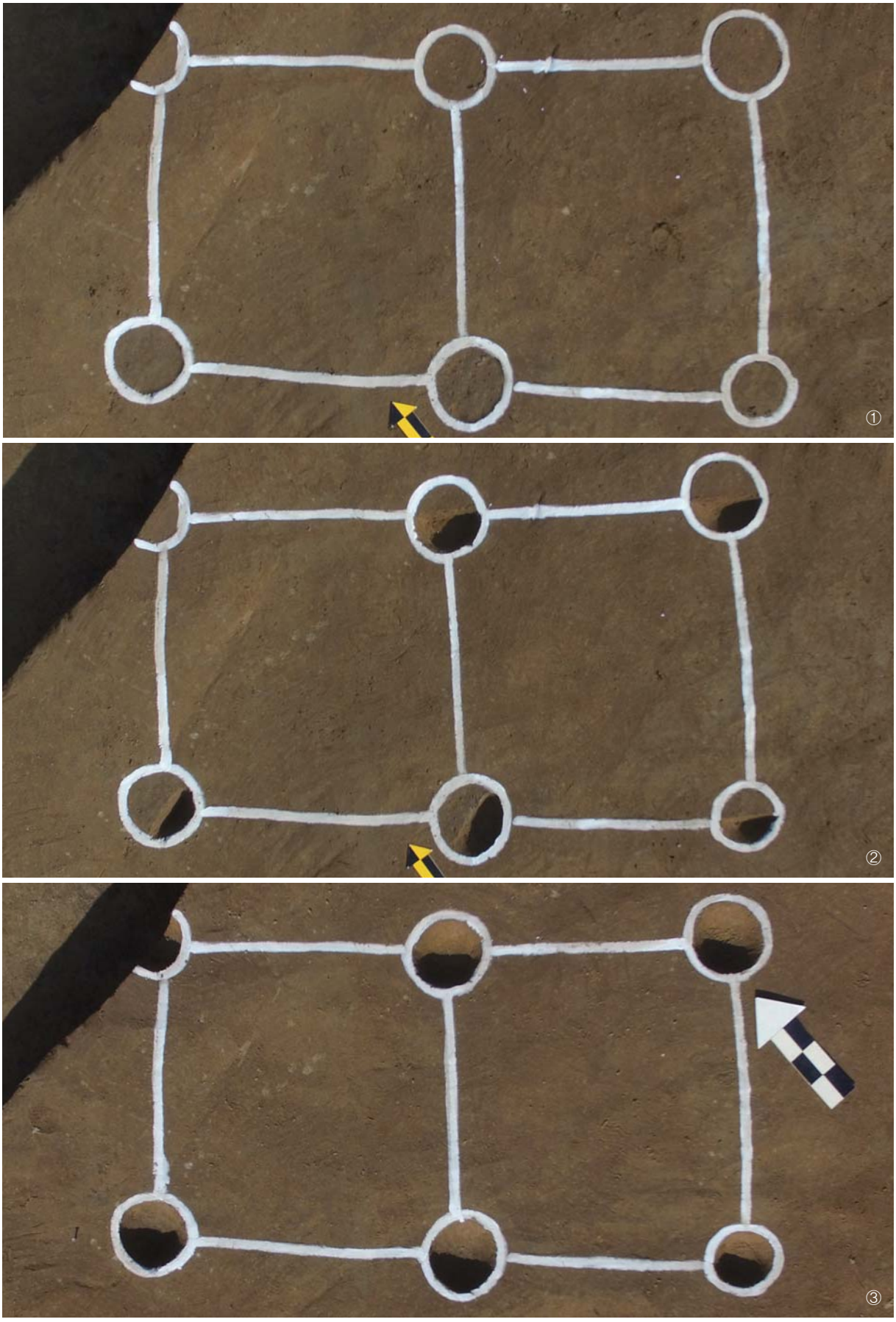
18) 송만영, 2016,「중부 지역 원삼국～백제 한성기 타날문 시루의 지역성과 편년」,『湖南考古學報 52』.
19) 한지선, 2013,「漢城百濟期 聚落과 土器遺物群의 變遷樣相」,『중앙고고연구 12』.
20) 강진주, 2006,「漢江流域 新羅土器에 대한 考察」,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1)『三國史記』券4 新羅本紀 4 眞興王 16年條, "十六年冬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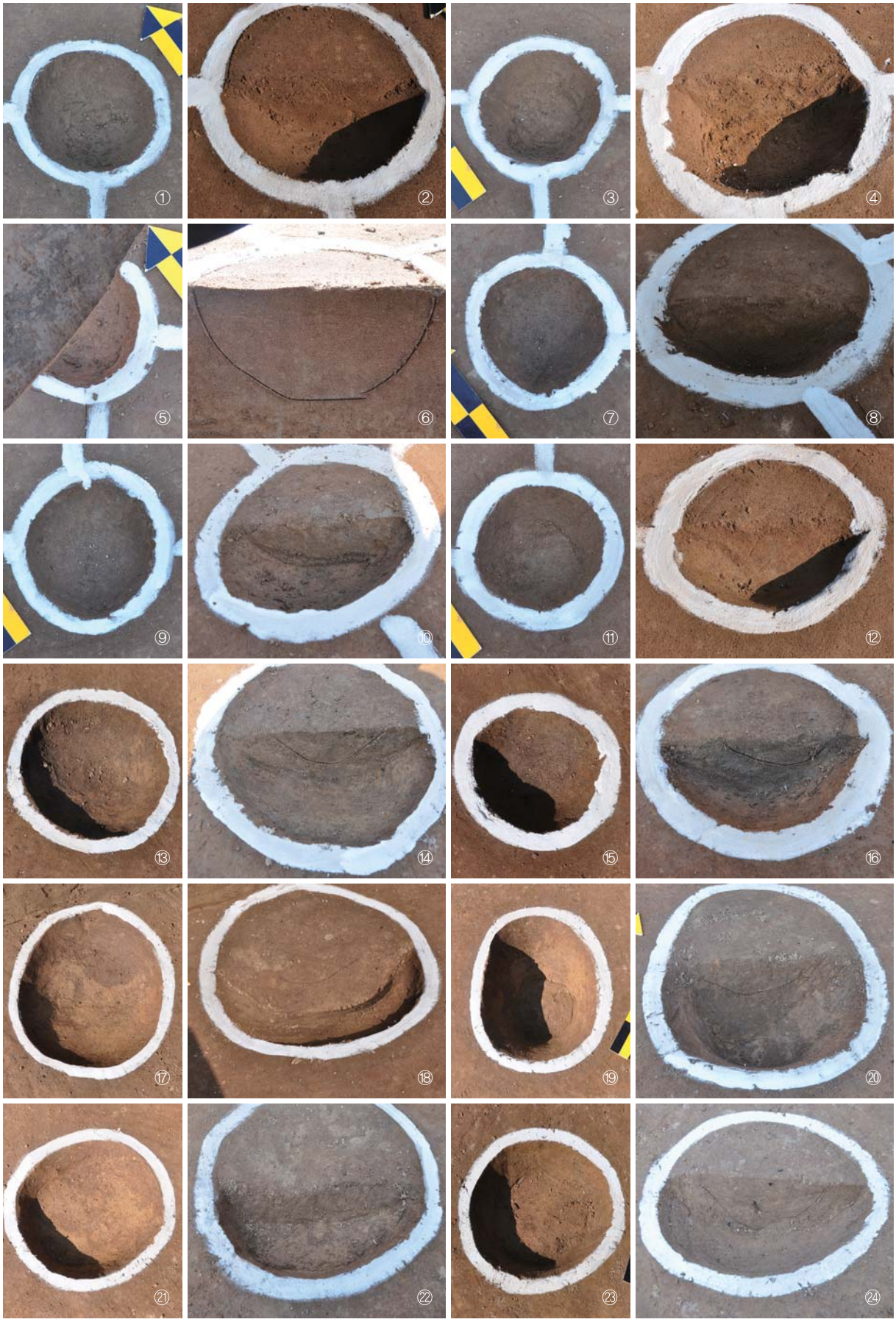
도판 1. 표본조사 대상지(①원경, ②조사전)

도판 2. 표본조사 대상지(①조사후, ②트렌치전경, ③④토층)

도판 3. 표본조사 대상지(①②토층, ③④유구노출상태) 및 원삼국시대 이전 문화층 조사후(⑤)



도판 4. 원삼국시대 이전 굴립주건물지(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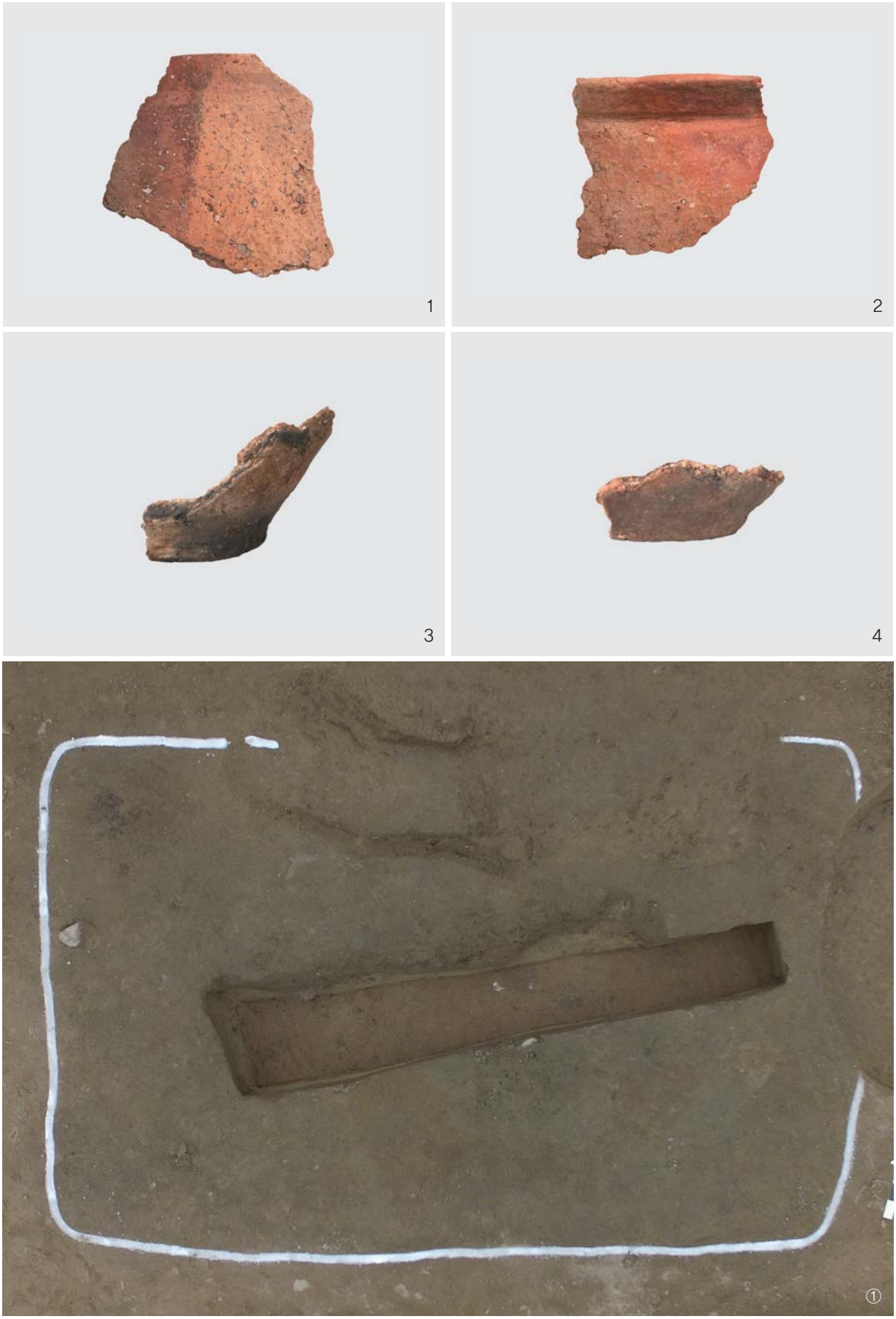


도판 5. 원삼국시대 이전 굴립주건물지(①②주혈1, ③④주혈2, ⑤⑥주혈3, ⑦⑧주혈4, ⑨⑩주혈5, ⑪⑫주혈6) 및 주혈군(⑬⑭주혈1, ⑮⑯주혈2, ⑰⑱주혈3, ⑲⑳주혈4, ㉑㉒주혈5, ㉓㉔주혈6)

도판 6. 원삼국시대 문화층 조사후(①) 및 주거지 1호 조사전(②)

도판 7.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④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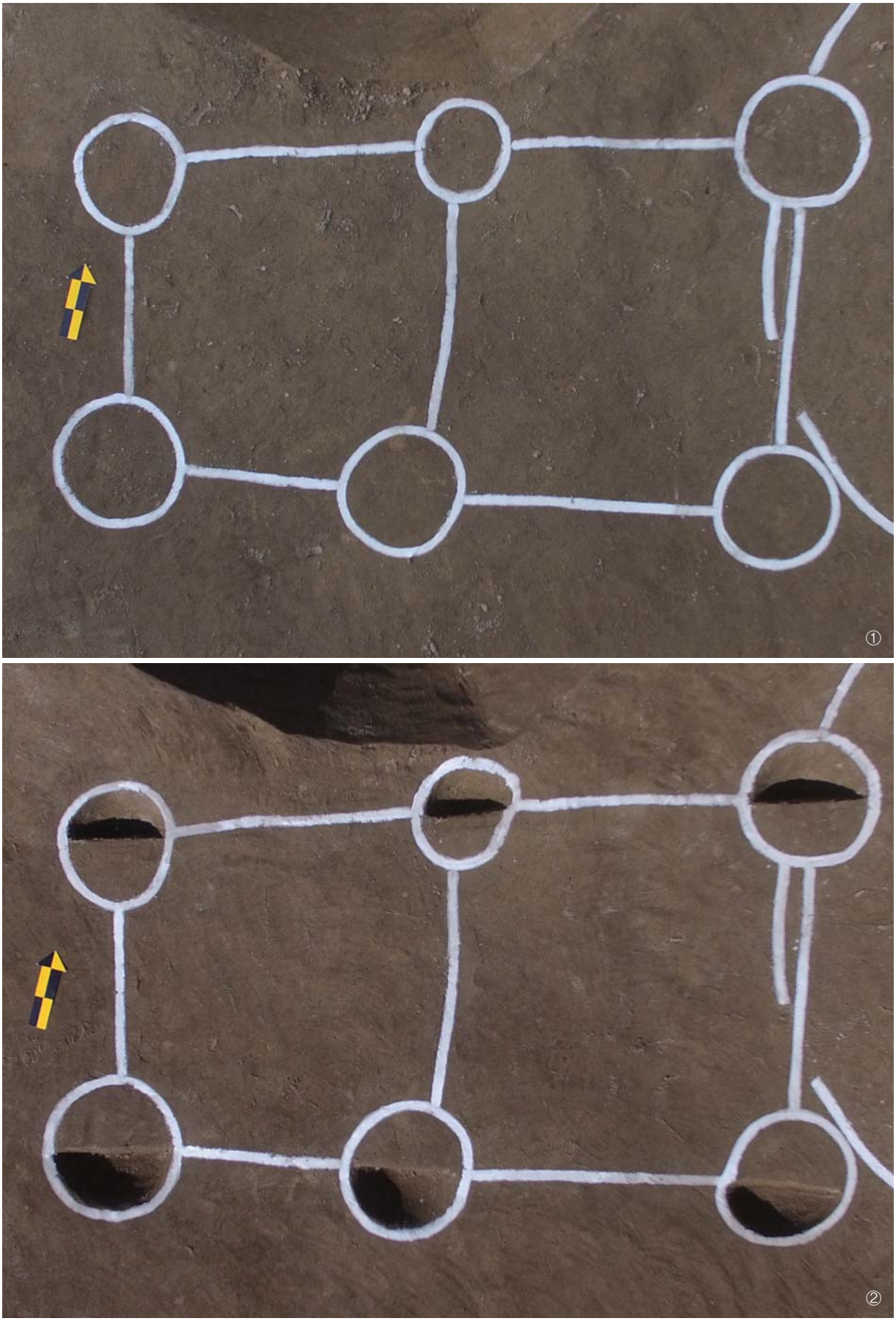
도판 8.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④노지, ⑤⑥주혈1, ⑦⑧주혈2, ⑨⑩주혈3, ⑪⑫주혈4, ⑬⑭주혈5, ⑮⑯주혈6, ⑰⑱주혈7, ⑲⑳주혈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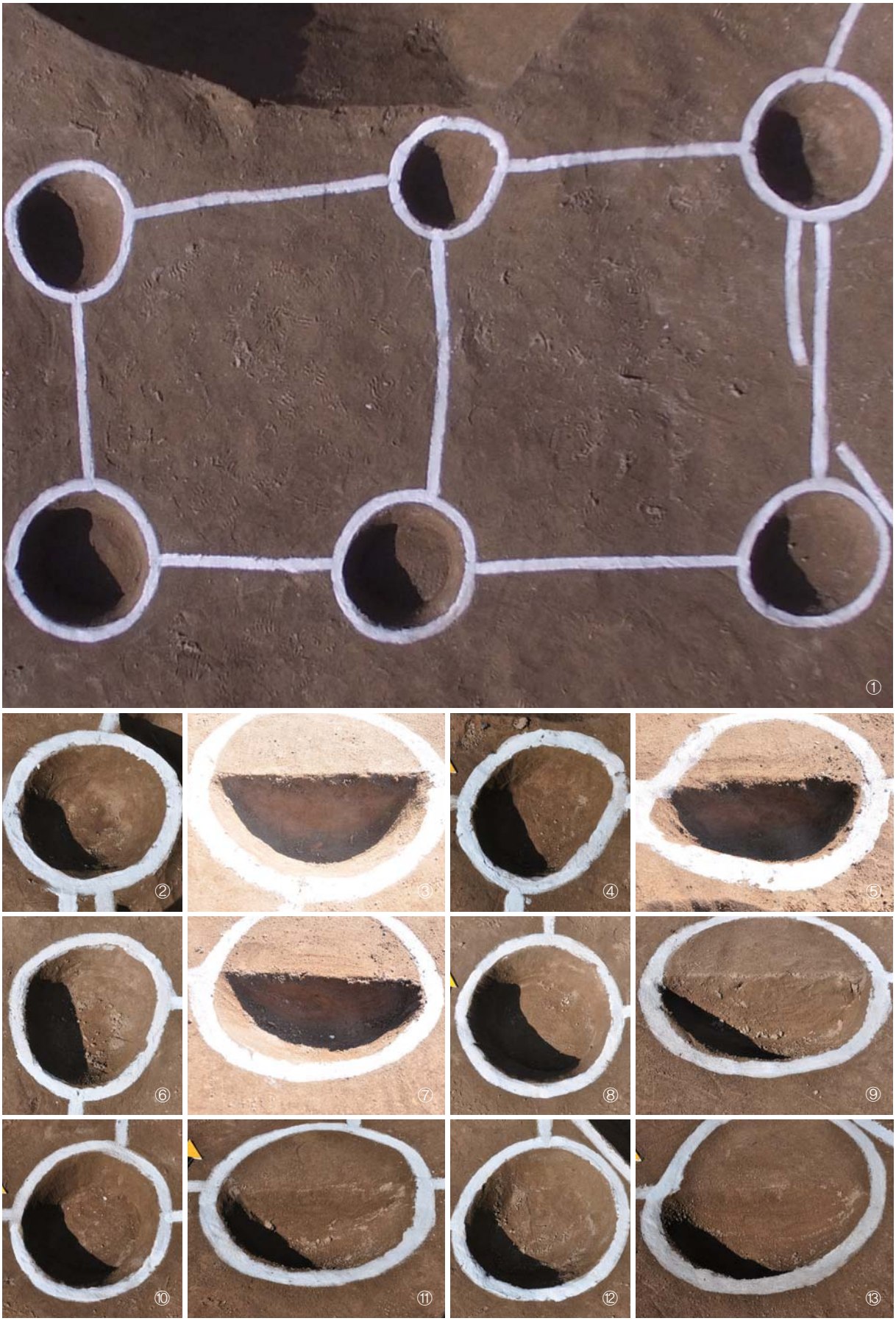
도판 9.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출토유물(1~4) 및 2호 조사전(①)

도판 10.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중, ②조사후)

도판 11.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②토층, ③유물출토상태, 5~7: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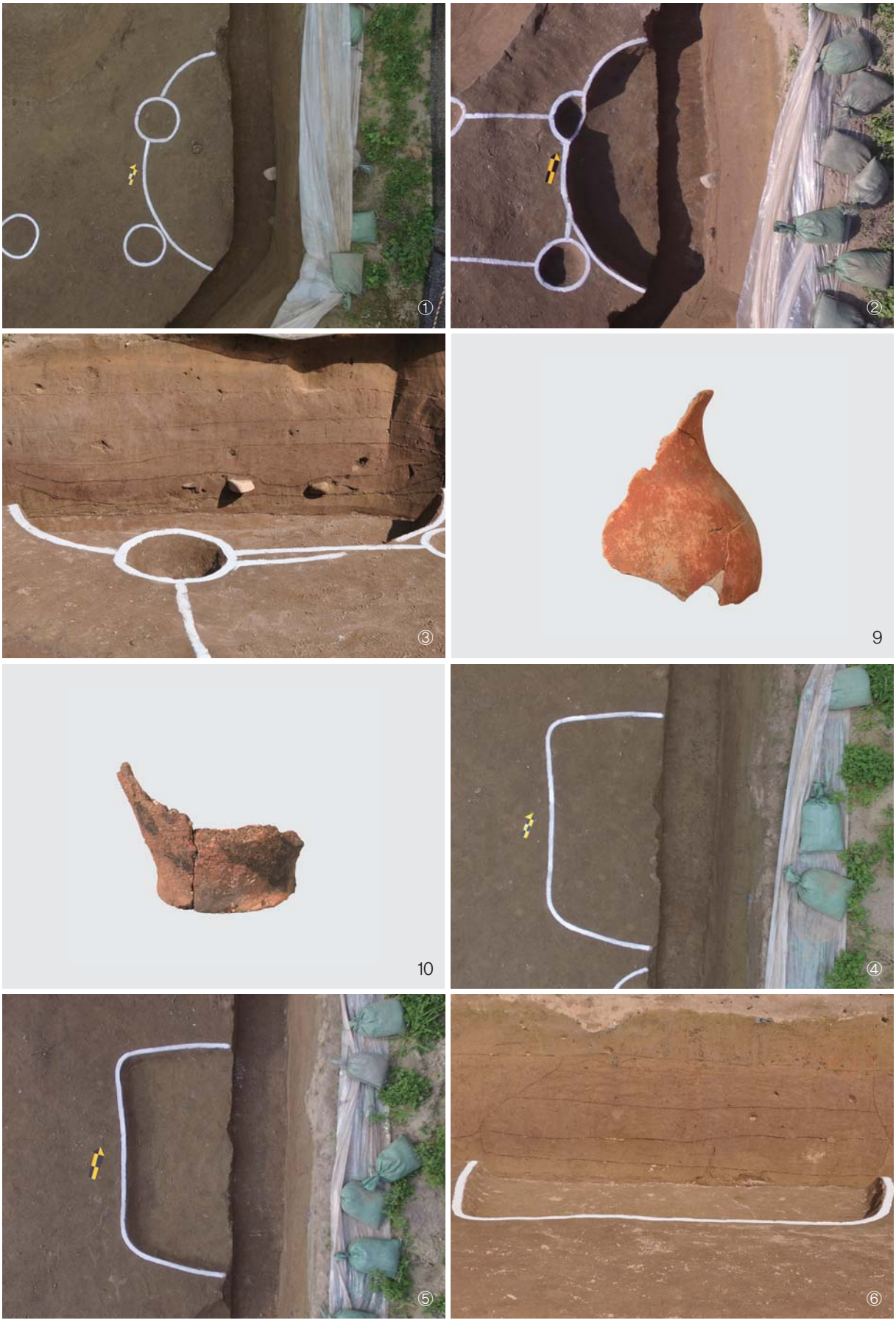


도판 12. 원삼국시대 굴립주건물지(①조사전, ②조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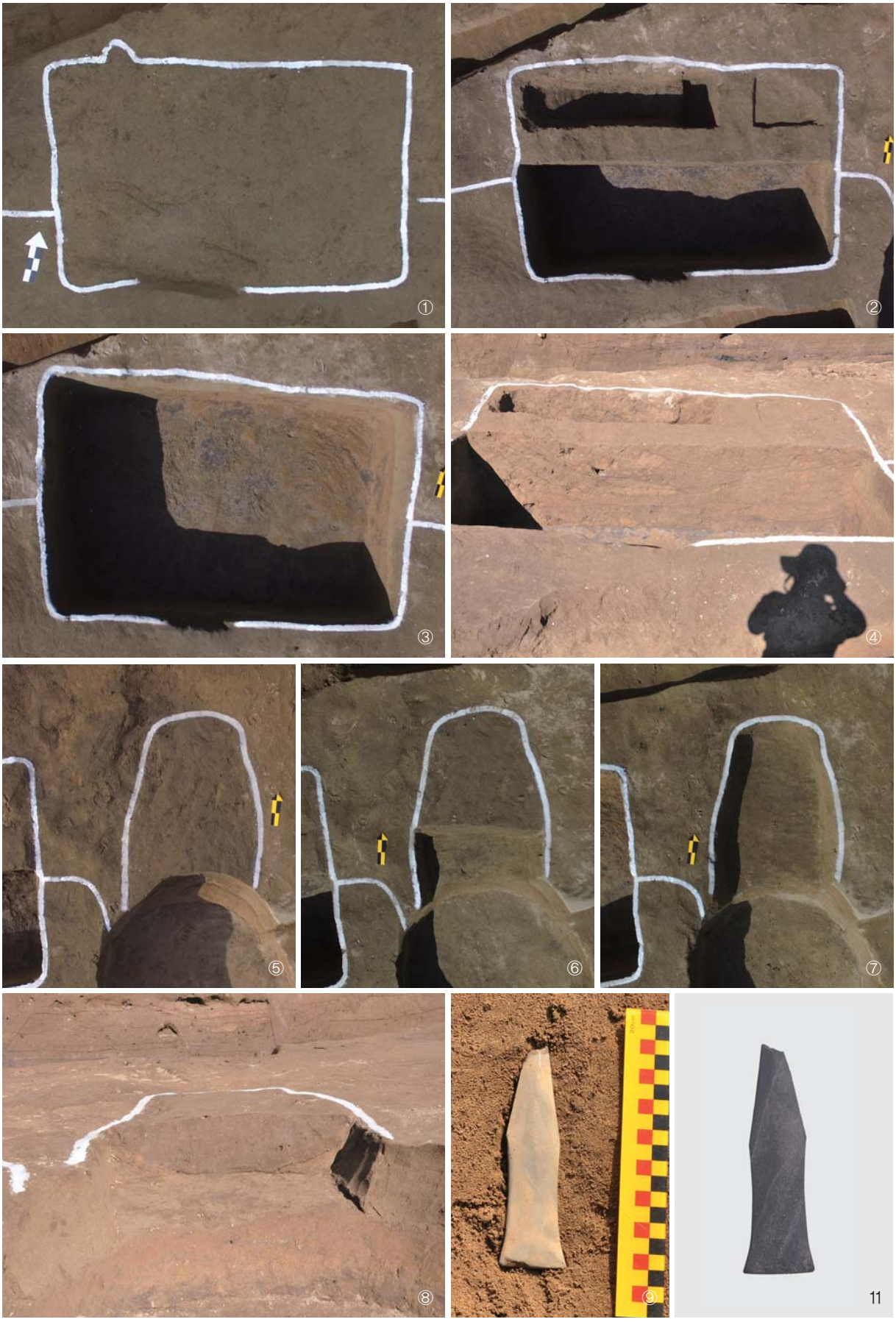


도판 13. 원삼국시대 굴립주건물지(①조사후, ②③주혈1, ④⑤주혈2, ⑥⑦주혈3, ⑧⑨주혈4, ⑩⑪주혈5, ⑫⑬주혈6)

도판 14.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8:출토유물) 및 2호(④조사전, ⑤조사중, ⑥조사후, ⑦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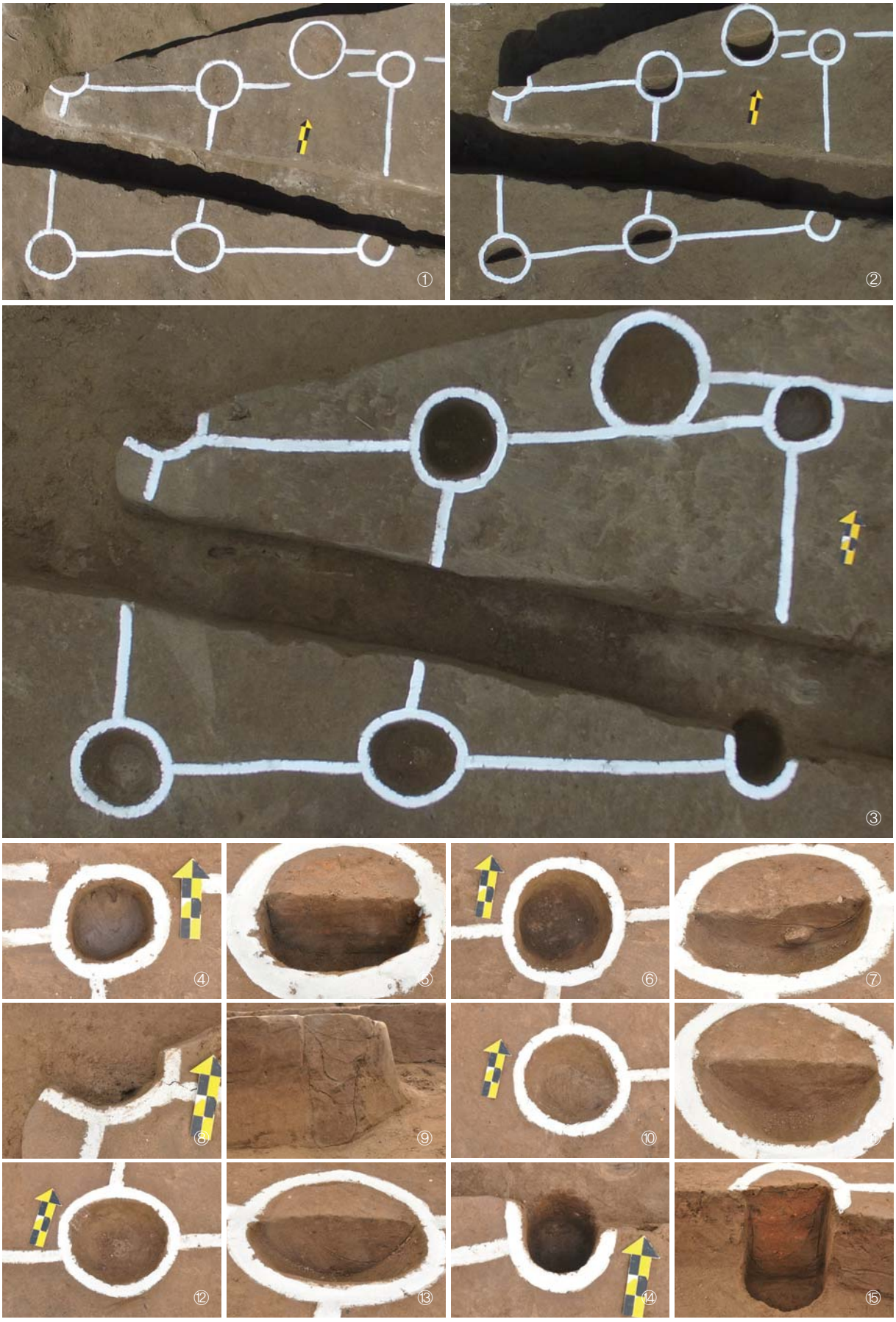
도판 15.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3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9 · 10:출토유물) 및 4호(④조사전, ⑤조사후, ⑥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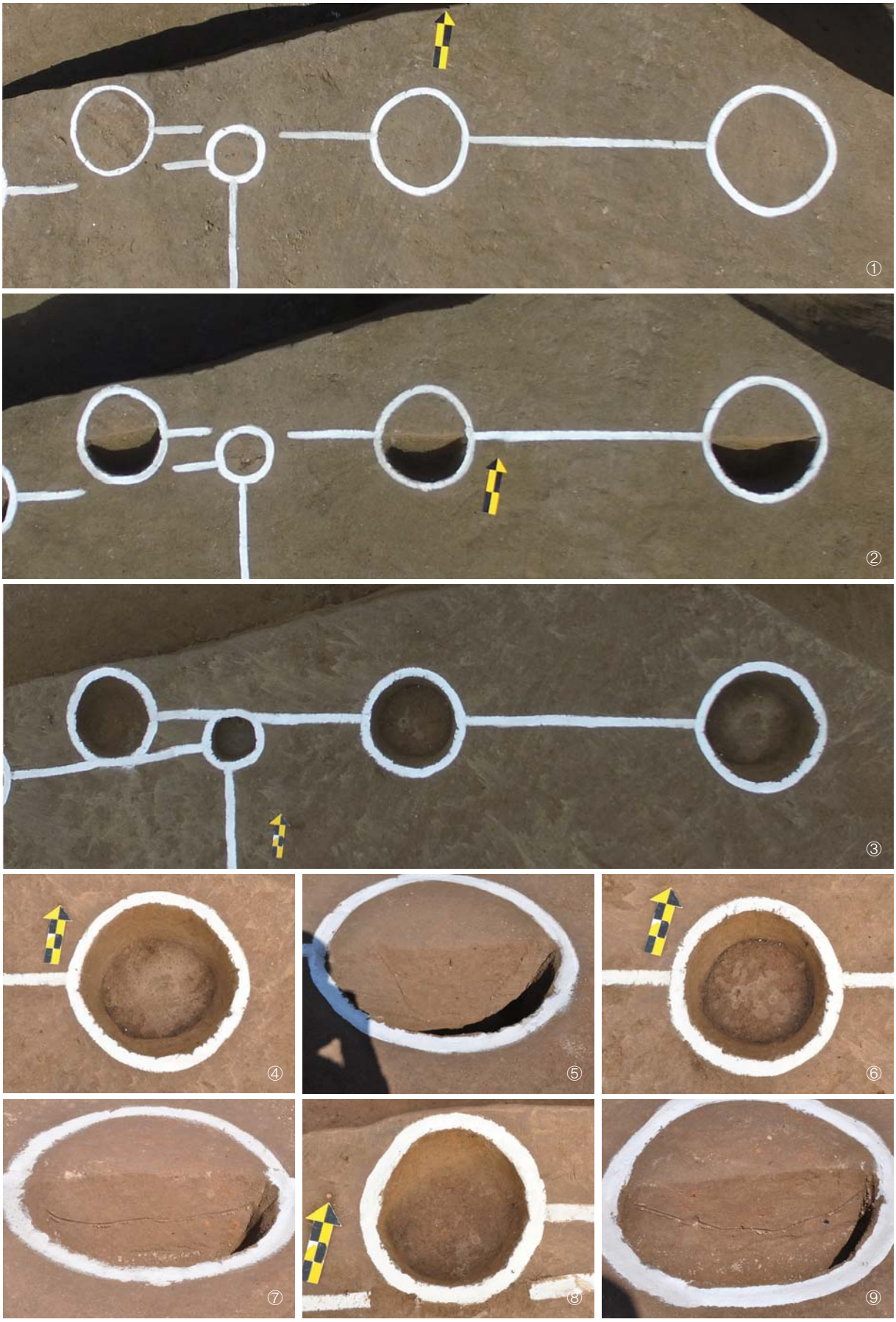
도판 16.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5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6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수습(⑨유물수습상태, 11:수습유물)

도판 17. 삼국(백제한성기)시대 문화층 조사후(①) 및 주거지 조사전(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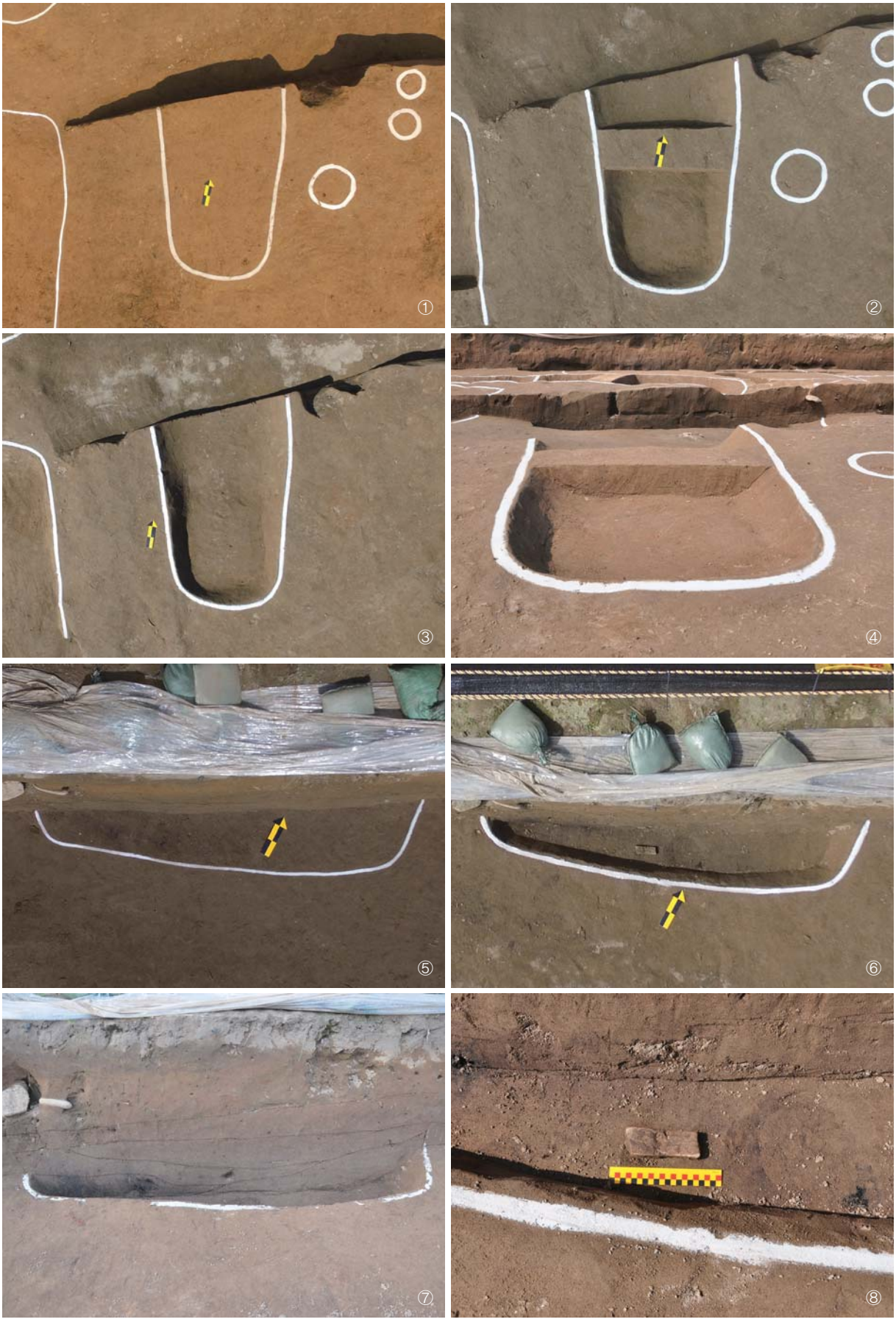
도판 18.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③④토층, ⑤출입구 토층, ⑥유물출토상태, 12:출토유물)



도판 19. 삼국(백제한성기)시대 굴립주건물지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⑤주혈1, ⑥⑦주혈2, ⑧⑨주혈3, ⑩⑪주혈4, ⑫⑬주혈5, ⑭⑮주혈6)



도판 20. 삼국(백제한성기)시대 굴립주건물지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⑤주혈1, ⑥⑦주혈2, ⑧⑨주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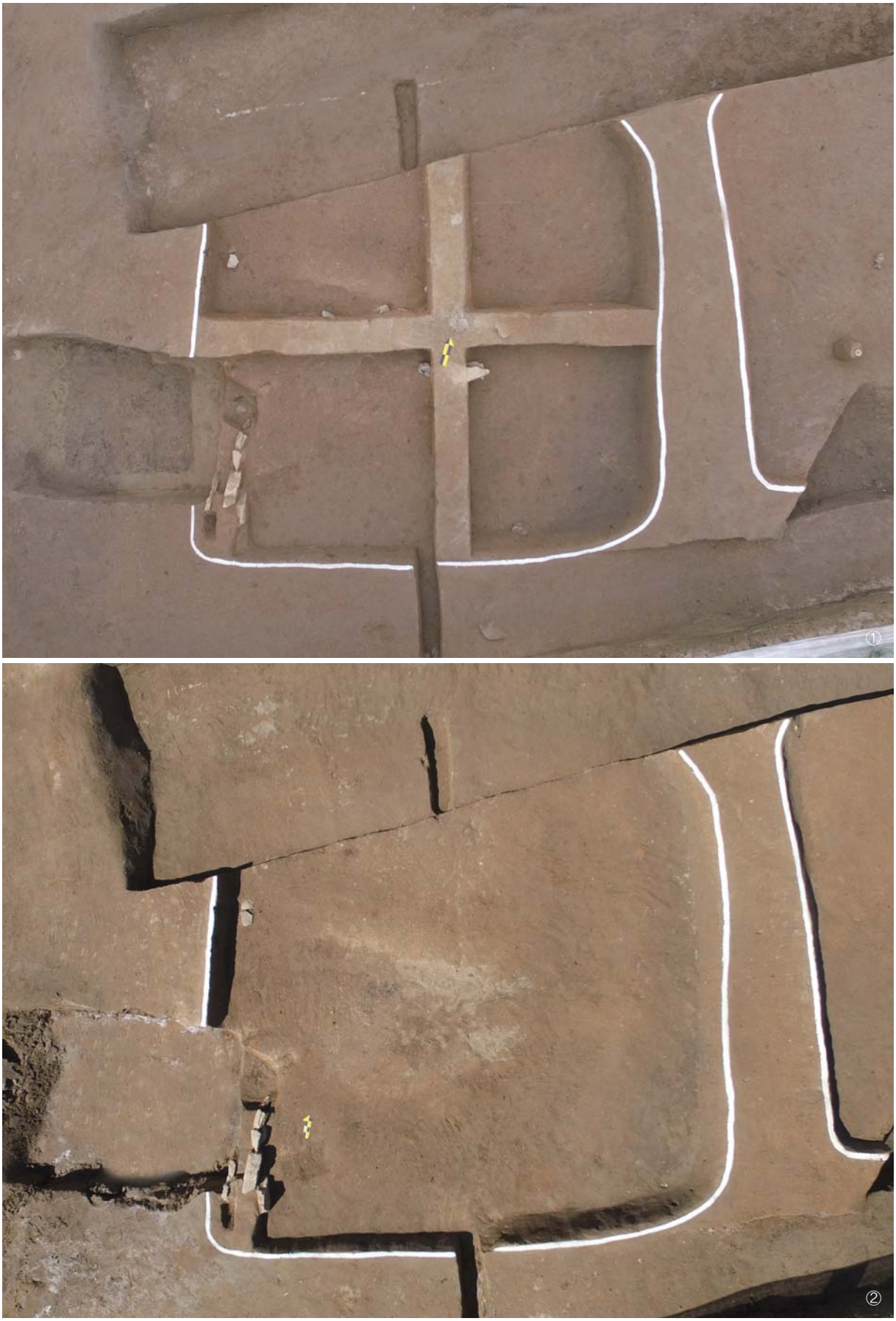
도판 21.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2호(⑤조사전, ⑥조사후, ⑦토층, ⑧유물출토상태)

도판 22.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13) 및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⑤토층, 14 · 15: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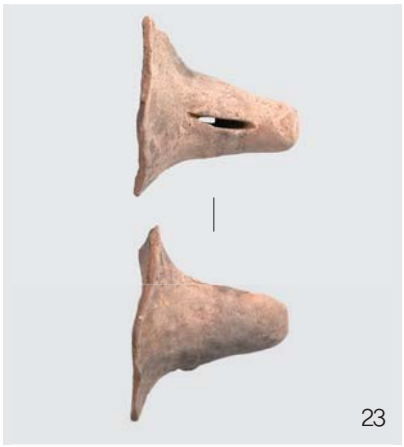
도판 23.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16:출토유물) 및 5호(⑤조사후, ⑥토층, 17~19: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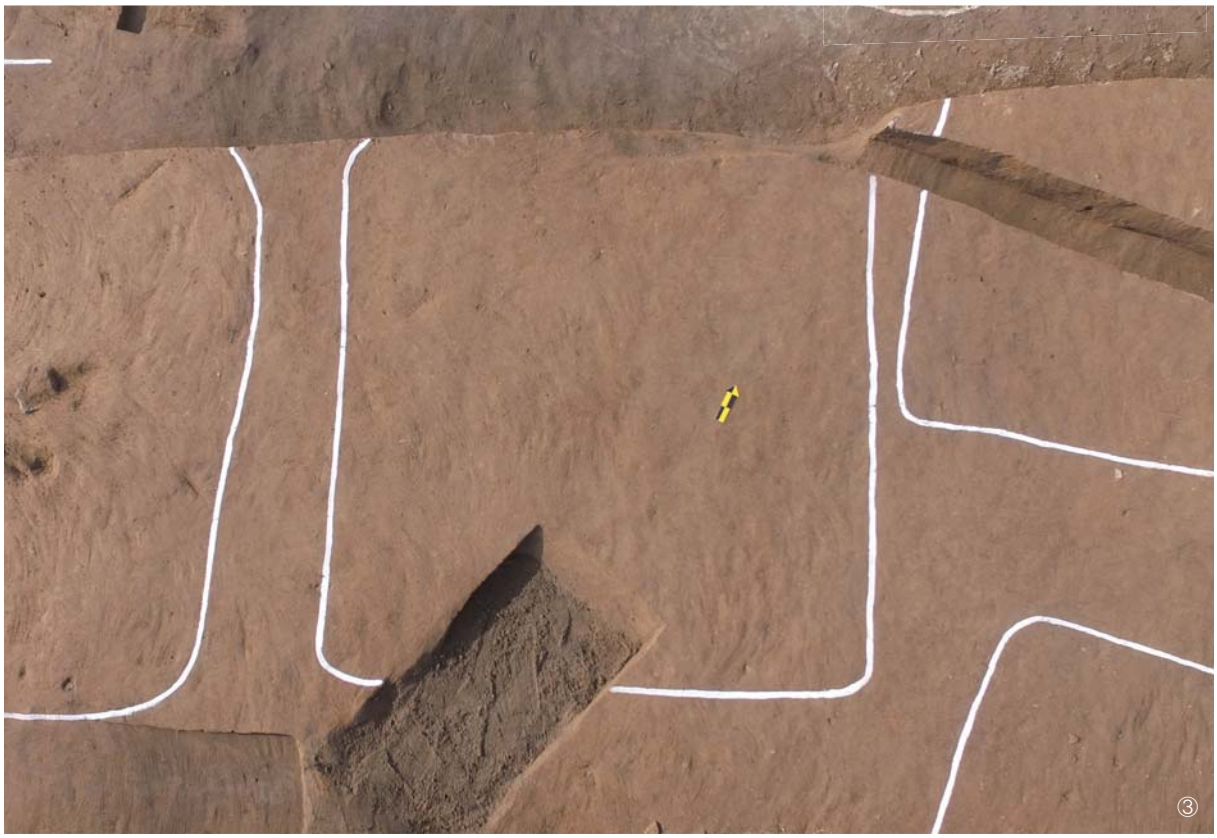
도판 24. 삼국(백제한성기)시대 수혈유구 6호(①조사후, ②토층) 및 구상유구(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⑥토층, 20:출토유물)

도판 25. 삼국시대 문화층 조사후(①) 및 주거지 1호 조사전(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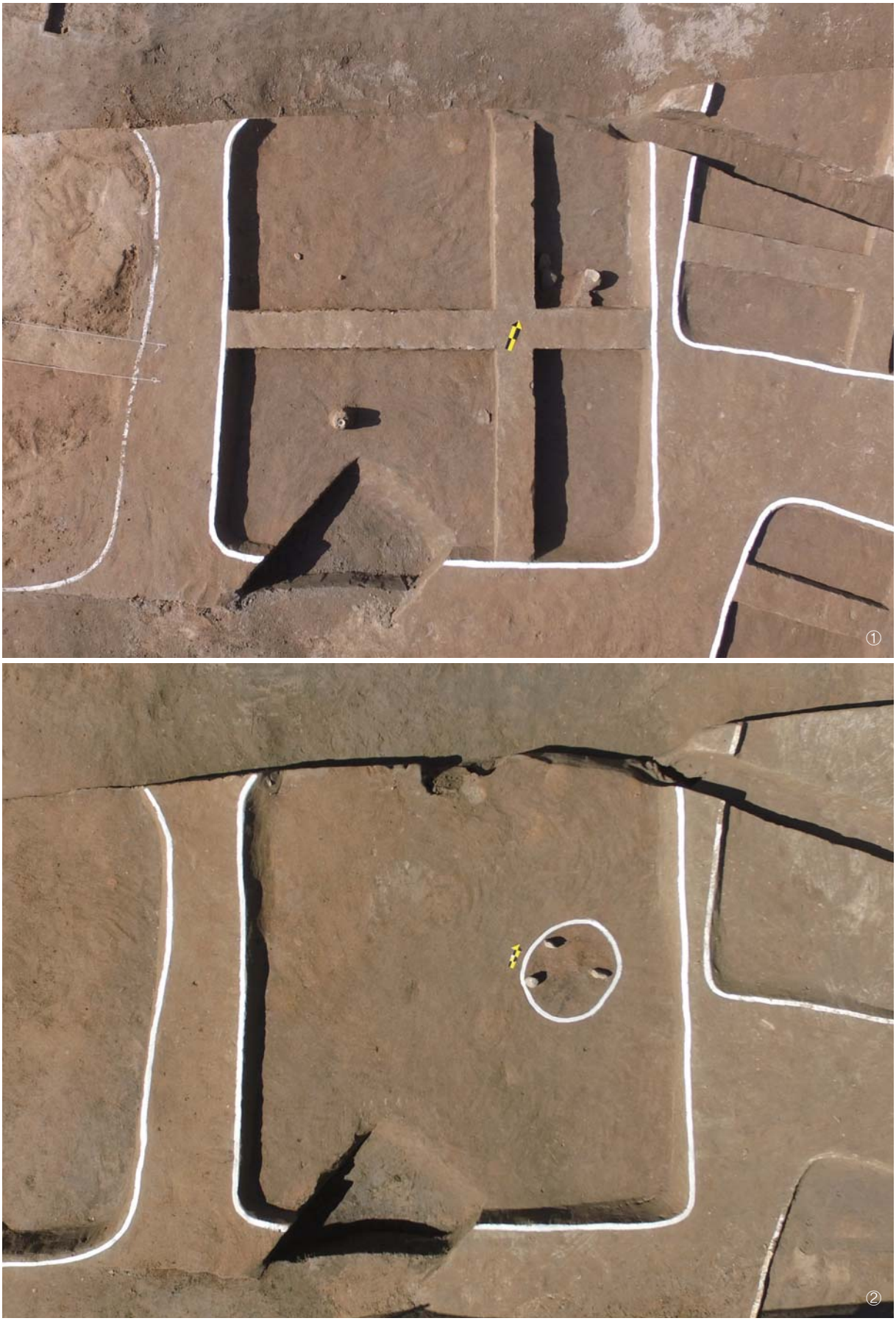


도판 26.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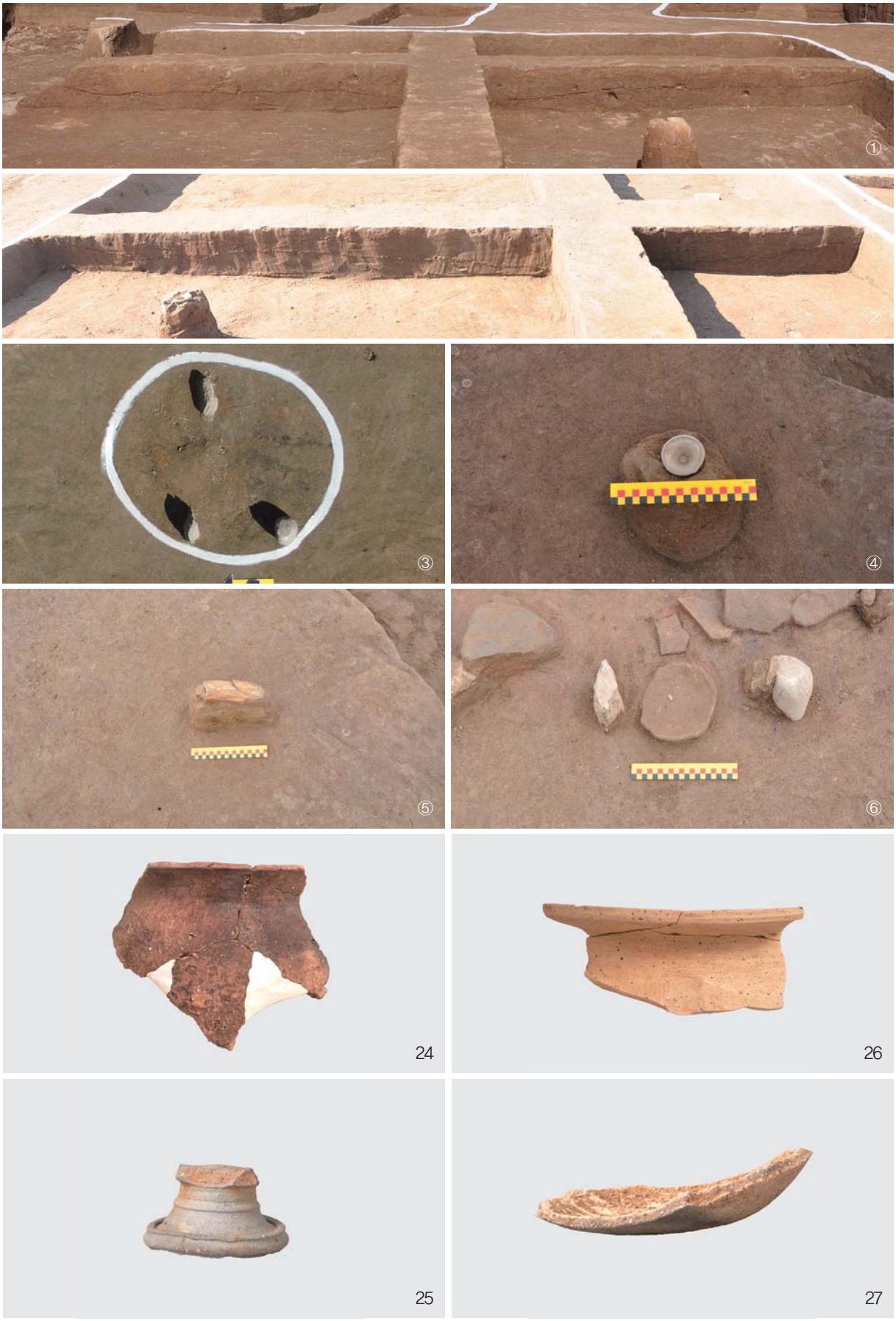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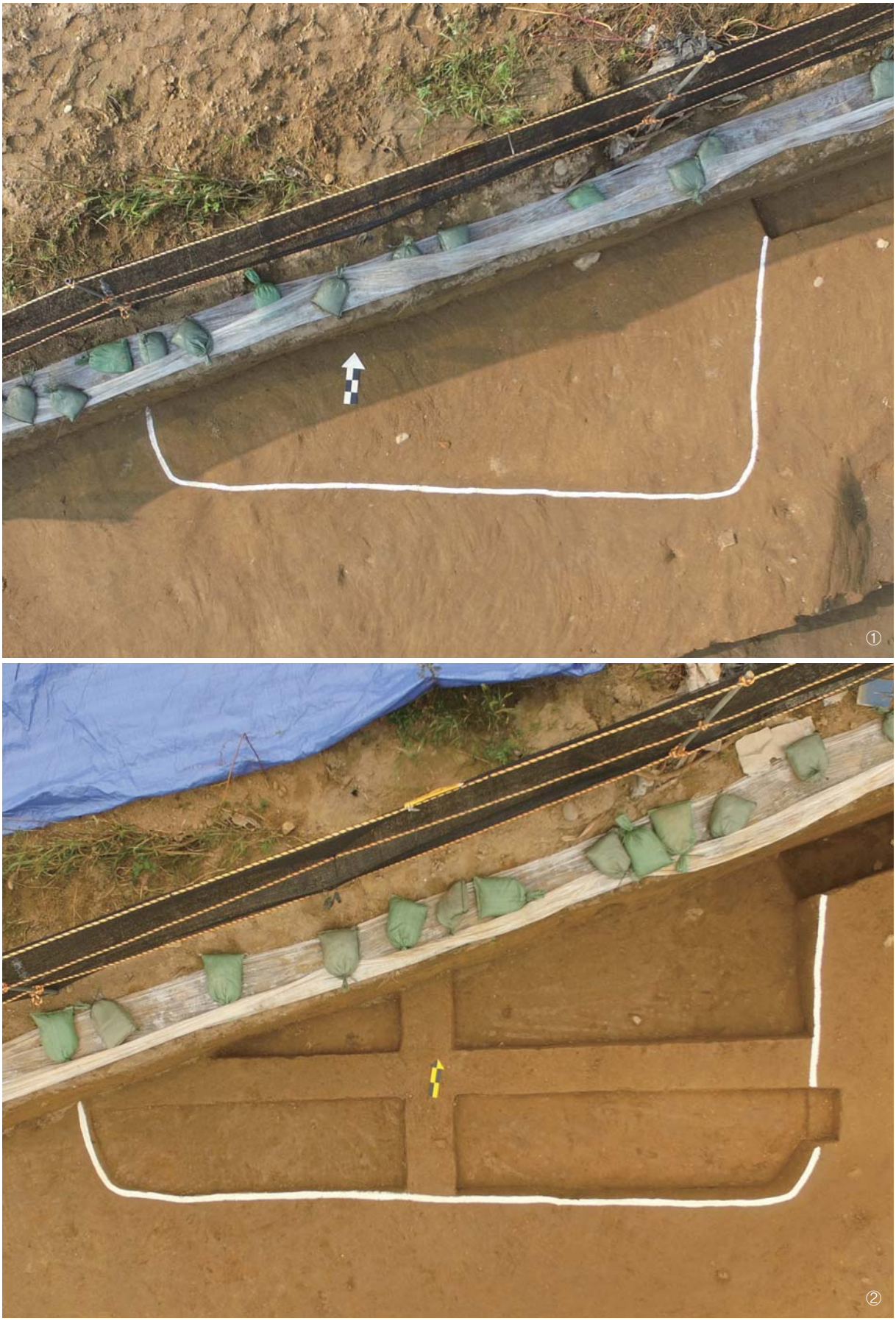
도판 27.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②토층, 21~23:출토유물) 및 2호 조사전(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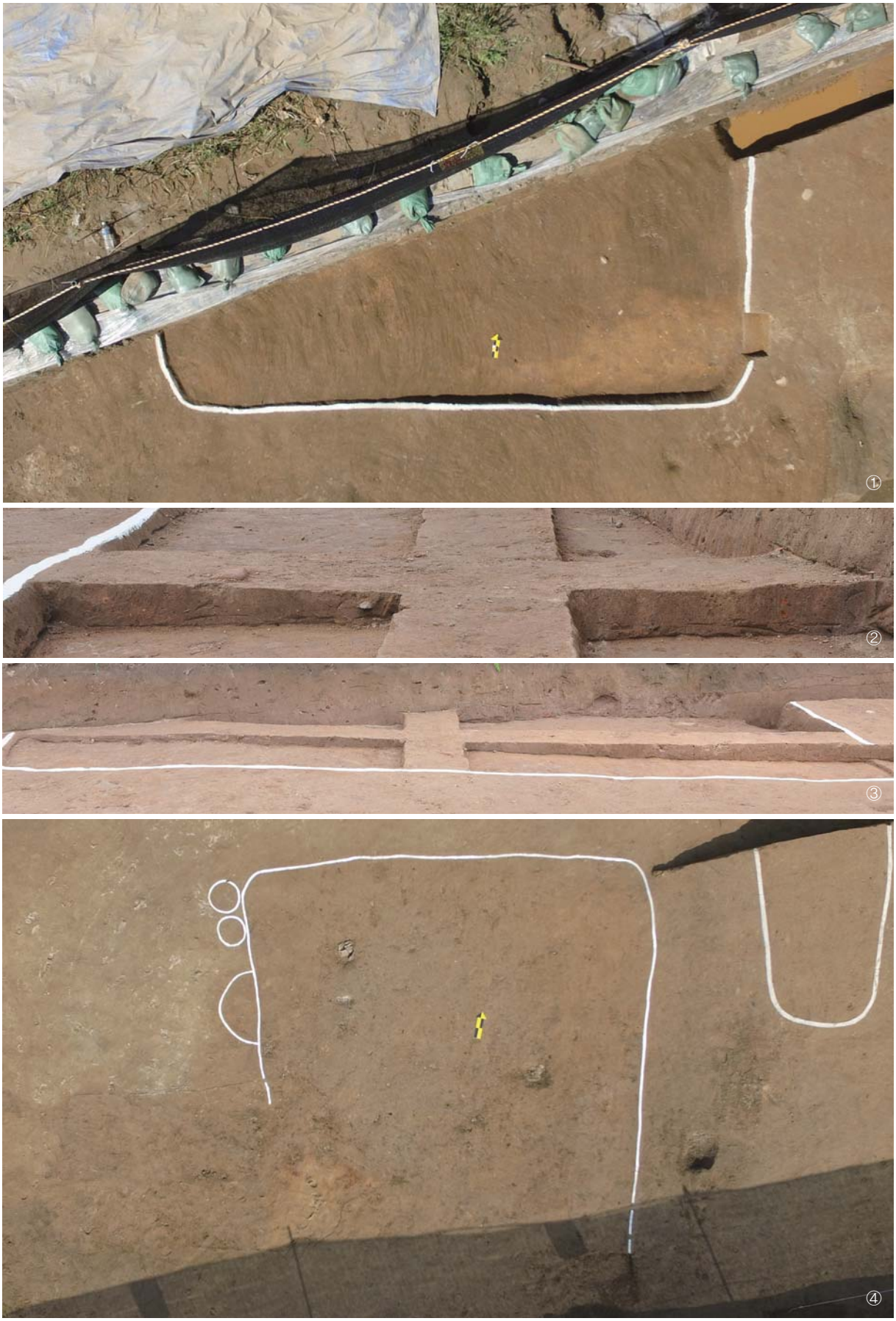
도판 28.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중,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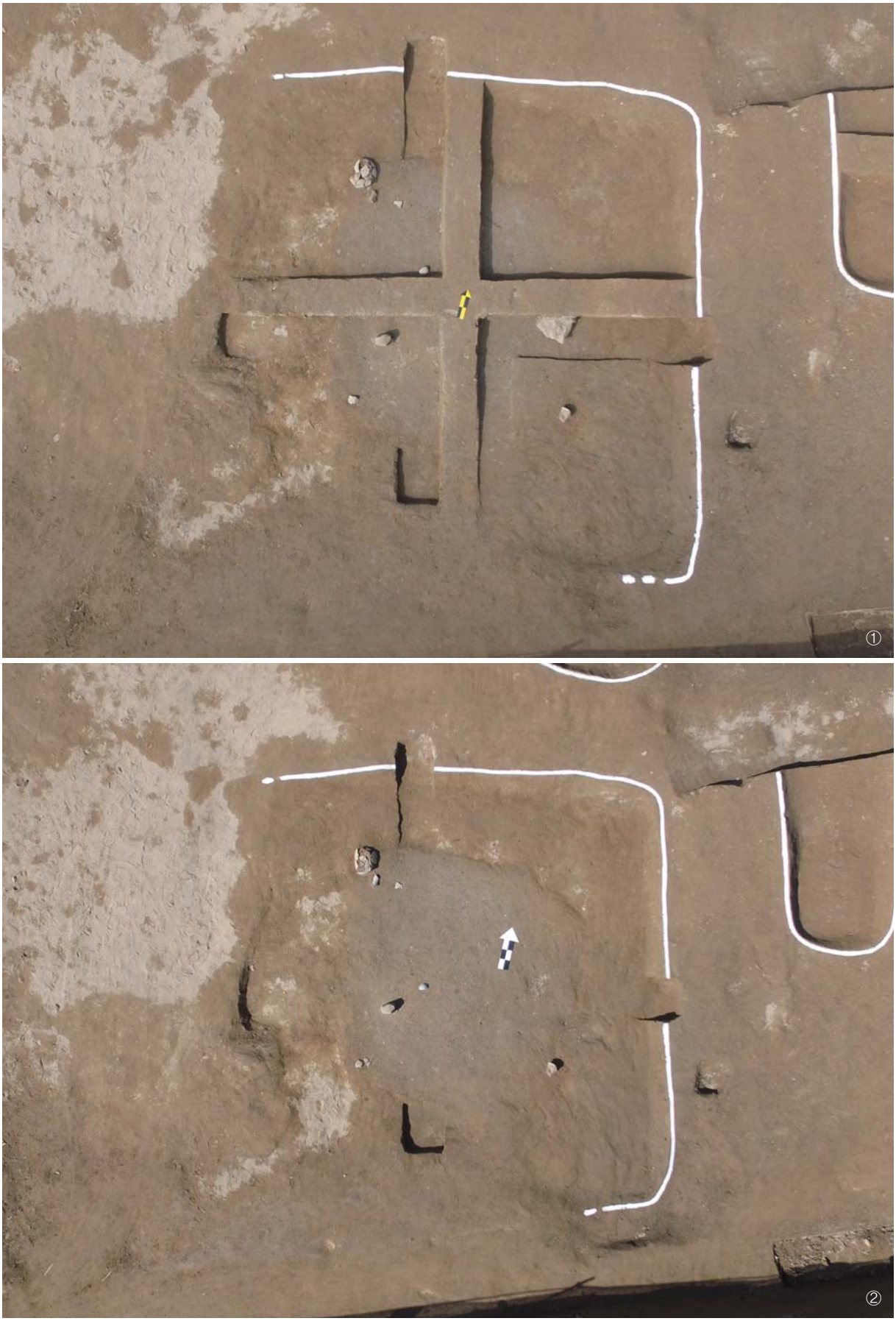
도판 29.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②토층, ③노지, ④~⑥유물출토상태, 24~27:출토유물)



도판 30.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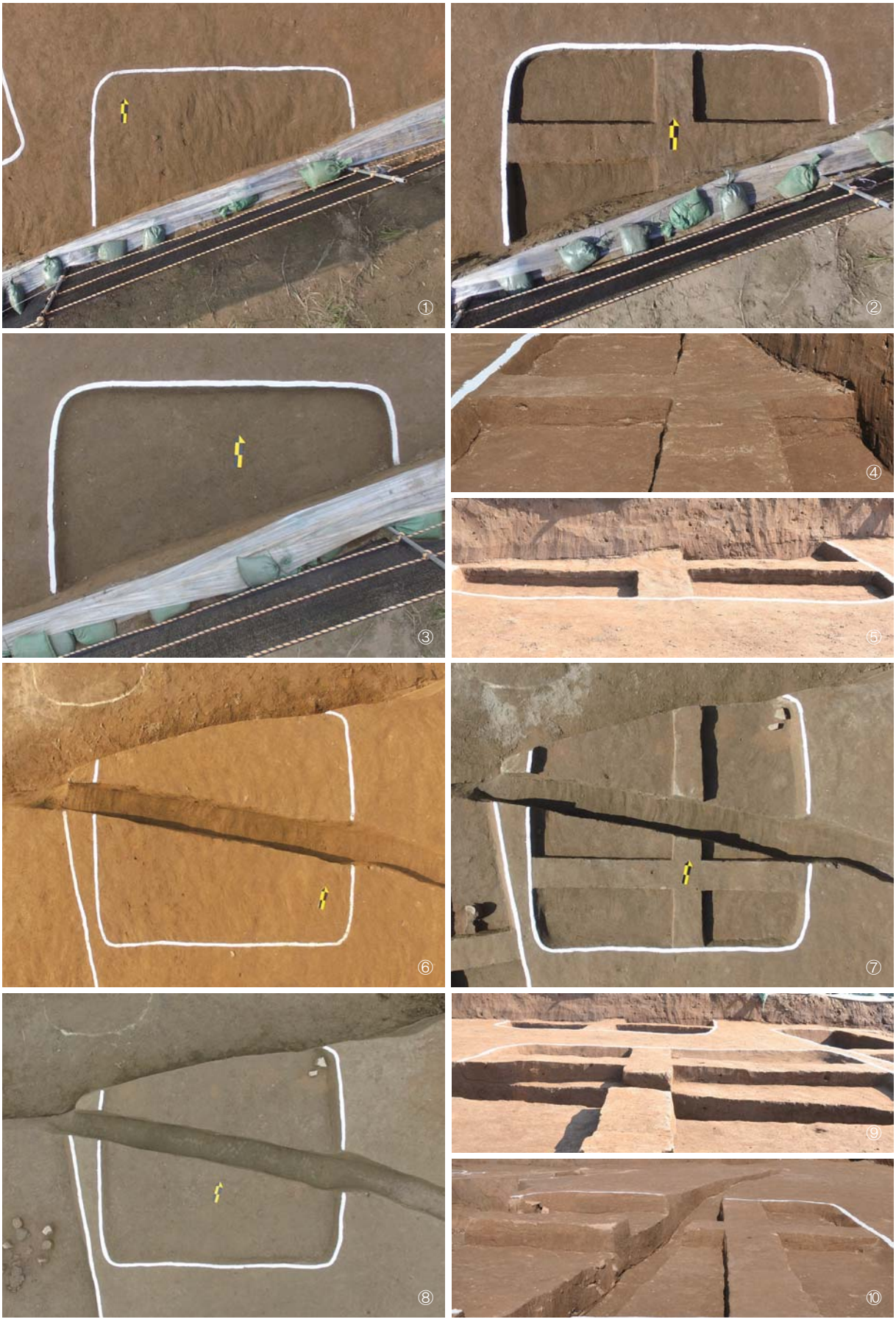


도판 31.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후, ②③토층) 및 4호 조사전(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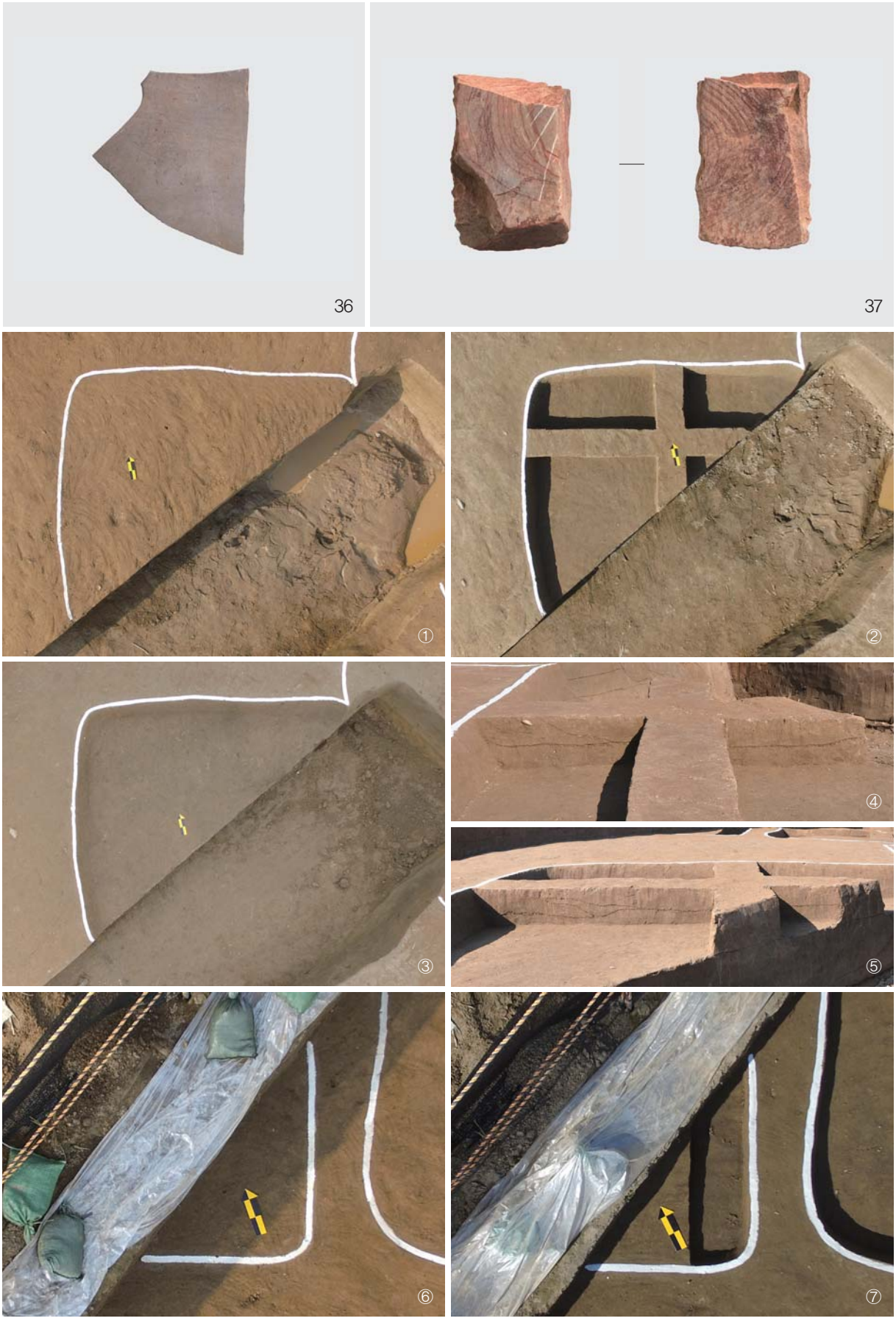


도판 32.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조사중,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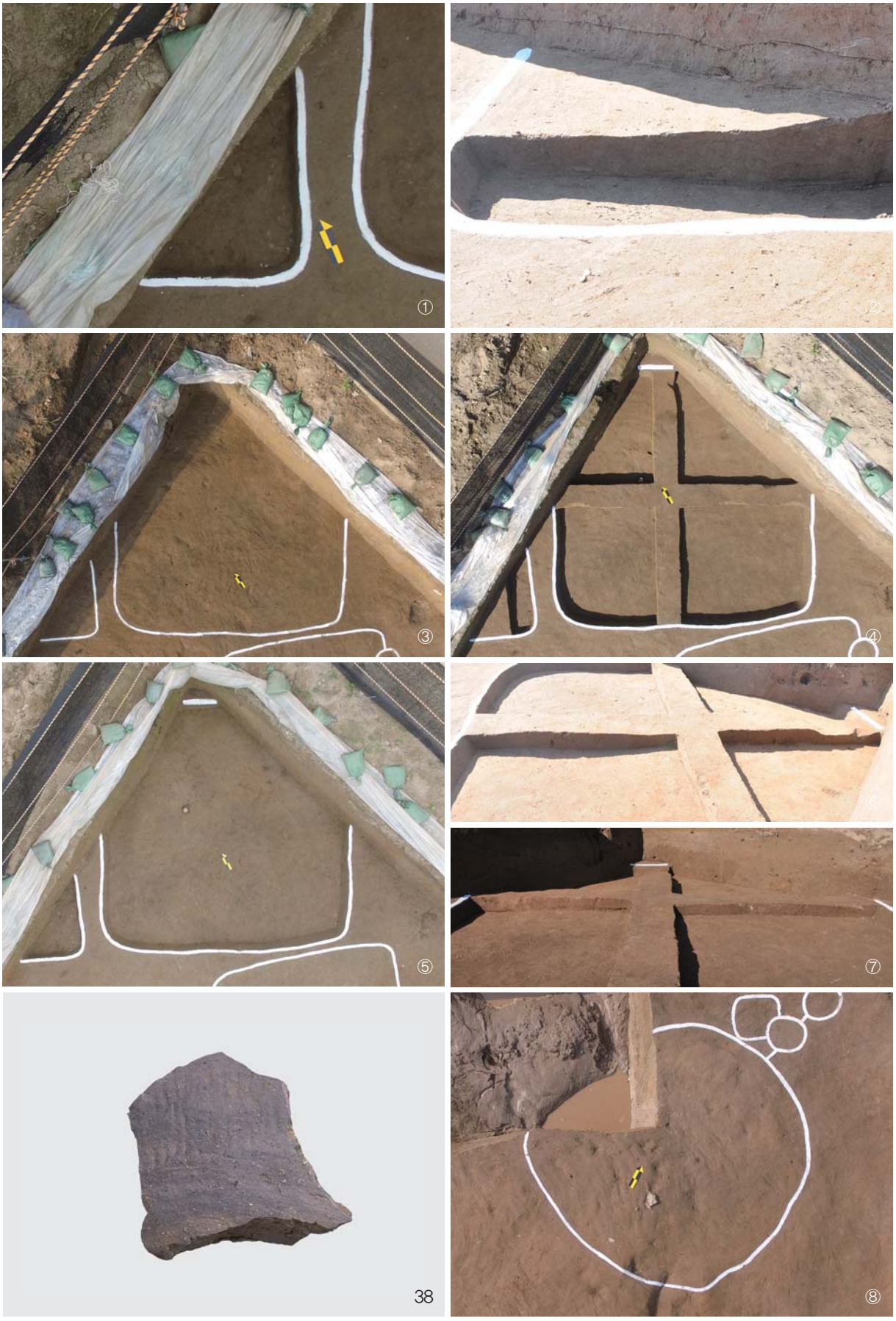
도판 33.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②토층, 28~35: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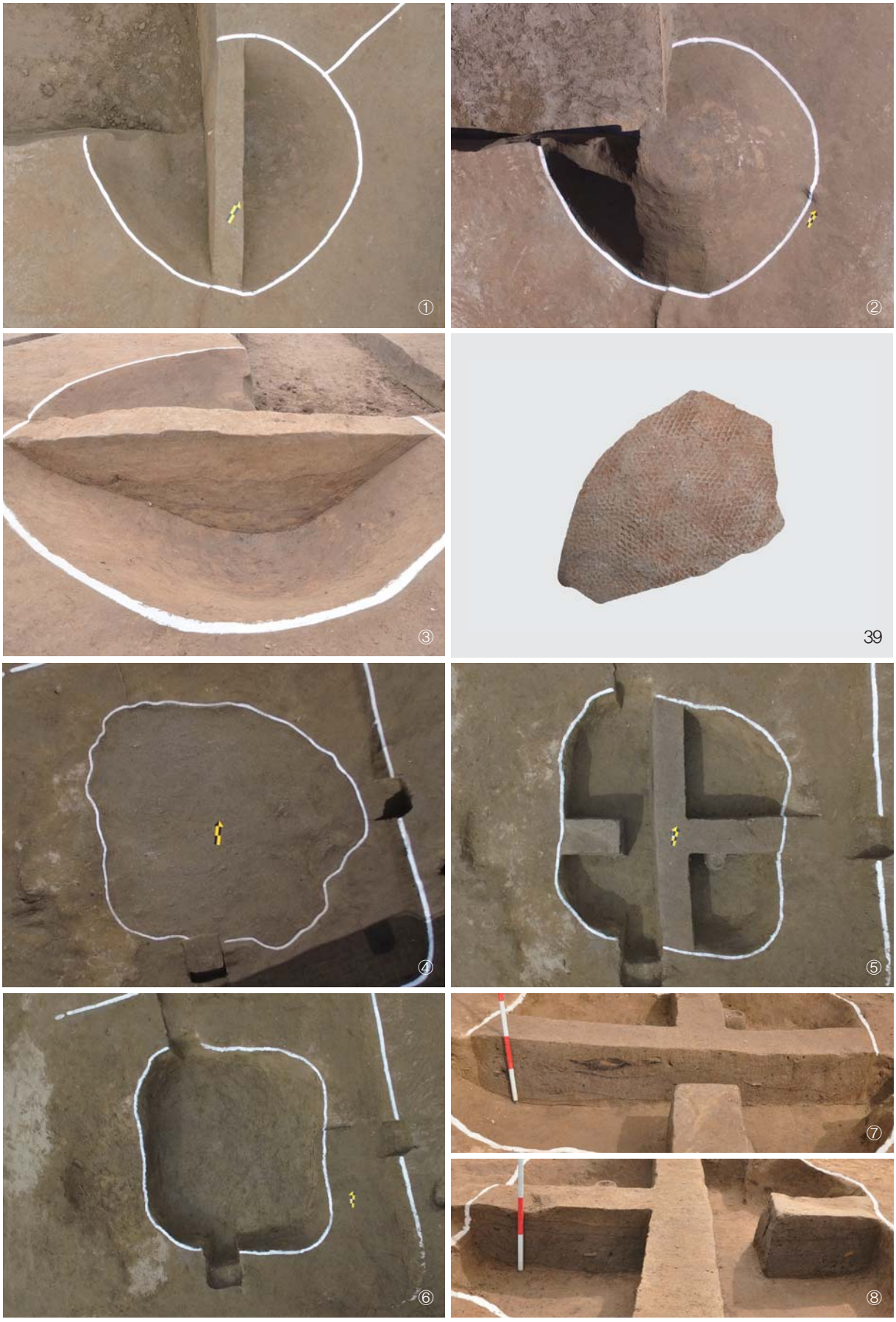
도판 34. 삼국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⑤토층) 및 2호(⑥조사전, ⑦조사중, ⑧조사후, ⑨⑩토층)



도판 35. 삼국시대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36 · 37),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⑤토층), 4호(⑥조사전, ⑦조사중)



도판 36. 삼국시대 수혈유구 4호(①조사후, ②토층), 5호(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⑥⑦토층, 38:출토유물), 6호 조사전 (⑧)



도판 37. 삼국시대 수혈유구 6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39:출토유물) 및 7호(④조사전, ⑤조사중, ⑥조사후, ⑦⑧토층)

40

41

42

43

①

도판 38. 삼국시대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40~43) 및 학술자문회의(①)

부 록

AMS 분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우) 136-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전화 : (02)958-5959 팩스:(02)958-5974

시 험 성 적 서

발급번호	KISTAMS 1800172-173	접수일자	2018.10.10
의 뢰 자	최성수	전 화	010-6606-8421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2길 3-57(노산리 538번지)		
시료명(수량)	2		
시험방법 및 기기	AMS		
시험일자	2018.11.07		
시험결과	별첨 참조		

특이사항

※ 본 시험성적서는 광고, 선전, 홍보 및 법적쟁송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로부터 얻은 것으로, 유사 대상시료에 적용할 수 없음.

2018 년 11 월 14 일

한 국 과 학 기 술 연 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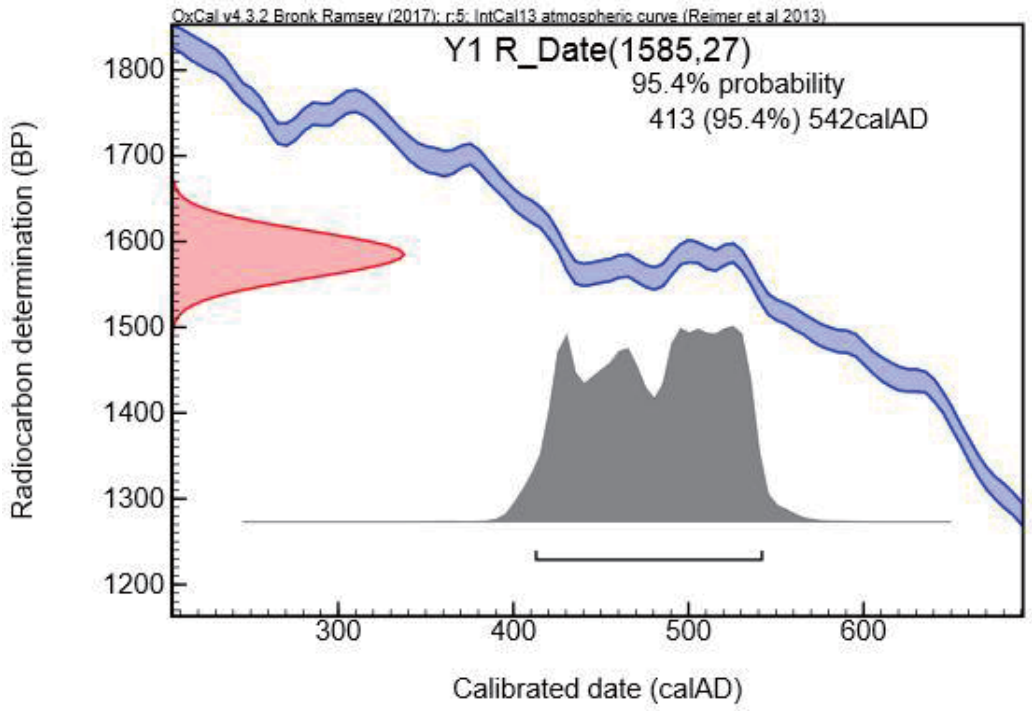
승인자: **특성분석센터장**

발급번호	KISTAMS 1800172

시 험 결 과

시료명	Y1	의뢰자	최성수
의뢰일	2018.10.10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delta^{13}C$ (‰)		pMC
1,585 ± 27		-11.9 ± 0.3		82.09 ± 0.28



95.4 % probability : **413 AD ~ 542 AD**

시료처리 : AAA처리

- Calendar Year Calibration : OxCal v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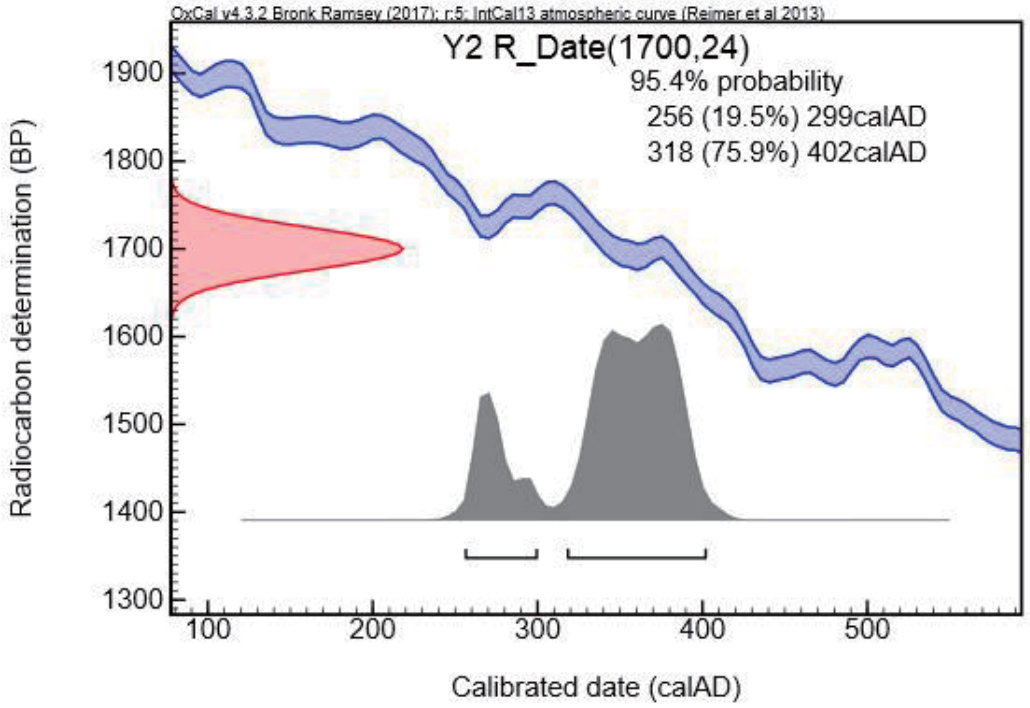
발급번호	KISTAMS 1800173

3/3

시 험 결 과

시료명	Y2	의뢰자	최성수
의뢰일	2018.10.10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delta^{13}C$ (‰)		pMC
1,700 ± 24		-30.9 ± 0.1		80.92 ±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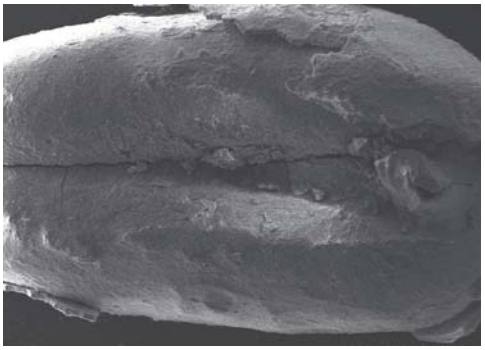
75.9 % probability : **318 AD ~ 402 AD**

19.5 % probability : **256 AD ~ 299 AD**

시료처리 : AAA처리

- Calendar Year Calibration : OxCal v4.2.4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출토 종자 분석 보고서



2018. 07

MIOHILEI 鏡潭研究所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출토 탄화종자 분석 보고서

Ⅰ. 분석 개요

- 의 뢰 기 관 : 한국문화재재단
- 분 석 기 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7월 30일
- 분 석 참 여 자 : 오난영
- 분 석 자 문 : 김민구 *

한국문화재재단이 2017년 발굴한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유적에서 수습된 탄화종자를 분석하였다. 244-2번지유적 발굴조사 결과, 초기철기시대 이전 문화층과 초기철기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2개 문화층 등 총 4개 문화층이 조사되었다. 이중 탄화종자는 삼국시대 하부문화층 수혈 5호 내부에서 확인되었다[1].

본 연구소에서는 토기에서 수습된 탄화곡물의 동정분석을 실시하고 확인된 종자의 크기 계측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조사대상지 주변 항공촬영

*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1) 한국문화재재단, 2017,『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유적』

그림 2. 삼국시대 하부문화층 조사 후 전경

그림 3. 5호 수혈

그림 4. 시료 채취 위치 (⬭확대)

Ⅱ. 분석방법

탄화종자는 2018년 1월, 현장에서 채집 후 종자만 분류한 상태로 이관받았다. 하지만 흙에 종자들이 함께 섞여있었기 때문에 물체질을 진행하였다. 시료 미세공간 사이에 있는 이물질은 초음파세척기로 세척하고 건조하였다. 시료 표면에는 일부 완형의 종자들이 확인되나 내부에는 부스러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분류 및 동정은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관찰배율은 ×10에서 ×40 정도이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2](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활용하여 표면관찰을 하였다. 시료는 40~1,000(5~15kV) 배율에서 관찰하였다.

탄화종자를 동정한 이후에는 완형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종자를 대상으로 크기를 계측하였다.

2) JSM-840A, Jeol.Japan

Ⅲ. 동정 결과

탄화종자는 팥(*Vigna angularis*)으로 동정되었다.

팥은 총 130립이 발견되었다. 이 중 완형은 71립이고 나머지는 절반만이 존재하는 파편이다(그림 5). 종자의 평균길이와 너비는 4.63㎜, 2.91㎜로 측정되었다(부록).

종자의 좌우대칭구조 배꼽(臍, hilum) 및 유근(胚根) 구조를 현생 팥과 비교하였다. 그림 8과 9에서와 같이 탄화종자는 배꼽 및 배꼽 구(溝)의 흔적이 뚜렷하고 구가 종자 하단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태를 보여 팥으로 동정하였다.

절반만 존재하는 탄화종자에서 일부 초생엽과 유근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그림 10에서 그림 13과 같이 초생엽과 유근의 모양과 크기가 현생 팥(그림 15)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탄화종자 대부분 종피가 잘 남아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종피가 잘 남아있는 탄화종자는 그 종피 세포의 형태상 완전히 성숙한 개체로 추정된다. 종자가 성숙되는 과정에서는 종피가 영양소를 공급받는 경로 역할을 하나 종자가 완숙되면 이러한 기능이 상실되고 종피 세포는 수명을 다하게 되어 세포 형태가 변형된다[3].

그림 5. 팥 계측시료(71립)

3) 이희경, 이형원, 2016, 「원삼국~한성백제기 작물의 저장, 소비, 폐기의 일양상」 『한국상고사학보』 92

그림 6. 수혈 5호 출토 탄화 팥(스케일 1㎜)

그림 7. 탄화 팥(스케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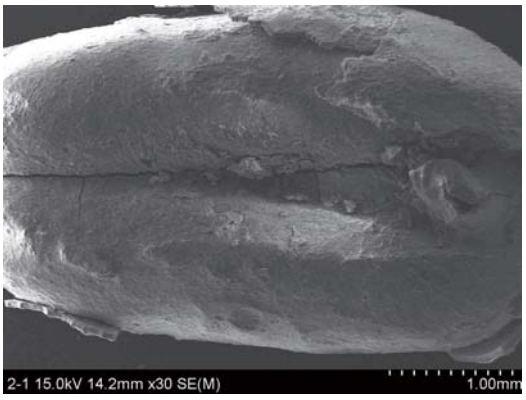


그림 8. 수혈 5호 출토 팥 배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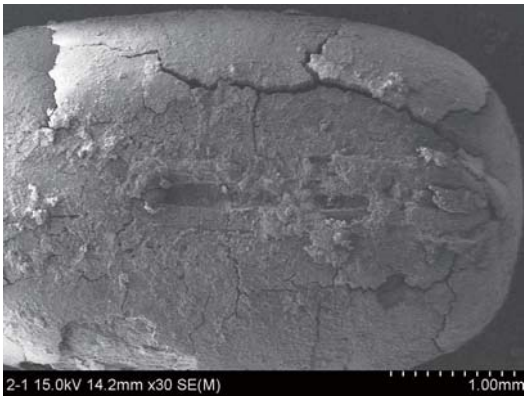


그림 9. 수혈 5호 출토 팥 배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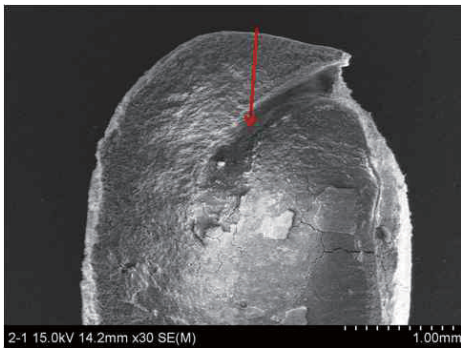


그림 10. 팥 1(화살표는 초생엽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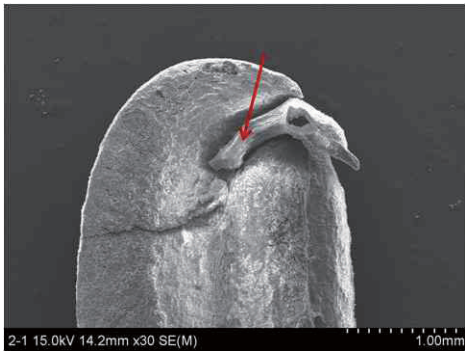


그림 11. 팥 2 (화살표는 유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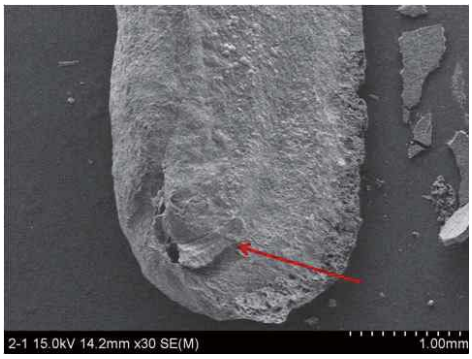


그림 12. 팥 3(화살표는 유근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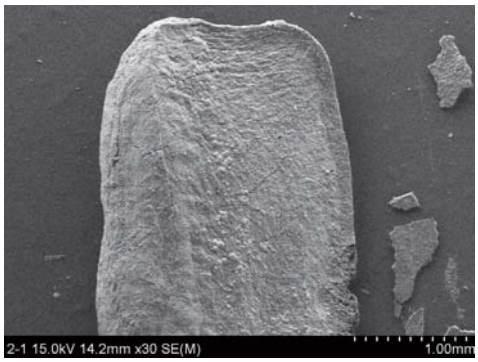


그림 13. 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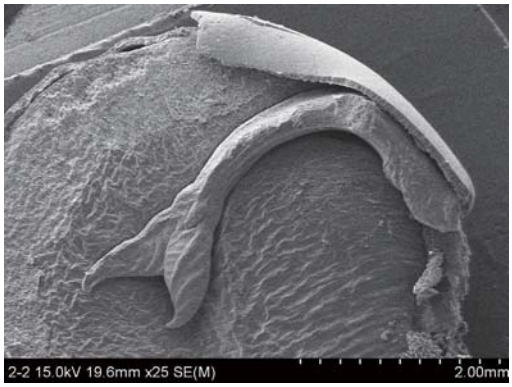


그림 14. 현생 팥 초생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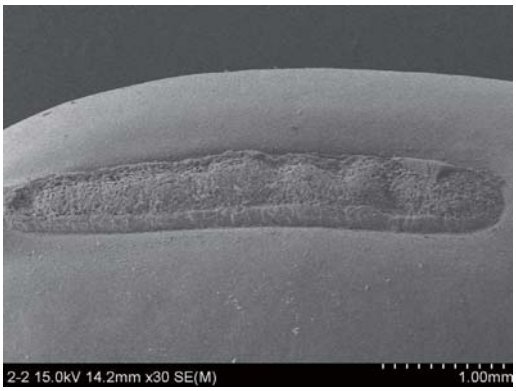


그림 15. 현생 팥 배꼽

Ⅳ. 고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평 대성리, 남양주 장현리, 화성 발안리, 용인 보정리 소실, 용인 구갈리, 오산 내삼미동유적 등 경기도 지역내 다수의 원삼국~한성백제시대의 유적에서 탄화작물이 발견되었다[4](이희경, 이형원 2016).

이는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유적 5호 수혈에서 확인된 탄화종자를 팥(*Vigna angularis*)으로 동정하였다. 주거지에서 확인된 종자는 취사시설의 근처에 위치하여 빠른 시일 내의 소비를 목적으로 보관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4) 이희경, 이형원, 2016, 「원삼국~한성백제기 작물의 저장, 소비, 폐기의 일양상」 『한국상고사학보』 92, p97

V. 부록 : 팥의 계측치

탄화 팥 종자 중에서 완형의 종자 71립의 크기 계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체번호	길이(㎜)	폭(㎜)	두께(㎜)
1	5.44	3.45	2.91
2	5.16	2.91	2.46
3	5.37	3.44	3.26
4	4.89	2.91	2.67
5	5.59	3.15	2.81
6	4.84	3.78	3.57
7	4.97	3.01	2.76
8	5.09	2.78	2.74
9	4.75	3.49	3.12
10	4.63	3.67	3.31
11	5.05	2.95	2.68
12	5.01	2.96	2.75
13	4.98	3.02	2.94
14	4.77	2.70	2.52
15	4.75	3.11	2.86
16	4.66	2.94	2.54
17	4.88	3.14	2.86
18	5.01	3.13	2.85
19	4.86	3.11	3.05
20	4.89	3.26	3.19
21	4.83	3.23	3.03
22	4.89	2.47	2.22
23	4.78	2.60	2.59
24	4.72	2.79	2.68
25	4.73	2.85	2.54
26	4.86	3.24	3.00
27	4.74	2.98	2.42
28	5.25	3.22	3.10
29	4.41	2.66	2.62
30	5.06	3.14	2.96
31	4.49	2.76	2.63
32	4.48	2.68	2.57
33	4.44	2.61	2.59
34	4.60	2.72	2.62
35	3.96	2.68	2.36
36	4.70	2.70	2.41

개체번호	길이(㎜)	폭(㎜)	두께(㎜)
37	4.84	2.92	2.65
38	4.73	3.21	3.19
39	4.86	2.98	2.75
40	5.00	3.08	2.98
41	4.81	2.54	2.36
42	4.15	2.66	2.11
43	4.81	2.95	2.62
44	4.75	2.81	2.71
45	4.59	2.89	2.63
46	3.92	2.85	2.72
47	4.51	3.26	2.82
48	4.67	2.68	2.51
49	4.41	3.12	2.75
50	5.29	2.94	2.87
51	4.53	2.92	2.84
52	4.95	3.25	2.84
53	4.37	2.98	2.91
54	4.30	2.48	2.25
55	4.38	3.13	2.75
56	4.81	3.43	2.87
57	4.33	2.71	2.53
58	4.21	2.73	2.50
59	4.36	2.87	2.27
60	4.28	2.48	2.35
61	3.70	2.65	2.60
62	4.31	2.81	2.78
63	4.61	2.70	2.66
64	4.30	2.63	2.51
65	4.21	2.40	2.08
66	3.83	2.46	2.21
67	4.20	2.64	2.17
68	4.27	2.89	2.56
69	3.31	2.26	2.05
70	3.98	2.59	2.11
71	3.30	2.23	2.05
평균	4.63	2.91	2.67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000 -0001	경질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	원삼국	(12.4)	-	0.8~1.1	11-1 9-1	Y
2017-1000 -0002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구연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	원삼국	(10.5)	-	1.0~1.3	11-2 9-2	Y
2017-1000 -0003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 1호	토도	원삼국	(9.2)	-	16.0	11-3 9-3	Y
2017-1000 -0004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주거지 1호	토도	원삼국	(3.1)	-	11.8	11-4 9-4	Y
2017-1000 -0005	경질무문토기 소호	1	주거지 2호	토도	원삼국	(10.6)	-	8.0	13-5 11-5	Y
2017-1000 -0006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구연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	원삼국	(24.8)	-	0.7~1.0	13-6 11-6	Y
2017-1000 -0007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동체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	원삼국	(29.5)	-	1.1~1.5	13-7 11-7	Y
2017-1000 -0008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수혈유구 1호	토도	원삼국	(3.8)	-	7.0	15-8 14-8	Y
2017-1000 -0009	홍도 구연부편	1	수혈유구 3호	토도	원삼국	(16.8)	-	0.5~0.8	16-9 15-9	Y
2017-1000 -0010	경질무문토기 저부	1	수혈유구 3호	토도	원삼국	(7.4)	-	8.0	16-10 15-10	Y
2017-1000 -0011	마제석검	1	수습	옥석 유리	청동기	(14.5)	4.5	0.7~1.0	18-11 16-11	Y
2017-1000 -0012	호	1	주거지	토도	삼국 (백제한성기)	(47.2)	16.3~ 23.6	0.6~1.3	21-12 18-12	Y
2017-1000 -0013	지석	1	수혈유구 2호	옥석 유리	삼국 (백제한성기)	(13.0)	5.0	2.6	23-13 22-13	Y
2017-1000 -0014	호 동체부	1	수혈유구 3호	토도	삼국 (백제한성기)	(31.0)	-	0.5~0.8	24-14 22-14	Y
2017-1000 -0015	호 동체부편	1	수혈유구 3호	토도	삼국 (백제한성기)	(15.3)	-	0.7~1.0	24-15 22-15	Y
2017-1000 -0016	호 구연부편	1	수혈유구 4호	토도	삼국 (백제한성기)	(5.0)	-	0.6	25-16 23-16	Y
2017-1000 -0017	호 구연부편	1	수혈유구 5호	토도	삼국 (백제한성기)	(5.9)	-	0.6~1.0	26-17 23-17	Y
2017-1000 -0018	호 구연부편	1	수혈유구 5호	토도	삼국 (백제한성기)	(5.0)	-	0.7	26-18 23-18	Y
2017-1000 -0019	호 구연부편	1	수혈유구 5호	토도	삼국 (백제한성기)	(8.9)	-	1.1	26-19 23-19	Y
2017-1000 -0020	시루 저부	1	구상유구	토도	삼국 (백제한성기)	(7.4)	-	16.2	27-20 24-20	Y
2017-1000 -0021	완	1	주거지 1호	토도	삼국	5.0	14.6	7.0	29-21 27-21	Y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000 –0022	단경호 구연부	1	주거지 1호	토도	삼국	(6.1)	22.0	0.6	29–22 27–22	Y
2017–1000 –0023	파수부 동체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	삼국	(6.0)	(7.0)	3.0	29–23 27–23	Y
2017–1000 –0024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구연부	1	주거지 2호	토도	삼국	(10.0)	15.0	0.7	31–24 29–24	Y
2017–1000 –0025	대각	1	주거지 2호	토도	삼국	(3.3)	–	6.0	31–25 29–25	Y
2017–1000 –0026	단경호 구연부	1	주거지 2호	토도	삼국	(4.9)	24.8	0.4~0.8	31–26 29–26	Y
2017–1000 –0027	저부	1	주거지 2호	토도	삼국	(4.8)	–	0.4~0.9	31–27 29–27	Y
2017–1000 –0028	대부완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	(5.0)	10.6	0.5~1.2	33–28 33–28	Y
2017–1000 –0029	대각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	(3.0)	–	5.4	33–29 33–29	Y
2017–1000 –0030	파배 신부편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	(4.5)	(2.6)	0.8	33–30 33–30	Y
2017–1000 –0031	대부호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	(15.7)	–	24.4	33–31 33–31	Y
2017–1000 –0032	단경호 구연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	(6.3)	17.6	0.6~0.8	34–32 33–32	Y
2017–1000 –0033	단경호 구연부편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	(5.3)	–	0.5	34–33 33–33	Y
2017–1000 –0034	호 동체부편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	(8.8)	–	0.5~0.8	34–34 33–34	Y
2017–1000 –0035	파수부 동체부편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	(8.3)	–	3.2	34–35 35–35	Y
2017–1000 –0036	동체부편	1	수혈유구 2호	토도	삼국	(10.2)	–	0.6	36–36 35–36	Y
2017–1000 –0037	지석	1	수혈유구 2호	옥석 유리	삼국	(11.1)	(7.1)	5.4	36–37 35–37	Y
2017–1000 –0038	동체부편	1	수혈유구 5호	토도	삼국	(5.1)	–	0.7~1.2	38–38 36–38	Y
2017–1000 –0039	동체부편	1	수혈유구 6호	토도	삼국	(9.7)	–	0.7	39–39 37–39	Y
2017–1000 –0040	완	1	수혈유구 7호	토도	삼국	5.2	13.6	6.8	40–40 38–40	Y
2017–1000 –0041	단경호 구연부	1	수혈유구 7호	토도	삼국	(5.5)	20.0	0.5~0.8	40–41 38–41	Y
2017–1000 –0042	동이 구연부	1	수혈유구 7호	토도	삼국	(9.8)	–	0.6	40–42 38–42	Y
2017–1000 –0043	시루 저부	1	수혈유구 7호	토도	삼국	(4.5)	–	7.0	40–43 38–43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 3011-2173		FAX	(02) 566-5954
執筆 · 編輯者	정훈진 · 이건충 · 김봉성 · 강채경 · 김형숙 · 정홍선 · 유혜원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 정훈진 · 김봉성 · 강채경 · 정홍선 · 최민석 · 이창욱 · 김정민 · 조은이				
遺蹟調査地番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44-2번지				
調査面積	265㎡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원삼국시대	2	토기	
	삼국(백제한성기)시대	1	토기	
	삼국시대	4	토기	
굴립주건물지	원삼국시대 이전	1	·	
	원삼국시대	1	·	
	삼국(백제한성기)시대	2	·	
수혈유구	원삼국시대	6	·	
	삼국(백제한성기)시대	6	토기 완	
	삼국시대	7	·	
구상유구	삼국(백제한성기)시대	1	·	
주혈군	원삼국시대 이전	6	·	

139. 사천 선진리 1055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39-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39-9

Ⅲ. 조사내용 …… 139-15
1. 시굴조사 …… 139-15
2. 발굴조사 …… 139-18
〈고려 · 조선시대〉 …… 139-18
1) 건물지 …… 139-19
〈시대미상〉 …… 139-25
1) 수혈유구 …… 139-25

Ⅳ. 조사성과 …… 139-26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39-1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39-12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39-14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 139-16
도면 5. 유구분포도 …… 139-17
도면 6. 건물지 …… 139-20
도면 7. 건물지 출토유물1 …… 139-22
도면 8. 건물지 출토유물2 …… 139-23
도면 9. 건물지 출토유물3 …… 139-24
도면 10. 수혈유구 …… 139-25
도면 11. 상부 수습유물 …… 139-25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원경(SW→NE), ②시굴조사 조사후(SW→NE)) …… 139-29
도판 2. 조사대상지 조사후(①SE→NW), 건물지 조사후(②E→W) …… 139-30
도판 3. 건물지 축대(①북쪽벽석 조사후(S→N), ②북쪽벽석 세부(SW→NE), ③벽석 단면(E→W), ④⑤유물 출토상태, ⑥서쪽벽석 조사후(E→W)) …… 139-31
도판 4. 건물지 기단석렬(①북쪽벽석 조사후(N→S), ②서쪽벽석 조사후(NW→SE), ③유물 출토상태), 초석(④조사후(E→W), ⑤~⑦초석1 조사후, ⑧~⑩초석2 조사후) …… 139-32
도판 5. 건물지 출토유물1 …… 139-33
도판 6. 건물지 출토유물2 …… 139-34
도판 7. 건물지 출토유물3 …… 139-35
도판 8. 수혈유구(①조사전(SE→NW), ②조사후(SE→NW), ③토층(W→E)) …… 139-36
도판 9. 상부 수습유물(11) …… 139-37

Ⅰ. 조사개요

본 발굴조사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55번지로 사업시행자 김효자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368㎡)이다. 조사 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대상지에 주택 신축 목적으로 사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사천시는 신청지가 '사천 선진리성(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274호)' 주변에 위치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현상변경을 득한 후 공사 시행해야함을 통보받았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로부터 건물 높이를 변경할 것과 공사 시행 전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였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가 소규모 국비지원 대상임을 사천시를 통해 확인하고, 문화재청 문화재 전자행정 협업포털시스템에 시굴조사를 신청하여 2017년 8월 25일 접수하였다. 이에 본 재단은 시굴조사 세부계획서를 2017년 9월 19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했으며, 9월 21일 현장조사일수 2일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제2017-1219호)를 받았다.

시굴조사는 2017년 9월 28일 착수하여 9월 29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 동쪽에 석렬유구 1기가 확인되어, 공사 시행 전 전체면적(368㎡) 중 유구가 확인된 동쪽 범위(84.57㎡)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

이후 재단은 2017년 10월 18일 현장조사일수 4일간의 발굴조사 변경허가를 받아, 2017년 10월 23일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시굴조사의 석렬유구는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관련 석축 및 기단석렬로 파악되었으며, 그 외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이후 재단은 유구에 대한 조사를 2017년 10월 26일(현장조사일수 4일) 완료하였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굴조사	발굴조사
조 사 단 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박 종 섭(문화재조사연구단장)
책임조사원	박 강 민(조사연구 1팀 부팀장)	박 강 민(조사연구 1팀 부팀장)
조 사 원	김 재 열(조사연구 1팀 연구원)	김 재 열(조사연구 1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윤 태 웅(조사연구 1팀 연구원)	정 의 현(조사연구 1팀 연구원)
보 조 원	유 순 곤(조사연구 1팀 연구원)	유 순 곤(조사연구 1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강성귀 책임 하에 하혜진, 김유정, 이영호, 윤영경,

1) 한국문화재재단, 2017,「소규모국비지원 시굴조사 약식보고서-사천 선진리 105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김정애 등 본 재단 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김재열, 유순곤, 황도담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의 사진은 이재영(스카이뷰)이 촬영하였다.

원고는 박강민 책임 하에 Ⅰ～Ⅱ장 김재열, Ⅲ장 김재열(조사내용 및 유구)·하혜진(유물), Ⅳ장 김재열이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박강민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발굴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55번지에 해당한다.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8° 2′28.417″, 북위 35° 2′33.227″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는 선진리 왜성 남쪽에 위치한 선진리 마을회관에서 선진안길을 따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이전 조사대상지는 기존 주택 철거 후 공지였으며 시굴 트렌치가 복토된 상태였다. 조사대상지 남쪽은 마을 도로로 연결되며 나머지 둘레는 텃밭과 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조사대상지는 평탄지형을 유지하며 북쪽과 서쪽은 인접 건물의 담장이 남아있었다.

지리적 환경[2]을 살펴보면, 사천시는 경상남도 남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고성군, 서쪽은 남해군, 북쪽은 진주시와 행정 경계를 이룬다. 사천지역의 지형은 소백산맥에서 갈라진 산지에 둘러싸여, 동남쪽 경계는 와룡산(해발 409m)·흥무산(해발 445m)·이명산(해발 570m)·봉대산(해발 409m)·성황산(해발 210m)이 에워싸며 남쪽은 사천만(泗川灣)을 향해 개방되어 있다. 그 중 선진리는 사천만 동안(東岸)에 자리한다. 선진리 일대는 해발고도 10m 정도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발고도 10~30m 정도 구릉이 다수 발달했다. 조사대상지는 구릉 정상부 일원의 평탄지상 해발고도 19.5m 정도에 위치하며, 서쪽은 사천만에 접한 가파른 절벽, 북동쪽은 선진리 왜성과 토성이 조성된 구릉의 상부로 이어진다.

역사적 환경[3]을 살펴보면, 사천시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사물현(史勿縣)으로 확인된다. 이후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사수현(泗水縣)으로 개칭되고, 고려 현종 6년(1015년) 다시 사주(泗州)로 불렸다. 조선 태종 13년(1413년) 지금 지명인 사천(泗川)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종 32년(1865년) 진주부(晉州府)에 속해지며 사천군(泗川郡)이 되었고, 일제강점기 군·면 통합을 거쳐 산천면과 사천읍으로 행정명칭이 변경되었다. 1995년 도·농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인근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되어 지금의 사천시에 이르고 있다. 선진리(船津里)는 임진왜란 당시 선창(船創), 조선 후기는 선소(船所) 또는 선진(船鎭), 화계(化溪) 등으로 불렸다. 그런 연유로 지금의 선진리 마을 아래 해안가에 과거 굴항(窟港)이 있었다고 전해 온다.

고고학적 환경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는 문화유적분포지도상 '사천 선진리성(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274호)'과 '통양창지(通洋倉址)' 등의 남쪽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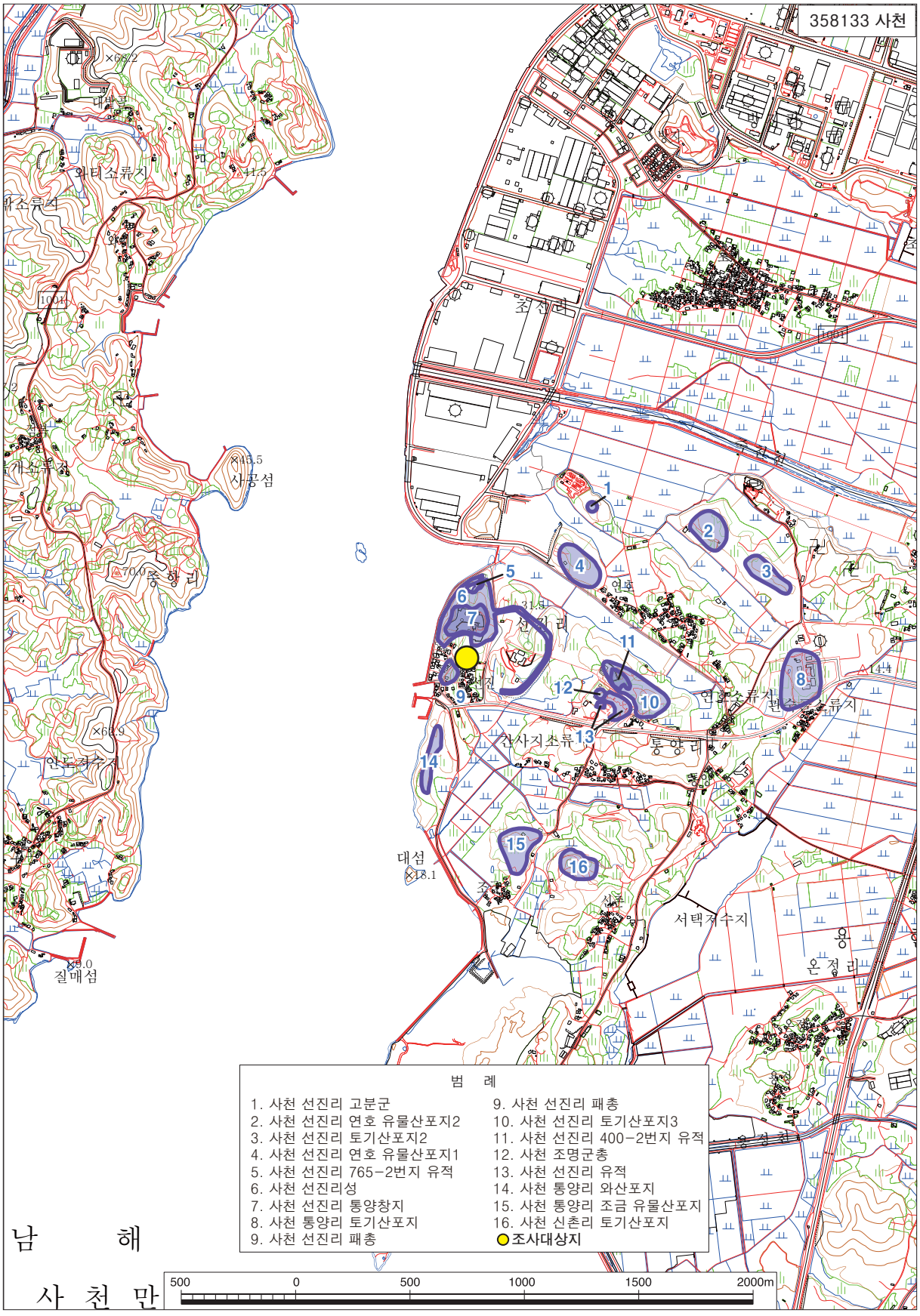
선진리성은 임진왜란 무렵 왜군(倭軍)이 축조한 성곽 중 하나다. 1597년(선조 30년) 왜군 모리(毛利吉城)가 퇴군 거점으로 축성을 시작했으며 이후 시마즈(島津義弘)가 수축한 것으로 전해온다. '선진리성'에 대한 고고학 발굴조사는 2002~2006년에 걸쳐 진행되었다.[4]

---

2) 지리적 환경은 다음을 참고해 수정·가필하였다.
① 泗川市·慶南文化財硏究院, 2003,『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역사적 환경은 다음을 참고해 수정·가필하였다.
① 泗川市·慶南文化財硏究院, 2003,『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② 泗川市·慶南文化財硏究院, 2008,『泗川 船津里城』.

4) 泗川市·慶南文化財硏究院, 2008,『泗川 船津里城』.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그 결과, 왜성을 비롯해 통일신라시대 토성 일부가 함께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 토성은 현재 선진리 마을과 해안 절벽이 위치한 성의 남서쪽을 제외한 나머지 북쪽 구릉 상부에 자리한 왜성을 넓게 감싸며 분포한다. 토성은 왜성 축조 이전 조성되었으며, 왜성은 통일신라시대 선축된 토성의 성벽과 부속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양창은 고려시대 사천만 일원에 설치된 조창(漕倉)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시대는 전국에 조창을 설치해 조운을 통해 지방의 세곡을 개경으로 운반하였다. 그 중 통양창은 경상도 서남부 지역에서 수취한 세곡을 모아 개경 조창으로 운송한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 통양창지의 위치는 본 조사대상지의 북쪽 일원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5)]

선진리 패총은 조사대상지 남쪽에 위치한다. 선진리 마을에서 선진리성으로 연결되는 구릉 사면에서 일부가 확인되었다.[6)] 또한 선진리성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600여미터 떨어진 선진리 유적에서 신석기 시대 수혈유구와 통일신라~조선시대에 속한 수혈유구 및 석관묘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7)]

주변유적의 자세한 분포현황은【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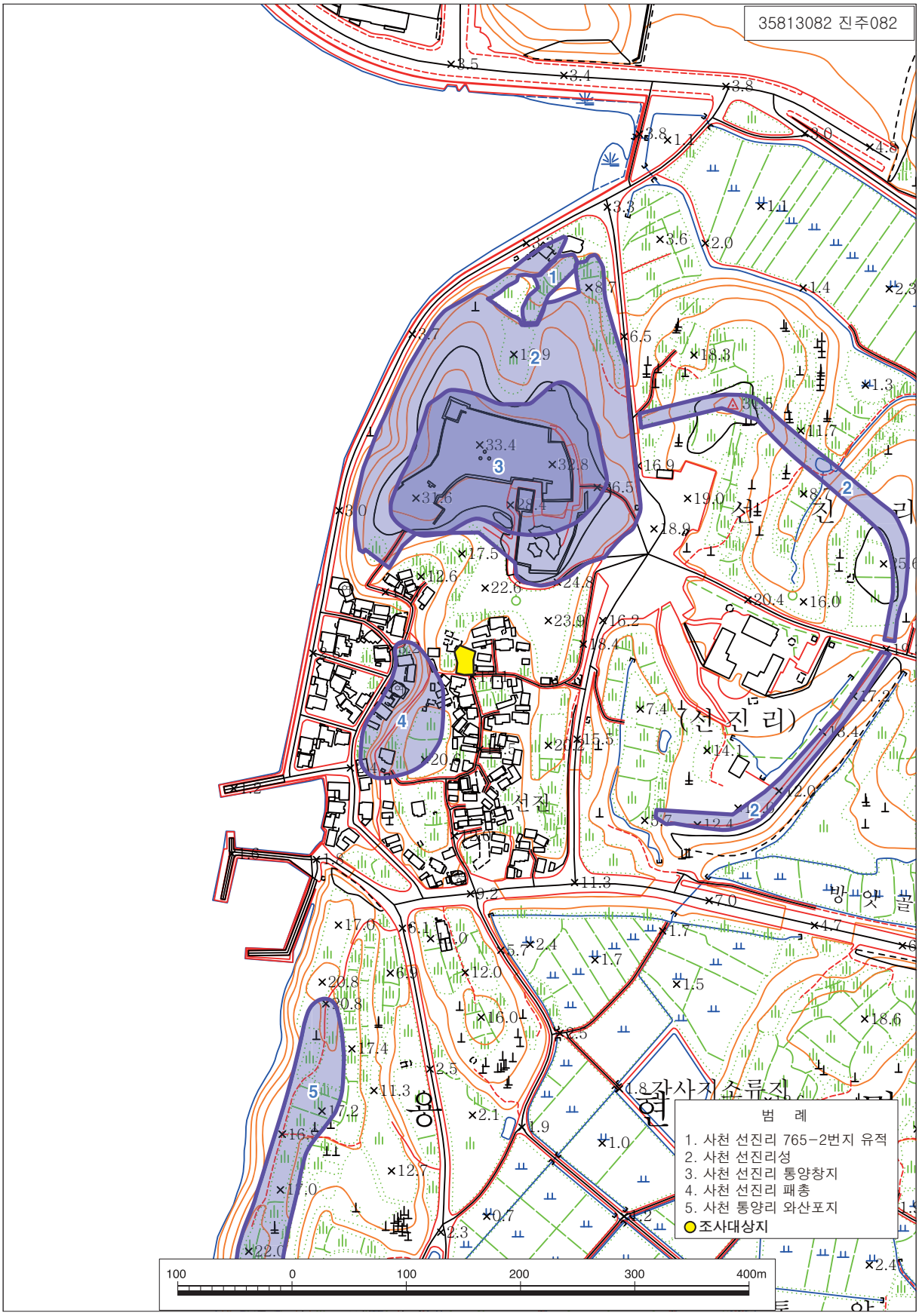
【표 1】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사천 선진리 고분군	북동쪽 890m	삼국시대 고분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2	사천 선진리 연호 유물산포지2	북동쪽 1.2km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海東文化財硏究院, 2010, 「사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3	사천 선진리 토기산포지2	북동쪽 1.4km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4	사천 선진리 연호 유물산포지1	북동쪽 630m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海東文化財硏究院, 2010, 「사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5	사천 선진리 765-2번지 유적	북쪽 300m	조선시대 석렬유구	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사천 용현면 선진리 765-2 2종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5) 통양창과 통양창지의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였다.
①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http://encykorea.aks.ac.kr) 참조.
② 泗川市·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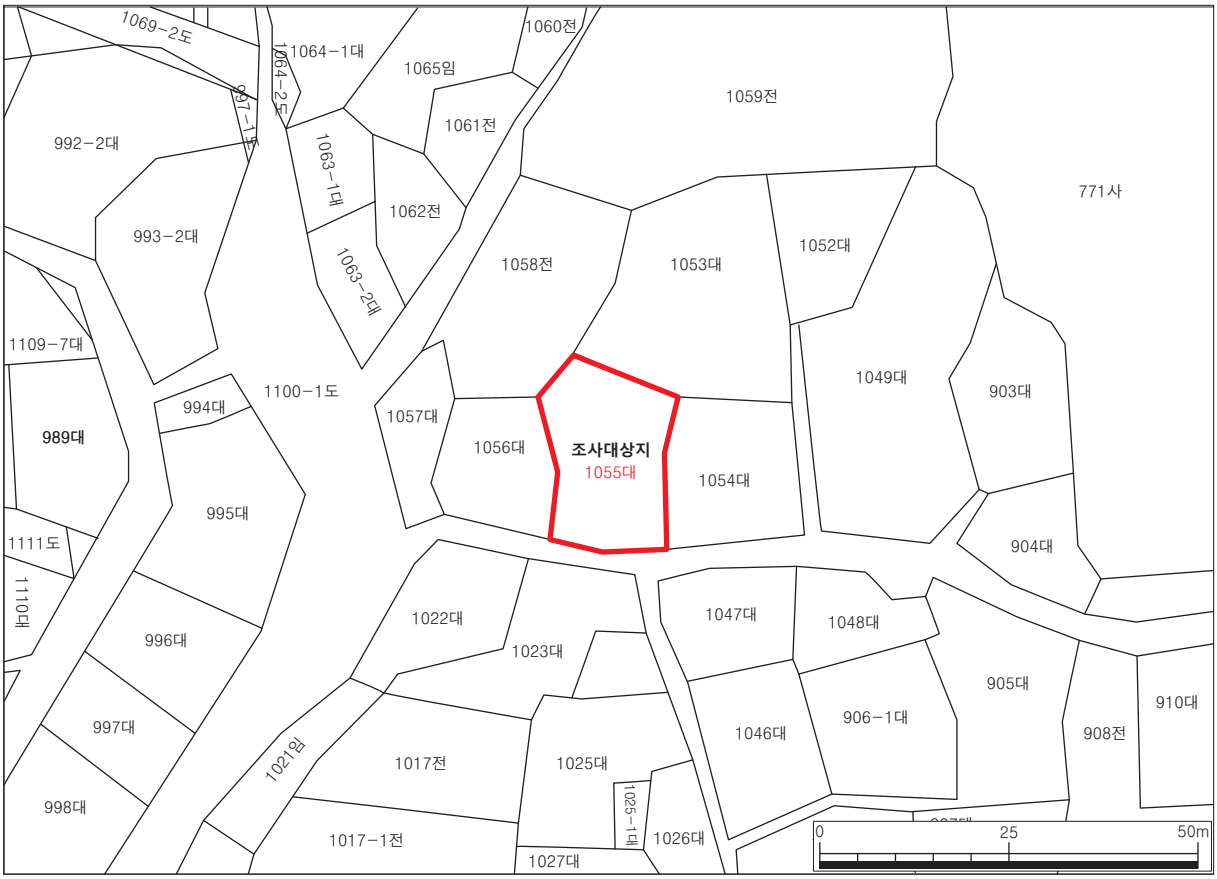
6) 泗川市·慶南文化財硏究院, 2008, 『泗川 船津里城』.
선진리 패총은 지표조사 당시 도로 공사로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사천군 관공 휴양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굴껍데기로 이뤄진 패총이며 주변 및 도로 공사 중 고려시대 이후 유물들이 확인되었으나,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분포 범위, 형성 시기 및 성격이 확인되지 않았다.

7) 泗川市·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泗川市·慶南文化財硏究院, 2008, 『泗川 船津里城』.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6	사천 선진리성	북쪽 95m	통일신라~조선시대 성곽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8, 『泗川 船津里城』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74호
7	사천 선진리 통양창지	북쪽 130m	고려시대 관아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8	사천 통양리 토기산포지	동쪽 1.4km	청동기~삼국시대 유물산포지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9	사천 선진리 패총	서쪽 25m	시기미상 패총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10	사천 선진리 토기산포지3	동쪽 630m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11	사천 선진리 400-2번지 유적	동쪽 680m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시기미상 토광묘	東西文物硏究院, 2009, 『泗川 船津里 400-2番地 遺蹟』	
12	사천 조명군총	남동쪽 600m	조선시대 분묘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기념물 제80호
13	사천 선진리 유적	남동쪽 640m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등 통일신라~조선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등	慶南文化財硏究院, 2008, 『泗川 船津里 遺蹟』	
14	사천 통양리 와산포지	남서쪽 310m	통일신라~고려시대 유물산포지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15	사천 통양리 조금 유물산포지	남동쪽 780m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창원대학교박물관, 2016,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16	사천 신촌리 토기산포지	남동쪽 960m	통일신라시대 유물산포지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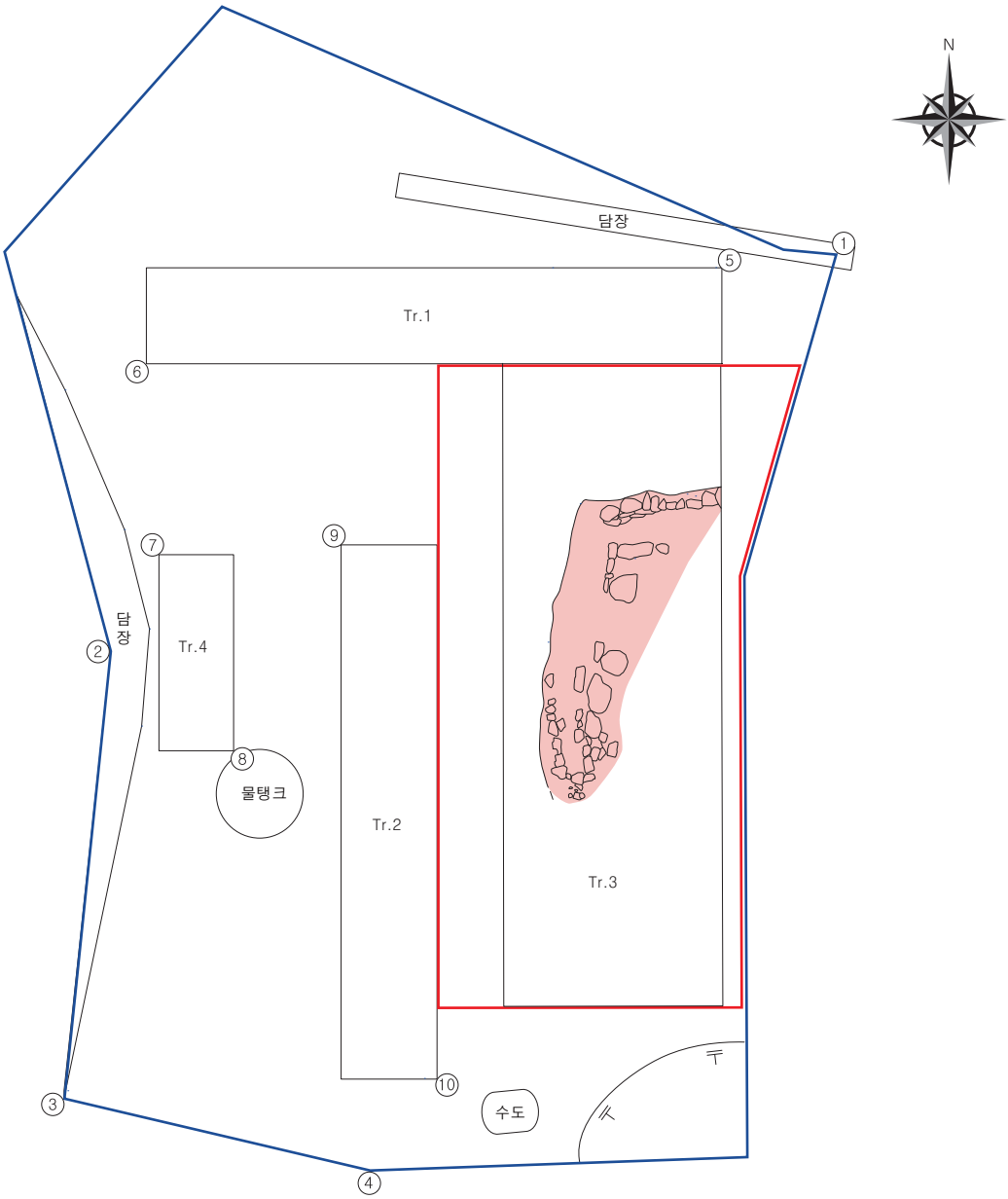
1. 시굴조사

시굴조사를 위한 트렌치는 조사대상지 지형과 시굴조사 당시 남아있던 지장물(남동쪽 수도시설, 서쪽 물탱크)을 고려하여 남-북 방향 1개소와 동-서 방향 1개소(트렌치 1 · 2)를 설치하였으며, 유구 유존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남-북 방향 트렌치 2개소(트렌치 3 · 4)를 추가 설치하였다. 트렌치의 규모는 길이 4~17m, 너비 1.5~2m, 깊이 10~45㎝ 정도이다.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 3은 유구 잔존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규모 4.5×13m 로 확장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조사대상지는 동쪽으로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렬유구 1기와 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유구가 확인된 동쪽을 제외한 조사대상지 대부분은 철거된 주택 건축으로 풍화암반층까지 삭평되어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사업부지(368㎡) 중 유구가 확인된 동쪽 84.57㎡ 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도면4 참조)

【표 2】 트렌치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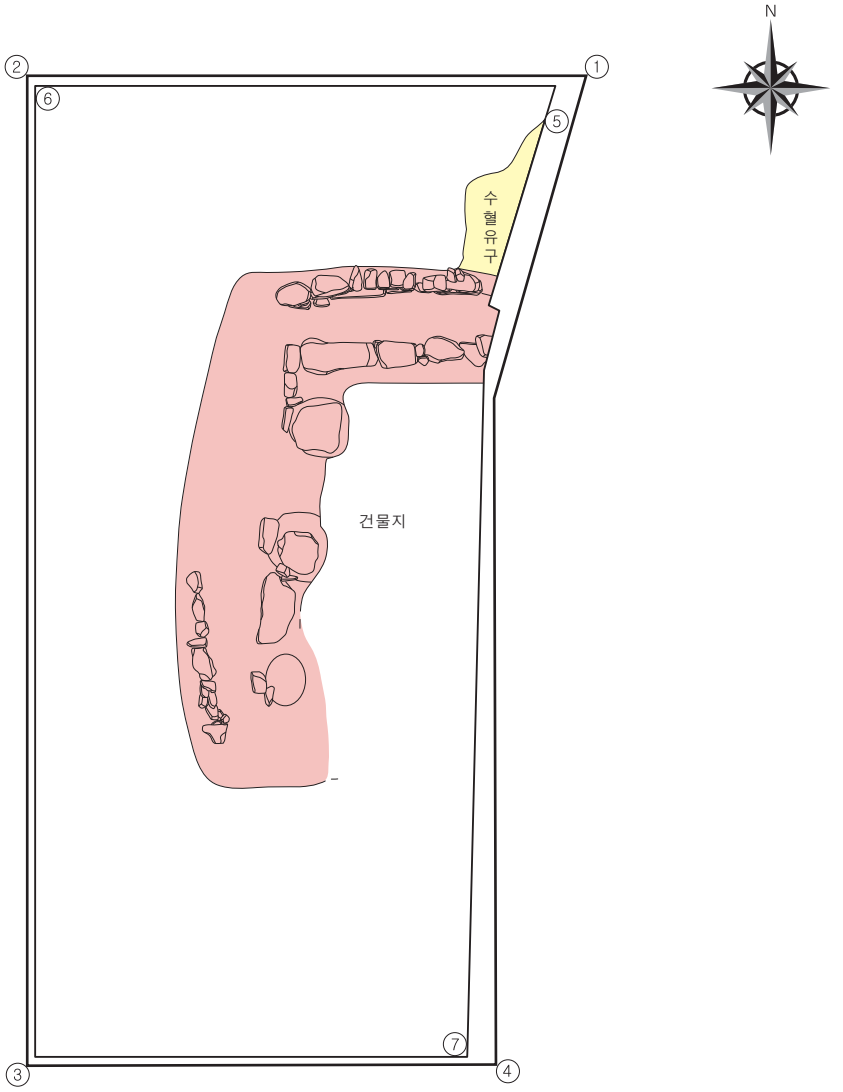
트렌치 번호	규모(㎝)			장축방향	조사내용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1,700	200	20	동-서	유구 · 유물 없음	
2	1,100	200	10~40	남-북	유구 · 유물 없음	
3	1,300	450	74~79	남-북	석렬유구	트렌치 확장
4	400	150	20	남-북	유구 · 유물 없음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272243.287m	⑤	X	272251.765m	⑧	X	272247.342m
	Y	112506.799m		Y	112511.454m		Y	112508.411m
	Z	19.9m		Z	19.4m		Z	19.8m
②	X	272245.159m	⑥	X	272251.595m	⑨	X	272247.339m
	Y	112505.893m		Y	112506.974m		Y	112511.327m
	Z	20.9m		Z	20m		Z	19.7m
③	X	272235.093m	⑦	X	272247.703m	⑩	X	272235.37m
	Y	112505.141m		Y	112506.413m		Y	112513.156m
	Z	19.8m		Z	20.2m		Z	19.5m
④	X	272233.676m						
	Y	112511.932m						
	Z	19.5m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2722503821m	⑤	X	272250.365m
	Y	112521.555m		Y	112520.532m
	Z	19.64m		Z	19.16m
②	X	272250.871m	⑥	X	272250.750m
	Y	112513.668m		Y	112513.835m
	Z	19.77m		Z	19.33m
③	X	272237.881m	⑦	X	272238.021m
	Y	112513.618m		Y	112519.570m
	Z	19.34m		Z	18.06m
④	X	272237.885m			
	Y	112519.910m			
	Z	19.05m			

도면 5. 유구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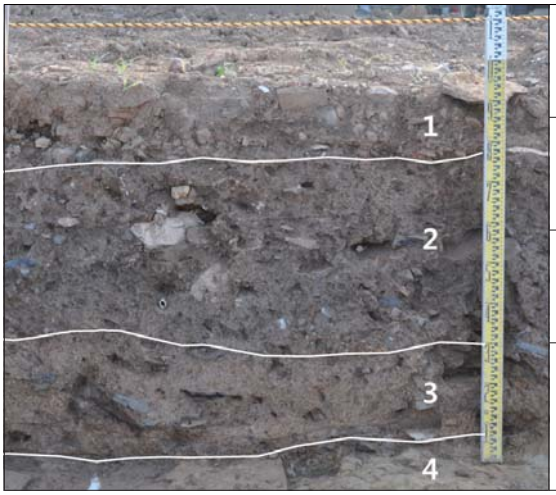
2. 발굴조사

제토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풍화암반층 상면을 기준으로 전면 실시하였다. 제토는 굴삭기를 이용해 기계 제토를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정리하면서 토층 퇴적양상과 유구 및 유물의 유존 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지의 동쪽 경계는 주택 및 텃밭과 인접하여 안정 경사각을 주어 제토하였다.

조사대상지 토층 퇴적양상은 표토층-복토층-자연퇴적층-고려 · 조선시대 문화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토층(1층)은 갈색 사질점토로 두께는 25㎝ 정도이며 철거된 기존 건물의 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복토층(2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이며 철거된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두께 23㎝ 정도로 복토되었으며, 기와편과 시멘트, PVC 파이프 등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아래 자연퇴적층(3층)은 명황갈색 사질점토이며 풍화암반편과 기와편 등이 소량 혼입되었으며, 두께는 44㎝ 정도이다. 고려 · 조선시대 문화층(생토층)은 표토하 92㎝ 정도에서 확인되는 풍화암반층으로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는 북서쪽(해발 19.3m)에서 남동쪽(18.6m)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지형이다. 상대적으로 지형이 높은 북쪽과 서쪽은 표토층 바로 아래 풍화암반층이 확인되며 지대가 낮은 남동쪽 일원은 복토층과 자연퇴적층이 일부 형성되었다.

【표 3】 조사대상지 토층(동쪽 경계부)

	1층 : 갈색(10YR 4/4) 사질점토 – 시멘트, 폐기물 등 포함	표토층 (두께 25㎝)
	2층 :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기와편, 암반편, 쓰레기 등 포함	복토층 (표토하 25㎝)
	3층 : 명황갈색(10YR 6/6) 사질점토 – 풍화암반편 및 기와편 소량 포함	자연퇴적층 (표토하 48㎝)
	4층 : 풍화암반층(10YR 5/8)	고려·조선시대 문화층 / 생토층 (표토하 92㎝)

〈고려 · 조선시대〉

발굴조사 결과, 고려 · 조선시대 건물지 1동 및 시대미상 수혈유구 1기의 유구 총 2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 중앙에 건물지가 위치하며, 건물지 북쪽에 선축된 수혈유구 1기가 분포한다.

1) 건물지

가. 유구(도면 6, 도판 2~4)

건물지 관련 시설인 축대 · 기단석렬 · 초석 일부가 확인되었다. 축대와 기단석렬의 동쪽 부분은 조사대상지 경계 밖으로 이어지며, 남동쪽은 잔존하지 않는다. 조사대상지 지형이 북서쪽→남동쪽으로 낮아져, 지대가 높은 북서쪽을 굴착해 축대를 설치하고 내부에 건물지 기단석렬과 초석을 조성한 건물지로 파악된다.

축대는 북쪽과 서쪽이 'ㄱ'자 모양으로 확인되었다. 축대 북쪽 벽석은 3단(잔존 높이 55㎝), 서쪽 벽석은 1단(잔존 높이 28㎝) 정도 잔존한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702㎝, 너비 400㎝, 높이 28~55㎝ 정도이다. 풍화암반층을 굴착 후 기와편이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를 깔아 정지한 다음 벽석을 쌓았다. 벽석 최하단석은 길이 70㎝ 정도 크기의 면석 형태로 치석된 장방형 할석을 사용했으며, 그 위부터는 길이 20~50㎝ 정도 크기의 할석을 쌓았다.

기단석렬은 축대에서 60㎝ 가량 안쪽에 들여 조성하였다. 기단석렬 북쪽은 1~2단, 서쪽은 1단이 잔존하며, 초석 2개가 확인되었다. 기단석렬의 확인된 규모는 남-북 길이 460㎝, 동-서 길이 280㎝, 높이 27㎝ 정도이다.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북쪽 기단석렬은 풍화암반층을 깊이 25㎝ 정도 굴착하고 길이 50~90㎝ 정도 크기의 장방형과 방형의 할석을 사용해 조성하였다. 축대와 석렬 사이는 기와편이 혼입된 황갈색 및 갈색계열의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초석은 초석1(북쪽)과 초석2(남쪽)가 남-북 방향 80㎝ 정도 간격으로 확인되었다. 초석은 선축된 기단석렬 동쪽 일부에 중복되었다. 초석1 · 2는 깊이 20㎝ 정도 굴착한 후 20~40㎝ 크기 소형 할석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운 후, 상면에 크기 50~70㎝, 두께 20~30㎝ 정도 할석을 초석으로 올렸다. 초석2에서 120㎝ 정도 거리에서 초석을 놓았던 굴착흔이 확인되었다. 굴착흔의 잔존 범위는 직경 50~65㎝, 깊이 15㎝ 정도이다. 초석의 잔존 양상으로 보아 2칸 규모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유물은 청자 개편과 종지, 분청사기 개, 기와편 등이 축대, 기단석렬 노출과정에 출토되었고 그 중 양호한 10점을 선별 수습하였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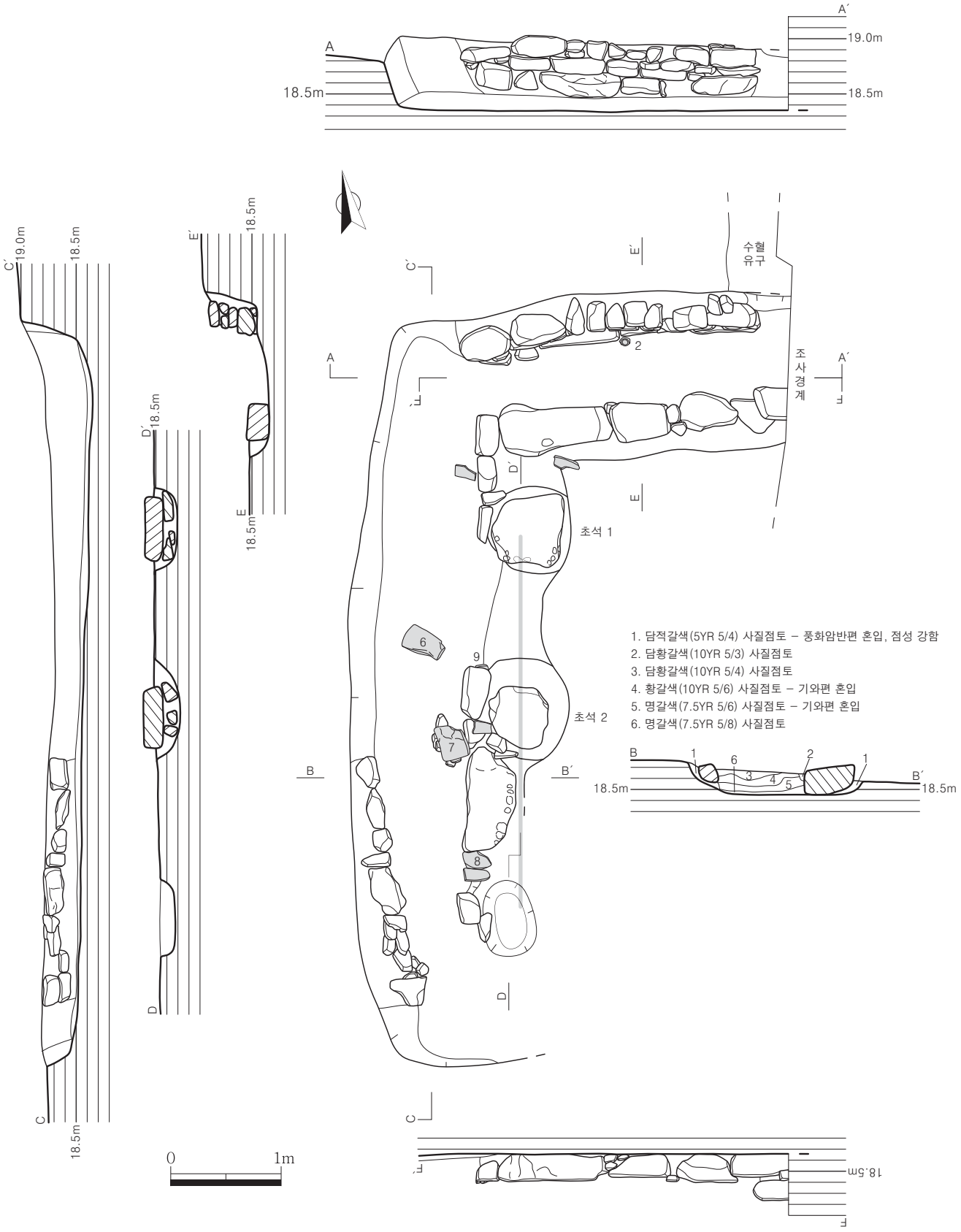
1. 청자 개편(도면 7-1, 도판 5-1)

기형의 1/4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회백색(10YR 7/1)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의 색조는 올리브회색(2.5GY 6/1)이다. 전체적으로 빙렬이 확인된다. 신부 내면에는 내화토빚음 받침 1개가 확인된다.

잔존기고 2.9㎝, 구경 7.8㎝, 꼭지고 7.5㎝

2. 청자 종지(도면 7-2, 도판 5-2)

구연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회백색(10YR 7/1)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의 색조는 올리브회색(2.5GY 6/1)이며, 외면의 저부 일부는 유약이 벗겨졌다. 굽


A
A´
19.0m
18.5m
18.5m
C´
19.0m
18.5m
E´
18.5m
E
18.5m
D´
18.5m
D
C
18.5m
0
1m
수혈
유구
조사경계
초석 1
초석 2
1. 담적갈색(5YR 5/4) 사질점토 – 풍화암반편 혼입, 점성 강함
2. 담황갈색(10YR 5/3) 사질점토
3. 담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4.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 기와편 혼입
5.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 기와편 혼입
6. 명갈색(7.5YR 5/8) 사질점토
B
B´
18.5m
18.5m
F
F´
18.5m

도면 6. 건물지

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아 바닥면이 편평한 평굽의 형태를 띠며, 내화토빚음 받침 3개가 확인된다.

기고 2.7㎝, 구경 9.1㎝, 저경 3.3㎝

3. 청자 저부편(도면 7-3, 도판 5-3)

신부의 하위와 굽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회백색(10YR 7/1)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의 색조는 올리브회색(2.5GY 6/1)이고, 굽의 일부는 산화되어 탁한 등색(7.5YR 6/4)을 띤다. 전체적으로 가는 빙렬이 확인된다. 내저면에는 굽 보다 넓은 내저원각이 있고, 내화토모래빚음 받침 3개가 확인된다. 굽은 수직굽의 형태를 띠며, 마무리가 정연한 편이다. 굽 접지면이 비교적 좁으며, 굽 안바닥을 다소 얕게 깎아내었다. 굽 접지면에서 굵은 모래 받침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7㎝, 저경 4.7㎝

4. 분청사기 개(도면 7-4, 도판 5-4)

기형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회갈색(7.5YR 5/3)을 띤다. 유약의 색조는 회황색(2.5Y 6/3)이며, 꼭지를 제외하고 전면에 시유하였다. 신부 내면에는 내화토모래빚음 받침 3개가 확인된다. 꼭지는 굽 도치형이며, 마무리가 정연하지 못하다.

기고 4.5㎝, 복원구경 18.1㎝, 꼭지고 1.0㎝, 꼭지경 6.9㎝

5. 분청사기 저부편(도면 7-5, 도판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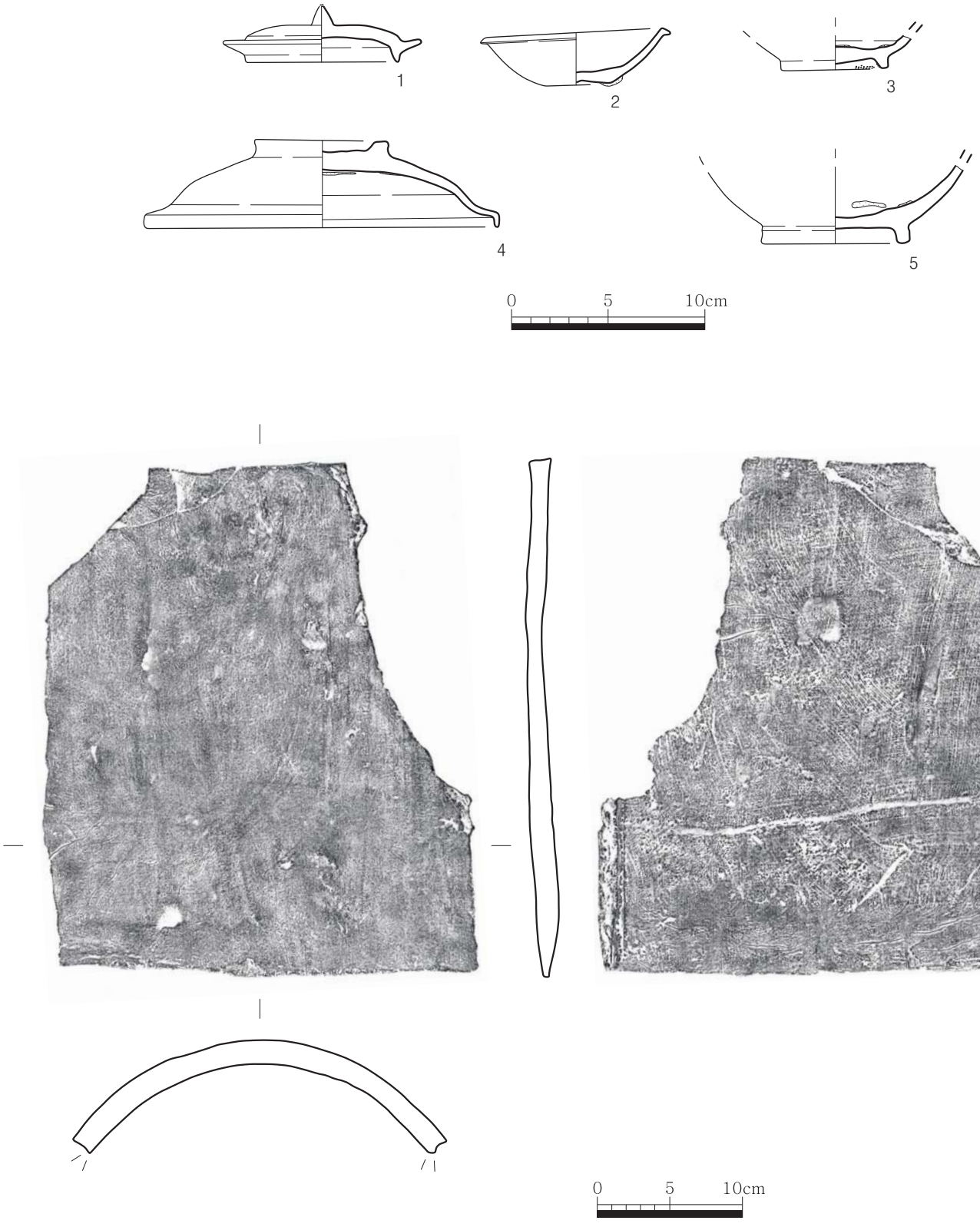
신부의 하위와 굽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황회색(2.5Y 6/1)을 띤다. 유약은 암회황색(2.5Y 4/2)에 가까우나, 대부분 산화되어 회황색(2.5Y 7/2)를 띤다. 유약은 굽과 그 주변은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내저면에서 내화토모래빚음 받침 3개가 확인된다. 굽은 죽절굽의 형태를 띠며, 마무리가 정연하지 못하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비교적 좁은 편이며, 내화토빚음 받침흔 3개가 확인된다.

잔존기고 4.0㎝, 복원저경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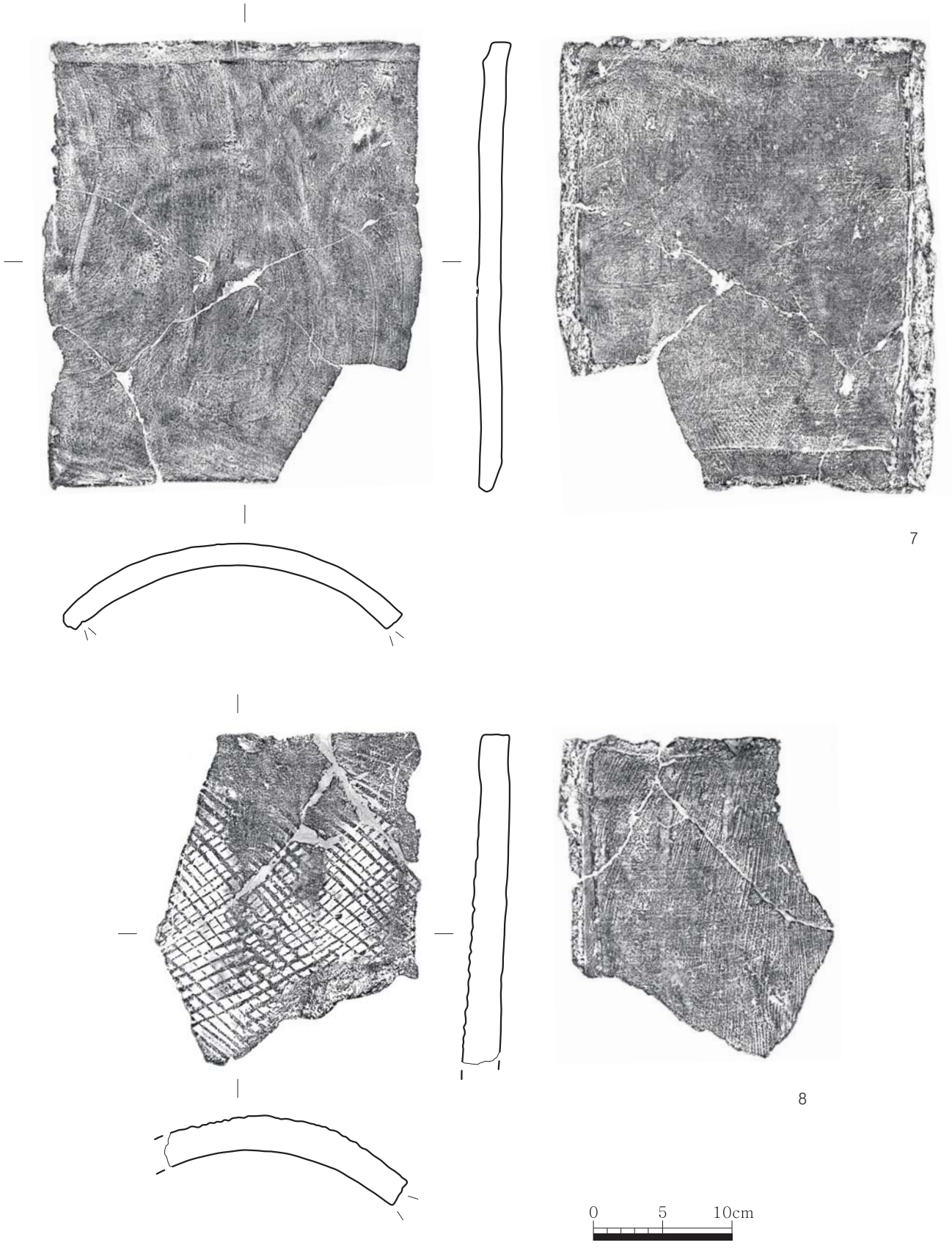
6~10. 암키와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세부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6	7-6	6-6	35.6	26.3	1.6	좌우측 상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4/), 속심 회백색(2.5Y 8/1), 외면 일부 회백색(2.5Y 8/1). 내면은 포목흔과 윤철흔 확인, 일부 물손질 정면흔 확인. 하단부 물손질로 단부 조정. 외면은 무문, 물손질 정면. 와도흔은 양측 모두 확인, 내→외로 1/3 정도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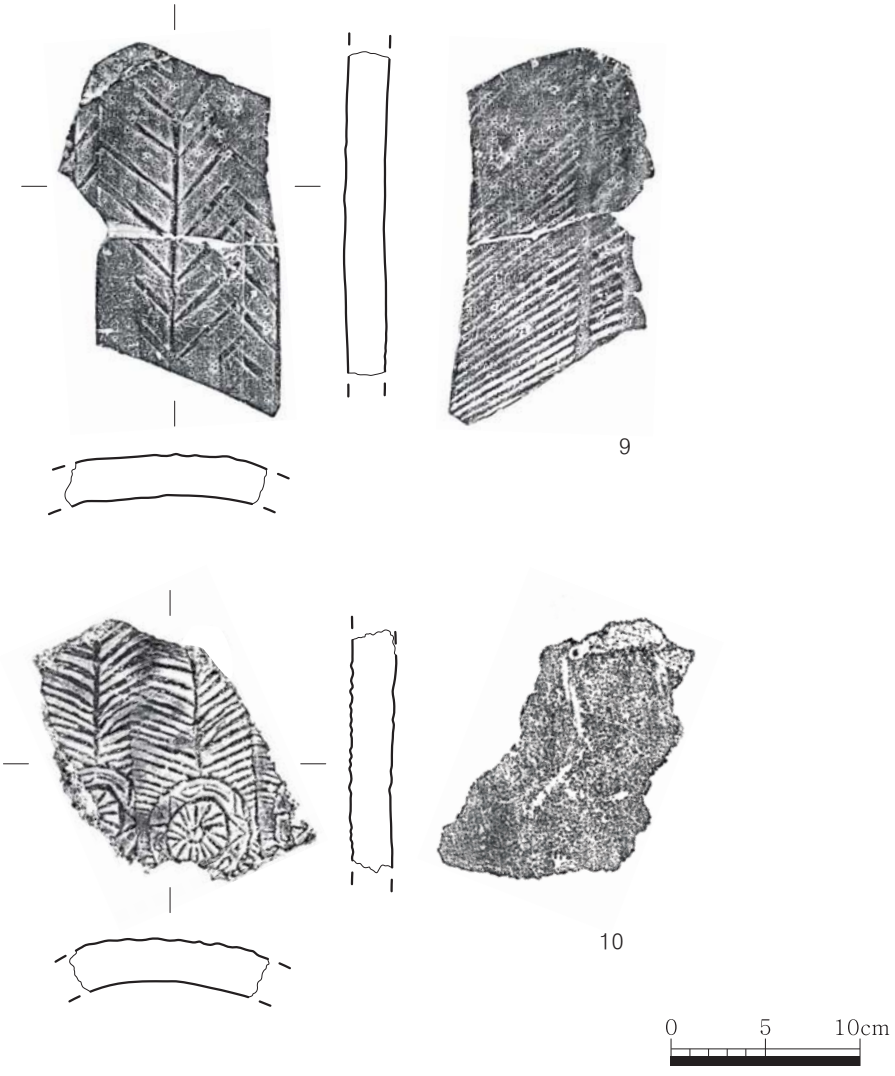


도면 7. 건물지 출토유물1



도면 8. 건물지 출토유물2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7	8-7	6-7	32.7	24.3	1.6	우측 하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황색(2.5Y 7/3). 내면 포목흔 확인, 일부 물손질, 하단부 깎기 조정 후 물손질로 단부 조정. 외면은 무문, 물손질 정면. 와도흔은 양측 모두 확인, 내→외로 1/4 정도 분할.
8	8-8	7-8	잔존 23.9	잔존 17.4	2.4	우측 상단부 잔존.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등색(7.5YR 7/6). 내면 포목흔과 사절흔 확인. 외면은 사격자문 타날. 와도흔은 우측에서 확인, 내→외로 1/2 정도 분할.
9	9-9	7-9	잔존 20.2	잔존 12.3	2.1	일부 잔존. 색조는 내외면 회황색(2.5Y 7/2), 속심 황회색(2.5Y 5/1). 내면 사절흔 확인. 외면은 어골문 타날.
10	9-10	7-10	잔존 14.2	잔존 14.1	2.1	일부 잔존.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1). 내면 물손질 정면, 점토합흔. 외면은 어골문과 차륜문 타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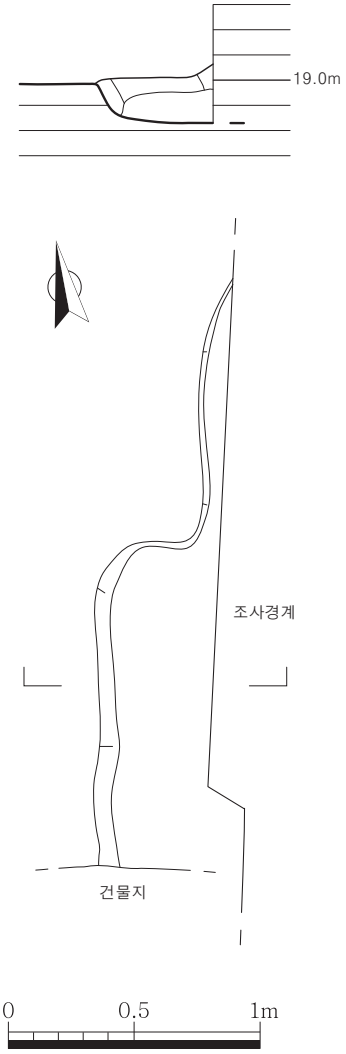
도면 9. 건물지 출토유물3

〈시대미상〉

1)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0, 도판 8)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 동쪽 경계 밖으로 이어지며, 남쪽은 후축된 건물지 축대에 중복되어 정확한 구조와 성격은 파악되지 않는다. 수혈유구는 해발 19.0m 정도에 위치하며 풍화암반층을 비스듬히 굴착해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확인된 규모는 길이 230㎝, 너비 40㎝, 깊이 15~20㎝ 정도이다. 내부는 담황갈색(10YR 5/3) 사질점토가 단일 퇴적되었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10.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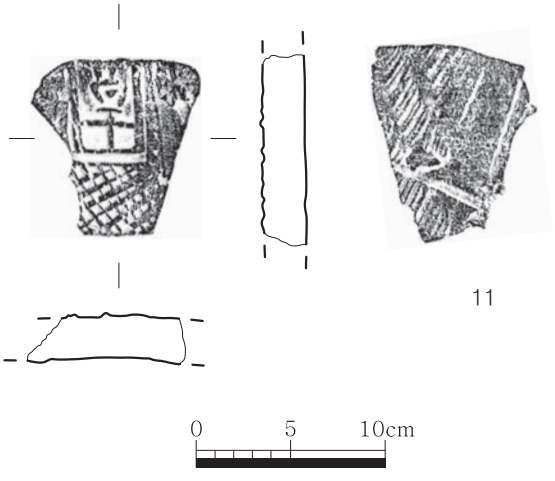
〈상부 수습유물〉

건물지 상면의 자연퇴적층 제토 중 1점이 수습되었다.

11. '草'명 암키와(도면 11-11, 도판 9-11)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2.5Y 7/1)이다. 내면에서 사절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사격자문 타날 후 장방형 곽 내에 '草' 명문을 타날하였다.

잔존길이 10.5㎝, 잔존너비 8.9㎝, 두께 2.2㎝



도면 11. 상부 수습유물

Ⅳ. 조사성과

본 발굴조사는 사천 선진리 105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발굴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는 전체 사업면적 368㎡ 중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동쪽 84.57㎡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1동과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건물지 동쪽이 조사경계 외부로 이어지고 상부와 남쪽 일부가 잔존하지 않으며, 축대 · 기단석렬 · 초석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다. 상대적으로 미고지인 북서쪽을 절토하여 평탄화한 후 축대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기단석렬과 초석을 조성해 건물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규모는 초석의 잔존양상으로 보아 측면 2칸 규모로 파악된다. 수혈유구는 건물지 보다 선축되었으며, 잔존상태가 미약하고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유구 조성시기 및 구체적인 용도는 파악되지 않는다.

유물은 청자 개편 및 종지, 분청사기 개 등과 어골문과 차륜문의 복합문 암키와편이 일부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로 보아 본 조사대상지의 건물지는 고려시대 후기에서 조선시대 전기 사이로 추정된다.[8] 수혈유구는 건물지 보다 선축되어 건물지 조성 시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시기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본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건물지 관련 시설과 수혈유구로 단조롭고 출토유물 또한 빈약해, 유구의 개략적인 연대와 성격만 파악될 뿐이다. 선진리성 주변에 생활 유구가 확인된 점에 의의를 부여하며 향후 주변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의 명확히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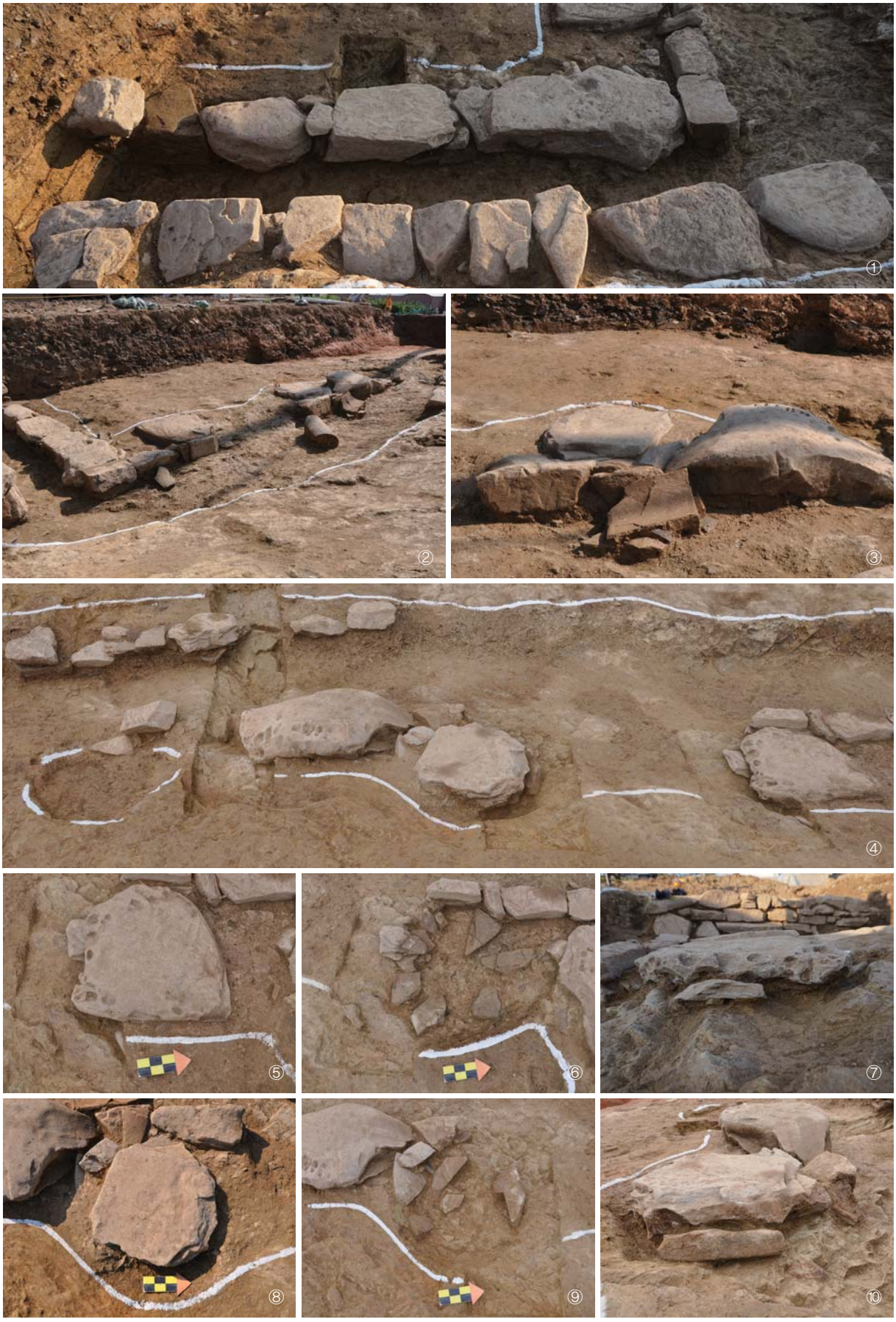
8) 泗川市 · 慶南文化財硏究院, 2008,『泗川 船津里城』.
강경숙, 2001,『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아트.
강경숙, 2019,『유적출토 도자기 바로알기』, 진인진.
李仁淑, 2004,『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變遷』,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사대상지에서 확인된 청자는 유색이 연녹색 계열(올리브회색)이며, 모래와 내화토빚음을 받침으로 사용한다. 기존 12~14세기로 편년된 선진리성 출토 청자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청사기는 표면이 거칠고 암갈색의 색조를 띠고 있으며 죽절굽으로 성형되었다. 조선시대 분청사기는 14~16세기에 유행한다.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원경(SW→NE), ②시굴조사 조사후(SW→NE))

도판 2. 조사대상지 조사후 전경(①SE→NW), 건물지 조사후(②E→W)

도판 3. 건물지 축대(①북쪽벽석 조사후(S→N), ②북쪽벽석 세부(SW→NE), ③벽석단면(E→W), ④⑤유물 출토상태, ⑥서쪽벽석 조사후(E→W))



도판 4. 건물지 기단석렬(①북쪽벽석 조사후(N→S), ②서쪽벽석 조사후(NW→SE), ③유물 출토상태), 초석(④조사후(E→W), ⑤~⑦초석1 조사후, ⑧~⑩초석2 조사후)

도판 5. 건물지 출토유물1

5

6

7

도판 6. 건물지 출토유물2

도판 7. 건물지 출토유물3

도판 8. 수혈유구(①조사전(SE→NW), ②조사후(SE→NW), ③토층(W→E))

도판 9. 상부 수습유물(11)

사천 선진리 1055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219–0001	청자 개편	1	건물지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2.9	7.8	0.0	7–1 5–1	Y
2017–1219–0002	청자 종지	1	건물지	토도류	조선시대	2.7	9.1	3.3	7–2 5–2	Y
2017–1219–0003	청자 저부편	1	건물지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1.7	0.0	4.7	7–3 5–3	Y
2017–1219–0004	분청사기 개	1	건물지	토도류	조선시대	4.5	복원 18.1	0.0	7–4 5–4	Y
2017–1219–0005	분청사기 저부편	1	건물지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4.0	0.0	복원 7.6	7–5 6–5	Y
2017–1219–0006	암키와	1	건물지	토도류	조선시대	35.6	26.3	1.6	7–6 6–6	Y
2017–1219–0007	암키와	1	건물지	토도류	조선시대	32.7	24.3	1.6	8–7 6–7	Y
2017–1219–0008	암키와	1	건물지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23.9	잔존 17.4	2.4	8–8 7–8	Y
2017–1219–0009	암키와	1	건물지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20.0	잔존 12.3	2.1	9–9 7–9	Y
2017–1219–0010	암키와	1	건물지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14.2	잔존 14.1	2.1	9–10 7–10	Y
2017–1219–0011	'草'명 암키와	1	상부 수습	토도류	시대미상	잔존 10.5	잔존 8.9	2.2	11–11 9–11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사천 선진리 1055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 · 編輯者	박강민 · 김재열 · 유순곤 · 강성귀 · 하혜진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 박강민 · 김재열 · 정의현 · 유순곤			
遺蹟調査地番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55번지			
調査面積	시굴 : 368㎡ 발굴 : 84.57㎡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건물지	조선시대	1	청자 개편, 분청사기 개, 암키와 등	
수혈유구	시대미상	1	-	

140. 서울 효자동 33-1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40- 5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40- 7

Ⅲ. 조사내용 …… 140-14
1. 시굴조사 …… 140-14
2. 발굴조사 …… 140-16
〈근대(일제강점기) 문화층〉 …… 140-17
1) 건물지 …… 140-17

Ⅳ. 조사성과 …… 140-27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40-9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40-11
도면 3. 조사대상지 고지도(首善全圖 木版本, 金正浩 1840年代) …… 140-12
도면 4.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40-14
도면 5. 시굴조사 트렌치배치도 …… 140-15
도면 6.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 140-17
도면 7. 건물지 …… 140-18
도면 8. 건물지 출토유물1 …… 140-22
도면 9. 건물지 출토유물2 …… 140-24
도면 10. 건물지 출토유물3 …… 140-26

도 판 목 차

도판 1. 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전), 트렌치1(②조사후, ③추정기단, ④추정초석),
트렌치2(⑤조사후) …… 140-31
도판 2.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후) 및 건물지(②조사중)…… 140-32
도판 3. 건물지(①조사후) 및 고래(②전경, ③④토층, ⑤세부) …… 140-33
도판 4. 건물지 고래(①②세부) 및 아궁이(③전경, ④토층, ⑤축조 모습, ⑥보수 흔적,
⑦이맛돌 해체후, ⑧연소실 세부) …… 140-34
도판 5. 건물지 부엌칸(①전경, ②바닥 토층, ③④고맥이시설 세부) 및 협칸(⑤전경,
⑥~⑧세부) …… 140-35
도판 6. 건물지(①~④유물출토상태, 1~4:출토유물1) ……140-36
도판 7. 건물지 출토유물2 …… 140-37
도판 8. 건물지 출토유물3 …… 140-38
도판 9. 학술자문회의(①②)…… 140-39

Ⅰ.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33-1번지로 사업시행자 박봉용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145.5㎡)이다. 사업대상지는 사적 제10호인 서울 한양도성[1] 북서쪽 부분에 위치한다. 남동쪽으로 420m 가량 떨어져 "경복궁(사적 제117호인)"의 영추문이 있으며, 조사대상지에서 남동쪽으로 60m 떨어져 효자동 40-1번지 유적[2]이 있으며, 반경 220m 내의 효자동 164-11번지 유적[3] · 옥인동 5번지 유적[4] · 신교동 45번지 유적[5] 등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가 조사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서울시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기관의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아울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소규모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종로구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국비를 지원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2017년 8월 8일 문화재협업포털을 이용하여 본 재단에 소규모 국비지원 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본 재단에서는 국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9월 13일 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 19일 실조사일수 2일에 대한 허가(제2017-1212호)를 받았다. 시굴조사는 9월 20일에 착수하여 9월 21일에 완료하여 실조사일수 2일이 소요되었다. 조사 결과 조사구역 동쪽 부분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건물지 2동과 석렬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구가 확인된 조사구역 동쪽 부분(70㎡)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로의 변경계획서를 9월 26일에 제출하였으며, 10월 12일 실조사일수 7일에 대한 변경 허가(발굴제도과-11742호)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10월 19일에 착수하여 10월 26일에 완료하였으며, 실조사일수는 6일이 소요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근대(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조선시대의 백자 병 · 백자 종지 ·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적의 성격과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자문회의[6]를 10월 26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근대(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구들 및 함실아궁이가 남아있는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으며, 기록 보존 후 공사 시행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1)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2015, 『서울 한양도성 Seoul City Wall』.
2) 한국문화재재단, 2015, 「3. 서울 효자동 40-1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Ⅰ - 서울 · 인천 · 경기 1-』.
3)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5, 『서울 종로구 효자동 164-11번지 다가구주택부지 내 서울 효자동 유적』.
4) 한울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종로 옥인동 5번지 일원 단독주택주지 내 유적 발굴조사-」, 『서울 종로 옥인동 5번지 유적』.
5) 서해문화재연구원, 2015,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45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문화재 시 ·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신교동 유적』.
6) 학술자문회의 자문위원 : 정계옥(문화재전문위원), 최종규(한울문화재연구원 부원장)

발굴조사단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시굴조사	발굴조사
조 사 단 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박 종 섭 (조사연구실장)
책 임 조 사 원	정 훈 진 (조사연구2팀 부팀장)	정 훈 진 (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허 병 주 (조사연구2팀 연구원)	허 병 주 (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최 민 석 (조사연구2팀 연구원)	최 민 석 (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	박 구 영 (조사연구2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진호(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허병주 · 최민석 · 박구영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김현진 · 손지선 · 김선미 · 기여운(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와 함께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김현진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이순희(시림 아카이브)가 촬영하였다.

원고는 Ⅰ · Ⅱ장 허병주, Ⅲ장 허병주(조사내용 및 유구) · 김현진(유물), Ⅳ장 허병주가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진호 · 정홍선이 수정하였고 교정 및 교열은 정훈진(조사연구2팀장)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33-1번지에 해당하며, 경 · 위도상 동경 126° 97′ 11″, 북위 37° 58′ 19″이다. 조사대상지가 소재한 효자동은 서울 한양도성 내 북서쪽에 위치하며,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에 넓게 형성된 곡부성 지형에 해당한다. 지리적으로는 경북궁의 서문인 영추문에서 남-북으로 개설된 효자로를 따라 340m 올라가면 서쪽으로 이어지는 자하문로 16길이 있고, 이 길을 따라 230m 진행하면 자하문로와 합류한다. 자하문로를 따라 북쪽으로 60m 진행 후 동쪽의 골목길을 따라 20m 들어서면 남쪽에 조사대상지가 위치한다.

조사구역이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는 서울시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 59′, 북위 37°24′에 위치하며, 동-서 간 거리는 6.066㎞, 남-북 간 거리는 7.299㎞이고 총면적은 23.91㎢이다. 종로구는 동쪽으로 북악산(北岳山) 능선을 경계로 성북구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인왕산(仁王山)을 경계로 서대문구와 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중구와, 북쪽으로는 북한산(北漢山)을 경계로 도봉구 · 은평구 · 경기도 고양시와 접해 있다. 지형은 북쪽의 북한산을 중심으로 북고남저의 형태이며, 지질은 중생대 쥬라기에 나타난 대보화강암류인 서울화강암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고 · 역사적 환경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선사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종로구와 인접한 서대문 무악산에서 1976년 출토된 사냥돌 유적과 또 같은 해 서대문 부근에서 출토된 주먹도끼가 인하대학교 박물관에 소장[7]되어 있는 등 구석기 유적이 일부 조사된 예가 있고, 청동기 유적으로는 1958년 조사된 성북구 정릉동 지석묘가 있다. 최근의 성과로는 2003년 서울역사박물관이 조사한 서대문구 안산유물산포지에서 소량의 무문토기편도 확인되고 있어 청동기시대 '고지성 취락유적'이 분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8].

이 외에 종로구의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대부분 조선시대와 관련되는 것으로 경복궁[9]과 창덕궁[10] · 경희궁[11] · 창경궁[12] 등 조선시대 궁궐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외 탑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원각사에 대한 조사 등이 있다[13].

또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도심 재개발 사업 및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교각 · 수문지 · 건물지 등이 확인된 청계천 유적[14]의 발굴을 시작으로 시전행랑 유구가 확인된 청계 6

---

7) 이경수, 2005, 「서울지역 선사유적 조사현황」,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Ⅰ』, 99쪽.
8) 이경수, 2005, 「서울지역 선사유적 조사현황」,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Ⅰ』, 114쪽.
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경복궁 발굴조사 보고서』.
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창덕궁 금천교 발굴조사보고서』.
11) 문화재관리국, 1985, 『경희궁지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박물관, 1987, 『정비 · 복원을 위한 경희궁지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12) 문화재관리국, 1985, 『창경궁발굴조사보고서』.
13) 서울역사박물관, 2002,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14)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청계천유적』.

지구 유적[15] · 서울 종묘광장 인근유적[16] · 조선시대 초기의 시전행랑 유적과 건물지 등이 조사된 청진구역 2~3지구 및 12~16지구 · 육의전빌딩 신축부지[17] · 조선시대 건물지와 석렬유구가 조사된 관철동 유적[18] · 조선후기의 성곽과 훈련원내의 염초청과 하도감이 조사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 내 유적[19] · 화약과 무기를 제조하던 관청유적인 군기시터 유적[20] · 적심석이 조사된 조선시대 사간원이 자리한 지역인 사간동 유적[21] 등에서 도심 재개발 및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한양도성의 기반시설인 도로유적은 광화문 광장 발굴[22]을 통해 육조거리의 시기별 토층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발굴조사를 통해 서울도성에 대한 종합적인 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적들의 발견은 문헌과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궁궐 · 성곽 · 관청 · 시전 · 도로 · 민가 등의 실체화에 그 의의가 있다.

고대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삼국의 영토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는데 삼국항쟁과 관련하여 주목할 유적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복속하고 세운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진흥왕순수비'로 북한산 비봉에 위치[23]하고 있으며 태종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장춘랑(長春郎)과 나랑(羅郎)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고 하는 장의사(藏義寺)[24]터가 종로구 신영동의 세검정초등학교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장의사터에는 보물 제235호로 지정되어 있는 당간지주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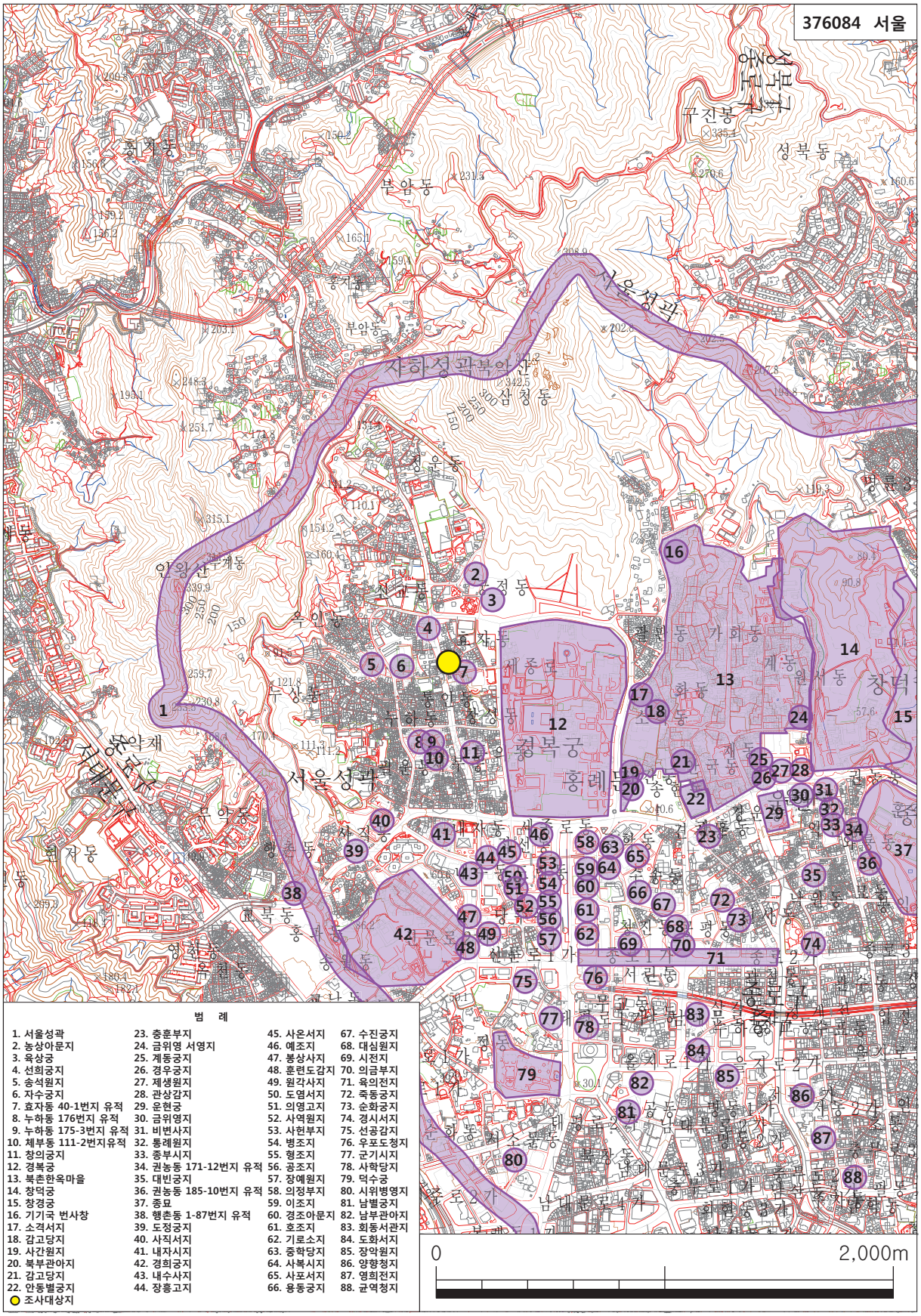
고려시대에는 고려 문종 21년(1067) 삼경제(三京制)가 실시되면서 남경이 설치되었다. 남경의 위치나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숙종대(肅宗, 1054~1105)에 남경의 범위는 동쪽은 대봉(大峯) · 서쪽은 기봉(岐峯) · 남쪽은 사리(沙里) · 북쪽은 면악(面嶽)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25].

조선 초기 태종과 세종 대를 거치면서 조선왕조의 기틀과 함께 한성부의 구성도 완성되었다. 한성부의 도로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그 앞에 육조거리가 형성되고 관아, 도성과 문루 등이 세워졌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도성 내 많은 시설이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집권기로부터 궁궐과 많은 건물들이 중축되어 왕도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후 숙종 대에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의 수축이 끝난 30여년 후인 영조 대에 다시 '도성수축론'이 대두되는데 이때의 수축된 도성은 40여 곳으로 수축의 주체는 삼군부가 분담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한성부는 상업도시로 탈바꿈하는 경향을 띤다. 특히 17세기 후반 이후 상업의 발달에 따라 교통로의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18세기 이후 경강상인을 중심으로 한 상업의 발달은 한성부의 도시 구조를 변화시켰다.

---

15)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7,『서울 청계 6지구 유적Ⅰ · Ⅱ』.
16) 서울역사박물관, 2012,『宗廟-종묘광장발굴보고서』.
17) 한울문화재연구원, 2010,『종로 2가 40번지 시전행랑 유적』.
18)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서울 관철동 유적』.
19)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조성부지내 유적 시 · 발굴조사』.
20) 한강문화재연구원, 2008,『서울 군기시터 유적』.
21) 상명대학교박물관, 2007,『서울 종로구 한국 불교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 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2) 한강문화재연구원, 2011,『서울 육조거리 유적』.
23) 현재는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 전시되고 있으며, 북한산 비봉에는 모조품이 자리하고 있다.
24) 박상빈, 2005,「신라 한강진출과 통일신라시대의 서울」,『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Ⅰ』, 142쪽.
25) 현재의 위치로는 타락산, 인왕산, 한강, 북악을 의미한다는 설이 주도적이다.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1876년 개항으로 한성부는 급속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을 겪는다. 이후 근대적인 개혁으로 평가되는 갑오개혁은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을 내각과 아문으로 변경하였으나 새로운 관아건설은 없었으며, 종전의 관아 건물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 이후 한성 5부를 5서로 개칭하고 계를 줄이고 동을 따로 정하여 47방 288계 775동으로 하였다.

1910년 국권강탈로 인해 10월 1일에는 부령(府令) 제7호(1910년 10월 1일 공포)로 한성부가 경성부(京城府)로 개칭되었으며, 1911년 4월 1일에는 부령 제 31호로 경성부의 행정조직을 도성을 기준으로 성 안은 5부 36방으로, 성 밖은 8면으로 하는 5부 8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경성부의 행정은 부제(府制)를 바탕으로 하였고 1930년대 경성부의 인구 증가로 경성부의 구역확장과 구제(區制)가 실시되면 현재의 종로구가 신설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 주변국가의 동포와 북한주민들이 남하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인구의 증가로 전통적으로 주거지가 밀집한 조사구역 일원은 필지가 분할되어 소규모 주택이 형성되었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6.25 한국전쟁' 등으로 휴전이 성립되는 1953년까지 중앙정부의 행정력은 미비하여 정부에 의한 수도 서울의 정비는 없었다. 전후 월남한 북한사람의 상당수가 서울에 정착하였고 이에 서울의 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특히, 1960년대부터 매년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인구의 도시집중은 심화되었다.

그 후 서울의 개발과 인구증가로 조사구역을 포함한 효자동 · 옥인동 · 신교동 일원에는 저층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주택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서울시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포함되는 지역이며, 사적 제10호인 서울 한양도성 북서쪽 부분에 위치한다. 그 외 효자동 73-7번지 유적[26] · 효자동 164-11번지 유적 · 옥인동 5번지 유적 · 신교동 45번지 유적 · 누하동 99-4번지 유적[27] · 117-1번지 유적[28] · 224번지 유적[29]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 및 관련시설들이 조사되었다. 또한 효자동 40-1번지 유적[30]에서는 조선~근대 사이의 유적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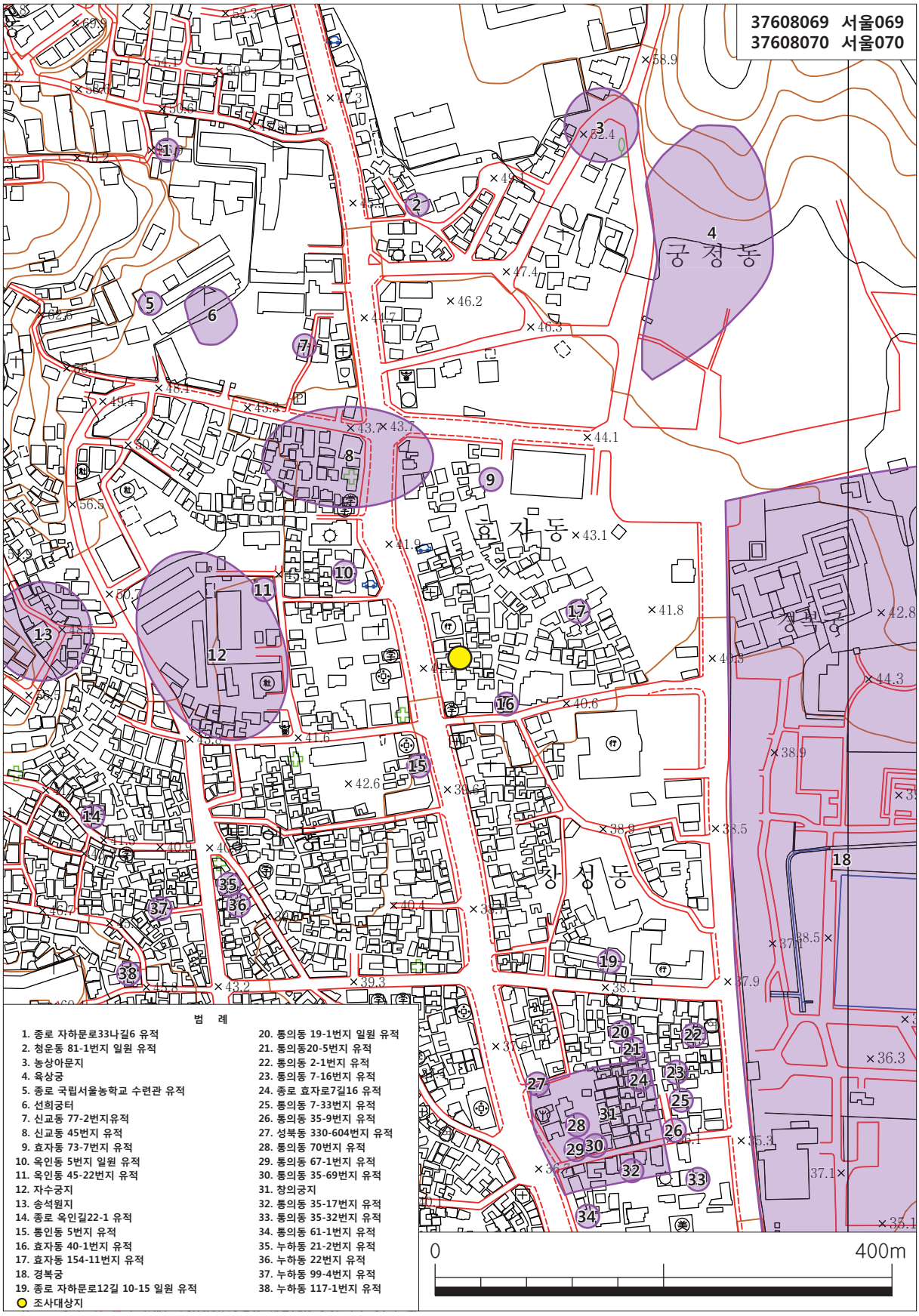
26) 한백문화재연구원, 2018, 「서울 효자동(73-7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27) 한국문화재재단, 2015, 「1. 서울 누하동 99-4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Ⅰ -서울 · 인천 · 경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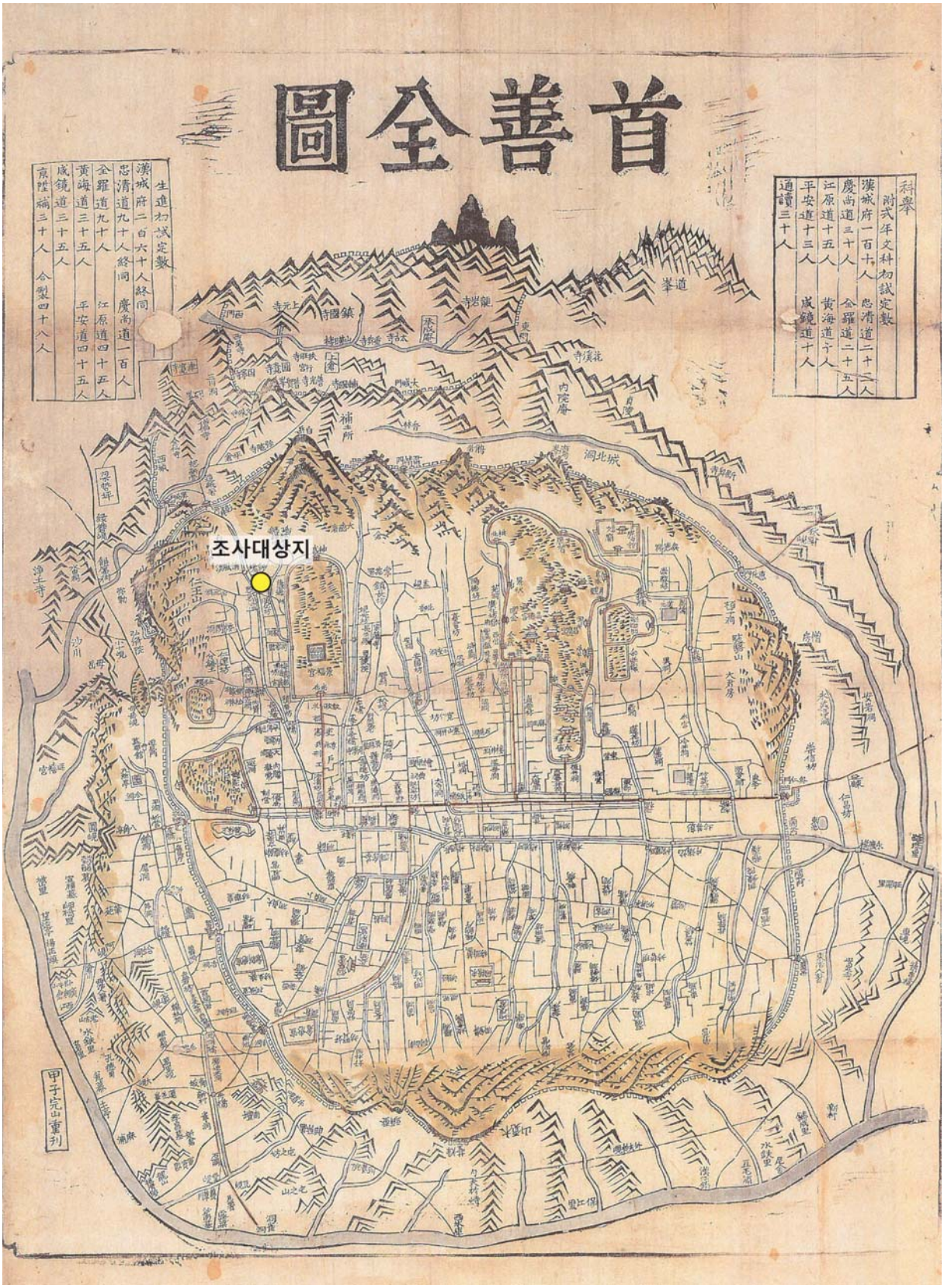
28) 한국문화재재단, 2015, 「2. 서울 누하동 117-1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Ⅰ -서울 · 인천 · 경기1-』.

29) 한국문화재재단, 2019, 「31. 서울 누하동 224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 -25~31-』.

30) 한국문화재재단, 2015, 「3. 서울 효자동 40-1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Ⅰ -서울 · 인천 · 경기1-』.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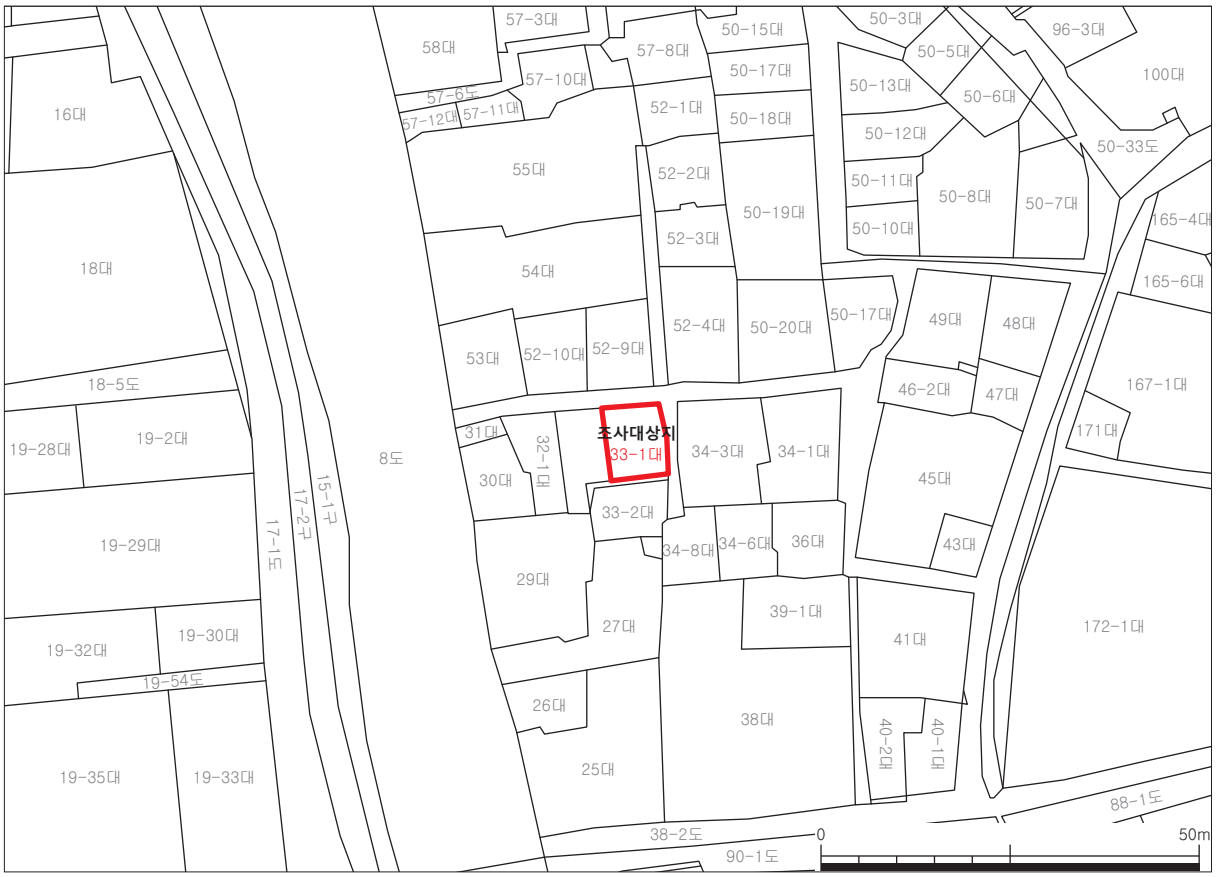
도면 3. 조사대상지 고지도(首善全圖 木版本, 金正浩 1840年代)

【표 1】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소현묘지	북쪽 600m	조선시대 분묘	서울역사박물관, 2005,『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서울특별시, 2011,『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	
2	선희궁지	북서쪽 450m	조선시대 사당	서울역사박물관, 2005,『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서울특별시, 2011,『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	
3	서울 육상궁	북동쪽 300m	조선시대 사당	서울역사박물관, 2005,『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서울특별시, 2011,『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	
4	연호궁지	북동쪽 350m	조선시대 사당	서울역사박물관, 2005,『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서울특별시, 2011,『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	
5	송석원지	서쪽 400m	조선시대 가옥	서울역사박물관, 2005,『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서울특별시, 2011,『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	
6	자수궁지	서쪽 250m	조선시대 궁터	서울역사박물관, 2005,『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서울특별시, 2011,『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	
7	효자동 40-1번지 유적	남쪽 50m	조선시대 건물지	한국문화재재단, 2015,「3. 서울 효자동 40-1번지 유적」,『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Ⅰ-서울 · 인천 · 경기1-』	
8	효자동 164-11번지 유적	동쪽 100m	조선시대 건물지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5,『서울 종로구 효자동 164-11번지 다가구주택부지 내 서울 효자동 유적』	
9	효자동 73-7번지 유적	북쪽 150m	조선시대 건물지	한백문화재연구원. 2018,「서울 효자동 (73-7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10	옥인동 5번지 유적	북서쪽 120m	조선시대 건물지	한울문화재연구원, 2016,「서울 종로 옥인동 5번지 일원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서울 종로 옥인동 5번지 유적』	
11	신교동 45번지 유적	북서쪽 200m	조선시대 건물지	서해문화재연구원, 2015,「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45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문화재 시 ·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신교동 유적』	

Ⅲ.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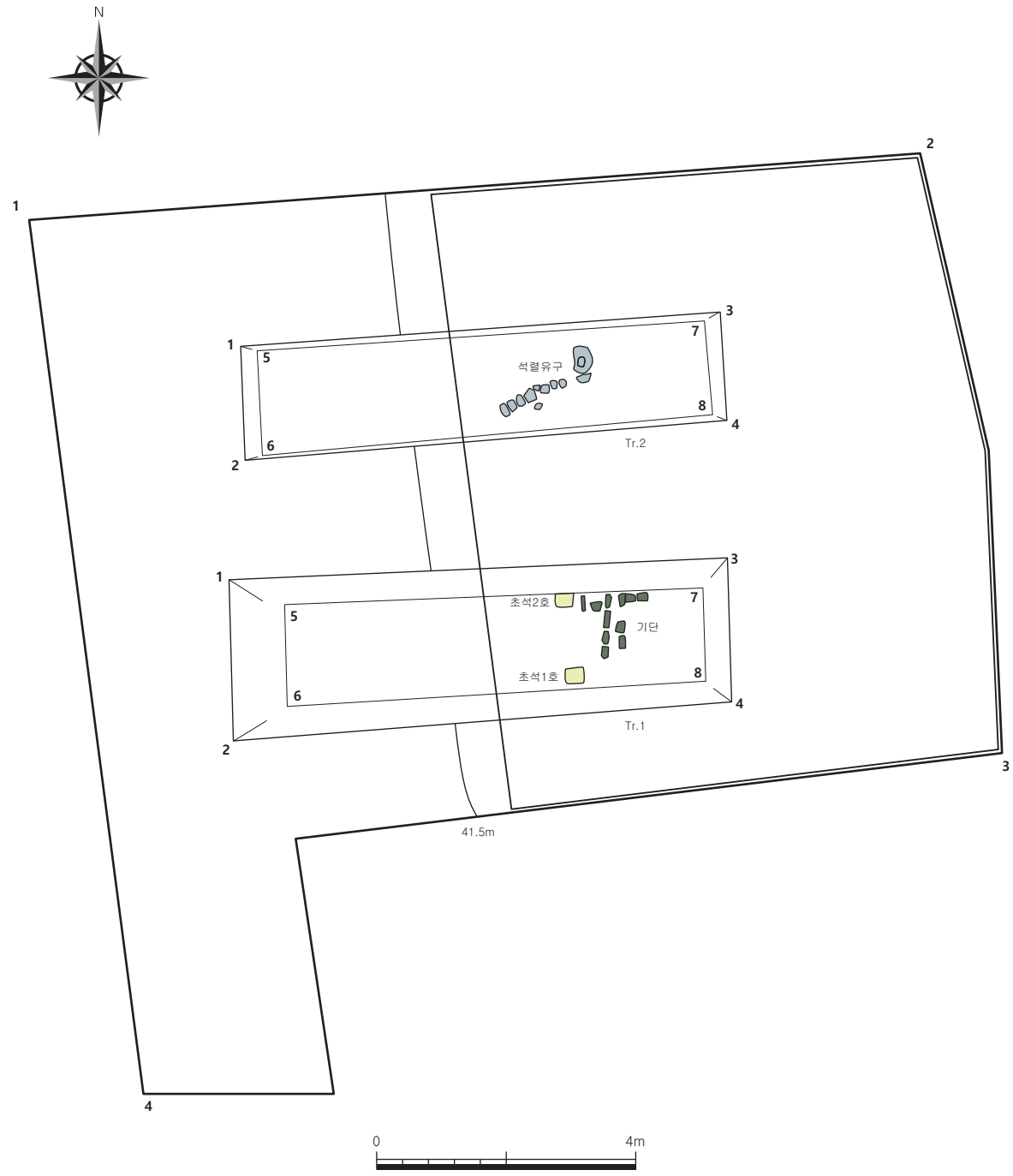
조사대상지가 속하는 효자동은 서울 한양도성 내 북서쪽에 위치하며,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에 넓게 형성된 곡부성 지형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의 남쪽과 서쪽에는 민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과 동쪽에는 소로가 지나간다.



도면 4.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 시굴조사

시굴조사는 지형 및 평면형태를 고려하여 동-서 방향의 트렌치 2개소를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트렌치1의 북벽을 중심으로 토층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위에서 아래로 '표토층 → 복토층 → 조선시대 문화층'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트렌치 1의 동쪽 끝부분에서 건물지 기단 일부와 초석 2개가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기단은 크기 20×10㎝ 내외의 석재를 이용하여 서쪽으로 면을 맞추어 축조하였고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이다. 트렌치2에서는 석렬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직경 10~20㎝ 가량의 크기가 다양한 할석으로 축조하였고 장축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 이후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하였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553604.200m Y 197458.900m Z 41.899m	Tr.1-1	X 553604.900m Y 197447.800m Z 41.796m	Tr.1-5	X 553605.400m Y 197449.300m Z 40.291m	Tr.2-1	X 553609.200m Y 197448.300m Z 41.559m	Tr.2-5	X 553609.400m Y 197448.500m Z 40.964m			
GPS2	X 553613.300m Y 197458.000m Z 41.710m	Tr.1-2	X 553607.900m Y 197447.600m Z 41.699m	Tr.1-6	X 553607.100m Y 197449.000m Z 40.443m	Tr.2-2	X 553610.800m Y 197448.000m Z 41.600m	Tr.2-6	X 553610.600m Y 197448.300m Z 40.992m			
GPS3	X 553612.700m Y 197445.200m Z 41.619m	Tr.1-3	X 553605.800m Y 197455.500m Z 41.749m	Tr.1-7	X 553606.000m Y 197455.000m Z 41.158m	Tr.2-3	X 553609.900m Y 197455.400m Z 41.638m	Tr.2-7	X 553610.000m Y 197454.900m Z 40.932m			
GPS4	X 553600.100m Y 197446.800m Z 41.690m	Tr.1-4	X 553607.700m Y 197455.300m Z 41.779m	Tr.1-8	X 553607.300m Y 197454.800m Z 41.137m	Tr.2-4	X 553611.300m Y 197455.200m Z 41.613m	Tr.2-8	X 553611.100m Y 197454.800m Z 40.973m			

범 례
- 조사대상범위
- 발굴전환범위
- 초석
- 기단
- 석렬유구

도면 5. 시굴조사 트렌치배치도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전체 사업부지(145.5㎡) 중 유구가 확인된 동쪽 부분(70㎡)만 실시하였다. 제토는 시굴조사 시 확인되었던 층위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층까지 중장비를 이용하여 제토한 후 문화층 노출 이후부터는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토 중 발생한 토사는 전체 대지면적 중 이번 발굴조사에서 제외된 서쪽 부근에 임시 적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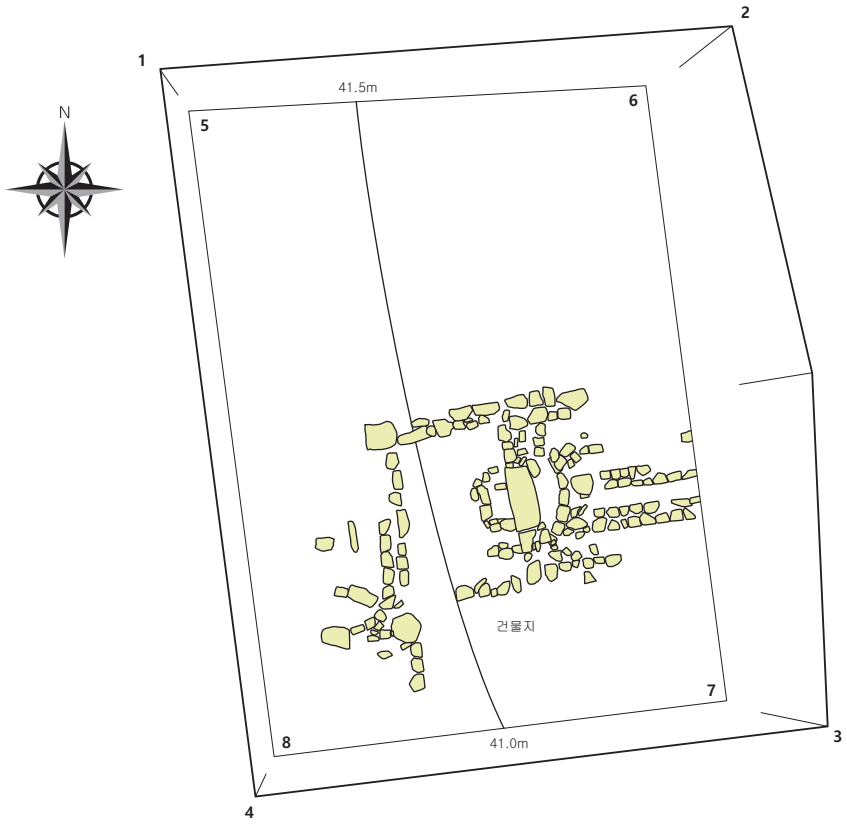
조사 결과 지표 하 60㎝ 부근에서 근대(일제강점기)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문화층 내에서 근대(일제강점기)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시굴조사 시 확인되었던 트렌치2내 석렬유구는 교란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 내 퇴적양상은 조사경계 서쪽 벽면을 중심으로 토층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위에서 아래로 '표토층 → 복토 및 교란층 → 근대(일제강점기) 문화층'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서쪽 부근에서는 문화층의 하부에서 황백색사질토 기반의 생토면이 노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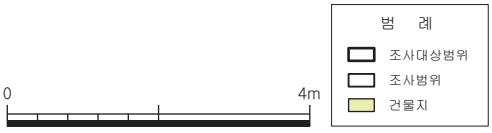
1층(표토층)은 암갈색사질토로 약 20㎝ 정도의 두께로 확인되며, 내부에는 최근 철거된 건물의 폐기물이 혼입되어 있다. 2 · 3층(복토 및 교란층)은 흑갈색사질토 및 명갈색사질점토로 표토 하 약 20~60㎝ 정도의 두께로 확인되며, 정화조 등 건축폐기물이 섞여있는 층인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심하게 교란되어 있다. 4층(근대 문화층)은 암회갈색사질토로 표토 하 60㎝에서 확인되었으며, 층의 상면에서 근대(일제강점기) 문화층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유구를 포함한 층의 상부는 교란에 의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이며, 백자편 · 기와편 등의 유물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표 2】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남쪽)

<table>
<tr><th>토층</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4">
</td><td>1층 : 암갈색사질토
(건축폐기물 포함)</td><td>표토층
(두께 20㎝)</td></tr>
<tr><td>2층 : 흑갈색사질토
(건축폐기물 포함)</td><td rowspan="2">복토 및 교란층
(지표 하 20~60㎝)</td></tr>
<tr><td>3층 : 명갈색사질점토</td></tr>
<tr><td>4층 : 암회갈색사질토</td><td>근대(일제강점기) 문화층
(지표 하 60㎝ 이상)</td></tr>
</table>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553612.900m	GPS3	X	553612.700m	GPS5	X	553612.200m	GPS7	X	553604.900m
	Y	197451.000m		Y	197445.200m		Y	197451.800m		Y	197457.900m
	Z	41.899m		Z	41.619m		Z	41.017m		Z	41.176m
GPS2	X	553613.300m	GPS4	X	553603.900m	GPS6	X	553612.700m	GPS8	X	553604.700m
	Y	197458.000m		Y	197452.200m		Y	197457.400m		Y	197452.300m
	Z	41.710m		Z	41.690m		Z	41.105m		Z	41.022m



도면 6.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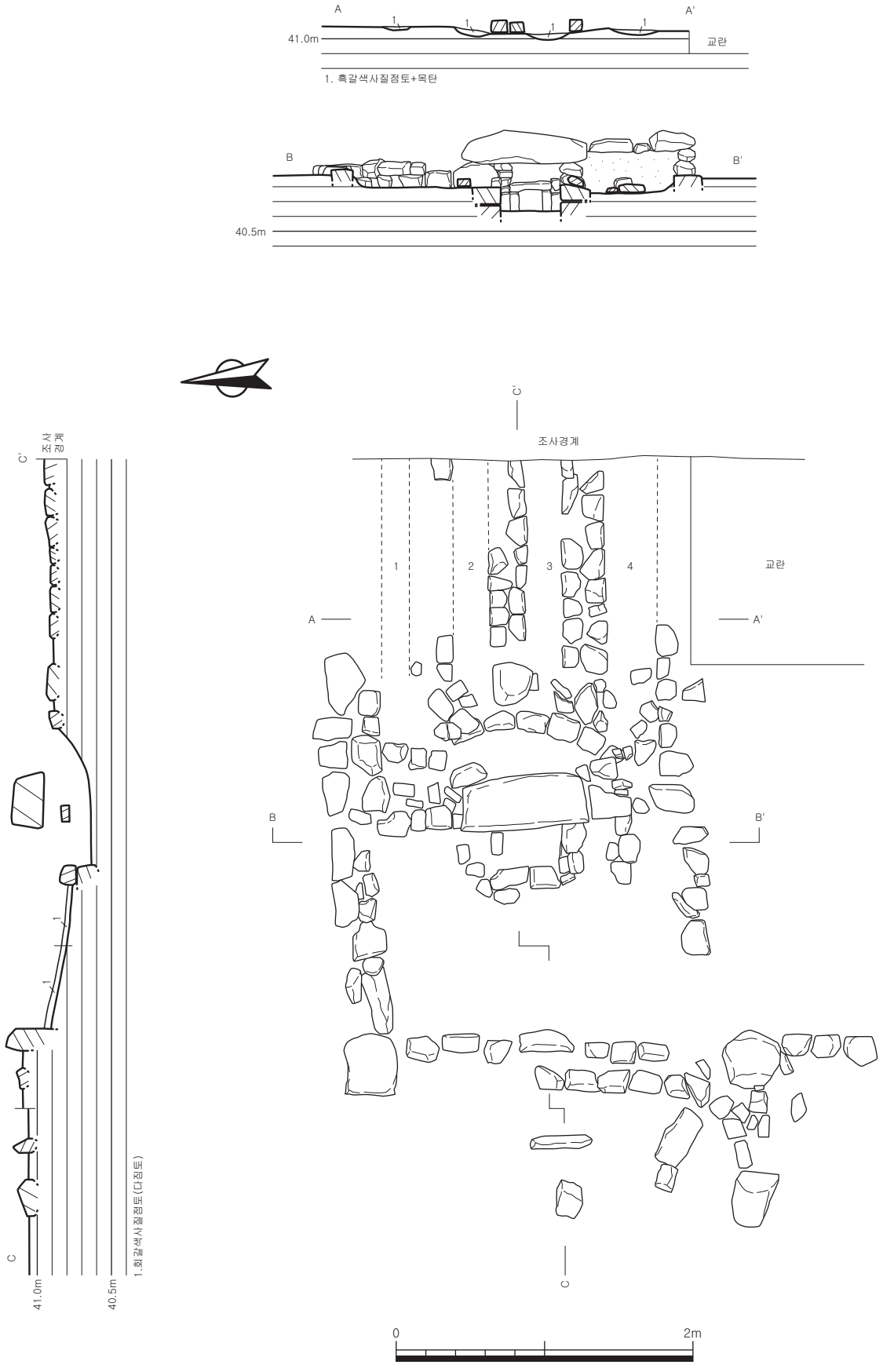
〈근대(일제강점기) 문화층〉

1) 건물지

가. 유구(도면 7, 도판 2~6-④)

조사구역의 남쪽 부근 해발 41.0m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일부만 노출되었기 때문에 건물지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잔존 양상으로 보아 동서방향으로 정면 3칸에 서쪽 끝칸에서 남쪽으로 한 칸을 덧붙인 형태로 전체 규모는 4칸으로 추정된다. 건물지는 초석과 고맥이 및 구들시설과 아궁이 등이 남아 있었으나 기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쪽에서부터 온돌방, 부엌이 확인되었으며, 서쪽 측면 2칸은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명확한 형태 및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잔존 유구의 장축방향은 동-서(N-85°-E)향이고 잔존규모는 동서 518㎝ · 남북 360㎝이다.

조사대상지의 주변 지형이 대체적으로 완만한 서향 사면을 이루고 있어 건물지의 축조에 앞서 대지조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기반토인 황백색사질토 상부에 황갈색사질토와 명갈색사질토를


A
A'
1
41.0m
교란
1. 흑갈색사질점토+목탄
B
B'
40.5m
C'
조사경계
1
2
3
4
교란
A
A'
B
B'
C
0
2m
C'
조사경계
1
1
C
41.0m
40.5m
1.회갈색사질점토(다짐토)

도면 7. 건물지

차례로 성토하여 원지형을 평탄하게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암회갈색사질토를 성토하여 기단토를 조성한 후 건물지를 축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조사대상지의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대지조성층의 전체범위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초석은 유구의 서쪽 부분에서 총 3매가 확인되었다. 부엌칸의 서벽 고맥이열에 각각 1매씩 남아 있었고 서쪽 끝칸에 1매가 남아 있었다. 부엌칸의 초석은 크기 40㎝, 높이 15㎝ 내외의 편평한 할석을 초석으로 사용하였으며, 초석간 거리는 256㎝이다. 서쪽 끝칸 초석은 20×20×40㎝ 정도의 다듬은 할석을 부엌칸의 서벽과 130㎝ 떨어진 지점에 수직으로 세워 설치하였으며, 초석의 하부에서는 별도의 적심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맥이시설은 초석이 남아 있는 열의 동서축과 남북축 외에 동서방향의 북쪽 열(초석 동쪽)에서 확인되었으며, 각각의 동쪽과 남쪽 부분은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장된다. 구들이 위치한 남북방향의 동쪽 열은 교란되어 모두 결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크기 20~30㎝ 가량의 할석을 이용하여 주로 2단 2열의 형태로 축조하였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비교적 큰 석재를 이용하여 1단만 축조한 부분도 있고 최고 3단으로 구축한 부분도 있다. 또한 부엌칸의 남쪽 고맥이시설 중 약 60㎝ 가량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지 남쪽 부근에서 교란이 심하게 이루어져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출입구가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 고맥이시설의 잔존 규모는 남-북 380㎝ · 동-서 366㎝ 가량이다.

온돌방은 건물지의 동쪽 부분에서 확인되었으며, 구들장은 모두 유실된 상태로 고래열만이 확인되었다. 구들시설은 건물지의 북동쪽에 동-서 장축으로 축조하였으며, 모두 4열의 고래와 3열의 고래둑이 확인되었다. 구들시설은 서쪽으로 함실아궁이와 연결된다. 고래의 남 · 북 가장자리는 후대 교란으로 결실된 부분이 많았으며, 구들장의 경우에는 후대 교란에 의해 모두 유실된 상태였다. 한편 배연부는 구들시설의 전체가 조사구역 내에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쪽 조사경계 바깥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들의 잔존 규모는 동-서 162㎝ · 남-북 184㎝이다.

구들은 크기 20㎝ 내외의 소형 할석을 2열로 맞대어 너비 30㎝, 높이 10㎝ 정도의 고래둑을 만들었으며, 고래둑 사이의 고래열 너비는 25㎝이다. 고래둑은 북쪽에서 3~4번째만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교란의 정도가 심하다. 고래의 바닥에는 재가 얇게 깔려 있었으며, 재층 상부에는 흑갈색사질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또한 고래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북쪽에서 2번째, 3번째 고래열의 아궁이쪽 바닥에 한하여 붉게 피열된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는 함실 내에서 땔감이 연소될 때 화력을 직접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엌은 동-서 3칸 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체규모는 동-서 140㎝ · 남-북 200㎝ 정도이다. 부엌의 동쪽 벽면 하부에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바닥은 아궁이에 가까운 중앙부가 오목하게 조성하였으며, 흑갈색사질점토를 깔아 매우 단단하게 다진 후 사용하였다.

아궁이는 구들의 서쪽에 면해 함실아궁이의 형태로 축조되었다. 함실아궁이는 고래열과 아궁이 사이의 연소실에 해당하지만 연소실 상부에 부뚜막을 시설하지 않고 단순한 난방을 위한 방구들이 설치되어 아랫목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구조이다. 암갈색사질토를 굴착한 후 아궁이 반대쪽에 너비 20~30㎝ 가량의 할석을 반타원형으로 돌려 높이 20㎝ 가량의 불턱을 조성하였다. 불턱은 북쪽과 남쪽 끝부분이 일부 열려있어 화기가 가장자리의 고래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방사형으로 축조하였다. 함실의

규모는 길이 35㎝ · 너비 95㎝이다. 함실 바닥의 아궁이쪽에는 바닥을 방형으로 굴착하여 턱이 지게 만들었다.

아궁이 입구는 암갈색사질토를 굴착하고 함실의 앞쪽을 석축으로 마감한 벽면 중앙부에 방형으로 설치하였다. 벽면은 크기 20㎝ 가량의 할석을 2~3단 쌓아 고맥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축조하였으며, 중앙부에 길이 25㎝ · 너비 40㎝ · 높이 30㎝ 가량의 아궁이틀을 마련하였다. 아궁이의 측면 기둥은 북쪽의 경우 끝선을 맞추어 평적한 벽면을 그대로 이용한 반면, 남쪽의 경우에는 장방형의 할석을 수적하여 만들었다. 아궁이 상부에는 80×30㎝ 가량의 큰 할석을 이맛돌로 설치하였다. 아궁이의 북벽은 비교적 정연하였으나 남벽은 상당히 엉성한 편이어서 초축 이후 부분적인 붕괴 등의 이유로 개 · 보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원래 상태인 북벽과는 달리 아궁이의 남쪽 벽면은 작은 할석과 전으로 보수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궁이 바닥의 경우에도 최초 축조 시에는 별도의 시설 없이 점토를 그대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 · 보수과정에서 아궁이 측면에 적벽돌을 쌓아 당초보다 폭을 줄인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아궁이 너비의 변화(축소)는 사용하는 연료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사용 도중에 발생한 연료의 부피변화(大→小)에 맞게 끔 아궁이의 너비를 축소하였고 축소된 너비에 맞게 바닥을 방형으로 한단 턱이 지게 굴착하여 오목한 구조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궁이 입구 앞쪽으로는 맨바닥 위에 크기 20㎝ 내외의 할석을 타원형의 범위에 깔아 사용하였다. 이 부석시설은 별도의 지하 굴착 없이 지면에 바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남쪽부분은 아궁이를 지나 함실 내부의 불턱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아궁이 남쪽 벽면이 붕괴된 다음 이를 개 · 보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의 서쪽 끝칸은 동-서 길이가 약 80㎝로 좁은 협칸을 이루고 있는데 난방시설에서 서쪽으로 연결된 외부공간에 해당하므로 땔감 등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공간으로 추정된다. 이 칸의 동쪽에 남아 있는 고맥이시설과는 한 단 높게 설치한 또 다른 고맥이시설이 중앙부에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꺾어지는 'ㄱ'자형을 이루고 있어 후대에 개 · 보수 혹은 증축되었던 흔적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건물지의 서쪽 끝칸의 남쪽으로 고맥이시설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남쪽에도 최소 1칸의 공간이 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성격을 논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본 건물지는 온돌방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부뚜막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함실아궁이의 형태로 난방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랑방 내지는 건넌방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조사과정 중 고래와 아궁이 내부에서 조선시대 옹기 구연부편 1점, 백자 병 저부 2점, 백자 종지 저부 1점, 원형토제품 4점, 수키와편 11점, 암키와편 3점, 전편 1점 등 총 23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옹기 구연부편(도면 8-1, 도판 6-1)

고래하부 북동쪽에서 출토된 경질의 옹기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암적회색(10R 4/1)이고 암회갈색(2.5Y 4/2)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그을음이 확인된다. 직립하는 구연에서 구연단은 안에서 바깥으로 말아 붙였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

였다.

잔존기고 6.8㎝, 두께 0.5~1.2㎝

2. 백자 종지 저부(도면 8-2, 도판 6-2)

고래하부 중앙에서 출토된 백자 종지 저부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명청회색(5B 8/1)이다. 유약은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돌려져 있고 내저원각경은 굽 저경보다 크다. 굽은 오목굽이며, 굽 안쪽 중앙이 볼록해지도록 돌려 깎았다. 굽에는 태토빚음 받침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2.4㎝, 저경 4.9㎝, 두께 1.3~0.4㎝

3. 백자 병 저부(도면 8-3, 도판 6-3)

고래하부 북동쪽에서 출토된 백자 병 저부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녹회색(10Y 6/2)이다. 유약은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외면에는 가는 빙렬이 잔존한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고 굽은 오목굽이며, 굽에는 모래받침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3.4㎝, 저경 8.6㎝, 두께 0.8~2.0㎝

4. 백자 병 저부(도면 8-4, 도판 6-4)

고래하부 남서쪽에서 출토된 백자 병 저부로 3/4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명녹회색(10Y 7/2)이다. 유약은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내 · 외면에는 그을음이 흡착되어있고 외면에는 빙렬이 잔존한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고 굽은 오목굽이며, 굽 안쪽 중앙이 볼록해지도록 돌려 깎았다. 굽 접지면에는 태토빚음 받침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3.9㎝, 복원저경 6.0㎝, 두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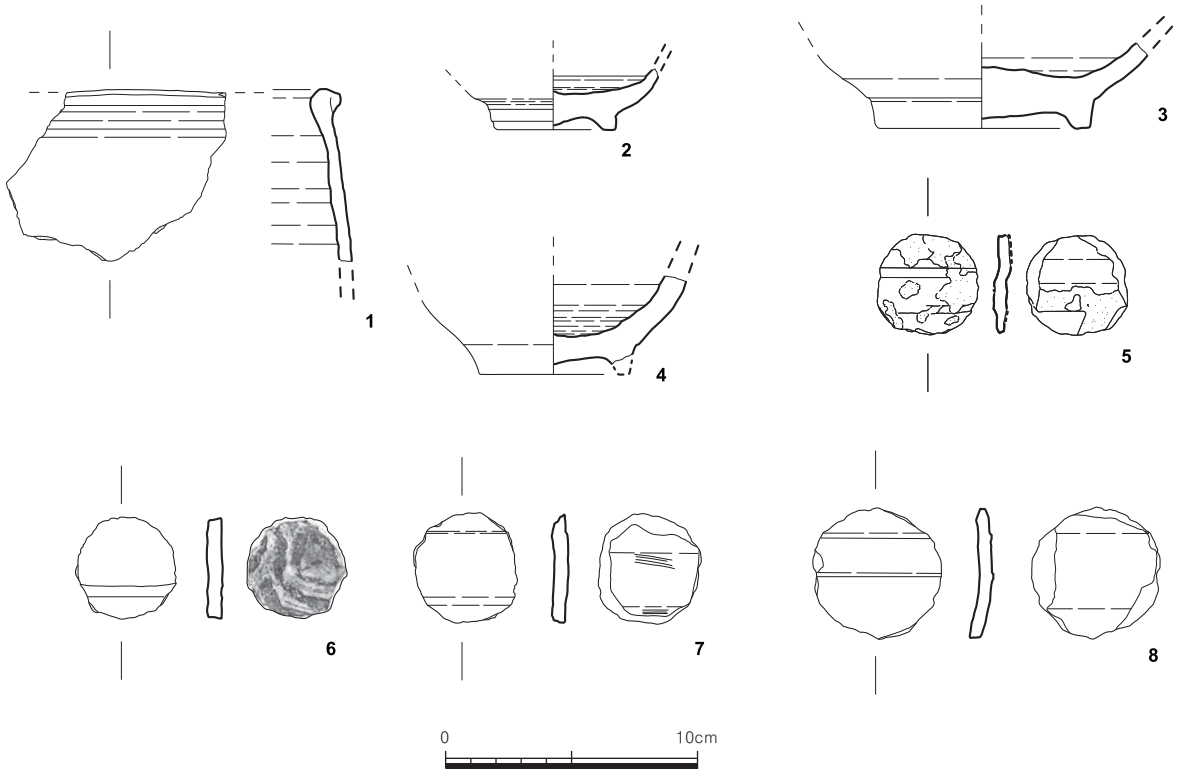
5. 원형토제품(도면 8-5, 도판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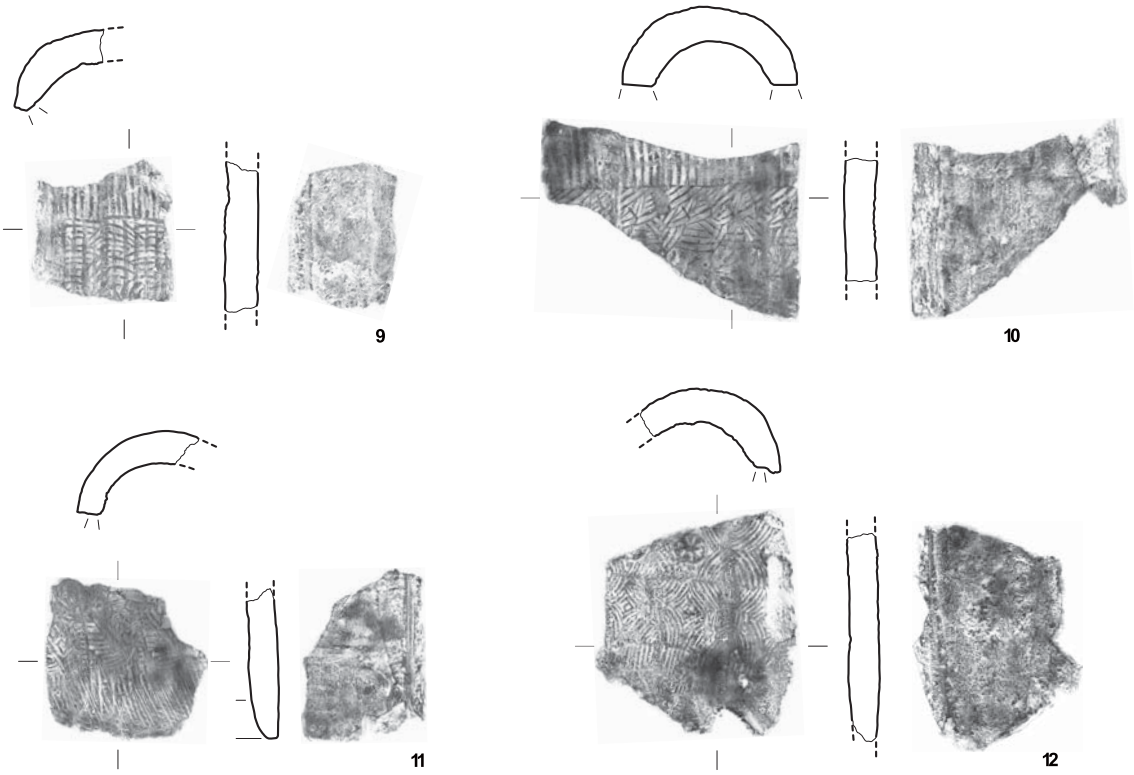
고래하부 남서쪽에서 출토된 원형토제품으로 완형이며, 토기편을 재사용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로 표면은 암회색(N 4/0)이며, 속심은 회색(2.5Y 6/1)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외면에는 매끈하게 정면한 흔적 및 물손질 정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고 대부분 박리되었다.

지름 4.0㎝, 두께 0.5㎝

6. 원형토제품(도면 8-6, 도판 7-6)

고래하부 북서쪽에서 출토된 원형토제품으로 완형이며, 토기편을 재사용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로 표면은 암회색(N 3/0)이며, 속심은 암적회색(5YR 4/2)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도면 8. 건물지 출토유물1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외면에는 매끈하게 정면한 흔적 및 물손질 정면이 확인되었고, 내면에는 동심원문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지름 4.0㎝, 두께 0.6㎝

7. 원형토제품(도면 8-7, 도판 7-7)

고래하부 중앙에서 출토된 원형토제품으로 완형이며, 토기편을 재사용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로 표면은 암회색(N 4/0)이고 속심은 회색(10YR 5/1)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외면에는 매끈하게 정면한 흔적이 확인되고, 내 ·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지름 4.4㎝, 두께 0.6㎝

8. 원형토제품(도면 8-8, 도판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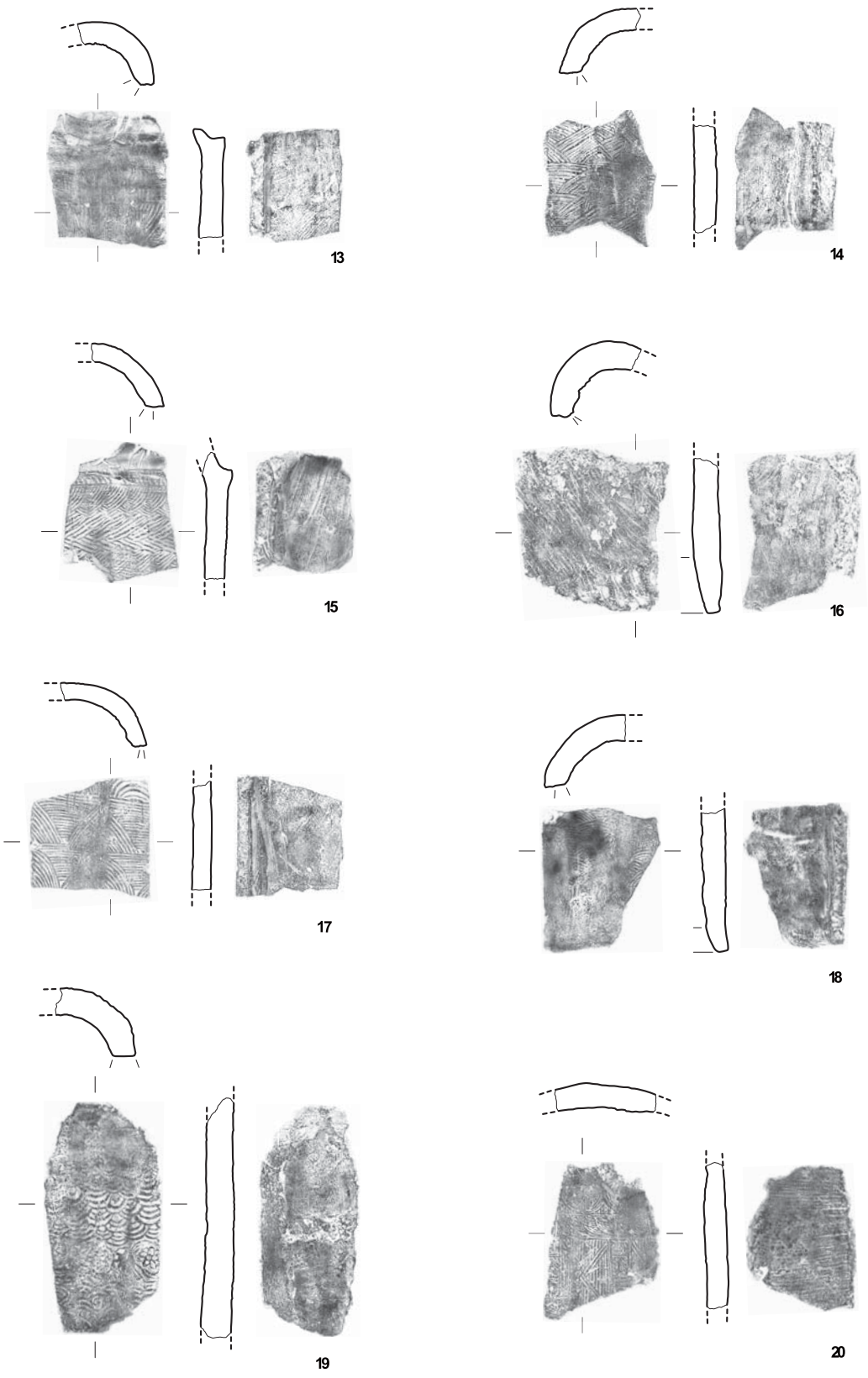
고래하부 중앙에서 출토된 원형토제품으로 완형이며, 토기편을 재사용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로 표면은 암회색(N 3/0)이고 속심은 회색(2.5Y 6/1)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얕은 돌대가 2열 돌려져 있다. 내 · 외면에는 매끈하게 정면한 흔적 및 물손질 정면이 확인되었다.

지름 5.2㎝, 두께 0.5㎝

9~22. 기와류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와류는 수키와편 11점과 암키와편 3점 등 총 14점이 출토되었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세부 특징은 아래와 같다.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규격(㎝)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9	수키와편	8-9	7-9	(11.6)	(7.0)	1.3~2.6	고래 하부 남서쪽에서 출토. 일부만 잔존. 색조는 회색(10YR 5/1). 외면은 격자문+종선문 타날, 내면은 포목흔, 물손질 정면, 탄착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3 분할.
10	수키와편	8-10	7-10	(14.0)	(13.8)	2.0~2.5	고래 하부 남서쪽에서 출토. 일부만 잔존. 색조는 암회색(10YR 4/1). 외면은 종선문+청해파문 타날, 그을음 잔존. 내면은 포목흔 · 사절흔 확인. 와도는 불량하게 전면 분할.
11	수키와편	8-11	7-11	(11.8)	(9.6)	1.0~2.6	고래 하부 남서쪽에서 출토. 하단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10YR 5/1). 외면은 능형문+청해파문 타날, 그을음 잔존. 내면은 포목흔 · 합철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2 분할. 하단부 3.0㎝ 단부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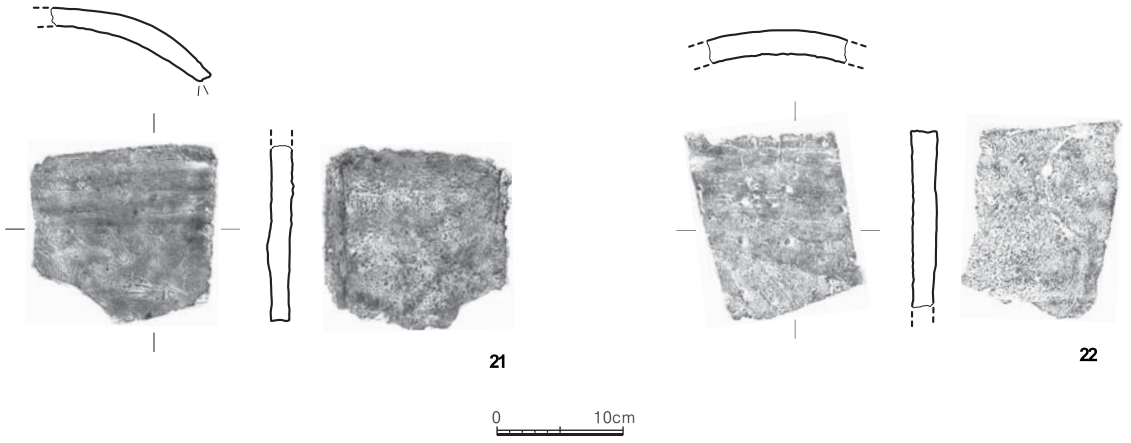
도면 9. 건물지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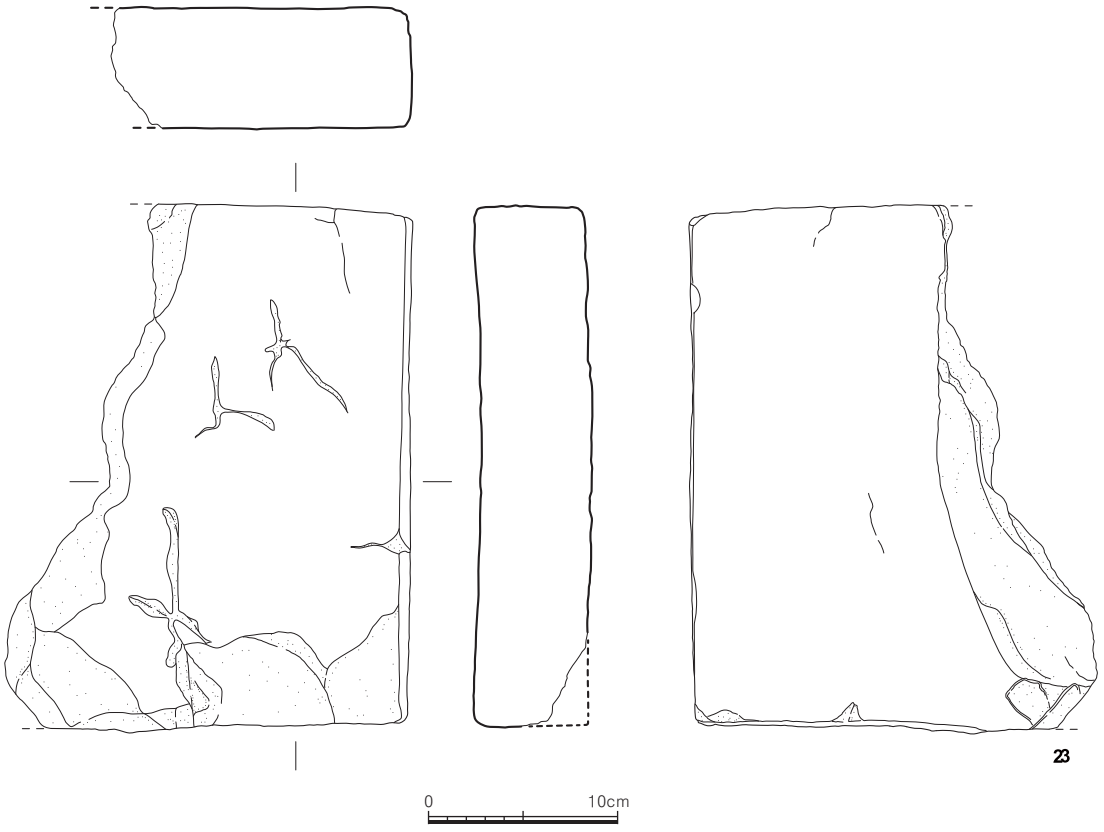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규격(㎝)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12	수키와편	8-12	7-12	(16.7)	(11.8)	1.4~2.6	고래 하부 남서쪽에서 출토. 상단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2.5Y 5/1). 외면은 청해파문+인장 타날, 탄착흔 잔존. 내면은 포목흔 · 눈테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3 분할.
13	수키와편	9-13	7-13	(10.7)	(7.5)	1.5~2.4	고래 하부 남서쪽에서 출토. 미구기와. 상단 일부 잔존. 색조는 암회색(10YR 4/1). 외면은 청해파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그을음 잔존. 내면은 포목흔 · 사절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4 분할.
14	수키와편	9-14	7-14	(14.3)	(7.7)	2.0	고래 하부 남서쪽에서 출토. 일부만 잔존. 색조는 회색(2.5Y 5/1). 외면은 청해파문 타날, 그을음 잔존, 내면은 포목흔 · 점토합흔 · 눈테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5 분할.
15	수키와편	9-15	8-15	(12.0)	(7.0)	1.9~2.7	고래 하부 남서쪽에서 출토. 미구기와. 상단 일부 잔존. 색조는 회색(N 5/0). 외면은 청해파문 타날, 그을음 잔존. 내면은 포목흔 · 눈테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2 분할.
16	수키와편	9-16	8-16	(15.0)	(8.5)	1.4~2.8	고래 하부 남서쪽에서 출토. 하단 일부 잔존. 색조는 암회색(10YR 4/2). 외면은 청해파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 및 지두흔 확인, 그을음 잔존. 내면은 포목흔 · 사절흔 확인. 와도는 1/8 분할. 하단부 5.0㎝ 단부조정.
17	수키와편	9-17	8-17	(10.5)	(8.1)	1.3~2.2	고래 하부 남서쪽에서 출토. 일부만 잔존. 색조는 암회색(N 4/0). 외면은 청해파문 타날, 내면은 포목흔 · 점토합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5 분할.
18	수키와편	9-18	8-18	(13.5)	(7.6)	1.2~2.3	고래 하부 중앙에서 출토. 하단 일부 잔존. 색조는 갈색(7.5YR 5/2). 외면은 청해파문 타날, 그을음 잔존. 내면은 탄착흔으로 제작기법 확인 어려움.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2 분할. 하단부 2.3㎝ 단부조정.
19	수키와편	9-19	8-19	(22.6)	(7.5)	2.1~2.8	고래 하부 북서쪽에서 출토. 우측 일부만 잔존. 색조는 암회색(10YR 3/1). 외면은 청해파문+화문 타날, 내면은 포목흔 확인. 내 · 외면 탄착흔. 와도는 전면 분할.
20	암키와편	9-20	8-20	(13.8)	(9.6)	1.4~2.3	고래 하부 중앙에서 출토. 일부만 잔존. 색조는 회색(2.5Y 5/1). 외면은 선문+청해파문 타날, 그을음 잔존. 내면은 포목흔 및 탄착흔 확인.
21	암키와편	10-21	8-21	(13.8)	(12.7)	1.1~1.7	고래 하부 중앙에서 출토. 상단 일부만 잔존. 색조는 회색(5YR 5/1). 외면은 무문, 그을음 잔존. 내면은 포목흔 · 탄착흔 확인. 와도의 방향은 내→외로 1/4 분할.
22	암키와편	10-22	8-22	(14.0)	(11.3)	1.5~2.1	고래 하부 남서쪽에서 출토. 상단 일부 잔존. 색조는 회갈색(10YR 5/2). 외면은 무문, 내면은 포목흔 확인.

23. 전편(도면 10-23, 도판 8-23)

고래하부 중앙에서 출토된 전편으로 1/2정도 잔존한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암회색(N 4/0)이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고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무문으로 후면 및 측면에 그을음이 확인되며,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7.2㎝, 잔존너비 21.1㎝, 두께 5.7~6.3㎝





도면 10. 건물지 출토유물3

Ⅳ. 조사성과

조사대상지는 박봉용氏의 단독주택 신축예정부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33-1번지이다. 시굴조사는 사업부지 전체(145.5㎡)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조사구역 동쪽 부분(70㎡)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시굴조사는 2017년 9월 20일에 착수하여 9월 21일에 완료하였으며, 발굴조사는 10월 19일에 착수하여 10월 26일에 완료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일부만 노출되었기 때문에 건물지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잔존 양상으로 보아 동-서 방향으로 정면 3칸에 서쪽 끝칸에서 남쪽으로 한 칸을 덧붙인 형태로 전체 규모는 4칸으로 추정된다. 건물지는 초석과 고맥이 및 구들시설과 아궁이 등이 남아 있었으나 기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쪽에서부터 온돌방, 부엌이 확인되었으며, 서쪽 측면 2칸은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명확한 형태 및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확인된 건물지는 온돌방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부뚜막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함실아궁이의 형태로 난방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랑방 내지는 건넌방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의 축조 양상 중 주목할 만한 특징은 아궁이의 입구 부분을 적벽돌을 이용하여 축소시킨 점이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연료의 부피가 변화(大→小)하면서 자연스럽게 아궁이 입구의 폭을 좁게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옹기 구연부편 1점, 백자 병 저부 2점, 백자 종지 저부 1점, 원형토제품 4점, 암 · 수키와편 14점, 전편 1점 등이 출토되었다. 건물지의 축조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 수량은 많지 않으나 백자 병 · 백자 종지의 굽 형태와 비교적 다량 수습된 기와편의 문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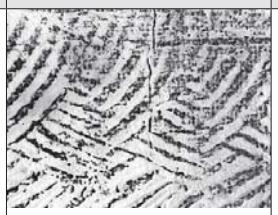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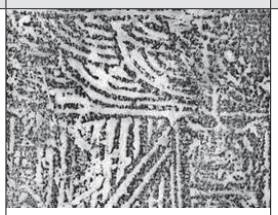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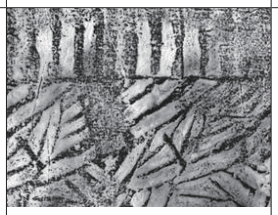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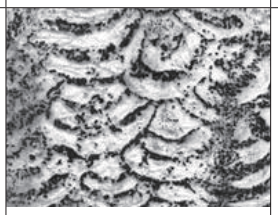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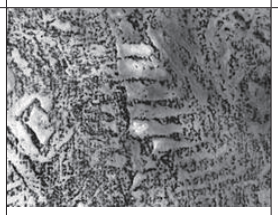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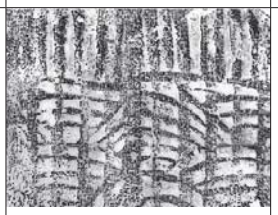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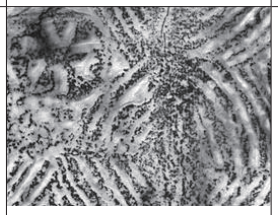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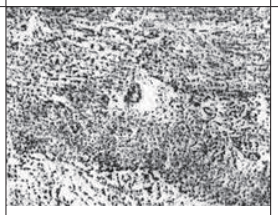
먼저 김세진[31]에 따르면 백자에서 확인되는 굽의 형태는 크게 죽절굽 · 역삼각형굽 · 수직굽 · 오목굽 · 넓은굽 · 안굽 · 평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오목굽은 굽의 외면은 접지면과 직각을 이루나 굽 안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간 원형을 띠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17~18세기의 백자에서 흔히 확인되는 굽의 모습이다. 건물지 내에서 수습된 백자 병(도면8-3 · 4)과 백자 종지(도면8-2)의 경우 모두 굽의 형태가 오목굽으로 앞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17~18세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수량이 많지 않아 백자만으로 건물지의 명확한 축조 시기를 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음은 기와편으로 이인숙[32]은 청해파문의 시기구분에 있어서 다른 문양과 동반되지 않는 청해파문을 16세기 후반, 청해파문과 상 · 하부에 선문을 가진 線條청해파문을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청해파문과 차륜문 · 화문 등 결합되는 문양들을 17세기 중반 이후로 편년하였으며, 종선이나 다양한 곡선문이 결합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복합적인 양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 본 유적의 건물지에서는 차륜문과 복합된 형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종선문(도면8-10) · 능형문(도면8-11) · 인장(도면8-12) 화문(도면9-19) 등의 문양과 결합된 형태의 청해파문 수키와편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기와의 등장 시기를 17세기 중반 이후로 본다면 공반 출토된 백자 병 · 백자 종

31) 강경숙 · 김세진, 2015, 『유적출토 도자기 바로보기』, 187~193쪽.
32) 이인숙, 2004,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지의 시기 편년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서울 효자동 33-1번지 유적 출토 기와 문양별 분류

문양	탁본	유물	문양	탁본	유물	비고
청해파문	 유물번호 15	도면 9-15 (수키와편)	청해파문 +선문	 유물번호 20	도면 9-20 (암키와편)	
청해파문 +종선문	 유물번호 10	도면 8-10 (수키와편)	청해파문 +화문	 유물번호 19	도면 9-19 (수키와편)	
청해파문 +능형문	 유물번호 11	도면 8-11 (수키와편)	격자문 +종선문	 유물번호 9	도면 8-9 (수키와편)	
청해파문 +인장	 유물번호 12	도면 8-12 (수키와편)	무문	 유물번호 22	도면 10-22 (암키와편)	

전술한 바와 같이 출토된 유물의 편년은 17세기 중반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물이 고래의 바닥면에서 출토된 점, 아궁이에 적벽돌을 사용하여 개 · 보수한 흔적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건물지는 조선시대 후기에 초축하여 근대(일제강점기)까지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서울 효자동 33-1번지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는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협소한 조사 면적과 개발로 인한 훼손 등으로 전체적인 양상 및 성격은 파악할 수는 없었다. 다만 별도의 기단과 초석이 확인되지 않아 건물의 규모는 비교적 작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양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민가로 사용되었던 건물지로 판단된다.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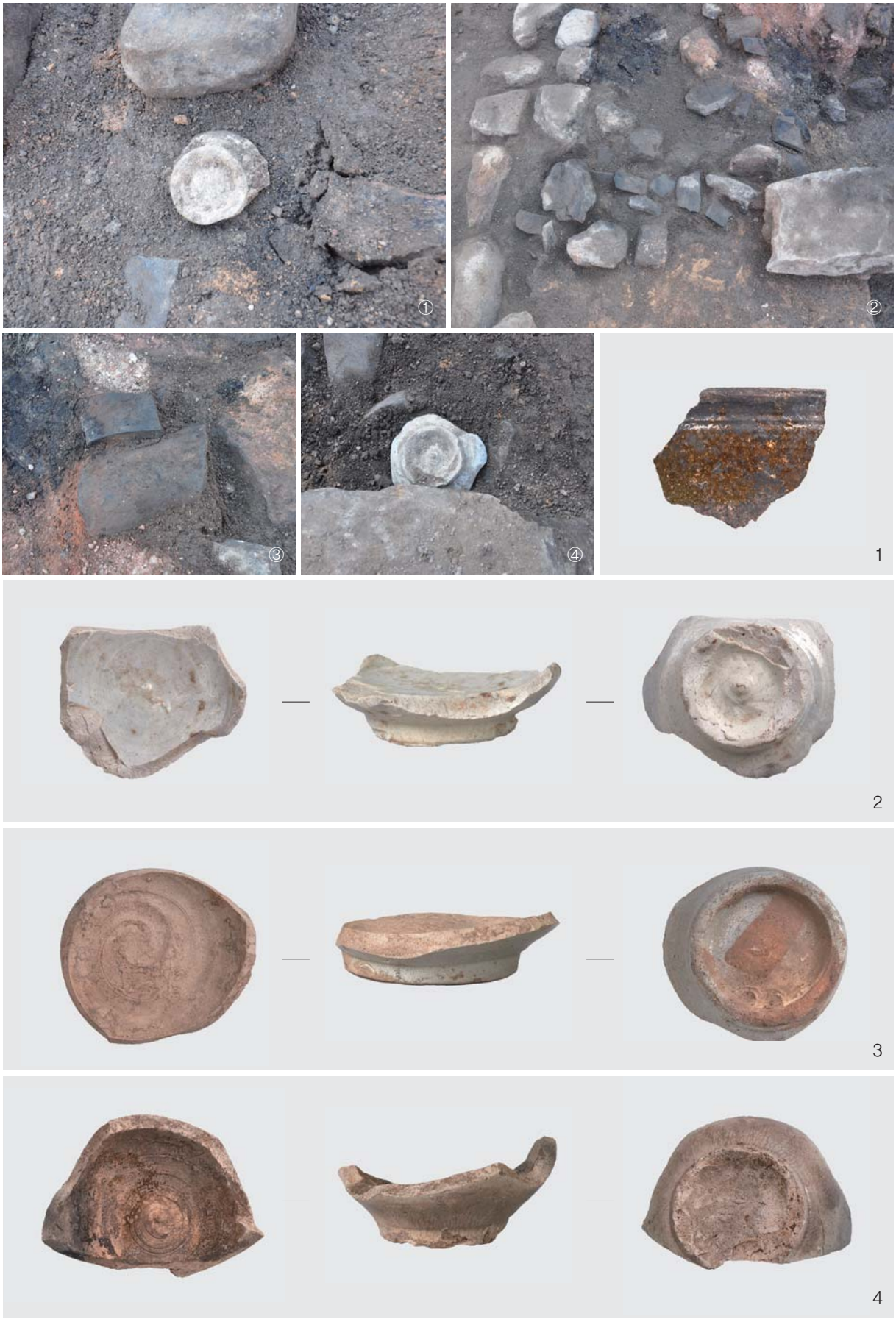
도판 1. 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전), 트렌치1(②조사후, ③추정기단, ④추정초석), 트렌치2(⑤조사후)

도판 2.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후) 및 건물지(②조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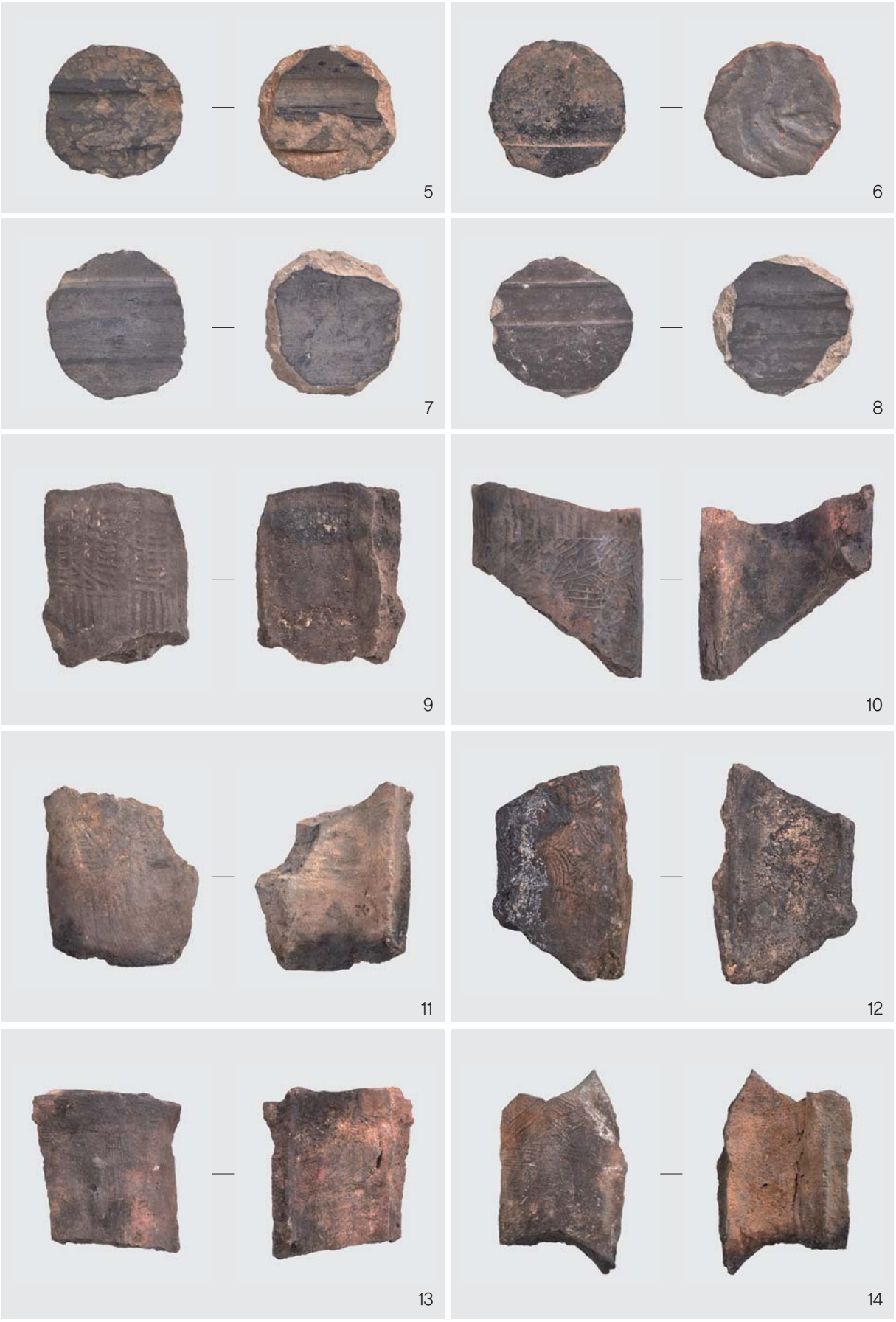
도판 3. 건물지(①조사후) 및 고래(②전경, ③④토층, ⑤세부)

도판 4. 건물지 고래(①②세부) 및 아궁이(③전경, ④토층, ⑤축조 모습, ⑥보수 흔적, ⑦이맛돌 해체후, ⑧연소실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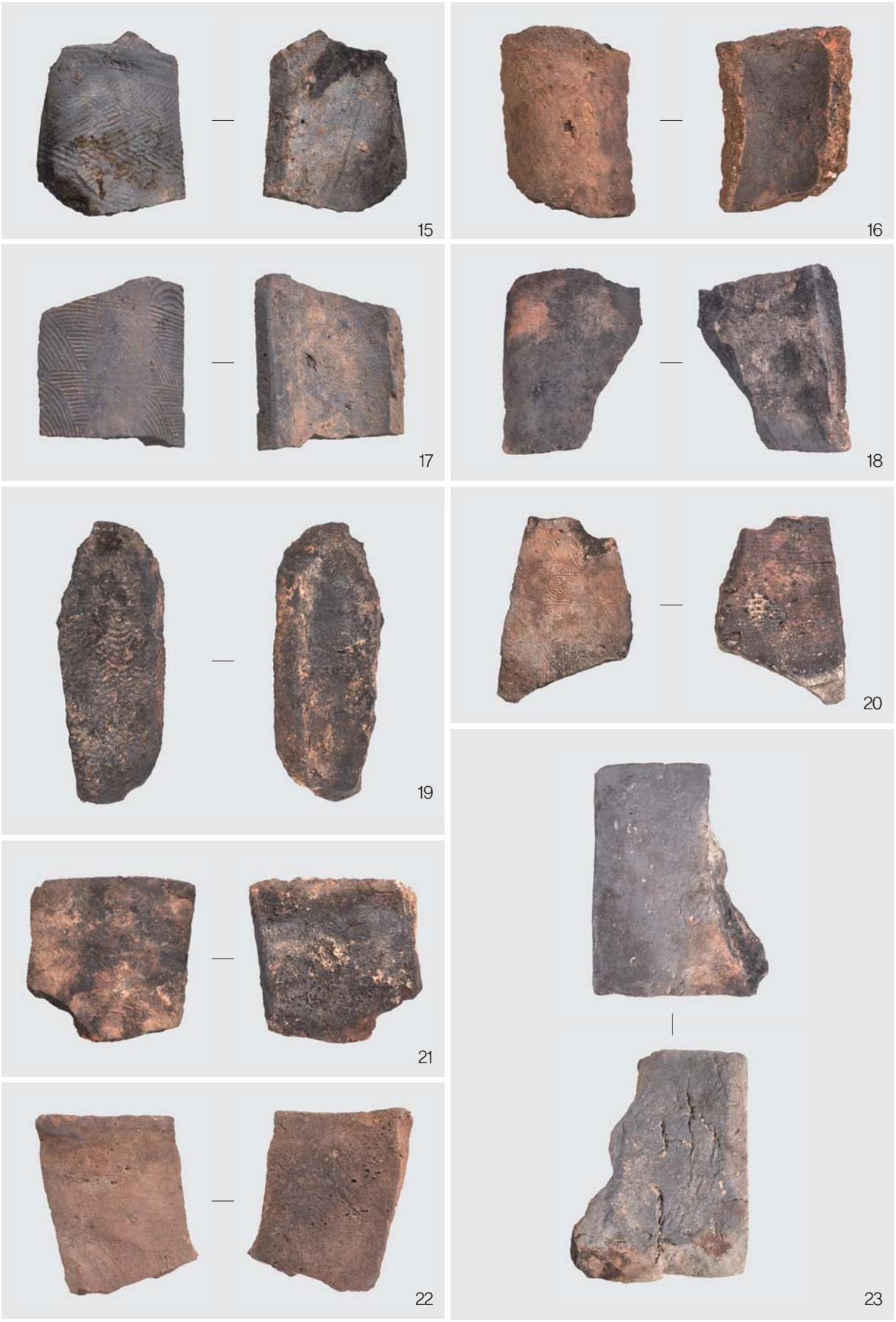
도판 5. 건물지 부엌칸(①전경, ②바닥 토층, ③④고맥이시설 세부) 및 협칸(⑤전경, ⑥~⑧세부)



도판 6. 건물지(①~④유물출토상태, 1~4:출토유물1)



도판 7. 건물지 출토유물2



도판 8. 건물지 출토유물3

도판 9. 학술자문회의(①②)

서울 효자동 33-1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212 -0001	옹기 구연부편	1	고래하부 북동쪽	토도	조선	(6.8)		0.5~1.2	8-1 6-1	Y
2017-1212 -0002	백자 종지 저부	1	고래하부 중앙	토도	조선	(2.4)		4.9	8-2 6-2	Y
2017-1212 -0003	백자 병 저부	1	고래하부 북동쪽	토도	조선	(3.4)		8.6	8-3 6-3	Y
2017-1212 -0004	백자 병 저부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3.9)		6.0	8-4 6-4	Y
2017-1212 -0005	원형토제품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지름: 4.0		0.5	8-5 7-5	Y
2017-1212 -0006	원형토제품	1	고래하부 북서쪽	토도	조선	지름: 4.0		0.6	8-6 7-6	Y
2017-1212 -0007	원형토제품	1	고래하부 중앙	토도	조선	지름: 4.4		0.6	8-7 7-7	Y
2017-1212 -0008	원형토제품	1	고래하부 중앙	토도	조선	지름: 5.2		0.5	8-8 7-8	Y
2017-1212 -0009	수키와편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11.6)	(7.0)	1.3~2.6	8-9 7-9	Y
2017-1212 -0010	수키와편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14.0)	(13.8)	2.0~2.5	8-10 7-10	Y
2017-1212 -0011	수키와편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11.8)	(9.6)	1.0~2.6	8-11 7-11	Y
2017-1212 -0012	수키와편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16.7)	(11.8)	1.4~2.6	8-12 7-12	Y
2017-1212 -0013	수키와편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10.7)	(7.5)	1.5~2.4	9-13 7-13	Y
2017-1212 -0014	수키와편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14.3)	(7.7)	2.0	9-14 7-14	Y
2017-1212 -0015	수키와편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12.0)	(7.0)	1.9~2.7	9-15 8-15	Y
2017-1212 -0016	수키와편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15.0)	(8.5)	1.4~2.8	9-16 8-16	Y
2017-1212 -0017	수키와편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10.5)	(8.1)	1.3~2.2	9-17 8-17	Y
2017-1212 -0018	수키와편	1	고래하부 중앙	토도	조선	(13.5)	(7.6)	1.2~2.3	9-18 8-18	Y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212 –0019	수키와편	1	고래하부 북서쪽	토도	조선	(22.6)	(7.5)	2.1~2.8	9–19 8–19	Y
2017–1212 –0020	암키와편	1	고래하부 중앙	토도	조선	(13.8)	(9.6)	1.4~2.3	9–20 8–20	Y
2017–1212 –0021	암키와편	1	고래하부 중앙	토도	조선	(13.8)	(12.7)	1.1~1.7	10–21 8–21	Y
2017–1212 –0022	암키와편	1	고래하부 남서쪽	토도	조선	(14.0)	(11.3)	1.5~2.1	10–22 8–22	Y
2017–1212 –0023	전편	1	고래하부 중앙	토도	고려	27.2	(21.1)	5.7~6.3	10–23 8–23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서울 효자동 33-1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 3011-2173	FAX	(02) 566-5954
執筆 · 編輯者	정훈진 · 이진호 · 허병주 · 최민석 · 박구영 · 정홍선 · 김현진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 정훈진 · 허병주 · 최민석 · 박구영			
遺蹟調査地番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33-1번지			
調査面積	시굴 145.5㎡, 발굴 70㎡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건물지	근대 (일제강점기)	1동	백자 병 저부, 백자 종지 저부, 암 · 수키와편 등	

141. 대전 읍내동 338-1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41- 5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41- 7

Ⅲ. 조사내용 ····· 141-14
1. 시굴조사 ····· 141-14
2. 발굴조사 ····· 141-15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 141-17
1) 담장 ····· 141-17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 141-19
1) 석렬 ····· 141-19
(1) 석렬 1호 ····· 141-19
(2) 석렬 2호 ····· 141-21
〈수습유물〉 ····· 141-22

Ⅳ. 조사성과 ····· 141-24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41- 8
도면 2. 회덕현지도(1872년 지방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141- 9
도면 3.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41-11
도면 4.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41-13
도면 5.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141-14
도면 6.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 141-17
도면 7.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담장 및 출토유물 …… 141-18
도면 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1호 및 출토유물 …… 141-20
도면 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2호 및 출토유물 …… 141-21
도면 10. 수습유물 …… 141-23

도 판 목 차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전, ②조사후) …… 141-29
도판 2.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담장(①조사후, ②③세부, 1:출토유물) …… 141-30
도판 3.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1호 조사후 …… 141-31
도판 4.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1호(①세부, 2~4:출토유물)…… 141-32
도판 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2호 조사후 …… 141-33
도판 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2호(①②조사후, 5:출토유물) …… 141-34
도판 7. 수습유물 …… 141-35

Ⅰ.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38-1번지로 사업시행자 김영화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417㎡)이다.

조사대상지는 회덕동 주민센터에서 남서방면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회덕동 주민센터 일원은 조선시대 읍지와 고지도 등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회덕현 관아가 있었던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조사대상지 동남쪽에 위치한 회덕초등학교는 회덕현의 환곡(還穀)을 보관하던 사창(社倉)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어, 회덕현 관아터와 관련된 건물지 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주변유적으로는 대전 읍내동 247-14번지 · 대전 읍내동 274-3번지[1] · 대전 읍내동 306-6번지 유적[2] · 대전 읍내동 247-24번지[3] 유적 등이 있으며, 조선시대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어 회덕현 관아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대덕구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시행 이전에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 아울러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대덕구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공사이전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2017년 3월 8일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 본 재단에 소규모 시굴조사를 신청하였다(접수번호:2017-0207-01호). 본 재단에서는 신청부지(417㎡)가 국비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후 4월 14일에 시굴조사 세부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5월 10일에 문화재청의 발굴허가(제2017-0597호)를 받았다. 그러나 민원인 사정으로 현장 착수 연기요청이 접수(6월 9일)되어 동년 9월 4일에 시굴조사에 착수(실조사일수 2일)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트렌치 2기 중 트렌치 1에서만 석렬 1기가 확인됨에 따라, 조사대상지 전체면적(417㎡)중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 1 주변(169㎡)에 대해서만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대덕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에 대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재차 통보하였다.

이후 9월 8일 발굴조사 세부계획서를 민원인에서 제출하고, 9월 1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7일에 대한 변경허가(발굴제도과-10729호)를 받아 동년 10월 23일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에서는 석렬 2기와 함께 기와편들이 수습되었고,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에서는 담장 1기와 역시 기와편들이 수습되었다. 그

---

1)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4. 대전 읍내동 247-14번지 유적, 대전 읍내동 274-3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Ⅳ -충남2 · 대전 · 충북-

2) 한국문화재재단, 2019, 「83. 대전 읍내동 306-6번지 유적」, 『2017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 -82~90-』.

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18, 『大田 邑內洞 247-24番地 遺蹟』.

러나 조사대상지가 협소하고 유구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보존조치는 필요없을 것으로 조사단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계획된 발굴조사 7일과 보완조사 및 기록조사를 위해 3일을 추가하여 마무리한 후 11월 6일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발굴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굴조사	발굴조사
조 사 단 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책임조사원	이 창 욱(조사연구2팀 부팀장)	이 창 욱(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이 진 호(조사연구2팀 연구원)	이 진 호(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김 경 훈(조사연구2팀 연구원)	김 경 훈(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김 방 효(조사연구2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진호(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김경훈 · 김방효 등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의 책임하에 임희정 · 기여운 · 손지선 · 송선숙 · 김형란(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박자연(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이순희(시림아카이브)가 촬영하였다.

원고는 이진호의 책임하에 Ⅰ～Ⅲ장 김방효(조사내용 및 유구), 박자연(유물), Ⅳ장 김방효가 작성하였으며, 이를 정홍선 · 박자연이 수정하였고 교정 및 교열은 정훈진(조사연구2팀장)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4)]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3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위도상 동경 127°25′14.53″이고 북위 36°22′29.60″에 해당한다. 대전광역시의 북동쪽에 해당하며, 시청에서 북동쪽으로 4.4㎞ 정도 떨어져 있다. 대전로(국도17호선)와 아리랑로가 교차하는 읍내사거리에서 북쪽으로 390m 이동하면 오른쪽에 조사대상지가 위치한다.

자연·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은 계족산 서쪽 끝과 당산 동쪽 사이의 잘 발달된 평지에 들과 회덕현의 관아와 부속시설이 있던 소재지라는 뜻으로 읍내(邑內)라 하였다.

대전의 지형은 크게 보아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에 해당한다. 분지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를 이루는 중앙부에는 주요하천이 흐르고 이 하천변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충적지는 대전을 동·서·남쪽에서 두르고 있는 해발 300~500m 정도의 배후산지에서 뻗어 내린 소구릉들과 접하고 있다. 이러한 충적지와 산록완사면은 대전지역 농경·거주·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지형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금산과 대전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인 동구 함각산(函角山, 314.5m), 개머리산(365m), 계족산(鷄足山, 398.7m), 고봉산(古鳳山, 309m), 응봉산(應峯山), 식장산(食欌山, 597.5m) 등이 충청북도 옥천군까지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우솔산(雨率山, 538.3m), 도덕봉(道德峯, 89.5m), 관암산(冠岩山, 525m), 백운봉(白雲峯, 125.5m), 금수봉(錦繡峯, 531.5m) 등 계룡산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산계가 논산군 두마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두 산계는 대체로 남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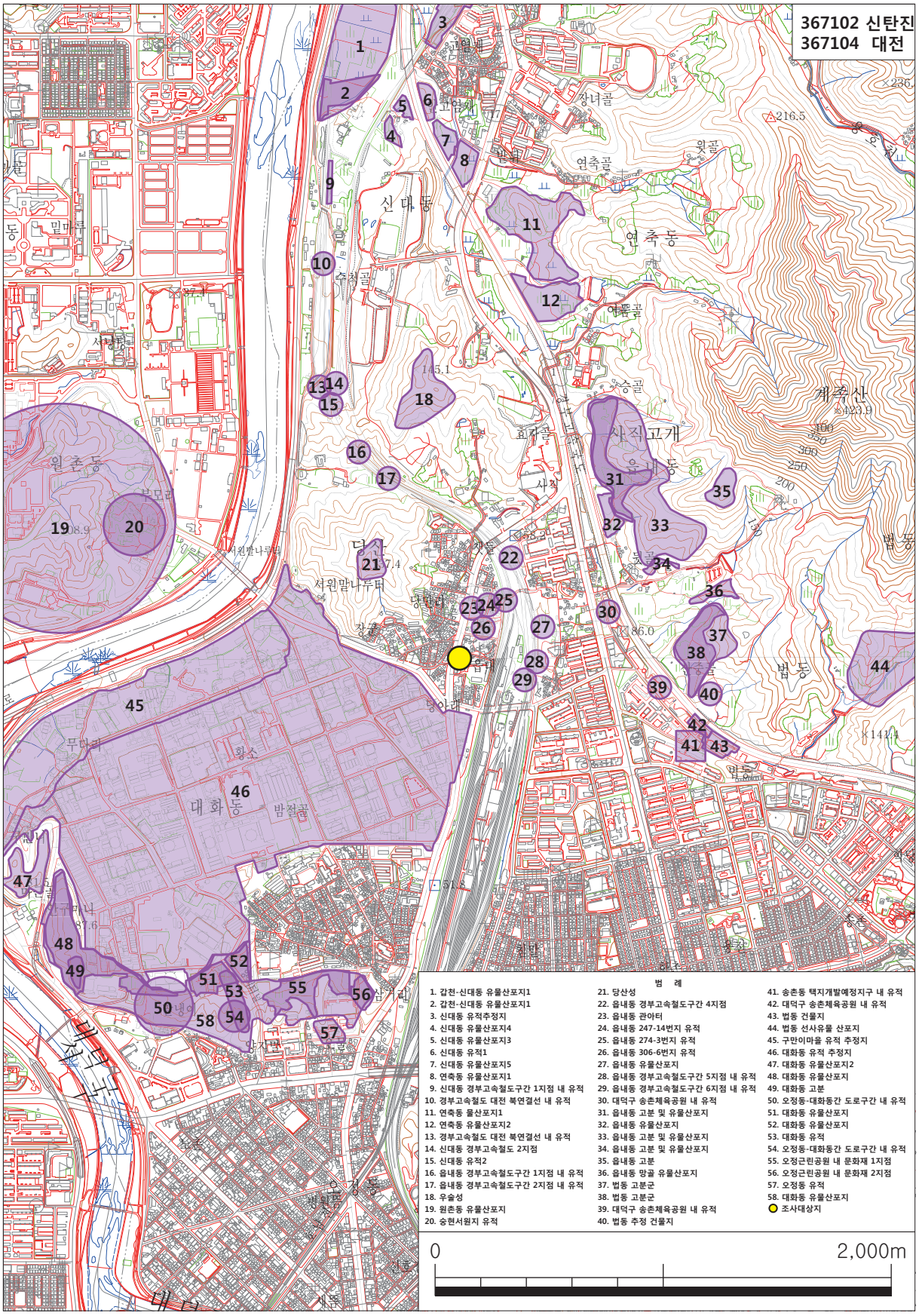
대전의 수계는 대전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지지역과 분지 중앙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지지역에서는 수계 역시 산지방향과 나란한 남북방향이며, 분지 중앙에서는 수지상 수계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소지류들은 분수계에서 발원하여 서부에서는 갑천, 중앙부에서는 유등천·대전천 등의 대지류를 이루며 북류한다. 탄방동과 오정동에서 합류한 유등천과 대전천은 다시 대화동과 도룡동에서 갑천에 합류하는데 이 갑천은 다시 북류하여 문평동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이처럼 여러 산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의 하천으로 형성된 분지성 지형인 대전지역에는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산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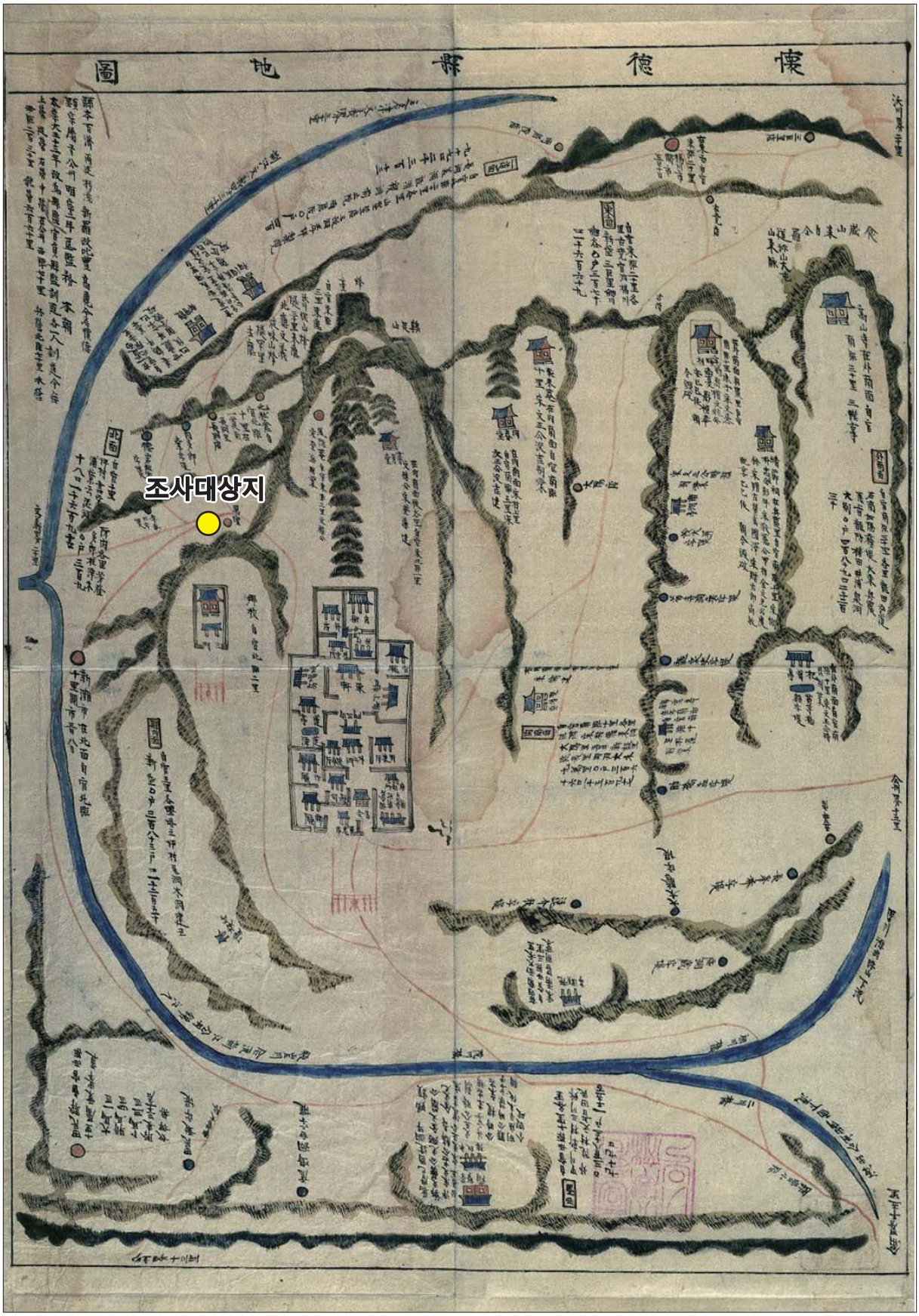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인 읍내동은 뒷골(산중골)·당아래(배배골)·효잣골(향교말)·읍내로 구분되는 7개의 자연마을을 계족산이 감싸 안고 있고, 대전천과 갑천이 지나가고 읍내동과 인접한 대화동은 공단이 들어서기 전에는 벼가 잘되는 기름진 땅이라는 뜻으로 '대화(大禾)'라 하였던 것을 보면 이 일대가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읍내동은 회덕현의 소재지로서 회덕의 사회·경제·문화·행정·교통 등의 중심지로 한 시대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

4) 자연 · 지리적 환경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 수정하였다.
대전시지편찬위원회, 1984, 『대전시지』.
大田光域市史編纂委員會, 2002, 「제1편 총설」, 『大田100年史』.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회덕현지도(1872년 지방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현재의 읍내동 동쪽 계족산 자락에는 경부고속도로와 대전·신탄진간의 6차선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철도·국도·고속전철이 읍내동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다. 읍내동 동쪽의 고속도로와 6차선 도로 사이에는 우암 송시열, 동춘 송준길과 함께 회덕의 3송으로 일컬어지던 제월당 송규렴의 제택이 위치해 있다. 본래 제월당은 6,611㎡가 넘는 대저택으로 조선후기 위세 있던 양반가로 넓은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던 집이었으나 마당 가운데로 도로가 개설되어 절반으로 줄어 원형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읍내동과 관련한 회덕현은『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삼국시대에 이곳은 백제의 우술군(또는 언찬)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경덕왕 16년(757)에 주·군·현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비풍군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고려시대 태조 23년(940)에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시도하여 신라 경덕왕대 이래의 주·부·군·현의 지명을 대폭 개칭하였다. 이때 비풍군이 회덕군으로 개칭됨에 따라서 지금의 대덕구지역은 회덕군에 소속되었다. 그후 성종 2년 2월(983)에는 최승로의 건의로 전국을 12목으로 개편하고 외관을 파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995년에는 당의 제도를 따라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각 도 밑에는 주·부·군·현을 설치하였다. 이때 지금의 대덕구는 회덕군 일부로서 하남도에 소속되었다. 그 후 현종 9년(1018)에 다시 전국을 5도 양계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회덕은 양광도 공주목에 속하게 되었다. 명종 2년(1172)부터는 이 지역에 감무를 두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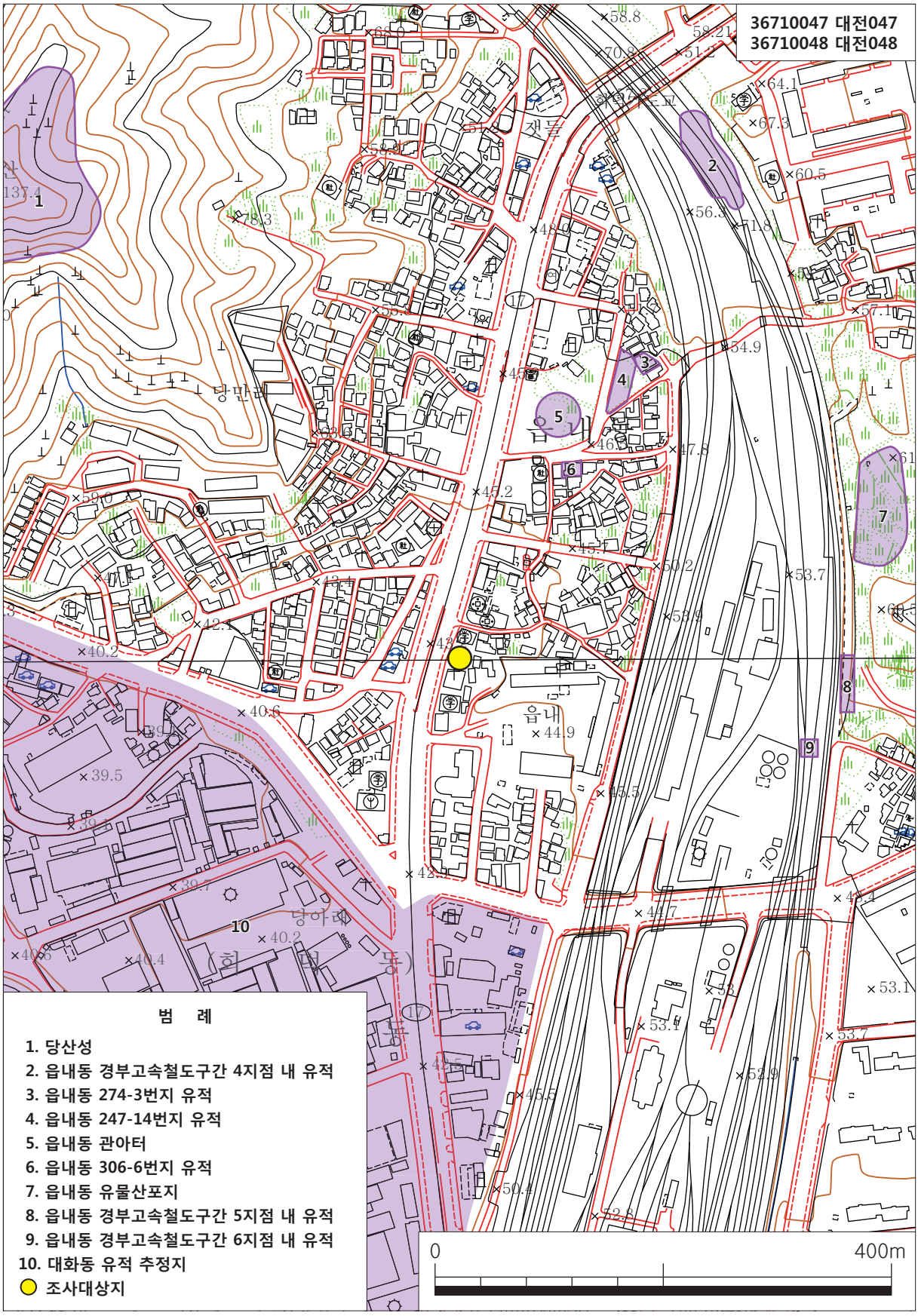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태종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행정개편이 이루어졌다. 태종 13년(1413)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이 때 중앙정부는 회덕현의 책임관원을 감무에서 현감으로 격상시켰다[5]. 이러한 전통적인 행정제도는 개항후인 고종 32년(1895)에 새롭게 개편되어, 회덕현 일부와 충북 청주군의 일부를 합하여 회덕군으로 승격하였다.

회덕현은 동쪽으로 24리에 옥천군, 서쪽으로 9리에 공산목, 북쪽으로 29리에 문의현, 동북으로 25리에 서원목, 서울까지 330리로 4일 정도이며, 서쪽으로 감영이 70리로 1일 정도이며, 북쪽으로 병영이 70리로 1일 정도이며, 서쪽으로 수영이 240리로 3일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6].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후곡리와 금성리·교동리·당하리가 합쳐져 읍내리가 된 뒤 대전군 내남면에 속했고, 1935년 11월 대전군 회덕면에 편입되었다. 1983년 2월 대전시 동구 읍내동이 되었다가 1989년 대전시의

---

5)『三國史記』卷36, 雜紙 第5, 地理三. "比豊郡 本百濟雨述郡 景德王改名 今懷德郡 領縣二 儒成 郡 本百濟奴斯只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赤烏縣 本百濟所比浦縣 景德王改名 今德津縣".
『世宗實錄』卷 149, 地理志, 懷德縣, 632쪽. "懷德縣本百濟雨述郡 新羅改爲比豊郡 高麗改 爲 懷德縣 顯宗戊午 屬公州任內 明宗二年 壬辰 始置監務 本朝因之 太宗大王十三年癸巳 例改爲 縣監"
『東國輿地勝覽』忠淸道. 懷德縣, "本百濟雨述郡一云 朽淺 新羅改比豊郡 高麗初改今名 顯宗屬 公州 明宗二年 置監務 本朝太宗大王十三年 例改爲縣監 官員縣監訓導 各一人訓導"
『懷德縣邑誌』沿革條. "邑號百濟雨述一云 朽淺 新羅改比豊 高麗初改 今名懷德 高麗 顯宗時屬 公州 今之公山 高麗明宗二年 置縣務本朝 太宗大王十三年 例改爲縣監官員縣監訓導 各一人訓導 今無".
『與地圖書』懷德 建置沿革 : "本百濟雨述郡(一云朽淺) 新羅改比豊郡 高麗初改今名 顯宗屬公州 明宗二年 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 例改爲縣監 官員縣監訓導 各一人(訓導今無)"
『大東地志』沿革條. "本百濟雨述郡(一云朽淺) 新羅景德王十六年改比豊郡)領縣二儒城赤烏) 隸熊 州 高麗太祖二十三年改懷德 顯宗九年屬公州 明宗二年 置監務兼任 懷仁禑九年析之 本朝太祖大 王十三年改縣監(兼公州鎭管兵馬節制都尉) 一員"

6)『懷德縣邑誌』懷德縣公山鎭管 "東至沃川郡 界二十二里 南至全羅道珍山郡 界二十里 西至公山 牧 界九里 北至文義縣 界二十九里 東北至西原牧 界二十五里 北距京 三百三十里 四日程 西距 監營 七十里 一日程 北距兵營 七十里 一日程 西距水營 二百四十里 三日程"



도면 3.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직할시 승격에 따라 대전직할시 동구 읍내동이 되고, 1995년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이 되었다. 행정동인 회덕1동 관할 아래 있다[7].

【표 1】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대전 읍내동 274-3번지 유적	북동쪽 279m	조선 건물지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4. 대전 읍내동 247-14번지 유적 대전 읍내동 274-3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보고서 Ⅳ-충남 2 · 대전 · 충북-』.	
2	대전 읍내동 247-14번지 유적	북동쪽 240m	조선 건물지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4. 대전 읍내동 247-14번지 유적 대전 읍내동 274-3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보고서 Ⅳ-충남 2 · 대전 · 충북-』.	
3	대전 읍내동 306-6번지 유적	북동쪽 176m	조선 건물지	한국문화재재단, 2019, 「83. 대전 읍내동 306-6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보고서 Ⅷ-80~87』.	
4	대전 읍내동 247-24번지 유적	북동쪽 240m	조선 건물지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18, 『大田 邑內洞 247-24番地 遺蹟』.	
5	대전 읍내동 관아터	북동쪽 185m	조선 건물지	한남대학교 백제문화박물관, 2000, 『대전광역시 관내의 조선시대 관아터 지표조사보고서』.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읍내동은 2000년 지표조사 통해 담장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어 조선시대 관아·객사 등의 회덕현 관아지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회덕현 관아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8]. 또한 문화재청 인트라넷에는 조사지역 남서쪽 일대가 대전 읍내동 관아터로 표시되어 있고 이는 이왕기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9]. 2010년 본 재단의 소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명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대전 읍내동 247-14번지 유적·대전 읍내동 274-3번지 유적[10]을 통해 읍내동에 대한 발굴조사가 최초로 진행되었다. 247-14번지 유적에서는 건물지 2동·담장 3기·석렬 3기·배수로 1기·우물 1기·석군 1기·적심 2기 등 1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조선시대 기와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백자 및 분청자·옹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247-3번지 유적에서는 담장 1기·건물지 3동·석렬 2기·적심 4기 등 10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 중 담장과 배수로, 건물지 1호는 247-14번지에서

7) 두산백과. 읍내동 [Eupnae-dong , 邑內洞]

8) 한남대학교 백제문화박물관, 2000, 『대전광역시 관내의 조선시대 관아터 지표조사보고서』.

9) 이왕기, 1999,『대덕의 전통건축』, 대덕문화원.

10)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4. 대전 읍내동 247-14번지 유적 대전 읍내동 274-3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보고서 Ⅳ-충남 2·대전·충북-』.

조사되었던 담장 1호와 건물지 1호의 연장선에서 확인되어 각 유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유물은 247-14번지와 비슷하게 조선시대 기와편이 대부분으로 배수로 서쪽 끝단에서 고려시대 기와편 1점을 비롯하여 청자·백자·분청자·옹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 두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를 종합해보면, 건물지 4동·담장 3기·석렬 5기·배수로 1기·석군 1기·우물 1기 등 15기가 조사되었다. 이는 회덕현 관아 내 동헌 주변의 부속 건물지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2016년에 247-24번지 유적[11]에서 조선시대 건물지 관련 시설 1기가 확인되었으나 조사범위가 협소하여 유구의 성격과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다만 기존에 조사가 완료된 지점(본 재단 조사)의 조사내용으로 보아 회덕현 관아시설과 관련된 유구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전 읍내동 306-6번지 유적[12]에는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건물지 3동을 비롯한 건물지 관련 유구가 확인되었다.

도면 4.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1) 錦江文化遺産研究員, 2018,『大田 邑內洞 247-24番地 遺蹟』.
12) 한국문화재재단, 2019,「83. 대전 읍내동 306-6번지 유적」,『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II -8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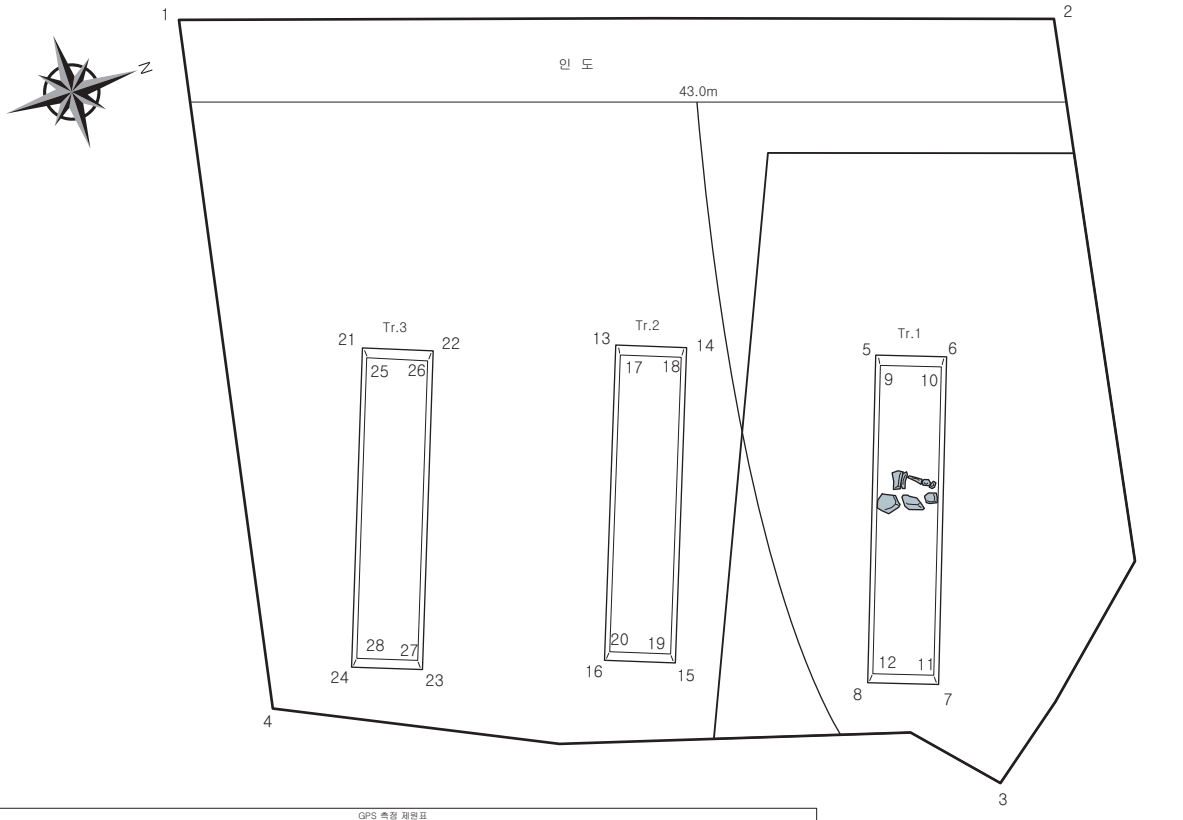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평지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에는 인도(人道)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가옥 및 낮은 층의 빌딩이 들어서 있다. 평면형태는 북동쪽이 돌출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설계도면상에 건물은 조사대상지 북동쪽에 치우쳐 건축될 예정이다.

1. 시굴조사

시굴조사는 조사대상지의 평면형태 및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동-서방향의 트렌치 3개소를 설치하였다. 현장조사는 먼저 바닥에 두께 10㎝ 정도의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의 도움을 받아 트렌치 설정 부분의 콘크리트를 제거하였다.

트렌치 1은 조사대상지의 북쪽 부분에 배치하였는데, 트렌치 서벽에서 동쪽으로 약 300㎝ 떨어진 곳



GPS 측정 제원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GPS1	X 419730.690m Y 237740.230m Z 42.742m	GPS5	X 419746.080m Y 237750.160m Z 42.883m	GPS9	X 419746.330m Y 237750.330m Z 41.742m	GPS13	X 419739.570m Y 237748.170m Z 43.023m	GPS17	X 419739.790m Y 237748.540m Z 41.410m	GPS21	X 419733.050 Y 237746.430m Z 42.947m	GPS25	X 419733.290m Y 237747.060m Z 41.537m
GPS2	X 419750.250m Y 237746.330m Z 43.006m	GPS6	X 419747.900m Y 237750.550m Z 42.806m	GPS10	X 419747.720m Y 237750.680m Z 41.628m	GPS14	X 419741.260m Y 237748.630m Z 42.980m	GPS18	X 419740.980m Y 237748.930m Z 41.306m	GPS22	X 419734.740m Y 237747.240m Z 42.850m	GPS26	X 419734.230m Y 237747.430m Z 41.431m
GPS3	X 419744.460m Y 237761.120m Z 43.196m	GPS7	X 419745.550m Y 237759.030m Z 42.891m	GPS11	X 419745.350m Y 237758.860m Z 42.278m	GPS15	X 419739.040m Y 237756.690m Z 42.883m	GPS19	X 419738.970m Y 237756.240m Z 41.939m	GPS23	X 419732.480m Y 237755.310m Z 42.726m	GPS27	X 419732.370m Y 237754.690m Z 41.801m
GPS4	X 419729.160m Y 237755.520m Z 43.035m	GPS8	X 419743.850m Y 237756.460m Z 42.859m	GPS12	X 419744.050m Y 237758.500m Z 42.245m	GPS16	X 419737.190m Y 237756.110m Z 42.877m	GPS20	X 419737.440m Y 237755.710m Z 41.853m	GPS24	X 419730.840m Y 237754.710m Z 42.686m	GPS28	X 419731.000m Y 237754.290m Z 41.841m

도면 5.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에서 석렬이 확인되었다. 석렬은 갈색사질점토(2층)에서 확인되었는데 장축방향은 남-북(N-5°-E) 방향이다. 14×16~46×52㎝ 크기의 할석 4매가 조사되었으며, 잔존 규모는 길이 186㎝·너비 120㎝이다. 주변에서는 조선시대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트렌치 2는 트렌치 1에서 남쪽으로 약 5m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다. 트렌치 내 퇴적양상은 교란 및 복토층-자연퇴적층-생토층의 순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인 퇴적양상은 트렌치 1과 비슷하나, 2층과 3층은 후대의 교란으로 인해 확인되었다. 생토층은 서쪽보다 동쪽이 60㎝ 정도 높게 확인되었다. 트렌치 내에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렌치 3은 트렌치 2에서 남쪽으로 약 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트렌치 3 역시 트렌치 2와 동일한 지형과 퇴적양상이 확인되었는데 2·3층은 후대의 교란으로 대부분 유실되었다. 생토층은 서쪽보다 동쪽이 40㎝ 정도 높게 확인되었다. 트렌치 내에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조사구역의 지형은 동고서저로 확인되었으며, 유구는 트렌치 1에서 석렬 1기가 조사되었고 유물은 조선시대 기와편과 백자편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 1 주변(169㎡)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공사 이전에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들의 규모 및 성격, 특히 회덕현 관아지와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417㎡) 중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 1 주변(169㎡)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의 서쪽은 보도블럭이 설치되었고 북쪽으로는 인접필지와 잇대어 담장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옹벽이 있었다. 제토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구역 경계지점에서 약 1m 가량을 이격하였다. 더불어 시굴조사 시 확인된 문화층의 상면까지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제토하였고 문화층에 인접해서는 수작업(인력)으로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발굴조사는 먼저 상부문화층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하부문화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발굴조사 중 상부문화층 석렬과 하부문화층의 담장이 조사경계 남쪽으로 연장되어 시굴조사 트렌치 2의 북쪽 인접지역까지 확장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굴조사 당시 트렌치 1에서 확인된 대형 할석은 조사를 위해 주변을 정리하여 유구의 유무를 확인하였지만 후대에 쓸려 들어온 석재로 판명되었다.

조사대상지의 퇴적양상은 북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7개층이 확인되었으며, 위에서부터 콘크리트(1층:콘크리트층) - 적갈색+갈색사질점토(2층:복토 및 교란층) - 흑갈색사질점토(3층:자연퇴적층) - 갈색사질점토(4층:자연퇴적층) - 명갈색사질점토[(5층:상부문화층(조선시대)] - 황갈색사질점토[6층:하부문화층(조선시대)] - 황색점토(7층:생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표 2】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남쪽 경계)

토층	내용	
	1층 : 콘크리트	콘트리트층 (두께 10㎝)
	2층 : 적갈색+갈색사질점토	복토 및 교란층 (지표 하 10~60㎝)
	3층 : 흑갈색사질점토	자연퇴적층(유물포함층) (지표 하 60~105㎝)
	4층 : 갈색사질점토	
	5층 : 명갈색사질점토	상부문화층(조선시대) (지표 하 105~115㎝)
	6층 : 황갈색사질점토	하부문화층(조선시대) (지표 하 115~135㎝)

1층(콘크리트층)은 최근에 타설한 콘크리트층으로 지표에서 10~20㎝ 정도의 두께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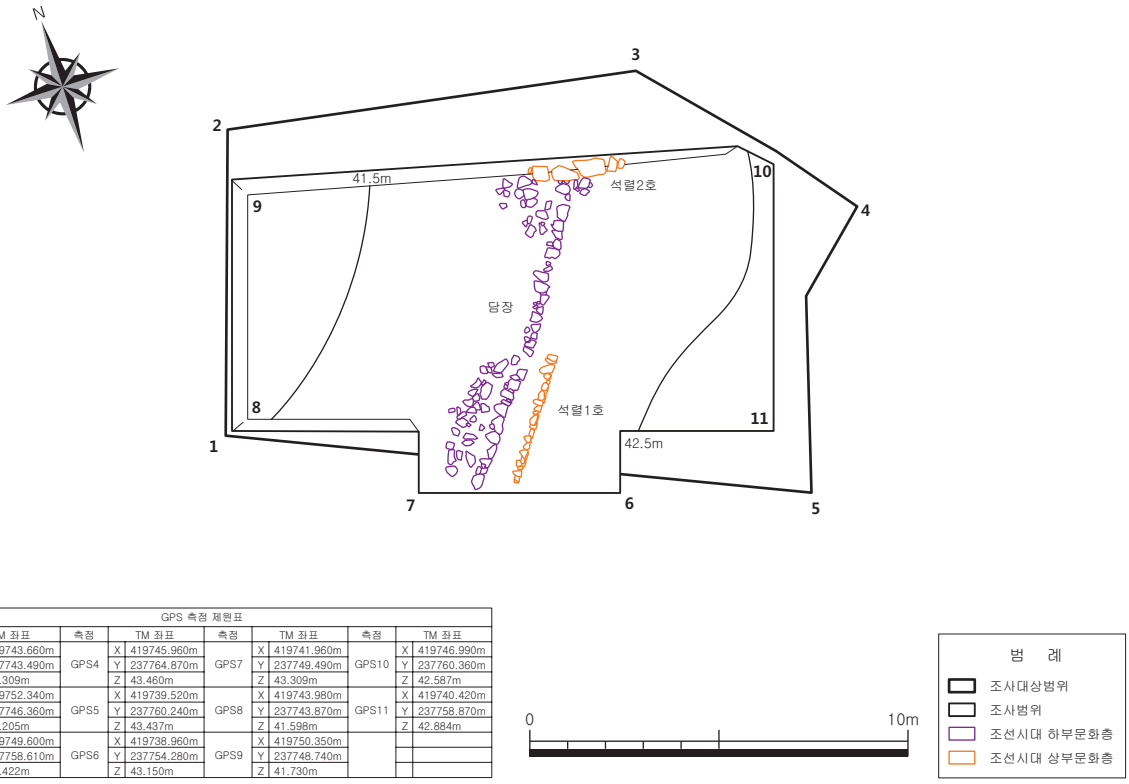
2층(복토 및 교란층)은 적갈색+갈색사질점토로 지표 하 약 10~60㎝에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는 건축폐기물이 함께 섞여있었다.

3 · 4층(자연퇴적층 및 유물포함층)은 흑갈색사질점토와 갈색사질점토로 지표 하 약 60~105㎝에서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조선시대 기와편이 퇴적되었다.

5층(조선시대 상부문화층)은 명갈색사질점토로 지표 하 약 100~115㎝에 위치하였으며, 석렬이 확인되었다. 토양은 점성이 강하고 부분적으로 사질성분이 함류되어 있지만 조직이 치밀한 편이다.

6층(조선시대 하부문화층)은 황갈색사질점토로 지표 하 약 115~135㎝에 위치하였으며, 담장이 확인되었다. 5층에 비해 토색이 밝고 점성이 강한 편이다.

7층(생토층)은 6층 하부에서 확인되었으며 황색점토가 지표 하 약 135㎝에서 노출되었으며, 5층에 비해 토색이 밝고 점성이 강한 편이다. 지대가 높은 동쪽일대는 점성이 강한 황색점토가 확인된 반면 지대가 낮은 서쪽 일대는 사질성분이 좀더 혼입되었다.



GPS 측정 제원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GPS1	X	419743.660m	GPS4	X	419745.960m	GPS7	X	419741.960m	GPS10	X	419746.990m
	Y	237743.490m		Y	237764.870m		Y	237749.490m		Y	237760.360m
	Z	43.309m		Z	43.460m		Z	43.309m		Z	42.587m
GPS2	X	419752.340m	GPS5	X	419739.520m	GPS8	X	419743.980m	GPS11	X	419740.420m
	Y	237746.360m		Y	237760.240m		Y	237743.870m		Y	237758.870m
	Z	43.205m		Z	43.437m		Z	41.598m		Z	42.884m
GPS3	X	419749.600m	GPS6	X	419738.960m	GPS9	X	419750.350m			
	Y	237758.610m		Y	237754.280m		Y	237748.740m			
	Z	43.422m		Z	43.150m		Z	41.730m			

도면 6.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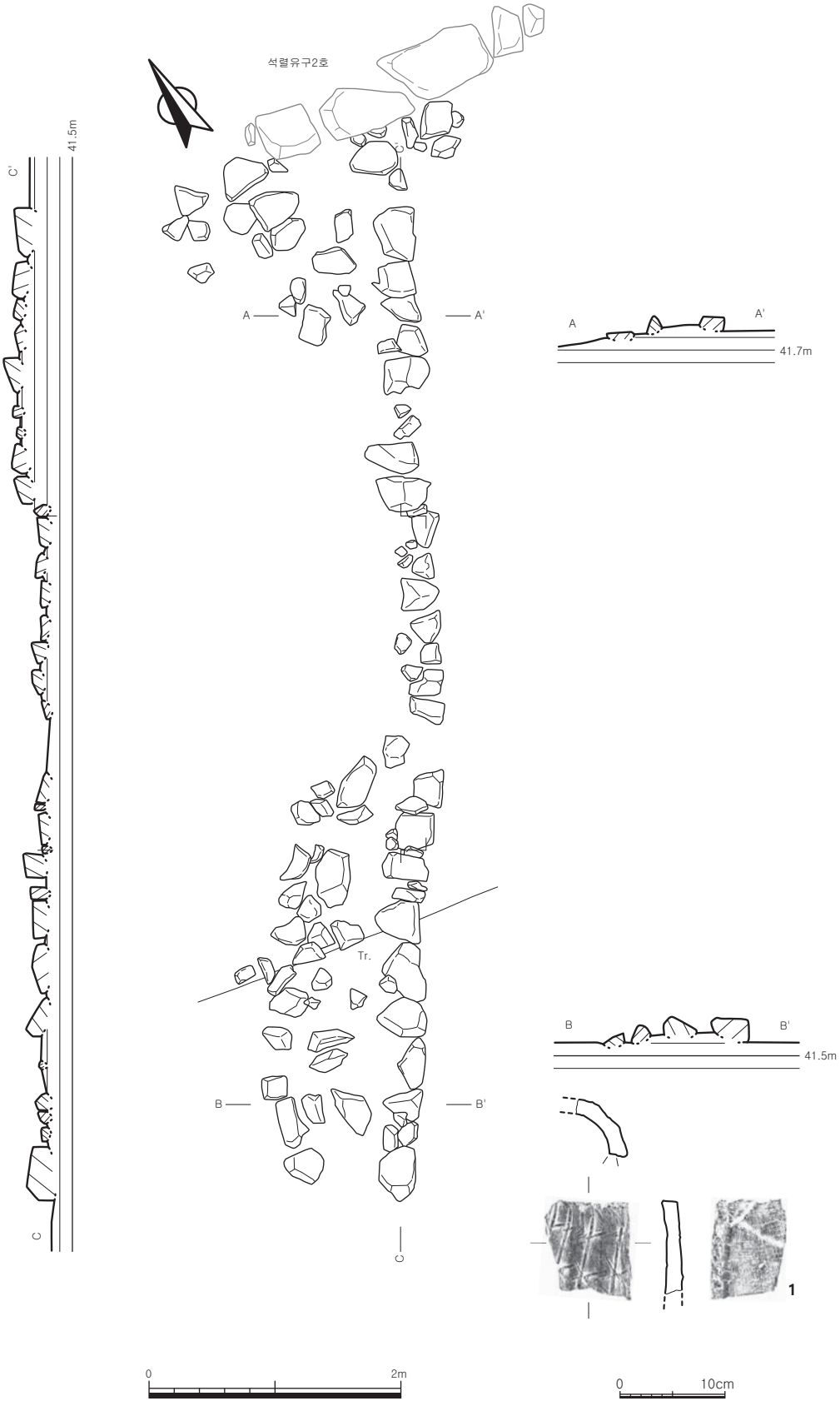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조사 이후 하부문화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발 41.7m 지점에서 담장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상부문화층 석렬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었다. 유물은 기와편 1점이 수습되었다.

1) 담장

가. 유구(도면 7, 도판 2-①~③)

조사대상지 중앙의 해발 41.7m에 위치하며, 북동쪽은 상부문화층 석렬 2호가 축조되면서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동쪽으로 60㎝ 떨어져 상부문화층 석렬 1호가 있고, 북쪽으로 석렬 2호가 연접해 위치한다.

담장은 동-서방향의 사면부를 약 60㎝ 정도 'ㄴ'자형으로 절토하여 평탄대지를 조성한 후 절토면에서 170~240㎝ 떨어진 지점에 14×16㎝~22×42㎝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동쪽의 면이 맞도록 축조하였는데 중앙부 북쪽 일부와 서쪽 부분은 후대의 훼손으로 유실되었다. 상부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기저부 1~2단이 남아 있는데 남쪽은 1단이 남아 있고, 북쪽은 2단이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자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36 ° -E) 향이다. 잔존 규모는 길이 846㎝, 너비 146㎝이다.



도면 7.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담장 및 출토유물

유물은 담장 중앙에서 기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수키와편(도면 7-1, 도판 2-1)

우측 상단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 색조는 회청색(2.5Y 6/1)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배면각이 형성되어 있으며,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되며 와도는 안→밖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으며, 아래로 갈수록 와도면이 넓어진다.

잔존길이 8.9㎝, 잔존너비 5.8㎝, 두께 1.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유구는 5층(명갈색사질점토) 상부에서 노출되었는데 해발 42.15m 내외에 해당한다. 유구는 조사대상지 북쪽과 남쪽 경계 중앙부분에 걸쳐 확인되었으며, 석렬 2기가 조사되었고, 유물은 제토 및 유구 조사 과정에서 기와편 4점을 수습하였다.

1) 석렬

(1) 석렬 1호

가. 유구(도면 8, 도판 3~4-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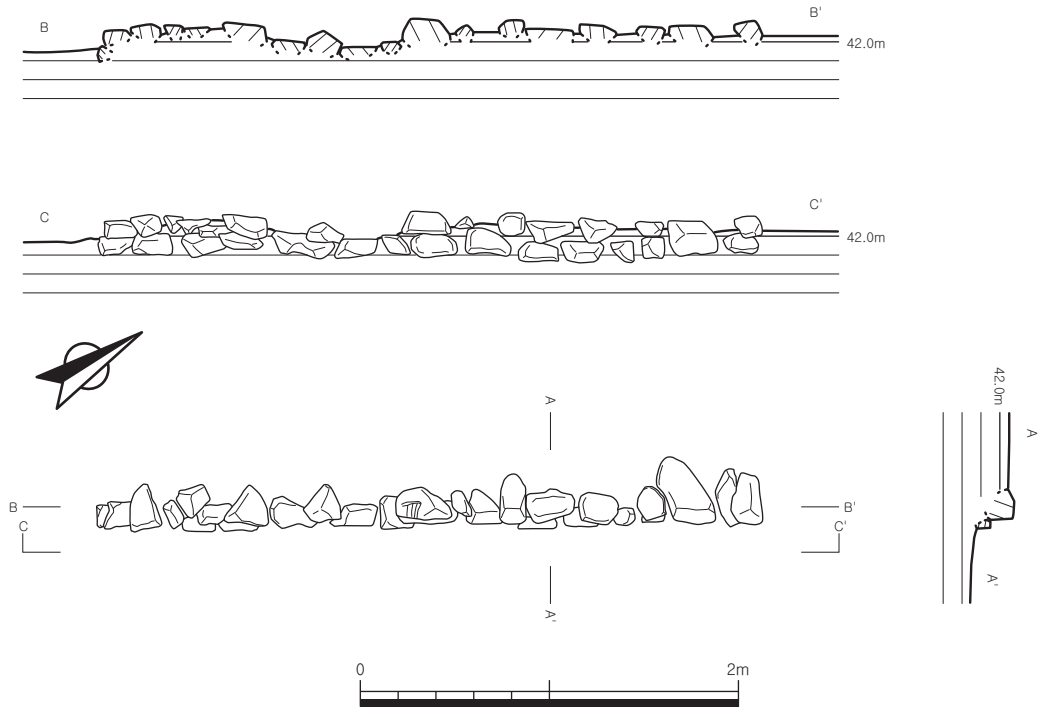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해발 42.15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475㎝ 떨어져 석렬 2호가 인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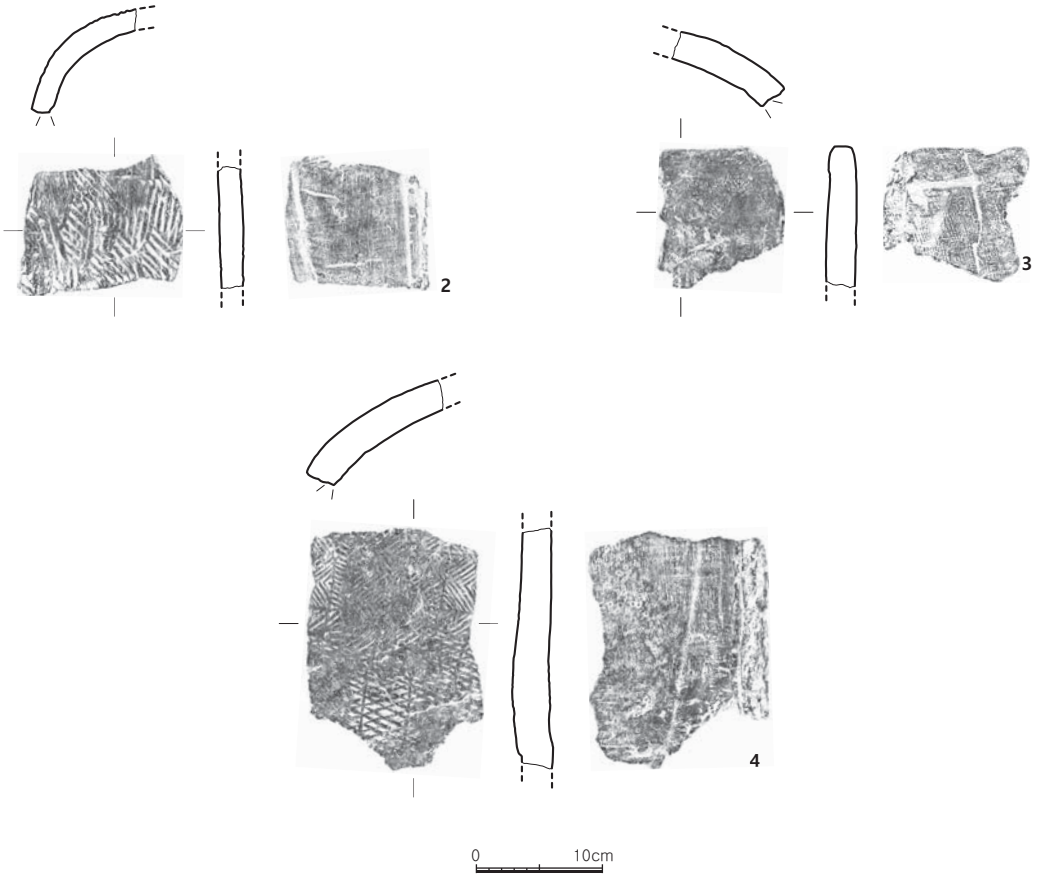
석렬은 하부문화층의 담장 폐기 후 그 상부에 갈색계통의 사질점토를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다음 대지조성토 상부에 14×16㎝~22×42㎝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여 평면 '一'자형으로 축조하였다. 2~3단이 남아있으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38°-E)향이다. 잔존 규모는 길이 352㎝, 너비 34㎝이다.

석렬은 경사가 높은 동쪽의 면이 정연하도록 쌓았는데 안쪽(석렬의 서쪽)은 흑갈색사질점토와 갈색사질점토를 뒷채움하였으며, 바깥쪽(석렬의 동쪽)은 기와편이 혼입된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석렬의 성격은 일부가 남아 있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축조 방법 및 석렬 내외부의 하부 퇴적양상으로 보아 건물지의 기단으로 추정된다. 다만 석렬의 안쪽에서 적심 등 기초시설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석렬로 명명하였다.

유물은 석렬 노출과정에서 기와편 3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1호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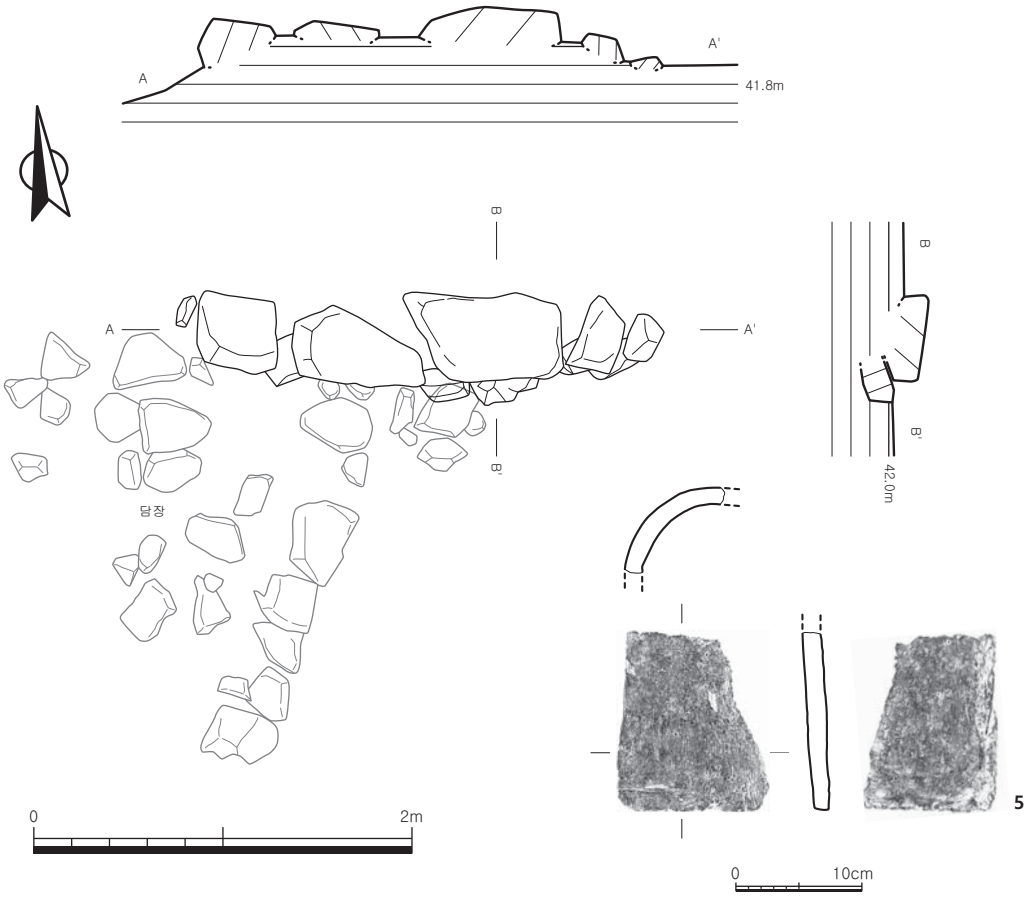
나. 유물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2	수키와편	8-2	4-2	(10.5)	(11.5)	1.9	좌측 중앙 일부 잔존, 명갈색(10YR 7/6), 외면 태선문 교차 타날, 내면 포목흔 · 연철흔 · 점토합흔 · 눈테흔, 와도 안→밖으로 1/3정도 그어 분할.
3	암키와편	8-3	4-3	(11.1)	(9.5)	2.3	우측 상단부 일부 잔존, 회백색(10YR 7/1), 외면 선문, 내면 윤철흔 · 포목흔 · 점토합흔, 와도 안→밖으로 1/3정도 그어 분할.
4	암키와편	8-4	4-4	(19.0)	(13.4)	2.5	좌측 일부 잔존, 회백색(10YR 7/1), 태토 세석립이 다수 포함된 점토. 외면 상단 복합문, 하단 격자문, 내면 포목흔 · 점토합흔, 와도 안→밖으로 1/4정도 그어 분할.

(2) 석렬 2호

가. 유구(도면 9, 도판 5~6-②)

조사대상지 중앙에서 북서쪽으로 치우친 해발 42.15m에 위치하는데 북쪽부분은 조사경계 외곽으



도면 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2호 및 출토유물

로 연장된다. 남쪽으로 약 475㎝ 떨어져 석렬 1호가 있고, 남쪽으로 연접해 하부문화층의 담장이 위치한다.

석렬은 하부문화층의 담장 폐기 후 갈색계통의 사질점토를 성토하여 조성한 대지조성토 상부에 16×18~44×84㎝ 크기의 할석들을 사용하여 남쪽으로 외면을 맞추었다. 노출된 평면형태는 '一'자형이다. 면석은 2단이 남아있는데 1단은 길이 16~40㎝ 석재를 사용하였고, 2단은 최대 길이 40~84㎝ 크기의 대형석재를 사용하였다. 장축방향은 동-서(N-88°-W)향이다. 잔존 규모는 길이 246㎝, 너비 44㎝이다.

석렬 2호는 북쪽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장되어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유물은 석렬 사이에서 기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5. 수키와편(도면 9-5, 도판 6-5)

하단부 일부가 잔존하고 있으며 색조는 명갈색(10YR 7/6)을 띤다. 외면은 무문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은 눈테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고 하단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4.3cm, 잔존너비 10.5cm, 두께 1.5cm

〈수습유물〉

6. 분청사기 대접(도면 10-6, 도판 7-6)

저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으며 태토는 점토를 이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녹색(5Y 7/1), 속심은 회색(10YR 7/1)을 띤다. 기형은 완만하게 휘어서 올라가며 내저면은 편평하다. 내면은 중앙에서부터 대국화문 → 3줄 선문 → 여의두문 → 3열 소국화문 순으로 시문되어 있다. 외면은 하위에서 부터 2줄 선문 → 연판문 → 2줄 선문 → 2줄 소국화문이 백토상감되어 있다. 굽은 죽절굽이고 굽 내면은 편평하게 깎았으며, 중앙에 2줄의 파인 흔적이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내저면과 굽접지면에 가는 모래받침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7㎝, 복원저경 6.4㎝, 두께 0.4~1.0㎝

7. 암키와편(도면 10-7, 도판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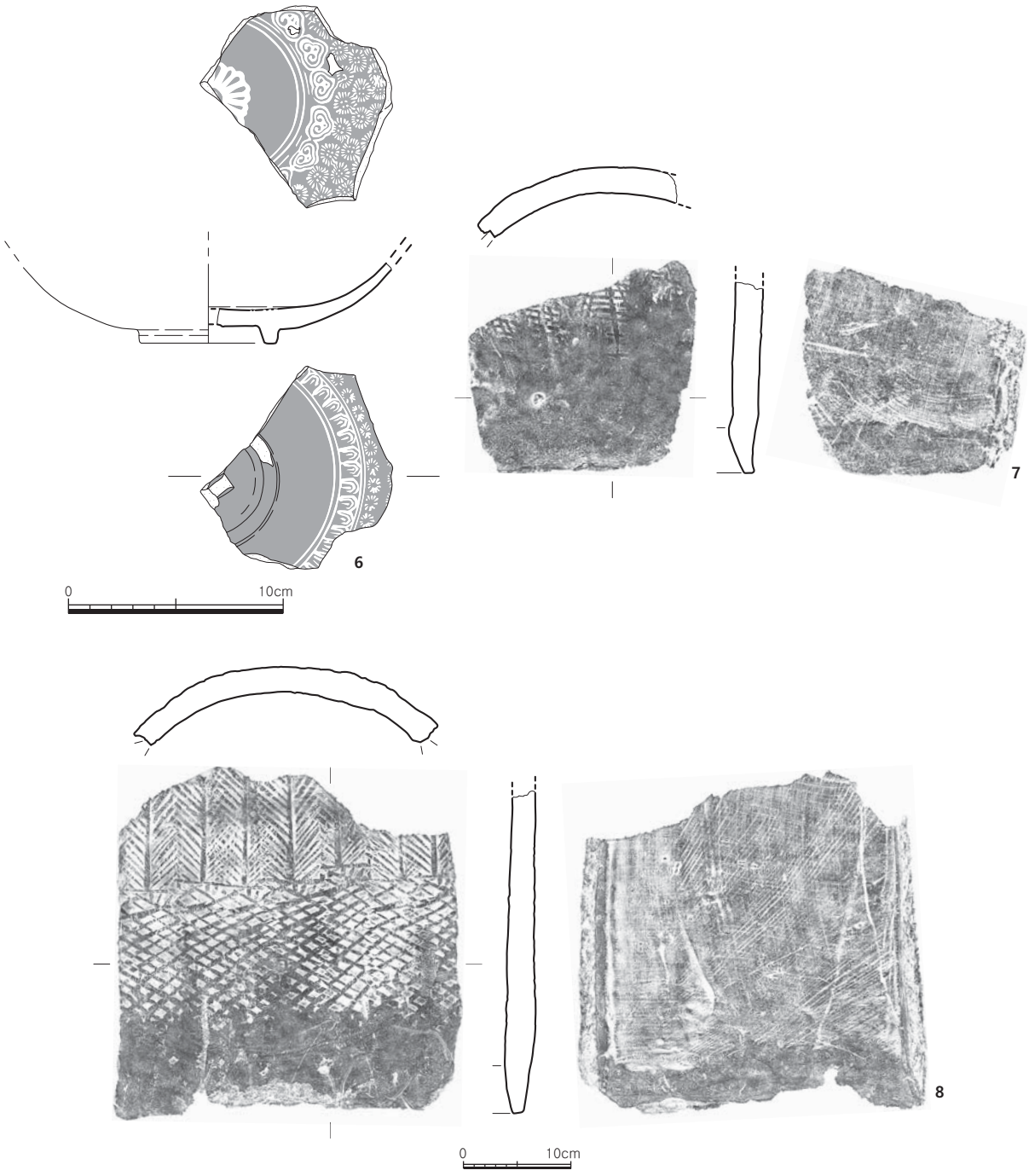
좌측 하단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색조는 회청색(2.5Y 6/1)을 띠며,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하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이 일부 지워졌다. 내면은 사절흔, 포목흔이 확인되며, 하단부는 단부조정 후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하였다, 와도는 안→밖으로 불규칙한 두께로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7.8㎝, 잔존너비 18.9㎝, 두께 2.4㎝

8. 암키와편(도면 10-8, 도판 7-8)

상단부와 하단부 일부가 결실된 암키와이다. 색조는 회청색(2.5Y 6/1)을 띠며, 태토는 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 상단은 어골문, 하단은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하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이 지워졌다. 내면은 사절흔, 합철흔, 포목흔, 점토합흔, 눈테흔이 확인되며 하단부는 단부조정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는 안→밖으로 그었는데 우측 1/2, 좌측 1/3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30.0㎝, 잔존너비 28.2㎝, 두께 2.6㎝



도면 10. 수습유물

Ⅳ. 조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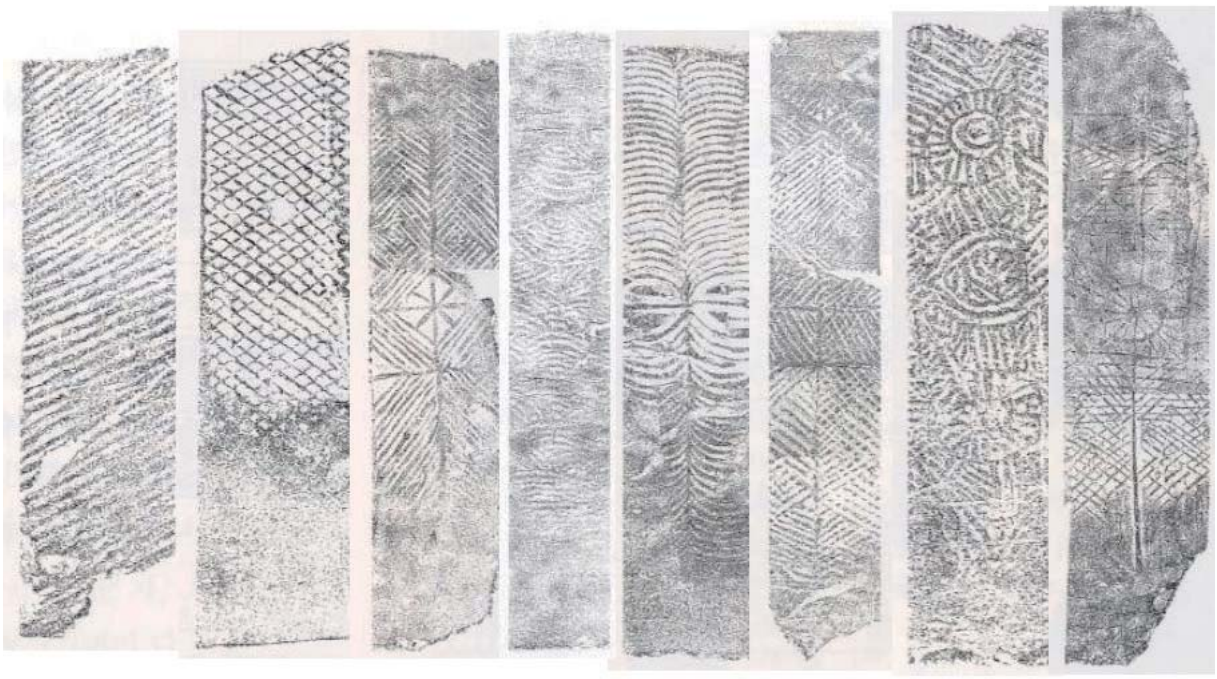
본 발굴조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38-1번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사업시행자 : 김영화)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면적은 169㎡였으며, 발굴조사는 2017년 10월 23일에 착수하여 11월 6일까지 10일(허가일수 7일+보완조사 3일)이 소요되었다.

발굴조사 대상지는 회덕현 관아 추정지역에서 남쪽으로 120m 정도 떨어져 위치하며, 남쪽으로 60m정도 더 내려가면 회덕현의 환곡(還穀)을 보관하던 사창(社倉)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가 관아 추정지와 사창 추정지 사이에 위치하므로 관아와 관련된 시설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1. 유구 및 유물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하부문화층에서 담장 1기, 상부문화층에서 석렬 2기가 조사되었다.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에서는 담장 1기가 확인되었는데, 북쪽부분은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의 석렬 2호와 서쪽 면석은 후대 교란으로 유구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담장의 너비가 141㎝정도로 일반적인 담장보다 넓고, 관아터 바로 옆에서 발굴조사 된 읍내동 274-3번지 유적에서 너비가 160㎝에



선문 격자문 어골문 청해파문 중호문 직선복합문 곡선복합문 문자문

그림 1. 기와 문양의 종류[13)]

13) 이인숙, 2015,「평기와 관찰 및 보고서 기술」,『유적출토 기와의 이해』한국매장문화재협회.

이르는 담장이 조사된 점을 볼 때 두 곳의 담장 모두 관아터와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부문화층에서 확인된 석렬 1호는 건물지의 기단으로 추정되나, 안쪽에서 적심 등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석렬로 명명하였다. 석렬 2호 역시 북쪽부분이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장되어 규모와 성격을 파악 할 수는 없었다.

유물은 상 · 하부문화층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기와편과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 기와는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에서 어골문+격자문의 복합문이,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에서는 직선복합문과 출토되었으며 이는 모두 조선전기[14]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토된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유구의 축조 시기는 조선전기이후에 축조되었고, 상층과 하층의 유구는 상하중복으로 확인되었지만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회덕현 관아터 주변유적

회덕현이란 명칭은 고려초기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회덕현에는 현감이 파견되었고, 관할 구역은 대체적으로 지금의 대덕구 전역과 동구 일원, 유성구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덕현의 관아건물은 현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다. 다만 1872년(고종 9년)에 그려진 「회덕현지도」를 보면, 현존하는 회덕향교의 남쪽 2리, 제월당(霽月堂)의 서남쪽 1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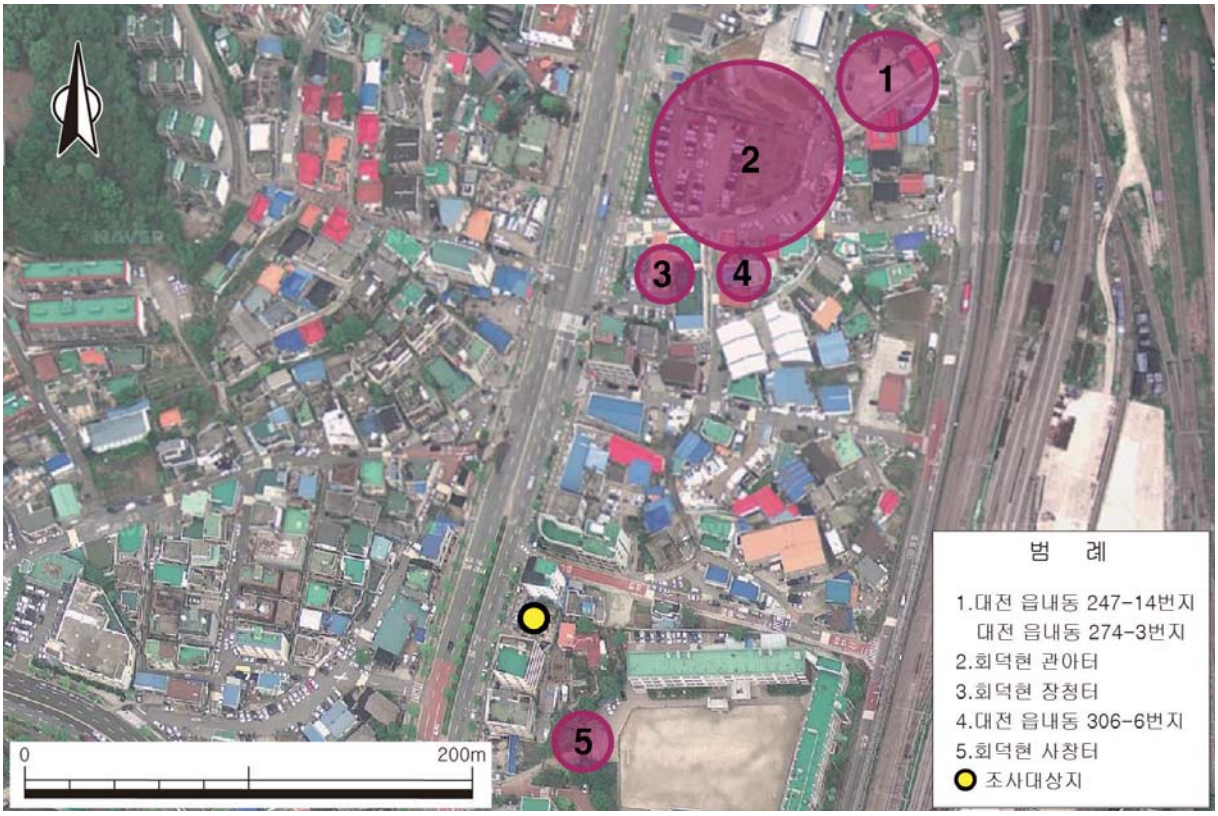


그림 2.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14) 위의 책, 225p.

관아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의 회덕파출소 동쪽 언덕 기슭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5].

현재 관아터 추정지역과 그 주변에 발굴된 유적으로는 대전 읍내동 247-14번지 · 대전 읍내동 274-3번지 · 대전 읍내동 306-6번지 유적 · 대전 읍내동 247-24번지 유적 등이 있으며, 조선시대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어 회덕현 관아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위치를 표시하면 그림2)와 같다.

위의 도면에 표시된 '회덕현 관아터'는 관아터로 추정되는 중심지역을 표시한 것으로 관아의 외곽경계로 추정할 만한 단서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며, 주변의 발굴성과를 통해서 그 영역이 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또한 회덕현 관아건물의 규모는 고지도 및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동헌 8칸, 객사 24~36칸, 침벽당 6칸, 응향정 1칸, 창고와 사창이 24칸, 군기고 4칸 등 최대 79칸 정도이다.

이번 발굴조사대상지는 문화유적분포지도의 회덕현 관아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관아터 주변유적에서 건물지 관련시설이 조사되고, 조사대상지 남쪽에 근접하여 회덕현 사창터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으며 관아터의 건물이 79칸에 이르는 규모임을 감안할 때, 회덕현 관아터와 관련성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변유적 발굴성과가 추가된다면 회덕현 관아터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6,『대덕구사』제1권.
한남대학교 백제문화박물관, 2000,「대전광역시 관내의 조선시대 관아터 지표조사보고서」.

도 판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전, ②조사후)

도판 2.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담장(①조사후, ②③세부, 1:출토유물)

도판 3.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1호 조사후

도판 4.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1호(①세부, 2~4:출토유물)

도판 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2호 조사후

도판 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 2호(①②조사후, 5:출토유물)

도판 7. 수습유물

대전 읍내동 338-1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0597 -0001	수키와편	1	하부문화층 담장	토도	조선	(8.9)	(5.8)	1.5	7-1 2-1	Y
2017-0597 -0002	수키와편	1	상부문화층 석렬 1호	토도	조선	(10.5)	(11.5)	1.9	8-2 4-2	Y
2017-0597 -0003	암키와편	1	상부문화층 석렬 1호	토도	조선	(11.1)	(9.5)	2.3	8-3 4-3	Y
2017-0597 -0004	암키와편	1	상부문화층 석렬 1호	토도	조선	(19.0)	(13.4)	2.5	8-4 4-4	Y
2017-0597 -0005	수키와편	1	상부문화층 석렬 2호	토도	조선	(14.3)	(10.5)	1.5	9-5 6-5	Y
2017-0597 -0006	분청사기대접	1	수습	토도	조선	(3.7)	6.4	0.4~1.0	10-6 7-6	Y
2017-0597 -0007	암키와편	1	수습	토도	조선	(17.8)	(18.9)	2.4	10-7 7-7	Y
2017-0597 -0008	암키와편	1	수습	토도	조선	(30.0)	(28.2)	2.6	10-8 7-8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대전 읍내동 338-1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 3011-2173	FAX	(02) 566-5954
執筆 · 編輯者	정훈진 · 이진호 · 김경훈 · 김방효 · 정홍선 · 박자연			
調査 緣由	근린생활 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박종섭 · 이창욱 · 이진호 · 김경훈 · 김방효			
遺蹟調査地番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38-1번지			
調査面積	시굴: 417㎡, 발굴: 169㎡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담장	조선시대	1기	기와편	
석렬	조선시대	2기	기와편	

142. 춘천 신매리 210-2번지 외 1필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42- 5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42- 7

Ⅲ. 조사내용 ····· 142-17
1. 시굴조사 ····· 142-17
2. 발굴조사 ····· 142-18
〈시대미상〉 ····· 142-21
1) 수혈유구 ····· 142-21
(1) 수혈유구 1호 ····· 142-21
(2) 수혈유구 2호 ····· 142-21
(3) 수혈유구 3호 ····· 142-22
(4) 수혈유구 4호 ····· 142-22
(5) 수혈유구 5호 ····· 142-22
2) 하부 탐색 조사 ····· 142-24

Ⅴ. 조사성과 ····· 142-26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42- 9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42-11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42-16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배치도 …… 142-18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 142-20
도면 6. 수혈유구 1~5호 …… 142-23
도면 7. 하부 트렌치 배치도 …… 142-24

도 판 목 차

도판 1. 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전, ②조사후) …… 142-29
도판 2. 시굴조사 트렌치1(①조사후, ②북단벽, ③남단벽, ④동장벽, ⑤서장벽) …… 142-30
도판 3. 시굴조사 트렌치2(①조사후, ②북단벽, ③남단벽, ④동장벽, ⑤서장벽) …… 142-31
도판 4. 시굴조사 트렌치3(①조사후, ②북단벽, ③남단벽, ④동장벽, ⑤서장벽) …… 142-32
도판 5. 발굴조사 대상지(①원경, ②제토후) …… 142-33
도판 6.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후) 및 수혈유구 1호(②조사전, ③조사중, ④조사후, ⑤토층) …… 142-34
도판 7.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3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 142-35
도판 8.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5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 142-36
도판 9. 하부 탐색 조사(①조사후) 및 트렌치1(②조사후, ③동단벽, ④남장벽) …… 142-37
도판 10. 하부 탐색 조사 트렌치2(①조사후, ②서단벽, ③남장벽) 및 트렌치3(④조사후, ⑤서단벽, ⑥북장벽) …… 142-38

Ⅰ. 조사개요

본 유적은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209-1·210-2번지로 사업시행자 변기석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584㎡)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는 신매리 유물산포지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 주변 일원은 춘천 신매리 유적(사적 제489호)[1]의 현상변경기준안 1구역[2]에 해당한다. 또한 주변에는 춘천 신매대교 부지 내 유적[3], 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유적[4], 신매리 10번지 유적[5], 신매리 289-11번지 유적[6] 등이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춘천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해당부지에 대해서 2017년 7월 25일에 매장문화재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착공 전 발굴(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7]되었다.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견에 따라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춘천시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8월 4일 문화재협업포털을 통해 본 재단에 소규모 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본 재단에서는 국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9월 8일에 시굴조사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9월 1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3일에 대한 허가(제2017-1192호)를 받은 후 9월 18일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9월 20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조사대상지 북쪽과 남쪽 경계에 인접한 트렌치 1과 트렌치 3에서 각각 수혈유구 7기,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분포범위

---

1) 노혁진·심재연, 1997, 『춘천의 선사유적 -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2) 본 건물의 높이는 7.35m로 사적 제489호 춘천 신매리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해당한다.
춘천신매리유적(사적 제489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 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공 통		◦ 사업시행시 발굴조사 선행 ◦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예. 마 경작 등)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구역	0m~200m	11m 이하(3층)	15m 이하(3층)
	200m~500m	14m 이하(4층)	18m 이하(4층)
기타구역 (매장문화재 포장 인정지역)		14m 이하(4층)	18m 이하(4층)

3)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 『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 江原文化財硏究所, 2003, 『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유적』.

5)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 『新梅里 10·47-1番地 遺蹟 住宅新築豫定敷地 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6) 강원문화재연구소, 2000, 『춘천 신매리 289-11번지 유적』.

7) "사업예정지역은 주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매장문화재가 확인된 바 있음. 금번 사업대상지도 매장문화재 포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착공 전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받았다(문화예술과-14731호).

와 확인된 유구의 성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동년 9월 25일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9월 2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7일에 대한 발굴변경허가(발굴제도과-11359호)를 받았다. 현장조사는 10월 24일 착수하여 11월 1일에 완료하였다.

조사 결과,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5기가 조사되었다.

발굴조사단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시굴조사	발굴조사
조 사 단 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책임조사원	이 창 욱(조사연구2팀 부팀장)	이 창 욱(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김 정 민(조사연구2팀 연구원)	김 효 환(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전 은 정(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양 현 승(조사연구2팀 연구원)	석 제 섭(조사연구2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건충(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김효환(도판 · 도면)이 작성하였다.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임희정 · 기여운(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작성하였고, 도면 및 도판편집은 김효환 · 박자연(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원고는 김효환이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건충이 수정하였고 교정 및 교열은 정훈진(조사연구2팀장)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209-1·210-2번지에 해당하며, 경·위도상 동경 127°42′38.86″, 북위 37°55′26.93″이다.

춘천시[8]의 동쪽은 인제군 남면 및 홍천군 두촌면·북방면과 접해 있고, 서쪽은 화천군 사내면 및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과 접하고 있다. 남쪽은 홍천군 서면 및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과 접해 있으며, 북쪽은 화천군 하남면·간동면, 양구군 남면과 접하고 있다.

자연·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는 태백산의 서부 주변부에 위치하여 평원성지대인 경기지방에 인접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산지가 서부의 평원성지대로 천이하는 점이지대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강이 춘천지역의 중심부를 관류하여 지류인 소양강과 합류하는 곳에 춘천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분지의 서북부 산지는 북동-남서주하는 광주산맥에 연속되고 분지의 동북부 산지는 태백산맥에 이어지면서 동쪽의 대룡산(899m), 서쪽의 삼악산(654m), 남쪽의 금병산(652m), 북쪽의 용화산(878m)을 비롯한 주변의 해발 650~890m 정도의 크고 작은 산줄기가 병풍처럼 춘천분지를 에워싸고 있다. 분지 안쪽으로는 해발고도 약 300m로 동쪽은 급사면을 이루나, 그 이하 지역은 구릉성 산지와 산록 완사면이 넓게 발달되어 있다. 지형 윤회상으로 보면 동북부는 만장년성 산지이고 남부는 노년성 산지로 볼 수 있으며, 소계곡들이 많다. 춘천지역의 지세는 대체로 동고서저형을 이루고 있으며, 화강암 분포가 탁월한 지형이다.

하천으로는 북한강이 금강산 서북쪽의 시루봉(1,267m)과 옥밭봉(1,240m) 사이에 있는 먹포령(850m)에서 발원하여 북서류하다가 남류하면서 제1지류인 금강산에서 발원한 금강천과 양구군 수입면 대정리에서 합류하고, 김화군 원북면 당현리에서 발원한 수입천과 양구군 북면 서호리에서 합류한다. 인제군 서화면 회전리에서 발원한 소양강과 춘천시에서 합류하고 홍천군 서석면 응봉산에서 발원한 홍천강과 춘천시 남면 관천리에서 합류되어 남류하다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소양강과 북한강 사이에 우두평야와 샘밭 등 기름진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고고·역사학적 환경을 살펴보면, 춘천분지 내의 충적대지상에는 많은 선사·역사유적이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지표조사를 통해서만 알려져 왔던 구석기시대 유적이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춘천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남면 한덕리[9], 남산면 통곡리[10], 서면 월송리[11]에서 구석기유물이 수습되어 구석기유적의 존재는 예측되었다. 이

8) 춘천시·춘성군, 1984, 『春州誌』.
9) 노혁진·심재연, 1997, 「춘천의 선사유적」, 『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김남돈, 1998, 「춘천 한덕리 구석기 유적」, 『강원문화연구』, 제17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최복규, 1999, 「북한강유역의 선사문화」, 『한강유역사연구』,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0)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춘천시』.
11) 노혁진·심재연, 1997, 「춘천의 선사유적」, 『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최복규, 1999, 「북한강유역의 선사문화」, 『한강유역사연구』,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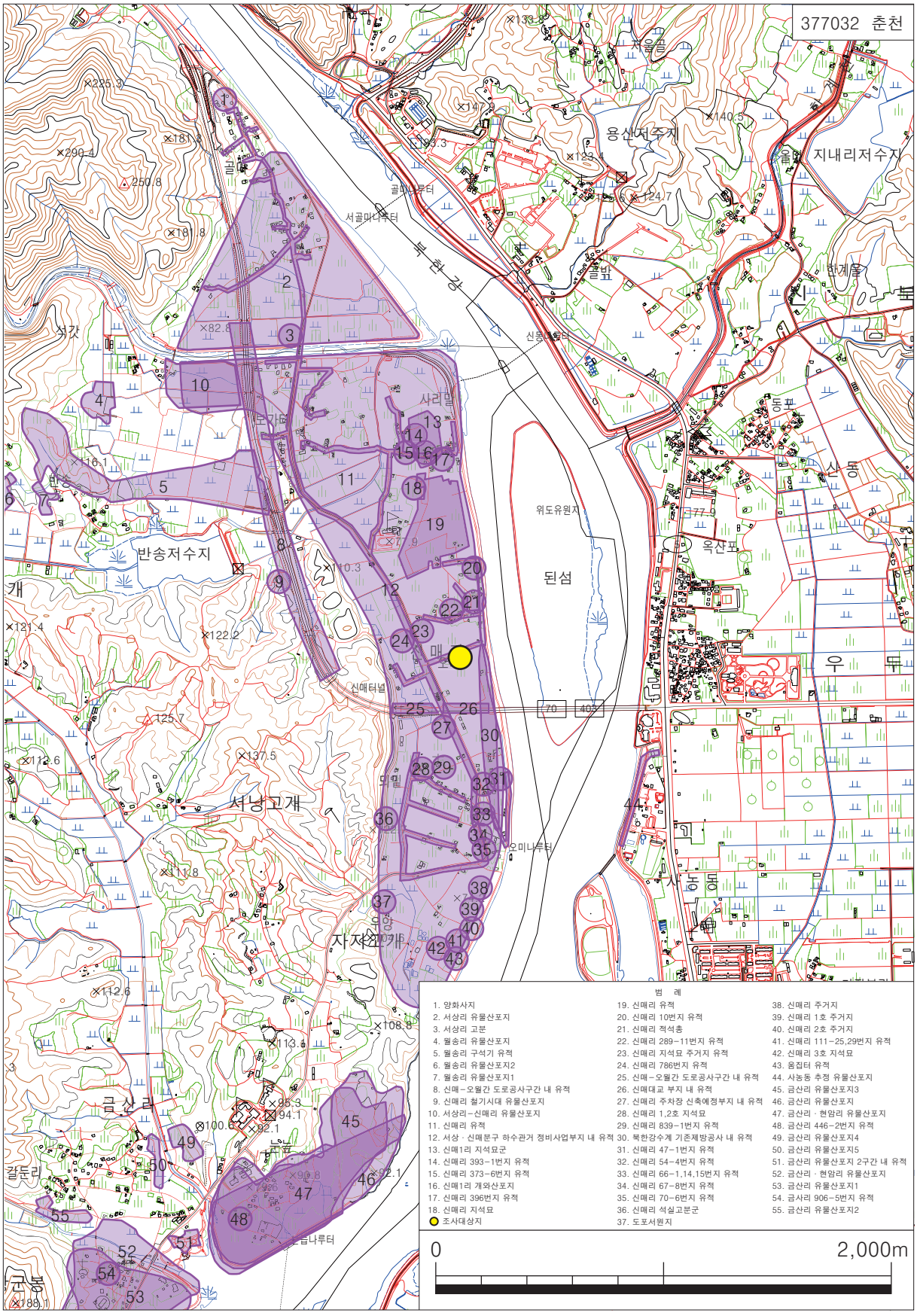
후 서면 금산리 갈둔 구석기유적[12]과 동내면 거두리[13], 서면 서상리[14], 동면 만천리[15]에서 구석기유적이 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춘천 교동 동굴유적[16]과 소양댐 수몰지역인 내평리[17]·천전리[18]·신매리[19]·거두리[20]에서 주거지가 조사되었고, 송암동[21] 과 우두동[22]에서는 야외노지가 확인되었으며, 지촌리[23]·신매리[24]·금산리[25]·중도[26] 등의 충적대지상에서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만천리에서는 해발 180m 내외의 구릉 말단부에서도 빗살무늬토기편[27]이 확인되어 향후 구릉지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춘천분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르게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유적이 충적대지상에 입지하고 있지만, 거두택지2지구에서는 구릉상에서 공렬토기를 공반하는 주거지[28]가 조사되었다. 취락

---

12)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춘천 금산리 갈둔 구석기유적』.
13)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춘천 거두리유적-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남서지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4)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춘천 서상리유적-춘천 신매-오월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B지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5) 서해문화재연구원, 2011,『춘천 만천리 구석기시대 유적-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춘천여고 이전부지 문화재시굴·발굴 조사보고서-』.
16) 김원룡, 1962,「춘천교동 혈거유적 발견유물-교동문화의 성격-」,『고고미술』이십구호.
김원룡, 1963,「춘천교동 혈거유적 발결유물-교동문화의 성격과 년대-」,『역사학보』제이십집.
17) 한병삼 외, 1974,「소양강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팔당·소양댐수몰지구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8)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泉田里』.
19)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신매리 10번지 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신매리 10·47-1번지 유적』.
20)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춘천 거두2지구 유적-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1) 예맥문화재연구소, 2010,『춘천 송암동유적-춘천 의암 레저스포츠타운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2)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춘천 우두동 유적Ⅰ-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3) 한림대학아시아문화연구소, 1986,「강원도 유적 유물분포 총람」,『강원도의 선사문화』.
노혁진·장미영·심재연, 1994,「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림대학교박물관』.
노혁진·심재연, 1997,「춘천의 선사유적」,『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24) 한림대학교박물관, 1986,『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발굴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춘천 신매리유적Ⅰ-춘천 신매-오월간 도로공사구간내 A지구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5) 강원대학교박물관, 1984,『중도유적 지표조사보고』.
26) 임세권, 1980,「춘천 중도의 선사문화-즐문 및 무문토기 중심으로-」,『한국고고학보』9.
최복규·정연우, 1982,「중도에서 발견된 선사유물의 연구」,『강원문화연구』제2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대학교박물관, 1984,『중도유적 지표조사보고』.
27) 한림대학교박물관, 2007,「춘천시 동면 만천리사지 시굴조사 보고서」,『춘천시 동면 시·발굴조사 보고서』.
28)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춘천 거두2지구 유적-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9)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泉田里』.
한림대학교박물관, 2008,『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8. 춘천 천전리 90-17, 23번지 유적」,『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인천·경기·강원-』.
韓國文化財財團, 2015,「4. 춘천 천전리 97-1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韓國文化財財團, 2015,「4. 춘천 천전리 99-8번지 유적」,『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
강원문화재연구소, 2017,「2. 춘천 천전리 90-19, 98-8번지 유적」,『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강원3·세종-』.
30)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춘천 율문리 335-4번지 유적-춘천 율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韓國文化財財團, 2015,「4. 춘천 율문리 79-3·6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유적은 천전리[29]·율문리[30]·우두동[31]·장학리[32]·신매리[33]·금산리[34]·현암리[35]·중도[36]·삼천동[37]·송암동[38]·거두리[39]·지내리[40] 등에서 조사되었으며, 매장유적으로는 내평리·추전리·대곡리[41]·발산리[42]·천전리[43]·우두동[44]·신매리[45]·중도[46] 등에서 지석묘와 석관묘가 조사되었다. 산천리·율문리·지내리·서상리·금산리·현암리·방동리·삼천동·거두리·하곡리 등에는 지석묘가 산재한다[47]. 그리고 천전리유적에서 주구석관묘[48]가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으며, 산천리·지내리·금산리·온의동·석사동 등에서도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

3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춘천 우두동 707-1, 35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춘천 우두동 유적Ⅱ-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 건물개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춘천 우두동 유적Ⅰ-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韓國文化財財團, 2015,「3. 춘천 우두동 89-2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Ⅲ-』.

32)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춘천 장학리Ⅰ유적-소양 5교~국도5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3) 한림대학교박물관, 1986,『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발굴보고서』.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신매리 54-4번지 유적-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신매리 10·47-1번지 유적-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신매리 373-6번지 유적-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韓國文化財財團, 2015,「3. 춘천 신매리 839-1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韓國文化財財團, 2015,「3. 춘천 신매리 43-2번지 유적」,『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Ⅲ-강원-』.
한국문화재재단, 2016,「4. 춘천 신매리 289-11번지 유적」,『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Ⅵ-강원2-』.

34)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춘천 금산리유적-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금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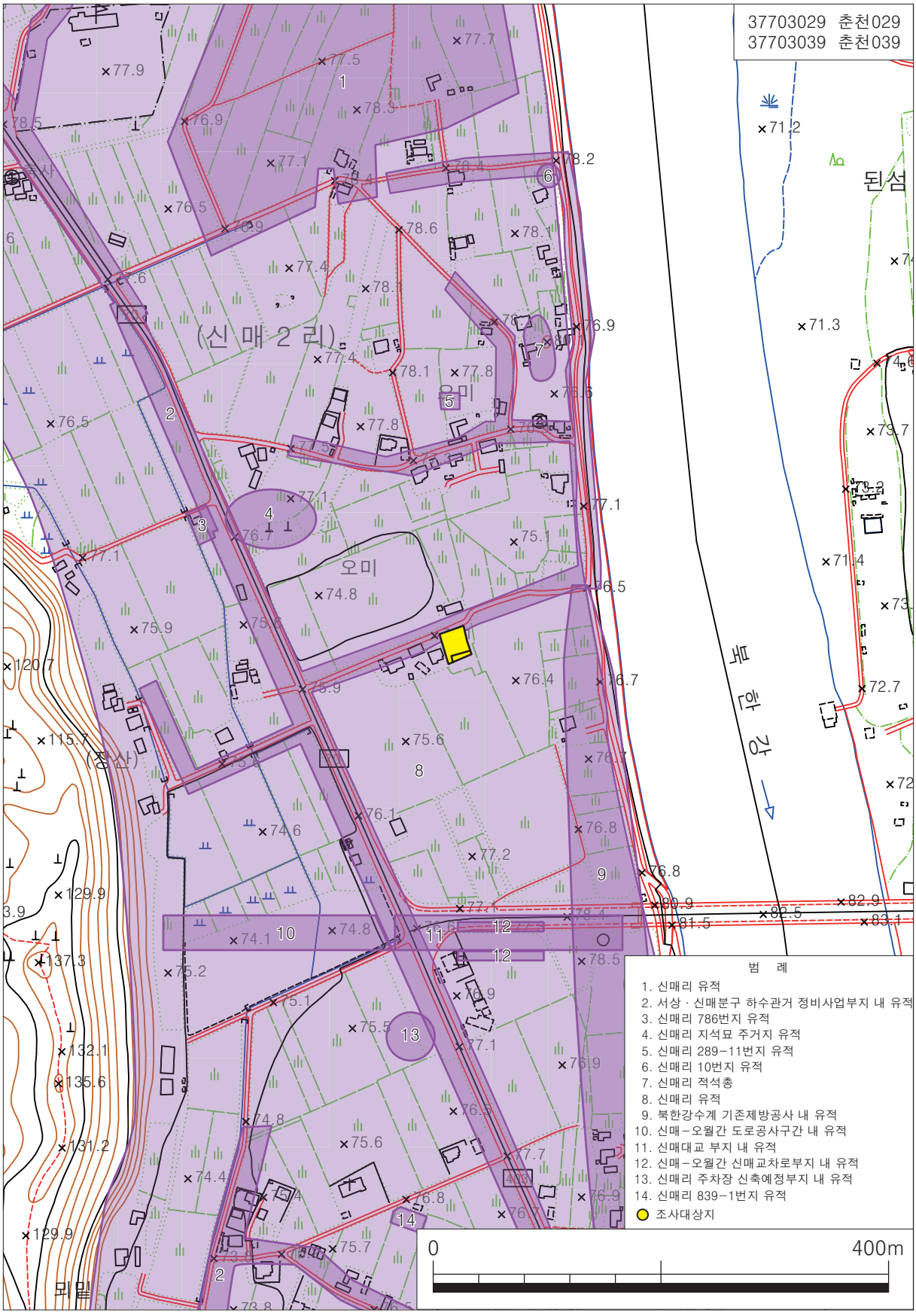
35)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춘천 현암리유적-춘천 서면 문화산업단지 조성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6) 한림대학교박물관, 2002,『춘천 하중도 제방공사 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춘천 중도동유적-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F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3,『춘천 중도동유적-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D-E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춘천 중도LEGOLAND KOREA Project B5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완료약식보고서」.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춘천 중도LEGOLAND KOREA Project B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완료약식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춘천 중도동유적-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A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6,「춘천 중도LEGOLAND KOREA Project G-1구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춘천 중도LEGOLAND KOREA Project C구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2017,「춘천 중도LEGOLAND KOREA Project A~E구역 내 유적(D구역)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2017, 「춘천 중도LEGOLAND KOREA Project D-5구역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3,『춘천 중도동유적-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D-E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5,「춘천 중도 순환도로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6,「춘천 중도LEGOLAND KOREA Project G-2구역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7,「춘천 중도LEGOLAND KOREA Project F구역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국토문화재연구원, 2017,「춘천 중도LEGOLAND KOREA Project G-3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37) 한림대학교발굴관, 2002,『춘천 삼천동 순환도로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06,『춘천 삼천동 37-12번지 주택건축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38) 예맥문화재연구소, 2010,『춘천 송암동유적-춘천 의암 레저스포츠타운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39)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거두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림대학교박물관, 2004,『춘천 거두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춘천 거두2지구 유적-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철기시대 유적은 중도[49]·신매리[50]·율문리[51]·천전리[52]·우두동[53]·근화동[54]·삼천동[55]·거두리·장학리[56]·군자리[57]·지내리[58] 등에서 주거유적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일부 유적에서는 중국 군현과의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중도와 신매리에 적석총[59]이 분포한다.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춘천 거두리 779-1번지 유적』.

40) 한국문화재재단, 2019,「75. 춘천 지내리 679-4번지 유적」,『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Ⅹ Ⅲ-75~81-』.
강원문화재연구소, 2019,「130. 춘천 동면 지내리 680-2번지 외 1필지 유적」,『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Ⅹ Ⅸ-124~130-』.

41) 한병삼 외, 1974,「소양강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팔당·소양댐수몰지구유적 발굴종합조사보고』,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42)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춘천 발산리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춘천지역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

43) 국립박물관, 1967,『한국지석묘연구』.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춘천 천전리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춘천지역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

44)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춘천 천전리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춘천지역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춘천 우두동 유적Ⅰ-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45) 한림대학교박물관, 1986,『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발굴보고서』.

46) 국립중앙박물관, 1982,『중도』진전보고Ⅴ.
노혁진 · 최은주, 1982,「제2장 중도 지석묘 발굴보고」,『중도발굴조사보고서』,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
국립중앙박물관, 1982,『중도』진전보고Ⅴ.
한림대학교박물관, 2002,『춘천 하중도 제방축조 공사지역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7, 「춘천 중도LEGOLAND KOREA Project A~E구역 내 문화재 발굴조사 한얼 E구역 완료 약식보고서」.
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춘천 중도LEGOLAND KOREA Project A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7) 한림대학아시아문화연구소, 1986,「강원도 유적 유물분포 총람」,『강원도의 선사문화』.
노혁진 · 장미영 · 심재연, 1994,「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림대학교박물관』.
노혁진 · 심재연, 1997,「춘천의 선사유적」,『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정연우, 2001,『북한강유역 지석묘 연구』,『사학지』제34집, 단국사학회.

48)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泉田里』.

49) 국립중앙박물관, 1980,『중도』진전보고Ⅰ;1981,『중도』진전보고Ⅲ.
한백문화재연구원, 2012,『춘천 중도 유적-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하중도A지구-』.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춘천 중도동 취락-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C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5,『춘천 중도동 유적-춘천 하중도 관광개발사업부지 내 B구역 발(시)굴조사 보고서』.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춘천 중도동 취락-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B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50)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 2003,『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원, 2005,『신매리 54-4번지 유적-주택신축 예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신매리 10 · 47-1번지 유적-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재단, 2017,「춘천 신매리 111-29번지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한국문화재재단, 2017,「춘천 신매리 67-8번지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51) 강원문화재연구원, 2008,『춘천 율문리 335-4번지 유적-춘천 율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춘천 율문리유적Ⅰ-춘천 율문리 75-2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韓國文化財財團, 2015,「4. 춘천 율문리 79-1번지 외1필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한국문화재재단, 2016,「7. 춘천 신매리 75-4번지 유적」,『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Ⅵ-강원2-』.

52) 강원문화재연구원, 2008,『泉田里』.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8. 춘천 천전리 90-17, 23번지 유적」,『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인천 · 경기 · 강원-』.
韓國文化財財團, 2015,「4. 춘천 천전리 97-1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韓國文化財財團, 2015,「4. 춘천 천전리 99-8번지 유적」,『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Ⅲ-강원-』.

삼국시대 이후의 유적은 고분 및 주거유적이 있는데, 고분유적은 고구려 고분의 형식을 취한 신매리·방동리·천전리 고분[60]과 신라고분으로 봉의산 고분군·만천리 고분[61]과 최근조사 된 발산리 고분이 있다. 이외에도 후평동·삼천동·우두동·신매리·중리·원창리·봉명리 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어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었다.

주거유적으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주거지로는 천전리·우두동·근화동[62] 및 소양로1가[63] 등에서 조사되었다. 특히 우두동 일대에서 확인되는 주거유적은 소양강이 회절하며 형성된 충적대지상에서 경작유구와 같이 확인되고 있어서 향후 주거공간과 생산유적간의 공간분석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화동유적과 송암동유적에서 확인되는 통일신라 취락의 존재는 우두주의 설치와 더불어 형성된 통일신라기 취락구조 형성 분석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소양로 와요지는 이러한 취락의 형성과 기와의 수급관계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

53) 강원문화재연구원, 2006,『춘천 우두동 707-1, 35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원, 2007,『춘천 우두동 롯데인벤스 우두파크 신축부지내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원, 2012,『춘천 우두동 유적Ⅱ-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 건물개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韓國文化財財團, 2015,「3. 춘천 우두동 89-2번지 유적」,『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강원3-』.

54)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1,『춘천 근화동유적-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 내 A구역 유적 발굴조사-』.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춘천 근화동유적-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 내 B구역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춘천 근화동유적-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 내 C구역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55) 한림대학교박물관, 2002,『춘천 삼천동 37-12번지 주택건축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56) 강원문화재연구원, 2011,『춘천 장학리 Ⅰ유적-소양 5교~국도5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재단, 2018,「27. 춘천 장학리 439-6번지 유적」,『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강원2-』.
한국문화재재단, 2018,「28. 춘천 장학리 439-22번지 유적」,『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강원2-』.

57)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춘천 군자리유적-서울-춘천고속도로 8공구 N·O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5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7. 춘천 지내리 689-3번지 유적」,『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인천·경기·강원-』.

59) 박한설·최복규, 1982,「제1장 중도적석총 발굴보고」,『중도발굴조사보고』, 중도선사유적 발굴조사단.
심재연, 2003,「북한강유역 적석총 지표조사보고」,『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60) 조유전, 1987,「춘성군 신매리 고구려식 석실분일례」,『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Ⅰ(고고학편)』.
한림대학교박물관, 1995,『정비보존을 위한 방동리고분 발굴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泉田里』.

61) 한림대학교박물관, 1985,『한림대학 박물관보』창간호.
한림대학교박물관, 2000,『춘천시 동면 만천리 고분 발굴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0,『춘천 발산리 유적-춘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신북-용산) 건설공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62) 한국문화재재단, 2017,「7. 춘천 근화동 796-11번지 유적」,『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경기2·강원1-』.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6. 춘천 근화동160-2, 160-13번지 유적」,『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경기2·강원1-』.
국토문화재연구원, 2018,「춘천 근화동(798-23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국비)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7,『춘천 근화동 786-1번지 유적-춘천 근화동 786-1번지 일원 휴게시설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63) 한국문화재재단, 2019,「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춘천 소양로1가 92-26번지 유적」.
한백문화재연구원, 2018,「춘천 소양로1가(93-8번지) 주유소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조선시대 주거지 및 건물지 유적은 천전리·발산리·우두동·장학리·근화동·현암리·금산리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밭 등의 경작유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춘천지역에는 소위 '貊國'이라는 국가적 성격을 띤 정치체가 존재했다고 하나 현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미약하다[64]. 춘천지역이 객관적으로 문헌기록에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은 삼국시대가 형성되면서 부터이다. 삼국사기의 온조왕조의 '走壤'이라는 기록[65]을 근거로 하여 백제의 영역으로 일찍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한성백제의 영향은 춘천 거두리유적[66]과 홍천 하화계리유적 출토유물로 보면 적어도 기원후 3세기 후엽 경에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인된 화천 원천리유적을 볼 때, 기원후 4세기경에 백제의 직접지배 영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구려의 남진과 더불어 5~6세기 전반까지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춘천지역은 '烏根乃[67]'라는 고구려식 지명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고학 자료는 고구려계 묘제가 반영된 서면 방동리, 신매리에서 조사된 말각식천장의 석실분과 천전리고분이 있다.

이후 신라 진흥왕의 한강유역 진출기에 북한강유역도 신라의 영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선덕여왕 6년(637)에 이르면 우두주를 설치하고 군주를 파견하였다는 기록[68]으로 보아 군사적 행정적인 체제가 완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무왕 13년(673) 수약주로 개편되었고, 경덕왕 13년(757)에는 삭주로 고쳐져 1소경(북원경), 11군, 27현을 거느린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69]. 신라말에 광해주로 한때 바뀌었으나 고려 태조 23년(940) 춘주라는 지명이 붙여진다. 이후 성종 14년(995) 전국을 10개도로 나누었을 때 춘천지역은 교주(회양), 동주(철원), 창주(연천), 등주(안변), 명주(강릉), 보주(삼척) 등과 함께 삭방도에 편제되어 화주(영흥)에 설치된 안변 도호부에 소속되었고, 이후 교주도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군현 이름의 개편과 더불어 춘주에서 춘천으로 지명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고종 32년(1895)에는 종전 8도를 폐지하고 23개부를 설치하였으나 다음해인 1896년 23부제가 다시 13도제로 개정되면서 관찰부를 도청으로 개편하였고, 춘천군이 되어 1읍, 10면, 108리를 관할하였다.

1946년 미군정 하에서 춘천읍이 춘천부로 승경되고, 춘천군을 천성군으로 개편하였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춘천시로 개편되었다. 1995년 1월 1일 33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춘천시와 춘천군이 통합되어 도 · 농 복합형태의 춘천시가 되었다.

---

64)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5,『春川貊國의 歷史的 硏究-貊國의 역사적 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심재연, 2004,「춘천 맥국설 정립을 위한 제언」,『江原文化史硏究』第9輯, 강원향토문화연구회.
김창석, 2009,「고대의 영서 지역과 춘천 맥국설」,『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이태진교수 정년기념논총강행위원회.

65)『三國史記』卷第二十三.「百濟本紀」第一, 溫祚王十三年條.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畫定疆 北至浿河 南限 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 溫祚王三十八年條. 春二月 王巡撫 東至走壤 北至浿河 五旬而返'

66)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거두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7)『三國史記』卷第三十七.「雜志」第六, 地理四, 高句麗·百濟條. '牛首州 首一作頭一云首次若一云烏根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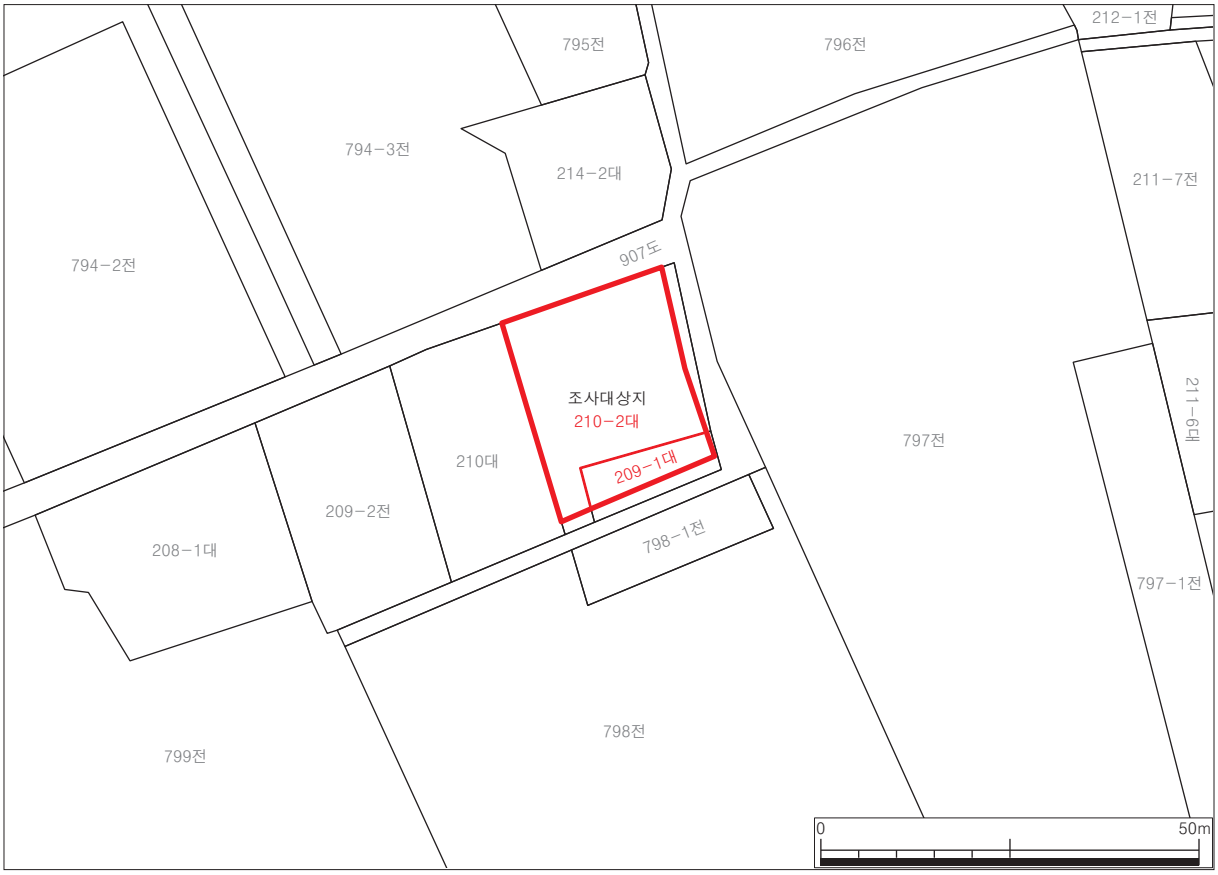
68)『三國史記』卷第三十五.「雜志」第四, 地理二, 朔州條.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爲中首州置軍主一云文武王十三年 唐咸淳四年 置首若州 景德王改爲朔州 今春州 領縣三'

69)『三國史記』卷第九,「新羅本紀」第九 景德王 十六年條, '冬十二月, 改所伐州爲尙州領州一郡十縣三十 … (중략) … 首若州爲朔州領州一小京一郡十一縣二十七 … '.

【표 1】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춘천 신매리 373-6번지 주택신축부지	북쪽 964m	청동기, 조선 주거지, 적석유구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신매리 373-6번지 유적 주택신축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	춘천 신매-오월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B지구 유적	북서쪽 900m	구석기 몸돌, 격지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춘천 서상리유적 -춘천 신매-오월간 도로확 · 포장공사구간 내 B지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	춘천 신매리유적	북쪽 610m	신석기~철기, 조선 주거지, 야외노지	예맥문화재연구원, 2015,『춘천 신매리유적(사적 제489호) 시굴조사 보고서』	
4	춘천 서면 신매리 10번지 주택 예정부지 내 유적	북동쪽 430m	신석기~청동기 주거지, 수혈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신매리 10, 47-1번지 유적 주택신축 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	춘천 신매리 지석묘	북서쪽 191m	청동기 지석묘, 주거지	한림대학교박물관, 1984,『춘천 신매리 지석묘 주거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	춘천 신매리 289-11번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북쪽 221m	청동기, 조선 주거지, 토광묘	한국문화재재단, 2016,『2014년도 소규모발굴조사 보고서VI -강원2-』	
7	춘천 신매대교 가설공사 지역 내 유적(발굴)	남쪽 220m	청동기~철기 소형유구, 주거지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춘천 신매 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8	춘천 신매-오월 간 도로 확장구간 중 신매교차로 부지 내 유적	남서쪽 346m	청동기 주거지, 수혈	예맥문화재연구원, 2017,『춘천 신매리유적 II』	
9	춘천 신매-오월간 도로 공사구간 내 A지구	남쪽 255m	청동기~철기 지석묘, 주거지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춘천 신매리유적 I 』	
10	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 예정부지 내 유적	남쪽 329m	청동기 주거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유적』	
11	춘천 신매리 839-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남쪽 496m	청동기, 조선 주거지, 수혈	韓國文化財財團, 2015,『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 -강원3-』	
12	춘천 신매리 주택신축 부지 내 유적(시굴)	남쪽 580m	청동기~철기 주거지, 수혈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신매리 54-4번지 유적』	
13	춘천 북한강수계 기존제방 보강공사구간 내 유적	남동쪽 584m	청동기 주거지, 수혈	한림대학교박물관, 2012,『춘천 북한강수계 기존제방 보강공사 구간 내(신매1제)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14	춘천 서면 신매리 47-1 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남동쪽 594m	청동기~철기 주거지, 수혈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신매리 10, 47-1번지 유적 주택신축 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5	4대강 살리기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조사구역 내	신석기~조선 유물산포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북한강)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춘천인형극장 사거리에서 신샘밭로를 따라 서쪽으로 신매대교를 건넌 후 박사로와 만나는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220m 정도를 진행하면 삼거리가 있으며 그 삼거리에서 북한강 방향으로 130m 더 가면 남쪽에 위치한다.

유적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설계도상 건물은 북쪽에 치우쳐 건축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의 전체 대지면적은 661㎡이고 조사대상지 남동쪽과 북동쪽의 도로공제면적 77㎡를 제외한 584㎡에 대해서 건축하고자 하여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 신청서를 기준으로 584㎡에 대해서만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유적은 북배산(869.6m)에서 뻗어 내린 능선 사이에 형성된 배후습지에 위치한다. 유적 동쪽으로 소양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이 소양강 중앙에는 된섬(위도)이 위치한다. 북쪽과 서쪽에는 민가가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논이나 밭 등의 경작지와 농업용 하우스가 형성되어 있다.

1. 시굴조사(도면 4, 도판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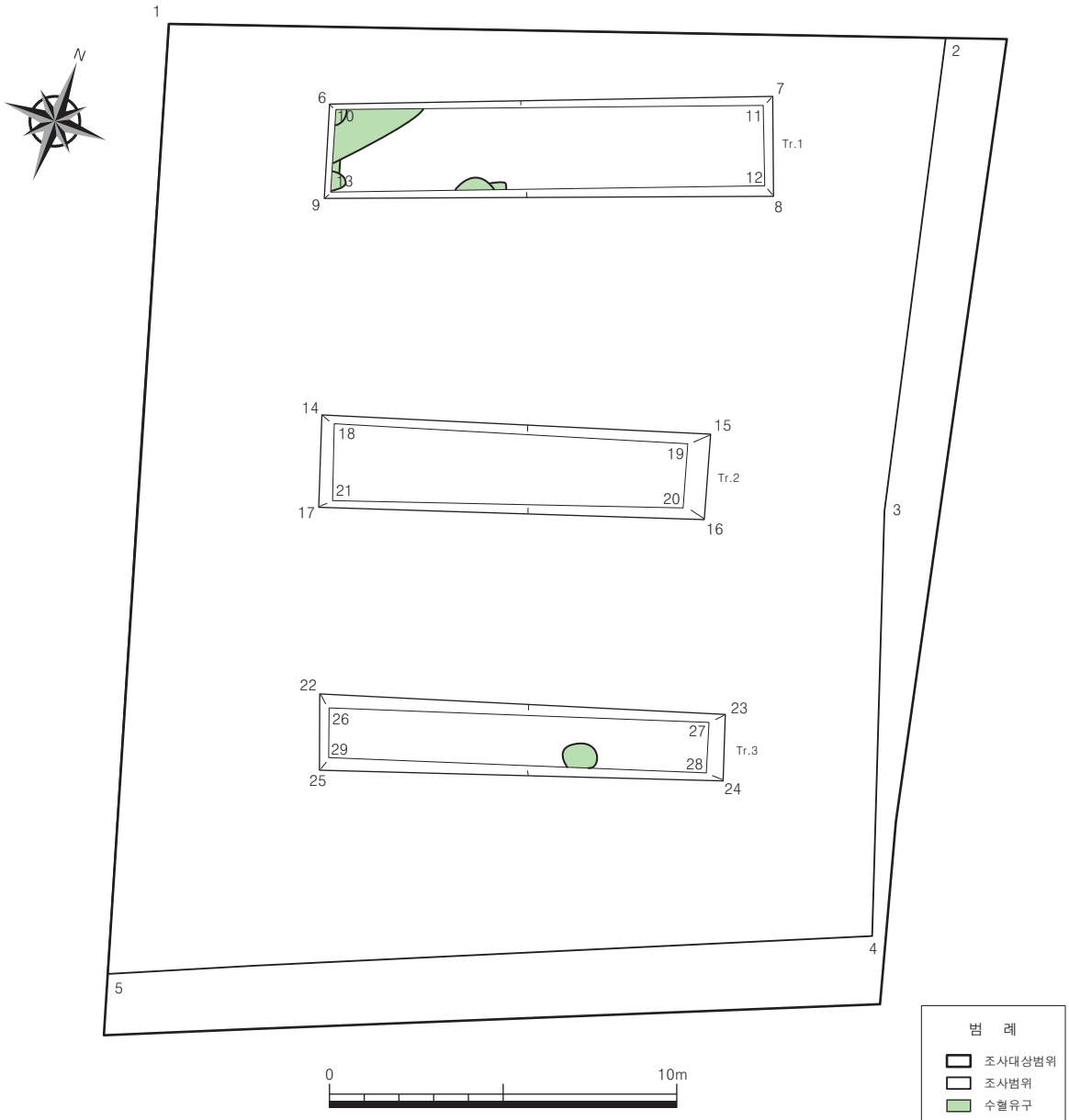
시굴조사 트렌치는 주변 지형과 조사대상지의 평면형태를 고려하여 북동-남서방향으로 3개 설치하였고 북쪽부터 트렌치 1·2·3으로 명명하였다.

트렌치의 제토 및 유구 확인은 전체적인 층위를 파악하면서 실시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생토까지 제토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토는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제토를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정리하면서 퇴적양상과 유구 및 유물의 유존여부를 확인하였다.

트렌치 1은 조사대상지 북쪽경계에서 2m 떨어져 설치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1,300㎝, 너비 250㎝, 깊이 100㎝이다. 트렌치 내 퇴적양상은 회색사질토(표토) - 흑갈색사질점토(복토층) - 명갈색사질점토(자연퇴적층) - 회갈색사질점토(자연퇴적층) - 암갈색사질점토+갈색점토(유구확인층) - 명황색사질점토(기반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유구는 유구확인층인 암갈색사질점토에서 확인되었다. 트렌치 서단벽에 인접하여 수혈유구 4기, 남장벽에 인접하여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단벽에 접해서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트렌치 2는 트렌치 1에서 남쪽으로 6m 이격하여 설치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1,100㎝, 너비 250㎝, 깊이 110㎝이다. 토층퇴적양상은 트렌치 1과 대동소이한데, 트렌치 2에서는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트렌치 중앙부에서 서단벽까지 트렌치 바닥까지 교란된 구덩이가 확인되었다.

트렌치 3은 트렌치 2에서 남쪽으로 6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1,100㎝, 너비 220㎝, 깊이 110㎝이다. 토층퇴적양상은 트렌치 1·2와 대동소이하다. 트렌치 남장벽에 인접하여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서단벽에 인접하여 교란구덩이가 확인되었는데, 트렌치 2 서단벽에 접하여 확인된 교란구덩이와 연결된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591832.830m Y 262486.500m Z 76.068m	GPS4	X 591815.930m Y 262515.080m Z 76.068m	GPS7	X 591837.360m Y 262503.640m Z 76.159m	GPS10	X 591832.330m Y 262491.680m Z 75.112m	GPS13	X 591830.030m Y 262492.820m Z 75.100m	GPS16	X 591825.230m Y 262505.900m Z 75.969m	GPS19	X 591827.160m Y 262504.650m Z 75.022m	GPS22	X 591816.470m Y 262497.620m Z 75.977m	GPS25	X 591814.360m Y 262498.210m Z 76.004m	GPS28	X 591818.490m Y 262508.850m Z 75.051m
GPS2	X 591840.730m Y 262507.460m Z 76.023m	GPS5	X 591806.630m Y 262495.020m Z 76.131m	GPS8	X 591834.690m Y 262504.480m Z 76.117m	GPS11	X 591837.060m Y 262503.230m Z 75.107m	GPS14	X 591824.000m Y 262494.690m Z 75.990m	GPS17	X 591821.470m Y 262495.590m Z 75.980m	GPS20	X 591825.360m Y 262505.390m Z 74.983m	GPS23	X 591820.290m Y 262508.920m Z 76.036m	GPS26	X 591816.200m Y 262498.010m Z 74.529m	GPS29	X 591814.860m Y 262498.530m Z 74.655m
GPS3	X 591827.700m Y 262510.780m Z 76.168m	GPS6	X 591832.470m Y 262491.680m Z 76.078m	GPS9	X 591829.830m Y 262492.460m Z 75.971m	GPS12	X 591834.880m Y 262504.160m Z 75.405m	GPS15	X 591827.550m Y 262505.360m Z 75.986m	GPS18	X 591823.880m Y 262495.120m Z 74.606m	GPS21	X 591821.710m Y 262495.880m Z 74.689m	GPS24	X 591818.460m Y 262509.330m Z 76.043m	GPS27	X 591819.870m Y 262508.380m Z 75.014m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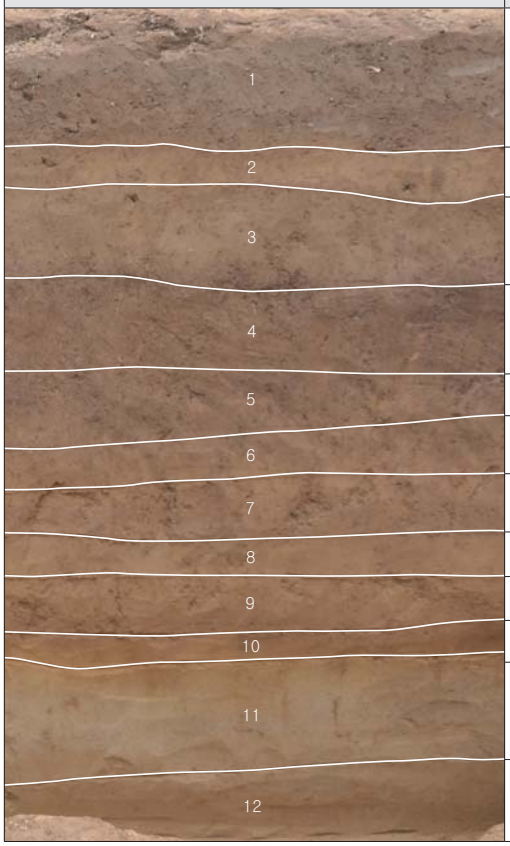
2. 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던 층위를 기준으로 제토하여 문화층과 유구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발굴조사 완료 후 하부 문화층 및 유구 유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트렌치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지 북·동쪽경계에 접하고 중앙부분에 북동-남서방향으로 트렌치 3개를 설치하였다.

트렌치 내 탐색PIT를 설치하여 토층퇴적양상을 파악하였다. 본 유적의 유구확인층 하부에는 자연퇴적층과 하상퇴적층이 퇴적되었으며, 자연퇴적층은 갈색사질토, 갈색사질점토, 황색사질토가 확인되었다. 자연퇴적층 하부에는 하상퇴적층인 갈색점토와 황갈색사질점토, 명황색사질토, 황갈색사질토가 층층이 수평퇴적되어 있었다.

【표 2】 조사대상지 기준토층

토 층	내 용	
	1층 : 갈색사질토	표토층 (두께 30㎝)
	2층 : 명갈색사질토	복토층(지표 하 30~40㎝)
	3층 : 회갈색사질토+쓰레기	복토층(지표 하 40~60㎝)
	4층 : 회갈색사질점토	자연퇴적층(지표 하 60~80㎝)
	5층 : 암갈색사질점토	유구확인층(지표 하 80~100㎝)
	6층 : 갈색사질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100~141㎝)
	7층 : 갈색사질점토	
	8층 : 황색사질토	
	9층 : 갈색점토	하상퇴적층 (지표 하 230㎝이상)
	10층 : 황갈색사질점토	
	11층 : 명황색사질토	
	12층 : 황갈색사질토	

유적의 토층양상은 남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갈색사질토+식물뿌리(1층:표토층) - 명갈색사질토(2층)+회갈색사질토+쓰레기(3층:복토층) - 회갈색사질점토(4층:자연퇴적층) - 암갈색사질점토(5층:유구확인층) - 갈색사질토(6층)+갈색사질점토(7층)+황색사질토(8층:자연퇴적층) - 갈색점토(9층)+황갈색사질점토(10층)+명황색사질토(11층)+황갈색사질토(12층:하상퇴적층)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이 중 6~12층은 5층에서 확인된 유구들에 대한 발굴조사 완료 후 하부문화층 유무확인을 위해서 설치한 트렌치에서 확인된 층위들이다.

1층은 표토층으로 갈색사질토와 식물뿌리 등이 뒤섞여 있었다. 조사대상지가 밭으로 경작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층의 두께는 약 30㎝이다.

2·3층은 복토층이다. 2층은 명갈색사질토로 조사대상지 남쪽 및 동쪽 경계에서만 확인되는 층이다. 토질이 안정적이지 않고 층의 두께는 약 10㎝정도이다.

3층은 조사대상지 전체에서 확인되었는데 회갈색사질토 내에 쓰레기가 함께 매몰되었다. 층의 두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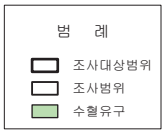
는 약 20㎝정도이다.

4층은 자연퇴적층으로 조사대상지 전체에서 확인되었는데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두터워진다. 층의 두께는 20㎝이다.

5층은 유구확인층으로 암갈색사질점토에서 수혈유구 5기가 확인되었다. 이 층은 조사대상지 전체에 걸쳐 안정적으로 퇴적되었다. 두께는 20㎝정도이다.

6층과 7층은 자연퇴적층으로 갈색사질토와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층의 두께는 각각 15㎝ 정도이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591832.950m	GPS3	X	591818.210m	GPS5	X	591832.740m
	Y	262486.590m		Y	262514.400m		Y	262488.840m
	Z	76.130m		Z	76.070m		Z	75.090m
GPS2	X	591841.140m	GPS4	X	591807.530m	GPS6	X	591818.300m
	Y	262507.930m		Y	262494.790m		Y	262513.820m
	Z	76.070m		Z	76.170m		Z	74.890m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8층은 6~7층과 동일하게 자연퇴적층으로 황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9~12층은 하상퇴적층으로 갈색점토-황갈색사질점토-명황색사토-황갈색사질토가 수평퇴적되었다.

이 중 6~12층은 5층에서 확인된 유구들에 대한 발굴조사 완료 후, 하부문화층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트렌치 1 내부에 설치한 탐색PIT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시대미상 수혈유구 5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유구의 분포양상은 조사구역의 중앙에서 북서쪽에 치우쳐서 수혈유구 3기와 동쪽으로 치우쳐서 수혈유구 2기가 조사되었는데, 조사대상지 전면에 걸쳐서 교란구덩이와 기존 건물의 기초로 인해서 상당부분이 훼손되었다. 조사구역 서쪽 경계에 인접한 수혈유구부터 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유구번호를 명명하였다.

〈시대미상〉

1) 수혈유구

수혈유구의 굴광선은 암갈색사질점토 상부에서 확인되었고 평면형태는 원형과 부정형 및 방형이 섞여 있다. 크기는 1m 내의 소형이며, 잔존 깊이는 5~15㎝로 잔존상태가 불량한 편이다. 수혈유구의 벽면은 완만하고 바닥은 약간 오목하게 굴착하였으며, 내부에는 황색 또는 황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1) 수혈유구 1호

가. 유구(도면 6, 도판 6-②~⑤)

조사구역의 서쪽 경계 중앙부와 인접하여 있으며, 해발 75.0m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250㎝ 떨어져 수혈유구 2호가 자리하고 있다.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45°-W)향이다. 크기는 길이 60㎝, 너비 50㎝, 깊이 11㎝ 정도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토가 단일층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완만하고, 바닥은 오목하게 굴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수혈유구 2호

가. 유구(도면 6, 도판 7-①~④)

조사구역의 서쪽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해발 75.0m에 위치한다. 유구에서 남서쪽으로 250㎝ 떨어져 수혈유구 1호가 있고, 북쪽으로 400㎝ 떨어져 수혈유구 3호가 있다.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10°-E)향이다. 크기는 길이 82㎝, 너비 35~52㎝, 깊이 22㎝ 정도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토가 단일층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은 비교적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 수혈유구 3호

가. 유구(도면 6, 도판 7-⑤~⑧)

조사구역의 북서쪽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해발 75.0m에 위치한다. 유구에서 남쪽으로 400㎝ 떨어져 수혈유구 2호가, 남서쪽으로 700㎝정도 떨어져 수혈유구 1호가 있다.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지름 60㎝, 깊이 14㎝ 정도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토가 단일층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은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 수혈유구 4호

가. 유구(도면 6, 도판 8-①~④)

조사구역의 동쪽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해발 75.1m에 위치한다. 유구에서 북쪽으로 400㎝ 떨어져 수혈유구 5호가 있다.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크기는 길이 104㎝, 너비 102㎝, 깊이 5㎝ 정도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적색사질토가 단일층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은 비교적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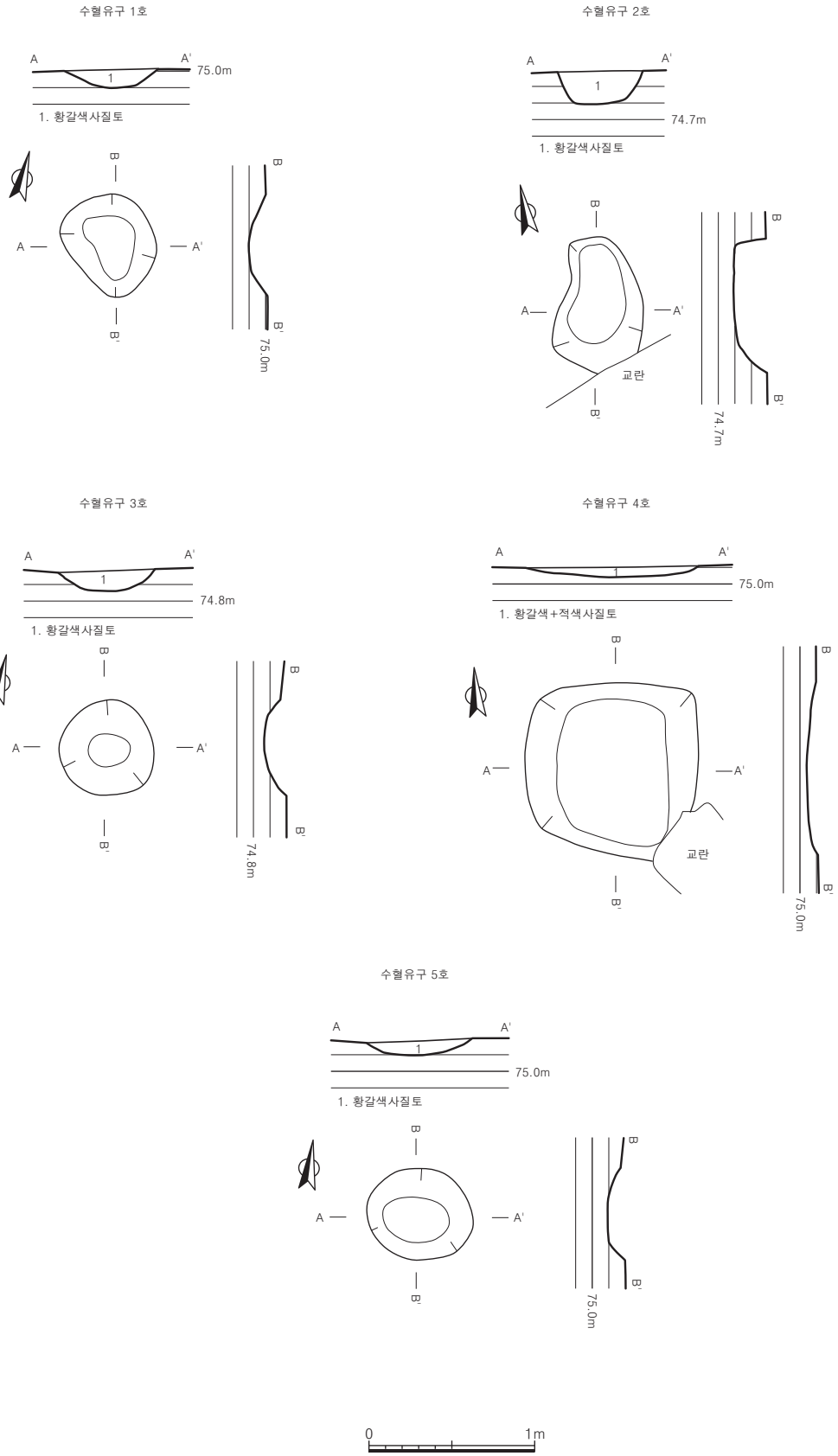
(5) 수혈유구 5호

가. 유구(도면 6, 도판 8-⑤~⑧)

조사구역의 동쪽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해발 75.2m에 위치한다. 유구에서 남쪽으로 400㎝ 떨어져 수혈유구 4호가 있다.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지름 66㎝, 깊이 10㎝ 정도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토가 단일층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은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수혈유구 1호
A
A'
75.0m
1
1. 황갈색사질토
B
B'
75.0m
수혈유구 2호
74.7m
교란
74.7m
수혈유구 3호
74.8m
74.8m
수혈유구 4호
75.0m
75.0m
수혈유구 5호
75.0m
75.0m
0
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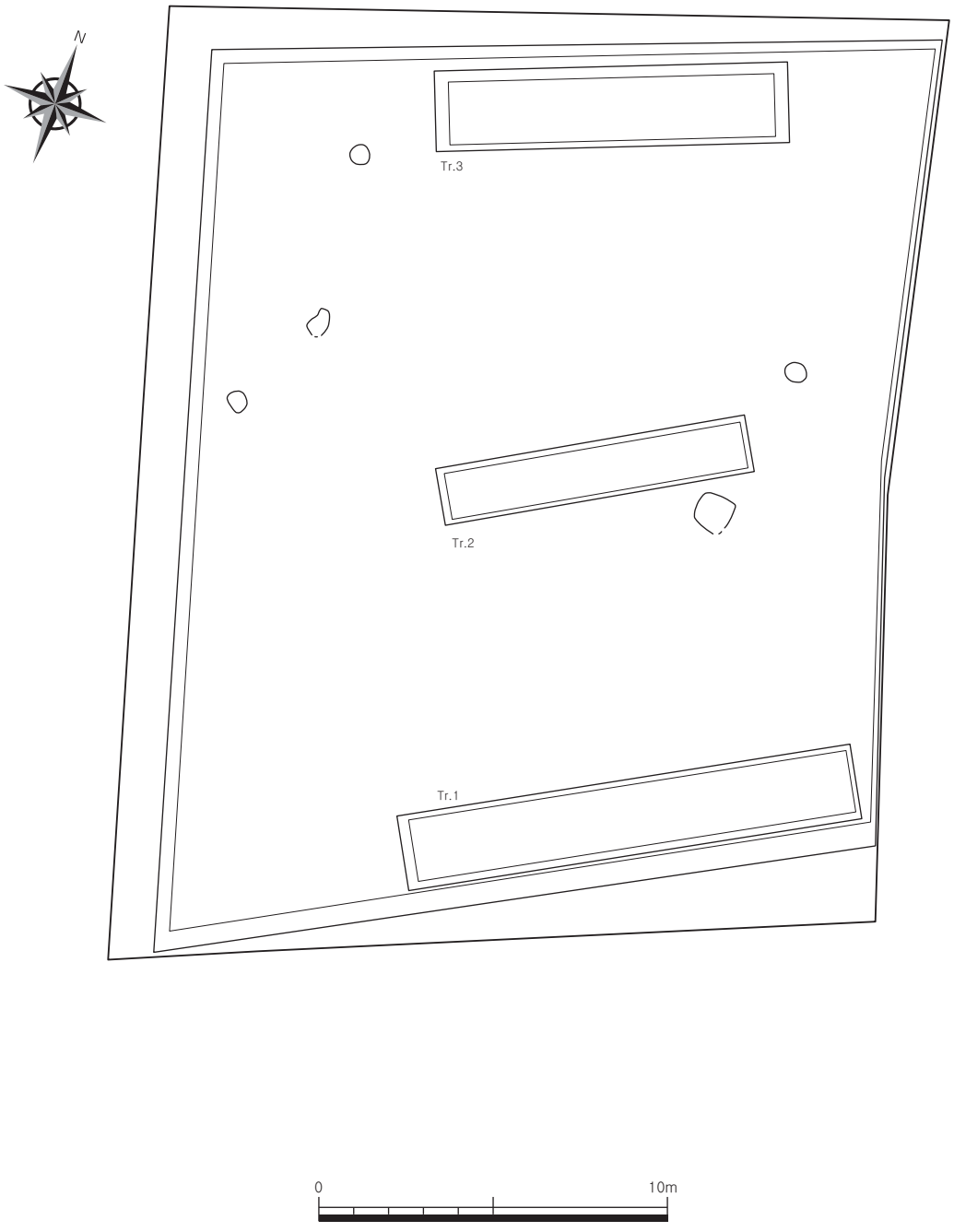
도면 6. 수혈유구 1~5호

2) 하부 탐색 조사

가. 트렌치(도면 7, 도판 9 · 10)

상부의 수혈유구 조사 완료 후 하부문화층의 유무확인을 위하여 남·북쪽 경계와 중앙부에 동-서(N-70°-E)향으로 탐색트렌치 3개소를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 1은 조사구역 남쪽 경계에 접하여 설정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1,300㎝, 너비 200㎝, 깊이



도면 7. 하부 트렌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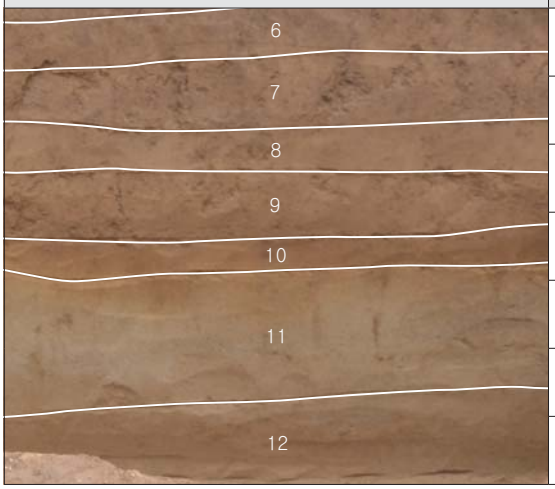
50~250㎝이다. 수혈유구가 확인된 암갈색사질점토층(유구확인층) 아래에는 갈색사질토 또는 사질점토 및 황갈색사질토(자연퇴적층) - 갈색사질점토·갈색점토(하상퇴적층)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갈색계통의 사질점토와 사질토가 반복적으로 퇴적되었다. 트렌치 내에서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렌치 2는 조사구역 중앙에 설치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900㎝, 너비 200㎝, 깊이 55~60㎝이다. 시굴조사에서 설정한 트렌치 2의 길이를 확장하여 조사하였다. 트렌치 내 퇴적양상은 트렌치 1과 대동소이하며,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렌치 3은 조사구역 북쪽 경계에 설치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1,000㎝, 너비 200㎝, 깊이 110㎝이다. 퇴적양상은 트렌치 1과 2와 대동소이하며, 트렌치 내에서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하부문화층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트렌치들을 설정하였고, 토층퇴적양상 파악을 위해서 트렌치 1 동단벽쪽에 탐색피트를 설정하였다. 아래에는 위에서 제시한 기준토층 중 이 트렌치 조사와 관련된 토층퇴적 모습을 제시하였다.

【표 3】 트렌치 1 동단벽 토층

토 층	내 용	
	6층 : 갈색사질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141㎝)
	7층 : 갈색사질점토	
	8층 : 황색사질토	
	9층 : 갈색점토	하상퇴적층 (지표 하 230㎝이상)
	10층 : 황갈색사질점토	
	11층 : 명황색사질토	
	12층 : 황갈색사질토	

6층과 7층은 자연퇴적층으로 갈색사질토와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층의 두께는 각각 15㎝ 정도이다.

8층은 본 유적 인근에서 조사된 신매리 43-2·47-1·393-1·839-1번지 유적, 신매대교부지 유적 등에서 청동기~철기시대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9~12층은 하상퇴적층으로 소양강 범람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탐색 조사결과, 하부에서 유구 및 유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연퇴적층과 하상퇴적층만 확인되었다. 자연퇴적층은 갈색사질토, 갈색사질점토, 황색사질토가 확인되었다. 하상퇴적층인 갈색점토와 황갈색사질점토, 명황색사질토, 황갈색사질토가 층층이 수평퇴적 되었다. 하상퇴적층은 위의 자연퇴적층들에 비해서 사질성분이 강하며, 아래로 갈수록 입자가 고운 편으로 조사대상지 북쪽에 인접한 소양강의 영향으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조사성과

본 유적은 단독주택 신축부지로,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209-1·210-2번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면적은 584㎡이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현장일수 7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 주변은 신매리 유물산포지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주변에는 신매대교부지 유적·신매리 주차장 신축부지 유적·신매리 43-2·54-4·66-14·373-6·839-1·289-11·786·393-1·70-6·66-14번지 유적 등 선·역사시대의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의 대부분이 교란된 상태였으며 교란구덩이를 피해서 수혈유구 5기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모두 내부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방형·부정형이 확인되었고, 규모는 길이 100㎝내외, 깊이는 5~15㎝ 내외로 소형유구이다. 잔존상태 역시 삭평과 교란으로 매우 불량하다.

발굴조사 후 암갈색사질점토 하부의 문화층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트렌치를 설정하였다. 주변의 조사성과를 통해 볼 때, 8층인 황색사질토에서 선사시대 유구가 확인되어야 하나 본 유적에서는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층 아래에는 소양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하상퇴적층이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에서 북쪽으로 220m 떨어진 신매리 786번지 유적과 남쪽으로 250m 떨어진 신매대교 부지 내 유적에서는 청동기~삼국시대 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70]. 하지만 신매리 786번지 유적과 신매대교 부지 내 유적[71] 사이에 위치하는 신매리 274-10[72]·274-13[73]번지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조사대상지 인근지역의 발굴성과로 볼 때, 본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확인층은 인접 유적들에서 확인되지 않는 문화층이며, 유구의 모양이 정연하지 않고 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주변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조사구역을 포함한 주변 일원은 북쪽과 남쪽에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선사시대 마을 사이의 완충지대로 판단된다.

---

70) 조사대상지 인근지역의 청동기 · 철기시대 유적은 남쪽으로는 신매대교부지 유적을 포함하여 신매리 주차장예정부지 유적(320m) · 신매리 43-2(500m) · 신매리 839-1(500m) · 54-4(610m) · 47-1(550m) · 66-14번지 유적(820m)이 있고, 북쪽으로는 신매리 10(420m) · 393-1(1,000m) · 786(220m)번지 유적 등이 있는데, 조사대상지 외곽으로만 유적이 위치한다.

71) 한림대학교 박물관, 2003,『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72) 韓國文化財財團, 2017.7,「소규모 국비지원 시굴조사 약보고서 -[춘천 신매리 274-10번지 일원 유적-]」.

73) 韓國文化財財團, 2017.7,「소규모 국비지원 시굴조사 약보고서 -[춘천 신매리 274-13번지 일원 유적-]」.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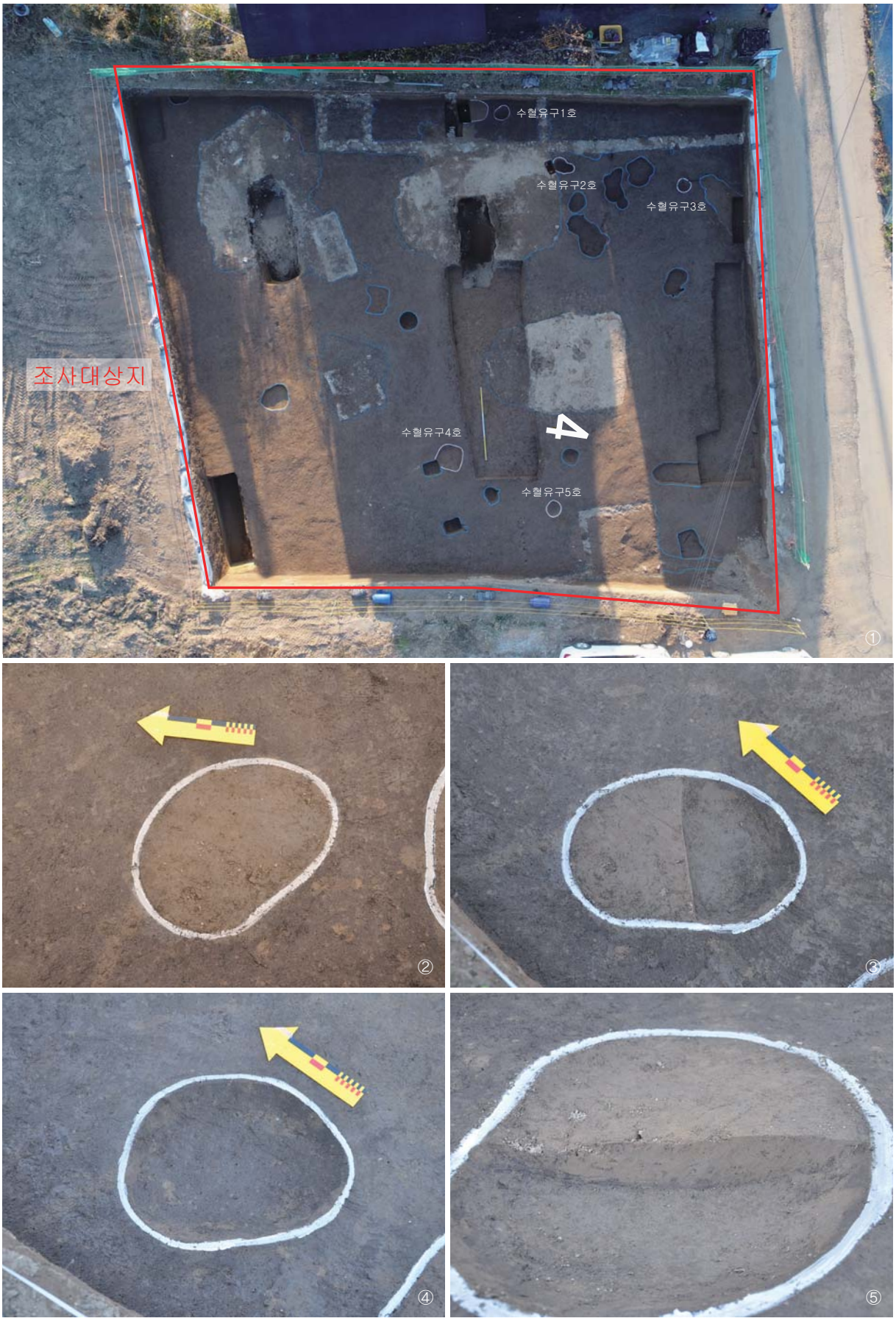
도판 1. 시굴조사 대상지 (①조사전, ②조사후)

도판 2. 시굴조사 트렌치1(①조사후, ②북단벽, ③남단벽, ④동장벽, ⑤서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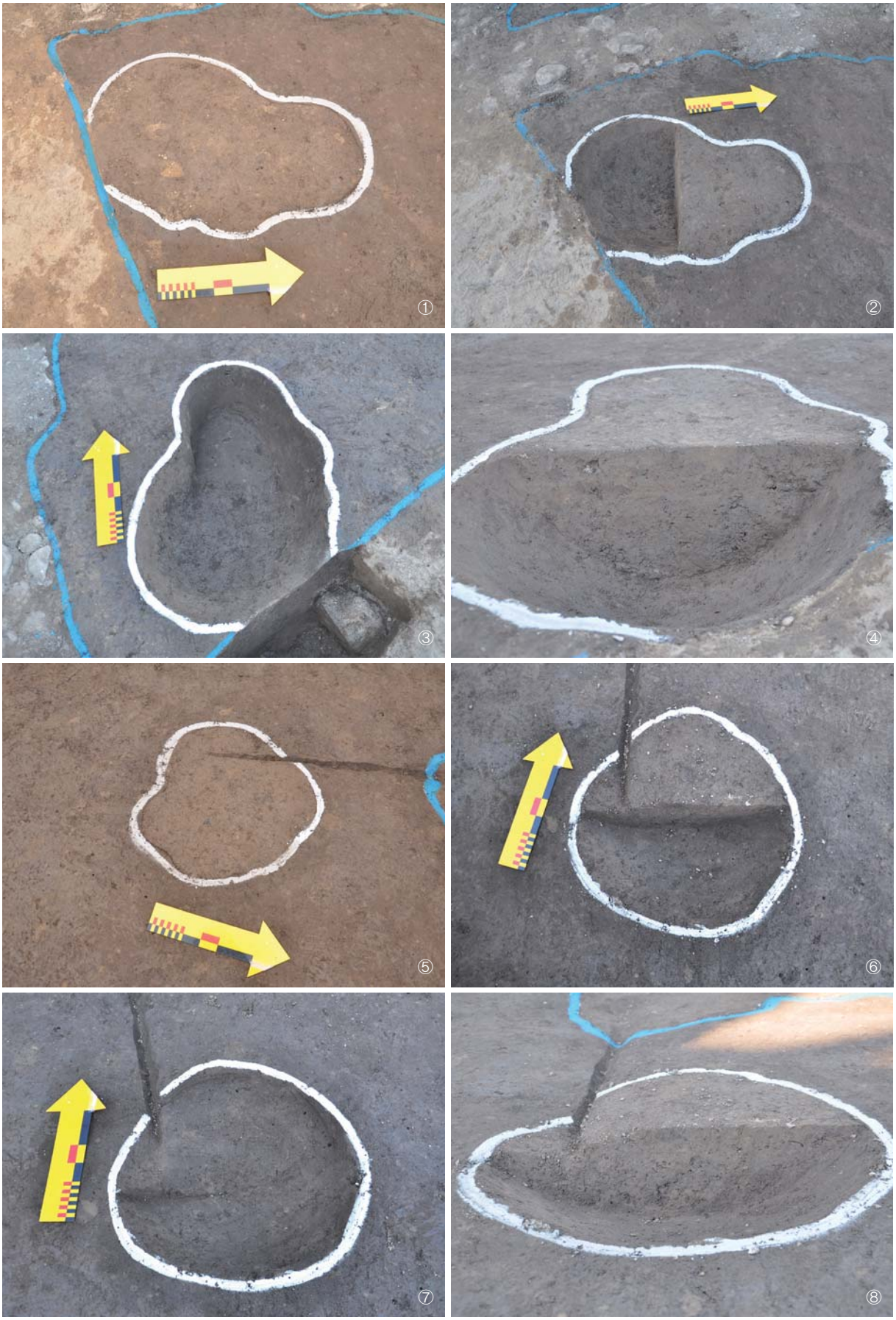
도판 3. 시굴조사 트렌치2(①조사후, ②북단벽, ③남단벽, ④동장벽, ⑤서장벽)

도판 4. 시굴조사 트렌치3(①조사후, ②북단벽, ③남단벽, ④동장벽, ⑤서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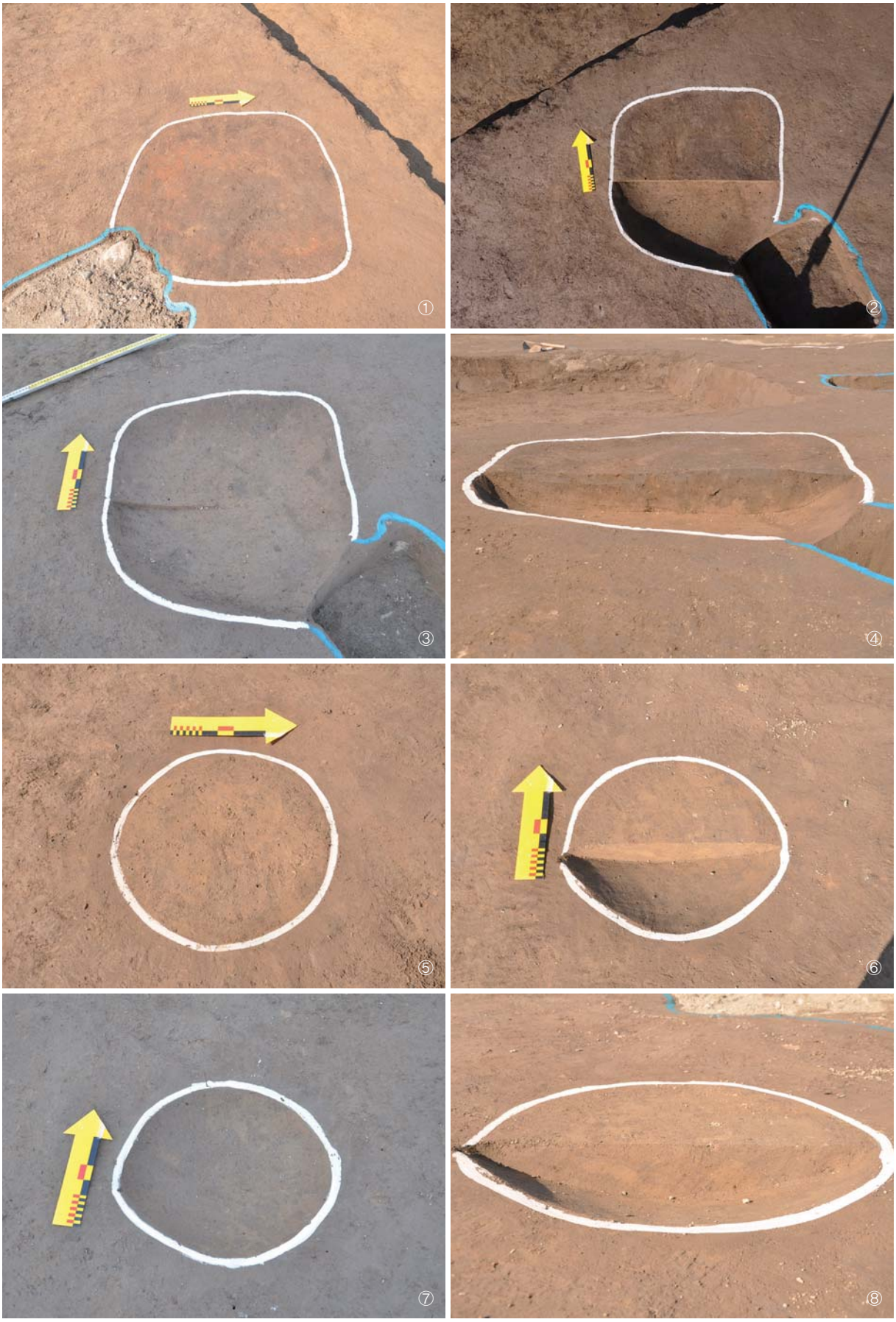
도판 5. 발굴조사 대상지(①원경, ②제토후)



도판 6.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후) 및 수혈유구 1호(②조사전, ③조사중, ④조사후, ⑤토층)



도판 7.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3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도판 8.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5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도판 9. 하부 탐색 조사(①조사후) 및 트렌치I(②조사후, ③동단벽, ④남장벽)

도판 10. 하부 탐색 조사트렌치2(①조사후, ②서단벽, ③남장벽) 및 트렌치3(④조사후, ⑤서단벽, ⑥북장벽)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춘천 신매리 210-2번지 외 1필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 3011-2173	FAX	(02) 566-5954
執筆 · 編輯者	정훈진 · 이건충 · 김효환 · 정홍선 · 박자연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박종섭 · 이창욱 · 김효환 · 전은정 · 석제섭 · 김정민 · 양현승			
遺蹟調査地番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209-1, 210-2번지			
調査面積	584㎡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수혈유구	시대미상	5	-	

143. 울주 석천리 250-4번지 외 1필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43- 5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43- 7

Ⅲ. 조사내용 ····· 143-12
1) 토광묘 1호 ····· 143-14
2) 토광묘 2호 ····· 143-15
3) 토광묘 3호 ····· 143-16

Ⅳ. 조사성과 ····· 143-17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43- 8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43-10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43-11
도면 4. 유구분포도 …… 143-13
도면 5. 토광묘 1호 및 출토유물 …… 143-14
도면 6. 토광묘 2호 …… 143-15
도면 7. 토광묘 3호 …… 143-16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전(E-W), ②조사후(항공사진)) …… 143-21
도판 2. 토광묘 1호(①조사전(E-W), ②조사후(E-W), ③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1:출토유물) …… 143-22
도판 3. 토광묘 2호(①조사전(SW-NE), ②조사후(NE-SW), ③토층, ④내부 굴착흔)…… 143-23
도판 4. 토광묘 3호(①조사전(N-S), ②조사후(N-S), ③토층, ④벽면 굴착흔) …… 143-24

Ⅰ. 조사개요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250-4, 250-2번지로 사업시행자 김동삼 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602㎡)이다. 조사 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대상지 및 일원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울주군청은 신청지가 '울주 석천리 유물산포지'에 포함되어 있어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함을 통보하였다.

표본조사는 가람문화재연구원에서 2016년 12월 16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토광묘의 부장공간으로 추정되는 편방과 주혈 1개가 확인되어 사업대상지 전면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

이 후,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가 국비지원 대상임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통하여 확인하고, 2017년 8월 7일에 문화재청 문화재 전자행정 협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 재단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정밀발굴조사 세부계획서는 2017년 10월 18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10월 23일 현장조사일수 15일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제2017-1347호)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2017년 10월 25일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토광묘 3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단에서는 토광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이후, 11월 2일(현장조사일수 7일)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문화재조사연구단장)
책임조사원 : 박 강 민(조사연구 1팀 부팀장)
조 사 원 : 김 진 경(조사연구 1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김 근 재(조사연구 1팀 연구원)
보 조 원 : 안 혜 민(조사연구 1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강성귀 책임 하에 하혜진, 백은주, 이정숙 등 본 재단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김진경. 강성귀, 황도담, 임나영이 담당하였으며, 유물 사진은 이재영(스카이뷰)이 촬영하였다.

---

1) 가람문화재연구원, 2016,「울주 석천리 250-4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주변 주택의 출입로로 사용 중인 동쪽을 제외한 부분에 트렌치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토층양상은 복토층-표토층-암반층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1m 정도 아래 암반층에서 주혈 및 조선시대 무덤의 부장공간인 편방으로 추정되는 수혈 내에서 백자 1점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박강민 책임 하에 Ⅰ～Ⅱ장 김진경, Ⅲ장 김진경(조사내용 및 유구), 강성귀(유물), Ⅳ장 김진경이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박강민 · 박종섭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250-4, 250-2번지에 해당하며, 지리적 좌표는 경·위도상 동경 129°23′23.42″, 북위 35°47′21.39″이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계서원(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7호)에서 석천길을 따라 북쪽으로 250m 정도 진행한 다음, 석천안길로 좌회전하여 200m 정도 이동하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경계부 주변으로 북쪽은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과 동쪽은 경작지가 위치하며, 서쪽은 서고동저의 지형을 2m 정도 절토하여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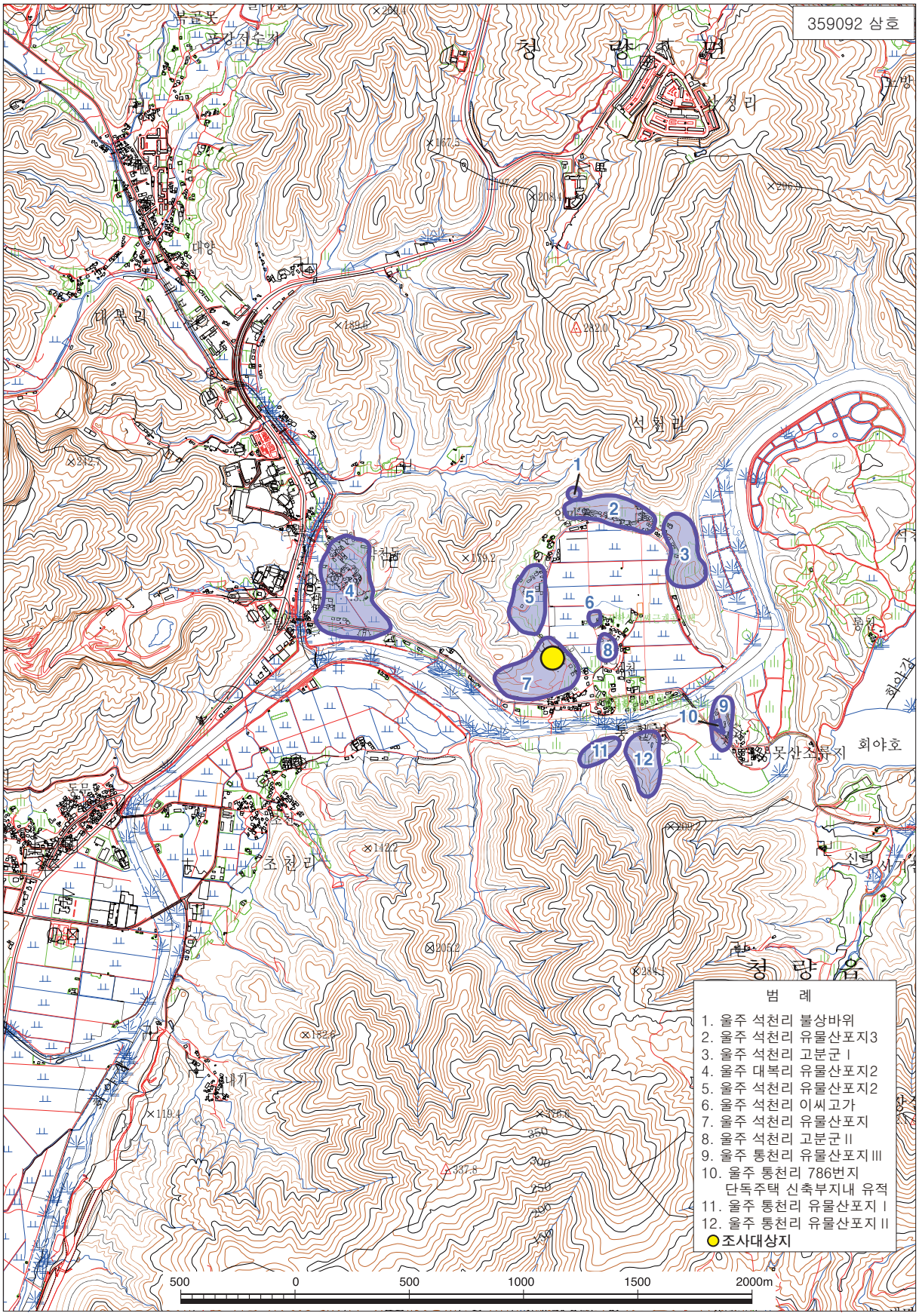
자연·지리적으로 조사대상지인 석천리는 북쪽 노방산(해발 259m) 정상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사면부, 해발 54.5~59.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 250m 정도 떨어져 회야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다. 울주군은 경상남도의 북동부에 해당하며 동쪽으로는 바다와 서쪽으로는 경상북도의 청도군 운문면, 경상남도의 밀양시 산내면·단장면과 경계를 이룬다. 웅촌면은 울주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화장산(해발 361.4m), 남쪽은 대운산(해발 742m), 서쪽으로는 정족산(하발 749m), 북쪽은 남암산(해발 543m)등 비교적 높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다.

역사적으로 웅촌면은 진한의 우시산국(于尸山國)이었던 곳으로 우시산국은 울뫼나라로 그 성부는 검단과 은현의 두가지 설이 있다. 신라 탈해왕때의 거도가 마숙이란 계략을 써서 쳐들어오니 이기지 못하고 동래의 거양산국(居梁山國)과 같이 멸망하였다. 신라초에는 이곳에 우화현을 두었다가 경덕왕 16년(757)에 이름을 우풍현이라고 고쳐 동안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조선시대 중엽부터는 고을의 서쪽에 위치한다 하여 서면이라 하였다가 말엽에 와서 웅촌면이라 개칭하였다. 웅촌면은 이 면을 진압하고 지키는 진산인 운암산의 모양이 곰과 같이 닮았다 하여 웅촌(熊村)이라 하였다. 고종 1년에는 웅촌면이었으며, 고종 31년에 웅상(熊上)·웅하(熊下)로 나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웅상면을 양산군에, 신리를 청량면으로 넘겨주면서 면의 이름을 지금의 웅촌면이라 하였다.

석천리는 울산군 웅하면의 지역으로 회야강이 마을을 감돌아 흐르므로 돌내 또는 회천이라 하였는데, 돌이 많으므로 돌내라 하였으며, 정조때 돌내리(乭川里)라 하다가 고종 31년(1894년)에 석천동과 석계동으로 갈라졌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석천리(石川里)라 하였다.

고고학적으로 조사대상지는 문화유적분포지도상 '울주 석천리 유물산포지'[2] 내 북동쪽에 위치한다.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720m 정도 떨어져 '울주 석천리 고분군Ⅰ', 남동쪽으로 260m 정도 떨어져 울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7호인 '석계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매장문화재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울주 석천리 408번지'[3], '울주 석천리 402-1번지'[4], '울주 석천리 404-7번지'[5]에 대한 입회조사 및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유구는 확인되지않았다. 조사대상지 주변으로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남동쪽으로 770m 정도 떨어

2) 蔚山廣域市,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蔚州郡-』.
석계마을 서쪽 구릉에 해당하며, 삼국시대 토기편이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3) 蔚山文化財硏究院, 2004, 「울주 석천리 408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4) 蔚山文化財硏究院, 2005, 「울주 석천리 402-1번지 외 1필지 주택신축부지 내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5) 蔚山文化財硏究院, 2006, 「울주 석천리 404-7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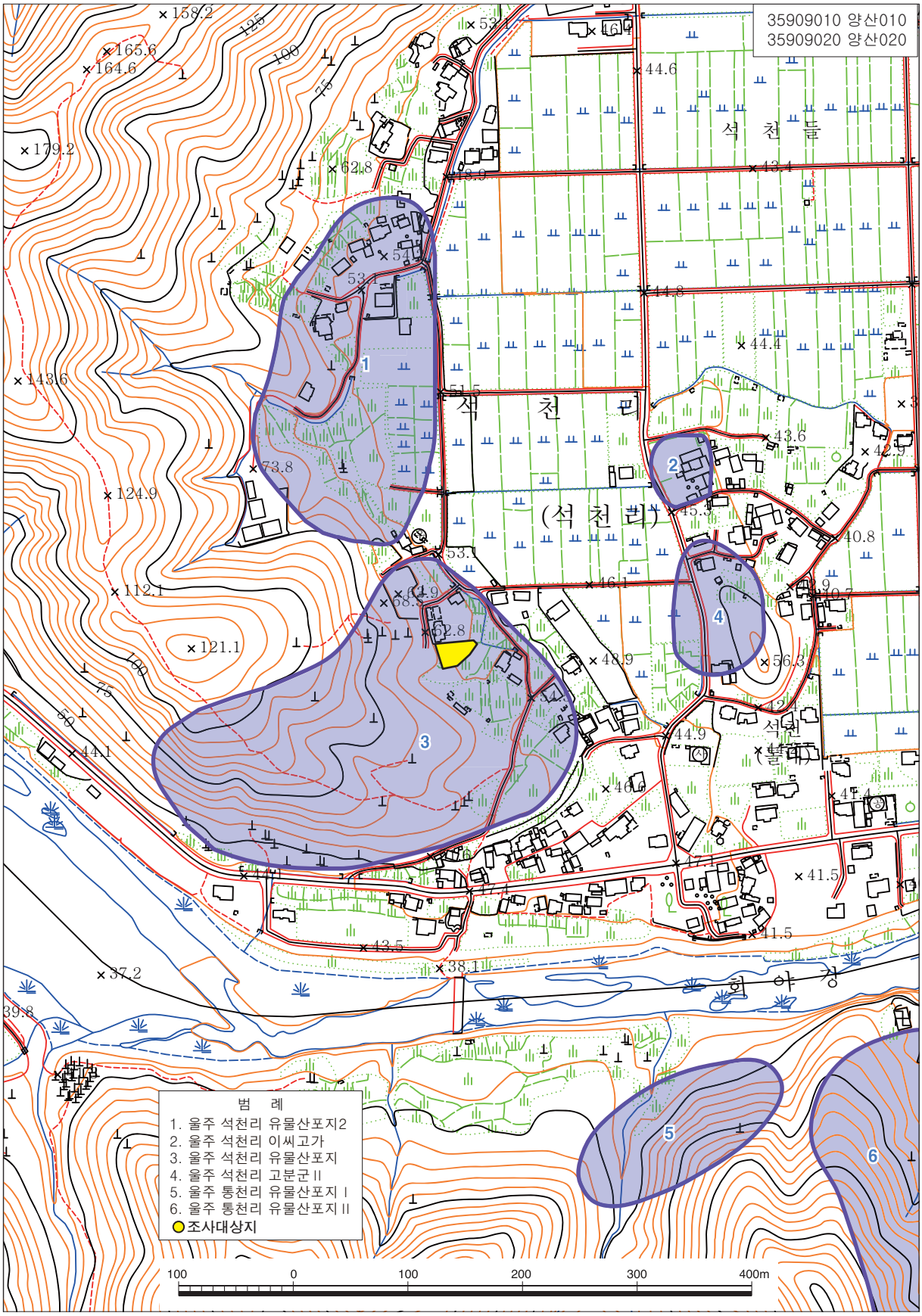
져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수혈유구가 확인된 '울산 통천리 못산유적'[6]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유적의 자세한 분포현황은 다음【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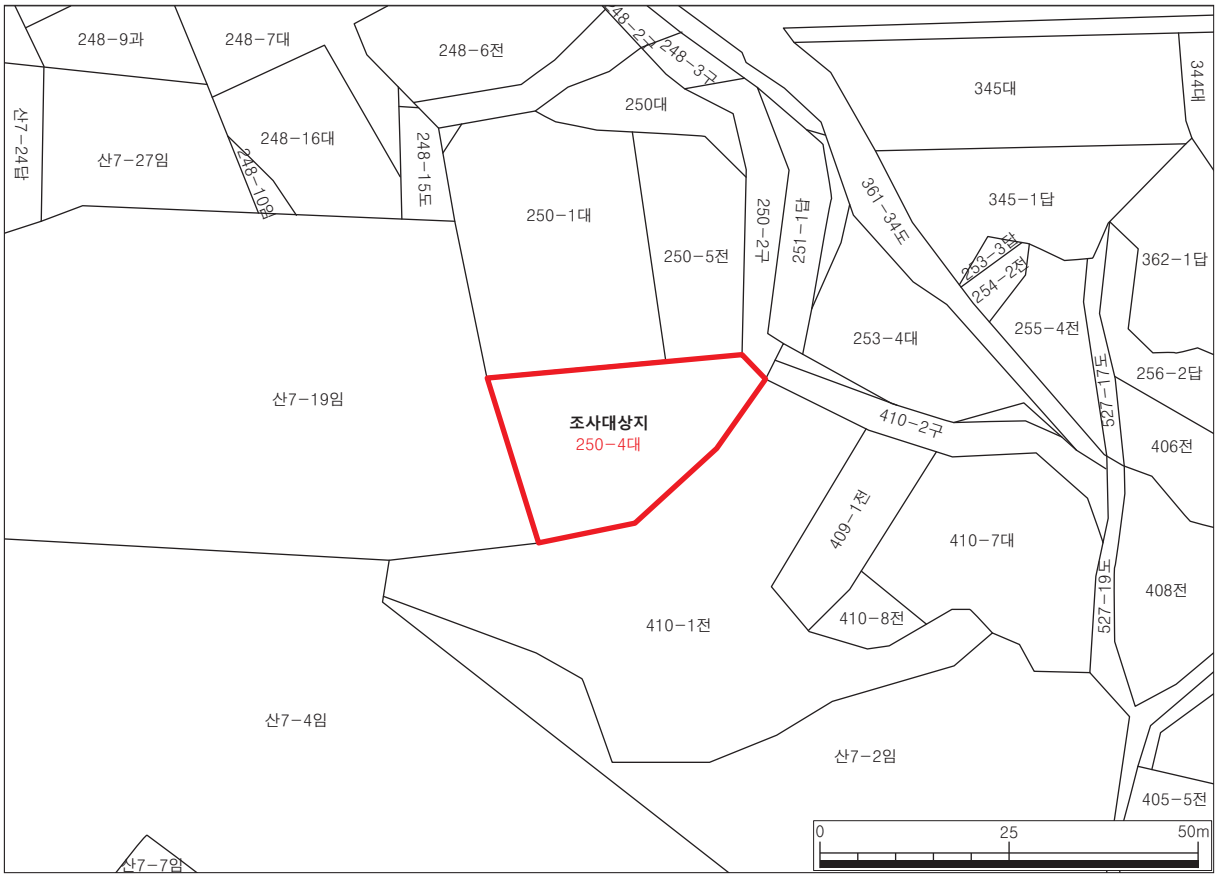
【표 1】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울주 석천리 불상바위	북쪽 780m	시대미상 자연바위	蔚山廣域市,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蔚州郡-』	
2	울주 석천리 유물산포지 3	북쪽 740m	삼국~조선 유물산포지		
3	울주 석천리 고분군 I	북쪽 720m	삼국시대 고분		
4	울주 대복리 유물산포지 2	북동쪽 640m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5	울주 석천리 유물산포지 2	북쪽 200m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6	울주 석천리 이씨 고가	북동쪽 260m	조선시대 주거건축		
7	울주 석천리 유물산포지	범위내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8	울주 석천리 고분군 II	동쪽 198m	삼국시대 고분		
9	울주 통천리 유물산포지 II	남동쪽 480m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10	울주 통천리 못산 유적	남동쪽 770m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주거지, 수혈	蔚山文化財硏究院, 2014. 『蔚山 通川里 못산遺蹟』	
11	울주 통천리 유물산포지 I	남동쪽 366m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蔚山廣域市,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蔚州郡-』	
12	울주 통천리 유물산포지 II	남동쪽 480m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13	석계서원	남동쪽 260m	조선시대 서원		문화재 자료 제17호

6) 蔚山文化財硏究院, 2014,『蔚山 通川里 못산遺蹟』.
청동기시대 주거지 4동 수혈유구 2기, 삼국시대 수혈유구 1가 확인되었다.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발굴조사는 표본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풍화암반층의 상면을 중심으로 전면제토를 실시하였다. 제토범위는 북쪽은 주택과의 경계로 50cm 정도 이격하였으며, 남동쪽은 인접 경작지와 배수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목이 위치하고 있어 50~150cm 정도 이격하여 실시하였다.[7)]

조사대상지 토층 퇴적양상을 남쪽 경계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토 및 복토층-경작층-퇴적층-조선시대 문화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토 및 복토층(1~4층)은 황갈색 · 갈회색 · 황등색 · 황갈색 사질점토로 두께는 70㎝ 정도이다. 조사대상지 전면으로 완만한 경사면 일부를 평탄화하기 위하여 복토된 층으로 서고동저의 지형을 따라 동쪽으로 갈수록 층이 두꺼워진다. 경작층(5층)은 표토하 70㎝ 정도에서 확인되는 갈색 · 암갈색 사질점토로 두께는 15㎝ 정도이며, 경작용 비닐 등이 확인되었다. 퇴적층은 표토하 85㎝ 정도에서 확인되는 암갈색 사질점토로 두께는 10㎝ 정도이다. 조선시대 문화층은 표토하 95㎝ 정도에서 확인되는 암반층이다.

【표 2】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남쪽)

<table>
<tr><td rowspan="8">
</td><td>1층 : 황갈색(2.5Y 5/3) 사질점토</td><td rowspan="4">표토 및 복토층
(두께 20~70㎝)</td></tr>
<tr><td>2층 : 갈회색(10YR 6/1) 사질점토</td></tr>
<tr><td>3층 : 황등색(10YR 7/3) 사질점토</td></tr>
<tr><td>4층 :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td></tr>
<tr><td>5층 : 갈색(10YR 4/4) 사질점토</td><td>경작층
(두께 10~20㎝)</td></tr>
<tr><td>6층 :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td><td>퇴적층
(두께 10㎝)</td></tr>
<tr><td>7층 : 황등색(10YR 7/4) 암반층</td><td>조선시대 문화층
(표토하 95㎝)</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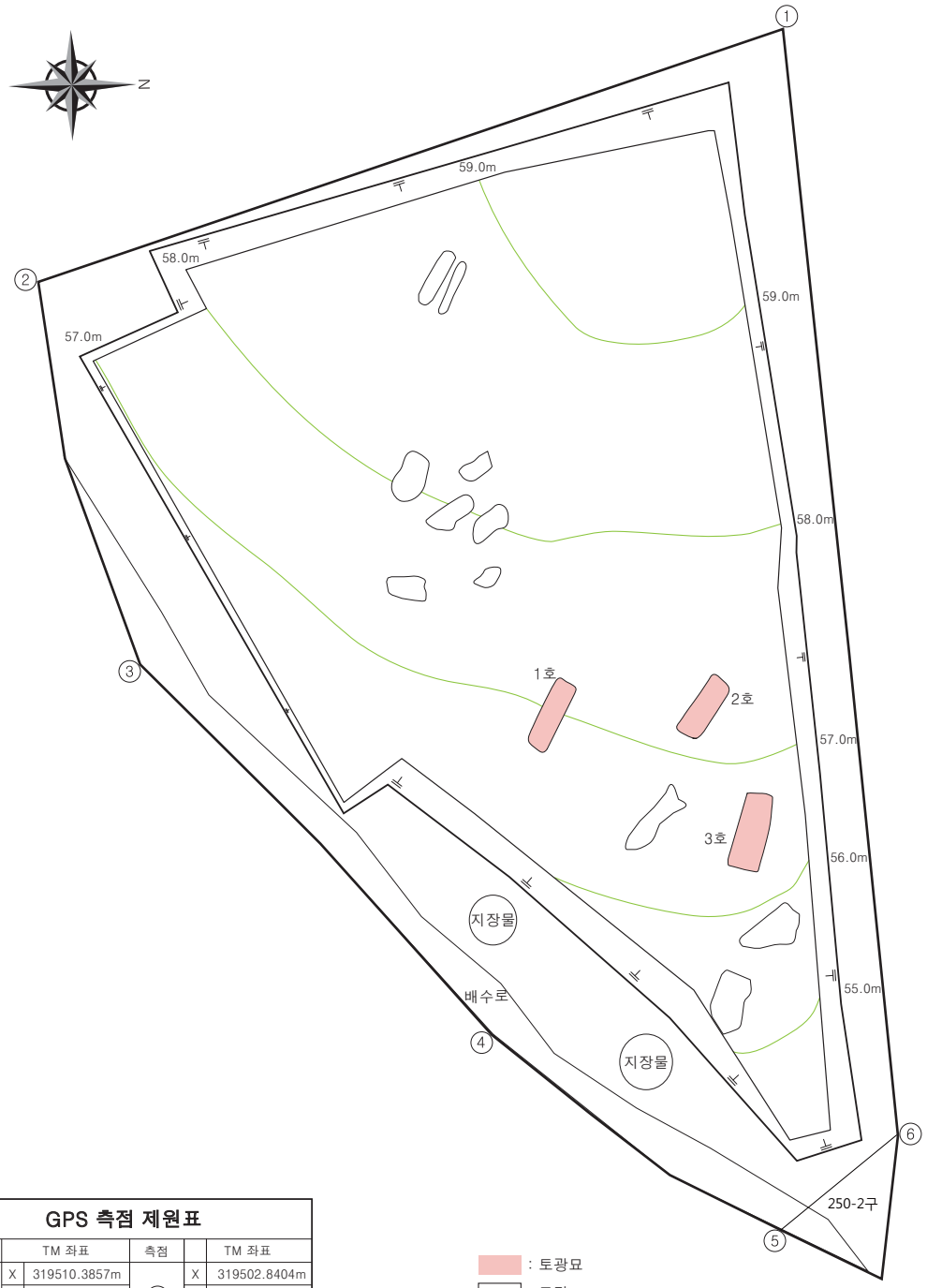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유구는 조사대상지의 동쪽 해발 56.0~57.0m 정도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완만하게 내려오는 구릉 말단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토광묘 3기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8)]

그 외 부분은 근대 경작 및 교란으로 삭평되었으며, 경작과 관련된 교란 구덩이만 확인되었다.

---

7) 남서쪽 부분으로는 절토된 면의 높이가 높아 경계까지 제토를 실시하지 못하고, 복토시 경계부분을 확장하여 유구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없었다.

8)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추정 편방은 토광묘의 단벽 모서리의 유물이 노출된 부분, 주혈은 후대 경작에 의한 교란구덩이로 확인되었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319510.3857m	④	X	319502.8404m
	Y	221068.225m		Y	221098.7897m
	Z	62.19m		Z	55.03m
②	X	319489.412m	⑤	X	319508.6713m
	Y	221074.5152m		Y	221103.3084m
	Z	58.09m		Z	54.77m
③	X	319492.2013m	⑥	X	319514.597m
	Y	221086.4787m		Y	221101.3519m
	Z	56.50m		Z	55.2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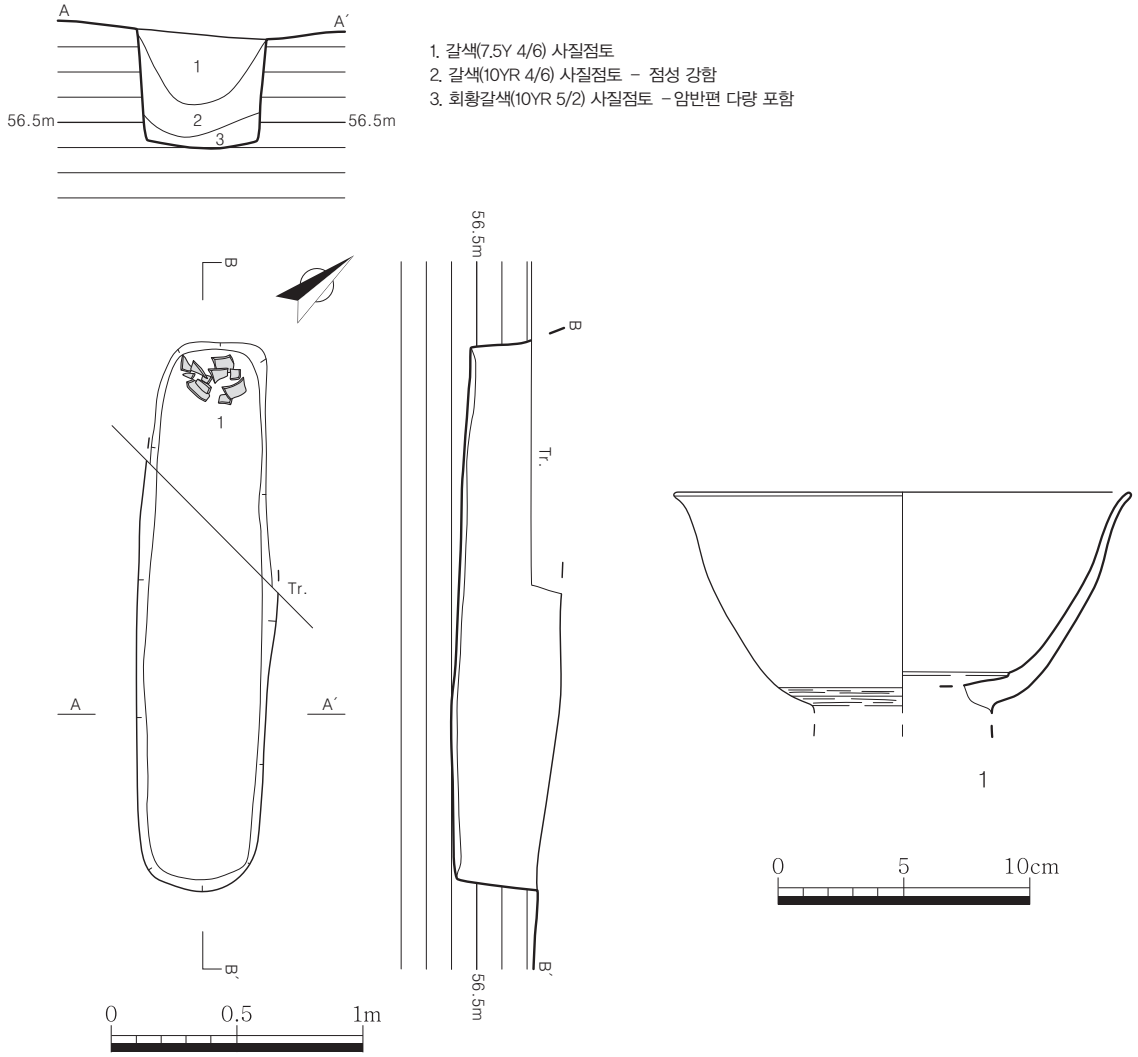
도면 4. 유구분포도

1) 토광묘 1호

가. 유구(도면 5, 도판 2)

조사대상지의 동쪽 해발 56.7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북쪽으로 인접하여 토광묘 2호가 위치한다.

유구는 황등색 암반층을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52°-W)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 세장방형[9]이며, 규모는 길이 218cm, 너비 54cm, 깊이 31cm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면은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내부토는 상부에서부터 갈색 사질점토, 회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내부 토층 및 조사과정에서 보강토 및 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북서단벽 모서리부분으로 바닥에서 약 10cm 정도 뜬 상태로 백자 대접 1점이 확인되었다.



도면 5. 토광묘 1호 및 출토유물

9)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7,『거제 장평 조선분묘』.
평면형태는 장단비에 따라 방형은 1.5:1 미만, 장방형은 1.5:1~3.0:1, 세장방형은 3.0:1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나. 유물

1. 백자 대접(도면 5-1, 도판 2-1)

동체부 하부 및 저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백색(2.5Y 7/1)을 띠며,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부는 타원형으로 찌그러졌으며, 동체부 하위는 회전깎기 정면하였다. 유약의 색조는 명청회색(5B 7/1)을 띠며, 동체부 하위를 제외한 전면에 고르게 시유하였다. 내면에는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을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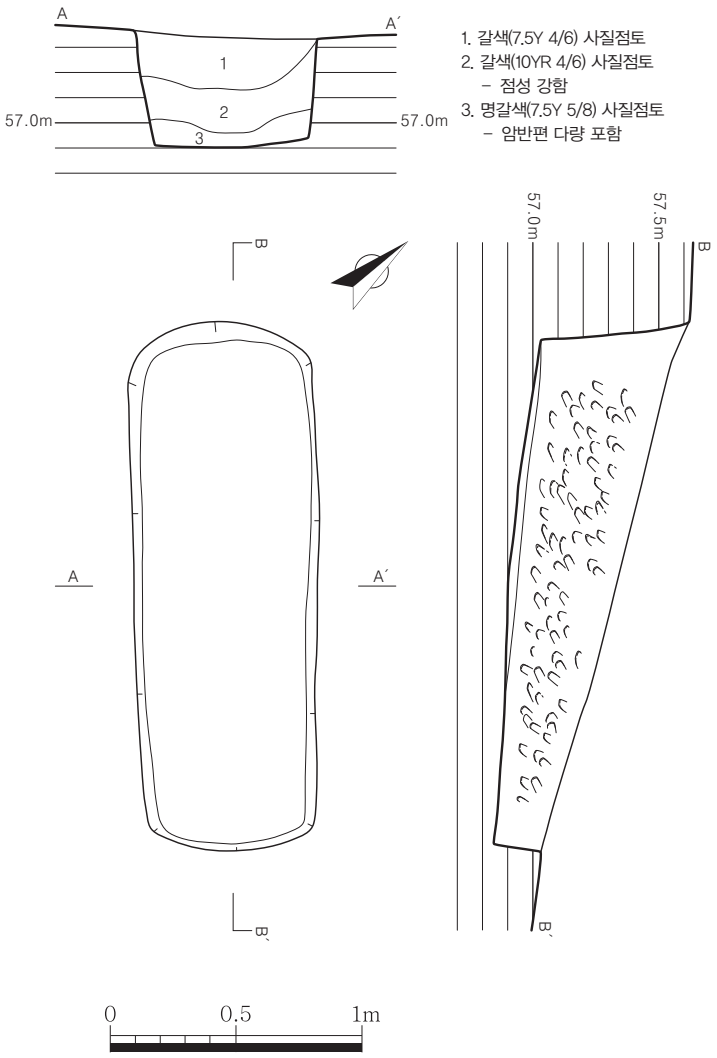
잔존기고 8.8㎝, 구경 17.8㎝

2) 토광묘 2호

가. 유구(도면 6, 도판 3)

조사대상지의 북쪽 중앙 해발 57.3m 정도에 축조되었다.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인접하여 토광묘 3호가 위치한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48°-W) 향이며, 등고선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68cm, 깊이 60cm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면은 굴착면을 평평하게 정지한 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내부토는 상부에서부터 갈색 사질점토, 명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토층 및 조사과정에서 보강토 및 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벽면과 바닥면으로는 폭 5cm, 깊이 3cm 정도 크기로 'U'자 형태로 굴착시 형성된 도구흔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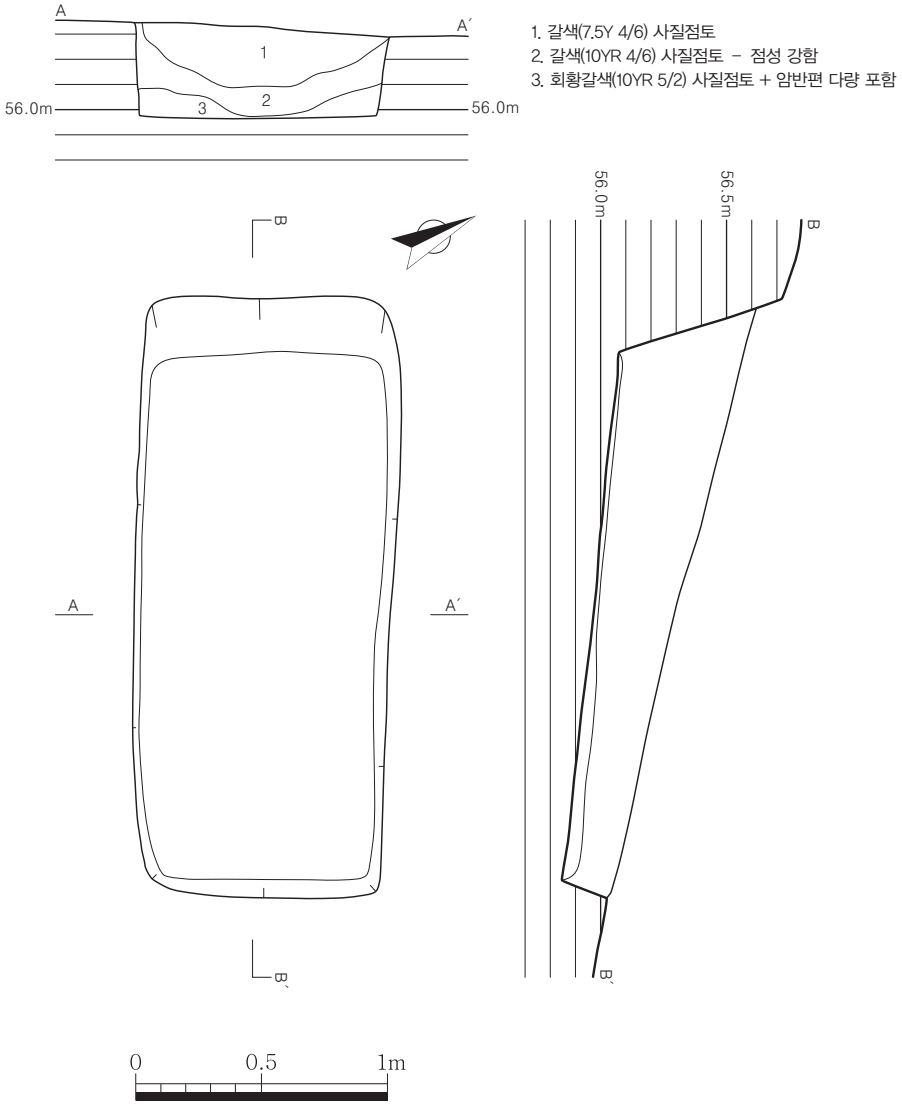
도면 6. 토광묘 2호

3) 토광묘 3호

가. 유구(도면 7, 도판 4)

조사대상지의 북동쪽 해발 56.5m 정도에 축조되었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64°-W)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104cm, 깊이 64cm 정도이다. 내부토는 상부에서부터 갈색 사질점토, 회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토층 및 조사과정에서 보강토 및 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면은 굴착면이 울퉁불퉁한 상태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7. 토광묘 3호

Ⅳ. 조사성과

본 발굴조사는 울주 석천리 250-4번지, 250-2번지 단독주택 신축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토광묘 3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백자 대접 1점이 확인되었다.

토광묘는 조사대상지의 완만한 경사면의 동쪽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축조 양상은 암반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착하고 피장자를 안치한 것으로 보이며, 등고선과 직교하게 축조하였다. 묘광의 굴착방식은 일단 굴광[10]으로 축조하였으며, 유물의 부장을 위한 벽감의 설치도 하지 않았다. 별도의 부장공간은 마련하지도 않았으며, 목관의 흔적 및 토층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장묘[11]로 판단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10~240㎝, 너비 54~104㎝ 정도이며, 묘광의 평면비[12]는 2.3:1에서 4.0:1로 대체로 세장한 형태이다. 조선시대의 토광묘의 경우 피장자가 성인 또는 유아의 여부에 따라 묘광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한다면[13] 묘광의 길이가 200㎝ 정도인 것으로 보아 피장자는 성인묘일 가능성이 크다. 묘광의 주축방향은 시신을 안치할 때, 두향을 어디에 두느냐의 의미를 가지는데 풍수지리 사상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정치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14]

조사대상지의 토광묘는 축조된 위치가 동사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입지에 따라 두향은 자연적으로 사면의 정상부인 서쪽으로 판단된다.[15]

유물 부장양상은 전체 3기 중 토광묘 1호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북단벽 모서리 상부에서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관의 상면에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백자 대접 1점만 확인되었다. 유물의 형태는 굽에서 동체부가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 바로 아래에서 꺾이는 형태를 보인다. 유물 출토량이 1점 밖에 되지 않아 유구의 정확한 조성시기를 파

---

10) 金景善, 2008,『조선시대 토광묘의 편년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토광묘를 묘광의 축조 방식을 기준으로 一段掘壙式 · 二段堀壙式으로 구분하였으며, 부장위치를 棺側面式, 棺上面式, 壁龕式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11) 金判碩, 2006,『慶南地域 朝鮮時代 墳墓 硏究』, 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토광직장묘(土壙直葬墓)는 지면을 굴착한 후 묘광 내에 별다른 시설 없이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로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토광목관묘와 함께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였던 묘제로 보았다.

1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7,『거제 장평 조선분묘』.
평면형태는 장단비에 따라 방형은 1.5:1 미만, 장방형은 1.5:1~3.0:1, 세장방형은 3.0:1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13) 金大德, 2009,「慶山地域 朝鮮時代 墳墓에 대하여」,『성림고고논총』, 성림문화재연구원.
조선시대 평균신장에 관하여 17세기 말 충청지역의 병적기록부인 束伍軍籍에 등록된 군병들의 평균 신장측정 결과 137.9㎝란 통계와 임진왜란 때 또 다른 병적기록의 통계를 보면 152.7㎝이라는 통계치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130㎝ 정도 이하를 성인이 아닌 유아의 매장묘로 구분하였다.

14) 金大德, 2009,「慶山地域 朝鮮時代 墳墓에 대하여」,『성림고고논총』, 성림문화재연구원.

15) 성림문화재연구원, 2008,『경산 신대 · 부적 조선묘군』.
조선시대에는 망자의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후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관행이 점차 퇴색화되기 시작하여 산세와 맞게 매장시 망자의 머리를 높은 쪽에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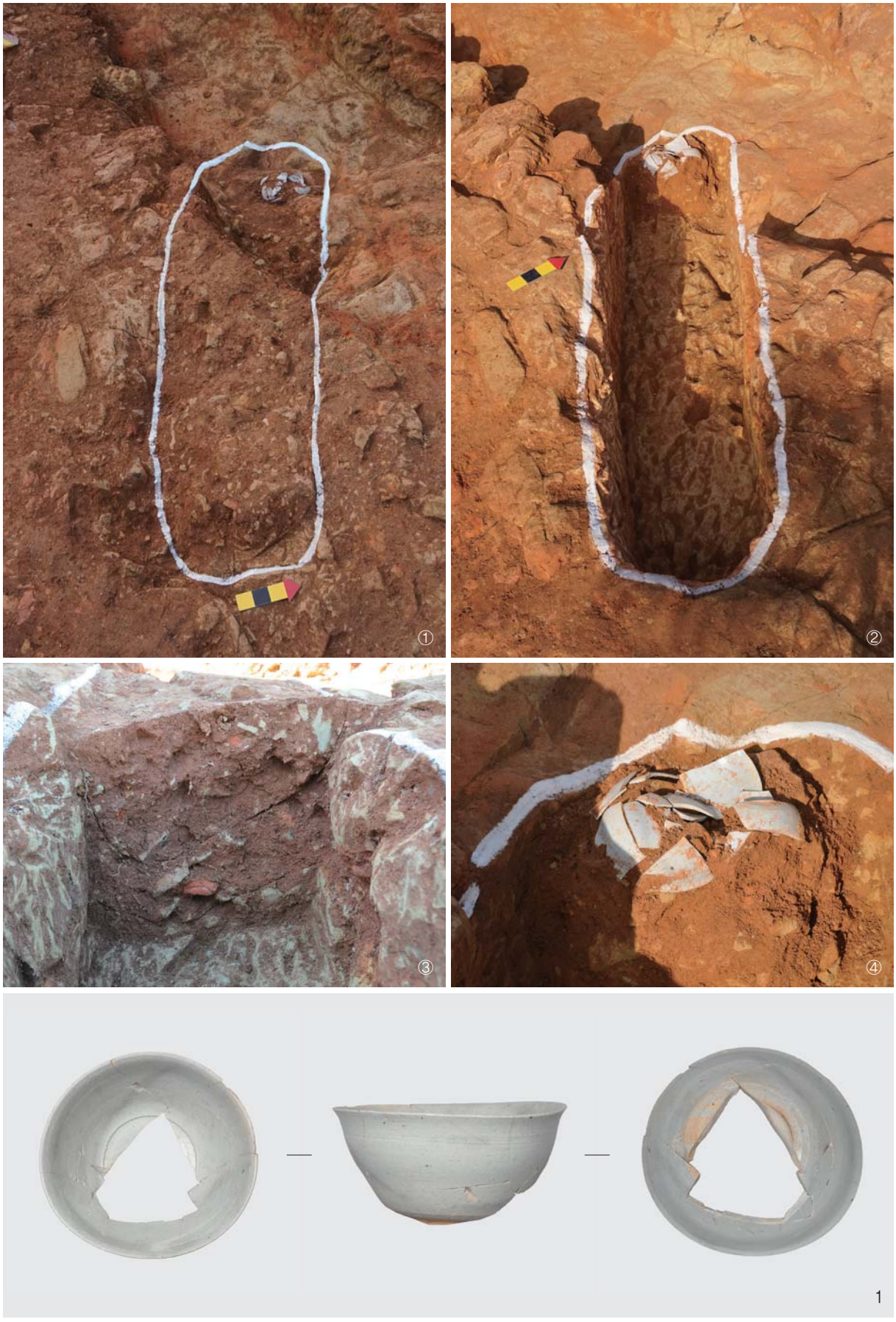
악하기 어려우나, 형태, 기면 색조 등으로 볼 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16] 정도의 조선시대 후기 지방백자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금번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토광묘 3기만 확인되었지만, 이 일대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가 빈약한 점을 보강하였다는데 조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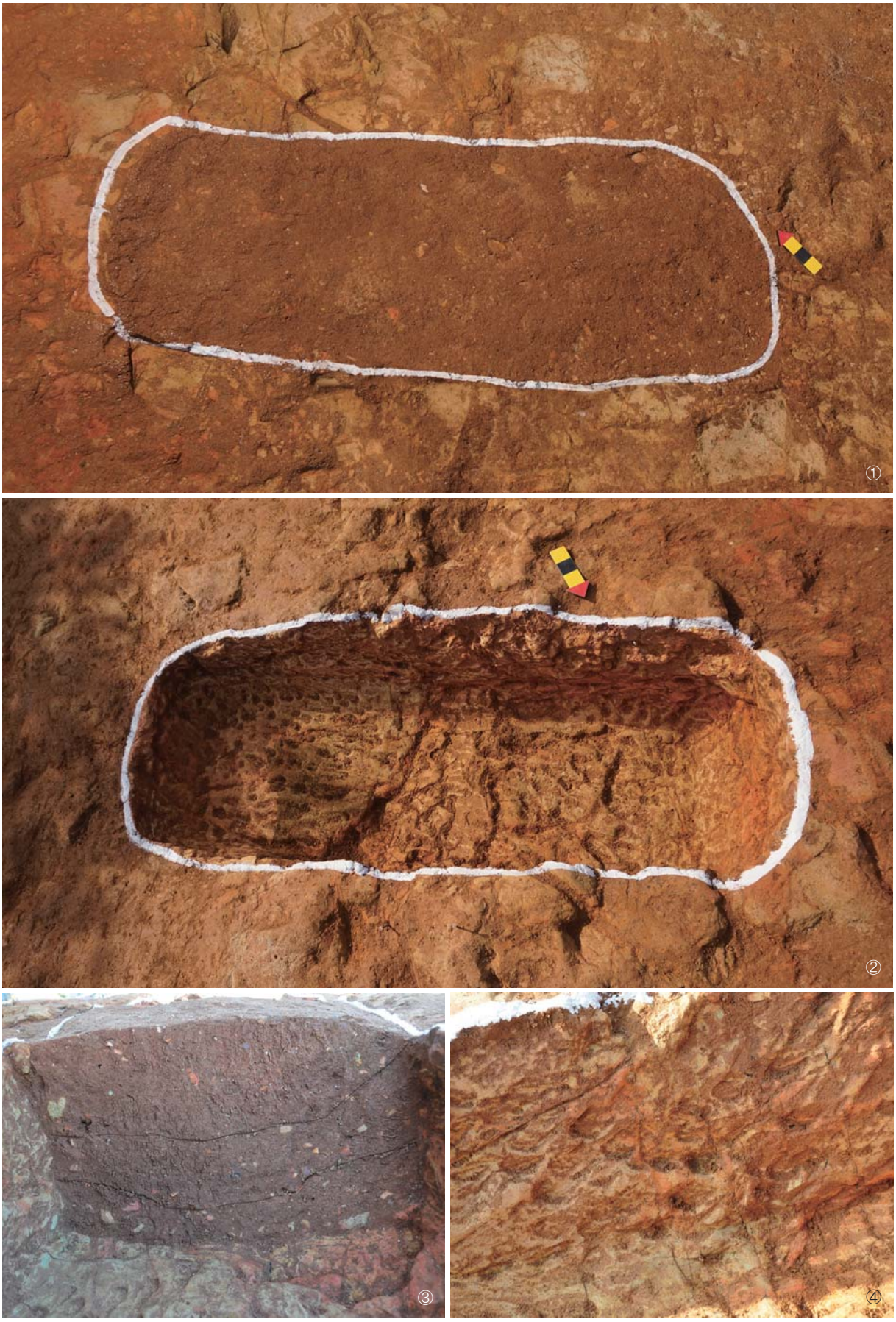
16) 김재형, 2017,『조선 후기 지방백자 연구』,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 후기 지방백자의 편년을 3기로 구분하였으며, 1기의 경우 18세기 3/4~19세기 1/4분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의 경우 발, 대접, 종자의 기종은 동체 하단부에서 사선으로 진행하다 구연 바로 아래에서 꺾이는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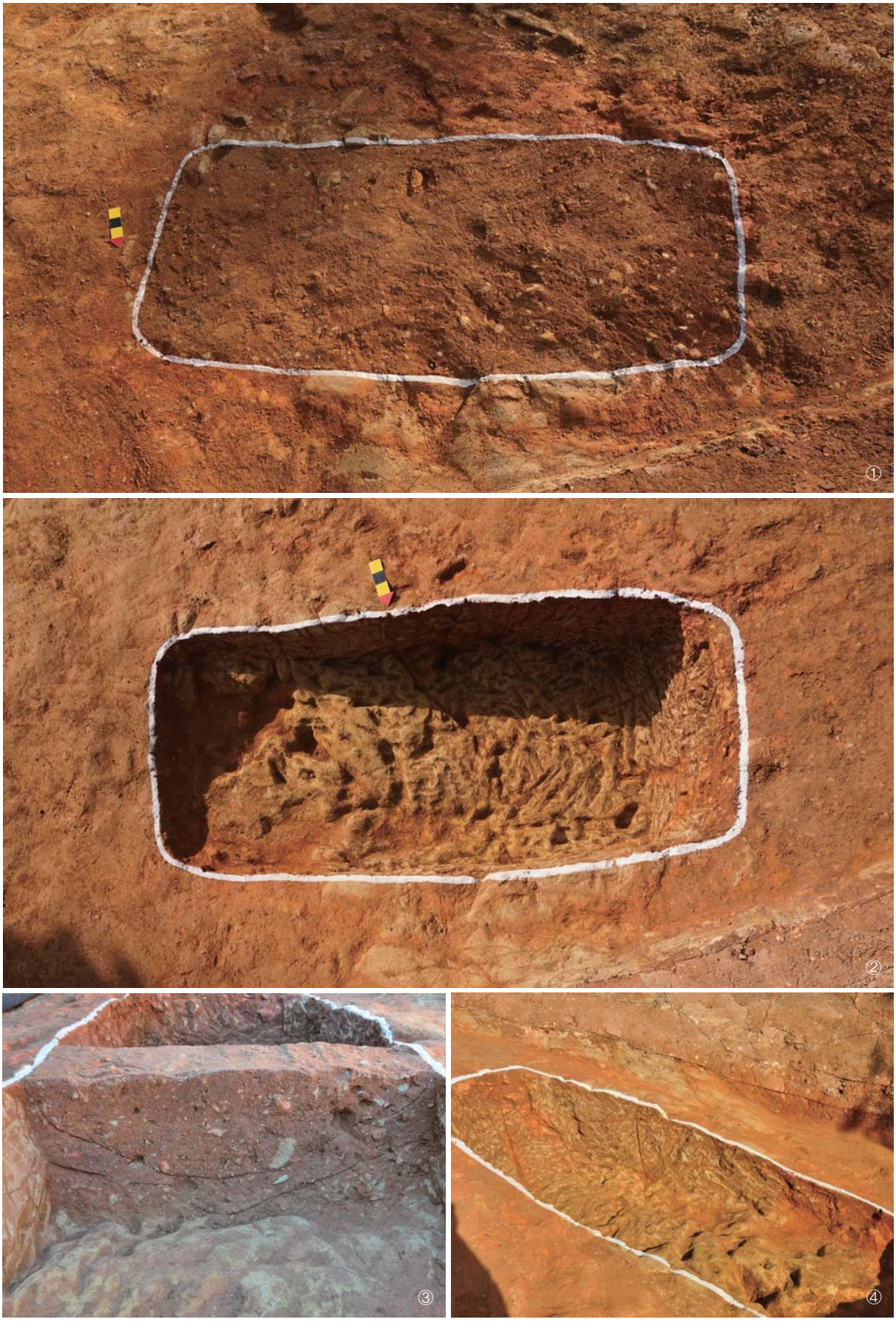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전(E-W), ②조사후(항공사진))



도판 2. 토광묘 1호(①조사전(E–W), ②조사후(E–W), ③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1:출토유물)



도판 3. 토광묘 2호(①조사전(SW-NE), ②조사후(NE-SW), ③토층, ④내부 굴착흔)



도판 4. 토광묘 3호(①조사전(N–S), ②조사후(N–S), ③토층, ④벽면 굴착흔)

울주 석천리 250-4번지 외 1필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347 -0001	백자 대접	1	토광묘 1호	토도류	조선시대	잔존 8.8	17.8	0.0	5-1 2-1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울주 석천리 250-4번지 외 1필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 3011-2173	FAX	(02) 566-5954
執筆 · 編輯者	박종섭 · 박강민 · 김진경 · 김근재 · 강성귀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 박강민 · 김진경 · 김근재 · 안혜민			
遺蹟調査地番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250-4, 250-2번지			
調査面積	602㎡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토광묘	조선시대	3	백자 대접	

144. 제주 광령리 1607-5번지 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목 차

Ⅰ. 조사개요 ····· 144-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44- 9
1. 자연 · 지리적 환경 ····· 144- 9
2. 고고학적 환경 ····· 144-13
3. 광령리(光令里)의 마을 형성과 연혁 ····· 144-15

Ⅲ. 조사방법 및 층위 ····· 144-18
1. 조사방법 ····· 144-18
2. 층위 ····· 144-19

Ⅳ. 조사내용 ····· 144-20

〈철기~탐라시대〉
1) 주거지 ····· 144-20
(1) 1호 주거지 ····· 144-20
2) 수혈유구 ····· 144-28
(1) 1호 수혈유구 ····· 144-28
(2) 2호 수혈유구 ····· 144-29
(3) 3호 수혈유구 ····· 144-31
3) 지표수습유물 ····· 144-33

Ⅴ. 조사성과 ····· 144-34

〈부록〉
AMS분석 ····· 144-55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 144-59

삽 도 목 차

삽도 1.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난 진대석 효자문(秦大石孝子門) · 유신동(有信洞) · 과원(果園) · 광령촌(光灵村) …… 144-16
삽도 2.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동광리(東光里)와 서광리(西光里) …… 144-16
삽도 3. 조사대상지 북벽 토층 …… 144-19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도(토양환경정보시스템 1/10,000참조) …… 144- 9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참조) …… 144-10
도면 3.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 참조)…… 144-11
도면 4. 조사대상지 주변지질도(국토지리정보원 1/10,000 참조) …… 144-12
도면 5. 조사대상지 지적도(네이버 지적도 참조) …… 144-12
도면 6. 유구배치도 …… 144-20
도면 7. 1호 주거지 …… 144-21
도면 8.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44-24
도면 9.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44-25
도면 10.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44-27
도면 11. 1호 수혈유구 …… 144-28
도면 12. 2호 수혈유구 …… 144-30
도면 13.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 144-31
도면 14. 3호 수혈유구 …… 144-32
도면 15. 3호 수혈유구 출토유물(20~21) · 지표수습유물(22) …… 144-33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①:원경[공중촬영,S→N], ②:전경[공중촬영,N→S]) …… 144-37
도판 2. 1호 주거지(①:전경[N→S], ②:단면[SW→NE], ③:단면[NE→SW]) …… 144-38
도판 3. 1호 주거지(①:전경[N→S], ②:유물출토모습 유물번호 배치,
③~⑬:유물출토모습) …… 144-39
도판 4. 1호 주거지(① · ②:전경[N→S], ③~⑥:유물출토모습) …… 144-40
도판 5. 1호 주거지(①:전경[N→S], ② · ④ · ⑤:타원형구덩이 전경[N→S],
③:타원형구덩이 단면[SE→NW], ⑥:동편 초석, ⑦:서편 초석) …… 144-41
도판 6. 1호 주거지(출토유물, 1~6) ……144-42
도판 7. 1호 주거지(출토유물, 7~10) …… 144-43
도판 8. 1호 주거지(출토유물, 11~16) …… 144-44
도판 9. 1호 수혈유구(① · ③:전경[S→N], ②:단면[E→W]) …… 144-45
도판 10. 2호 수혈유구(① · ③:전경[N→S], ②:단면[NE→SW], ④~⑥:유물출토모습) …… 144-46
도판 11. 2호 수혈유구(①:전경[N→S], ② · ④:내부 주혈 전경[N→S],
③:내부 주혈 단면[E→W], ⑤:출토유물[17~19]) …… 144-47
도판 12. 3호 수혈유구(①:전경[N→S], ②:단면[SW→NE], ③:단면[NE→SW]) …… 144-48
도판 13. 3호 수혈유구(①:전경[N→S], ②:중앙부 토적시설 세부[SE→NW]) …… 144-49
도판 14. 3호 수혈유구(①: 서벽 토적시설 세부[E→W], ②:출토유물[20 · 21]),
지표수습유물(②22) …… 144-50
도판 15. 학술자문회의 모습 …… 144-51

Ⅰ. 조사개요

제주 광령리 유적(광령리 1607-5번지)은 현상철 씨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7-5번지에 창고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다. 제주시에서는 사업 부지가 광령리 유물산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시행 이전에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의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통보된 후 사업시행이 가능함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문화예술과-27122[2017.8.1.]). 이에 사업자는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에 국비지원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재단에서는 우리 연구원에 표본조사를 의뢰하였다. 2017년 10월 20일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부지 790㎡ 중 205㎡에서 수혈유구 1기와 적갈색경질토기가 확인되었다. 표본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재단에 국비지원 정밀발굴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재단에서는 우리 연구원에 정밀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 문화재청의 허가(제2017-1404호)를 득한 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면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구가 확인된 205㎡이며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동년 동월 17일까지 실조사일수 6일간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유구는 철기시대~탐라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1동, 수혈유구 3기 등 총 4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 고석, 지석, 철제품, 토제방추차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적갈색경질토기편이며 외반구연호인 외도동식토기에 해당한다.

조사 마지막 날인 11월 17일에 김종찬(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박근태(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선생님을 모시고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은 조사단의 조사의견에 동조하였으며, 더불어 기록보존 후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밀발굴조사가 종료된 후 문화재청에서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록보존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처하였다.

발굴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고 재 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자 문 위 원 : 김 종 찬(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박 근 태(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책임조사원 : 나 정 욱(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부장)
조 사 원 : 박 경 민(제주문화유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준 조 사 원 : 김 현 정(前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고 은 경(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제주 광령리 유적(광령리 1607-5번지)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은 다음의 항목에 따라 업무가 분담되어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보고서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체 총괄 : 나정욱
○유물 정리·복원 및 실측 : 박경민, 김현정, 고은경
○유구 및 유물 일러스트 : 김현정, 박진선, 양정심(이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유물사진 촬영 : 김현정
○원고작성
Ⅰ. 머리말 : 나정욱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자연지리·고고학 분야 : 나정욱
역사학 분야 : 강창룡(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Ⅲ. 조사방법 및 층위 : 나정욱
Ⅳ. 조사내용
유구 : 나정욱, 박경민
유물 : 박경민
Ⅴ. 맺음말 : 나정욱
○교열 및 교정 : 고재원, 나정욱, 박경민
○감수 : 고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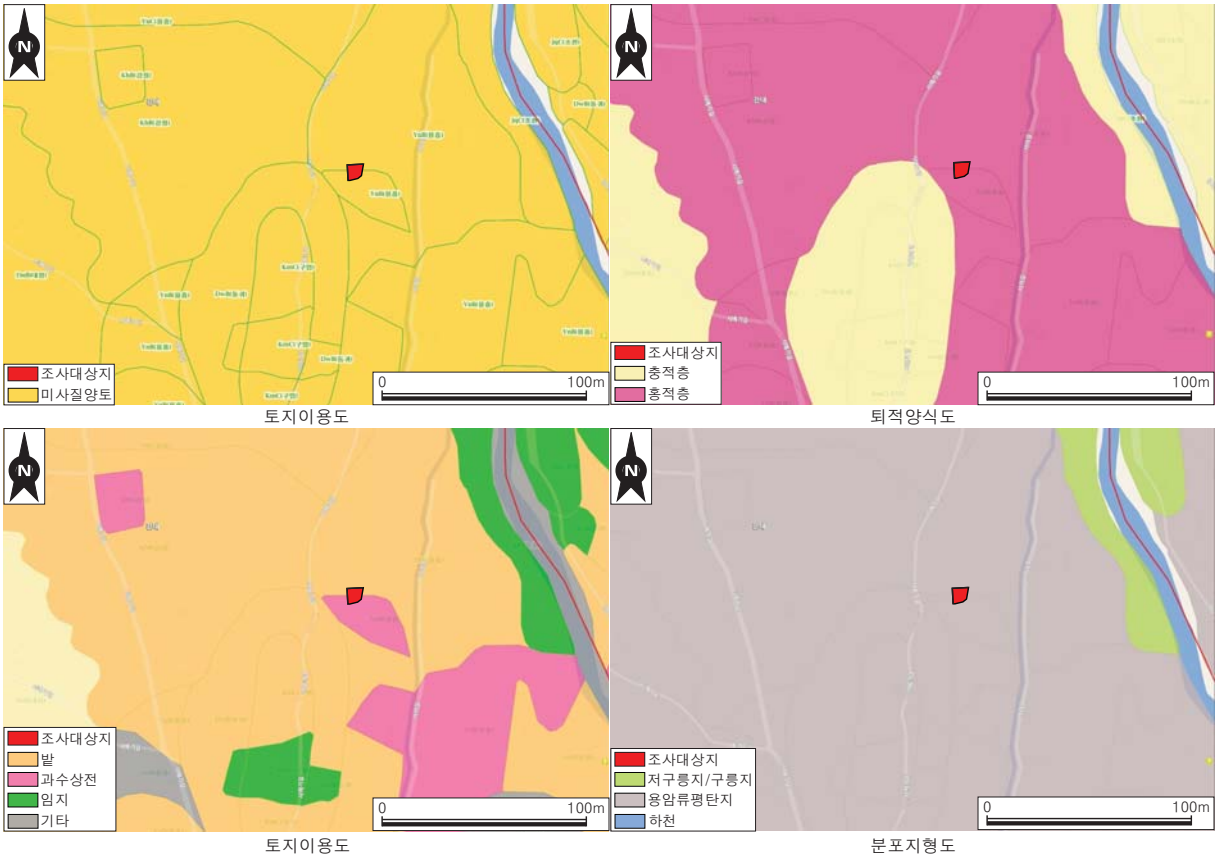
끝으로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업에 힘써준 조사단과 현장에서 자문을 해주신 김종찬 선생님·박근태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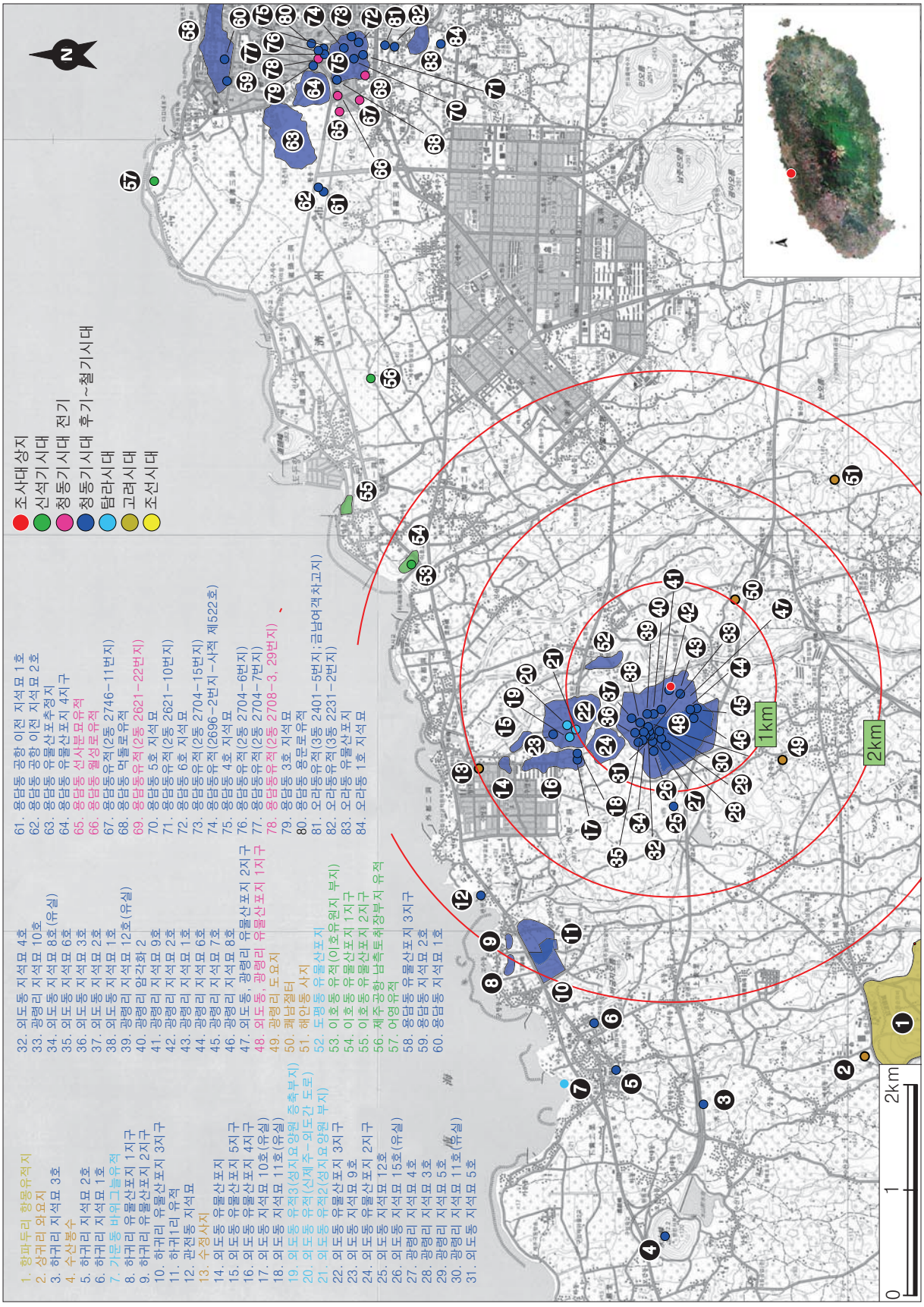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7-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X:148158 Y:97805 ~ X:148171 Y:97809, X:148157 Y:97820 ~ X:148178 Y:97821[1]에 해당한다. 해안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6㎞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는 73m 내외의 평지로 북쪽으로 갈수록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지에서 서쪽으로 2.8㎞ 지점에는 파군봉(바굼지오름, 해발 84.5m)이, 북동쪽으로 4.3㎞ 지점에는 도두봉(해발 65.3m)이 자리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동쪽으로 1.5㎞ 이내에는 외도천, 어시천, 도근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시천과 도근천이 먼저 합수되고 월대 인근에서 외도천과 합수되어 바다로 빠져 나간다.

조사대상지가 속해 있는 광령리의 북편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평지성 저지를 이루고 있어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고지(高地)는 찾기 힘들다. 이 일대에서 지형적으로 높은 곳은 짐동산, 우왓동산, 영선이므르 등과 같이 낮은 언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점만 있을 뿐이다. 주변을 흐르고 있는 하천은 모두 5개로 일반적으로 외도천, 도근천(도그내), 어시천, 원장천(내) 및 베락맞은내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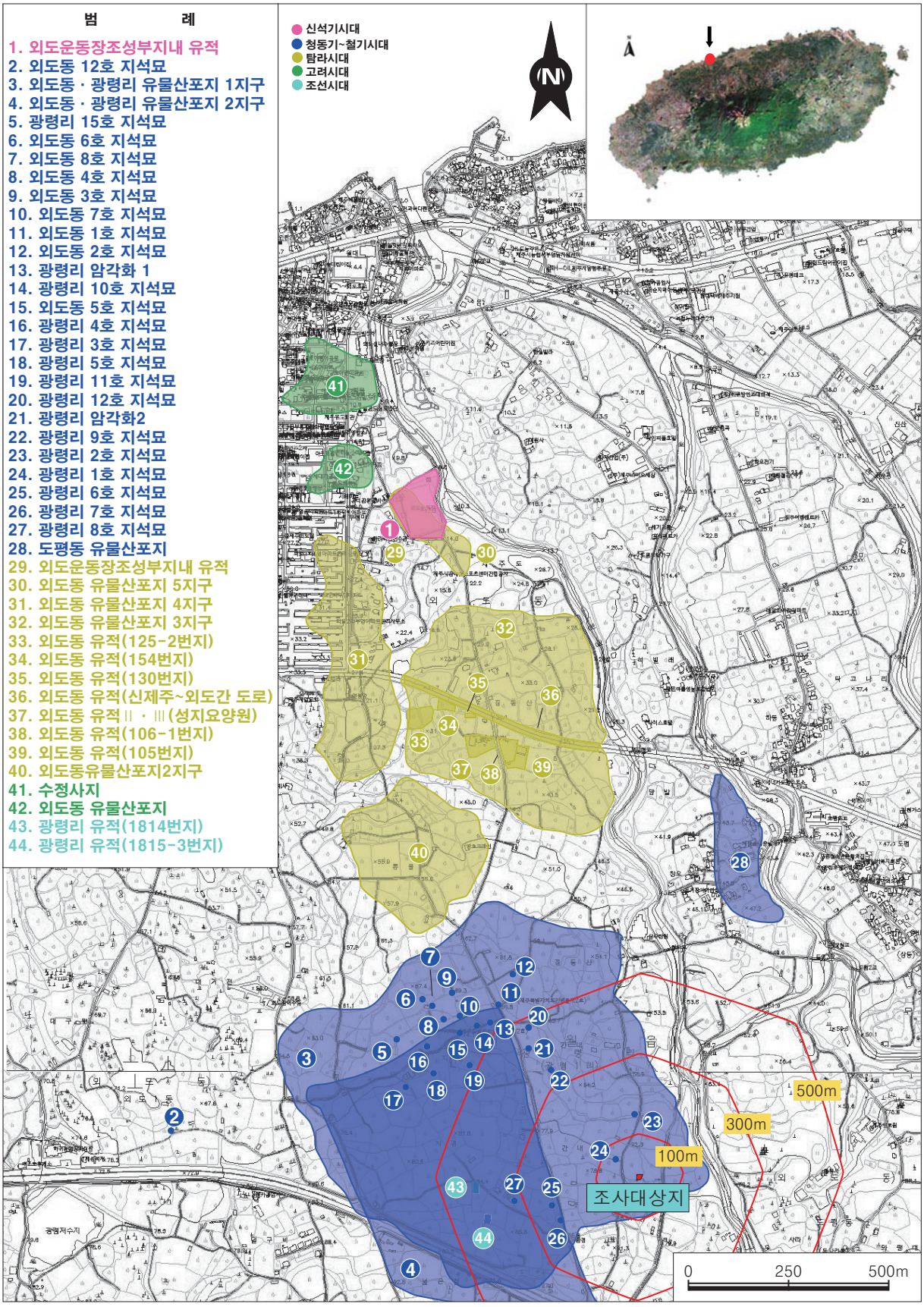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도(토양환경정보시스템 1/10,000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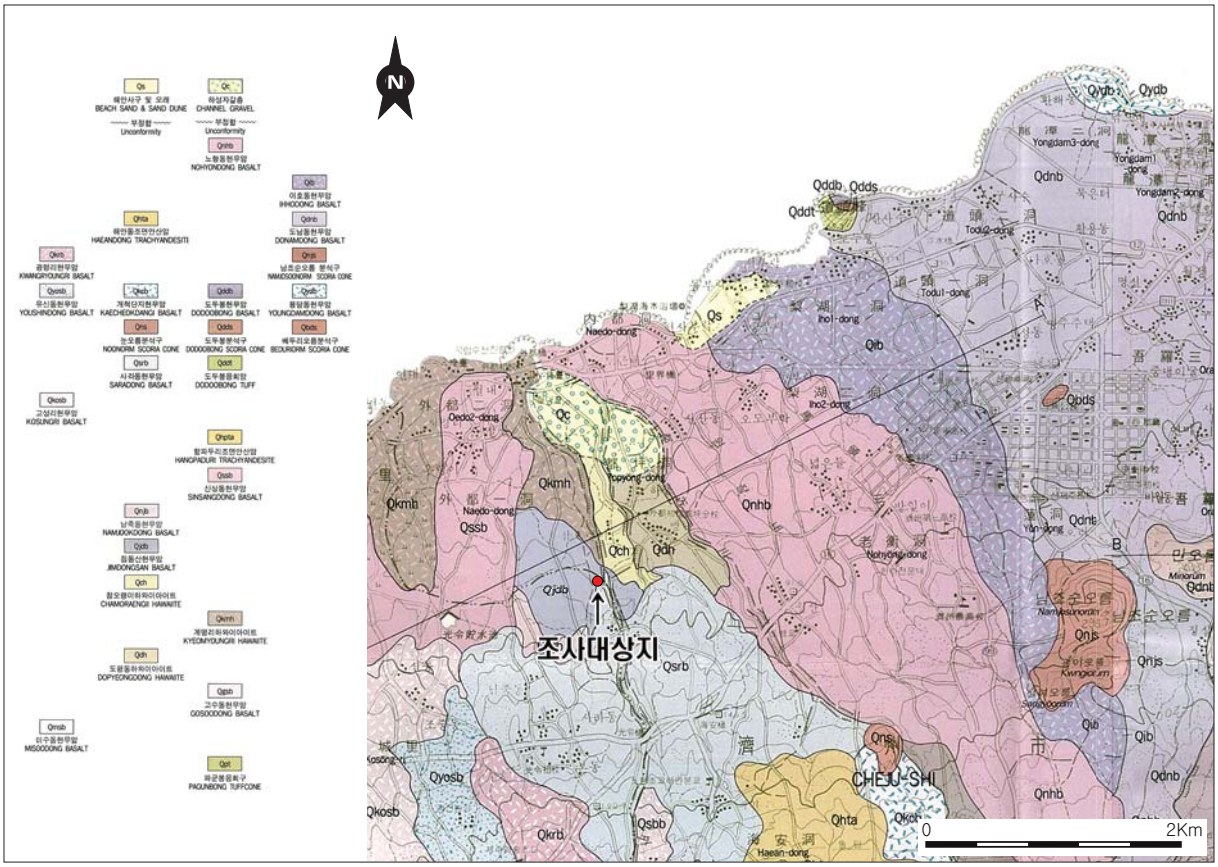
1) GRS80 기준 TM좌표이며 X는 경도이고 Y는 위도이다.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참조)



도면 3.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 참조)



도면 4. 조사대상지 주변지질도(국토지리정보원 1/10,000 참조)

도면 5. 조사대상지 지적도(네이버 지적도 참조)

한편, 광령리의 북쪽인 외도동의 해안지대는 해안선을 따라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완만한 평지에 밭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토양이 분포하고 있어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이 형성되어 왔다. 현재 제주시 도심지의 서쪽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외도동은 제주시 중심부와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1990년대 말부터 토지구획정리가 진행되어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는 등 새로운 시가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2].

조사대상지 일대의 토양은 용흥통에 속한다. 용흥통은 움브릭층과 아질릭층을 보유한다. 토층은 150~200㎝이다. 토양반응은 매우 강한 산성 내지 약산성이고 염기포화도는 50% 이상이다. 표토는 암갈색 또는 농암회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양토 내지 미사질식양토이고, 심토는 암황갈색, 암갈색 또는 진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식토 또는 식토이다. 용흥통은 완만한 경사의 낮은 용암류대지에서 발생하며, 화산쇄설물에서 기인한다. 경사는 2~15%이며, 주된 경사는 2~7%이다. 배수는 양호하며, 투수성이 매우 느리고 유거는 보통이다. 주로 유료작물 또는 보리와 같은 밭작물을 재배한다[3].

2. 고고학적 배경

광령리와 외도동 일대는 해발 30~60m 사이에 저구릉상의 완만한 평탄면을 이루고 있는 곳에 유적이 밀집되어 있다. 특히 광령리와 외도동의 접경 지역에 유적이 밀집되어 있고 광령리의 중산간지대로는 현재까지 선사시대 유적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대상지 일대는 영구유수천인 외도천 등에 의해 음용수가 풍부하고, 양질의 미사질양토가 형성되어 있어 유적의 입지조건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주변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는 외도운동장부지유적이 있다.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초창기에 해당하는 고산리식토기가 출토되었고 그 외에 '之' 자문토기, 점렬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타제석기인 석촉, 석창, 박편 등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에 이은 청동기시대는 지표조사를 통해 외도동과 광령리 일대에서 무문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일대에는 외도동에 11기·광령리에 15기의 지석묘가 확인되는데 발굴사례가 거의 없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지석묘 내부와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물로 미루어 보아 주로 청동기시대부터 탐라시대까지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발굴된 외도동 34-5번지에서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어 도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송국리형 주거지와 지석묘의 관계가 주목된다.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취락이 형성된 것은 탐라시대에 들어온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외도운동장부지유적[4], 외도동유적[5], 외도동유적Ⅱ[6], 외도동유적Ⅲ[7], 외도1동 130번지유

---

2) 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2005, 『외도동향토지』.
3)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6, 『한국정밀토양도-제주도』.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http://soil.rda.go.kr.
4)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제주시 외도운동장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시문화유적 잘굴조사 보고서』.
5)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濟州 外都洞遺蹟』.
6)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濟州 外都洞遺蹟Ⅱ』.
7) 濟州考古學硏究所, 2013, 『제주 외도동유적Ⅲ』.

적[8] 등이 있다.

외도운동장부지유적에서는 석축유구, 구상유구,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가 주로 출토되며 방추차와 갈돌 등이 확인되고 있다.

외도동유적에서는 원형주거지와 수혈유구, 우물, 석축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원형주거지는 내부에 벽구와 중앙수혈, 그리고 그것들을 잇는 구(溝)가 설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외도동식 주거지로 명명되었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연질토기 등의 토기류와 공이, 갈돌, 갈판 등의 식량가공구가 출토되었다.

외도동유적Ⅱ에서는 원형주거지와 우물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매납유구, 굴립주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 파수부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이 확인되고 각종 토제품과 유리옥, 관옥 등도 확인되었다. 또한 철촉, 철부, 철겸, 철침, 철도자, 봉상철제품 등의 다양한 철제품도 함께 출토되었다.

외도동유적Ⅲ에서는 주거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 타날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토제품, 철제품, 석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외도1동 130번지 유적에서는 주거지, 수혈유구, 집석유구,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는데, 폐기장에서는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 연질타날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방추차, 원판형토제품, 고석, 홈돌 등이 출토되었다.

위의 유적들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도동식 주거지와 이전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환원염 소성의 토기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 시기와는 다른 문화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도운동장부지유적과 외도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석축유구는 대규모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사회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역사시대인 고려~조선시대 자료는 외도동의 수정사지[9]와 외도운동장부지유적에서 확인된 부석유구와 적심 및 청자, 분청사기, 조선청자, 백자편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수정사는 고려시대 제주의 3대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고성리에 자리하고 있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도 고려시대 삼별초의 대몽항쟁지로 유명하다.

【표 1】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현황

순번	시대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참고문헌	비고
1	신석기시대	외도운동장부지유적	생활유적	유물포함층	고산리식토기, '之'자문토기, 점렬문토기, 석촉, 석창	
2	청동기시대 후기~탐라시대 전기	외도동유적 (34-5번지)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폐기장	무문토기,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연석, 방추차, 원판형토제품 등	

8)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제주시 외도1동 130번지 창고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9) 濟州大學校博物館, 2000,『水精寺址』.

순번	시대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참고문헌	비고
3	탐라시대 전기	외도운동장부지유적	생활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폐기장	적갈색경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방추차 등	
4		외도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우물, 석축유구 등	적갈색경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연질토기, 식량가공구	
5		외도동유적Ⅱ	취락유적	우물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매납유구, 굴립주건물지	적갈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유리옥, 관옥, 철촉, 철부, 철겸, 철침, 철도자, 봉상철제품 등	
6		외도동유적Ⅲ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등	토기류, 방추차, 원판형토제품, 고석, 홈돌	
7		외도1동 130번지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집석유구, 폐기장 등	적갈색경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연질타날문토기, 방추차, 홈돌 등	
8		외도동유적 (173-1번지)	취락유적	석축유구, 구상유구, 석렬유구	적갈색경질토기, 토제방추차	
9	고려시대	수정사지	사지	건물지, 보도, 배수로 등	청자, 백자, 막새, 기와, 금동제품, 청동제품, 철제품	

3. 광령리(光令里)의 마을 형성과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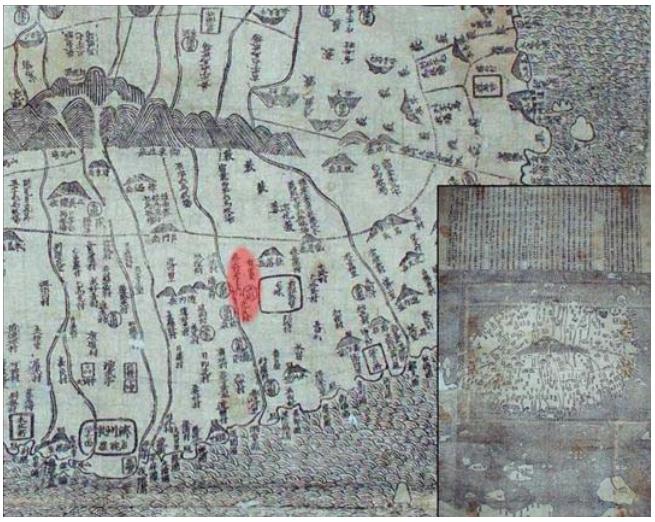
광령리는 외도동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광령리의 용천수로는 절물(용암류경계형, 생활용)·베염못물(용암류경계형, 고갈/멸실)·행중이물(용암류경계형, 농업용)·독짓굴물(용암류경계형, 농업용)·거욱대물(용암류경계형, 생활용)·절굴물(용암류경계형, 농업용)·윗세물(용암류경계형, 생활용)·오름약수(용암류경계형, 생활용)·사제비물(용암류경계형, 생활용)·이도사물(용암류경계형, 미이용)·천아계곡물(2)(용암류경계형, 생활용)·천아계곡물(1)(용암류경계형, 상수원)이 있다.

광령리의 옛 이름은 '광령이마을[10]' 이다. 광령리에는 '광령이' 와 '이신굴·이싱굴' 이 있었다. 효종 4년(1653)에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이 편찬한 『탐라지(耽羅志)』「제주목(濟州牧)-과원(果園)」조에 의하면,

10)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374~376쪽.
오창명, 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3~207쪽.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Ⅰ, 행정명사·제주시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261~268쪽.

‘광령이[光靈] 과원은 제주읍성으로부터 서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유자나무는 80그루, 산귤나무가 1그루, 새로 심은 각종 과일나무은 39그루, 닥나무가 372그루, 옻나무는 145그루, 동백나무가 1그루, 뽕나무가 8그루, 훼나무가 1그루가 있다[11]” 라고 기록되어 있다.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된 「탐라도(耽羅圖)」에는 진대석 효자문(秦大石孝子門)·유신동(有信洞)·과원(果園)·광령촌(光灵村)으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삽도 1. 「탐라도(耽羅圖)」에는 유신동(有信洞)과 광령촌(光灵村) 마을이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영조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사이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권5 「제주(濟州)-면촌(面村) 증(增)」에 ‘신우면(新右面)에는 3개 소면(小面)이 있다. 곧 귀일면(貴日面)·엄장면(嚴莊面)·애월면(涯月面)이다. 귀일면에는 하귀일(下貴日)·상귀일(上貴日)·유신동(有信洞)·광령(光令)을 합하면 4개 마을[12]’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영조 41년(1765) 8월부터 영조 42년(1766) 6월 사이에 유신동(有信洞)과 광령(光令) 마을로 나타나고 있다. 정조 9년(1785) 2월 이후에 편찬한 『제주읍지(濟州邑誌)』 「방리(坊里)-신우면(新右面)」에 ‘광령이마을[光令里]은 제주읍성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2리의 거리에 있다. 백성의 집[民戶]은 68호이고 남자가 135명이며 여자는 255명[13]으로 남녀 합계가 39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이신굴마을[有信洞里]은 제주읍성으로부터 서남쪽 25리의 거리에 있다. 백성의 집은 32호이고 남자가 57명이며 여자는 76명[14]으로 남녀 합계가 133명’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삽도 1.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난 진대석 효자문(秦大石孝子門) · 유신동(有信洞) · 과원(果園) · 광령촌(光灵村)

삽도 2.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동광리(東光里)와 서광리(西光里)

11) 李元鎭, 『耽羅志』「濟州牧-果園」, 光靈 : 在州西南二十里 柚八十根 山橘一根 新栽各果三十九根 楮三百七十二根 漆百十五根 冬栢一根 桑八根 槐一根.

12) 『增補耽羅誌』「濟州-面村(增)」 新右面 小面 貴日面 嚴莊面 涯月面, 貴日面 下貴日 上貴日 有信洞 光令 合四里.

13) 『濟州邑誌』「坊里」條, 面四 里七十九 民戶六千六百九十二 男一萬七千七十四 女二萬二千三百, 新右面 光令里 西南距二十二里 民戶六十八 男一百三十五 女二百五十五.

14) 『濟州邑誌』「坊里」條, 面四 里七十九 民戶六千六百九十二 男一萬七千七十四 女二萬二千三百, 新右面 有信洞里 西南距二十五里 民戶三十二 男五十七 女七十六.

순조(純祖) 26년(1826)에 작성된 『감시절목(減柴節目)』에도 광령(光令)[15]마을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1872년에 제작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도 동광리(東光里)와 서광리(西光里)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1872년에 이르러서 '광령이마을[光令里]'은 '동광리(東光里)'로, '이신굴마을[有信洞里]은 서광리(西光里)' 로 바뀌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고종(高宗) 27년(1890)에 광령이[光令] 마을의 인구는 661명[16]이었다. 14년 후인 광무(光武) 8년(1904)에 편찬한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신우면(新右面) 20리(里)」에 '광령이[光令]의 연기가 나는 집[煙家]은 181호이다. 남자가 330명이고 여자는 290명으로 남녀 합계가 620명이다. 초가집은 305칸이다[17]'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1929년에 '광령(光令)의 호수(戶數)는 366호이며 인구수(人口數)로는 남자가 920명이고 여자는 1,016명으로 남녀 합계가 1,936명이었다[18]' 라고 하였다. 또한 광령리와 도평리에 걸치는 자연마을인 '사라' 마을이 있다. 일제강점기 지도에 '사라동(紗羅洞)'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현재 광령1리는 본동(本洞), 사라동(砂羅洞), 남죽동(南竹洞)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본동은 광령1리 중심마을이다. 사라동은 광령 중심마을 아래쪽(방위상 북동쪽) 무수천 주변에 있는 마을이다. 외도동에 있는 사라마을을 '동사라동' 이라 하고 광령1리 사라마을을 '서사라동' 이라고도 한다. 남죽동은 광령 중심마을 아래쪽(방위상 북쪽)에 있는 마을로, '남죽이' , '굴왓' 일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데서 한자 차용표기로 '南竹洞' 이라 쓴 것이다.

---

15) 『減柴節目』, 吾羅 吾等 道頭 大獨 我羅 道路 井實 蓮洞 老兄 內都 外都 都坪 伊生 下貴 上貴 光令 長田 水山 舊嚴 中嚴 高內 涯月 下加 上加 納邑 於道 郭支 毛瑟 歸德 立石 上大 潛水 孝洞 晩早 明月 俠才 盃令 板浦 頭毛 右 四十里 永減燒木 只捧靑草.

16) 「庚寅十二月 日 三邑還弊及庶瘼革祛節目」「本州-新右面」, 光令人口六百六十一 分米七十二石四斗四合.

17) 『光武八年一月日 三郡戶口家間摠冊』「新右面-二十里」, 光令 烟家一百八十一戶 男三百三十口 女二百九十口 合六百二十口 草家三百五間.

18) 善生永助, 1929, 『濟州島生活狀態調査』「Ⅱ. 部落-新左面」.

Ⅲ. 조사방법 및 층위

1. 조사방법

금번 조사대상지는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2.6㎞ 정도 떨어진 해발 73m 내외의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이 일대는 광령리 유물산포지 내에 해당하는 곳이며 주변에는 광령리 1·2호 지석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광령리 1호 지석묘와는 50m 정도의 거리에 불과하다. 광령리와 외도동 지석묘군은 제주도내에서 지석묘의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수량 또한 가장 많다. 제주도의 지석묘는 송국리형 취락과 동일한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석묘는 거의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국리형 취락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광령리·외도동 지석묘군과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된 바 없어 그 관계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인 2017년 5월 조사된 외도1동 34-5번지에서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됨으로써 광령리·외도동 일대에도 송국리형 취락의 존재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광령리·외도동 지석묘군의 상한이 송국리문화 단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조사대상지와 인접한 광령리 1호 지석묘와 같이 소위 '제주식 지석묘'인 위석식 지석묘는 주로 외도동 단계의 취락과 동일 분포권을 형성한다[19]. 따라서 이 일대 지석묘의 하한은 외도동 단계까지 내려갈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지석묘 주변에 대한 조사는 취락과 지석묘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조사가 소규모 정밀발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주거지 1동, 수혈유구 3기 등 총 4기이다. 주거지와 2·3호 수혈유구는 유구 중앙에 '+'자 둑을 두어 둑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하면서 유물의 위치와 내부상황 및 토양의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였다. 바닥면이 확인된 후 평면실측과 단면실측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자 둑을 제거하여 전체 바닥면을 노출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1호 수혈유구는 2호 수혈유구와의 연장선 상에 '-'자 둑을 두어 선후관계를 파악한 후 양면을 동시에 제토하였다. 그 외의 조사방법은 동일하다.

각 유구는 개별 실측을 실시하고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레벨측량 및 주기를 표시하여 소속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전체 유구에 대해서 평판측량을 통하여 유구배치도를 작성하고 등고선측량을 통하여 유적의 전체적인 지형을 표기하였다. 또한 각 유구에 대해서 야장기록과 사진촬영을 통하여 유적현황을 기록하였다.

금번 조사에서 '외도동식 주거지'의 특성을 갖는 3가지 형태의 유구가 모두 확인되었다. 형태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모두 주거지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이를 모두 주거지로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뒤따랐으며, 결국 '초석 주거지'만을 주거지로 분류하고

19) 위석식 지석묘 중 '용담동 5호 지석묘' , '화순리 지석묘' 인근에서는 최근에 외도동 단계에 해당하는 취락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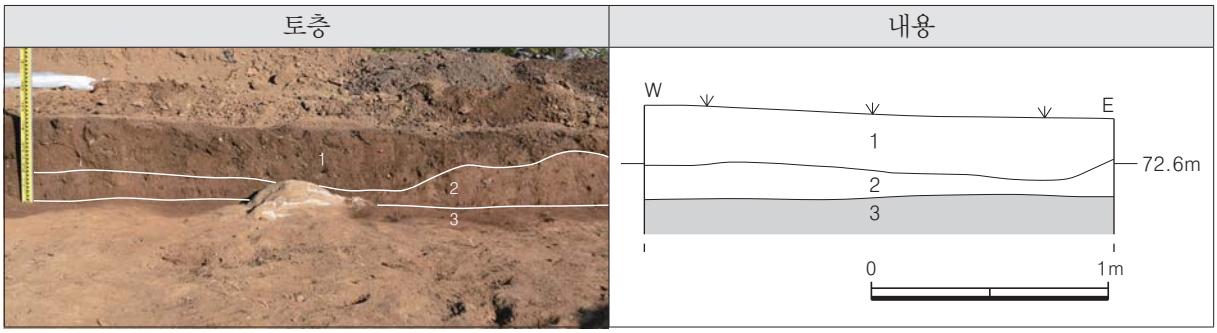
'무시설식 주거지' 와 '방사상 구 설치 주거지'는 본 보고서에서는 수혈유구와 이형유구로 구분하였다[20].

2. 층위

조사대상지는 서쪽 농로에서 2m 정도 단을 형성하여 내려가는 곳의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동쪽 필지로는 다시 1.5m 이상의 단을 이루며 내려가고, 남쪽 필지로는 1.5~2m 가량 단을 형성하며 올라간다. 지형적인 특성상 서편과 남편으로는 일정 부분 삭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대상지 내에는 전반적으로 생토면 혹은 그 이하까지 삭평되거나 굴착이 이루어져 표토층 하부에서 곧바로 생토층이 확인된다. 다만, 북동편 일부에는 원토양이 잔존하고 있다. 북동편의 토양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층 : 표토층이며 흑갈색부식토(Hue 2.5Y 3/2)로 이루어진 경작층이다. 두께는 15~30㎝ 내외이다.
2층 : 암회황색사질점토층(Hue 2.5Y 4.2)으로 소량의 소토알갱이를 포함하고 있는 자연퇴적층이다. 조사대상지 북동편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두께는 7~15㎝ 내외이다.
3층 : 황갈색풍화토층(Hue 10YR 5/6)으로 생토층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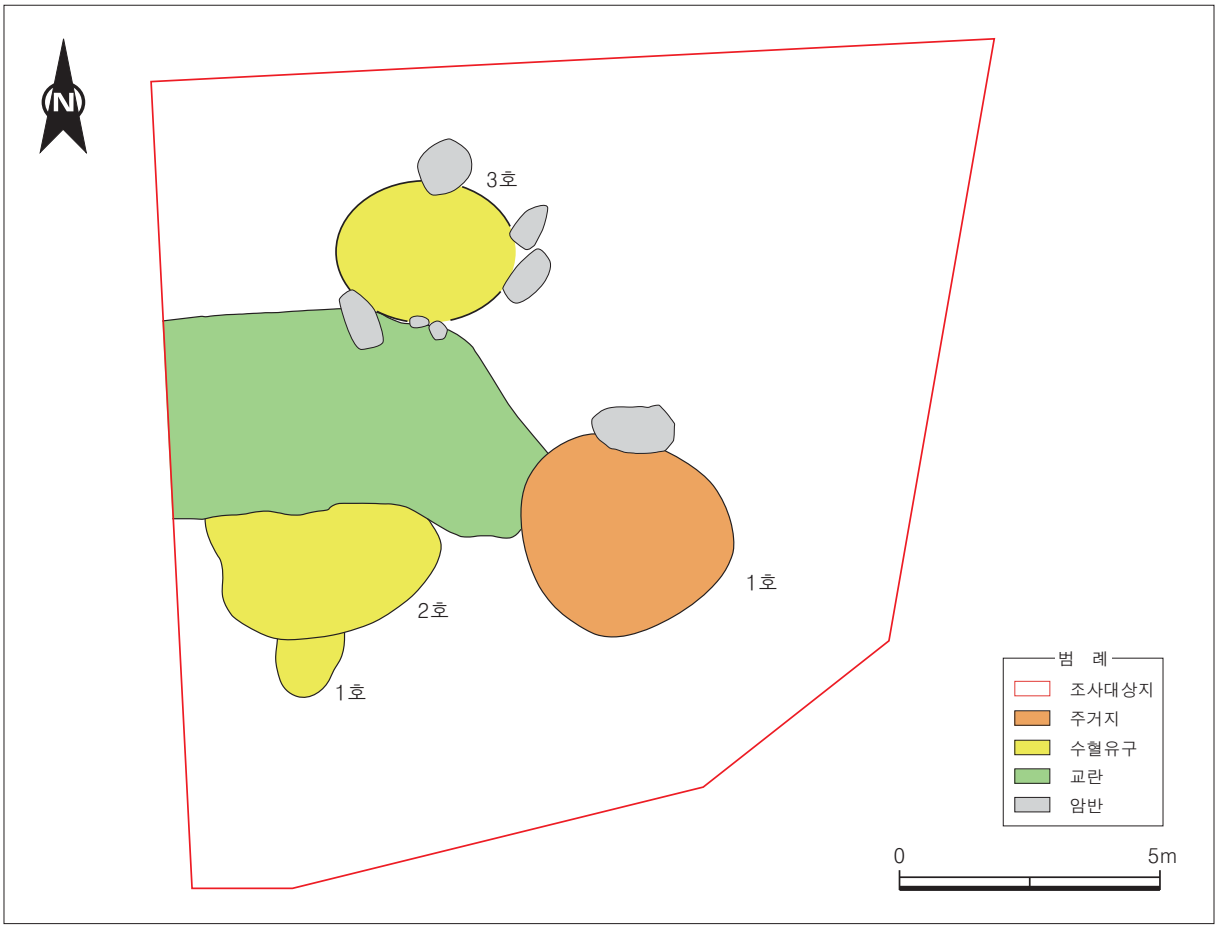


삽도 3. 조사대상지 북벽 토층

20) 2호 수혈유구와 3호 수혈유구는 주거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도동식 주거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를 참고로 형태상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원형 주거지 내부에 방사상의 구가 설치되고 구 내부에 토기를 깐다. 규모는 직경 3.5m 내외이다. ② 원형 주거지이면서 내부에 아무런 시설이 없다. 규모는 직경 5m 이상이다. ③ 송국리형 주거지와 거의 같은 형태이지만 타원형구덩이 내 주혈 대신 양단에 초석이 배치된다(소위 '초석 주거지'). 금번에 확인된 2호 수혈유구는 ②에 해당하고 3호 수혈유구는 ①과 유사하다.
외형상 원형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세부적인 특성상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외도동식토기를 동반하는 것에서는 동일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동시기에 서로 다른 형태의 주거지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다른 시기의 주거지 형태가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제주도의 송국리형 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 내의 주혈의 배치만 바뀌면서 500년 이상 지속-된 것을 보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최근 연구성과에 따르면 ③ 초석 주거지는 용담동유적과 화순리유적에서 기원전후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① 형태보다는 상한을 올려 볼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동시기에 공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의 청동기시대~탐라시대 주거지의 변화는 역삼동계 주거지→송국리형 주거지→수혈식 초석 주거지→지상식 초석 주거지(지상건물지)로의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①과 ②는 주거지일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며 ①은 특수목적시설, ②는 대형창고시설로 추정된다.

Ⅳ. 조사내용

금번 정밀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유구는 철기시대~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1동과 수혈유구 3기 등 총 4기이다.



도면 6. 유구배치도

〈철기시대~탐라시대 전기〉

1)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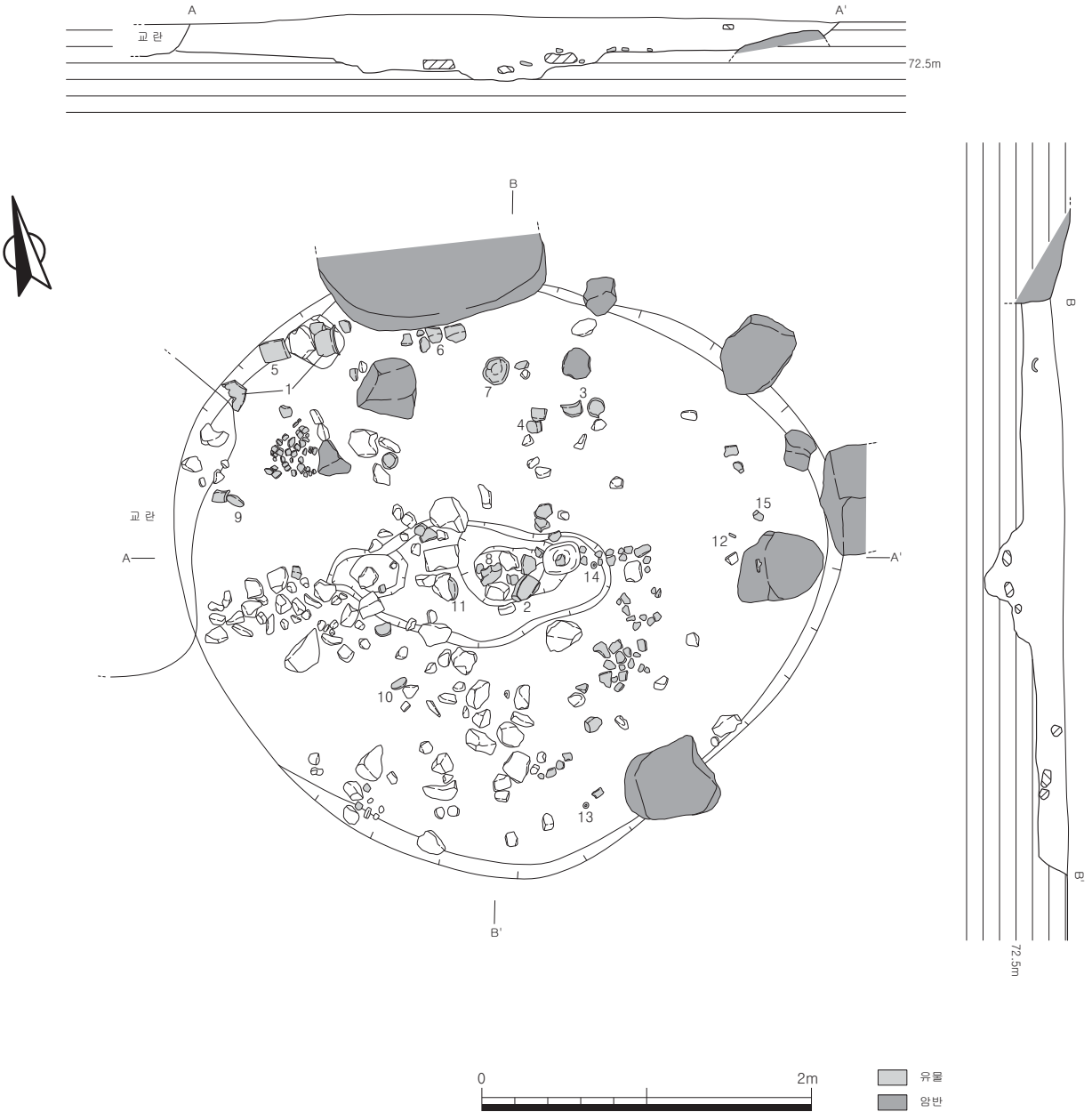
(1) 1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7, 도판 2~5)

유적의 남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 수혈유구에서 동편으로 1.5m 가량 떨어져 있다. 표토 하 30㎝ 정도 깊이의 생토층인 황갈색풍화토층(Hue 10YR 5/6)에서 유구의 어깨선이 확인되고 상부에는 문화층

없이 표토층만 퇴적되어 있다.

조사는 유구 중앙에 '+'자 둑을 설치하여 층위와 내부상황을 파악하면서 4면을 동시에 제토하였다. 세부과정은 실측과 사진촬영을 통하여 기록하였으며 유물의 출토위치는 레벨을 표시하였고 수습유물에 대해서는 주기를 표기하여 출토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면 7. 1호 주거지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403㎝, 단축 347㎝, 깊이 25㎝이다. 장축방향은 N14°E를 향하고 있다. 벽체는 생토층인 황갈색풍화토 및 암반층을 약간 사선으로 굴착하였다. 부분적으로 암반이 유구의 내측까지 들어와 있는데, 유구 축조 시 상부에서는 암반의 분포범위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은 전반적으로 황갈색풍화토를 수평상으로 정리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암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내부 폐기양상을 보면 폐기물이 대부분 바닥에 놓여

있어 바닥 다짐은 하지 않고 굴곡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층위상에서도 뚜렷한 토층의 구분이 없다. 내부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3/2)으로 단일층이며 소량의 소토알갱이와 목탄편을 포함하고 있다. 유구 내부에는 전반적으로 유물이 산재된 채 폐기되어 있고 남서벽 근처에는 자연석이 무질서하게 집중되어 있다. 뚜렷한 의례적 폐기행위는 관찰되지 않는다.

유구 중앙에는 타원형 수혈이 동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규모는 장축 163㎝, 단축 73㎝, 깊이 26㎝이다. 벽체는 사선상으로 굴착하였고 바닥은 수평으로 조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벽체와 바닥 모두 굴곡면이 매우 심하게 형성되어 있다. 타원형 수혈 내부에는 양단에 초석이 배치되어 있다. 동편 초석은 직경 22㎝, 높이 5㎝이고 서편 초석은 직경 21㎝, 높이 5㎝이다. 초석 간의 간격은 72㎝이다. 초석 하부에는 부분적으로 점토를 다져 수평을 맞추었다. 초석 사이인 중앙부와 서편 초석의 서편에는 약간의 홈이 패여 있는데 보조기둥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 고석, 철제품, 토제방추차가 출토된다. 적갈색경질토기편은 산재하고 있고 고석은 남서벽에 폐기된 자연석 사이에서 확인된다. 철제품은 남동벽 근처 바닥에서, 토제방추차는 동벽과 남벽 근처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옹형토기(도면 8-1, 도판 6-1)

옹형토기로 전체의 2/3정도 잔존하며 도상으로 완형 복원가능하다. 유구의 북서편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일부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외면과 내면은 명적갈색, 단면은 갈회색을 띤다. 저부는 축약없이 동체부로 벌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저부에서 동체상부까지 벌어지며 올라가다 구연부에서 외반하여 다시 벌어진다. 내면에는 지두흔과 지두반흔이 관찰된다.

器高 23.9㎝, 推定口徑 16.8㎝, 推定胴最大徑 18.8㎝, 底徑 7.6㎝, 厚 1.3㎝

2. 옹형토기(도면 8-2, 도판 6-2)

옹형토기로 전체의 1/2정도 잔존하며 도상으로 완형 복원가능하다. 타원형수혈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일부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외면과 내면은 명적갈색, 단면은 갈회색을 띤다. 저부는 축약 없이 동체부로 벌어지며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한 편이다. 저부에서 동체상부까지 벌어지며 올라가다 구연부에서 외반하여 다시 벌어진다. 내면에는 지두반흔이 관찰된다.

器高 18.2㎝, 推定口徑 15.6㎝, 推定胴最大徑 16.0㎝, 底徑 6.6㎝, 厚 1.5㎝

3. 발형토기(도면 8-3, 도판 6-3)

천발형 토기로 전체의 1/2정도 잔존하며 도상으로 완형 복원가능하다. 유구의 북동편에서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5㎝정도 떠있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일부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외면과 내면은 명적갈색, 단면은 갈회색을 띤다. 저부는 살짝 축약되어 동체부로 벌어지며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한 편이다. 저부에서 동체상부까지 벌어지며 올라가다 구연부에서 외반하여 다시 벌어진다. 내면과 외면에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器高 9.9㎝, 推定口徑 12.2㎝, 底徑 6.8㎝, 厚 1.1㎝

4. 발형토기(도면 8-4, 도판 6-4)

천발형 토기로 전체의 1/2정도 잔존하며 도상으로 완형 복원가능하다. 유구의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5㎝정도 떠있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일부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외면은 둔한등색 외면은 명적갈색, 단면은 갈회색을 띤다. 저부는 살짝 축약되어 동체부로 벌어지며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한 편이다. 저부에서 구연단까지 외경한다. 내면에 지두흔이 관찰된다.

器高 8.4㎝, 推定口徑 12.2㎝, 底徑 5.2㎝, 厚 0.6㎝

5. 구연부편(도면 8-5, 도판 6-5)

발형으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유구의 북서편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며 일부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화산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외면과 내면은 적갈색, 단면은 회갈색을 띤다. 동체부에서 구연부까지 직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접토접합흔이 내면에는 점토접합흔과 지두흔이 관찰된다.

現高 17.9㎝, 厚 1.4㎝

6. 구연부편(도면 9-6, 도판 6-6)

옹형으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유구의 북편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며 일부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화산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외면은 둔한황갈색, 내면은 둔한황등색, 단면은 회갈색을 띤다. 구연부에서 외반하여 벌어지는 기형이며 구순부는 비교적 편평하다.

現高 11.1㎝, 厚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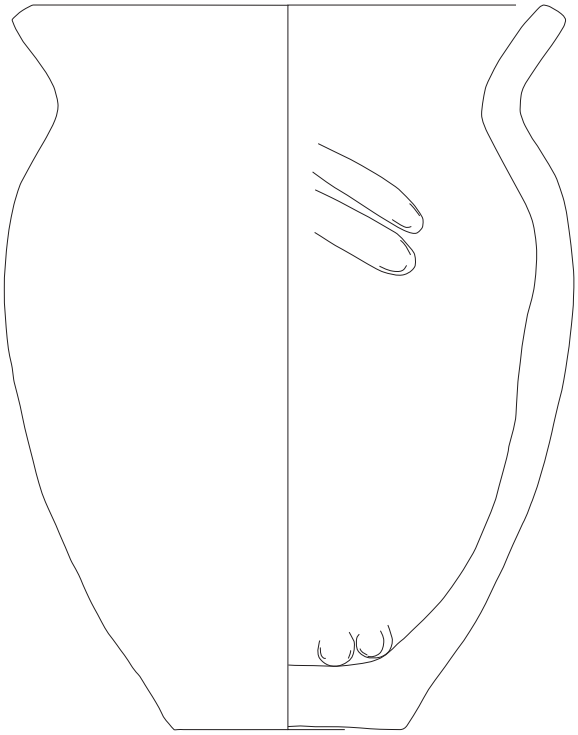
7. 저부편(도면 9-7, 도판 7-7)

일부가 훼손된 저부편이다. 유구의 북편에서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5㎝정도 떠있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외면과 단면은 적갈색, 내면은 암적갈색을 띤다. 축약 없이 동체부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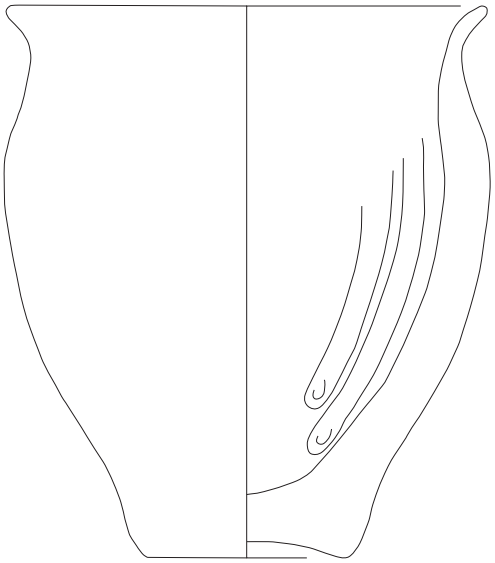
現高 6.3㎝, 底徑 11.0㎝, 厚 1.8㎝

8. 저부편(도면 9-8, 도판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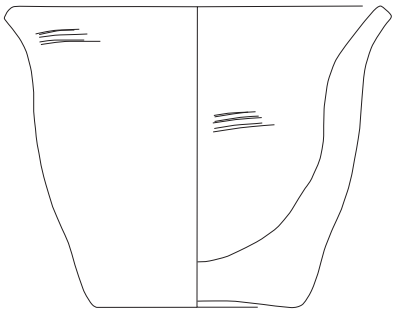
1/2정도 잔존한다. 타원형수혈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회황갈색, 단면은 흑갈색이다. 축약 없이 동체부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중앙부로 갈수록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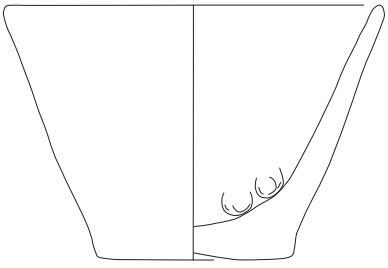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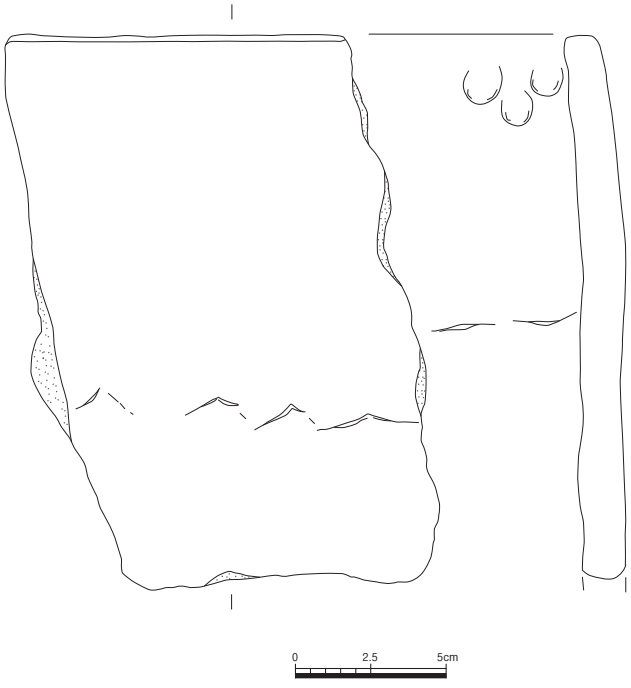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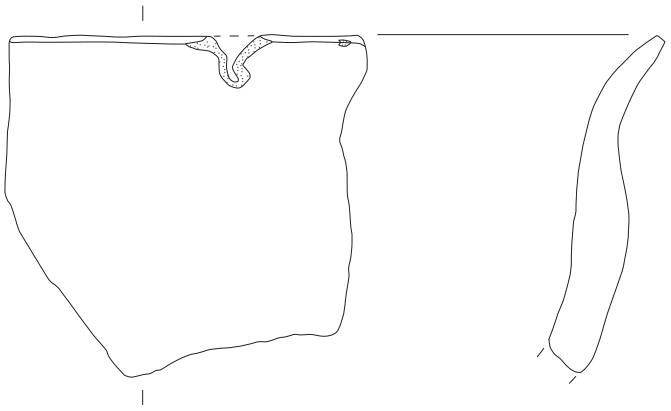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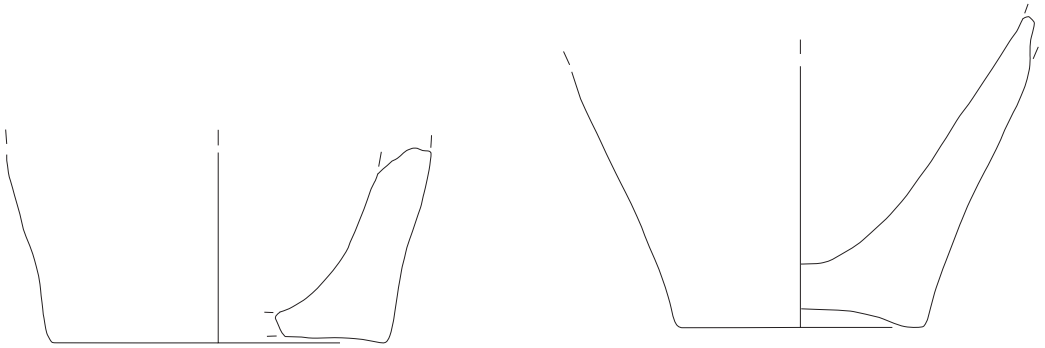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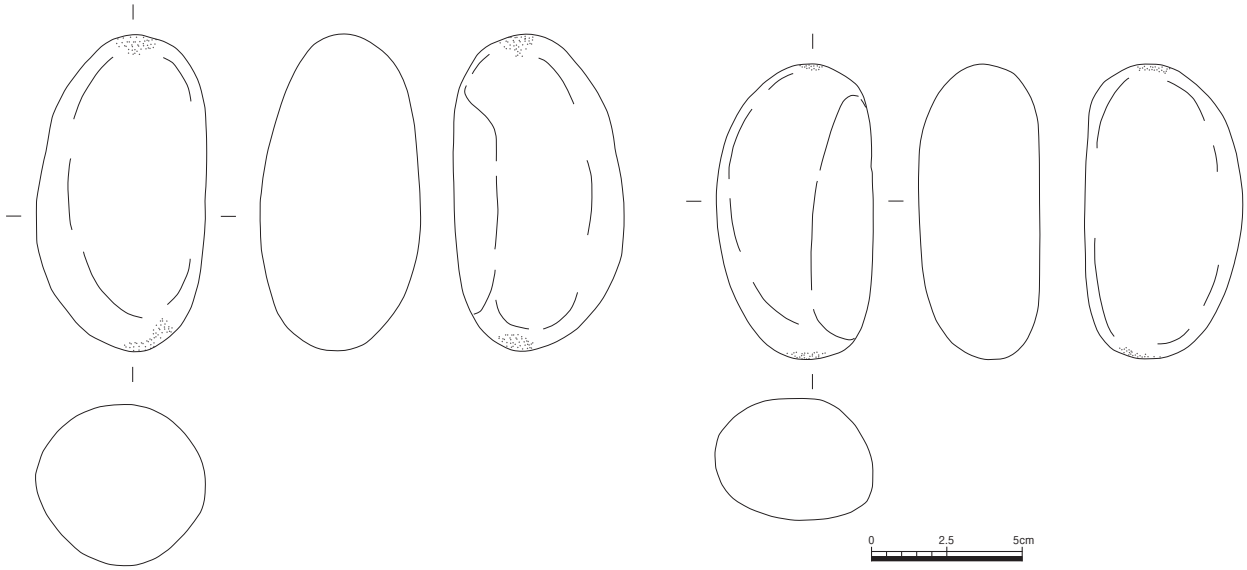
도면 8. 1호 주거지 출토유물



6



7 8



9 10

도면 9. 1호 주거지 출토유물

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現高 10.3㎝, 底徑 8.0㎝, 厚 1.4㎝

9. 고석(도면 9-9, 도판 7-9)

조면현무암제 고석으로 전체가 잔존하며 갈회색을 띤다. 유구의 북서편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평면형태와 종단면은 타원형에 가깝고 횡단면은 원형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가공하였으며 상·하단에 타격흔이 확인된다.

長 10.7㎝, 幅 7.0㎝, 厚 5.0㎝

10. 고석(도면 9-10, 도판 7-10)

조면현무암제 고석으로 전체가 잔존하며 회황갈색을 띤다. 유구의 남서편에서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5㎝정도 떠있다. 평면형태와 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가공하였으며 상·하단에 타격흔이 확인된다.

長 10.7㎝, 幅 7.0㎝, 厚 5.0㎝

11. 연석(도면 10-11, 도판 8-11)

조면현무암제 연석으로 전체가 잔존한다. 회황갈색을 띤다. 타원형수혈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가공하였으며 전면에 마모흔적이 있다.

長 15.7㎝, 幅 11.7㎝, 厚 3.9㎝

12. 철제품(도면 10-12, 도판 8-12)

철도자편으로 추정되며 일부만 잔존한다. 유구의 동편에서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10㎝정도 떠있다.인부는 직선으로 이어지다 선단부 가까이에서 안쪽으로 꺽여 선단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조품이며 단면은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現長 7.9㎝, 刃部幅 2.0㎝, 厚 0.2㎝

13. 토제방추차(도면 10-13, 도판 8-13)

토제방추차로 전체가 잔존한다. 유구의 남편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전후면의 색조는 둔한황갈색이다. 단면형태는 주판알형에 가깝다.

直徑 3.1㎝, 厚 1.4㎝, 透孔直徑 0.6㎝

14. 토제방추차(도면 10-14, 도판 8-14)

토제방추차로 전체가 잔존한다. 타원형수혈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전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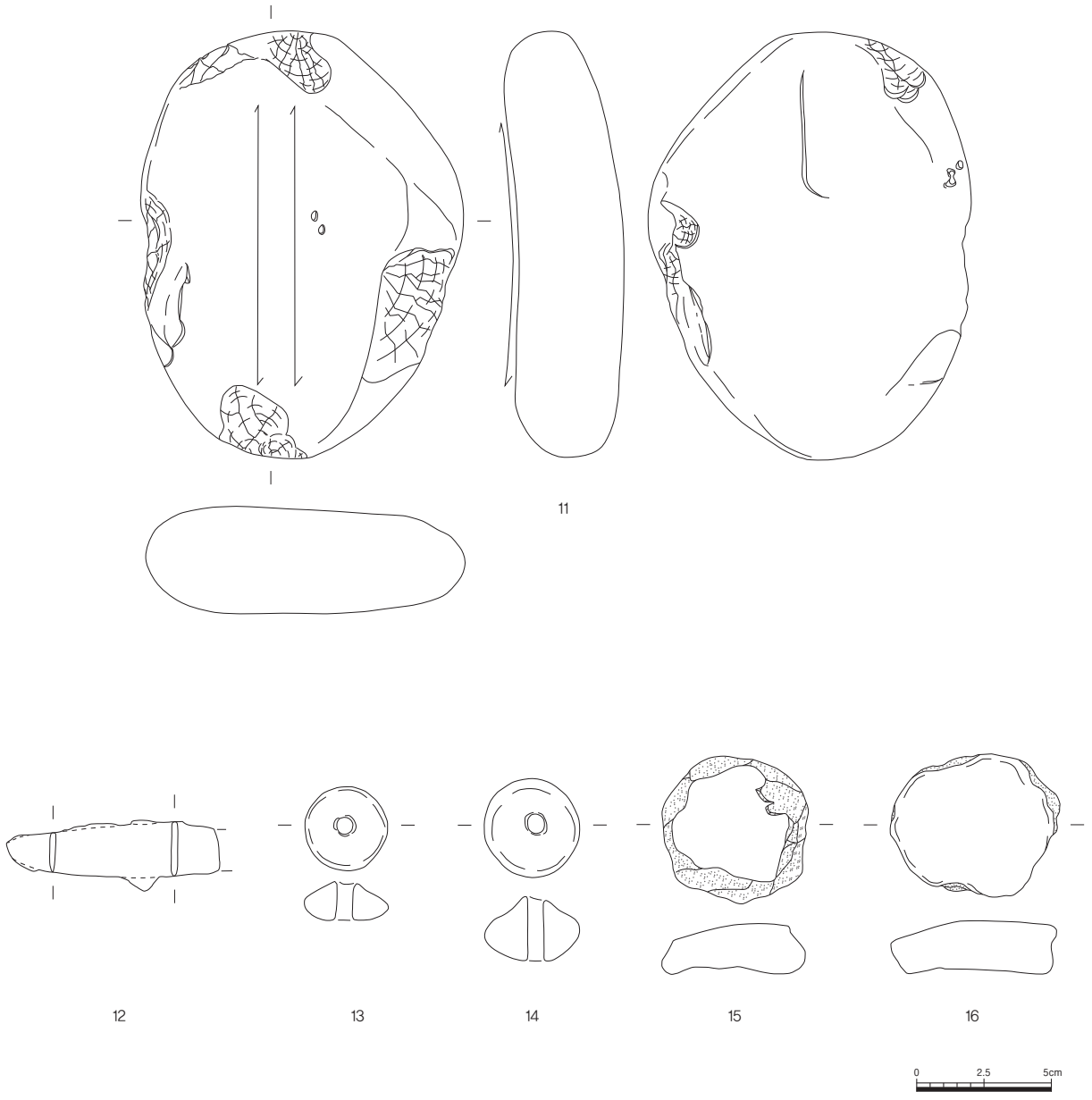
의 색조는 명황갈색이다. 단면형태는 주판알형에 가깝다.

直徑 3.5㎝, 厚 2.4㎝, 透孔直徑 0.6㎝

15. 원판형토제품(도면 10-15, 도판 8-15)

유구의 동편에서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10㎝정도 떠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전면의 색조는 적갈색, 후면과 단면은 회갈색이다. 동체부편을 가공하였으며 측면은 고르지 못하다.

直徑 5.3㎝, 厚 1.8㎝



도면 10.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6. 원판형토제품(도면 10-16, 도판 8-16)

유구의 동편에서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10㎝정도 떠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전면의 색조는 적갈색, 후면은 둔한황갈색, 단면은 회갈색이다. 동체부편을 가공하였으며 측면은 고르지 못하다.

直徑 6.1㎝, 厚 1.8㎝

2)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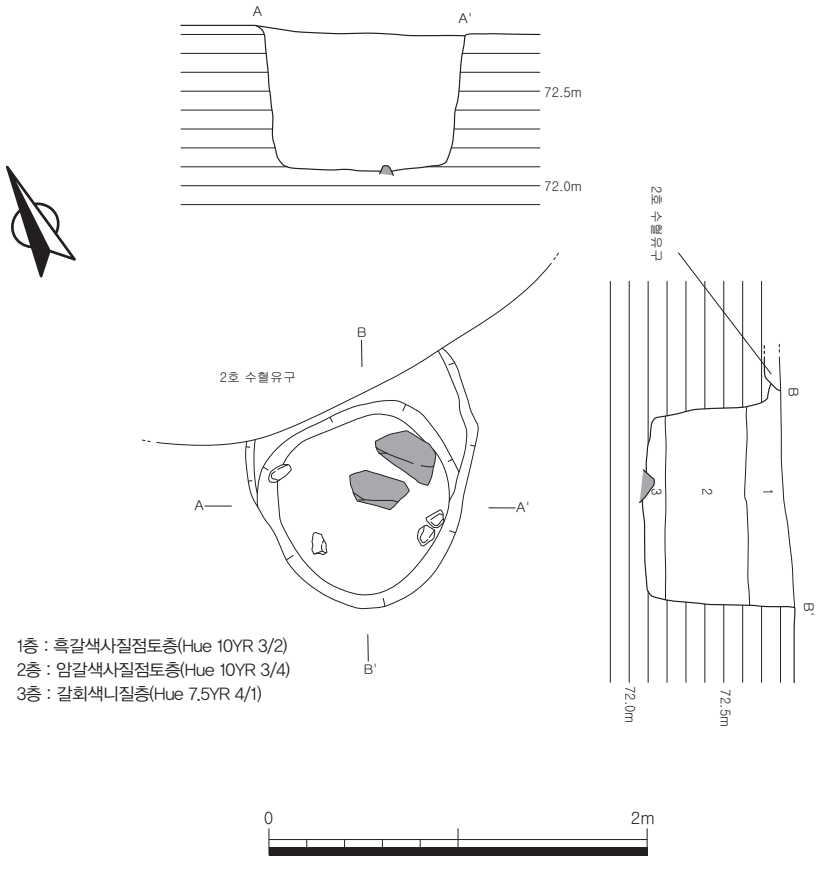
(1) 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1, 도판 9)

유적의 남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 수혈유구의 남벽에 선축되어 있다. 1호 주거지에서 남서편으로 3m 가량 떨어져 있다. 표토 하 30㎝ 정도 깊이의 생토층인 황갈색풍화토(Hue 10YR 5/6)에서 유구의 어깨선이 확인되고 상부에는 문화층 없이 표토층만 퇴적되어 있다.

조사는 유구 중앙에 2호 수혈유구와의 연장선 상에서 '-' 자 둑을 설치하여 층위와 내부상황을 파악하면서 2면을 동시에 제토하였다. 연장된 둑을 통하여 2호 수혈유구와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였다. 세부과정은 실측과 사진촬영을 통하여 기록하였으며 유물의 출토위치는 레벨을 표시하였고 수습유물에 대해서는 주기를 표기하여 출토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잔존장축 113㎝, 단축 108㎝, 깊이 72㎝이다. 장축방향은 N25°E를 향하고 있다. 벽체는 생토층인 황갈색풍화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는데, 북벽의 경우는 10㎝ 정도 굴착한 후 단을 형성하고 다시 수직상으로 하강하였다. 바닥은 대체로 편평하게 조영하였으나



도면 11. 1호 수혈유구

동벽부로는 암반이 돌출되어 있다. 내부토는 3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Hue 10YR 3/2)으로 사질 성분이 강하고 소량의 소토알갱이와 목탄편이 포함되어 있다. 2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Hue 10YR 3/4)으로 점성이 강하고 소량의 소토알갱이와 목탄편이 포함되어 있다. 3층은 갈회색니질층(Hue 7.5YR 4/1)이다. 유구 내부에는 거의 퇴적토로만 채워져 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주변에서 흡수된 물이 1호 수혈유구 내에서 지속적으로 용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구 축조 당시에도 환경적인 조건이 현재와 유사하다면 1호 수혈유구는 어떠한 용도로 축조되었든 실제로는 집수정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 잔편이 출토된다.

(2) 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2, 도판 10~11-④)

유적의 남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1호 수혈유구의 북벽에 후축되어 있다. 북벽으로는 유구의 절반가량이 현대의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1호 주거지에서 서편으로 1.5m 가량 떨어져 있다. 표토 하 30㎝ 정도 깊이의 생토층인 황갈색풍화토(Hue 10YR 5/6)에서 유구의 어깨선이 확인되고 상부에는 문화층 없이 표토층만 퇴적되어 있다.

조사는 유구 중앙에 '+' 자 둑을 설치하여 층위와 내부상황을 파악하면서 4면을 동시에 제토하였다. 또한 중복된 1호 수혈유구와 연장선 상의 둑을 통하여 선후관계를 파악하였다. 세부과정은 실측과 사진촬영을 통하여 기록하였으며 유물의 출토위치는 레벨을 표시하였고 수습유물에 대해서는 주기를 표기하여 출토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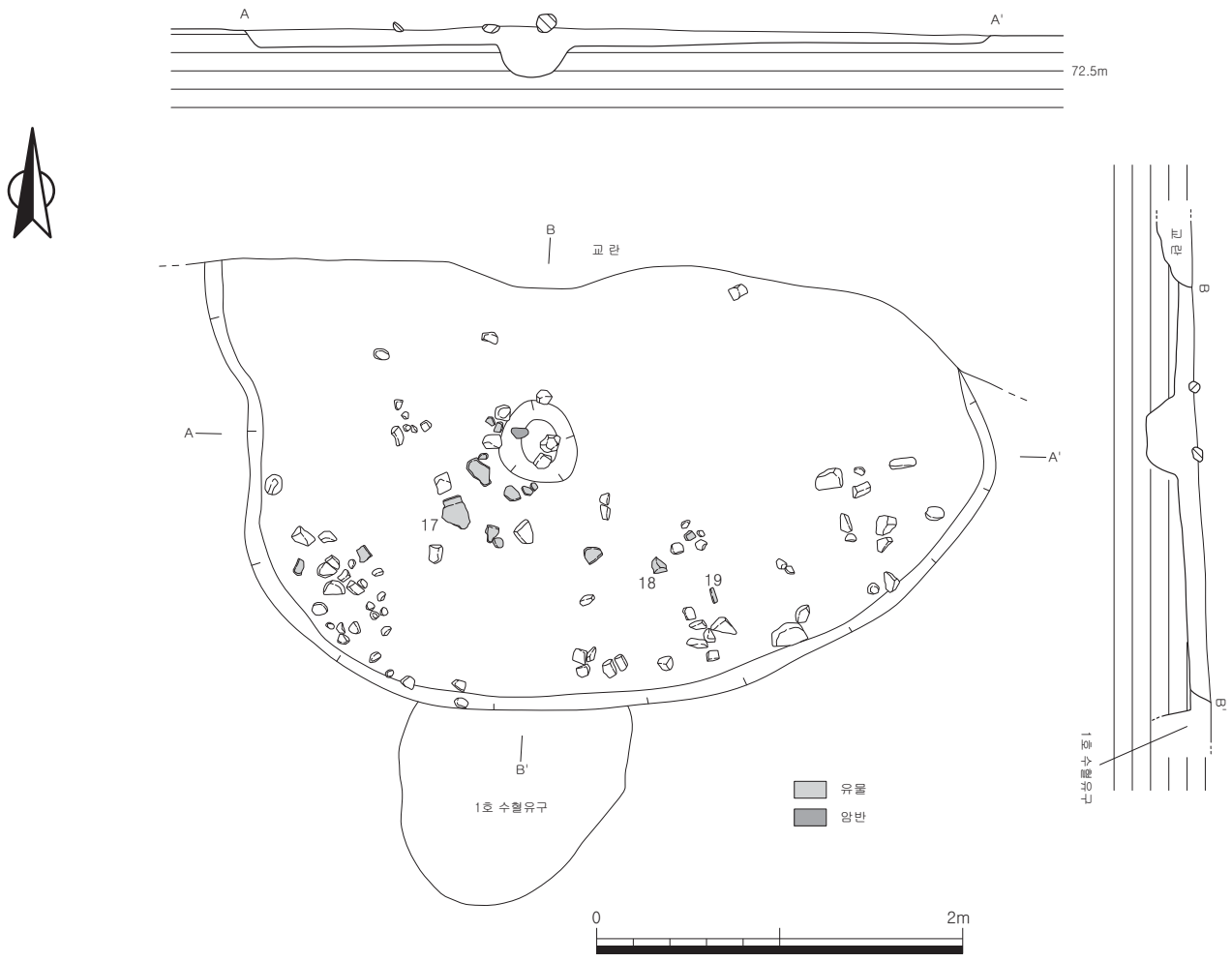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장축 408㎝, 잔존단축 230㎝, 깊이 9㎝이다. 장축방향은 N88°W를 향하고 있다. 벽체는 생토층인 황갈색풍화토를 약간 사선으로 굴착하였고 바닥은 황갈색풍화토를 수평상으로 정리하였다. 벽체와 바닥은 약간의 굴곡이 형성되어 있다. 내부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3/2)으로 단일층이며 소량의 소토알갱이와 목탄편을 포함하고 있다. 유구 내부에는 남벽 근처에 유물과 잡석이 바닥면에 산재된 채 폐기되어 있다. 유구 중앙에서 남서편에 약간 치우쳐서 바닥면에 주혈 1기가 배치되어 있다. 주혈의 내부토는 2호 수혈유구와 동일하여 내부 시설로 판단된다. 규모는 직경 43㎝, 깊이 17㎝이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와 지석이 출토된다.

나. 유물

17. 구연부편(도면 13-17, 도판 11-⑤-17)

옹형으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유구의 남편에서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10㎝ 정도 떠있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며 일부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화산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외면과 내면은 적갈색에 가깝고, 단면은 흑갈색을 띤다. 구연부에서 외반하여 벌어지는 기형이며 구순부는 비교적 편평하다.

現高 18.2㎝, 厚 1.7㎝



도면 12. 2호 수혈유구

18. 저부편(도면 13-18, 도판 11-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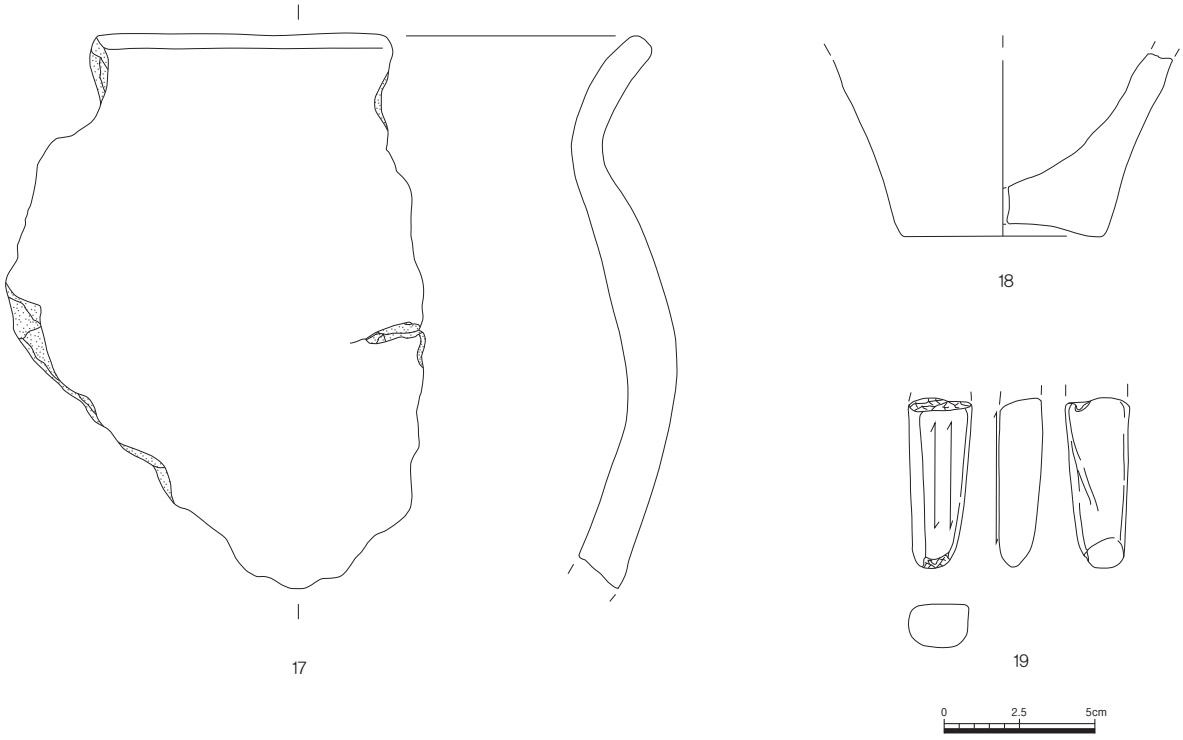
1/2정도 잔존한다. 유구의 남편에서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10㎝정도 떠있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외면과 내면은 적갈색, 단면은 회갈색을 띤다. 저부는 살짝 축약되어 동체부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약하게 굽이 형성되어 있다.

現高 6.0㎝, 底徑 6.6㎝, 厚 1.1㎝

19. 지석(도면 13-19, 도판 11-⑤-19)

사암제 지석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유구의 남편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갈회색을 띤다. 평면형태와 횡단면은 세장방형, 종단면은 장방형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가공하였으며 전면에 마모흔적이 있다.

長 5.6㎝, 幅 2.0㎝, 厚 1.4㎝



도면 13.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3) 3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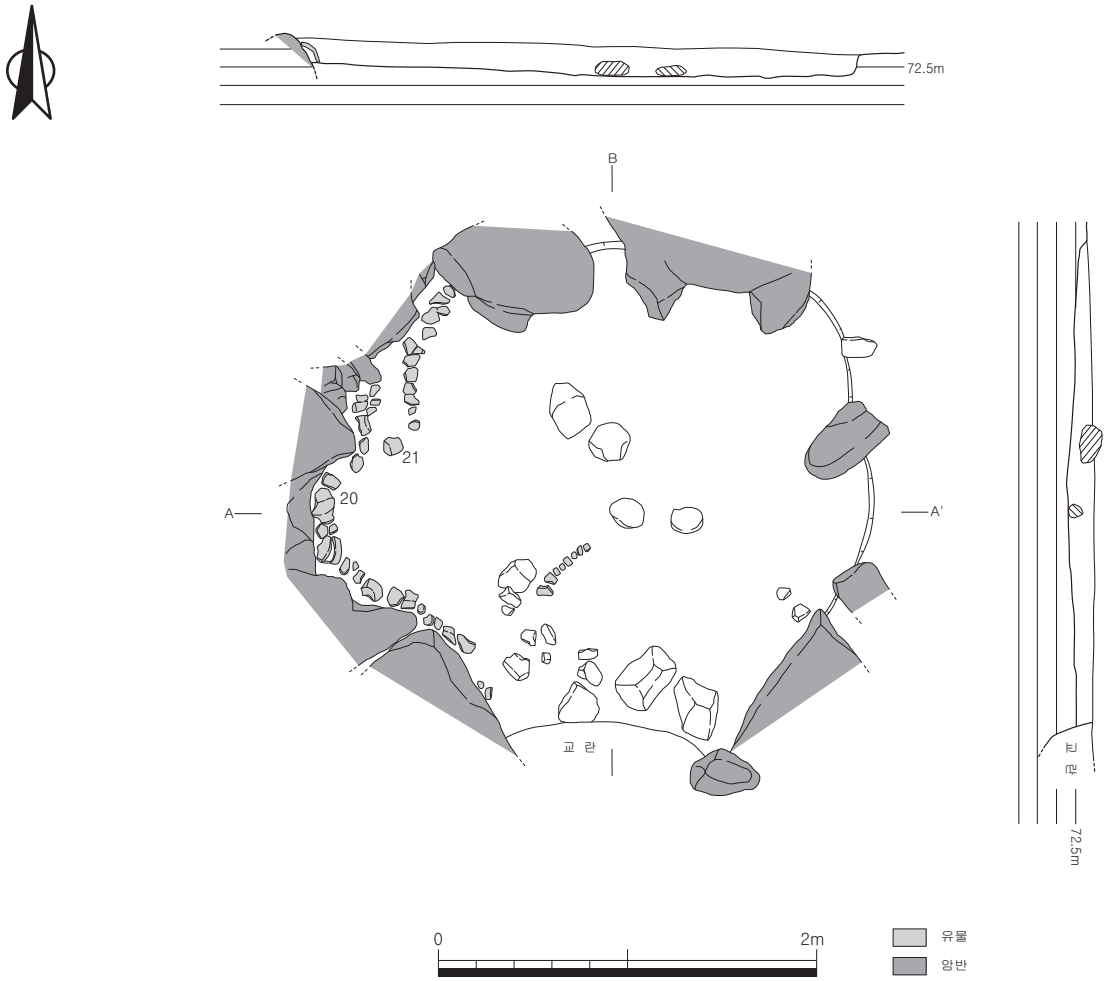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4, 도판 12~14-①)

유적의 북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벽 일부가 현대 교란층에 의해 파괴되었다. 1호 주거지에서 북서편으로 4m 가량 떨어져 있다. 표토 하 40㎝ 정도 깊이의 생토층인 황갈색풍화토(Hue 10YR 5/6)에서 유구가 확인되고 있으나 어깨선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주변을 돌아가면서 암반이 분포하고 있고 벽체에서 '토적시설(土積施設)' 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유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상부에는 문화층 없이 표토층을 포함하는 교란층만 퇴적되어 있다.

조사는 유구 상부의 교란층을 모두 걷어내고 중앙에 '+' 자 둑을 설치하여 층위와 내부상황을 파악하면서 4면을 동시에 제토하였다. 세부과정은 실측과 사진촬영을 통하여 기록하였으며 유물의 출토위치는 레벨을 표시하였고 수습유물에 대해서는 주기를 표기하여 출토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추정장축 302㎝, 추정단축 250㎝, 깊이 8㎝이다. 벽체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1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암반이 유구의 내측까지 들어와 있다. 유구 축조 시 상부에서는 암반의 분포양상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벽부와 남서벽 내측에서 부분적으로 토적시설이 확인된다. 이러한 형태는 외도동유적에서 확인되는 벽구와 유구 중앙을 연결하는 방사상의 구가 굴착되고 그 내부에 토적시설이 된 소위 '외도동식 주거지' 에서 확인된다. 3호 수혈유구의 경우는 구가 확인되지 않고 토적시설만 확인

되고 있는데 상부의 교란으로 인하여 잔존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원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이 출토된다.



도면 14. 3호 수혈유구

나. 유물

20. 구연부편(도면 15-20, 도판 14-②-20)

옹형으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유구의 서편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며 일부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화산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외면은 명갈색, 내면은 명황갈색, 단면은 갈회색을 띤다. 구연부에서 외반하여 벌어지는 기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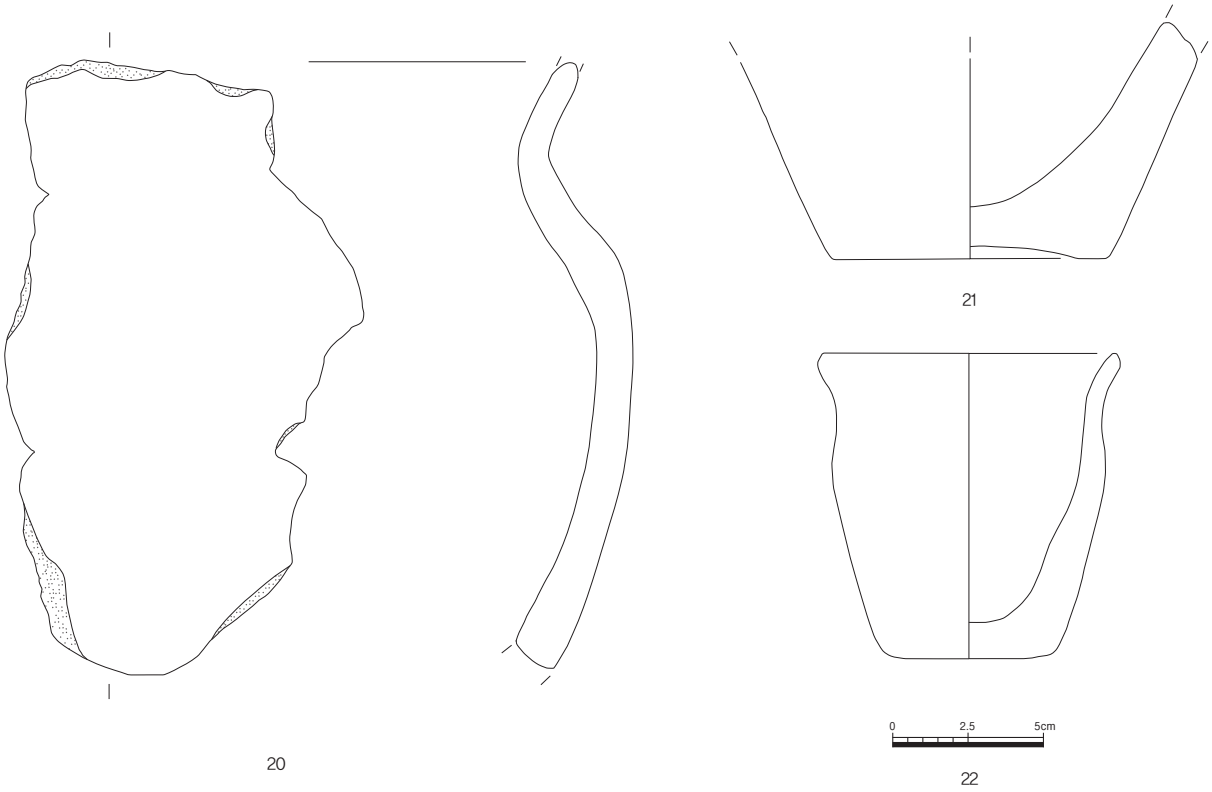
現高 20.0㎝, 厚 1.2㎝

21. 저부편(도면 15-21, 도판 14-②-21)

1/2정도 잔존한다. 유구의 서편 바닥면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박리흔적

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외면과 내면은 명갈색, 단면은 회갈색을 띤다. 저부는 축약없이 동체부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중심부로 갈수록 들려 있는 형태를 보인다.

現高 7.8㎝, 底徑 9.0㎝, 厚 1.8㎝



도면 15. 3호 수혈유구 출토유물(20~21) · 지표수습유물(22)

3) 지표수습유물

22. 발형토기(도면 15-22, 도판 14-②-22)

소형의 발형토기로 추정된다. 1/3정도 잔존하며 도상으로 완형 복원가능하다. 조사대상지 북편 제토면 상부에서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일부 박리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으로 보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화산암류로 이루어졌다. 외면과 내면은 명갈색, 단면은 갈회색을 띤다 . 저부는 축약 없이 동체부로 벌어지며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한 편이다. 구연부에서 외반하여 벌어지는 기형이며 구순부는 비교적 둥글게 처리되었다.

器高 10.1㎝, 推定口徑 9.6㎝, 底徑 4.0㎝, 厚 0.9㎝

Ⅳ. 조사성과

금번 조사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7-5번지 창고신축 부지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이다. 조사면적은 205㎡이다.

조사대상지는 해안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6㎞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는 73m 내외의 평지로 북쪽으로 갈수록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지에서 서쪽으로 2.8㎞ 지점에는 파군봉(바굼지오름, 해발 84.5m)이, 북동쪽으로 4.3㎞ 지점에는 도두봉(해발 65.3m)이 자리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동쪽으로 1.5㎞ 이내에는 외도천, 어시천, 도근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시천과 도근천이 먼저 합수되고 월대 인근에서 외도천과 합수되어 바다로 빠져 나간다.

본 유적과 관련된 주변유적으로는 외도운동장부지유적, 외도동유적, 외도동유적Ⅱ, 외도동유적Ⅲ등이 있다. 주변에는 광령리 1·2호 지석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광령리 1호 지석묘와는 50m 정도의 거리에 불과하다. 광령리·외도동 지석묘군은 제주도내에서 지석묘의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수량 또한 가장 많다.

조사대상지는 서쪽 농로에서 2m 정도 단을 형성하여 내려가는 곳의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동쪽 필지로는 다시 1.5m 이상의 단을 이루며 내려가고, 남쪽 필지로는 1.5~2m 가량 단을 형성하며 올라간다. 지형적인 특성상 서편과 남편으로는 일정 부분 삭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대상지 내에는 전반적으로 생토면 혹은 그 이하까지 삭평되거나 굴착이 이루어져 표토층 하부에서 곧바로 생토층이 확인된다. 다만, 북동편 일부에는 원토양이 잔존하고 있다. 북동편에서는 1층: 표토층(흑갈색부식토층, 두께는 15~30㎝ 내외)-2층:자연퇴적층(암회황색사질점토층, 7~15㎝ 내외)-3층:생토층(황갈색풍화토층)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철기시대~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1동, 수혈유구 3기 등 총 4기이다. 주거지는 원형이며 장축 403㎝이고 내부 중앙에 초석이 배치되어 있다. 수혈유구는 모두 타원형이며 장축 1~4m이다. 집수정, 대형 창고, 특수목적(의례)과 관련된 시설 등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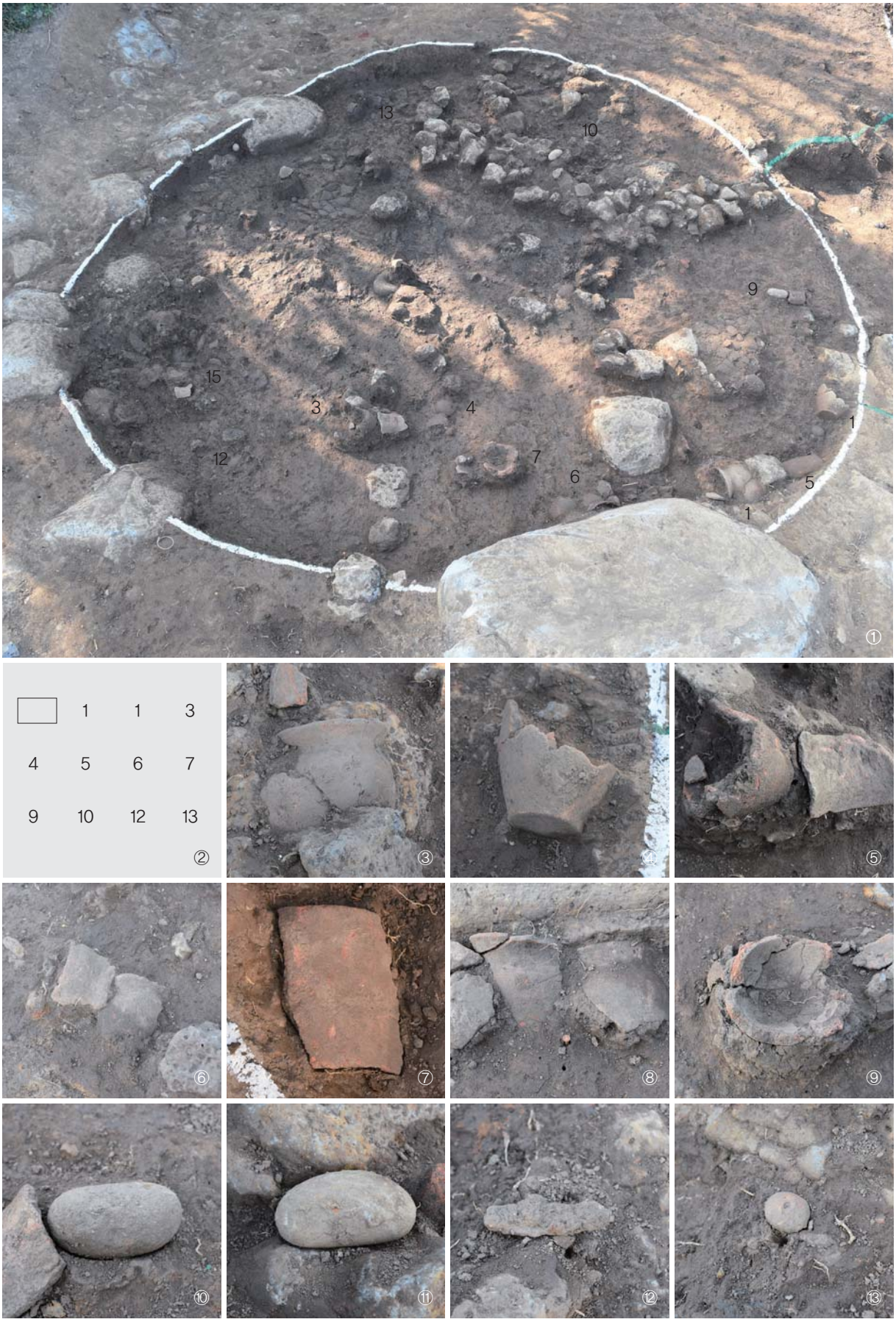
금번 조사에서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 고석, 지석, 철제품, 토제방추차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적갈색경질토기편이며 외반구연호인 외도동식토기에 해당한다. 다만, 전체적인 기형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석과 지석은 마모흔이 뚜렷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철제품은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는데 부식이 심하여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잔존 상태를 보면 철도자 혹은 판상의 도구로 추정된다. 토제방추차는 2점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타원형이고 직경 1.5㎝ 미만의 소형이다.

초석 주거지와 외도동식토기를 통하여 그간의 외도동에서 축적된 자료를 참고하면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후~ 3세기로 판단된다.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①:원경[공중촬영,S→N], ②:전경[공중촬영,N→S])

도판 2. 1호 주거지(①:전경[N→S], ②:단면[SW→NE], ③:단면[NE→SW])



도판 3. 1호 주거지(①:전경[N→S], ②:유물출토모습 유물번호 배치, ③~⑬:유물출토모습)

도판 4. 1호 주거지(①·②:전경[N→S], ③~⑥:유물출토모습)

도판 5. 1호 주거지(①:전경[N→S], ②·④·⑤:타원형구덩이 전경[N→S], ③:타원형구덩이 단면[SE→NW], ⑥:동편 초석, ⑦:서편 초석)

도판 6. 1호 주거지(출토유물, 1~6)

7

8

9

10

도판 7. 1호 주거지(출토유물, 7~10)

11

12

13

14

15

16

도판 8. 1호 주거지(출토유물, 11~16)

도판 9. 1호 수혈유구(①·③:전경[S→N], ②:단면[E→W])

도판 10. 2호 수혈유구(①·③:전경[N→S], ②:단면[NE→SW], ④~⑥:유물출토모습)

도판 11. 2호 수혈유구(①:전경[N→S], ②·④:내부 주혈 전경[N→S], ③:내부 주혈 단면[E→W], ⑤:출토유물[17~19])

도판 12. 3호 수혈유구(①:전경[N→S], ②:단면[SW→NE], ③:단면[NE→SW])

도판 13. 3호 수혈유구(①:전경[N→S], ②:중앙부 토적시설 세부[SE→NW])

도판 14. 3호 수혈유구(①: 서벽 토적사설 세부[E→W], ②:출토유물[20·21]), 지표수습유물(②22)

도판 15. 학술자문회의 모습

부 록

Carbon Analysis Lab.
(주)카본에널리시스랩

1. 시험 및 분석 기관

기 관 명	㈜카본에널리시스랩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14번길 25 (삼성동11)
전화번호	042-636-3273
시험기관 개요	㈜CAL은 AMS를 이용해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을 수행함에 있어 동위원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시간(30분~45분)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긴 작업을 거치는 화학, 물리전처리(4일~5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임.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광령리 1607-5 발굴조사에 관하여 의뢰한 2개의 목탄시료는 물리전처리, 화학전처리, 흑연화 과정을 거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AMS측정을 의뢰하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연대보정 및 분석을 함.

2. AMS시험 측정기관

기 관 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화번호	042-868-3392
시험기관 개요	지질자원분석실은 현재 10여명 연구원이 수십 종의 첨단분석장비를 갖추고 매년 15,000여개 이상의 각종 지질 환경 및 소재 관련 시료들에 대한 정성/정량분석, 광물감정 및 물성측정,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지원하고 있음. 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ry)을 이용하여 ^{12}C, ^{13}C, ^{14}C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함.

2017. 12. 20.

㈜카본에널리시스랩 대표이사 성 기 석

Carbon Analysis Lab.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요약서

의뢰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보고일 2017-12-20

Carbon Analysis Lab. 시료접수 완료일 2017-11-30

시 료 명	탄소연대 (yrs BP)	연대오차 (yrs BP)	$\delta^{13}C$(‰)	PMC(%)
1호주거지 서편 바닥면(목탄)	1920	30	-23.96	78.73
3호수혈 북서편 토기 하부 (목탄)	1980	30	-24.49	78.19

Radio carbon dating service + FCF measurement service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14번길 25 2층 **www.ca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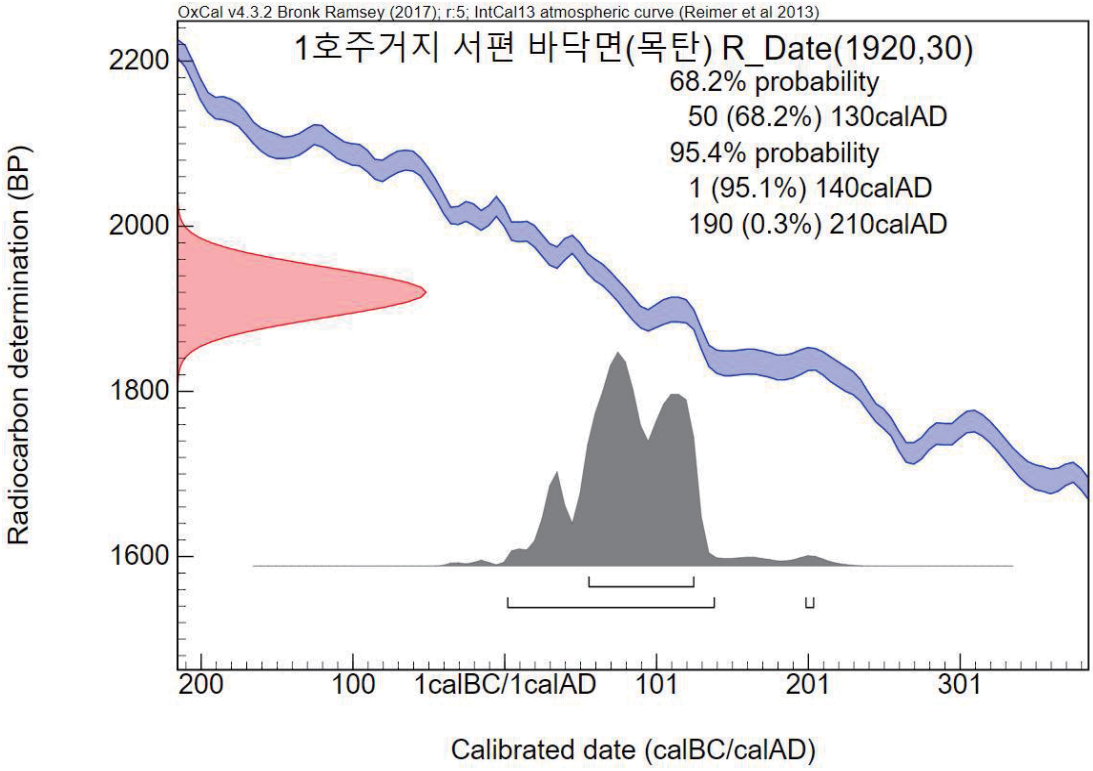
T 042 636 3273 **F** 042 637 3273 **sungks3273@gmail.com**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시 료 명 :	1호주거지 서편 바닥면(목탄)	의 뢰 인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의 뢰 일 :	2017-11-30	보 고 일 :	2017-12-20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1920	30	1950 ~ 1890	78.73	0.3

$\delta^{13}C$(‰)	$\delta^{13}C$ 오차(‰)	$\Delta^{14}C$(‰)	$\Delta^{14}C$오차(‰)	^{12}C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3.96	0.62	-219.07	2.99	376.3	2160



2 Sigma 보정 결과:
(95.4% probability)

AD 1 ~ AD 140(95.1%)
AD 190 ~ AD 210(0.3%)

1 Sigma 보정 결과:
(68.2% probability)

AD 50 ~ AD 130(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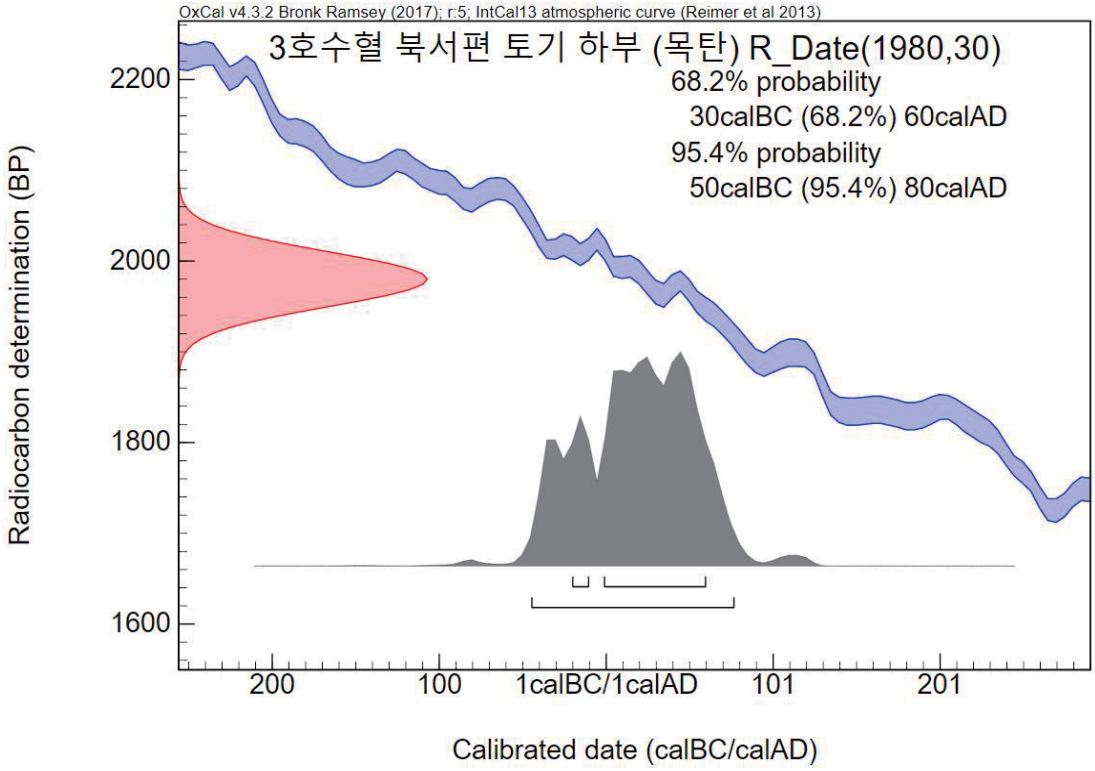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embed.php?file=oxcal.html)
  (Heaton,et. Al.,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et.al,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C$ 및 $\Delta^{14}C$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C$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시 료 명 :	3호수혈 북서편 토기 하부 (목탄)	의 뢰 인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의 뢰 일 :	2017-11-30	보 고 일 :	2017-12-20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1980	30	2010 ~ 1950	78.19	0.3

$\delta^{13}C$(‰)	$\delta^{13}C$ 오차(‰)	$\Delta^{14}C$(‰)	$\Delta^{14}C$오차(‰)	^{12}C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4.49	1.77	-224.39	2.97	379.6	2160



2 Sigma 보정 결과:
(95.4% probability) **BC 50 ~ AD 80(95.4%)**

1 Sigma 보정 결과:
(68.2% probability) BC 30 ~ AD 60(68.2%)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embed.php?file=oxcal.html)
  (Heaton,et. Al.,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et.al,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C$ 및 $\Delta^{14}C$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C$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명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7-5번지 창고신축 부지내 소규모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제2017-1404호)		
유적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7-5번지		
조사면적	205㎡	조사기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기간	2017. 11. 10 ~ 2017. 11. 17	회의 일시	2017. 11. 17.
유적현황 및 성격	중앙에 타원형 수혈이 있는 주거지 1동, 대형의 수혈유구 2동 수혈유구 1동 등 유구가 확인된다. 유구의 주변에서 적갈색경질 토기, 고배, 저부, 철제품, 방추차 등이 확인된다. 주거에서 출토유물을 감안할때 유적의 축조연대는 AD 3세기 전후로 판단됨		
조사기관 검토의견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방법과 조사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추가 의견	기록보존 後 공사이행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김 종 찬 (인)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박 근 태 (인)

2017년 11월 17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귀하

제주 광령리 1607-5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404 -0001	옹형토기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23.9	16.8	7.6 (1.3)	8-1 6-1	Y
2017-1404 -0002	옹형토기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18.2	15.6	6.6 (1.5)	8-2 6-2	Y
2017-1404 -0003	발형토기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9.9	12.2	6.8 (1.1)	8-3 6-3	Y
2017-1404 -0004	발형토기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8.4	12.2	5.2 (0.6)	8-4 6-4	Y
2017-1404 -0005	구연부편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17.9		(1.4)	8-5 6-5	Y
2017-1404 -0006	구연부편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11.1		(1.5)	9-6 6-6	Y
2017-1404 -0007	저부편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6.3		11.0 (1.8)	9-7 8-7	Y
2017-1404 -0008	저부편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10.3		8.0 (1.4)	9-8 8-8	Y
2017-1404 -0009	고석	1	1호 주거지	옥석	철기~탐라	(10.7)	(7.0)	(5.0)	9-9 8-9	Y
2017-1404 -0010	고석	1	1호 주거지	옥석	철기~탐라	(10.7)	(7.0)	(5.0)	9-10 8-10	Y
2017-1404 -0011	연석	1	1호 주거지	옥석	철기~탐라	(15.7)	(11.7)	(3.9)	10-11 8-11	Y
2017-1404 -0012	철제품	1	1호 주거지	금속	철기~탐라	(7.9.)	(2.0)	(0.2)	10-12 8-12	Y
2017-1404 -0013	토제방추차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3.1)		(1.4)	10-13 8-13	Y
2017-1404 -0014	토제방추차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3.5)		(2.4)	10-14 8-14	Y
2017-1404 -0015	원판형토제품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5.3)		(1.8)	10-15 8-15	Y
2017-1404 -0016	원판형토제품	1	1호 주거지	토도	철기~탐라	(6.1)		(1.8)	10-16 8-16	Y
2017-1404 -0017	구연부편	1	2호 수혈유구	토도	철기~탐라	18.2		(1.7)	13-17 11-17	Y
2017-1404 -0018	저부편	1	2호 수혈유구	토도	철기~탐라	6.0		6.6 (1.1)	13-18 11-18	Y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404 –0019	지석	1	2호 수혈유구	옥석	철기~탐라	(5.6)	(2.0)	(1.4)	13–19 11–19	Y
2017–1404 –0020	구연부편	1	3호 수혈유구	토도	철기~탐라	20.0		(1.2)	15–20 14–②–20	Y
2017–1404 –0021	저부편	1	3호 수혈유구	토도	철기~탐라	7.8		9.0 (1.8)	15–21 14–②–21	Y
2017–1404 –0022	발형토기	1	지표	토도	철기~탐라	10.1	9.6	4.0 (0.9)	15–22 14–②–22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제주 광령리 1607-5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住所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2길 3		
	TEL	(064) 712-8362~3	FAX	(064) 712-8361
執筆 · 編輯者	고재원 · 나정욱 · 박경민 · 김현정 · 고은경			
調査 緣由	창고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조사			
發掘調査者	고재원 · 나정욱 · 박경민 · 김현정 · 고은경			
遺蹟調査地番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7-5번지			
調査面積	205㎡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철기~탐라시대	1	적갈색경질토기, 고석, 지석, 토제방추차, 원판형토제품, 철제품	
수혈유구		3		

2017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권별 유적 목록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Ⅰ	1	경주 황남동 95-1번지 유적	Ⅶ	45	경주 황남동 231번지 유적
	2	무안 양장리 1117-3번지 유적		46	합천 구원리 506 · 507번지 유적
	3	경주 신서리 208-12번지 외 1필지 유적		47	제주 건입동 1378-1번지 유적
	4	영광 녹사리 89-35번지 유적		48	경주 인왕동 696-1번지 유적
	5	하남 미사동 411번지 외 1필지 유적		49	경주 인왕동 696-9번지 유적
	6	경주 구황동 657번지 유적	Ⅷ	50	경주 인동리 696-2번지 유적
	7	강릉 방동리 63-20번지 유적		51	경주 교동 145번지, 146번지 유적
	8	경주 율동 산3-14번지 유적		52	춘천 천전리 97-8번지 외 2필지 유적
Ⅱ	9	청주 송절동 447번지 유적		53	함안 가야리 133-8번지 유적
	10	서울 가회동 31-6번지 유적		54	춘천 우두동 118번지 외 2필지 유적
	11	경주 배동 181번지 유적		55	창원 진동리 246-3번지 유적
	12	양평 양수리 769-8번지 유적	Ⅸ	56	경주 율동 산2-6번지 유적
	13	부여 쌍북리 343번지 유적		57	경주 망성리 382-3, 383-3번지 유적
	14	청양 왕진리 599번지 유적		58	제주 광령리 1815-3번지 유적
	15	김해 대성동 145-1번지 유적		59	제주 외도1동 34-5번지 유적
	16	서울 권농동 171-12번지 유적		60	가평 청평리 714-4번지 유적
	17	서울 암사동 115번지 유적		61	대구 비산동 265-9번지 유적
	18	제주 광령리 1622-1번지 유적	Ⅹ	62	제주 삼양1동 1662-11번지 유적
Ⅲ	19	가평 청평리 709-5번지 유적		63	춘천 신매리 70-6번지 일원 유적
	20	김해 봉황동 303-5번지 유적		64	양평 앙덕리 50-2번지 유적
	21	용인 마북동 502-398번지 유적		65	울산 상안동 411-2번지 유적
	22	공주 중동 49-6번지 유적		66	창녕 교리 384-10번지 유적
	23	춘천 신매리 786번지 유적		67	부여 구아리 89-5번지 유적
	24	김해 대성동 123번지 유적		68	부여 구아리 89-4번지 유적
Ⅳ	25	경산 조영동 251-7번지 유적		69	부여 구아리 89-10번지 유적
	26	대구 욱수동 115번지 유적	Ⅺ	70	김해 봉황동 223-13번지 유적
	27	하남 춘궁동 303-1번지 유적		71	경주 밀구1길 158-34 유적
	28	강화 관청리 697번지 유적		72	제주 용담2동 2704-5번지 유적
	29	구미 신기리 70-23번지 유적	Ⅻ	73	김해 서상동 222-2번지 유적
	30	성주 성산리 979-2번지 유적		74	울산 동동 505-2번지 유적
	31	서울 누하동 224번지 유적		75	춘천 지내리 679-4번지 유적
Ⅴ	32	경주 용강동 1175-18번지 유적		76	하남 항동 142번지 유적
	33	강릉 초당동 316번지 유적		77	경주 황남동 229-19번지 유적
	34	춘천 신매리 393-1번지 유적		78	경주 탑동 514-4번지 외 1필지 유적
	35	강화 신문리 627-2번지 유적		79	제주 곽지리 2017-2번지 유적
	36	울산 서동 200번지 유적	ⅩⅢ	80	공주 중동 54번지 유적
	37	춘천 천전리 64-11번지 유적		81	경주 황오동 42-4번지 유적
Ⅵ	38	경주 탑동 56-8 · 14번지 유적		82	경주 배동 545-4번지 유적
	39	경주 소현리 109번지 유적		83	대전 읍내동 306-6번지 유적
	40	경주 황남동 189-2번지 외 1필지 유적		84	제주 감산리 1500-1번지 유적
	41	부여 쌍북리 389-2번지 유적		85	공주 중동 50-5번지 유적
	42	산청 강누리 451-2번지 유적		86	고령 고곡리 940번지 유적
	43	광주 신창동 552-23번지 유적		87	경산 부적리 286-1, 268-2번지 유적
Ⅶ	44	경주 황남동 232번지 유적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XIV	88	경주 남산동 222-9번지 유적	XX	130	김해 동상동 722-13번지 유적
	89	서울 체부동 111-2번지 유적		131	하남 미사동 409-8번지 유적
	90	고령 고아리 20-2번지 유적		132	울진 화성리 402번지 유적
	91	경주 아화리 140-4번지 유적		133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92	부여 관북리 147-2번지 유적		134	서울 누하동 176번지 유적
	93	강릉 초당동 248-2번지 유적	XXI	135	광주 상번천리 526-1번지 유적
	94	경주 아화리 140-1번지 유적		136	옥천 금산리 157번지 유적
	95	경주 아화리 140-3번지 유적		137	안성 중복리 605-4번지 유적
	96	경주 개곡리 836번지 유적		138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유적
XV	97	경주 인왕동 814-3번지 유적		139	사천 선진리 1055번지 유적
	98	경주 인왕동 814-4번지 유적		140	서울 효자동 33-1번지 유적
XVI	99	경주 방어리 39, 39-4번지 유적		141	대전 읍내동 338-1번지 유적
	100	제주 용담2동 2623-11번지 유적		142	춘천 신매리 210-2번지 외 1필지 유적
	101	제주 화순리 757-2, 757-5번지 유적		143	울주 석천리 250-4번지 외 1필지 유적
	102	경주 조전리 601-8번지 유적		144	제주 광령리 1607-5번지 유적
	103	경주 괘릉리 산37-1번지 유적	XXII	145	춘천 신매리 111-29번지 외 1필지 유적
	104	김해 동상동 841번지 유적		146	김해 내삼리 794-2번지 유적
XVII	105	제주 용담2동 652-33번지 유적		147	강릉 초당동 330번지 유적
	106	제주 삼양2동 2101-18번지 유적		148	김해 동상동 538-6번지 유적
	107	보은 병원리 246-3번지 유적		149	군위 화북리 632번지 유적
	108	울주 대대리 541번지 유적		150	경주 동부동 37번지 유적
	109	영양 청기리 243-4번지 유적		151	제주 삼양2동 2140-6번지 유적
	110	고령 연조리 594-4번지 유적		152	대구 불로동 30-14, 30-15번지 유적
	111	포항 구만리 328번지 유적		153	춘천 장학리 439-8번지 유적
	112	경주 성건동 326-4번지 유적	XXIII	154	경산 조영동 251-22번지 외 1필지 유적
XVIII	113	가평 청평리 721-5번지 외 1필지 유적		155	홍천 신장대리 63-15번지 유적
	114	경주 동부동 32-1번지 유적		156	경주 구황동 875-3번지
	115	경주 황남동 150-3번지 유적		157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
	116	강릉 초당동 124-3번지 유적		158	상주 무양동 202-1번지 유적
	117	부산 월내리 237-14번지 유적	XXIV	159	울산 중산동 684-2, 532-20번지 유적
	118	경산 소월리 907, 907-1번지 유적		160	제주 함덕리 3363번지 유적
	119	공주 반죽동 288번지 유적		161	경주 화곡리 22번지 유적
	120	서울 누하동 175-3번지 유적		162	정선 덕천리 29-3번지 유적
	121	하남 미사동 254-1번지 유적		163	춘천 신매리 67-8번지 유적
	122	함안 묘사리 산134번지 유적		164	제주 화순리 695-4번지 유적
XIX	123	경주 아화리 136-4번지 외 1필지 유적	XXV	165	제주 함덕리 3366-1번지 유적
	124	경주 아화리 136-6번지 유적		166	부여 쌍북리 615-5번지 유적
	125	경주 화산리 314번지 유적		167	상주 외답동 45-2, 45-3번지 유적
	126	공주 반죽동 281-5번지 유적		168	부여 가탑리 94-7번지 유적
	127	경주 소현리 115번지 유적		169	부여 동남리 235번지 유적
	128	춘천 금산리 446-2번지 유적		170	창녕 교리 523-1번지 유적
	129	춘천 지내리 680-2번지 외 1필지 유적		171	경주 황오동 42-2번지 유적
				172	경산 조영동 239-26번지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393책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I

| 135~144 |

2019년 12월 20일 印刷
2019년 12월 23일 發行

編 輯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http://www.cprc.or.kr)

發 行 : 한국문화재재단(http://www.chf.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02)3011-2173 Fax.02)566-5954
ISBN 978-89-6433-271-9
978-89-6433-018-0 (세트)

印 刷 : 창조사
Tel.062)234-0904 Fax.062)222-8558